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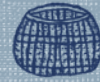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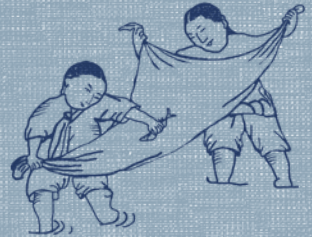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FISHERY

한국 생업 기술 사전

어업 2

오스레크트표음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FISHERY

한국 생업 기술 사전

어업
2

오스
크트표음

한국생업기술사전

어업 ②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FISHERY

발행일

2021년 12월 17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141

발행인

김종대

총괄

이관호

기획

강경표

편수원

김나경, 류건옥, 은현정, 이란섭, 한효주

윤문·교열

엄민용, 김용준, 이기희, 유인선, 이아름, 현다연

디자인·제작

(주)사월오일(김은정, 여의주)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378-01

ISBN

978-89-289-0305-4: 비매품

978-89-289-0303-0(세트)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FISHERY

한국 생업 기술 사전

어업
2

오스
크트표음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과 함께 많은 분들이 민속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일곱 번째 주제인 <한국생업기술사전>의 ‘어업(漁業)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우리 민족의 주요 생업인 어업 기술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부터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화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을 발간하여 한국의 민속을 집대성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한국생업기술사전> <한국민속사회사전> <한국민속용어사전>까지 모두 한국 민속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창조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전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위원, 감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종대**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크게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전5권을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하였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 ‘무속신앙 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 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 편’(1·2권)을 발간하였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설화 편’(1·2권), 2013년에 ‘민요 편’과 ‘판소리 편’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1·2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제5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민속극 편’과 ‘민속놀이 편’을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음악·농악·무용·민화 편’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제6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의생활 편’(1·2권)을 발간하였고, 2018년에는 ‘식생활 편’을 발간하였으며, 2019년에는 ‘주생활 편’을 발간하였다. 2020년에는 제7주제인 <한국생업기술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농업 편’(1·2권)을 발간하였고, 올해는 <한국생업기술사전>의 두 번째 편인 ‘어업 편(1·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생업기술사전> ‘어업 편’은 표제어 462항목, 원고 6,200여 매, 사진 80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어업 관련 연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어업 관련 분야를 전공한 85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각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쌓은 외부 학자의 감수를 거쳤으며 감수위원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전에서는 어로기술, 어구, 어선, 작업장, 수산가공물, 어로조직, 의례, 자료, 문화재, 제도, 용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나누어 정리·해설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차례를 구성하여 범주별 표제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필자란을 마련하여 필자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생업기술사전: 어업 편〉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생업기술사전: 어업 편〉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어로기술, 어구, 어선, 작업장, 수산가공물, 어로조직, 의례, 자료, 문화재, 제도, 용어,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관내의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차례의 경우는 각 분야 안에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표기 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자료 출처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현지조사자료는 제보자가 익명을 요청한 경우 ‘○○○’ 등으로 표기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 번호를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제공

간송미술문화재단, 강진군, 검재정선미술관, 공유마당, 광양시, 국가기록원,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수산물학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무안군, 문화재청, 민물김연구센터, 보성군, 복천박물관, 부산박물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안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신안군, 안동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웅진군, 완도군, 울산시, 울산박물관, 인천시, 장생포고래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박물관, 태안군, 태안문화원, 하동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About전남의섬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자문위원은 곽유석(한국섬재단), 김도현(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김명자(안동대), 김문기(부경대), 김준(광주전남연구원), 김진백(동명대), 김창일(국립제주박물관), 박종오(전남대), 박진일(국립수산물학원), 송기태(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안미정(한국해양대), 오창현(목포대), 이귀영(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주용기(전북대), 홍순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맡았다.
2. 감수위원은 김명자(안동대), 김진백(동명대),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가 맡았다.

가나다순

차례

한국생업기술사전
어업

지역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4)

가거도배 028

가공선 029

가다랑어채낚시 030

가두리식양식어업 031

가두릿그물 033

가물치잡이 035

가야진 웅신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22)

가오리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337)

가자미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339)

각염법 036

간고등어 038

간척지 040

갈치잡이 042

감태채취 044

강고 045

강굴캐기 046

강진 웅기배 048

강화 곳배 049

강화 외포리 곳창굿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92)

개막이그물 050

개불잡이 053

개양할미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41)

개트기 055

갯것 056

갯닭기 057

갯마중 058

갯바구니 059

갯발 061

갯벌 062

갯벌떠오기 065

갯벌호미 066

갯살림 067

갯제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 (p298)	
갱번		069
거남		070
거문도 뱃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 (p46)	
거문도 풍어제		071
건미역		072
건어물		074
건오징어		076
게장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 (p75)	
견지낙시		077
경강선		078
고등어잡이		079
고래잡이		081
고리테그물		082
고무래		085
고성 어로요		085
곰치잡이	미거지잡이	265
과메기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 (p110)	
곽소		088
곽암		089
곽전		091
관천망기		092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093
군산수산물종합센터		096
굴밭		097
굴부르기제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p65)	
굴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 (p133)	
굴양식		098
굴캐기		100
균역법		101
그물		104
그물감		106
그물 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 (p80)	
그물어업		109
그물추	어망추	482

금개		112
금어기		113
기선권현망		115
김발틀		117
김양식		117
김재단기		120
김조리		121
김틀		122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풍어제		123
까꾸리		124
까나리잡이		125
꼬막양식		128
꼬막캐기		129
꿀뚜기잡이		131
콩덩이배		132
꽃게잡이		132
꼬심바리	꿀낙시	135
꿀그물		134
꿀낙시		135

니은



나룻배		137
나룻배싸움놀이		138
나잠어업		139
나침반		140
낙망		142
낙지가래		144
낙지잡이		145
낙지주낙		146
낙시		147
낙시함지		152
낙싯바늘	조침	643
난치	증발지	665

난호어목지	152
남해 죽방렴어업	154
남해안별신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149)
낫대	158
낭장망	159
냉수대	160
냉장선	161
넙건지기굿	162
넬배	벨배 337
넙치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341)
노	164
노두	166
노량진수산시장	167
노반계	168
농어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366)
누टे	증발지 665

다른

다대기	169
다대포 후리소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154)
다랑어주낙	170
다슬기잡이	171
다시마양식	173
담치점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278)
당진 안섬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189)
닷	175
닷배그물	178
대게잡이	179
대구잡이	180
대낙시	181
대름	183
대림 대름	183
대파 고무래	085

덕장	183
덤장	185
뒸그물	186
도깨비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134)
도루묵잡이	187
도미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41)
독살	돌살 192
돌김채취	189
돌미역채취	190
돌살	192
돌염전	소금빌레 364
동김녕 잠수굿	194
동자개잡이	195
동죽캐기	196
동해 어달동 서낭제 · 해성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255)
동해안별신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233)
동호리 동호 영신당제	197
돛	199
두릿그물	201
들그물	204
등대	205
등바루놀이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놀이(p117)
등불써기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276)
떼배	207
뜰비	209
뚝	209
뜰채	210
뚝북	212
띠배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269)

미음

마고할미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216)
마산어시장	213

마을어장	215
만	218
망둥이잡이	219
망사리	220
망선	221
망수 망쟁이	223
망쟁이	223
망주	224
맞잡이	226
매생이양식	226
맨손어업	228
멍텅구리배	231
메기잡이	232
면허어업	233
멸치액젓	235
멸치잡이	236
멸치젓	239
멸치채반	241
멸치후리는소리	한국민속문화사전: 민요(p206)
명란젓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341)
명태잡이	241
모구리 점수부	596
모자반양식	245
목도 강고	045
물잇그물	246
무레꾼	247
무속수룩재 수록제	371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249
무자위	251
문어단지	253
문어잡이	255
물꼬망치	256
물돛배	257
물때	258
물메기잡이	261

물웃	262
물질	264
미거지잡이	265
미꾸라지잡이	266
미끼	268
미역물주기	269
미역부름	271
미역양식	272
민물가재잡이	274
민물김채취	275
민물새우잡이	276
민어잡이	278
밀그물	279
밀물보기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p216)

비읍



바깥물질	280
바다내비게이션	281
바다목장	282
바다숲	285
바다식목일	287
바다휴식년제	288
바닥식양식어업	289
바당발	290
바룻질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342)
바이오플락	291
바지락양식	293
바지락캐기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45)
박신장	294
반건조오징어 피데기	727
반농반어	295
반지잡이	296
발막	298

방렴	299
방어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p311)	
방파제	301
배고사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326)	
배목수	302
배서낭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01)	
배서낭함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04)	
배연신굿	304
배타적경제수역	306
백합그레	307
밴댕이잡이	309
뱀장어썰레	311
뱀장어잡이	312
뱃기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313)	
뱃길	314
벽굴캐기 강글캐기	046
벌막 엮막	528
법성포 단오제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381)	
보령 외연도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321)	
보성 뿔배어업	316
불락잡이	318
붕기	319
붕수망	321
붕절망	322
붕죽 붕기	319
붕죽놀이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놀이(p159)	
부계	323
부안 곰소 천일염업	324
북어	325
불턱	327
붕어잡이	328
빅게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343)	
빈매	329
빗창	330
빙고	331

빙어선	333
빙어잡이	334
빙장선	335
뿔배	337
뽕매 염도계	527

시옷



사들	338
사리	339
사재감	340
사천 마도 갈방아소리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p397)	
산가늌	342
산다이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78)	
산천어잡이	343
살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52)	
삼달리 어업요	343
삼봉낙시	345
삼척 신남마을 해신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420)	
삼치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p414)	
상고선	346
상앗대	347
상어잡이	348
새우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368)	
새우젓	349
서산 창리 영신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456)	
서천 마량리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478)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342)	
선망	350
선원	353
선자망	355
설망 축원굿	356
섬	357
섬의 날	360

셋구덩이	360
셋등	361
소금가마	362
소금빌레	364
소금창고	366
소파 고무래	85
속초시 청호동 수살굿	366
손꽁치잡이	368
손돌날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46)	
손돌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501)	
손들망	369
손틀방	369
송어잡이	370
수로 뱃길	314
수륙제	371
수망굿	374
수산물가공업	375
수산물산지위판장	378
수산물시전	380
수산물이력제	381
수산시험장	382
수산업협동조합	383
수산인의날	385
수살굿 수망굿	374
수성당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508)	
수조	386
수하식양식어업	387
순직선원위령제	388
송어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159)	
스마트양식	389
시선배	390
신고어업	392
신안 천일염업	393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	397
신증동국여지승람	400

실뱀장어잡이	402
실치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46)	
쌍끌이기선저인망	404
써개	405
쏘가리잡이	406
썩잡이	407
썰게	409

이용



아쿠아포닉스	456
안강망	457
액젓	459
약대구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693)	
약마희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66)	
양식업	461
양양 동해신묘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08)	
양조망	465
어구	466
어군탐지기	470
여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04)	
어량소	472
어로금기	473
어로문화	475
어로요	479
어로장	481
어망추	482
어물전	483
어민	485
어부습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175)	
어살	488
어살계	491
어선	492
어업	496

어업권	498
어업령	500
어업전관구역	501
어업조합	502
어염선세	503
어장 漁場	506
어장 魚醬	507
어장휴식년제 바다휴식년제	288
어전 어살	488
어초	508
어촌계	510
어촌지도소	514
어탐선	515
어판장 수산물산지위판장	378
어포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13)	
어항	515
얼음끌	516
얼음낚시	517
얼애그물	518
여수수산시장	520
여울견지	521
여지도서	522
연안부두어시장	524
연어잡이	525
연평도 조기어장	527
염고 소금참고	366
염도계	527
염막	528
염바가지	529
염부	530
염부두	532
염부삽	533
염분 소금가마	362
염세	533
염소	535

염업	536
염전	539
염전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472)	
염감놀이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극(p370)	
영도 풍어제 한국세시풍속사전: 여흥(p113)	
영등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650)	
영등날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51)	
영등할머니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31)	
영암 남해당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44)	
영해 별신굿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270)	
예망 끌그물	134
오리	542
오주연문장전산고	543
오징어잡이	546
오징어젓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38)	
오징어채낚시	547
완도 장좌리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81)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549
외끌이기선저인망	551
외줄낚시	553
용왕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22)	
용왕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89)	
우렁이잡이	554
우뭇가사리채취	555
우실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96)	
우해이어보	556
운반선	559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560
울진·울릉 돌깍 떼배 채취어업	562
웅어잡이	564
원양어업	565
위도 띠뱃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692)	
위어소	568
유령어업	568
유영층	570

유자망	572
육상수조식양식어업	573
은어잡이	575
의염색	576
의염창	577
이주어촌	578
인천 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392)
인천종합어시장 연안부두어시장	524
일산동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729)
임경업장군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725)
임통 통발	707
입호제도	579
잉어잡이	581

지웃



자갈치시장	582
자라잡이	583
자리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48)
자망	584
자반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83)
자산어보	587
자염업	590
작살	592
잠수기어업	594
잠수부	596
장어갈퀴	598
장어잡이	599
재건	601
재첩잡이	602
적도제	604
적조	604
전갱이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86)
전복따기	606

전복양식	607
전어잡이	608
전어지	610
전오제염법 자염업	590
전횡장군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770)
젓갈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831)
젓독	613
정어리잡이	614
정치망	615
제따먹기	617
제주 멀치 후리는 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14)
제주 추자도 천제와 장군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823)
제주 칠머리당굿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61)
제주 해녀어업	617
제주 해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828)
제주도해녀어업조합	620
조간대	622
조개무지	623
조개방	626
조개씨레	627
조금	628
조기심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88)
조기잡이	629
조기젓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849)
조도 닻배 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17)
조새	632
조선국원산출장복명서	633
조선다도해여행각서	633
조선수로지	634
조선수산공진회	635
조선어업협회순라보고	636
조선통어사정	636
조선해수산조합	637
조일통상장정	640
조일통어장정	641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642
조침	643
조행일록	644
죽대	646
종자채묘	647
좌수영 어방놀이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놀이(p294)	
주꾸미소호	648
주꾸미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162)	
주낙	650
주낙배	653
주대소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30)	
주목망	654
주문진수산시장	656
주벽배	657
주비	658
죽방멸치	660
중선망	661
중선배	663
증발지	665
지누아리채취	665
지도군총쇄록 지도총쇄록	667
지도총쇄록	667
진수식	668
집어등	669
짚가림	670
짬	672
짬고사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384)	
짬뽕어잡이	674
쪽대 쪽대	646
쪽지그물	676
찌르개	677

치



참게잡이	678
창경바리 푸름	724
채그물	679
채들망	681
채롱	681
채묘장	682
챤낚	683
천일염업	684
청어잡이	687
청황패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44)	
초망	689
충허옹어획량	690
최영장군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870)	
축제식양식어업	692
출매선	694
출어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668)	
칠게잡이	694
칠산 조기어장	696

키



골드체인	697
키	699

티



태안어시장	700
테왁	701
토굴새우젓	702
툇양식	704
툇채취	706

통발	707
통영 통구민배	712
통영·거제 건내량 돌미역 채취어업	709
통자락	713
투망	714
트롤망	715
트롤선	717
틀방그물	717

피



파래점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409)	
파래채취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450)	
파시	718
패총 조개무지	623
평택 민요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85)	
포경 고래잡이	81
포경선	721
표해록	722
푸름	724
풍선배	725
피데기	727
피라미잡이	728
피쉬펌프	729

히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731
한국수산지	734
한국어업법	737
한선	739
한일어업협정	741
한치잡이	742

한해통어지침	743
함수류 해주	759
함정어업	744
해녀	747
해녀고무잠수복	751
해녀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97)	
해녀회	753
해류	754
해삼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451)	
해세 어염선세	503
해양보호구역	755
해양조사연보	756
해외선원묘지	758
해주	759
해초집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298)	
허가어업	760
형망	761
혼합식양식어업	762
홍성 수룡동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998)	
홍어잡이	763
홍합따기	765
홍합양식	766
황도 붕기 풍어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960)	
황복잡이	767
황태	769
햇바리	770
후릿그물	772
홀치기낚시	774



TAC 총허용어획량	690



가두리식양식어업	031
가물치잡이	035
가오리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337)	
가자미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339)	
갈치잡이	042
감태채취	044
강굴캐기	046
개불잡이	053
갯닭기	057
고등어잡이	079
고래잡이	081
곰치잡이 미거지잡이	265
관천망기	092
굴양식	098
굴캐기	100
그물어업	109
김양식	117
까나리잡이	125
꼬막양식	128
꼬막캐기	129
꿀뚜기잡이	131
꽃게잡이	132
나잠어업	139
낙지잡이	145
넙치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341)	
농어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366)	
다슬기잡이	171
다시마양식	173
대게잡이	179

대구잡이	180
도루묵잡이	187
도미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41)	
돌김채취	189
돌미역채취	190
동자개잡이	195
동죽캐기	196
망둥이잡이	219
매생이양식	226
맨손어업	228
메기잡이	232
멸치잡이	236
명태잡이	241
모자반양식	245
문어잡이	255
물메기잡이	261
물질	264
미거지잡이	265
미꾸라지잡이	266
미역물주기	269
미역양식	272
민물가재잡이	274
민물김채취	275
민물새우잡이	276
민어잡이	278
바닥식양식어업	289
바룻질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342)	
바지락양식	293
바지락캐기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45)	
반지잡이	296
방어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p311)	
밴댕이잡이	309
뱀장어잡이	312
벽굴캐기 강굴캐기	046

불락잡이	318
붕어잡이	328
빅게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343)
빙어잡이	334
산가늌	342
산천어잡이	343
삼치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p414)
상어잡이	348
새우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368)
손콩치잡이	368
송어잡이	370
수산물가공업	375
수하식양식어업	387
송어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159)
실뱀장어잡이	402
실치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46)
쏘가리잡이	406
쏙잡이	407
양식업	461
어업	496
연어잡이	525
염업	536
오징어잡이	546
우렁이잡이	554
우뚝가사리채취	555
웅어잡이	564
원양어업	565
육상수조식양식어업	573
은어잡이	575
잉어잡이	581
자라잡이	583
자리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248)
자염업	590
잠수기어업	594

장어잡이	599
재첩잡이	602
전갱이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86)
전복따기	606
전복양식	607
전어잡이	608
전오제염법	자염업
전오제염법	590
정어리잡이	614
조기잡이	629
종자채묘	647
주꾸미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162)
지누아리채취	665
짬뽕어잡이	674
참게잡이	678
천일염업	684
청어잡이	687
축제식양식어업	692
칠게잡이	694
툇양식	704
툇채취	706
파래채취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450)
포경	고래잡이
포경	081
피라미잡이	728
한치잡이	742
함정어업	744
해삼잡이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451)
혼합식양식어업	762
홍어잡이	763
홍합따기	765
홍합양식	766
황복잡이	767
햇바리	770



가다랑어채낚시	030
가두릿그물	033
강고	045
개막이그물	050
갯바구니	059
갯벌호미	066
거낙	070
견지낚시	077
고리테그물	082
고무래	085
그물	104
그물감	106
그물추	어망추
그물추	482
굽개	112
기선권현망	115
김발틀	117
김재단기	120
김조리	121
김틀	122
까꾸리	124
꼬심바리	끝낚시
꼬심바리	135
끝그물	134
끝낚시	135
나침반	140
낙망	142
낙지가래	144
낙지주낙	146
낚시	147
낚시함지	152

낙싯바늘 조침	643
낫대	158
낭장망	159
널배 뽕배	337
다대기	169
다랑어주낙	170
닷배그물	178
대낙시	181
대름	183
대림 대름	183
대파 고무래	085
덤장	185
덧그물	186
독살 돌살	192
돌살	192
두릿그물	201
들그물	204
등대	205
돌비	209
돌채	210
뚝북	212
망사리	220
맛잡이	226
멸치채반	241
목도 강고	045
물잇그물	246
무자위	251
문어단지	253
물꼬망치	256
물웃	262
미끼	268
밀그물	279
바다내비게이션	281
방렴	299

방파제	301
백합그레	307
뱀장어씨레	311
봉수망	321
봉절망	322
부게	323
빋창	330
뽕배	337
뽕대 염도계	527
사들	338
삼봉낙시	345
선망	350
선자망	355
소금가마	362
소파 고무래	85
손들망	369
손틀방	369
수조	386
쌍끌이기선저인망	404
씨개	405
썰게	409
안강망	457
양조망	465
어구	466
어군탐지기	470
어망추	482
어살	488
어진 어살	488
얼음끌	516
얼음낙시	517
엷애그물	518
여울견지	521
염도계	527
염바가지	529

염부삽	533
염분 소금가마	362
예망 끌그물	134
오리	542
오징어채낙시	547
외끌이기선저인망	551
외줄낙시	553
유자망	572
임통 통발	707
자망	584
작살	592
장어갈퀴	598
젓독	613
정치망	615
조개방	626
조개씨레	627
조새	632
조침	643
족대	646
주꾸미소호	648
주낙	650
주목망	654
중선망	661
집어등	669
족대 족대	646
쪽지그물	676
찌르개	677
창경바리 푸름	724
채그물	679
채들망	681
채룽	681
첼낙	683
초망	689
테왁	701

통발	707
투망	714
트롤망	715
틀방그물	717
푸름	724
피쉬펌프	729
해녀고무잠수복	751
형망	761
후릿그물	772
홀치기낚시	774



가거도배	028
가공선	029
강진 옹기배	048
강화 곳배	049
경강선	078
공댕이배	132
나룻배	137
냉장선	161
노	164
낫	175
돛	199
떼배	207
망선	221
멍텅구리배	231
물돛배	257
빙어선	333

빙장선	335
상고선	346
상앗대	347
시선배	390
어선	492
어탐선	515
운반선	559
주낙배	653
주벽배	657
중선배	663
출매선	694
키	699
통영 통구민배	712
트롤선	717
포경선	721
풍선배	725



갯발	061
갱번	069
곽전	091
군산수산물종합센터	096
굴발	097
난치 증발지	665
노량진수산시장	167
누테 증발지	665
덕장	183
돌염전 소금빌레	364

돛	209
마산어시장	213
마을어장	215
바당발	290
박신장	294
발막	298
벌막 염막	528
불턱	327
섯구덩이	360
섯등	361
소금빌레	364
소금창고	366
수산물산지위판장	378
어판장 수산물산지위판장	378
어항	515
여수수산시장	520
연안부두어시장	524
염고 소금창고	366
염막	528
염부두	532
염전	539
인천종합어시장 연안부두어시장	524
자갈치시장	582
주문진수산시장	656
주비	658
증발지	665
짬	672
채묘장	682
태안어시장	700
통자락	713
함수류 해주	759
해주	759



간고등어	038
건미역	072
건어물	074
건오징어	076
게장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5)
과메기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110)
굴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133)
멸치액젓	235
멸치젓	239
명란젓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341)
반건조오징어 피데기	727
북어	325
새우젓	349
액젓	459
약대구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693)
어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04)
어장魚醬	507
어포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13)
오징어젓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38)
자반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783)
젓갈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831)
조기젓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식생활(p849)
죽방말치	660
토굴새우젓	702
피데기	727
황태	769



노반계	168
망수 망쟁이	223
망쟁이	223
망주	224
모구리 잠수부	596
무례곶	247
배묵수	302
선원	353
수산업협동조합	383
어로장	481
어살계	491
어촌계	510
염부	530
잠수부	596
재건	601
제주도해녀어업조합	620
해녀	747
해녀회	753



가야진 용신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22)
강화 외포리 곳창굿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92)
개양할미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41)

갯벌떠오기	065
갯제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298)
거문도 풍어제	071
굴부르기제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65)
그물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80)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풍어제	123
나랏배싸움놀이	138
남해안별신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149)
넙건지기굿	162
담치점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278)
당진 안섬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189)
도깨비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134)
동김녕 잠수굿	194
동해 어달동 서낭제·해성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255)
동해안별신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233)
동호리 동호 영신당제	197
등바루놀이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놀이(p117)
등불써기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276)
띠배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269)
마고할미	한국민속문화사전: 설화(p216)
무속수륙제 수록제	371
미역부름	271
밀물보기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p216)
배고사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326)
배서당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01)
배서당함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04)
배연신굿	304
벧기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313)
법성포 단오제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381)
보령 외연도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321)
봉기	319
봉죽 봉기	319
봉죽놀이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놀이(p159)

산다이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78)
살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252)
삼척 신남마을 해신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420)
서산 창리 영신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456)
서천 마량리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478)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342)
설망 축원굿	356
속초시 청호동 수살굿	366
손돌날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46)
손돌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501)
수륙제	371
수망굿	374
수살굿 수망굿	374
순직선원위령제	388
약마희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66)
어로금기	473
어부슴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175)
염전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472)
영감놀이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극(p370)
영도 풍어제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p113)
영등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650)
영등날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51)
영등할머니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p531)
영해 별신굿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270)
완도 장좌리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81)
용왕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22)
용왕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89)
위도 띠벉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692)
일산동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729)
임경업장군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725)
적도제	604
전횡장군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770)
제주 추자도 천제와 장군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823)

제주 칠머리당굿	한국세시풍속사전: 봄(p61)
조기심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588)
좌수영 어방놀이	한국민속예술사전: 민속놀이(p294)
진수식	668
짬고사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384)
청황패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44)
최영장군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870)
출어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p668)
파래점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p409)
해초점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p298)
홍성 수릉동 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998)
항도 봉기 풍어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960)



난호어목지	152
신증동국여지승람	400
여지도서	522
오주연문장전산고	543
우해이어보	556
자산어보	587
전어지	610
조선국원산출장북명서	633
조선다도해여행각서	633
조선수로지	634
조선어업협회순라보고	636
조선통어사정	636
조행일록	644
지도군총쇄록 지도총쇄록	667

지도총쇄록	667
표해록	722
한국수산지	734
한해통어지침	743
해양조사연보	756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4)
거문도 뱃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6)
고성 어로요	085
곽암	089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093
다대포 후리소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154)
멸치후리는소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206)
사천 마도 갈방아소리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p397)
삼달리 어업요	343
수성당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p508)
양양 동해신묘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08)
어로요	479
영암 남해당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44)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560
인천 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392)
제주 멸치 후리는 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14)
제주 해신사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828)
조개무지	623
조도 닻배 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17)
주대소리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30)
패총 조개무지	623

평택 민요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85)

해녀노래 한국민속문학사전: 민요(p497)



TAC 총허용어획량	690
각염법	036
곽소	088
균역법	101
금어기	113
면허어업	233
바다휴식년제	288
배타적경제수역	306
빈매	329
빙고	331
사재감	340
수산물시전	380
수산물이력제	381
수산시험장	382
신고어업	392
어량소	472
어물전	483
어업권	498
어업령	500
어업조합	502
어염선세	503
어장휴식년제 바다휴식년제	288
어촌지도소	514
염세	533

염소	535
위어소	568
의염색	576
의염창	577
입호제도	579
제따먹기	617
조선해수산조합	637
조일통상장정	640
조일통어장정	641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642
짓가림	670
총허용어획량	690
한국어업법	737
한일어업협정	741
해세 어염선세	503
해양보호구역	755
허가어업	760



간척지	040
개트기	055
갯것	056
갯마중	058
갯벌	062
갯살림	067
냉수대	160
노두	166
만	218

물때	258
바깥물질	280
바다목장	282
바다숲	285
바다식목일	287
바이오플락	291
반농반어	295
뱃길	314
사리	339
섬	357
섬의 날	360
수로 뱃길	314
수산인의날	385
스마트양식	389
아쿠아포닉스	456
어로문화	475
어민	485
어업전관수역	501
어장漁場	506
어초	508
연평도 조기어장	527
우실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p696)	
유령어업	568
유영총	570
이주어촌	578
적조	604
조간대	622
조금	628
조선수산공진회	635
칠산 조기어장	696
쿨드체인	697
파시	718
한선	739
해류	754
해외선원묘지	758



남해 죽방렴어업	154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249
보성 빨배어업	316
부안 곰소 천일염업	324
신안 천일염업	393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	397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549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	562
제주 해녀어업	617
통영·거제 건내랑 돌미역 채취어업	709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731

아쿠아포닉스

정의 수산양식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속의 유기영양소를 식물에 제공하고, 이를 식물이 흡수하면서 수질 정화와 식물 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생태 순환형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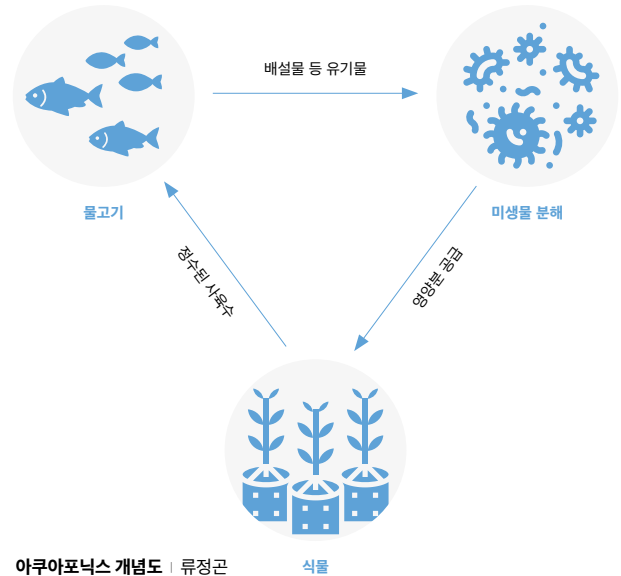
개관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수산생물을 양식할 때 발생하는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가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로 흡수될 수 있도록 분해하여 식물에 공급하고, 정수된 물은 다시 양식생물의 사육수로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아쿠아포닉스는 주로 식물 공장과 같은 산업용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아쿠아포닉스는 일반적인 식물과 양식생물을 키우는 방법과 달리 한 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순환시켜 재사용하기 때문에 양식과 농업에 사용되는 물의 9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식물에 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 그리고 양식생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상품 생산이 가능하며, 다단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어 좁은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 아쿠아포닉스는 수산양식을 의미하는 ‘아쿠아컬처(aquaculture)’와 수경재배를 의미하는 ‘하이드로포닉스(hydroponics)’의 합성어로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재배하는 생태 순환형 시스템이다.

어류 등을 양식할 때 발생하는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는 사육수에 남게 되고, 이러한 물질은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사육하는 양식생물을 폐사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존 유기물은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식물에 공급할 경우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생물로 용존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의 영양분으로 공급하고,



아쿠아포닉스 개념도 | 류정곤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고 남은 깨끗한 물은 수조로 다시 공급시켜 양식생물의 사육수로 재사용할 수 있다.

한편 화학 성분이 수조로 유입되면 양식 중인 어류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식물을 키울 때 농약 등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 또한 자연스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하게 된다.

아쿠아포닉스와 비슷한 시스템은 예전부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6세기경 중국에서는 농부들이 마당의 새장에서 오리를 키우고 그 밑 연못에 메기 등을 키웠으며, 메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논에 시비하여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치남파(chinampa)로 알려진 아스테카문명의 경작시스템 또한 아쿠아포닉스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쿠아포닉스의 순환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식생물에 사료가 급이(給餌)되고 나면 양식생물이 다 먹지 못한 사료와 함께 양식생물의 배설물이 사육수에 남아 있게 된다. 양식생물의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NH_3)도 발생한다. 암모니아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양식생물을 단시간에 폐사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식물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식물은 암모니아에서 질소 성분을 분리하여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때 물속의 박테리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질산염은 식물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로, 식물을 재배하는 수조로 질산염으로 변환된 사

육수를 보내면 식물은 질산염의 질소를 이용하여 성장하게 되고, 질소가 제거된 물은 사육수로 재공급되는 순환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이다.

수경재배 방식의 식물공장 형태를 기본으로 한 아쿠아포닉스는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량재배 형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과 학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제작되어 유통되기도 한다.

아쿠아포닉스 기술은 양식생물과 식물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양식생물과 식물을 친환경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쿠아포닉스는 일반적인 식물과 양식생물을 키우는 방법과 달리 한 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순환시켜 재사용한다. 추가로 사용되는 물은 자연 증발하는 양과 식물의 대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물을 보충하기 위해 공급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사용되는 물의 9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적인 양식과 식물 재배는 토지를 단층으로 이용하지만, 아쿠아포닉스의 경우 식물과 수조를 다단으로 쌓아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토지나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수산물과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쿠아포닉스 시스템과 메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마지막으로 식물에 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는 양식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양식생물용 항생제는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채택하면 항생제,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식과 수경재배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양식 과정에서 배출되는 영양분으로 식물의 생육이 부진할 경우 추가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적용을 위한 시설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기술 도입 이전에 기술·경영학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아쿠아포닉스는 물이나 토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양식생물과 식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생태순환형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도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양식생물과 식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데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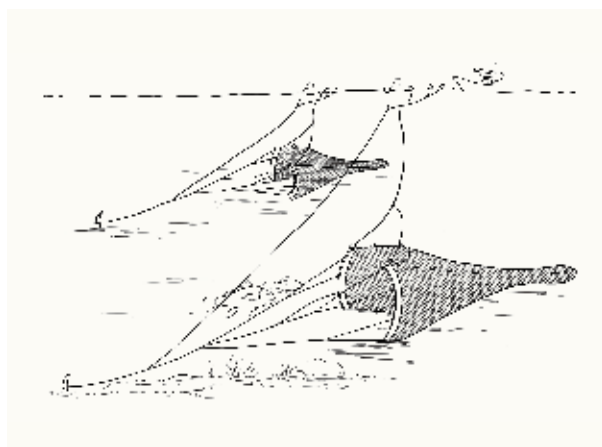
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인구증가 및 사막화로 인한 토지 부족 현상과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성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산업과 농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하현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아쿠아포닉스 모델 비교분석을 통한 참조 모델 개발(고승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친환경 농수산 융합 생산 시스템 IoT를 활용한 가정용 열대어 아쿠아포닉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경현·한동욱,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21-4, 한국컨텐츠학회, 2021), 물고기가 키우는 채소 아쿠아포닉스(이호빈, 홀사랑물사랑 389, 한국농어촌공사, 2018.8.1.).

필자 류정곤(柳廷坤)

안강망
鮫鰐網

정의 정치망(定置網)의 하나로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고정하여 놓고 조류에 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대상을 잡는 어구 또는 어업방식.



안강망 | 국립수산물학원



도토리 안강망 조업선 | 충남 서천 | 1995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안강망 어업기술은 미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새롭게 고안되었다. 우리나라에 안강망이 도입된 시기는 1900년쯤인데, 개별 자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899년 전라남도 목포 연해 및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연해에서 시범 조업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우리 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제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1900년경 일본수산전습소 출신 마사바야시 히데오(正林英雄)가 일본 규슈(九州) 아리아케해(有明海)의 안강망을 한국에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보(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에는 “나가사키현(長岐縣) 기타타카라이군(北高來郡) 이사하야초(諫早町)의 마사바야시 히데오가 조선의 조기어업에 착목(着目)하고 1898년에 상세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어구로서는 규슈 아리아케해에서 관용(慣用)되는 안강망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고, 익년 오로모토현(熊本縣) 다마나군(玉名郡) 나가

스초(長洲町)에서 한 명의 실업교사(實業教師)를 고용한 것이 동 어업의 남상(濫觴)이나 당년(當年)에는 실패하고 익년, 즉 190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1900년 전후 우리나라에 소개된 안강망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보』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1902년에 서남해안에 출어한 안강망 어선 수는 78척에 달하였으며, 후쿠오카현(福岡縣)의 어업자 중에는 하룻밤에 1척당 2만 미를 어획하는 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강망으로 잡아 올린 어종은 서해안 일대에서 많이 잡히던 조기였다. 우리나라 어부들은 우리네 중선망(中船網)과 어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안강망을 ‘일중선(日中船)’이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안강망은 중선망과 주목망(柱木網)에 비해 훨씬 능률적인 어구로 인식되었다.

안강망은 일본어로 ‘안코아미’라 하며, ‘안강(鰻鱺)’은 일본에서 ‘아귀’를 가리킨다. 안강망 어구가 아귀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해안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던 주목망과 낭장망도 입을 크게 벌리고 있기는 하지만 안강망은 이들 어구와 달리 한 개의 닻으로 연결되어 있어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그물이 180°로 회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지역에서 안강망을 ‘뽕뽕이’ 혹은 ‘뽕뽕이그물’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안강망 어업이 지닌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강망은 주목망과 낭장망보다 비교적 물살이 세거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 주목망과 낭장망은 양쪽에 말뚝 또는 닻 등으로 고정을 하여 벌린 후 고기를 잡지만 안강망은 닻에 연결된 그물이 조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기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안강망의 또 다른 매력은 여러 틀의 그물을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것과 조업 과정에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유류소모가 적다는 것이다.

안강망은 해저에 하나의 닻을 이용하여 어구를 고정하고 닻에서 나온 로프를 갈라내어 자루그물의 두 옆판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보통 네 장의 그물을 연결하여 자루그물을 만드는데, 다만 날개 그물이 없다. 자

루그물은 그물코의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그물을 이어 붙인 형태로, 끝 자루 쪽으로 갈수록 망목의 크기가 작아진다. 어구의 앞쪽에는 옆판에 어구 전개를 위해 범포를 붙인다. 해파리가 출현하는 시기에는 끝 자루 앞부분에 해파리 배출망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안강망의 투망은 조류가 가장 약해지는 때를 전후하여 닛을 투하하고, 배잡이 줄로 배를 가로로 세운 다음 반대쪽 현에서 조류를 따라 자루그물과 범포를 투하하고, 전개 상태를 확인하면서 걸이줄·고광줄·돈음줄 등을 투하한다. 투망이 완료되면 부표를 띄운 후 배를 닛에서 분리하고 어구를 투망한다. 양망은 1일 1회 조류가 가장 약할 때 진행한다.

채래식과 근래의 안강망(개량안강망)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안강망의 기본형은 등판, 옆판, 밑판, 끝 자루, 상부의 수해, 하부의 암해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구 쪽의 수해와 암해이다. 수해의 부력과 암해의 침강력을 이용하여 그물 입구를 상하로 벌려서 조류의 흐름에 따라 고기를 잡는다.

유속이 센 곳에 위치해야 하는 관계로 안강망의 그물감은 유수 저항이 적고 항장력抗張力이 커야 한다. 아울러 해저 또는 선체와 마찰이 심하므로 내마성이 좋아야 한다. 이런 연유로 안강망 그물의 실은 가능한 한 가늘고 강해야 하며 단섬유 그물실보다 장섬유 그물실이 적합하고, 장섬유 그물실 중에서도 내마성이 큰 게 좋다. 안강망을 고정하는 닛도 매우 중요한데, 무게감을 이겨내야 하므로 닛의 규모가 커야 한다.

안강망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초창기만 하더라도 바람을 이용한 범선帆船에 그물을 싣고 다녀 조업 과정에서 어획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강선鋼船과 냉동시설 등이 등장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100t이 넘는 안강망이 등장할 정도로 서해안을 비롯한 여러 해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안강망이 어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안강망의 어업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먼 바다에서 행해지는 근해안강망과 연안에서 조업하는 연안(개량)안강망, 좁은 수로에서 새우를 잡는 해선망 등이 안강망과 관련된 대표적인 어구이다.

특징 및 의의 안강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망이나 낭장

망과 비교된다. 특히 낭장망과 견줘 설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낭장망을 이용한 어업은 주로 가까운 어장에서 어업활동이 가능한 반면 안강망을 이용한 어업은 물때와 상관없이 비교적 먼바다나 해류가 빠른 곳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안강망의 또 다른 특징은 일본에서 유입된 어구가 우리나라 어업 환경에 맞춰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의 어업에서 안강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개량안강망 어선 설계와 조업실태(김종만, 어선19, 한국어선협회, 1984), 개량안강망의 어구 어법 및 보급(조태현, 어선12, 한국어선협회, 1982), 알기 쉬운 한국의 어업(국립수산물연구원, 2010), 어구학(김대안·고관서, 교문출판사, 198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23-어업용구(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한국수산물발달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66),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물연구원, 2002),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本部, 1900~1903),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필자 서종원(徐鍾源)

액젓

정의 물고기를 소금으로 오래 숙성·발효한 젓갈이 삭아 우리나라의 국물.

개관 젓갈은 어패류의 근육·내장 또는 생식소 등에 식염을 첨가해 숙성한 발효식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젓갈을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683년(신문왕 3) 왕가의 납



까나리 액젓 거르기 | 인천 용진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사항포구의 까나리 액젓 | 인천 웅진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폐 품목에 ‘해醢’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고려시대 조운선 마도 1호선(1208), 마도 2호선(1200년 전후)에서 발견된 ‘생선젓[魚醢]’ ‘고등어젓[古道醢]’ ‘게젓[蟹醢]’ 등이 기록된 목간木簡이 나왔다. 특히 마도 1호선에 남아 있는 젓갈 뼈의 실물과 젓 등의 형태로 미뤄 볼 때 고려시대 젓갈은 액젓이 아닌 건더기가 있는 젓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젓갈을 담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우러나온 국물을 조미료로 사용하는데, 이를 ‘젓국’이라 한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보면 젓갈이 삭을 때 흘러나온 즙을 우리 말로는 ‘젓국’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젓국’이라는 말은 우리의 고유어로 오랜 시간 사용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젓갈이나 젓국에 약간의 물을 부어 달여 맑은 국물만 따로 담아 식히기도 하는데, 이를 ‘어간장’ 혹은 ‘간장’이라고 한다.

요즘은 ‘젓국’이라는 명칭 대신 ‘액젓’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액젓’이라는 명칭은 1970년쯤 사용되었는데, 6월에 잡은 새우로 만든 육젓을 액체화하였다는

의미로 ‘액체 육젓’이라는 상품명이 등장하였다. ‘액젓’이라는 명칭은 ‘젓국’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용 액젓은 주로 멸치를 이용해 담근다. 젓갈로 만들 멸치는 가볍게 물로 한 번 씻은 후 소금과 섞는다. 젓갈을 담그기 위해 멸치와 소금을 혼합하는 비율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멸치와 소금 비율이 2 대 1 혹은 3 대 1 정도 되게 배합한다.

소금에 버무린 멸치는 항아리에 담는데, 항아리의 90% 정도를 채운다. 10%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은 멸치가 삭으면서 젓국이 될 때 국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다. 소금과 버무린 멸치를 항아리에 넣은 뒤 항아리 입구는 천을 덮어 동여매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항아리 뚜껑을 덮고 장독대 등에 놓아 둔다. 20여 년 전부터는 고무통을 사용하고 있다. 고무통은 항아리에 비해 많은 양의 젓갈을 담을 수도 있고, 잘 깨지지 않아 보관이 편하다. 요즘은 고무통에 소금과 혼합한 멸치를 담고 그 위를 비닐로 덮어 둔다.

이렇게 만든 젓갈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다. 액젓을 이용하려면 젓갈을 담근 지 1년 반에서 2년 이상 묵혀야 제맛이 난다. 젓갈을 담근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멸치의 살이 삭으면서 물이 나온다. 이때 국물과 건더기를 걸러 액젓을 받는다. 소쿠리에 천을 깔고 그 위에 젓갈을 부어 액젓을 받기도 하고, 떡시루 구멍을 솔잎 등으로 막은 후 젓갈을 부어 받기도 한다.

액젓을 받고 나면 남은 젓갈 부산물을 이용해 ‘간장’을 만든다. 간장을 만들 때 젓국에 소금을 넣기도 하고 물만 붓기도 한다. 액젓을 받고 난 후 남은 것은 큰 솥에 넣고 달이는데, 한 번 달인 것은 소쿠리에 천을 깔고 받쳐 낸 후 다시 끓인다. 두 번 정도 달여야 맛이 변하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지금도 일반 가정에서 간장을 대신하는 조미료로 액젓이나 어간장 등을 사용한다. 장기 숙성한 젓갈의 액을 체에 거르거나 달여서 액젓이나 어간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가소비용으로 소량씩 생산되었던 액젓이 산업과 교통의 발달, 간편 지향형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서서히 상품화되어 유통되고 있다. 제조방식 등은 전승지식을 이용한 것으로, 여전히 젓갈을 이용한 음식문화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與猶堂全書, 어장 중 액젓(어간장)에 관한 연구(윤덕인, 관대논문집27-2, 관동대학교, 1999), 통영지역 멸치어장 생산과 소비전통(박종오, 인문연구9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경상도 지역(한국예술종합학교 아태전통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9),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2(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필자 박종오(朴宗吾)

양식업

養殖業

정의 일정 해수면이나 구역을 점유하여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산생물의 생활과 사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생물의 번식과 성장을 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

역사 우리나라 근대 양식 산업 발전의 장기적인 역사는 양식 성장의 주된 요건인 양식 어장, 양식 인력, 양식 기술, 양식물시장(養殖物市場) 및 수산 시책 등 5가지 조건의 생성과 변화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양식 어장의 적지 개발 및 양식 대상종의 탐색 단계로 규정되며, 이 기간은 1945년 광복 이전의 약 50년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은 물론 이전의 근대 수산행정 제도 성립기까지 포함된다.

제2단계는 전통적 양식 단계에서 근대적 양식 단계로 이행되는 기간으로, 광복 이후부터 1970년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굴의 연승수하식 양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김 양식용 망홍(그물발)의 개발과 보급 등 양식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로 근대적 양식 기술이 확립되었다.

제3단계는 혁신적인 양식 기술의 개발과 확대 및 보급의 단계로 규정되며,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통적인 패류 및 해조류 양식 기술의 과학화와 함께 전국적 보급이 거의 완성되었고, 새로운 양식 대상 어업으로 어류 양식업이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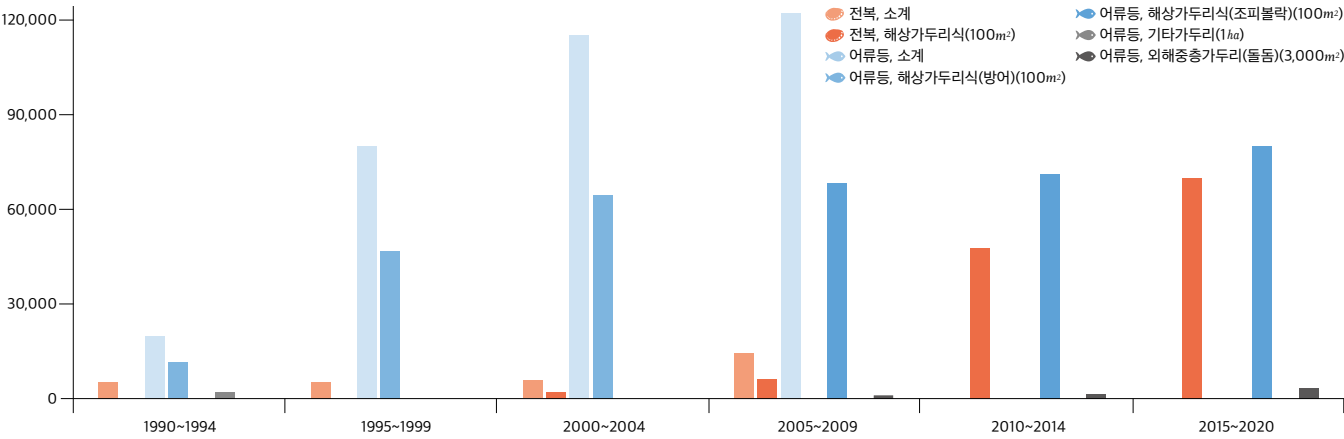
제4단계는 양식 산업 재편성의 단계로 규정되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전통적인 양식 품종인 패류 양식이 점진적으로 퇴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 등 새로운 양식 종목의 개발과 어류양식업의 등장으로 인해 고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양식업이 출현하였다.

내용 양식업은 일정한 구역을 전적으로 점유하여(면허 또는 허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기 소유 수산생물(산업적 가치)의 생활과 사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생물의 번식(개체 수 증가)과 성장(개체의 체적 증가)을 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7618호, 2020.12.8.) 제2조(정의)에서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가두리식양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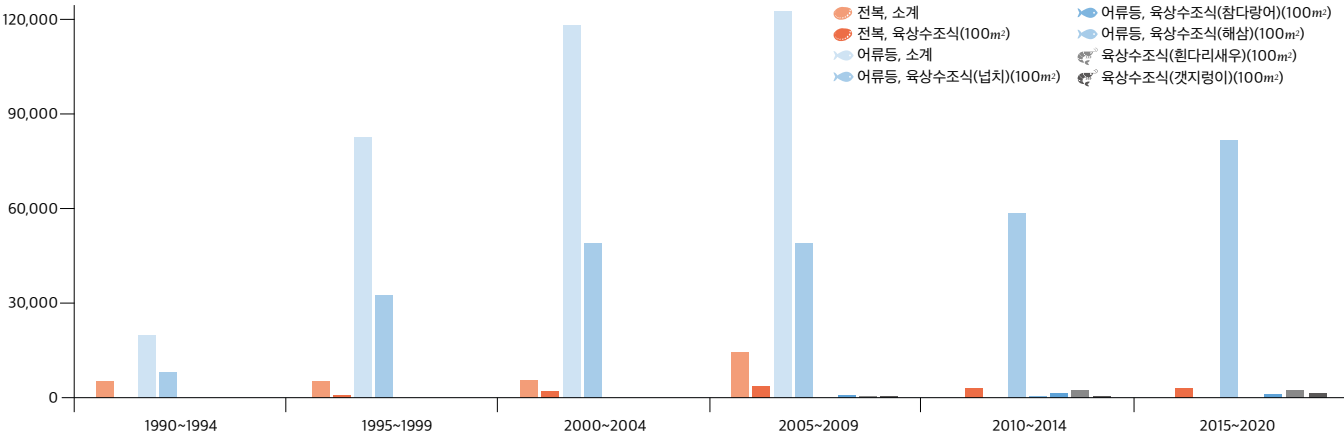
(단위: 건)



1990~2020년 가두리식양식어업 건수 추이 | KOSIS·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육상수조식양식어업

(단위: 건)



1990~2020년 육상수조식양식어업 건수 추이 | KOSIS·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제식양식어업

(단위: 건)



1990~2020년 축제식양식어업 건수 추이 | KOSIS·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의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허어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어업 행위를 특정인이 권리를 부여받아 배타적·독점적으로 행하는 어업이다. 즉,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독점하여 어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타인의 행위를 배제한 후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업권을 바탕으로 한다. 설권처분인 면허는 원래 자연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허가어업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을 해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금지 해제 행위이다. 따라서 허가나 면허는 모두 그로 인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허가의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면허의 경우에는 법률상 힘(권리)에 의한 이익이다.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측면에서 양식업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면허어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양식업은 해조류 양식업, 패류 양식업, 어류등 양식업, 복합 양식업, 협동 양식업, 외해 양식업, 내수면 양식업(공공용 수면에 한정) 등이다. 해당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식업권을 취득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년이며(제17조), 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8조).

이중 복합 양식업은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 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협동 양식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패류·어류등 양식업과 복합 양식업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해 양식업은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8호, 2021.2.9.) 제3조(외해)에서 외해란 바다의 수심이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m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에서의 면허 양식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해조류 양식업

1)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投石式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나. 패류 양식업

1) 가두리 양식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뜸·밧줄·채룡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



해조류 양식 | 전남 완도 | 국립수산물과학원



무지개송어 양식 | 강원 평창 | 국립수산물과학원

하는 사업

다. 어류등 양식업

1) 가두리 양식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축제식 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뜬·밭줄·채룻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에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라. 복합 양식업

1)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뜬·밭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3) 혼합 양식업: 가두리 양식업, 수하식 양식업, 바닥식 양식업의 양식 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 축제식 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마. 내수면 양식업(공공용 수면)

1) 조방^{粗放} 양식업: 수면적 10ha 이하의 댐·호수·늪·저수지 등에 수산동식물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사업

2) 가두리 양식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 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뜬·밭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 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 축제식 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그 밖에 협동 양식업은 해조류·패류·어류등 양식업과 복합 양식업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협동 양식업의 수심 범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의 평균 수심 5m 초과 10m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m 초과 15m 이내)를 말한다.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 양식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2. 허가어업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양식업의 허가)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양식업은 육상해수양식업과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다.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허가를 받은 양식시설을 허가 양식업자에게서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에서 규정한 육상해수양식업에는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이 있으며, 육상등 내수양식업에는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과 그 밖의 내수양식업이 있다. 내수양식업에는 사유 수면에서 행하는 조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바닥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공공용 수면에서 행하는 조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바닥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등은 면허어업에 해당한다.

이전의 <수산업법>(법률 제13268호, 2015.3.27.) 제4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가 삭제되어 양식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는 우량 수산 종자의 개발·생산·보급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수산 종자에 관한 연구 개발, 육종, 증식, 생산, 유통, 수출입 등을 하는 수산 종자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법률 제13385호)을 제정하였다(2015.6.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서 수산 종자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세계 인구의 증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서 세계의 어업·양식업의 생산 상황을 보면 천연 수산 자원의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이후 연간 9,000만t 전후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한편 양식업 생산량은 1980년대 이후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2013년을 기점으로 하여 어획 생산량 91억 7,500만t, 양식 생산량 97억 1,100만t으로 양식 생산량이 어획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Toffler, A.는 『제3의 물결』(1980)에서 21세기에 유망한 다섯 가지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로 수산양식업을 지목하였다. 그는 수산양식을 포함한 해양 분야가 ‘제3의 물결’을 이끄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수산양식업이 인구 증가에 따라 자연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산동물 단백질 공급을 양식 산업이 해결하고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현대경영학을 창시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한 경영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Drucker, P. 역시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를 대표하는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양식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미래의 식량자원인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수산업과 어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 보전, 어촌 경관 제공, 어촌 활력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및 식량 안보 등에 기여한다. 외부 경제 효과로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한다. 수산양식이 중요한 이유는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소득 수단을 제공하고 고용을 증대하기 때문이다. 소득 수단의 안정적 확보에 의한 정주 의욕 고취로 도시 유민화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어촌의 국가 균형적 발전을 촉진한다. 이 외에 어획 수산물의 증급속 오염과 독소 생성 등에 대한 양식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양식어업의 어장이용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최정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2),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2016), 한국어업사(박구병, 정음사, 1975), 면허어업의 개념과 어업권의 내용(전윤철, 법제월보11-7, 법제처, 1969.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세계은행(data.worldbank.org).

필자 박민우(朴民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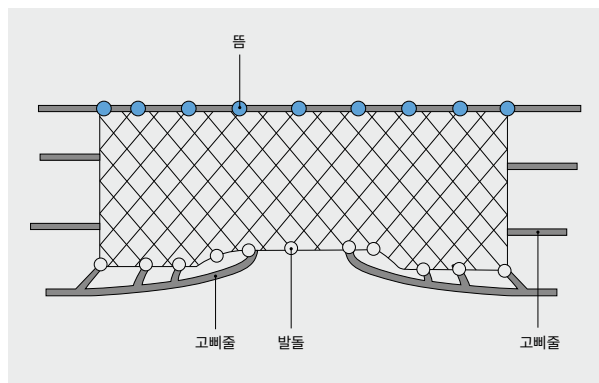
정의 표층 가까이에 있는 어군魚群을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둘러싸서 가둔 후 어군이 그물 밑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줄에 연결된 여러 가닥의 뜰을 끌어 올려 그물을 점차 좁혀서 잡는 어구漁具.

개관 일제강점기에 연안에서 정어리·학꽂치·전어 등을 잡기 위해 도입된 어구였으나, 좀 더 효율적인 건착망으로 바뀌면서 현재 어업현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내용 양조망은 건착망과 그물의 모양이나 구조는 비슷하나, 고기 떼가 그물 밑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찢고리와 찢줄이 없다. 그 대신 발줄에 여러 가닥의 뜰을 달아 그물을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좁힐 수 있도록 하였다. 양조망은 찢고리와 찢줄이 없어 건착망처럼 어군을 포위한 다음 그물 밑으로 도피하는 어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수심이 얇은 연안에서 사용되어 왔다.

양조망으로 최근까지 잡은 주된 어종은 전어이다. 그물의 길이는 약 400m, 깊이는 약 15m 내외이며, 그물감은 나일론이고, 그물코는 21.6mm 내외이다.

해가 뜰 무렵에 출항하여 어군탐지기 또는 눈으로 수면의 상태를 관찰한 뒤 어군을 탐색하여 고삐줄과 뜰줄이 연결된 부표를 어군 좌측 또는 우측으로 투하하고, 전속으로 어군의 전방을 돌아 뜰줄 길이의 약 3분의 1가량 되는 원을 그리면서 투망한다. 투망이 완



양조망 | 신종근



양조망 | 국립수산물과학원

료되면 먼저 투하한 부표를 잡고 그물 양 끝이 서로 포개어지도록 한 다음 고기받이 그물 반대쪽 끝부터 돌음줄을 당겨 발줄 부분이 안쪽으로 오므라들도록 양망을 한다. 양망 중 어군이 그물 위로 또는 그물 끝과 끝 사이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전을 두드리거나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다. 그물이 고기받이 앞쪽까지 양망되면 고기받이 하부에 있는 줍줄을 당기면서 계속 양망을 한다. 어군이 고기받이 한곳에 완전히 모이면 족대로 퍼 올린다.

양조망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연안 수심 10m 전후의 해역에서 조업하며, 1일 5~6회 실시한다. 1회 투망 소요시간은 5~10분, 양망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다. 조업은 5~11월에 주로 하며, 6~7월에 어획이 가장 좋다. 주로 잡는 고기는 전어가 약 80%이고, 약 20%는 정어리·방어·삼치 등이다.

특징 및 의의 양조망은 선망류의 초기 형태 가운데 한 종류로, 초기에는 발줄에 달린 돌음줄을 끌어 올려서 어군을 차단하여 잡았다. 그러다가 어군의 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발줄의 일부에만 줍고리를 달고 줍줄을 조아서 그물의 아래쪽을 좁히는 건착망과 양조망의 중간 형태로 바뀌었다. 현재는 어군의 도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리한 그물 전체에 줍고리와 줍줄을 장치한 건착망으로 대부분 바뀌게 되어 양조망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등학교 해양생산기술-상·하(경상남도교육청, 창원종합인쇄, 2011), 어구분류 및 각부명칭(국립수산진흥원, 태화출판사, 1987), 어업-상·하(부경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대한교과서, 2002),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물과학원, 2008), 日本漁具・漁法圖說(金田禎之, 成山當書店, 1978).

필자 신종근(辛鍾根)

어구 漁具

정의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

내용 어구는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도구이며, 이를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강천어구江川漁具와 바다어구로 나눌 수 있다. 강천어구는 바다어구에 비해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지 않다.

대다수의 도구가 그러하듯이 어구 역시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토대로 발달하였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어구가 생겼지만, 어구의 핵심은 효율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잡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어구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맞춰 유형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어로漁撈 활동은 인류가 바다를 처음 대하고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을 취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인류가 물고기를 잡아 먹기로 삼기 시작한 것은 채집수렵시대 말기에 이르러서이다. 우리 선조는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물고기를 잡았으며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물고기잡이가 더욱 성행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생산기술의 축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특히 바다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많이 잡히는 생물이 번식하는 곳을 찾으며 조석의 변화에 따라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잡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동원하였다. 어구라는 도구는 결국 이러한 흐름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창기의 어구 가운데 상당수는 찌르거나 가뒷 대상물을 잡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맨손어업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도구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도구에는 조어업釣漁業(낙시)과 망어업網漁業(그물)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도구의 흔적은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패총貝塚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낙시바늘과 그물 하단부에 부착하는 어망추 등이 대표적인 어구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완성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찌르개 종류의 도구를 이용하여 고래를 잡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 등을 통해 역사시대 이전의 어구 역사를 조명해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소개한 자료들 외에도 북한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다양한 형태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 알려진 어구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어구에 관한 역사는 전해오는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8 고구려본기 영양왕 24년(613)에는 어살(어전)어업과 관련된 어랑魚梁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요동성이 오랫동안 함락되지 않자, 황제가 배주머니 100여만 개를 만들어 보내 흙을 가득 채워 그것을 쌓아 올려 ‘어랑대도魚梁大道’를 만드는데, 넓이는 30보, 높이는 성과 같게 하여 전사들이 올라가서 공격하게 하였다(遼東城久不下帝道造布囊百餘萬口滿貯土欲積爲魚梁大道闊三十步).”

다음 서긍徐兢이 남긴 『고려도경高麗圖經』 권23 「잡속 2」에는 고려시대 어업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고기잡이는 썰물이 질 때에 배를 섬에 대고 고기를 잡되, 그물은 잘 만들지 못하여 다만 성긴 천으로 고기를 거르므로 힘을 쓰기는 많이 하나 공을 보는 것은 적다(海人每至潮落碇舟島嶼而捕魚然不善結網但以疏布漉之用力多而見功寡).”

이 두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이전부터 어살어업과 함께 그물어업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어구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강과 바다 혹은 연안과 근해라는 장소에 따라



그물 | 충남 홍성 | 1995 | 국립민속박물관



그물망 | 전북 고창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그물을 던지는 어민 | 2018 |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



어선에서 그물을 사용하는 모습 | 경북 영덕 | 2017 | 한국교육방송공사·공유마당

분류하기도 하며, 잡는 대상과 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구 재질과 어구 규모 차이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아울러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주어구와 보조어구補助漁具, 능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부대어구 등으로 분류한다. 이동성에 따라 고정어구와 운용어구 등으로도 나눈다.

참고로 국제어구회의에서는 어구대용멘손용, 살상어구류, 마비어구류, 낚이어구류, 함정어구류, 도약어받이어구류, 입구일정어구류, 끌어구류, 후리어구류, 두리어구류, 물이어구류, 들어구류, 덮어구류, 걸어구류, 엮어어구류, 수확어구류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어구를 채취류·막이류·낚시류·그물류 등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구의 개념과 범주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단순히 대상 어종을 잡거나 채취하는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색·운반 도구, 저장·보관 도구, 판매·유통 도구 등도 있고 이것들이 어로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어구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물류網類이다. 도구로써 그물이 지닌 특징은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의 어종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낚시를 연결한 연승어업延繩漁業이 있기는 하나 그물을 이용한 어업과는 어획량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해역에서 이뤄지는 상당수 어업은 그물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과학의 발달과 어선의 대형화 등과 맞물려 어업의 규모가 커졌다.

그물을 이용한 어업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현재와 같은 그물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물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설망設網·주목망柱木網·중선망中船網·궁선망弓船網·지인망地引網 등이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어전漁箭, 魚箭을 그물어업에 포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물이 등장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 실제로 돌을 이용한 독살과 대나무를 이용한 어살은 쓰이는 재료가 차이가 있을 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망 이후에 등장한 낭장망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물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조업 중인 어선 | 2017 | 한국교육방송공사·공유마당

물의 재질 변화이다. 오늘날에는 ‘나일론’이라 부르는 합성섬유로 그물을 만들지만, 이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자연에서 얻은 것(취 줄기, 면사 등)을 그물 제작에 사용하였다. 어구의 분류에서는 전자를 인조섬유(화학섬유), 후자를 천연섬유라 부른다. 인조섬유와 달리 천연섬유는 내구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천연섬유로 제작한 그물은 사용 중 자주 손상된다.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천연섬유에 다른 약물을 첨가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감물을 들여 보망補網하는 것이다. 가마솥에 감을 삶아서 그 물에 면사 그물을 넣어 염색하면 내구성이 좋은 그물이 된다.

그물과 함께 선박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인력人力과 풍력風力을 이용한 어선이 오랫동안 해역을 누볐지만 기계의 힘을 이용한 동력선動力船이 등장하면서 어업방식이 바뀌게 되고, 어업의 규모와 어업권의 범주 또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 동력선이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 무렵이지만 어업활동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광복 이후 1960~1970년대이다.

그물과 선박을 비롯해 우리나라 어구의 역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무렵 일본에서 다양한 어구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통영과 울산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와 어장에 일본 어민이 대거 이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어구와 어업방식이 유입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강망鰵網이다. 잠수어업과 양식어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의 나잠어업裸潛漁業은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에서 잠수기어업潛水器漁業이

유입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포경 어업捕鯨漁業을 비롯해 여러 개의 낚시가 달린 연승延繩, 도미를 잡는 박망어업縛網漁業, 멸치를 대상으로 한 권현망權現網, 현대식 통발 등도 이 무렵 일본에서 들어온 어구이다.

소금 생산과 관련된 천일염天日鹽 제작 기술과 도구도 일본에서 유입되었다. 해태양식의 새로운 어업 기술인 뜬발식[浮漂式]과 김을 생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구가 소개된 것도 이 무렵이며 개불을 캐는 갈퀴와 백합을 잡는 형망術網도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다.

일본의 영향은 비단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광복 이후와 최근까지도 적지 않은 어구와 어로 기술이 일본에서 유입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어업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양상이 크게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자연스레 우리의 어구와 어업 기술 가운데 아직까지도 일본어로 된 것들이 많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에서 유입된 어업 기술과 어구가 일본과 인접한 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파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흔적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해안 지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들 지역의 어민은 자신이 현재 사용하는 어업 기술과 어구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어민에게 전수하였다고 한다.

개별 어구가 발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다른 생업기술이나 도구에 비해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이러한 흔적은 그물어업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물어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물의 재질과 규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운반하는 어선 또한 거기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 그물어업에서만 이러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업 활동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이뤄지던 시대와 달리 먼바다로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저장 시설이 발달해야 하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어선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어선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시설이 생겨나면서 조업을 비롯해 가공 및 건조 작업이 모두 선박에서 진행된다. 몇 개월 동안 먼바다에 나가 어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데에는 결국 다양한 어구가 함께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어구는 수가 무척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모 또한 천차만별이다. 전통사회에서 행해졌던 원시적인 어업을 비롯해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어로 활동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구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정 어종만을 대상으로 한 어구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구도 있다.

어구의 발달이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어구의 발달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로 활동을 펼치는 공간은 오염 등의 문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사용하다 버려지는 수많은 어구는 어업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어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

특징 및 의의 어업은 여타의 생업활동에 비해 매우 역동적이다. 어구는 어업이 지닌 이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효율성을 요구하는 도구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업 환경에서 새로운 어업 기술과 도구를 받아들이는 일은 어업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대다수의 어민이 수시로 어구를 개량하고 발달한 어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어구는 다른 생업 도구와는 달리 변화 속도가 빠르는데, 여기에는 어로 기술의 발달과 시기마다 어업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선진 어구·어법을



나잠어업 도구 | 강원 속초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앞세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했던 일제강점기에 두드러졌다. 이 무렵 적지 않은 일본인이 발달된 어업 기술과 어구를 이용해 우리나라 어장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선진 어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엄청난 양의 어획고를 올리게 되었다. 자연스레 우리의 어민은 그들의 어로 기술과 어법 및 어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되었다. 수공^{手工}으로 생산되던 어구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계를 통해 대량 생산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구는 과학의 발달과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어구의 발달은 어업 생산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구의 개량화가 이뤄졌던 일제강점기에는 이전 시기와 달리 엄청난 양의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으며, 어군탐지기처럼 최첨단 어구가 등장한 오늘날에는 적은 노력으로 기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다.

어구가 변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수온 등에 따라라도 변할 수 있다.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은 그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어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유는 어업 환경에 맞는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어업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三國史記, 경기만의 갯벌(최춘일, 경기문화재단, 2000), 경남 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광양 김 시식지(김 시식지 유적 보존회, 2008), 어구에 관한 연구(서종원, 생활문화연구16, 국립민속박물관, 2005), 어구학(김대안·고관서, 교문출판사, 1985), 위도어촌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김재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23-어업용구(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서종원(徐鍾源)

어군탐지기

魚群探知機

정의 수중에 초음파를 발사하면 초음파 에너지의 일부가 물체에 부딪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특성을 이용하여 바닷속에서 어군^{魚群}의 위치 등을 탐색하고, 해

저의 깊이나 형태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 장비.

내용 어군탐지기는 음파를 수중에 발사하여 어군을 탐지하는 장비이다. 음파는 주파수에 따라 크게 가청음파와 초음파로 나누는데, 가청음파는 20kHz 이하, 초음파는 그 이상을 말한다. 어군탐지기는 초음파를 사용하며, 음파의 반사성·직진성·등속성 등을 이용하여 어군의 위치와 크기는 물론 해저의 형태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어군탐지기는 초음파를 발생하는 발진기, 발진기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수중으로 발사하는 송파기, 수중의 물체로부터 반사신호를 수신하는 수파기, 수파기에 수신된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 반사신호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나타내는 지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어군탐지기는 초음파 반사신호의 지시 방식에 따라 기록지식과 영상식으로 나뉜다. 초음파의 발사 방향에 따라 수직식과 수평식으로 분류한다.

기록지식 어군탐지기는 물체에서 발생한 반사신호를 기록지 위에 기록하는 초기 방식이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영상식 어군탐지기는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CRT}이나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LCD}를 이용하여 초음파 반사신호를 컬러 영상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현재 주로 이용한다. 영상식 어군탐지기는 송파기에서 펄스가 발사될 때마다 지시기의 오른쪽 끝에 새로운 주사선이 나타나고, 그것이 왼쪽 끝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송파기에서 발사된 펄스 신호가 수중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어군에 부딪치면 어군이 있는 수심 구간에 해당하는 지시기의 주사선 구간에 반사신호의 진폭에 대응하는 컬러 영상이 나타난다. 영상의 수평적인 크기나 색깔의 농도를 관찰하면 대략적인 어군의 양과 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수직 어군탐지기는 송·수파기의 진동면이 해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어선 바로 밑에 있는 해저나 어군의 분포상태를 탐지하는 장비로, 보통 어군탐지기를 말한다. 수직 어군탐지기는 어선 바로 밑에 있는 어군 외에는 탐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수평 어군탐지기는 소나^{sonar}라고 부르며, 초음파를



어군탐지기 | 가로28 세로31 높이25 | 제주해녀박물관



어군탐지기 | 가로24 세로22 높이21 | 제주해녀박물관

수직 방향뿐만 아니라 전후좌우 방향으로 발사하여 어선 주변에 분포하는 어군을 탐지한다. 소나는 수직 어군탐지기와는 달리 자신의 어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어군의 방향이나 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어군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나는 초음파의 발사 방식에 따라 서치라이트 소나와 스캐닝 소나 두 종류로 나뉜다.

서치라이트 소나는 배 밑에 부착한 송·수파기를 기계적으로 선회하면서 임의 방향으로 초음파 신호를 발사하고, 어선 주위에 존재하는 어군을 탐지하는 장비이다. 서치라이트 소나는 송·수파기를 선회하면서 초음파를 발사할 때 초음파 빔이 배 밑에 의해 차단되지 않도록 송·수파기를 배 밑에서 충분히 돌출시켜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송·수파기를 어선 바닥에 수납 공收納孔을 만들어 수납해야 한다.

서치라이트 소나는 한 개의 송·수파기를 기계적으

로 180°나 360° 선회함으로써 어선 주변에 있는 어군을 탐지하는데, 송·수파기가 한 바퀴 선회하는 동안에 물체로부터 반사 신호를 한 번만 수신할 수 있어 다음 반사신호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송·수파기를 선회할 때 어선은 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선 주위의 어군을 탐지할 수 없는 맹목 구역blind sector이 생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스캐닝 소나이다. 서치라이트 소나와 스캐닝 소나가 크게 다른 점은 송·수파기의 구조에 있다. 스캐닝 소나의 송·수파기는 서치라이트 소나와 달리 원통 표면의 둘레와 길이 방향에 많은 진동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초음파를 발사할 때 모든 진동자가 동시에 작동되어 전 방향으로 일시에 초음파가 발사된다. 수신할 때는 원통의 길이 방향으로 배열된 진동자의 열을 전자적으로 바꿔 가면서 각각의 방향에서 들어오는 어군의 반사신호를 수신하여 지시기에 표시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군탐지기가 개발되었으나 어군의 양을 좀 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량한 어군탐지기가 개량 어군탐지기이다. 개량 어군탐지기는 어업 현장에서 사용되기보다 연구나 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바다의 정확한 자원량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면서 일반적으로 과학어군탐지기라고 불린다.

특징 및 의의 바다에서 수심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측심기測深器가 개발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음파를 이용한 측심기이다. 음파 측심기는 해저에 초음파를 발사하여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통해 바다의 수심을 측정하도록 고안한 장비인데, 되돌아오는 반사파에 수산동물도 반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U-보트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쟁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바닷속 물체를 탐지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잠수함에 대한 위협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더욱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었다. 전쟁 후에는 이러한 기술이 어군을 탐지하는 데도 이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어군탐지기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고등학교 해양생산기술-상·하(경상남도교육청, 창원종합인쇄, 2011), 어업-상·하(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대한교과서, 2002), 최신 어류 탐사 기술과 응용(노재동·영안행언, 수산경제사, 1981), 水中音響の原理(Robert J. Urick, 土屋明 譯, 共立出版株式會社, 1978).

필자 신종근(辛鍾根)

어량소 魚梁所

정의 고려시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국 군현에 설치한 특수행정구역.

내용 고려시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 물자를 납부하게 하는 소를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는 수산물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량魚梁은 원래 하천에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기 위한 어구漁具를 말한다. 고려시대 어량소를 설치한 이유는 어량의 규모가 한두 사람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량소라는 특수구역을 설치하여 국가가 어업에 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바다나 강이 있는 전역에 어량소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주로 개경에 가까우면서도 어획량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어량소 주민들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왕실이나 관청에 어획물을 직납하였다. 개경에서 거리가 먼 어량소나 소에 편입되지 않은 어민들은 쌀[米]이나 옷감[紬]으로 납부하였다. 대다수 어민은 일정한 조세만 바치면 잡은 어획물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어량이나 배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한 어량이나 배의 소유주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어량소가 권세가의 소유영역으로 바뀌어 어민들이 권세가에 예속되면서 국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였다. 이에 충혜왕은 악소惡少(성질이 고약하고 못된 것을 하는 젊은이)를 동원하여 해세海稅를 강제로 거두게 하였으며, 공민왕은 모든 어량을 사재시司宰寺에 전속시키겠다고 표명하였으나 권세가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량소를 해체한 중요한 사건은 왜구의 침입이었다. 왜구의 빈

번한 침입으로 해안 지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면서 고기잡이와 소금 등 바다에서 나오는 산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은 육지로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해산물의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1388년(우왕 14)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확보한 이성계 등 무장세력과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사대부는 군인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어량을 군인들에게 나눠 주어 어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 태조는 고려 말에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운 기선군騎船軍에게 어염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조선왕조 체제가 정비되면서 어염의 이익은 없어지고 그 역만 부과되었으며 어염은 다시 권세가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에 정부는 생선간生鮮干을 두어 정부나 왕실의 수요를 충당하였다. 왕실이 필요로 하는 해산물은 생선간을 통해 조달하고, 그 외는 국가와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지 않는 한 권세가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어량소는 이 같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생선과 해조류는 강이나 바다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쉽게 부패되는 산물이므로 특히 여름에는 선도를 유지하며 운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은 말리는 것[脯]과 소금에 절이는 것[醃]이었다. 어량소 주민의 역할은 해산물의 포획과 운송뿐만 아니라 가공 또한 주요한 임무였다. 소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산물을 생산하므로 국가의 통제가 상시로 이뤄졌으며, 특히 해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으로 직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고려시대 어량소 설치의 어업 생산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우수한 품질의 해산물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가서 권세가의 침탈과 왜구의 침략으로 어량소가 해체되자 정부는 생선간을 두어 필수적인 해산물을 공급하게 하고, 그 외 물자는 구매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권력층의 어량 확보를 국가가 저지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어량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많은 자본과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가가 아니면 어량을 운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三國史記, 茲山魚譜, 朝鮮王朝實錄, 고려시대 부곡제연구(박중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수산업(박구병, 한국사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어업실태와 어량소(이정신,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 소연구, 헤안, 2013), 한국어업기술사(박구병, 한국문화사대계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8).

필자 이정신(李貞信)

어로금기

漁撈禁忌

정의 물고기잡이와 관련하여 특정 대상에 접촉이나 언행을 제한하는 관습.

개관 고기잡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금기와 속신이 지켜지고 있다. 특히 어업이 생업인 어부들에게는 마치 종교처럼 신성한 규율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금기가 ‘~하지 마라’ ‘~를 해서는 안 된다’ ‘~를 하면 좋지 않다’ 등으로 행위를 제약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부들은 평상시에도 몸가짐을 조심하는데, 특히 첫 출어를 앞두고서는 마치 제관이 동계를 앞둔 것처럼 행동거지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금기와 속신은 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새로 만든 배 안에는 배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일정 금액을 놓는다. 이 돈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금기를 어기는 경우에는 배서낭이 노하여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경기도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음력 2월 13일을 ‘밴대채날’이라고 하여 배를 띄우지 않는다. 이날은 바람이 강하고 조수가 많이 드는데, 예전에 ‘밴대채’라는 사람이 바다에 나갔다가 빠져 죽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7월 20일은 ‘멍에 놀 날’이라고 하여 출어를 삼가는데, 소 멍에가 곱어진 것처럼 파도가 높게 인다고 한다.

내용 어로금기는 첫 출어, 조업 행위, 어선의 쥐와 그물에 걸린 동물, 어선에 근접하는 시신, 여성 등과 관련하

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 출어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 좋은 날을 받아 정한다. 보통 용·뱀·돼지·양날은 동물이 의젓하여 좋지만, 원숭이·뱀·닭날은 방정맞은 행동이나 땅을 파헤치는 행동을 마치 배가 파손될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첫 출어 날이 정해지면 선주를 비롯한 선원들은 부정한 행위나 음식 등을 삼간다. 출산한 집을 비롯해 초상집이나 결혼식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남들과 욕이나 싸움을 하지 않는다. 또한 부부관계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개나 노루고기 등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생일 음식도 멀리한다. 이 밖에도 타인이 아침에 물이나 불을 빌리러 오면 재수가 없다고 여기며, 자물쇠·된장 등이나 가정 살림살이도 빌려주지 않는다. 넘쳐흐르는 물과 타고르는 불은 풍어의 상징으로, 이를 남이 빌려 간다는 것은 재물이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부들은 고기 잡는 배 위에서도 행동과 말을 조심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휘파람 불기, 신발이나 금속성의 물건(칼이나 숟가락)을 물에 빠뜨리는 실수, 특정 사람(시체나 피) 및 동물(뱀·개·소)을 입에 올리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나 뱀을 부른다고 여기고, 신발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사고가 날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금속성 물질, 특히 칼을 물에 빠뜨린다는 것은 용왕의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고 여겨 아주 불길하다고 여긴다. 특정 사람이나 동물을 입에 올리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부정한 대상을 말하는 행위 자체도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해서도 안 된다. 손가락질을 ‘지탄指彈’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금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신발 한 쪽을 물에 빠뜨리면 남은 신발 한 쪽도 바다에 내던지고, 금속성 물질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배를 옮기거나 쌀과 소금을 바다에 뿌려 용왕께 잘못을 빈다. 칼을 빠뜨리는 경우에는 아예 조업을 멈추고 되돌아가기도 한다.

동물을 배에 산 채로 실어서도,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특히 배와 상극인 동물로는 개와 뱀을 꼽는데, 개고기는 무속과 불교에서 부정한 고기로 인식하여 ‘마당너구리’라고 부른다. 뱀은 용어 자체를 불길하게 여겨 ‘긴 것’ ‘대맹이’ 등으로 부르며, 남해안 지역에서는

뱀을 닮은 고기인 ‘장어’와 ‘숭어’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 그물에 물뱀이 잡히는 경우 배에 사고가 나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믿는다. 어부들은 개나 뱀을 먹거나 입에 올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술이나 소금을 배의 이물과 고물 그리고 사방에 뿌려 일명 ‘부정치기’를 한다.

배에 있는 쥐나 그물에 걸린 거북이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쥐는 태풍이나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난파될 우려가 있으면 먼저 뛰어내려 앞날을 예지하는 영험한 동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쥐가 그물이나 밧줄을 갉아먹기에 쥐를 잡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한다. 과거 풍선이나 목선과 달리 쇠나 FRP로 만든 배는 어지간한 바람이나 파도에도 잘 견뎌서 과거처럼 배가 파손될 염려가 없기에 이 같은 금기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물에 거북이가 걸리면 입을 열어 막걸리나 쌀을 먹여서 바다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면 거북이는 용과 마찬가지로 수신水神으로 여겨 어부와 배를 지켜주는 영물로 받든다. 이 때문에 죽은 거북이가 그물에 걸리는 때에도 해안에 사람처럼 묻어준다.

조업 중에 떠내려오는 시체를 발견하면 수습하여 포구로 돌아갈 것인지 그냥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로 시체를 밀었더니 배에서 멀어지거나 발이 배 쪽으로 향하는 경우 시체를 수습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체가 배에 붙거나 머리가 배 쪽을 향하면 시체를 건져 수습한다. 시체는 직접 ‘시체’라고 하지 않고 ‘영장’ ‘친구’ ‘횡재’ ‘사촌’이라고 부른다. 시체를 건져 올릴 때는 배를 왼쪽으로 세 번 돌리는데, 이는 시체를 올릴 때 배의 왼쪽에 실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왼쪽은 비일상적인 방향이기에 일상적이지 않은 시신을 올린다는 의미이다. 배에 시신을 올리면 술을 가지고 간단히 제사를 지내준다. 시체를 실은 배에는 서낭기를 달고 배에 기적을 올리며 돌아온다. 여자 시체는 우대하여 잘 묻어준다. 훗날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 시신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주기도 한다. 이 같은 사례는 경상남도 어촌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 가운데 임신부, 갓 출산한 여자, 생리 중인 여성은 금기 대상이다. 특히 임신부와 갓 출산한 여성의 경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부정하다고

하여 접촉을 하지 않는다. 어부들은 부인이 출산할 때도 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선원 중에 부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승선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처럼 여자와 관련된 금기가 많은 것은 ‘피부정’ 관념 때문이다. 여자—월경—유혈—부정유발—신성성 파괴—자해自害라는 민간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선원이 부득이 배를 타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을 축출하는데, 첫째는 술·과일 등의 제물을 차려 놓고 비손한 후 그 선원을 제물 앞에 앉힌 뒤 쪼불을 그의 주위에 돌려 부정을 몰아낸다. 또한 소금과 쌀을 배 안 곳곳에 뿌린다. 둘째는 선주 아내가 선원 집에 쌀·미역·고기·돈을 가져가서 재앙판 곁에 놓고 “재앙님네 우리 배에 채수·소망 있고 고기 많이 잡히도록 풍어가 되도록 빕니다. 재앙님네 이번에 출어하여 큰 고기 많이 잡으면 정성드리겠습니다.”라고 빌고 나면 어부는 출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재앙은 금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섬기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금기의 속성에 ‘성聖’과 ‘속俗’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셋째는 무당·선원·선주 부인이 머리를 감은 뒤 원새끼에 돌을 묶은 것은 남몰래 선원의 허리에 돌리고, 이물에 제물을 차리고 비손한 후 아무도 모르게 선원을 배의 고물에 데리고 가서 허리에 두른 새끼와 돌을 벗기어 바다에 던져 넣는다.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여자가 앞으로 지나가면 부정하다고 여겨 배를 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머리 감는 여자를 보아도 부정을 탄다고 본다. 그리고 여자가 어선에 오르면 운이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부득이 여자가 배를 타는 경우에는 액땀을 위해 선원 중 한 사람이 여자 속옷을 입고 승선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어로금기는 과거에 비해 많이 퇴색하였다. 과거 첫 출어를 앞두고 지킨 금기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어선의 쥐도 그물 보호를 위해 잡는다. 출어를 앞두고 떠 동물과 관련된 금기도 사라졌고, 조업 중 거둔 시신도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어업과 관련된 여성 금기가 상당하였으나 요즈음은 부부가 함께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이 일반적이다. 금기도 세월 따라 변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경남 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동남해안의 어로민속(김몽상, 한국민속학16-1, 1983), 부산지방의 어로속신 고(류종목, 민속문화1-1, 동아대학교문리과대학 부속 한국민속문화연구소, 1978), 어로민속(권삼문, 한국민속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집문당, 1996), 한국의 배서낭과 어로금기(정연학,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3,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정연학(鄭然鶴)

어로문화

漁撈文化

정의 강이나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 따위를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는 어로활동에 관련된 문화.

역사 어로문화는 인류의 문명사와 궤를 함께한다. 기원은 선사시대 채집·수렵 단계에서 식량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그동안 어로는 신석기시대 농경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 정선 매둔동굴에서 출토된 14점의 그물추는 어로의 기원이 농경보다 앞선 시기의 산물일 개연성을 말해준다. 그물추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약 3만 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미 그물을 이용한 어로가 하천에서 행하여졌음을 뒷받침한다. 연대에 근거하면 매둔동굴 그물추는 인류의 어로문화사에서 가장 앞선 시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하천의 어로는 해양으로 확장되었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시대 해양어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이다. 태화강 지류의 대곡천변 절벽에 새긴 암각화에는 바다와 육지의 동물상과 인물상, 도구 상 등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다. 어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북방긴수염고래·흑등고래·참고래·귀신고래·향유고래 등과 같은 대형고래류와 바다거북, 물개, 물고기 등이다. 도구 상은 배·부구·작살·그물·어살·활 등인데, 그물을 이용하여 고래를 잡는 장면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7,000~3,500년 전 울산만을 중심으로 이뤄진 집단 고래사냥의 흔적이다. 이웃한 울산광역시 황성동 패총에서는 작살이 박힌 고래 뼈가 출토되어 고래사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는 농경과 더불어 해산물 채취가 곳곳에서 성행하였다. 우리나라 해안과 도서지역에 두루 분포한 패총유적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 패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농경 관련 도구와 굴·조개류·전복 등은 당시 생활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화석이다. 이로 미뤄보아 바닷가에 정착한 선사인들은 갯벌이나 갯바위에 서식하는 해산물이 주된 식용자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어촌계 단위로 갯벌에서 이뤄지는 맨손어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바다가 주요 무대가 된 어로활동은 어로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략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만어업의 시대이다. 이 시기 어로활동은 주로 내만에서 전개되었으며, 어촌의 중심 포구가 내만 깊숙이 발달하였다. 어법은 어전漁簾이나 주목망柱木網과 같은 정치어구定置漁具와 중선망이 주된 어구와 어선이었다. 수산물 저장기술은 염장 처리를 하거나 햇볕에 건조하는 방식이었다. 해산물의 거래는 공물貢物과 객주客主에 의하여 이뤄졌다.



갯바위 어로 | 충남 보령 | 2019 | 강성복



그물 당기기 | 충남 보령 | 2021 | 강성복



어살 | 충남 서천 | 2018 | 강성복



고기 분류 | 충남 보령 | 2019 | 강성복

두 번째 단계는 연안어업의 시대이다. 일본 어로기술의 영향으로 속칭 ‘일중선’으로 불리는 안강망 어선이 도입되어 어선어업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어로수역은 연해로 크게 확장되었으며 포구가 점차 만 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어물의 거래량도 증가하여 객주와 어업조합에 의해 거래가 활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제주해녀의 바깥물질이 전국 항포구와 도서지역으로 확산되어 해산물 채취 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세 번째 단계는 근해 및 양식어업의 시대이다. 어선의 동력화·대형화가 이뤄져 대형항만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어항의 기능이 만 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어선의 활동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근해로 넓어졌다. 그러나 내만과 연안의 수산자원 고갈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양식기술의 도입으로 김·바지락·전복·굴 등 양식업이 보편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어촌마다 어로활동을 주관하는 어촌계가 조직되어 기존의 어장에 대한 총유화(總有化)가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네 번째 단계는 원양어업의 시대이다. 연근해 수산물의 고갈에 따라 인도양 참치어업을 기점으로 현대식 장비를 갖춘 대형선단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항법장치와 어군탐지기 등의 첨단장비가 탑재되어 어선은 고도화되었으며,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상업화된 낚시배 등이 새로운 업종으로 떠올랐다.

내용 어로문화는 내수면어로와 해양어로를 아우른다. 강과 바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이

다. 이곳에서 나는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어획하는 행위가 어로이다. 또한 그 목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및 과정에서 이뤄낸 물질적·정신적 산물을 통틀어 어로문화라고 한다. 어로문화의 범주는 어로활동과 어로기술은 물론 어구의 제작과 이용, 어로와 관련된 사회제도·관습 및 세시·의례·신앙·구비전승 등을 포괄한다.

원초적인 어로문화는 하천이나 갯벌에서 수산물을 잡거나 잡는 일에서 비롯되었다. 그 대상은 다슬기·조개·굴·낙지 등의 연체동물과 가재·게·따개비 등과 같은 갑각류와 작은 물고기 등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도구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채취 단계에서 수렵처럼 물고기를 사냥하는 어렵(漁獵)으로 전환되었으며, 어구 및 어로기술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나아가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에서 주술적인 의례·신앙·속신 등이 생겨났다.

어로기술은 어로문화의 전승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어업생산력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어로기술은 물고기를 유인하여 덫에 걸려들게 하는 함정어로(陷井漁撈)이다. 연안에 촘촘하게 밧(울타리)을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어군을 포획하는 어살(漁簍)이 그것이다. 하천에서 시작된 어살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해면어량으로 발전하였으며, 삼국시대 이래 중요한 어로기술로 뿌리를 내렸다. 고려시대에는 어살을 뜻하는 어량(魚梁, 漁梁)에 대한 기록이 자주 보이는데, 규모가 큰 어살은 주로 권문세가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국가에서 왕자에게도 어살을 주었는가 하면 궁원(宮院)이나

불사佛寺도 어살을 소유하였다. 그만큼 어살에서 나오는 이익이 컸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가난한 백성에게 사용수익권을 주고 3년마다 교체한다.”라고 하여 백성들이 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규제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각 도의 어살을 어리漁利에 따라 상등전上等箭·중등전中等箭·하등전下等箭 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장부에 어획량을 기록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남원도 호부 산천조에 기록된 섬진강 두계어전豆溪漁箭은 조선시대 어살 운영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어살은 전라남도 곡성의 무신 마천목馬天牧(1358~1431)이 돌로 막은 독살인데, 훗날 남원부에서 보수를 하었다고 기록되었다. 관의 감고監考하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궁중에 진상되는 섬진강의 특산물인 은어의 포획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두계어전은 195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어로가 이뤄져 은어, 참게, 뱀장어, 황어 등과 같은 회유성 어종을 잡았다.

어살은 일시에 대량어획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다. 지금도 일부 어촌에서 전승되고 있는 죽방렴竹防簾, 독살[石防簾], 덩장, 개막이[建干網] 등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어살의 범주에 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어살은 그물로 대치되어 어로문화의 혁신을 가져왔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서해안의 주목망이 시원이다. 오늘날 어로의 근간이 되는 자망刺網, 각망角網, 낭장망囊長網, 안강망鰵鱈網 등의 정치망은 주목망의 원리를 이용한 어로기술이다.

어선은 그물·낙시와 더불어 어로기술의 척도이다. 전통시대의 어선은 돛을 달고 노를 저어 항해하는 범선이었다. 동해안의 때배, 제주도의 테우, 통영의 통구민배 따위는 뗏목과 유사한 원초적인 어선이다. 이에 비해 서남해안의 멩텅구리배와 닻배, 서해의 젓중선, 강화도 일대의 콩지배(콩당배) 등은 젓새우·실치·조기잡이 전용으로 제작된 어선이다. 제주도의 덕판배는 본토와 일본을 연결하는 연륙선이다. 진상품을 바치거나 먼바다로 나아가 고기를 잡을 때 이용되었다. 또한 소형 안강망으로 서해안 어장을 누빈 중선배는 어로작업에 최적화된 범선이다.

이처럼 다양한 어선 가운데 중선배는 어로문화사에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배는 10t 내외의 한선으

로 조선 후기 선박 건조기술과 어로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중선배의 등장으로 어부들은 원거리에 있는 어장을 왕래하면서 고기를 잡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서해안 조기잡이는 중선배로 인해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리하여 어업이 번성한 섬과 포구는 수십 척의 어선을 거느렸고, 어기漁期가 도래하면 회유하는 조기 떼를 쫓아 남쪽으로는 부안의 칠산어장부터 북쪽의 연평도까지 출어에 나섰다. 중선배의 어획물은 해산물의 공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장시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중선배어업은 서해안 어로문화를 관통하는 배치기를 낳은 산파이다. 배치기란 출항을 떠난 어선이 만선으로 귀향할 때 주로 부르는 흥겨운 소리와 풍물굿이다. 만선을 이룬 어선은 표시로 봉기(봉죽기)를 휘날리며 돌아오는데, 포구가 가까워지면 어부들은 풍물을 울리며 노래를 부른다. 그 소리를 듣고 만선임을 직감한 어민들은 축하의 뜻으로 마중을 나와 한바탕 흐드러지게 난장을 벌인다. 배치기는 서도민요소리에 굿거리장단과 익살맞은 어깨춤이 어우러지는 어로문화의 진수이다. 평소 신이 나면 장소를 불문하고 즉석에서 연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풍어를 기원하러 당산에 오를 때 부르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이물랑·에밀랑·봉죽타령·봉기타령 등으로 불린다. 배치기는 전라도에서 충청도·경기도·황해도·평안도에 이르는 서해안 ‘배치기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소멸되어 어로현장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단지 황도 봉기풍어제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사계절 어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물때이다. 조류에 대한 인지는 물때라는 상징체계로 나타난다. 어민들은 ‘물때 감’을 바탕으로 어로에 유리한 시기와 불리한 시기를 구분한다. 곧 보름이라는 한 주기의 물때와 그 하위 물때인 조석 간만은 비단 어로활동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삶 전체를 규정한다. 물론 조석 간만의 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동해안 어촌은 물때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어로활동과는 무관하다.

어로생활은 일정한 주기를 갖는다. 이에 따라 계절별 포획하는 어종과 어법이 다르고, 채취하는 해산물

의 종류도 차이가 있다. 그물과 낚시를 사용하는 어선 어업은 대체로 봄 어기와 가을 어기로 크게 나뉜다. 이는 난류를 따라 북상하는 어군의 산란기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회유 시기와 맞물린다. 이 때문에 어선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고기를 잡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은 휴어기에 든다. 반면에 겨울이 제철인 해산물도 적지 않다. 서해안 어촌에서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굴·조개·홍합 등을 비롯해 감태·가시리[細毛]·참말 등의 해조류 채취가 한창이다.

어촌의 세시歲時는 의례가 중심이다. 그 정점에 당신앙堂神仰이 있다. 풍어는 바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어민의 간절한 소망이다. 고기잡이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당신앙은 바로 풍어와 무사귀환에 대한 기대심리가 녹아든 오랜 문화적 장치이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베푸는 서해안 당제와 동해안 서낭제 및 별신제가 그 표상이다. 지역에 따라 갯밭의 풍작을 기원하는 의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서해안과 남해안 어촌에서 부녀자들이 주관하는 굴부르기·조개부르기·갯제·용왕제 등이 있다. 동해안 일원에서는 미역의 풍작을 기원하는 짬고사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갯바위를 닦아주는 기세닦기의 전통이 있다. 서남해안에서도 자연산 미역밭[羅田]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갯번고사, 갯닦기, 물주기 등과 같은 공동체 관행이 내려온다. 이 밖에 어장이 열리는 시기에 치성을 드리는 배고사를 비롯해 주벽고사·덤장고사·독살고사·함정고사·도깨비고사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어로문화이다.

특징 및 의의 어로문화는 농경문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되었다. 땅을 일궈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련의 과정을 농경문화라고 한다면 어로문화는 하천과 바다에서 이뤄지는 고기잡이 및 수산물 채취와 관련하여 전승되어 온 문화 전반을 의미한다. 이처럼 양자는 생태환경이 서로 다른 물과 물을 기반으로 형성된 까닭에 다소 이질적인 요소가 발견되지만, 인간의 식량자원 획득 과정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라는 점에서 일정한 함수관계에 있다. 바다의 밭에 비유되는 갯벌을 갯밭·굴밭·미역밭이라 부르는 경작 관념과 이

를 논두렁처럼 경계를 나눠 해산물을 채취하는 관행은 농경과 어로가 긴밀하게 맞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농작물을 재배하듯이 수산물을 길러서 수확하는 양식어업은 어렵漁獵에서 어경漁耕의 시대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로문화는 강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로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농경과 짝을 이룬 삶의 방식이자 기술이고, 일·놀이, 신앙·의례, 축제가 망라된 문화예술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오늘날 어로문화는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무분별한 남획, 방조제와 하굿둑 같은 난개발로 어족자원은 날로 고갈되고 있으며 어로문화로 맥을 이어온 다양한 문화적 전통은 시들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과 어촌사회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어촌계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즉 어장 휴식년제, 종패 뿌리기, 해적생물 구제, 해산물의 체장體長(몸길이) 및 채취량 제한 등은 하나의 대안이



추자도 고기부르기 | 제주 | 2012 | 강성복



출어를 기다리는 어선 | 충남 보령 | 2019 | 강성복

될 수 있다. 어장이란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을 구성원 스스로 일정한 금제禁制하에 이용하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는 미래의 어촌사회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신뢰와 결속력을 강화하여 어로문화를 살찌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참고문헌 均役事目,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茲山魚譜, 금강 유역의 어로문화(강성복, 금강 수로와 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9), 도서지(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충청남도, 1997), 섬진강 유역의 어살 연구(강성복·박종익, 한국민속학64, 한국민속학회, 2016), 섬진강 유역의 전래어법과 어로기술·어로유산(강성복, 무형유산4,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1·2(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1~3(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황금담치 외연열도 사람들(강성복, 민속원,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강성복(姜成福)

어로요 漁撈謠

정의 바다, 갯가 등지에서 일할 때 어민들이 부르는 노래.

내용 어로요는 어업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로 마을 앞 모래사장, 갯벌, 마을 공동어장에서 일하며 부른 어로요가 있다. 멸치잡이나 전어잡이 관련 어로요가 대표적이다. 둘째로 조기잡이처럼 먼 거리를 내왕하면서 부른 어로요가 있는데, 조도 닻배노래와 서해안 배치기노래가 대표적이다. 세 번째로 해녀들이 물질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다.

노동요인 만큼 내용이 노동의 기능과 일치한다. 뱃일을 예로 들면, 밧줄과 관련된 일을 하며 부르는 노래로 줄끄는소리와 줄감는소리 등이 있다. 배를 부리면서 부르는 노래로는 가장 많이 부르는 노젓는소리가 있는데, 흔히 뱃노래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그물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에는 그물내리는소리와 그물당기는소리 등이 있으며, 태풍이 불 때 급히 배를 육지로 올

리면서 부르는 노래로는 배올리는소리와 배내리는소리 등이 있다.

어로요는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며 어기를 마칠 때까지 어부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 어로 현장에 적합한 노래를 선택하고 불러 노동과 몸과 노래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노동이 놀이로 전이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 노동과 몸이 노래로 조율되면서 고된 몸이 노래에 힘입어 몸을 리듬감 있게 만들어 준다. 노래를 부르면 노동을 하는 몸이 매번 새롭게 힘을 얻는 효과가 있다.

지역사례 어선어업에서 부른 뱃노래는 서해안과 서남해안에서 많이 전승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조기잡이와 멸치잡이 그리고 전어잡이와 관련된 것이다. 닻올리는소리, 돛소리, 그물당기는소리, 고기푸는소리, 풍장소리 등이 있다. 배를 관리하면서 부르는 배올리는소리, 배내리는소리, 줄을 꼬면서 부르는 줄꼬는소리 등은 어선어업을 하는 모든 곳에서 불렀다.

서해 연평어장의 경우 조기잡이 활동이 왕성했던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경기도 안산 일대의 섬과 연안 지역에 자료가 남아 있다. 일대에서 전승되는 어로요는 중선을 이용한 조기잡이 노래이다. 노젓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 고기푸는소리, 풍어놀이, 한강 시선뱃노래, 배치기소리, 바디질소리, 닻감는소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염전발가는소리, 굴따는소리 등이 있다.

서해안권 중부지역인 충청도에서는 노젓는소리, 배치기소리, 그물놓는소리 등이 있다. 충청남도 서해안 보령·서산·태안·당진·아산 등지에서는 어부가, 노젓는소리, 배치기소리, 그물당기는소리, 고기푸는소리, 붕기타령, 출항가, 굴따는소리, 배올리는소리, 고기낚는소리 등이 있다. 이 지역 어로요는 경쾌하고 흥겨운 것과 구성지고 애조를 띠는 것이 특징이며 사설이 긴 편이다. 또한 여성들이 굴을 따거나 조개를 캐면서 부르는 ‘굴 따러 가세’나 ‘조개 부르는 곳노래’에는 여성 어로요로서의 특성이 있다.

서남해의 경우 칠산어장에서 조기잡이를 할 때 부르는 어로요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서남해 뱃노래는 주로 조기잡이 노래이다. 주목할 만한 지역

으로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 일대와 위도이다. 이 두 지역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어민들은 칠산어장이라는 같은 조업권에서 활동하였으며, 조기 어장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친밀하게 지냈다. 조도 사람들이 과거 수백 년 동안 매년 청명부터 70~80일 동안 위도에 객 주상회를 정해두고 이곳에 머물면서 조기잡이를 하였던 때문이다. 조도 사람들은 출어 준비에서부터 귀향할 때까지 과정마다 노래를 불렀으며 구성 또한 다양하다. 이에 비해 위도 사람들은 당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뱃노래 또한 가래소리만 전승된다.

조도 뱃노래는 정선망碁網인 뱃그물로 조기잡이를 하면서 불렀던 어로요이다. 그물신는소리, 노젓는소리, 뚫다는소리, 풍장소리, 그물내리는소리, 그물올리는소리, 뒤풀이 등이 있다. 출어할 때부터 귀향할 때까지 줄기차게 뱃노래를 부르는데, 그 주제는 만선과 무사 귀향이다. 노래에는 만선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부를 성취하기 위해 큰 배를 만들어 칠산 황금어장을 찾아 먼바다로 장기간 출어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부를 획득하여 무사히 귀향하기를 소원하는 조도 어민들의 의식이 표출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어로요는 멸치잡이와 관련된 노래이다. 멸치잡이 어로요에는 갯변(자갈 또는 모래 갯벌)에서 후릿그물로 잡을 때 부르는 노래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밤에 횃불을 켜 멸치 떼를 유인하여 그물 또는 가래질로 잡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갯변에서 후릿그물로 개맥이를 하여 잡을 때 부르는 어로요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불렸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통영시 한산면·육지면·사랑면, 진해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사하구 다대포, 기장군,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장기면, 울진군 후포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그리고 동해안 일대와 제주도로 이어진다. 수집된 자료로는 노젓는소리, 그물치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 만선소리, 고기푸는소리, 가래질소리, 청청소리, 그물터는소리 등이 있다.

멸치잡이 어로요는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와 여수시 거문도, 통영시 매물도·육지도 등 외해의 섬 지역에서 전승된다. 이 노래들은 밤에 바다에 나가 횃불로 멸치 떼를 유인하여 잡는 전통적 멸치잡이 어로를

묘사한다.

강원도 어로요에는 노젓기, 그물당기기, 고기푸기 등 고기잡이의 핵심 작업에 부르는 것과 그물말리기, 그물씻기, 그물신기 등 부수적인 작업에 부르는 것 등이 있다. 강원도 노젓는소리의 전형은 ‘에이야 소리’이며 선후창으로 부른다. 그물당기는소리의 후렴은 다양하며, ‘마이다 소리’ ‘야라세이 소리’ ‘산자 소리’ 등이 있다. 이 노래들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동해안 일대에서 두루 부르며, 모두 선후창으로 부르면서도 후렴만 되풀이하는 공통점이 있다. ‘세노야 소리’ ‘소나에 소리’ ‘어이싸 소리’ 등은 후렴만 주고받는다.

강원도의 그물당기는소리에는 사설 없이 후렴만 주고받는 노래가 많다.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있다. 고기푸는소리는 ‘가래소리’가 대표적이다. 고기터는소리는 그물에 남아 있는 고기를 털어내며 부르는 노래인데, ‘벗겨 소리’ ‘빼기고내자 소리’ ‘에이야 소리’ 등이 있다. 동해안 일대의 어로요는 우리 것과 일본 것이 혼재해 있다. 곡조는 우리 노래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사설은 일본말로만 된 것도 적지 않다.

제주도 어로요는 육지의 노래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해녀가 어로요의 주체로 해녀노래가 있다는 점, 일제강점기 <바다는 갔다>라는 항일운동 노래가 있다는 점, 모래사장이 펼쳐진 마을마다 뿔(멸치) 후리던 작업과 함께 ‘뿔후리는 소리’를 불렀다는 점, 통나무를 묶어 만든 ‘테우’ ‘테위’ ‘떼배’라고 하는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테우 젓는 소리’가 있다는 점, ‘갈치 낚는 소리’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이다.

해녀노래는 바다를 배경으로 물질 작업을 하는 ‘해녀’가 주체가 되어 부른 어로요이다. 배의 노를 저으며 테악을 짚고 물질을 나갈 때 그리고 물질 작업이 끝나고 나서 서로 흥겹게 놀 때 노래를 한다. 특히 일정 지역의 섬에 뱃물질을 가져나 육지 출가 물질을 위해서 불렀던 ‘노젓는소리’는 대표적인 해녀노래이다. 의미 있는 사설과 후렴을 선후창으로 부르거나 서로 의미 있는 사설을 주고받는 교환창으로도 불렀다. 물질 작업과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노를 젓고 출가出稼를 떠나는 장면과 노를 젓는 행위 등이 담겨 있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 이여도사나 어어어 / 이여도사

나 여차여차 / 이어도 음음음 / 이어도사나 여차 / 요넬젓
 엉 어덜가리 / 음음음 / 진도바당 꼴로나가자 / 이어도사
 나 이어도사나

해녀항쟁가는 제주도 우도 해녀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노래이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우도 출신 해녀인 강관순이 지은 가사에 창가인 <동경행진곡>의 곡조를 붙여 <바다는 갔다>라는 제목으로 부른 해녀들의 노래이다. 1·2·3절은 해녀들의 삶을, 4절은 저항의지를 담고 있다.

멸치후리는 소리는 바닷가에 멸치 떼가 들어오면 멸치 후리는 작업을 하면서 불렀다. 제주 김녕을 중심으로 월정·함덕·곽지·협재·이호·삼양 그리고 서귀포의 화순·표선·신양 등지의 멸치잡이가 유명하였다. 그 중 김녕에서 멸치후리는 소리가 많이 불렸다.

‘멜후림소리’ 또는 ‘멜후리는 소리’라고도 한다. 멸치잡이는 해 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이어진다. 공원이 타고 멸치 떼가 들어오는 것을 정탐하는 당선 두 척, 그물을 실은 망선 두 척, 그물 당기는 방진망을 신고 가래를 돌리는 닻배 다섯 척이 한 선단이다. 한 선창자가 선창하고 모두가 받는 소리를 하는 선후창 형식으로 부른다. 처음에 멸치를 후리는 소리와 풍어를 기뻐하는 느린 서우제와 빠른 서우제 소리를 한다. 여러 사람이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부르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하고 고된 일을 극복해야 하므로 ‘노래’가 필요하였다. 이 작업은 음력 3월 말쯤 멸치 떼가 들어오면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테우 젓는 소리’는 ‘선유가’라고도 하며, 테우를 타고 고기잡이나 해초를 채취하기 위해 돛을 달아 4km 정도의 바닷길을 오가면서 부른 노래이다. 흥얼거리는 형식의 노래로, 소리의 구비를 잘 살려서 유장미가 있는 선율이 아름답다. 세 사람이 노를 젓는데, 가창 형식은 선후창으로 부르기도 하고 독창으로 부르기도 한다. 순풍에 돛을 달고 노를 젓는 한가로운 어부의 심정을 잘 나타내며, 가락과 선율이 유장하여 옛 선인들의 흥취를 느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어로요는 풍선배 시절 어업노동을 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어로의 기능과 더불어 어민들의 이념, 정

서, 삶의 의지, 고난과 극복의 의지 등이 담겨 있다. 육지의 어로요에는 어로의 기능과 더불어 풍어에 대한 기대와 어민의 신명이 깃들어 있으며, 제주도 해녀들의 어로요에는 출가 물질하는 해녀들의 경험과 노동·애환·정서·신념 등이 스며 있다.

어업노동은 물때의 제약을 받는 특성이 있다. 물때를 놓치면 어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로요에는 시간과 다투는 절박함과 격렬함이 담겨 있다. 시간과 다투는 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격렬하게 온 힘을 짜내야 하는 등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

어업노동이 기계화되면서 어로요는 사라졌다. 동력선이 발달하여 노젓는소리가 사라지고, 그물 당기는 기계의 등장으로 그물당기는소리와 닻 감는 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어로요는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자산이기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수회’ 또는 ‘보존회’를 결성하여 전승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뱃노래(김순제, 호악사, 1982), 한국의 해양문화1-서남해역 하(해양수산부, 2002), 한국의 해양문화2-서해해역 하(해양수산부, 2002), 한국의 해양문화3-동남해역 하(해양수산부, 2002), 한국의 해양문화4-동해해역 하(해양수산부, 2002), 한국의 해양문화5-제주해역(해양수산부, 2002).

필자 나승만(羅承晩)

어로장 漁撈長

정의 여러 척의 어선이 선단을 형성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조업방식에서 그 선단의 어로 과정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사람.

내용 일반 어선에서는 어로장이라는 직책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선장이 항해와 어로를 모두 담당하는 선장 중심체제로 조업한다. 하지만 다수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한 통의 어구를 조작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어업에서는 어로장이 어로작업과 항해 업무를 통괄하는 어로장 중심체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어선어업에서 어로장이라는 직책은 기선권현망機船權現網 어업,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大型機船底引網 어업, 기선선망機船旋

網 어업 등에서 볼 수 있다.

기선권현망 어업은 대개 어선 5~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룬다. 어군을 탐색하는 어군탐지선(어탐선),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2척의 망선(본선), 잡은 멸치를 바로 삶아 가공하는 가공선, 가공한 멸치와 필수품을 운반하는 운반선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다른 작업선을 보조하는 연락선(중선)이 있다. 최근에는 어탐선(1척), 망선(2척), 가공·운반선(1척) 등으로 선단을 꾸리기도 한다. 기선권현망 어업에서 어로장은 어군탐지선에 승선하여 선단의 어로 업무를 지휘한다.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주선과 종선이라 불리는 두 척의 어선으로 조업을 한다. 두 어선은 서로 묶어 항해하지 않고 어구를 나누어 탑재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업 과정에서 주선의 선장이 어로 업무를 지휘한다. 주선의 선장이 어로장 직무를 겸하는 지휘체계이다. 기선선망 어업은 한 척의 망선(그물배) 혹은 본선과 두 척의 등선(불배), 그리고 3~4척의 운반선 및 부속선으로 선단이 구성된다. 50~140t 규모의 망선에는 중량이 8~10t에 달하는 각종 어구가 탑재된다. 기선선망 어업은 어로장이 지휘선인 망선에 승선하여 망선의 선장은 물론 전 선단의 운항과 선원들의 활동을 지휘한다.

여러 척의 배로 선단을 이루어 작업하는 경우 선장이 따로 있더라도 주선(主船)과 종선(從船)의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어로장의 지휘를 받는다. 어로장은 선단의 작전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한다. 어군을 추적하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시기를 판단하고 지시한다. 어로장은 그날그날의 어획량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조업의 성패에 따라 어로장의 명성과 가치가 결정된다. 어로장은 출어 전에 선주와 협의하여 선원을 고용하고 선단을 구성하며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어구를 관리하고 선박을 정비한다. 어로장은 어획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예상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어장을 선정하고 출어시기를 결정한다. 어군탐지선 혹은 주선에 승선하여 어장형성을 예측하고 어장형성이 예측된 어장에서 어군을 탐색한다. 어군이 탐색되면 투망 여부를 판단한다. 투망하기로 결정하면 선단을 지휘하고 통솔하면서 어망을 던진다. 어구를 투망하여 어군을 가둔 다음 적절한 시간에 양망을 지시하여 어획한다. 양망과 함께 포획된 어획물을 운반선이나 가공선으로 옮긴다. 어로

작업이 완료되면 귀항한다. 어획고를 확인하여 선주에게 알린다. 어군 및 어획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선단과 교환하거나 다음 어로작업을 준비한다.

특징 및 의의 한 통의 어구를 다수의 어선이 조작하여 하나의 조업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 그 선단의 어로 지휘권은 선장이 아닌 어로장이 담당한다. 어로장의 권한은 선장보다 상위에 있다. 어로장은 어로 업무뿐만 아니라 항해 업무를 포함한 선단 소속 어선의 운항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다. 어로장은 조업 계획의 수립과 준비, 어장 선정, 어로 정보 수집, 투망·양망과 같은 어로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는 고도의 어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참고문헌 기선선망어선의 지휘권과 어로장의 법적지위(최종화·김진건·이병기, 해사법연구3, 한국해사법학회 1991), 선박운항자로서의 어로장의 법적지위(양석완, 상사판례연구29-1,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어로장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장영준, 법학연구23-2,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필자 박정석(朴正石)

어망추 漁網錘

정의 그물을 물속에서 가라앉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

내용 그물은 실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엮은 것으로, 물고기를 둘러싸거나 그물코 사이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포획하는 데 사용된다. 그물은 맨 위에 그물을 물 위로 뜨게 하는 뜸, 물고기를 잡는 그물 그리고 그물을 아래로 가라앉게 하는 그물추로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그물은 화학섬유인 나일론으로 제작되지만, 이전에는 무명과 식물질 섬유 등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뜸과 그물은 유기물질인 관계로 선사·고대의 그물이 잔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토기 편에 찍힌 그물흔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물코의 크기는 6cm 정도이다. 이는 신석기시대부터 그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어망추 | 목포대학교 박물관

그물의 사용을 입증해 주는 또 다른 증거는 그물추(어망추)이다. 신석기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그물추는 형태와 재질의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어망추는 토기가 파손된 것을 사용한 토기편추土器片錘, 편평하고 네모난 석제의 사면에 작은 홈을 갈아 만든 절목석추切目石錘, 돌에 홈을 한 바퀴 돌려 파낸 형태의 유구석추有構石錘 등이 사용되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어망추의 원형이 되는 대롱형상을 띠는 관상토추管狀土錘와 유구토추가 등장한다. 관상토추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사용된 것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도 토기를 구울 때 곁에 끼워서 구울 수가 있는 고효율적인 제작방법 때문이다. 갈대나 대나무와 같은 얇은 막대를 두고 진흙을 한 움큼씩 쥐어서 대롱 형태를 만들고, 이를 토기 굽는 가마에 넣으면 간단히 어망추를 얻게 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어망추와는 달리 간단히 대량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최근까지 상용되고 있다. 경기도 하남 미사리 유적에서 출토된 관상토추에는 어망추를 제작하였던 장인의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다. 경상남도 합천 저포리 고분군에서는 다량의 어망추가 출토되어 장례의식에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망추의 기능은 그물을 가라앉게 하는 것이므로, 뜸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물의 사용 깊이가 정해진다. 표층에서 회유하는 송어를 포획할 때는 뜸의 부력을 크게 하고, 어망추의 침력을 그물이 퍼질 수 있을 정도로 맞추어 수면에서 그물이 펼쳐지게 한다. 반면에 수면 바닥에 서식하는 참돔과 감성돔 등의 어류를 포획할 때는 뜸의 부력을 그물이 퍼질 정도로 맞추고 어망추의

침력을 높여 그물을 수면 바닥까지 내려서 사용한다.

현재 어망추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른 금속에 비해 비중이 무겁고 녹는점이 낮아 제작하기 쉬운 납이 주를 이루며, 드물게 철제·시멘트류·토제 등이 보인다. 형태는 관상管狀(대롱 같은 모양)이나 유구有構(홈이 있는 형태)를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징 및 의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어망추가 전국의 해안이나 하천면에서 산발적으로 보이지만,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어망추가 전국의 하천을 따라 많이 나타난다. 어망추 유물의 분포를 통해 청동기시대에는 벼농사가 한반도에 도입되면서 어업의 형태가 내수면을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원삼국시대 이후에는 어망추가 하천은 물론이고 해안에서도 사용되어 내수면과 내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어구도감(배봉성, 해양수산부, 2002),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 문화(김건수, 학연문화사, 1999).

필자 김건수(金建洙)

어물전 魚物廐

정의 조선시대 육의전六矣廐의 하나로, 말리거나 절인 생선과 미역 등 해조류를 판매하던 시전.

내용 조선시대 시전상인들은 도중都中이라는 동업조합을 결성하여 국역國役 부담을 지는 대가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인 금난전권禁亂廐權을 행사하면서 상업이윤을 확보하였다. 조선 후기 한양에는 130여 종류의 시전이 있었는데, 이들 시전은 국역 부담 유무에 따라 유분전有分廐과 무분전無分廐으로 구분되었다. 유분전은 시전의 규모에 따라 국역을 9분역에서 1분역까지 차등 부담하였다. 유분전 중에 국역 부담이 많은 시전을 6개의 주비注比로 묶은 것이 육의전六矣廐이다. 육의전은 일반 시전으로부터 국역을 대신 받아서 평시서나

궁궐 등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시전 사이에서 생겨나는 사소한 분쟁들에 대해 자율적인 처결권도 행사하였다. 어물전은 육의전에 포함될 만큼 시전 중에서도 매우 영향력이 큰 시전이었다.

조선시대 시전제도는 하나의 상품에 대해 하나의 시전만을 허용하는 일물일전(一物一廳)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므로 어물을 판매하는 시전도 17세기 전반까지 종루 맞은편에 위치한 어물전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 인구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일용소비품인 어물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었다. 당시 급증한 인구의 대부분은 성 밖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1671년(현종 12) 서소문 밖에 새로운 어물전이 창설되었다. 새로 어물전을 창설한 사람들은 세력가의 노비들이었다. 서소문 밖 어물전의 창설로 종로의 어물전은 내어물전, 서소문 밖의 어물전은 외어물전으로 불리게 된다. 외어물전의 창설로 인해 어물유통의 일물일전 원칙이 무너지고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는 동업조합이 두 군데 있는 일물양시(一物兩市) 상태가 된 것이다.

외어물전이 창설되자 내어물전 상인들은 끈질기게 외어물전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내어물전인의 노력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창설된 지 8년 만인 1679년(숙종 5) 외어물전은 혁파되었다. 그러나 혁파된 이듬해인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자 호조판서 민유중(閔維重)(1630~1687)의 요구로 외어물전은 다시 복구되었다. 이후 내어물전인은 평시제조와 낭청이 갈릴 때마다 격쟁(擊鉦), 상언(上言), 정소(呈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어물전과 분쟁을 일으켰다.

분쟁의 주요한 내용은 외어물전을 혁파하는 파시(罷市), 외어물전을 내어물전에 합병시키는 합시(合市), 서울로 반입되는 어물을 내어물전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외어물전 상인들에게 분배하는 함취(咸聚), 서해산 어물과 동북산 어물의 유통지배 비율을 나누는 분수분집(分數分執) 문제 등 매우 다양하였다. 파시·합시는 외어물전의 존립을 부정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었고, 함취도 외어물전을 내어물전에 종속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어물전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분수분집 문제는 동해산 육운어물과 서해산 선운어물

의 유통지배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1715년(숙종 41) 평시서(平市署)에서는 서해산 선운어물은 내어물전이 3/4, 외어물전이 1/4을 차지하도록 결정하였고, 동해산 육운어물은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결과 외어물전이 존속하게 되었고, 내어물전은 어물유통의 독점권을 외어물전과 공유하게 되었다.

창설 초기 외어물전은 유분전으로 국역을 부담하였지만, 그 규모는 내어물전에 비해 매우 영세하였다. 1686년(숙종 12) 내어물전은 8분역, 외어물전은 1분역을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시전 중에서 가장 많은 국역을 부담한 시전인 입전(立廳)이 9분역을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8분역의 내어물전은 시전 중에서도 매우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8세기 후반에는 내어물전 5분역, 외어물전 4분역으로 국역 부담률이 조정되었다. 100여 년 동안 내어물전의 영향력은 감소하였고, 외어물전은 크게 성장한 것이다.

1788년(정조 12) 내어물전은 청포전과 하나의 주비를 이루면서 육의전에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1791년(정조 15) 신헤통공(辛亥通共)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한 이후에도 내어물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외어물전의 금난전권은 부정되었기 때문에 도성 밖에서의 어물유통이 외어물전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그러나 3년 후인 1794년(정조 18) 조정에서는 내어물전과 청포전을 육의전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내어물전의 금난전권도 부정되어 서울 전역에서 어물은 자유롭게 유통되었다. 1794년 어물유통에서 난전을 허용하였던 조정에서는 1801년(순조 1)에는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을 하나의 주비로 만들어 육의전에 편입시켰다.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은 독자적인 동업조합이었지만, 하나의 주비로 육의전에 편입되어 어물유통의 독점권을 다시 확보하였다. 1671년(현종 12) 창설되어 1분역을 담당하던 보잘것 없었던 외어물전은 130여 년 만에 육의전에 포함되는 시전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외어물전의 성장배경에는 민유중 가문을 중심으로 한 유력 가문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다.

내·외어물전이라는 일물양전(一物兩廳) 체제 아래에서

어물의 유통구조는 서해산 선운船運어물, 동해산 태운駟運어물에 따라 달랐다. 18세기 시전을 정점으로 한 서울의 어물유통 구조는 선상船商·향상鄉商·동북어상東北魚商—여객주인旅客主人—내·외어물전—중도아中都兒—행상—소비자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통구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외어물전의 세력 여하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또한 여객주인이나 중도아층의 동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조정되는 것이었다. 특히 어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시민들의 일상소비품이었기 때문에 금난전권을 보유한 어물전인들의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판매는 중도아나 행상들에게 일임하였다. 반면에 어물전인들은 외부에서 서울로 반입되는 어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개입하였고, 이들의 개입을 거부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하려는 행위는 모두 난전으로 처벌하였다. 내·외어물전은 판매독점보다는 지방 향상이나 선상으로부터 서울로 반입되는 어물을 독점하려는 구매독점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18세기 말 이후 어물전인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어물 선상이나 향상들에게 구매독점권을 행사하는 대신 어물량에 따라 현물이나 화폐로 수세收稅하였다. 이처럼 어물전인들의 구매독점권이 일종의 유통세를 걷는 것으로 변하면서 차츰 선상이나 여객주인들이 어물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선상이나 여객주인들은 중간도매상인 중도아층과 연결되어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말 이후 어물유통을 둘러싼 분쟁은 내·외어물전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물전인과 이를 배제하려는 중도아, 여객주인, 도고都賈 난전세력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는 어물전을 정점으로 하는 유통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통체계가 성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물전에서 판매하는 물종은 주로 말리거나 절인 생선이었고, 미역·김 같은 해조류였으며 소라·오징어 등의 수산물도 함께 판매하였다. 초기 어물전에서는 생선이나 젓갈 등도 취급하였으나, 생선진生鮮廛과 해전醃廛 등이 생겨나 이 상품의 유통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어물전에서는 건어물과 미역[乾藏] 등만을 취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절인 생선이나 미역 등 해조류를 판매하는

어물전은 초기에는 종로의 내어물전 하나만 있었지만, 17세기 후반 서울 인구의 증가로 어물 수요가 급증하자 서소문 밖에 외어물전이 창설되었다. 1715년까지 내어물전과 외어물전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유력 가문의 강력한 비호로 외어물전은 존속하였다. 1801년 이후 외어물전은 내어물전과 함께 육의전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어물은 서해산 선운어물과 동해산 육운어물에 따라 유통경로가 달랐다. 19세기 이후 어물전 상인의 금난전권 행사는 지방 향상과 선상에 대한 수세권收稅權으로 변모되어 정작 어물유통의 주도권은 선상이나 객주들에게 넘어갔고, 그 결과 시전을 정점으로 하는 어물유통구조가 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各廛記事, 市民謄錄, 市弊, 18세기 서울에서의 어물유통구조(고동환, 한국사론28, 서울대학교, 1992), 이조어물전연구(임인영,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7), 조선시대 시전상업연구(고동환, 지식산업사, 2013), 조선 후기 시전상인 연구(변광석, 혜안, 2001), 조선후기 어물의 유통(이영학, 한국문화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1).

필자 고동환(高東煥)

어민

漁民

정의 생업으로 강이나 바다에서 어패류나 해조류를 채취 또는 양식하거나 소금(천일염)을 생산하는 사람.

내용 어민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바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으로 어민漁民과 어부漁夫, 漁父 외에 ‘해인海人’ ‘포인浦人’ ‘선인船人’ ‘선원船員’ ‘수부水夫’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제염법은 바닷물을 졸여서 만드는 자연이었기에 제염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소금을 굽는 사람이란 뜻으로 ‘염간鹽干’ ‘염정鹽丁’ ‘염한鹽漢’ 등으로 기록하였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2021.06.15.)에 의하면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염전에서 소금(천일염)을 생산하

는 사업을 ‘어업’으로 정의하고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업인’으로 규정한다.

1963년에 <염관리법>이 제정될 때 소금은 광물로 분류되었으나 지난 2008년 3월 28일 <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소금이 식품으로 전환되었고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염제조업자’로 규정하였다. 이후 <염관리법>은 2011년 11월 22일에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현재의 <소금산업진흥법>으로 법률명도 바꿨다. 2014년까지 염제조업자로 규정된 제염 관계자는 어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5년에 <수산업법 시행령>(1월 20일)이 개정되어 소금을 만드는 일에 관련된 사람이 어업인, 즉 어민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어민의 어업 활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역·김·파래 등의 해조류와 조개·굴·홍합 등을 수확하는 채취 어업이다. 전통적으로 채취 어업에서 높은 어획고를 올린 해조류는 미역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 해조류인 미역은 서해안 최서북단의 백령



그물 어업 | 인천 웅진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갯벌 채취 | 충남 태안 | 1995 | 국립민속박물관

도부터 남쪽의 제주도까지, 남해안부터 동해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 미역의 채취 어법과 어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자연산 미역의 포자가 바위에 잘 붙기 위해 제초 작업을 하는 지역도 있다.

둘째는 그물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잡는 어업이다. 저인망底引網, 후릿그물, 챗배그물 등 지역에 따라 그물의 종류와 어법의 명칭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통영시의 사량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지역에서는 바닷가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걸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그물 어법을 ‘개매기’라고 한다. ‘후릿그물’은 바닷가에 그물을 넓게 둘러치고 그물의 양쪽 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거나 배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량도에서는 밤에 횃불을 밝히고 배에서 채그물로 멸치를 잡는 어법을 ‘챗배그물’이라고 한다.

셋째는 석방렴石防簾, 죽방렴竹防簾, 통발이나 문어단지 등을 사용하는 함정 어법이 있다. 석방렴과 죽방렴은 조류와 지형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어법은 같으나 돌을 쌓아 만든 것과 대나무를 엮어 만든 것으로 시설은 다르다. 석방렴은 ‘돌살’ ‘돌발’ ‘독살’ ‘독장’ ‘갯담’ ‘원담’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다. 문어단지 및 주꾸미소호는 문어, 낙지, 주꾸미 등의 문어과 연체동물의 숨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하여 미끼 없이 잡는 어법이다.

넷째는 낚시로 낙지나 문어 또는 물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통영시 사량도를 중심으로 도서지역에서는 ‘술내끼’와 ‘문어 주지’라고 하는 낚시 어법으로 문어를 잡았고, ‘낙지 주낙’ ‘갈치 주낙’ ‘상어 주낙’ 등이 전승된다.

다섯째는 물고기나 해조류, 조개류 등의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길러서 수확하는 양식 어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역 양식법은 1960년대에 개발되어 1970년대에 대량생산하는 양식법이 보급되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도서지역에서는 전복 양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제주도에서 전복이 부족할 때는 완도의 전복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 밖에 김과 굴 등의 양식이 있고, 어류 양식으로는 그물로 만든 틀 안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가두리양식법’이 있다.

여섯째는 자염과 천일염의 제염업이다. 자염煮鹽은



잠수 채취 | 제주 | 2017 | 한국교육방송공사·공유마당



소금 생산 | 전북 고창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바닷물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해 만드는 전통적인 제염 법이다. 예전에는 자염을 전오염煎熬鹽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일본어 표현이다. 천일염은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의 수분을 증발시켜 결정체를 만드는 제염법으로 일제강점기 도입된 제염법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해안에서 가까운 어촌의 마을 어장을 나타내는 용어로 ‘지선地先’이라는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가까운 마을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을 ‘지선민地先民’이라고 하고, 지선촌락과 지선어류 등으로 사용하였다. 예전에 마을의 ‘지선어장’은 일반적으로 마을의 경계를 기준으로 나뉘었는데 간혹 지선 어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장도漁場圖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제주도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지선 어장 분쟁으로 어장도가 탄생한 사례가 있다.

지역사례 어민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어업을 하는 어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서지역의 생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도는 서해 5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이다. 예전에 백령도에서는 섬 안을 농촌, 산촌, 어촌으로 구분하였다. 백령도의 동쪽 진촌리, 남쪽 남포리, 서쪽 끝에 있는 연화리의 두무진 마을의 2012년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령도 내에서도 진촌2리의 박씨는 어업은 하지 않고 농업만 하는 순수 농민이다. 진촌의 대부분 가구는 농민으로 어민은 없다. 진촌 사람들은 백령도라는 섬

에 살아도 어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 남포1리 장촌의 최 씨는 농업이 70%, 어업이 30%로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연화3리의 두무진 해안 쪽의 마을은 어촌이지만,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는 산이 많아서 섬 안에 산촌이 있다. 두무진 산촌에는 나무 소작농이 있었다. 이를 ‘나무 타작’이라고 하였다. 산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재배하여 산 주인과 반반씩 나누거나 나무를 기른 사람이 더 가지곤 하였다. 두무진 산촌에서는 산이 없는 진촌에 나무를 파는 집도 있었다.

한편 충청남도 태안의 가의도처럼 농토가 없는 섬에서는 대부분 가구가 어업을 생업으로 한다. 내무부에서 발행한 『한국도서백서』에 의하면 1996년 가의도에는 40가구에 101명의 주민이 거주하였는데, 공무원과 3차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36가구가 어업에 종사하였다. 가의도에는 미역채취를 생업으로 하는 어가漁家가 많았고 가의도 전체 가구에서 미역으로 얻는 수익이 가장 컸다. 가의도에서는 잠수하여 미역을 채취하는 일을 ‘자무질’이라고 하며, 잠수하는 어민을 ‘자무질꾼’이라고 하였다. 가의도의 자무질꾼은 대부분이 남자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섬마을에서 어업만 하는 순수 어민은 많지 않다. 가의도나 가거도처럼 농토가 거의 없는 섬마을에서는 좁은 땅에 콩이라도 재배하였으나 이것은 생업이 아니다. 대부분 어촌에서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형태를 나타낸다. 섬에서는 소가 들 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다랑논에서 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로 보리를 일궜으나 대부분 섬마을은 한정된 농

토로 주곡을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웠다. 전통시대에는 주곡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어업을 하여 수산물과 쌀, 보리 등을 물물교환하기도 하였다.

어민은 물때에 맞춰 물고기를 잡는다. 물고기를 잡는 어기漁期에 주로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섬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밭농사를 맡아서 한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원답 조사사업 보고서(고광민·이혜연,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섬 사람들의 삶과 도구7(이혜연·고광민, 민속원, 2018), 한국도서백서(신순호 외, 내무부, 1996), 한국 서해 도서지역 사람들의 생산과 교역(옥동석·고광민·이혜연, 인천학연구원, 2013), 韓國의漁撈民俗と漁場圖(李惠燕, 歴史と民俗33, 日本常民文化研究所, 2017), 현지조사자료(김도열, 경남 통영, 2014.10.16.),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해양수산부(mof.go.kr).

필자 이혜연(李惠燕)

어살

정의 말목을 세우고 그물을 둘러서 고기를 잡던 전통 어법.

내용 어살은 입구일정 어구류(입구가 고정된 대망류袋網類, bag nets)에 속하며, 주목망류와 낭장망류 어법의 조상 격이다. 오늘날 죽방렴, 주목망, 방렴, 더 나아가서 돌살 등도 모두 광의의 어살[漁簾]에 속한다. 그만큼 어살은 폭넓은 개념이며,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어획하던 고정 그물류의 총칭이다. 어살은 어구 구분상 함정어법陷網漁法, traps에 속하며, 그 자체가 천연적 함정 그물이다. 밀물에 밀려온 고기들이 썰물 때면 ‘독 안에 든 쥐’가 된다.

어법은 간단하다. 밀물과 썰물이 분명한 조간대에 소나무 같은 말장을 깊게 줄지어 꽂고 그물을 두른다. 예전에는 그물이 귀하였기 때문에 대나무를 사용한 죽살이 남도에서 많이 행해졌으며, 싸리나무 같은 잔가지를 꽂아서 어획한다. 좌우로 날개를 벌려서 V자 형태를 취하며, 조간대의 물살을 받다가 썰물에 고기가 임통에 걸리게끔 설계된다. 임통은 둥글게 튀어나오게 만들며, 고기들이 빠져나가다가 임통에 걸린 것을 쪽



어살 | 충남 태안 | 주강현

대 등을 이용하여 퍼낸다. 그물이 도입되면서 임통은 긴 자루형 그물로 늘어지며 고기들은 자루 안으로 들어가서 어획된다. 어살이 ‘나무살’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환경과 조건에 맞게끔 돌과 흙 그리고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식의 살이 있었을 것이며, 적어도 조선 초기 이후에는 이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어살’로 명기하였을 것이다.

어살은 ‘정치적’ 싸움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어살은 즐기차게 소금과 더불어 엄정한 국가관리 대상이었다. 권문세가는 끊임없이 어살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국가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하부 단위에서는 통제가 어려웠다. 게다가 왕실이 어살을 점거하는 일이 자주 벌어져 어살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정치적 함의를 지녀 왔다.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어채명색漁採名色에 “대개 어채의 명목이 세 가지가 있으니, 어장漁場·어조漁條·방렴防簾이다.”라고 하면서 어살이 권문세가의 재산으로서 또는 부세의 대상으로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만큼 어살을 통한 어획량이 상당하였음을 입증하며, 동시에 어살이 전통 어법의 중심이었음을 말해준다.

조선 왕조는 국가적 재원을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어살을 조사하고 이를 국가적 통제권에 두려고 하였다. 조선 태조는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어량제도의 시정을 전개하여 그의 즉위년인 1392년에 사재감司宰監을 두고 어량과 산택의 일을 전담케 하였다魚梁山澤之事. 권문세가의 사사로운 점유를 가능한 한 막아내면서 국가적인 통제에 두려 하였음은 그만큼 어살어업의 어획량이 대단히 중요하였음을 방증하며, 이를 국가

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살은 왕족 및 중신에 대한 재원으로 이용되었다. 이미 고려시대에 국가권력이 어량을 직접 관할함이 드러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의 재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왕족과 중신에게 하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살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다. 하사 항목에는 궁방토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어살은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한 조류를 이용한 어법으로, 조기와 청어를 위시하여 조수 간만에 따라 내유하는 모든 수족을 어획하였다. 어살의 분포는 충청도, 황해도, 경기도 및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 몰려 있었다. 이 지역에 어살이 발달한 것은 비단 조수 간만의 차이 외에도 수심이 얇고 만이 잘 발달하여 설치가 용이한 데다가 한양 등 인구조밀 지역과 접하고 있어 수산물 수요가 많았던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어살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어살의 규모는 소규모도 있었지만 대

단히 큰 규모도 많았다. 국가로서도 어살을 중요한 수입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포천현감으로 있던 이지함李之藺이 포천에 곡식이 적어서 민생을 구제할 수 없음을 걱정하고 다른 곳의 어살을 떼어 받아 고기를 잡아 곡식과 바꾸려고 하였던 사실도 그만큼 어살로부터의 수입이 매우 컸던 것을 시사해 준다. 심지어 부를 축적한 자들은 대대적인 어살을 설치하여 임노동단체에 이르는 양상을 보여주는 상업적 수준의 어로생산을 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일정한 돈을 축적하여 이를 땅에 투기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어살로 실제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밝혀주는 자료로는 세금 관련 자료가 중요하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양에 의하여 당대 어살의 풍족하였던 생산력을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살 세금액에 차등을 두었다. 최고세율은 고군산이고, 그다음이 위도이며, 그 아래는 영광·부안 등 3읍이다. 칠산어장 주변 어살의 세율이 가장 높았던 것에서 조기잡이와의 연관성이 확인된다. 그 아래 급수로는 무장·홍덕·고부·옥구이고, 그다음이 광양·순천·보성·홍양·강진·낙안 등 6읍, 마지막으로 장흥·영암·해남·진도·무안·나주·함평 등 7읍이다. 또한 어살 세금은 계절에 따라서도 달랐다. 가을에만 설치한 어살은 봄·가을에 설치한 어전보다 생산성이 낮았으므로 그것도 차등을 두어 대·중·소의 3등으로 세액을 규정하였다.

이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서해안의 어살 분포가 크게 ‘강령·웅진 지역’ ‘인천 지역’ ‘태안·홍성 지역’ ‘무장·영광 지역’으로(15세기) 나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어살이 서해안의 강령만, 해주만, 경기만, 남양만, 천수만, 곰소만 등 내만內灣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수심이 얇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어살 설치가 용이한 데다가 대체로 한양과 가까이 있어서 수산물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언급된 무장·영광 지역이 조선 후기에는 최고로 중요한 어상 지역이었음이 확인된다. 『균역사무목均役事目』(1752)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방별 어살 현황이 등장하고 있다.

호서湖西의 어살은 청석어살靑石魚簾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고, 진잡어살眞雜魚簾은 그 이익이 약간 적다



어살 | 전남 순천 | 주강현



어살 | 주강현



어살 | 인천 옹진 | 주강현

고 하였다. 청석어살은 청어와 석어(조기)를 어획하는 어살이고, 진잡어살은 진어眞魚(준치)와 잡어를 어획하는 어살이다. 전라도에서는 어장을 어전·어조·어장·어기 등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등급을 정하였다. 어살은 대·중·소의 3등으로 나눈다. 대전럼은 길이 500~600 발에 물고기가 들어가는 주머니인 통발의 물 깊이는 20자 되는 것이며, 중전럼은 길이 200여 발에 통발의 물 깊이 10자 되는 것이며, 소전럼은 그 이하의 것이다. 서남해안 곳곳에 정확하게 세금의 양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세금을 일정액 정해 두고 걷어갈 정도로 그만큼 어살에서의 수입이 안정적이고 경제성이 높았음을 방증한다.

당시에 어살에서 어민들이 노동하던 풍습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물고기들이 발에 갇혀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통발에 물리는 것을 광주리 같은 것으로 떠내는 장면이 생동감 넘치게 그려져 있다. 한말의 어살에 관해서는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풍부한 도판으로 잘 나와 있다. 그 구조는 방사형 또는 만형灣形으로 지주를 세우고, 거

기에 대와 갈대 또는 싸리 등으로 만든 발을 둘러치고, 중앙의 1개소 또는 좌우 양 날개에 각각 1개의 통발을 설치한 모습이다. 조류를 따라 되돌아가던 어류가 양 날개에 차단되어 임통에 들어갔을 때, 이를 잡았다. 양 날개의 연장 길이는 400간(약 600m)에 달하기도 하였다. 높이는 보통 3간 정도로서 만조 때 지주의 선단이 물속에 잠겼다. 어살 중에는 양 날개에 한하여 지주를 세우지 않고 가지가 붙은 대나무 또는 나무를 세운 것이 있었다. 그리고 통발에 자루그물[簍網]을 설치한 것도 있었다. 이상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한말까지만 해도 길이가 무려 600m에 달하는 것들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오늘의 시점에서 어업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견해를 청취해 보면 어살은 대나무와 싸리나무 등을 활용하여 고기를 잡는 '어살'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여전히 '살을 먹는다'라거나 '살로 잡는다' 따위의 관용어가 두루 쓰인다. 과거의 전통적인 어살은 이미 사라졌다. 돌살은 돌 흔적이라도 남기지만 어살은 대나무

등 나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말목 정도에 흔적을 남길 뿐이다. 그러나 예전에 어살이 있던 곳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 좋은 곳’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형식은 바뀌었으나 명칭과 방식만 바뀌 가면서 지금껏 이어져 어살문화의 장기지속성이 확인된다. 전통 어살은 사라졌으나 어살의 전통은 여전히 이어진다. 조류와 정형正橫이 되도록 그물을 기다랗게 부설하여 만조 때 들어온 대상물의 통로를 막아 간조 때 어획하는 건간망어법建干網漁業, set net in shallow waters도 어살 전통을 이은 어법이다.

참고문헌 萬機要覽, 世宗實錄地理志, 돌살(주강현, 들녘, 2006),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필자 주강현(朱剛玄)

어살계

정의 어로 도구 어살을 중심으로 엮어진 계횃.

내용 어살은 공동체적 소유라는 일반적 원칙과 동시에 개인적 점유와 소유권 이전이라는 측면이 병존한다. 촌마을이 설치되면서 일찍 점거한 사람이 가장 좋은 어장을 차지한다. 그런데 아무리 위치가 좋은 어장이라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 개인 소유라도 어살을 보수하는 데 마을 사람들의 협동적 관행이나 품앗이와 같은 노동교환이 이루어졌다. 조간대潮間帶에 깊숙이 말장을 박는 일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어서 공동노동이 요구되었다. 다른 사람의 어살 노동에 투입된 인력은 나중에 자신의 어살 운영에 도움을 받는다. 어살을 매개로 공동노동을 투입하는 것을 계기로 그 어살에서 나오는 어획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어살은 관행적 소유, 즉 문서 없이 구전 및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관습법의 영향을 받는다. 어촌은 그 노동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어업공동체라 할 만한 공동체성을 보여준다. 어장 총유總有와 마을 숲을 비롯한 공유재산, 어업구조의 취약성과

연안어업에서의 공동 노력, 어촌계를 비롯한 협업 등이 그것이다. 어살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장은 논과 마찬가지로 매때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살은 사고파는 매때 원칙이 적용되어 ‘논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곳이 많다. 총유적 소유와 총유적 경영에 개인적 소유와 개인적 경영이 결합되어 있으며, 어살계를 통하여 개인이 불가능한 영역을 보완하고 해결하였다.

연평도 안목어살의 경우 ‘관터’라는 지명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관장하던 유수의 어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어살이 모두 소멸한 뒤에도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니, 그만큼 ‘물보기’가 좋은 곳이다. 어살은 연평도 당섬과 모니섬 사이에 길이 50m가량의 큰 규모이다. 말장을 박고 그물을 친 방식인데, 수백여 년간 사람들을 먹여 살린 천혜의 장소이다. 안목 앞의 모니섬은 숲 그늘이 좋다. 가파른 단애斷崖로 형성되어 있어 물고기들이 좋아할 만하다. 군도群島이지만 우뚝 선 암벽이 큰 그늘을 만든다. 고기들이 모여들기 좋은 위치이다. 지금도 토박이 12명이 48칸 크기의 어살을 경영하고 있으며, 대를 물리면서 세습하여 이어주고 있다.

관행에 의해 어살을 사고팔기도 하며, 누대에 걸쳐서 관행어업으로 이어온다. 조기가 많이 들었을 때는 ‘조기 반 물 반’으로 엄청난 양을 잡아들였으며, 1990년까지만 해도 많이 잡힐 때는 농어 따위가 한 광주리씩 들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물살이 가파르기 때문에 어살에 유리한 천혜의 지형이다. 안목어살도 이들 토박이 12명이 어살 보수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관행적 어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어획 자원이 급격히 소멸하면서 더 이상 어살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공동노동도 사라지는 추세이다.

특징 및 의의 어장을 운영하는 일은 바다의 신이 몰아주는 힘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어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에는 어장에서 제의를 지낸다. 어살은 신성공간으로 불리는 공간이나 해신제를 집행하는 경우가 없다. 다만 ‘어살고사’라는 형식으로 그 자취가 남아 있다. 어살고사의 신적 대상은 ‘도깨비’ 혹은 ‘물참봉’이라는 존재이다. 흔히 ‘물 아래 참봉, 물 위

참봉'이란 존재는 서해안 도처에서 확인된다. 도깨비가 고기를 몰아다 주는 풍요의 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해안은 물론이고 제주도에서도 일반적이다. 제주도 곳곳 영감놀이는 바로 '물도깨비'를 위한 굿놀이이다. 도깨비나 물참봉은 정체가 불분명하나 어민들 속신(俗信)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도깨비고사는 지방에 따라 '참봉고사' '덤장고사' '진새고사' '구물코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도깨비참봉 혹은 물참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는 주로 선착장 주변에 살면서 어민들을 도와준다. 어살고사 의례는 간단한 고사 형식으로 전해진다. '비손'과 소소한 개별 어장고사의 형식으로 이루어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밤에 간단하게 떡시루를 바친다. 다른 지역에서도 돌살고사는 밤에 지내며, 이처럼 신이 현현(顯現)하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제의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지내는 시점에서 물때가 중요하다. 물이 들어오는 시점에 고사를 지내는 데, 이는 고기가 밀물을 따라서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기원이다.

참고문헌 돌살(주강현, 들녘, 2006), 어촌의 무형 재산인 역사와 민속(주강현, 어항어장69, 한국어촌어항협회, 2004).

필자 주강현(朱剛玄)

어선 漁船

정의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배를 통칭하는 말.

내용 우리나라 <어선법>에서는 어선을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선박,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등을 어선으로 정의한다. 어선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획물 운반이나 수산물 가공 선박은 어업에 종사하는 선단(船團)에 소속되어 보조 역할을 한다.

어선은 잡고자 하는 물고기와 어업 방법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어선마다 크기·모양·어획위치·그물 등이

각각 다르며, 물고기와 어업 방법을 결합하여 조기 안강망어선, 명태 트롤어선, 다랑어 주낙어선 등으로 부른다. 본문에서는 어업 방법에 따라 어선을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후릿배: 후리질하여 고기를 잡는 어선을 뜻하며, 후릿배 또는 휘리배 등으로 불린다. 조선시대부터 행하였으며, 주로 송어·농어·전어·멸치 등을 잡는다. 후리질은 그물 한쪽을 육지에 고정하고 다른 한쪽은 배가 바다로 나가 휘둘러 친 뒤 다시 육지로 그물을 끌고와 양 끝을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후릿배 어업은 크게 갯후릿그물(地引網類, beach seines)을 이용한 방법과 배후릿그물(船引網類, boat seines)을 이용한 어업법으로 구분된다. 갯후릿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한 바다 연안이나 강 또는 호숫가에서 그물 입구를 육지 쪽을 향하도록 투망한 다음 그물이 육지까지 올라오도록 날개그물 양 끝에 달린 끌줄을 육지에서 당겨 조업하는 재래식 어구로, 멸치·송어·농어 등 연안성 어류를 잡는다. 가까운 곳에 있는 어종만 잡을 수 있고 어장도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야간에 조업이 이뤄지는 등 제약이 많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배후릿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배에서 그물을 던진 다음 날개그물 양 끝에 달린 끌줄을 당겨 조업하는 것이다. 그물을 던진 후 사람이 끌줄을 당겨 조업하는 방법과 배의 동력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끌줄을 당겨 조업하는 외끌이기선저인망이 있다. 이 중 현재 어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외끌이기선저인망으로 과거부터 어구 구조와 조업 방법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선의 대형화에 따라 어구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다.

2. 주낙어선(long liner):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단 낚시줄을 얼레에 감은 후 물살에 따라 감았다 풀었다 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선을 뜻하는데, 갈치·도미·붕장어·복어·낙지 등을 주로 잡는다. 원양에서는 참다랑어 등 대형 어종도 잡는다. 주낙은 긴 모릿줄(한 가닥의 긴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가짓줄을 달아 그 끝에 낚시바늘을 달고 미끼를 끼운 뒤 바닷속으로 내려 물고기를 한꺼번에 낚아 올리는 어법이다. 어구의 부설 방법에 따라 모릿줄을 닻으로 고정하는 고정낚시와 해·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하는 흘림낚시가 있다. 일

반적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을 때는 고정낙시를 사용하고, 표층이나 중층에 서식하는 회유성 물고기를 잡을 때는 흘림낙시를 사용한다.

주낙은 낚싯대를 사용하여 한 마리씩 잡는 외줄낙시보다 물고기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 높은 효율성으로 예전부터 사용되었다. 주낙의 또 다른 특징은 물고기를 산 채(활어 상태)로 잡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주낙으로 잡은 물고기는 상처가 없고 선도가 좋아 타 어법으로 어획된 어획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주낙어선은 어로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조업 방식도 간단하다. 어선의 규모는 8~70t이며 연중 조업할 수 있다. 주낙에 사용되는 부표는 야간 조업 시 위치를 확인하거나 유실된 어구를 찾을 때 요긴하게 사용된다. 주낙어선의 어구 구조와 조업 방법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어구와 어선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였다. 낚싯줄은 과거 면사에 갈물을 먹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어구 종류에 따라 나일론, 쿠랄론Kuralon(비닐론) PE, 경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어선은 대형화됨에 따라 어장이 외해로 확대되었고, 어선 한 척당 사용 어구 수도 증가하였다.

3. 낚싯배[鰲, fishing boat: 낚싯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선을 말한다. 낙시는 어구와 어업 방법에 따라 크게 낙시어구류와 걸낙시류로 나뉜다. 낙시어구는 외줄낙시·대낙시·끌낙시 등으로 나뉘며, 걸낙시에는 오징어 낙시 등이 있다.

외줄낙시[本釣具, single lines 낚싯배는 낚싯줄 한 가닥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한쪽 끝을 손으로 잡아 당겨 물고기를 잡는다. 어구나 어업 방식은 과거부터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주로 돔·볼락·농어·능성어·임연수어 등을 잡는 데 사용한다. 이 중 낚싯줄은 과거에는 면사나 경심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경심을 사용한다.

대낙시[竿釣具, pole lines 낚싯배는 낚싯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낚싯줄 한 가닥에 1개 또는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사용하며, 조피볼락·볼락·감성돔 등을 잡는 데 사용한다. 어선을 타고 하는 대낙시 중 대표적 인 것은 가다랑어 채낚기 어업이다. 가다랑어는 군집성 회유 어종으로 성질이 급한 습성을 가

지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어군을 유인한 다음 낙시로 채어 잡는다.

끌낙시[曳網釣具, troll lines 낚싯배는 대나무로 만든 장대(뺨침대)에 낚싯줄을 내린 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배를 수평으로 운행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주로 회유성 어종 중 성질이 급하고 공격적인 어종을 잡으며, 물고기가 군집해 있는 바닷속 깊이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낚싯바늘을 드리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하나의 낚싯줄에 하나의 낚싯바늘을 달아 표층에 군집한 물고기를 잡았으나 현재는 수심의 중간층과 바닥층에 군집한 물고기도 함께 잡기 위하여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다양한 어종을 잡고 있다.

오징어 낚싯배는 낚싯바늘이 여러 개로 된 복합낙시를 오징어가 분포하는 수층에 수직으로 투하한 다음 낚싯줄을 위로 재빨리 채어 오징어가 낙시에 걸리도록 하여 잡는다. 우리나라에는 오징어 대낙시와 보채낙시·수동롤러·자동조획기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오징어를 채어서 낚으므로 어느 어구를 사용하든 오징어



조업 중인 어선 | 인천 용진 | 2009 | 용진군



그물작업을 하는 어선 | 경남 통영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채낚기 어업이라고 한다.

4. 건착망어선: 직사각형 모양의 그물로 물고기를 포위한 다음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범위를 좁혀서 잡는 어선을 말한다. 주로 고등어, 정어리, 부세, 삼치, 쥐치, 전갱이 등을 잡는다.

5. 유자망어선: 조류를 따라 직사각형의 그물을 바다에 수직으로 던져 배를 운항하여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선을 말하며, 주로 조기·삼치·멸치·명태 등을 잡는다.

6. 공모선: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공한 뒤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배를 말하며 ‘공선’으로도 불린다. 주로 고래, 게, 송어, 연어, 명태 등의 대형 선단과 함께 움직인다.

지역사례 1. 전라남도 거문도 멸치잡이 어선: 멸치는 난류성 어류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며, 산란기인 봄이 되면 남해안 연안으로 올라온다. 전남 여수 거문도 지역은 일찍이 멸치의 주요 산란장으로, 멸치잡이는 지역 주민의 주요 생업이었다. 멸치잡이는 주로 야간에 작업하며, 횃불로 멸치 떼를 유인한 뒤 챗배와 초망抄網이라 불리는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를 잡는 챗배 어업이다. 주민들은 멸치젓을 만들어 가을이 되면 육지로 나가 겨울을 보낼 식량이나 생필품과 교환하기도 하였다. 멸치잡이 노동요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건착망이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멸치잡이가 행해졌으며, 거문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건착망 선단이 어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독자적으로 건착망을 축소·변형한 홀치기 어업이 성행하였다. 지역 어민들이 멸치를 잡는 방식은 건착망어선과 동일하나 어선과 그물의 크기가 작고 인력도 적게 들어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 어업 방법은 2대의 어선이 1조로 움직였으며, 배 한 척에 그물 한쪽을 고정하고 그물을 실은 배가 멸치 떼를 둘러싸는 방법으로 어획량이 챗배 어업에 비해 훨씬 많다.

광복 후에도 챗배 어업과 홀치기 어업은 멸치를 잡는 주요 수단이었다. 챗배 어업은 1척의 배로 모든 어업이 가능한 반면 홀치기 어업은 최소한 2척의 배가 동원되었다. 어장에서도 차이가 있다. 챗배 어업은 거문도 내외해 섬 주위에서 이뤄지는 반면 홀치기 어업은



주낙 어선 | 강원 삼척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거문도 내해에서만 이뤄졌다.

거문도 멸치잡이는 어선과 그물이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달한 어업방식을 보여줬으나 1970~1980년 사이에 인구감소와 대형어선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멸치 떼의 경로 변경, 방파제 축조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 충청남도 보령 외연도의 조기잡이 풍선風船: 조기는 겨울철에 제주도 등 남해안에서 월동한 뒤 3월부터 6월까지 서해안 일대를 북상하며 군집하여 산란한다. 외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섬으로 자본이 부족하여 1960년대까지 풍선(돛단배)을 타고 어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외연도 어민들은 축적된 어로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특히 ‘산가람’이라 불리는 전통 어로 지식은 바다에서 작업 중인 풍선과 산 사이의 거리, 시간, 태양의 위치, 그림자 등을 종합하여 조기의 이동 방향과 밀집 지역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계절·바람·날씨·시간·물때 등에 따라 달라졌다. 이를 완전히 습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걸친 지식의 전승과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통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통 어로지식을 통해 기계 동력 어선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큰 어려움 없이 풍선을 이용하여 조기잡이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외연도 일대의 풍족한 어족자원이 알려지면서 조기, 꽃게, 삼치, 대하, 학꽂치 등을 잡기 위하여 전국에서 어선이 몰려들었다. 이 시기부터 외연도에도 과시波市(해상 또는 섬에서 물고기 등을 사고팔기

위하여 열린 장터)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주민들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계동력 어선과 선진어법·첨단장비 등이 도입되었고, 풍선 어업이 사라지면서 전통 어로지식도 급속히 변화·쇠퇴하였다.

3. 인천광역시 강화군 외포리 젓새우잡이 어선: 새우젓은 김치뿐만 아니라 국이나 찜 등 다양한 음식에 첨가되는 조미료 역할을 한다. 조선시대 중반까지는 궁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진귀한 음식이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 젓새우 어업이 활성화되면서 일반 서민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강화 지역은 일찍이 젓새우 어장이 발달하였다. 1960년대 이전에는 어민 다수가 풍선, 뗏목선, 전마선 傳馬船 등을 타고 조기·민어·병어·농어 어업과 젓새우 어업을 병행하였다. 1970년대 이후 조기와 농어 등의 어획이 감소하고 젓새우잡이 어업이 활성화되면서 어선과 어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풍선과 뗏목선 등이 사라지거나 젓새우잡이 어선으로 개조되었으며, 기계동력 어선도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강화 지역 젓새우 어장이 황폐화되어 목포, 신안, 진도 등 먼바다로 나가 젓새우 어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94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거치면서 대부분 젓새우잡이 어선이 감축되면서 지역의 젓새우잡이 어업은 쇠퇴하였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는 일찍이 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에서 어업을 하였다. 경상남도 창원군 비봉리에서는 8,000여 년 전 신석기시대의 통나무배가 출토되었으며,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어선을 이용하여

고래를 사냥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삼국시대 어선은 배 모양 토기(주형토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나무배·구조선(통나무배의 양 측면에 널빤지를 덧댄 U자형 선박)·평저선(배의 바닥이 평평한 우리나라 재래식 선박)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있었으며,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 어선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어업을 농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어랑어업(어살·방렴 등 해안가에서 이뤄지던 전통 어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랑소魚梁所(고려시대 특수 지방행정구역으로 주민 전체가 어업에 종사하는 촌락)가 있었다. 『고려도경高麗圖經』 중 “어부들은 썰물 때마다 배를 타고 섬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지만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적다.”라고 적힌 부분을 보아 어선을 이용한 어업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어획량은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빙고氷庫나 염장 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고려시대까지는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육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날씨에 따라 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조선시대에는 얼음과 염장 기술을 사용하여 신선한 상태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명태, 조기, 대구, 청어, 멸치, 새우 등을 잡았다.

조선 후기에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어업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근대식 장비와 어업 방식을 갖춘 일본 어선은 우리나라 어선에 비하여 몇 배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우리나라 어민도 뒤늦게 개량된 어선과 어업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일본에 유리한 법령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이후 어선의 기계화가 이뤄지면서 대형 어선이 생겨났고, 근해 및 원양어업이 활발해졌다. 현대에 들어 어선의 재질이 플라스틱FRP로 바뀌고, 어선기관·항해기기·어로기기 등으로 전면 기계화되면서 어선의 성능과 어획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강화도 젓새우잡이 어업의 발달과 변화(윤형숙, 도서문화34,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소, 2009), 거문도 멸치잡이 어구·어법의 변천과 소멸(곽유석, 도서문화34,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소, 2009), 서해 도서지역 전통어로지식의 전승양상과 변화(강성복, 민속연구3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5), 국립수산물박물관(nifs.go.kr).

필자 정명훈(鄭明勳)



유자망어선 | 전남 영광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정의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개관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바다나 강, 호소湖沼 등의 수계水域에서 어업을 통한 식량을 확보하였다. 어업은 인간이 식량으로 이용하는 여러 종류의 수중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산업이다. 어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설비가 필요하며 대상 생물인 어업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해양 질서가 확립되면서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여 주권이 인정되는 해역 내 어업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업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만큼 새로운 제도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어업정책을 펼친다.

내용 자연계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일을 어로漁撈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어업이라 하고,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유어遊漁라 한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에는 양식하는 사업도 어업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어업과 별도로 양식업으로 구분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양식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사업을 어업이라 한다. 어업은 경우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어업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으로 수행되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어업의 뜻 속에는 어업 생산 자체를 경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산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데에도 수익성을 높이는, 즉 경영 관리의 요소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어촌이 형성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어업이 중요한 국민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어업을 근거로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나라 어업 가구 수는 2014년에 약 5만 9,000가구, 어가 인구는 약 14만 1,000명이었으나 그 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어업은 종사자에게 직업을 제공하여 생활의 터전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어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은 우리 국민에게 귀중한 식량이 된다. 어류와 패류를 비롯하여 갑각류와 연체류 등의 수산동물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해조류도 건강식품으로서 현대인에게 선호도가 높다.

어업이 고도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어선, 어구, 어업기계 등의 관련 산업도 함께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수산물이 상품으로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가 간에도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계되는 각종 산업 발전에도 어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어업은 국민건강은 물론이고 각종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부에서는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수산 정책을 개발하며, 교육 및 연구 기관을 확충하여 어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 어장, 근거지, 어획 방법, 경영 방법, 행정관리제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눈다. 대상물에 따라서는 어업의 대상물인 수산생물 중 양적으로는 어류가 가장 많기에 좁게는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어업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래 등 포유류를 잡는 어업을 해수어업, 조개류를 잡는 것을 채패업, 수산식물 중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채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징어·조개·게·새우·고래 등은 분류상으로 어류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서 어족이라 하며, 이들 모두를 잡는 것을 어업이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장에 따른 분류는 경제적으로 어업이 이뤄질 수 있는 수역을 어장이라 하는데, 어장에 따라 어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업을 어장에 따라 내수면어업과 해양어업으로 나눈다. 내수면어업은 내수면, 즉 하천과 호소 등 해안선 안쪽에 있는 수면에서 하는 어업이다. 해양어업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근해어업·원양어업 등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근거지로부터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장에서 하는 어업을 연안어업, 수집 일이 걸리는

먼 거리에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 그 중간 정도의 거리에서 하는 어업을 근해어업이라 한다. 최근에는 어선의 운항 속도가 빨라지고 운항 능력이 향상되면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연안어업에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조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이동성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등이 있다. 근해어업에는 근해트롤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붕수망어업, 잠수기어업, 근해형망어업 등이 있다. 원양어업으로는 원양트롤망어업, 원양연승어업, 원양기선저인망어업, 원양선망어업, 원양자망어업, 원양붕수망어업, 원양채낚기어업, 원양통발어업, 원양모선식어업, 원양안강망어업 등이 있다.

법제상 동해와 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해외 수역이라 하는데, 해외 수역을 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이라 한다. 그에 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국내 수역을 조업 구역으로 한다.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와 어법, 즉 어획 방법을 알면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결합하여 대상물과 어법에 따라 분류한다. 때로는 어장을 덧붙여서 태평양 다랑어 연승어업, 대서양 문어 트롤어업 등과 같이 나누기도 한다.

경영 형태에 따라 비자본가적 어업과 자본가적 어업으로도 나눈다. 비자본가적 어업이란 노동 집약에 의해 이뤄지는 어업을 말한다. 개인의 단독 노동에 의해 이뤄지는 단독어업, 가족 등의 노동에 의하여 이뤄지는 동족어업, 가족 외의 타인과 협력하여 이뤄지는 협동어업 등으로 나눈다. 자본가적 어업이란 자본 집약에 의하여 이뤄지는 어업인데 대부분의 대규모 어업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자본주가 개인인 개인어업, 협동조합인 조합어업, 회사인 회사어업으로 나눈다. 또 외국의 자본과 국내의 자본으로 이뤄지는 합작어업이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의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러 나라와의 합작어업이

늘고 있다.

어업은 어로 과정에서 상호 경쟁이 심하고 자칫하면 어업자원이 고갈되기 쉽다. 어업을 영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상물인 어업자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국가는 누구나 마음대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행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이처럼 행정관리 제도상으로 볼 때 어업은 크게 먼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나뉜다.

특징 및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바다의 개발과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눈을 뜨게 되었다.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식량 부족이 예견되는 가운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어업국은 자기 나라 연안은 물론 공해상에서의 어로 활동을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말 원양어업의 진출과 함께 연근해 어업도 활성화되어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 10위권의 어업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주요 어업국이 어로 활동을 강화하고 트롤과 선망 등 대량 어획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여러 어장에서 어업자원 남획의 징후가 뚜렷해지자 국제간에는 이들 몇몇 어업국의 지나친 어로 활동을 경계하여 수많은 국제수산기구가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수산기구에서는 어로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와 과학적인 자원 조사, 연구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1994년 11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 발효되고 200해리 경제수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 공해였던 바다 면적의 36% 정도가 200해리 경제수역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세계의 주요 어장은 대부분 연안국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제간에는 공해 어업자원에 대한 어업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어로행위 자체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해석하려는 움직임조차 일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동안 원양어업에 힘을 쏟던 여러 어업국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에는 어업에 관한 협정이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체결됨으로써 연근해 어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이와 같은 국제 어업 환경

의 극심한 변화로 인하여 원양 어장은 물론 연근해 어장도 축소되자 정부에서는 원양 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안국과 외교적 협상을 강화하는 한편 연근해 조업 어선 척수를 줄이는 등 새로운 해양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 연근해 어장에서는 어업자원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어종에 따라서는 어획량도 많이 줄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값싼 외국 수산물에 대량으로 수입되는 등 국내 어업 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산 업계에서는 어장 면적과 자원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량 어획을 통한 수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첨단 기술과 어업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조업 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적정 어획을 도모하는 새로운 어업 질서를 갖춰 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2014년 농림어업조사결과(통계청, 2015), 수산일반(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7), 수산자원조성개론(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7), 어업-상(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3), 한국의 어구어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 2004), 해양과학(부경대학교 1종도서편찬위원회, 2002), 해양수산용어사전(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박종화(朴鍾和)

어업권 漁業權

정의 국가가 주는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역사 어업권 제도는 육지가 아닌 수계에서 이뤄지는 생산 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생겨난 제도이다. 육상에서 생산요소인 ‘토지’는 사유재산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하천 또는 바다와 같은 수계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은 토지처럼 경계를 정할 수가 없으며, 수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업의 대상이 되는 동식물은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무주물선

점無主物先占이라고 한다.

어업권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이처럼 무주물선점의 원리가 적용되는 수계의 생산 활동에서 특정한 어업자 개인 또는 다수 어업자 공동의 어업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일정 범위의 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어업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 기록이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시대이지만 그 이전부터 어업권이 인정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의 기록에서 대무신왕 11년에 군사들이 저수지의 잉어를 식량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절이 있고, 영양왕 24년에 요동성을 공격하기 위해 어랑대도漁梁大道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저수지의 잉어는 비상시에 대비해 길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군사 목적의 시설물에 붙인 이름에 물고기를 가둬 잡기 위해서 흙이나 돌로 물을 막는 시설인 ‘어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으로 미뤄 그 당시에 어랑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수면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물고기를 가두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에서 어업권이 관습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어업권의 사적 점유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던 시대였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현종이 왕자가 태어났을 때 어랑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어랑소漁梁所·곽소藪所·망소網所 등의 지명이 등장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어장漁場의 사적 점유를 금지하였는데, 이는 토지 국유제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과전법과 같은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어업제도의 개혁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임진왜란 이후에 어전과 어랑 등에 대한 왕실과 궁방에 대한 사여私與가 증가하여 점차 사유화되었다.

내용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업권이 법제화된 것은 1908년 제정한 구한말의 <어업법>이 최초이다. 이 법에서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계출어업届出漁業(현재의 신고어업)의 틀이 도입되었는데, 이 중 면허어업이 어

업권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면허어업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 면허어업과 기타 면허어업으로 나눴다. 1911년 제정된 <어업령>에서는 면허어업의 종류를 제1종에서 제6종으로 세분하였는데 구한말의 <어업법>에 전용어업이 제6종 면허어업으로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면허어업의 분류 체계는 1929년 제정된 <조선어업령>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도 면허어업은 양식어업·정치어업·정소인망어업·정소부예망어업·정소집어어업·공동어업 등 6종으로 분류하였는데, 지칭하는 용어는 바뀌었으나 내용은 일제의 어업령과 같았다.

그 후 <수산업법>의 면허어업 관련 규정은 개정을 반복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1963년 4월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정치어업의 범위에 대부망·대모망·개량식대모망·낙망·각망·팔각망·소태망 또는 죽방렴을 포함하고 정소인망어업·정소부예망어업·정소집어어업 등을 삭제하였다. 공동어업을 제1종에서 제3종으로 세분하고 공동어업의 수심 한계를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해저지형이 해안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991년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양식어업을 제1종 양식어업과 제2종 양식어업으로 구분하고 3종으로 구분하였던 공동어업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였다. 1996년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양식어업을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등으로 세분하고 공동어업의 명칭을 마을어업으로 변경하였다.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의 종류에서 각종 양식어업이 제외되었고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양식업권(양식업면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에서 면허어업으로 분류하는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양식 면허 발급 대상으로 분류하는 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에서 면허어업으로 분류하는 정치망어업과 공동어업 등 11가지이다.

어업권 제도의 생성과 변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행하여 온 어업의 형태와 어촌주민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어량과 같은 정치성어구는 구한말에 이르러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는 어장漁帳, 어살漁箭, 설망設網, 주목駐木, 중선中船, 정망碇網, 궁선弓船, 지예망地曳網(후릿그물) 등 수십 종의 어구가 도해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어선을 이용한 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설치와 관리의 노력이 소요되는 정치성어구는 점차 사라져 현재는 죽방렴과 정치망만 남았다.

한편 건국 이후 양식어업의 면허가 세분화되고 종류가 다양해진 것은 양식업이 발달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어업 제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각 연안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어로행위를 법제화한 것이다. 기원은 1911년 제정된 <어업령>의 전용어업으로, 어업조합이 면허를 취득하고 조합원은 조합이 취득한 어업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촌계원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1975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어촌계도 어업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마을어업권은 어촌계가 보유하였는데, 어촌계는 법인이 아니기에 어업권을 소유하는 방식은 총유總有의 형태를 띠었다.

마을어업은 우리나라 각 연안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공동어업으로 지역마다 특징이 뚜렷하다. 갯벌이 넓게 발달한 서해안에서는 패류와 연체동물 등을 낚, 호미, 갈고리류 등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맨손어업이 발달하였다.

미역을 채취하는 광전廣田은 조선시대부터 사적 점유와 개인 간 매매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서남해안 섬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에 의한 공동어업의 형태로 유지하였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은 해저지형의 특성으로 마을 공동어장에서 창경바리라는 독특한 어로행위가 발달하였다. 창경바리란 창경(사다리꼴 사각통에 유리를 붙여 사용하는 수경)이 부착된 소형 무동력선을 타고 직접 바닷속을 관찰하면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방법이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해안지역 어촌에서 광

범위하게 행해졌다. 울진·울릉군 지역에서 때배를 타고 수경을 들여다보며 낮으로 미역을 채취하는 돌미역 때배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다. 창경을 이용해 문어를 잡는 행위를 문어바리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어업권은 단순히 수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할 뿐만 아니라 수면·수중·수저에 있는 어업권의 객체를 포획·채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입체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재산권과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어업권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다. 어업의 종류는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와 해안 지형에 따라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동·서·남해안은 수심·수온·저질 등 해양의 물리적 조건이 다양해서 서식 생물종이 많다. 생물종이 많으므로 다양한 어업이 발전하였다.

어업권 제도는 연안에 널리 분포하는 어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어업권 제도를 통해 어촌이 존립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인 연안어장 이용의 우선권을 어촌주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에 부여함으로써 생업 기반이 안정되었다.

마을어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산종묘 살포, 어장 내 오물 제거 및 해안 청소, 유해생물 구제, 불법어업 감시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익 창출 기능도 한다.

참고문헌 마을어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최치훈, 한국도서연구31-4, 한국도서학회, 2019), 한국어업기술사(박구병, 한국문화대계3,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968), 한국수산지-100년 전 일본인이 본 우리의 바다1-1·1-2(朝鮮總督府農商工部, 이근우 외 역, 새미, 2010), 한국에서의 근대적 어업권 형성과 법제화(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경은, 2013), 어업권과 면허제도의 개선(한원도, 어민5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73.1.15.).

필자 채동렬(蔡東烈)

어업령 漁業令

정의 조선총독부가 1911년 6월 3일에 제정하여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어업에 관한 법령.

내용 일제는 1910년 8월에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통감정치를 벗어나 조선총독에 의한 실질적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제정·공포된 법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어업 법규도 일본 어민의 이익을 동반하는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게 되었다. 1905년 이후 일제에 의한 조선 연해 조사가 종합·정리되면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1908~1911) 등의 저서가 발간되었다. 이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일제의 이익을 강화하는 새로운 어업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0년에 제정된 일본의 <메이지 43년 어업법>(이하 <메이지어업법>)을 모방하여 1911년에 조선총독부의 <어업령>(1911.6.3.)과 <어업령 시행규칙>(1911.6.3.)이 제정되었다. <메이지어업법>은 73개 조로 구성된 데 반해 조선총독부의 <어업령>은 35개 조로 구성되었다.

<어업령>의 규정이 종전의 <어업법>(1908.11.7.)과 다른 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용어업제도의 창설,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의 창설, 보호구역의 설정, 어업 권한의 지방장관 위임 등이다.

첫째, 면허어업 중에서 수면전용면허제를 신설하여 어장 인접 수면에서의 어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전용어업제도를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면허어업의 종류를 <어업법>에서는 다섯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어업령>에서는 여섯 종류로 구분하였다. 허가어업의 종류도 <어업법>에서는 다섯 종류로 구분하였지만, <어업령>에서는 아홉 종류로 세분화하면서 관리를 강화하였다.

둘째,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을 신설하였다. <어업령>에는 어업자, 즉 어업을 하는 자 및 어업권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한 어업조합과 어업자 또는 수산물 제조업자나 수산물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으로서의 수산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어업령>에서 규정한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의 설립규정에 따라 <어업조합규칙>(1912.2.23.)과 <수산조합규칙>(1912.2.23.)이 제정되었다.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은 어업자의 이익보호와 한국 어민의 생업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어민의 토착·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장차 야기될 혼

란을 예견하고 이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조선 어민들의 어업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어업조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의 충돌을 방지하고 지방장관의 철저한 감독하에 조선의 어업과 어민을 지배하고자 한 것이었다. <어업조합규칙>에 의해 1913년 거제어업조합이 설립된 이후 1915년에 31개 어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18년에는 62개 어업조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조선수산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전의 조선해수산조합을 계승하면서 1915년 2월에 지부 12개소와 출장소 17개소로 정비하였다.

셋째,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그때까지 만연되어 있던 흑어(鰐)와 남획을 방지할 목적 아래 어구·어법이나 어획물·어장 또는 어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유독물·폭발물·트롤선의 사용에 대하여 단속하였다. 당시에는 어획에 치중하여 잠수기선과 트롤선을 이용하여 전복·해삼 등의 씨가 마르게 되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어종의 유지를 크게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에서는 남획을 방지하는 단속을 강화하는 법령을 보완하였다.

넷째,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총독의 권한 아래 두되, 권리처분상 어업의 종류에 따라 개혁하여 허가어업 가운데 특정 종류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장관의 처리사항으로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래 1908년 <어업법>은 일본 어민들에게 조선 연해의 어업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하였지만, <어업법> 시행 당시 대부분의 일본 어민들은 어업경영 자체보다도 어업권의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어 어업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에 어울리는 처리사항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었다.

특정 및 의의 <어업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의 어업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이 소유하던 유망한 어장과 왕실 소유 어장이 일본인에게 넘어갔다. 조선총독부가 <어업령>과 <어업세령>(1912.4.1.) 등의 연관 법령을 통해 조선의 어업 전반에 걸친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조선인의 어업 활동과 어업 기회는 축소되었다.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조선

어업자들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조선의 어업을 일제의 의도대로 재편해 가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식민지기 어업권의 소유 형태와 특징(송경은, 경제사학59, 경제사학회, 2015), 어업권제도와 연안어장 소유·이용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박구병, 부산수산대학 논문집30, 부산수산대학교, 1983), 한국수산사(수산사편찬위원회, 수산청, 1968),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이영학(李永鶴)

어업전관수역 漁業專管水域

정의 어업에 관한 연안국이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해상의 수역.

내용 전통적으로 <국제해양법>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바다를 공해로 간주하였다. 당시 <국제해양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3해리까지를 영해로, 이 외에는 공해로 규정하였다.

1945년 9월 28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Truman, H.이 ‘공해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 일명 ‘트루먼 선언Truman Proclamations’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자국 연안에 인접한 공해상에 ‘보존수역 conservation zone’을 설정하여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트루먼 선언 발표 이후 남미의 멕시코,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가 200해리 어업 보존수역을 설정하여 대외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평화선은 60해리가 넘는 수역이다. 우리나라는 평화선 수역 안에서의 자연 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이 수역 안에서 어업 문제 등을 포함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3해리의 영해 바깥쪽에 어업수역을 주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다. 1958년과

1960년 국제연합UN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당시 6해리의 영해와 6해리의 어업전관수역 설정 주장 그리고 12해리의 영해 주장 등이 대립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해양법회의가 열렸음에도 영해의 폭을 결정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 대신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영해 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영해의 폭은 좁게 설정하되, 영해 바깥 일정 범위의 수역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배타적 혹은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제안은 UN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그 후 각 연안국이 수산자원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추진하면서 영해와 어업수역 분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우리나라는 3해리 영해 바깥쪽에 어업 전관수역 설정을 주장하였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적용되는 주요 협정 수역은 12해리의 어업수역과 그 바깥쪽 40해리의 공동규제수역이다. 협정은 1958년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1952년 선포한 평화선은 유보되었다.

연안국은 어업 전관수역 내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연안국은 전관수역 내에서 자국의 어업 능력을 고려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적절한 자원 보존과 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업 전관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인과 외국 어선은 연안국의 단속 법령을 따라야 한다. 단속 법령에는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비롯하여 감시, 임검, 나포, 처벌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영해 12해리 제도를 규정하고 어업권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확립하게 되면서 어업전관수역이라는 표현 대신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조운수, 일본연구논총28, 현대일본학회, 2008), 현대한일어업관계사(최종화, 세종출판사, 2000).

필자 조운수(趙胤修)

어업조합 漁業組合

정의 일제의 식민지 수산 정책에 따라 설립된 어업단체의 하나.

개관 일제가 한반도에서 수산자원 확보, 일본인 어민의 이주 장려, 어촌과 어민의 통제를 위해 설립한 수산단체 중 하나이다. 1912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여 1942년에 조합 수 198개, 조합원 수 15만 6,000명이었다. 1930년부터 어업조합의 상부 기구로서 도 단위 어업조합연합회가 조직되었고, 1937년 5월에는 중앙기구로서 사단법인 조선어업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다. 1961년 6월 수산단체의 정비·폐합 방침에 따라 64개가 폐지되고 88개만 남았다. 1962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

내용 어업조합 설립과 활동의 법적 근거는 일제가 1911년에 제정한 <어업령>과 <어업조합규칙>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어업법>을 모방하여 <어업령>을 제정하고 어업령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하였다. <어업령>을 제정한 이유는 일본 어민의 토착 이주 장려와 수산 이익 개발을 통해 어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어촌의 안정은 식민지 조선의 어촌이 일제의 식량·원료 생산지와 상품 소비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어업령> 제16조를 근거로 어업조합 설립과 활동을 뒷받침할 <어업조합규칙>이 1912년 2월 23일 제정·공포되었고, <어업령>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1912년 4월 <어업령>과 <어업조합규칙>이 시행되어 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1921년까지 설립된 어업조합 수는 89개, 조합원 수는 2만 7,078명이었다.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어업조합에 보조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29년 말까지 조합 수는 166개, 조합원 수는 7만 6,800명에 달하였다. 이후 1942년에 조합 수 198개(1940년에는 206개), 조합원 수 15만 6,000명이었다.

어업조합의 기본 사업은 어업권 행사를 통한 어민 통제이다. 조합원은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아닌 경우 불이



연합협의회 | 1923.8.17. | 조선시보

익을 받았다. 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 가운데 조합 설립 이전부터 어획한 어민만이 어장 구역 안에서 계속 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조합에 입어료를 납부해야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가입률이 증가하였다.

어업조합의 공동시설사업도 중요한 통제 수단이었다. 공동시설사업에는 어구漁具의 공동구입, 어획물의 공동판매, 어업자금의 대부, 어구·어선의 대부, 공동저금, 공동창고, 경보警報 신호, 공동 우물의 수축修築, 망염부網染釜(그물을 염색하는 가마)의 공동사용, 계선장繫船場(배를 매어두는 장소)의 설비 등이 있었다. 예금업무는 부족한 대부 재원 마련을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전 시체제기의 공제 저금은 일제의 전쟁비용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어업조합의 어업권 행사와 공동시설 사업은 어민을 어업조합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었다. 어업권은 일제가 조선인 어민과 어촌을 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영세한 조선인 어업자로서는 단독으로 어업권 면허를 신청하는 것도, 면허를 받는 것도 몹시 어려웠다. 조선인 어민이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업권이 있는 어업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이 유리하였다. 조선 어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업조합을 매개로 일제에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공동시설 사업 중 자금 대부 사업도 어민을 어업조합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다. 고리대 대신 상대적으로 저리인 조합 자금 대출을 기대한

어민은 어업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어업조합 재정 구조상 자금 대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민은 그 대신 어획물의 공동판매만을 강요받았다. 그런 탓에 어민의 불만이 팽배하였다. 어업조합원이 어획·생산·양식·가공한 수산물은 일본인 기업 자본에 독점 판매되거나 그들의 중개를 거쳐 상품화되었다. 일제가 조선의 수산자원을 식량과 원료로 확보한 것이다. 어업용 공산품은 어업조합의 공동구입망을 통해 조합원인 어민에게 전달되어 어업 영위 과정에 투입되었다. 어업 도구의 공동구입이라는 사업이 일제 자본의 안정적 상품 소비 시장 장악에 이용된 것이다.

광복 이후 어업조합은 어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처하면서도 어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해무익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말부터 수산단체 폐합 방침을 정하고, 제2공화국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 이후 1961년 6월에 이르러 절반에 가까운 64개 어업조합이 폐지되고, 1962년 4월에는 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1910~20년대 일제의 어업조합 방침과 운영(최재성, 사림47, 수선사학회, 2014), 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최재성, 사학연구108, 한국사학회, 2012), 조선어업조합요람(조선어업조합중앙회, 1942), 한국수산업단체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80).

필자 최재성(崔在聖)

어업선세 魚鹽船稅

정의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어살漁筭과 어장漁場 등에 부과된 어세漁稅, 염분·염전에 부과된 염세鹽稅, 선박에 부과된 선세船稅, 미역밭·김밭에 부과된 곡세藪稅를 통칭한 것.

개관/역사 농사 짓는 토지가 국가에 의해 비교적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음에 비해 산림·천택川澤·바다는 그렇지 못하여 권력기관이나 지방 지배세력인 토호土豪들에게 사적으로 장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후기의 어장이나 염전도 대부분이 궁방과 아문에 질수折授되거나

나 지방 토호가 장악하여 그들이 징세 수입을 가져갔고 호조에 세금을 내는 것은 소수였다. 어염세가 이처럼 여러 곳에 장악되어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운영은 난맥상을 보였고, 세액에 일정한 규제가 없어 어부와 염호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장이나 염전의 절수와 면세제도를 혁파하려는 논의와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특히 1716년(숙종 42)에는 어염세를 총괄할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여 수세에도 일정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하고 절목까지 완성하였으나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영조 연간에도 어염세 개정이 간헐적으로 시도되었지만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1750년에 균역법의 감필減疋로 인한 재정결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해지자 어염세의 징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균역법 제정 논의는 1750년 5월 중순에 영조가 어사 박문수朴文秀(1691~1756)의 건의에 주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박문수의 방안은 2필 양역을 모두 폐지하고 부족한 재원은 가호에 약간의 호전을 부과하여 해결하되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염전세를 징수하여 채워 넣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2필 양역을 모두 없애려면 호전이 처음의 예상보다 훨씬 고액으로 책정되어야 하였다. 그 결과 7월에 양역가를 이듬해부터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하고, 이로 인한 재정결손을 채워 넣을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가장 먼저 부각된 것이 처음부터 주목하였던 어염전세였다. 그래서 처음에 어염전세의 징수를 주장하였던 박문수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어염사魚鹽使로 발탁하여 내려보내기로 하였다가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8월 초에 박문수·김상적·이후를 각각 영동·영남, 해서·경기, 호서·호남 6도의 균세사均稅使로 파견하여 어염세의 실태를 조사하고 세액 책정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어염세 수입이 많지 않아 관찰사에게 그 일을 떠맡겼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영의정 조현명, 좌의정 김약로, 우의정 정우량 삼상三相이 연차聯節로 어염전세魚鹽, 진陳田, 은결隱結, 선무군관포軍官 4대 재원으로 급대전給代錢을 감당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

았지만 어염세는 단순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정良丁과 해민海民의 고통을 모두 덜 수 있는 겸政兼政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되어 일찌감치 『균역사목均役事目』(1752)에 올랐다. 『균역사목』에 오른 어염전세 수세 조항의 상당 부분은 숙종 때에 작성되었다가 실행되지 못한 절목에서 인용되었다.

어염전세는 징수 항목도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특성도 달라서 세액의 공평한 책정이 쉽지 않았다. 『균역사목』의 잡령雜令을 제외한 10개 조항 가운데 해세海稅 조항이 서술 분량의 약 40%를 점할 정도로 가장 많고 번잡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염전세는 지방의 토호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기도 하였지만, 중앙의 궁방과 각사나 지방의 감·병·수영 및 군현의 운영경비로 활용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이 수입이 모두 균역청으로 들어가게 되자 운영이 어려운 곳이 여럿이었고, 그런 기관에는 어염세를 다시 급대給代하였다. 이미 1728년(영조 4)에 궁방과 아문이 직접 어염세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첨징鹽徵과 남징濫徵을 막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제도적으로는 갖춰지고 있었는데, 균역청에서 어염세를 거두어 그 일부를 급대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것을 완결하는 조치였다. 어염전세는 1752년에 균역법의 원사목이 제정되고 난 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수정이 가해져 1753년에 추사목의 반포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내용 어염전세는 금납제를 적용하여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돈으로 징수하였으며 징세안徵稅案은 3년에 한 차례씩 식년式年마다 개정하도록 하였다. 어염전세는 봄인 4월과 가을인 10월에 분납하게 하여 춘추세春秋稅라고도 불렀는데, 경상도에서는 춘등도납春等都納으로 봄인 3월에 1년분을 징수하였다. 초기에는 연간 약 12만 냥을 거두었으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조정을 거쳤다. 그 후로 해마다 총액의 편차가 작지는 않으나 균역법이 정착되면서부터 대체로 연간 8만~9만 냥이 징수되었다. 도별 징수액의 격차가 작지 않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징수되는 액수가 절반을 넘었다. 세목별 격차도 커서 어염전세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전국에 있는 약 1만 척의 배에 부과된 전세였고, 염세와 어세가 그 뒤를 이었으며, 광세는 일부 지

역에만 부과되었으므로 당연히 징수액도 적었다.

1. 어세: 물고기를 잡는 시설로는 바다에 발(鰓)을 세워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발 안에 가둬서 통발에 몰아넣어 잡는 어전(漁箭)을 비롯하여 고기 때가 밀려드는 길목에 배를 나란히 세워두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조(漁條), 고기 때가 있는 곳을 둥글게 그물로 에워싸서 고기를 잡는 어장(漁場), 고기잡이에 유리한 지세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어기(漁基)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방렴(防簾)과 주박(注朴)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들 시설마다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세액을 책정하였다. 우선 어전은 지역에 따라 발의 길이, 통발의 깊이, 어중, 어획량 등을 참작하여 등급을 정하였다. 어조·어장·어기에서는 어선의 수, 어선의 크기, 어선의 종류, 어중, 어획고 등 지역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세액을 정하였다. 또한 어조·어장·어기의 어선에는 선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세를 받고 장표(掌標)를 내어주어 고기잡이를 허가하였다. 어세는 시설에 따라 어획량도 다르고 어중도 다른 데다가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세를 책정해야 하였으므로 세액도 매우 다양하였고, 어획량과 어중을 조사하여 징세안도 정기적으로 개정하게 하였다.

2. 염세: 염세는 바닷물을 끓이는 염분(鹽盆)의 크기, 염분을 제작하는 재질에 따른 토분(土盆)과 철분(鐵盆) 여부, 염분의 파손 정도, 염분과 뿔나무를 조달하는 시장(柴場)의 유무,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 과세하였다. 이와 함께 충청도에서는 염장(鹽場)의 비옥도에 따라, 경기도 남양(현재 화성시 남양읍)과 광주에서는 염정(鹽井)의 크기를 고려하여 부과하였다. 즉 지역 실정에 따라 제염 방법과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등급책정의 기준도 달랐다. 염분·염정·염전의 등급은 때로는 2등급에서 많게는 10등급으로 정해지고, 그에 따라 세를 부과하였다. 세액은 전라도 소소등분(小小等盆)의 1량에서 황해도 대분(大盆)의 16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차등을 두었다.

3. 선세: 선세의 명목으로는 지토세(地土稅)와 행상세(行商稅)가 있었으며 둘을 함께 징수하였다. 다만 경상도와 강원도에서는 둘을 별도로 징수하였다. 선세는 배의 길이 파수(把數)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책정되었는데, 배의 상판(上板)에 소속 고을과 선주의 이름 그리고 등급

과 함께 파수를 새겨놓게 하였다. 배의 길이에 따른 등급은 경기도와 황해도에서는 대선(大船)부터 소소정(小小艇)까지 5등급, 충청도에서는 11등급으로 나누는 등 지역에 따라 달랐다. 등급에 따른 세액도 경상도 소어정(小漁艇)의 5전에서 경기도 대선의 25량까지 각양각색이었다. 각 고을에서는 해마다 선세를 받고 장표(掌標)를 지급하여 배를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전년의 장표는 환수하였다. 장표는 선세를 낸 선박뿐 아니라 면세된 선박에도 모두 지급하여 다른 기관의 침해를 받지 않게 하였고, 장표가 없는 배는 선적된 물건과 함께 몰수하고 선주를 처벌하였다.

4. 광세: 미역밭 광전(藁田)과 김밭 태전(苔田)에 부과된 세이다. 미역밭의 광세는 전라도·경상도·강원도 3도에 부과되었고, 김밭의 광세는 전라도에만 부과되었다. 세액은 대체로 예전의 세를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광세는 경상도에서의 징수총액이 가장 컸다. 충청도의 광세는 사목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거둔 기록이 있으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적은 액수였다.

특징 및 의의 어염전세의 징수가 난맥상을 보여서 어염전세에 대규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행하지 못하고 계속 시일을 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균역법의 시행으로 군포수입이 줄어들어 새롭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자 어염전세의 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어염전세의 개정은 국가재정의 충실화를 위해서도, 균역법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그리고 바닷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균역법을 시행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르자 19세기에는 어염전세의 징수에 다시 지방의 국가기관이나 토호들의 힘이 미쳐 세금이 이중으로 징수되는 폐단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염전세는 1894년의 갑오개혁까지 그대로 징수되었다.

참고문헌 17세기말~18세기 전반 어염세 수세규정 정비와 관수관급제(이욱, 조선시대사학보26, 조선시대사학회, 2003), 영조대 균역해세의 수취와 상납(조영준, 한국문화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정연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손병규, 역사비평사, 2008).

필자 정연식(鄭演植)

정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 수산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곳.

개관 수산학에서는 수산 생물이 항상 군집 채류하거나 일정 기간 어군이 통과할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어로 행위가 이뤄지는 수역을 어장이라고 한다. 어장은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어업 활동이 이뤄지는 수역으로 어민이 어로 활동을 하는 장소를 일컫는다. 넓은 대륙붕이나 어초魚礁가 발달한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좋은 산란지를 제공할 수 있기에 어족이 풍부하여 어장 발달에 유리한 자연조건이다. 난류와 한류가 접촉하는 조정수역潮境水域은 생육에 필요한 영양 염류가 풍부하고 난류성 어족과 한류성 어족이 많아 어장 발달에 좋은 조건이 된다. 그 외에 아래층 냉수가 해면으로 솟아오르는 용승湧昇 해역도 어장 발달에 유리하다.

내용 어장 종류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종에 따라 조기 어장, 명태 어장, 멸치 어장, 오징어 어장 등으로 나누거나 어구와 어법에 따라 정치망 어장, 유자망 어장, 저인망 어장, 통발 어장 등으로 구분한다. 수역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내수면內水面 어장과 해면海面 어장으로 나눈다. 그 중 해면 어장은 다시 연안 어장과 근해 어장, 원양 어장 등으로 나뉜다. 연안 어장은 보통 하루에 나갔다 돌아올 수 있는 정도로 육지에서 가까운 어장으로, 소규모 어업 활동이 이뤄지는 어장을 말한다. 근해 어장은 연안 어장과 원양 어장의 중간에 해당하는 어장인데, 비교적 큰 어선으로 일주일 이상 동중국해나 동해의 대화퇴大和堆(동해 중부에 있는 어류 서식지)와 같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로 출어하는 기업 형태의 어업 활동이 이뤄지는 어장을 말한다. 원양 어장은 바닷가나 근거지를 멀리 떠나서 원양에 출어하여 수일 혹은 수개월 동안 머물며 조업하는 어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연·근해는 세계 4대 어장의 하나인 북서태평양 어장에 속하여 각종 어족이 풍부하다. 동해,

남해, 서해가 모두 중요한 어장이지만 자연환경의 차이는 크다. 서해는 대부분 대륙붕에 해당하고 주변 육지에서 큰 강이 유입되어 영양 염류가 풍부하여 어장 발달에 유리하다. 수심이 깊지 않아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지면서 어장 발달에 불리한 여건이 되기도 한다. 남해는 연중 수온이 높고 수심이 낮은 편이어서 어장 발달에 유리하다.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조정수역을 형성하여 어종이 다양하며, 대화퇴와 같이 수심이 낮은 해역은 어장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해 어장의 대표적인 어종은 오징어와 명태이다.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꽂치, 멸치, 방어, 삼치, 고등어, 오징어 등 난류성 어족이 동해로 돌아온다. 울릉도 북동쪽 동해의 중앙에 자리한 대화퇴 일대의 해역은 바닷물이 해저에서 솟아올라 영양 염류가 풍부하며, 남쪽에서 북상하는 난류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한류가 만나면서 조정수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 수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오징어 어장이다.

서해 어장에서는 조기 외에도 전갱이, 민어, 멸치, 삼치 등의 난류성 어족이 산란·부화한 뒤 발육기를 보낸다. 또한 서해에서는 젓갈용 새우·대하·꽃게 등의 갑각류와 멸치, 까나리, 홍어 등이 주로 잡힌다. 이전에 조기 어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연평도 근해에는 봄철에 주요 꽃게 어장이 형성된다. 겨울철 서해에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면서 수온이 낮아져 어로 활동이 줄면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거나 굴이나 김 등을 채취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어장인 남해에는 어류는 물론 해조류와 조개류 등 어족이 다양하다. 대표적인 어족은 멸치, 고등어, 전갱이, 갈치, 삼치, 돔, 민어, 병어, 전어, 준치, 정어리, 가자미, 쥐치 등이다. 특히 멸치와 고등어, 갈치 등은 남해 어장의 대표적인 어종이다.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연중 수온이 높은 것도 연중 어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유리한 점이다. 여름철에는 수면의 온도가 25℃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간혹 바닷물이 붉게 물드는 적조赤潮 현상이 발생하여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한다.

〈수산업법〉에 따라 지역어촌계 단위의 공동어업권共同漁業權을 기반으로 어장을 구분하기도 한다. 공동어

업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어민이 어업경영상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촌계를 만들고 어촌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어업을 말한다. 공동어업의 종류는 제1종, 제2종, 제3종 등으로 나뉜다. 제1종 공동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해양수산물 부 장관이 정하는 정착성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어장은 최간조(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 시 평균 수심 10m(강원·경북·제주 15m) 이내의 범위이며 맨손, 나잠, 간단한 채취 용구, 잠수기 등의 어구를 사용한다. 제2종 공동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으로 한 곳에서 지인망·지조망·선인망·예인망·휘라망·분기초망·들망 등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장은 최고조 시 해안선에서 500m 이내의 범위이다. 제3종 공동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으로 한 곳에서 건망·설망·인망·조망·선망·집어·일본조·통발·연승·문어단지·손꽂치 등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장은 최고조 시 해안선에서 1,000m(경기·충남·전북은 2,000m) 이내의 범위이다.

서해의 전라남도 흑산도의 바위 미역채취나 동해의 경상북도 울진군의 돌미역채취 등 공동어업이 이뤄지는 마을어장은 제1종 공동어장에 속한다. 이를 지선어장이라고도 하는데, 대대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어촌공동체의 마을 앞 어장에서의 어업권이 법제화되어 인정된 마을어장이다. 해조류와 전복·성게·홍합 등 어패류의 채취·포획을 주로 하는 마을어장 이용과 그에 따른 생업 활동은 전통적인 협업과 분배 체계를 보여준다. 개인이 마을어장의 공동어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마을 또는 어촌계 단위의 규약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어료를 지불하여 입어권^{入漁權}을 획득하여야 한다.

지역사례 동해의 독도어장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지역 주변 해역의 연안 어장을 일컫는다. 울릉군 지역 주변의 주요 어장은 마을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구분되는데, 제1종 공동어장인 마을어장이 바로 독도어장이다. 독도어장은 1965년 3월부터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도동어촌계 소속 1종 공동어장으로 지정되었다. 마을어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도어장은 마을어장 90.8ha와 협동양식어장 78.2ha를 포함한 것으

로, 오징어를 비롯한 해산물 등의 어족 자원이 풍부한 동해안의 어업 전진기지이다. 독도어장은 북측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계수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서로 만나는 해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한 천혜의 어장이다. 겨울철에는 연어와 송어 등이 독도어장에 많으며, 여름철에는 오징어·꽂치·방어 등의 온대성 어족과 참다랑어·개복치 등 아열대 어족이 많다. 독도어장은 대화퇴어장과 함께 국내 오징어 수확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어장이며, 독도어장의 어획 대상 중 95% 정도가 오징어이다.

특징 및 의의 어업 발전은 어장을 연안에서 근해로, 근해에서 원양으로 외연적으로 확장해 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어선이 발달하지 못하여 행동반경이 좁았던 때는 연안 어장이 가장 중요한 어장이었지만, 어선이 동력화하고 대형화함에 따라 근해 어장과 원양 어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연안 어장의 중요성이 가장 컸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근해·원양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연안 어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더욱이 연안 어장은 개발의 역사가 깊고 어획 노력이 과잉 투하되어 어족 자원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가치는 더욱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어초 투입과 치어 방류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권삼문, 민속원, 2001), 평등이념과 개인의 전략(김창민, 지방사와 지방문화5-1, 역사문화학회, 2002), 해양과 학용어사전(한국해양학회, 아카데미서적, 2005), 해양용어사전(조창선, 일진사,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encykorea.aks),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조숙정(趙淑晶)

어장
魚醬

정의 어패류에 식염을 첨가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어패류 생체 내에 함유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얻는 액상 조미료.

개관 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산림경제(山林經濟)』와 『규합총서(閏閣叢書)』에 쇠고기, 닭고기, 꿩고기, 송어, 도미, 생복, 홍합, 새우, 달걀, 생강, 파, 두부, 메주, 소금 등을 이용하여 어육장(魚肉醬)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 발행된 『쇄미록(鎖尾錄)』과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젓갈의 액젓만을 분리하여 조미료로 이용하고 굴젓의 액젓을 달여 굴젓국을 만들어 청장(淸醬(진하지 않은 간장)처럼 사용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을 사용하였고, 잘 숙성된 젓갈을 끓인 후 여과한 젓국을 김치에 첨가하는 조리법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식품산업의 발달로 멸치, 까나리, 갈치, 가자미 등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액젓의 어장을 생산하고 있다.

어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패류를 이용하여 만들며 국가마다 특징을 갖고 있다.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되는 느억맘(nước mắm), 태국의 남플라(nampla), 인도네시아의 트라시칸(trassikan), 미얀마의 나피(ngapi), 말레이시아의 벨라찬(bellachan), 필리핀의 패티스(patis), 구미 지역의 안초비 소스(anchovy sauce) 등이 유명하다. 어장은 소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제조원리가 젓갈과 비슷하나 젓갈의 숙성기간이 6개월 미만인 데 비해 어장의 숙성 기간은 6~12개월로 길고 경우에 따라서 다량의 식염수가 첨가된다.

내용 어장은 세부적인 제조공정에 따라 전통어장, 개량식어장, 액젓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소규모로 만드는 전통어장은 멸치, 정어리, 밴댕이, 까나리, 갈치, 새우, 잡어 등에 식염 30~40%를 섞어 용기에 넣고 다시 상부에 약간의 식염을 뿌린 다음 누름돌을 올리고 밀봉하여 15℃ 내외의 음지에서 1년 이상 숙성한다. 숙성이 완료되면 육질이 분해되어 잔해가 용기의 하부에 남고, 상부에는 갈색의 액체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분리하여 솥에 넣고 달인 다음 여과하여 병 등에 담아서 조미료로 사용한다. 개량식어장은 주로 기업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며 숙성 기간 단축을 위해 간장용 코지(Koji, 麹)를 사용하는 점이 재래식어장과 다르다.

액젓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어장이다.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멸치와 까나리 등이며 원료에 식염 30% 정도를 첨가하여 15℃ 내외의 음지에서 6개월 이상 숙성한 후에 여과, 살균, 포장 공정을 거쳐서 기업적인 규모로 생산된다. 멸치젓의 주산지인 기장·제주·남해·여수 등 남해안이고 까나리젓은 충청남도 보령과 인천광역시 백령도 등 서해안이지만, 액젓의 상당한 양은 유통의 편리성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주로 생산된다.

특징 및 의의 과거 어장은 단백질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요즘은 풍미가 독특한 천연 조미료로 비중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어장의 일종인 멸치액젓에서 항고혈압성(ACE 저해활성)·항산화성·항암성이 높은 활성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숙성기간이 길수록 활성물질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어장은 소금 함량이 23% 정도로 고염 식품에 속하여 현대인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젓갈의 소금 농도를 낮추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閏閣叢書, 山林經濟, 鎖尾錄, 增補山林經濟, 멸치액젓의 기능성(김상무, 식품산업과 영양8-3,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3), 아시아속의 한국어장문화에 관한 연구(이성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1-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6), 한국의 젓갈(김영명·김동수, 도서출판 창조,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희연(朴喜鍊)

어초 魚礁

정의 수산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수중의 암초나 퇴(자연초) 및 인공적으로 해저 또는 해중에 설치한 구조물(인공어초).

개관 어초(Fishing Reefs)는 자연초와 인공어초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어초는 인공어초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다에 사



블록조립형 인공어초 | 2001 | 안희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삼각뿔 강제 어초 | 2010 | 명정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각형 콘크리트 인공어초를 투하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인공어초사업이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업 목적 이외의 바다낚시 및 스킨스쿠버 등과 같은 해양레저를 위한 목적으로도 인공어초가 활용되기도 한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서 인공어초는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로 활용되는 등 그 용도는 다양해지고 있다. 인공어초는 대상생물, 재질, 바다의 수심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1971년부터 2019년까지 바다에 투하한 인공어초는 약 141만 개이고, 인공어초 시설면적은 약 23만ha이며, 사업비는 약 1조 2,581억 원이 투입되었다. 인공어초는 보통 투하한 지 3년 후부터 효과가 발생하며, 경제적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은 암초나 퇴 등에 부착 또는 은신하거나, 그 주변에서 산란과 먹이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초가 있는 곳은 유

속이 빠르고 저층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운반되어 플랑크톤과 부착생물이 다량 번식하므로 수산생물의 서식 장소로서 매우 적합하다. 또한 어린 물고기나 작은 수산생물이 포식자를 피해 숨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인공어초는 이러한 수산생물과 암초·퇴 등의 속성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의 은신·산란·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수중 구조물이다. 인공어초 사업을 하는 목적은 수산자원 증대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을 증가시키고, 레저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어초는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바다낚시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인공어초가 시설된 곳에서 낚시가 잘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어초를 시설한 해역은 그렇지 않은 주변의 해역에 비해 생물이 풍부하고 자원량도 많으며 어획효과도 높았다. 그 결과 인공어초사업의 내부수익률은 최소 10% 이상이었고, 투자회수 기간은 11년에서 18년으로 경제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투하하는 인공어초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적지 조사를 통하여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투하하며, 시설 후에는 효과조사를 벌이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국가가 인공어초를 승인할 때의 평가기준은 대상생물에 대한 기능성, 어장조성 및 해양 환경적 적합성, 제작 및 시설비의 적정성, 인공어초 시설의 안정성, 내구성 및 주변 해역과의 조화성 등이다. 즉 인공어초 재질이 환경에 무해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견고하고 수산생물 증대에 효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있어야 한다.

인공어초의 종류는 수산생물에 따라 어류용, 패·조류용, 어·패류용, 해중립용 및 기타용으로 분류한다. 또 수심별로는 수심 3m 미만(소형), 수심 3~6m(중형), 수심 6m 이상(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인공어초는 91종이다. 재질에 따라 구분하면 철근 콘크리트가 41종으로 가장 많고, 복합소재가 25종이며, 강재가 20종 그리고 콘크리트가 3종이다. 1999년까지는 철근 콘크리트가 주종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부터 강재와 복합소재로 재질이 다양화되면서 개발 종수도 많아졌다.

인공어초사업 실적은 1980년대까지는 미미하다가

1997~1998년에 시설량이 가장 많아지면서 시설사업비도 가장 많이 투자되었다. 2000년 중반부터는 시설량에 비하여 시설비가 많아졌는데, 이는 개별 어초의 규모가 커지고 재료비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인공어초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특히 인공어초가 부실하게 시설되었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비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공어초의 기능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증명되었고, 수산자원 조성 기법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0

어촌계

특징 및 의의 인공어초사업은 수산자원을 인위적으로 증대시키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은 고갈 위험에 있는 반면,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여 수산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따라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인공어초는 그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산생물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어초의 재질 및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수산자원조성개론(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7), 인공어초설치통계(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 2020),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경제적 평가에 관한 연구(류정곤·정명생, 해양정책연구15-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인공어초 정보집(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 2021), 해양과학용어사전(한국해양학회, 아카데미서적, 2005),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류정곤(柳廷坤)

어촌계 漁村契

정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수협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선어장을 기반으로 어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



어촌계 회관 | 전북 고창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어촌계 정관과 임원선거규정 | 경북 영덕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법적 근거를 갖는 어촌계가 만들어지기 이전 어촌에는 자생적인 협동조직체로서 양식계養殖契, 해조계海藻契, 포패계捕貝契 등이 있었다. 이는 자연마을을 단위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에 근거한 협동조직체로 지선어장의 공동관리와 해주·폐류 공동채취 등 경제적 공동체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어촌계가 조직되기 이전 어촌에는 이미 모체가 되는 각종 협동조직체가 존재하였다.

어촌계는 1962년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고 조직화되었으며, 지구별 수협의 하부조직체 또는 기본조직체로서 기능하였다.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민은 지구별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구별 어업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고,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어촌계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1962년 어촌계 수는 1,658개에 달하였으며, 9만 2,366명이 어촌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초창기 어촌계 조직은 어촌 자연마을을 단위로 지구별 조합의 주도 아래 설립 운동이 추진되어 점차 수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70년에 어촌계 수는 2,000여 개로 늘어났지만, 어촌계 간의 갈등과 어장 분할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73년 대대적인 어촌계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1,600여 개로 축소되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촌계의 목적은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즉 어촌계는 어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이익단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은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면서 당해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어촌계 가입에 추가적인 요소들이 고려된다. 보통은 정관에 어촌계원의 가입 조건을 명기하는데, 어촌계에 가입하고 어장에 대한 입어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의 성원으로 인정받는 입호권(立戶權)을 가져야 한다. 즉 어촌계원으로서 입어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을 성원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입호권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가구 구성 여부와 거주기간이다. 입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지인은 마을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만 어촌계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제전마을의 어촌계 운영규약에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어촌계원은 마을에 주소와 거소를 두고 5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결격사유(금치산)가 없는 자에 한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촌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해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계원 자격의 승계는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장남이 받지 않을 경우 차남도 가능하다. 신규 어촌계원에게는 1,000만 원의 가입비가 부과된다.

어촌계 탈퇴는 해당 계원이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구별 수협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1년 이상 해당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어촌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령·행정처분·정관·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어촌계에 손실을 끼쳤거나 어촌계의 명예·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어촌계에서 제명 처리된다.

한편 어촌계의 임원은 보통 어촌계장, 간사, 감사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수장으로서 마을마다 편차가 있으나 보통 2년에서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연임 횟수도 각 마을 어촌계의 내규에 따른다. 어촌계장의 역할은 어촌계의 행정을 책임지고 지선어장의 패류와 해조류 채취 작업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한다. 경상북도 포항의 해녀들은 잠수작업을 할 때 어촌계장이 반드시 “영을 내려야” 입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작업 전에 어촌계장은 당일 작업하는 품목과 함께 작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이 밖에도 어촌계장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기 때문에 마을 어민의 대표이다.

어촌계 회의는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눌 수 있다. 총회는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열리는데 정관의 변경,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계원의 가입과 제명, 자금의 차입, 사업계획·예산·결산 승인, 경비 부과 및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결정,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해산·합병·분할,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다룬다. 임시총회는 어촌계장이 전체 어촌계원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어촌계가 어장을 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어촌계의 총회와 임시회의에서 협의하고 결정된다. 비록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바다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어촌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서는 마을에서 진행하는 카약 체험사업이 개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어촌계의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바다와 항만시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어촌계의 주요 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다른 경제·사회·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어촌계의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장의 관리·운영이다. 1962년 어촌계 설립 당시에는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이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촌계원이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어업권의 면허 주체는 개인·법인 어촌계·수협 등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만 부여되었고, 법인격이 없는 일반 어촌계는 수협에 면허된 어업권에 대한 이용권만 있었다. 그 결과 면허 주체인 수협과 이용 주체인 어촌계 사이에 행사료 등의 문제로 큰 마찰을 빚었다.

어촌계가 어업권의 주체로 인정된 것은 1976년부터이다. 이전의 법인격이 없는 일반 어촌계에 총유^{總有}의 개념을 도입하여 면허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어촌계도 어업협동조합처럼 어업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어업협동조합과 어촌계가 경합할 때는 어촌계를 우선순위로 하였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어업권은 어촌계가 보유하였는데, 어촌계가 비법인이기 때문에 어업권을 소유하는 방식은 총유의 형태를 띠었다. 1981년에는 수협과 어촌계에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은 조합 또는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때부터 공동어업권뿐만 아니라 양식어업권도 어촌계로 집중되었다. 1995년에는 기존 공동어업권의 수면을 수심 한계로 분리하여 실제 지선 어업인이 법 취지에 부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심까지의 공동어장 수면을 마을어업이라 하고, 그 이상의 깊은 수면을 협동양식어업이라는 명칭으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구간이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장의 범위이다.

이처럼 어촌계는 지선어장을 이용해서 어패류와 해조류를 포획·채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울산 구유동 제전마을 어촌계는 어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소라·해삼·석화·운단·피성게·곤피·미역 등 각종 해조류 채취, 건망 행사료, 미역 건조장 운영, 풍락초 및 해조류 등을 통해 수익을 낸다. 어장의 운영은 어촌계 수익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어촌계가 관리하는 공동시설물은 선착장·물양장·건조장·창고·탈의장·어촌계회관 등이다. 어촌계의 공동작업으로는 종묘 살포, 바위닦기, 투석, 어부림^{魚附林} 조성, 해안 청소, 해적생물 구제 등이 있다. 특히 종묘 살포는 행정적 지원을 받아 전복·해삼·성게·쥐치 등의 어패류를 방류함으로써 자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촌계는 평등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어촌계원이 지선어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어장 내의 자원을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촌계는 어장을 생산 기반으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마을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는 어촌계가 마을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는 다소 독립적인 사회조직으로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촌계의 구성원은 지선어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계원에게 지급한다. 또한 어촌계에서는 수익금으로 마을의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촌의 많은 마을 행사가 어촌계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별신굿의 경비는 대부분 어촌계 기금으로 충당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에서는 1970년대 중반 마을 재정상의 이유로 별신굿이 중단되었는데, 1986년 어촌계에서 주관하면서 다시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때 별신굿에서 풍어제로 제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마을보다 어촌계원들



어촌계 해안청소 | 울산 북구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공동 바지락 채취 | 인천 옹진 | 2019 | 옹진군



어촌계 해녀탈의실 | 부산 영도 | 2019 | 국립민속박물관



어촌체험 관광마을 | 충남 서천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었다. 동제를 지낼 때도 어촌계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마을에서는 이장의 주도로 10월 보름에 동제를 지내는데, 어촌계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어촌계에서는 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의 흥현 어촌계에서는 방풍림과 석방림, ‘흥현 해라우지 체험관’을 활용한 어촌체험과 민박을 주요 사업으로 10곳의 명소를 지정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가미한 ‘이야기 따라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과 ‘석방림축제’ 등을 운영한다. 부산광역시의 동삼 어촌계는 2010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을 어촌 활성화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인 동삼동 패총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라는 점과 풍어제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고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동삼동의 하리향을 부산 지역 최고의 스토리텔링 마을로 만들고자 한다. 또한 요트 운행과 해상 낚시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동삼 어촌계의 주도 아래 어촌체험마을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어촌계는 1962년 〈수협법〉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어촌계는 어장을 생산 기반으로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을의 다른 조직과 구분되는 사회조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어장에서 행

해지는 어촌계의 다양한 수익 활동은 어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어촌계는 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별신굿이나 동제 등 마을 운영과 어촌문화를 전승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발생한 어촌의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벌임으로써 어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남해의 보석 물건마을(김창일·김철호, 국립민속박물관, 2013), 마을어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최치훈, 한국도서연구31-4, 한국도서(섬)학회, 2019), 별신굿의 경제적 기반과 전승주체의 변화(윤동환, 한국무속학25, 한국무속학회, 2012), 수협30년사(수협30년사편찬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2), 어촌계를 통해서 본 어촌 문화의 재발견(김희재, 동북아문화연구4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어촌 마을의 공유재산과 어촌계(박정석, 농촌사회11-2, 한국농촌사회학회, 2001), 어촌민속 전승에서의 어촌계 역할과 전승 양상(김정하, 한국민속학67, 한국민속학회, 2018), 어촌사회의 구조와 변동(김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울산 구유동 제전마을(김창일·변윤희, 국립민속박물관,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해양수산부(mof.go.kr).

필자 이중구(李重九)

어촌지도소 漁村指導所

정의 어촌지도 사업의 본격화와 새로운 수산 관련 기술 관리 및 보급을 위해 설립된 어민 지도 기관.

개관 어촌지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1981년 11월 대통령령에 따라 어촌지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수산물진흥원 수산연구소 소속으로 8개의 어촌지도소가 신설되었다. 어촌지도소가 처음으로 설치된 지역은 속초, 동해, 서산, 부안, 완도, 영일, 울릉, 남해 등 8곳이다. 이후 1980년대에 20개소에서 1990년대는 27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도소 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과 지도소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어촌지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5년에는 어촌지도소가 수산연구소에서 분리되어 국립수산물진흥원 직속 기관으로 독자적인 어촌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7년 5월 직제 개정에 따라 어촌지

도 조직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되었다. 2008년 새로운 정부 출범 시 국립수산물과학원 산하에 수산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어촌지도조직의 기능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현재는 수산기술사업소와 수산기술지원센터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내용 어촌지도 사업이 실시된 1960년대에는 어촌 지도원이 현지 읍·면 또는 지역별 수협에 주재하면서 지역의 어촌지도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도 체계가 미흡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981년 어촌지도소가 설치되고 관리가 일원화됨으로써 점차 체계적으로 어촌 지도사업이 진행되었다.

어촌지도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980년 이전에는 생산기술 지도, 기술 홍보 활동, 어업인 교육 등 일반적인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어촌지도소 설립 후에는 주요 양식 품종에 대한 지역 간의 비교 우위 확보와 국내 시장 및 수출 경쟁이 심화하여 주산단지의 조성 및 집중 관리 및 육성이 지도사업의 주요 사업이 되었다. 또한 어업인 경영지도 및 후계자 관리 등의 업무와 주요 양식 어장의 상습적인 재해 등에 대한 효율적인 양식 어장 관리 업무도 강조되었다.

생산기술 지도는 어촌지도 공무원이 현지 어장을 순회하면서 생산기술 지도를 하였고, 주요 양식 사업인 김·미역·굴·우렁챙이·전복 등의 양식 기술지도 및 인공 채묘採苗 기술지도를 본격화하였다. 연안 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예찰반豫察班을 편성하여 기술 지도선을 활용한 어장 환경 점검과 어장 관리 실태 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전담지도반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교육 및 어민 상담, 양식 기술 및 개량 어구어법 교육 등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교육 등도 실시하였고 어촌에 정착할 어민 후계자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썼다. 이외에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 기술지와 언론 등을 활용하여 양식 시기별 정보를 제공하고, 성과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였다.

특징 및 의의 어촌지도소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전 어촌에 광범위하게 보급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

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함께 경쟁력 있는 어촌 사회의 건설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어촌지도소는 어민과 어업 종사자에게 유통·소비·생산과 관련된 어가 소득증대 촉진 및 필요한 능력을 향상할 방안을 제시하고, 어민이 자발적으로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국립수산물진흥원 80년사(국립수산물진흥원, 2001), 어촌 지도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박성래·김정봉·이용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유리(權有利)

어탐선 魚探船

정의 어군魚群을 탐색하기 위해 어군탐지기, 소나sonar 등을 갖춘 어선.

내용 어탐선은 어군을 탐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조업할 때 그물배를 도와주는 보조선 또는 어군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하여 불을 밝히는 등선燈船(불 배) 역할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탐선은 어군을 탐색할 수 있는 어군탐지기(탐지 주파수가 달라 여러 대 보유)와 소나(탐지 주파수가 달라 여러 대 보유)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 탐지에 필요한 방향탐지기, 레이더, GPS 외에 무전기·수온계·팩시밀리 등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업은 배 한 척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탐선을 운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탐선을 별도로 운영하는 어업은 여러 척이 선단을 구성하여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어업과 고등어·전갱이 등을 잡는 근해선망어업이 있다.

기선권현망의 어탐선에는 선단을 총지휘하는 어로장이 탑승하여 어군을 탐색하고 그물을 투망하며 끄는 방향曳網方向을 지시하는 등 선단의 지휘부 역할을 한다. 선망에서는 조업을 총지휘하는 어로장이 그물배에 승

선하기 때문에 어탐선은 어군을 탐색하고 모으기 위하여 불을 밝히는 등선의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고등학교 해양생산기술-상·하(경상남도 교육청, 창원종합인쇄, 2011), 어업-상·하(부경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대한교과서, 2002), 기선권현망수협(anchovy-suhyup.co.kr), 대형선망수협(sunmang-suhyup.co.kr).

필자 신종근(辛鍾根)

어항 漁港

정의 항구 중에서 고기 잡는 배들이 정박, 어업 준비, 어획물 처리 등을 하는 항구.

개관 우리나라 어항은 1966년 3월 3일 수산청이 발족되고, 같은 해 10월 20일 수산청 내에 어항과가 신설되면서 정부에 의해 개발·관리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 5월 19일에 <어항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62개의 제1·3종항이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총 1,006개의 어항이 있는데 그중 국가어항은 2020년 12월 기준 113개, 지방어항은 286개, 어촌정주어항은 623개, 마을공동어항은 2개 등이다.

내용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 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고시되었다. 어항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어획물 양륙, 출어 준비(어구 준비, 급유, 급수, 어선 수리 등) 등을 하는 어업활동 지원기지이다. 둘째, 수산물 위판 및 판매와 출하, 냉동·냉장 등 수산물 보관, 수산물 가공 등 상품생산 및 수산물 유통기지이다. 셋째,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 시설로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및 정주 여건 조성, 어촌지역 경제의 중심지, 도서·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과 정보기지이다. 넷째,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바다낚시와 방파제 산책, 문화공연, 관광유람, 마리아 등 어촌·해양 관광의 중심지와 어촌의 문화·생활을 활용한 바다 체험 학습장소 등의 기능을 가진다.

〈어촌어항법〉에 명시된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 4종류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등 외딴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지방어항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을 지원하는 근거지가 되는 어항으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말하며,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마을공동어항은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이며,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어항은 수역 및 육역을 포함한다. 어항시설로는 기본시설·기능시설·어항편의시설 등이 있는데, 어항 구역은 이 같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을 포함한다. 어항 기본시설로는 방파제·방조제·수문·갑문·둑 등이 있으며, 기능시설로는 도로·주차장·항로표지·신호·조명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이 있다. 그 외 어선 건조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 야적장과 급수·급유, 전기수용시설 설비 등 보급시설이 포함된다.

특징 및 의의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치한 곳을 항구라 하며, 항구는 그 기능에 따라 군항·상항·어항·공업항 등으로 나눈다. 이중 어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FIPA)이 관리한다.

어항은 어선의 정박 공간, 어민의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인 어장을 연결한다. 따라서 어항은 어항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기술 고도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어항 공간의 도시 관광 방문자와 국외 방문자의 증가에 대비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과 2·3차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어항 특성에 맞는 기능 개발, 효율적인 이용, 관리방안 도출과 그에 맞는 꾸준한 법 개선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항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이승우·박상우·고민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漁港漁場漁村ポケットブック(全國漁港漁場協會,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한국어촌어항공단(fipa.or.kr), 해양수산부(mof.go.kr).

필자 명정구(明正求)

얼음낚

정의 물이 언 얼음에 구멍을 뚫기 위한 겨울철 어로 도구.

내용 얼음낚을 가리키는 호칭은 다양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쓰리’는 “겨울 낚시에서 잉어 따위의 고기를 낚기 위하여 얼음을 끄는 쇠꼬챙이”, ‘씨리’는 “배 주변에 엉기는 얼음을 깨는 데 쓰는, 도끼날을 단 장대”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산백과사전에는 ‘쓰레’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강변에서는 ‘쓰레’와 ‘씨레’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함경도 지역에서는 ‘씨리’라고 한다.

이러한 명칭의 혼용과 상관없이 얼음낚의 형태는 자루에 쇠로 된 날을 끼워서 만든 것으로, 그 기능은 쇠로 된 날로 얼음을 깨는 것이다. 얼음을 깨는 이유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얼음 밑으로 그물을 설치할 때는 그물이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을 충분히 넓게 뚫어 그물이 들어가고 나올 때 얼음에 걸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시작되는 지점과 나오는 지점 사이에는 5m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데, 이는 사람의 팔이 들어갈 정도면 된다.

낚시나 작살질을 위해서는 잡은 잉어를 꺼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뚫는 것이 좋다. 얼음구멍은 일반적으로 둥근 모양인데 한강에서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구멍을 뚫는다. 그것은 3대 정도의 삼봉낚시를 나란히 드리우기 위해서이다.

재료는 나무로 된 자루와 쇠로 된 날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동강과 한강의 얼음낚은 비슷한 모양이지만 날의 끝부분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대동강의 얼음낚은 날끝이 송곳처럼 뾰족하고, 한강의 얼음낚은 도끼날처럼 넓적한 모양이다. 그러나 도끼로는 얼음을 깨지 않는다. 도끼로 얼음을 깨기 위해서는 작업 내내 허리를 굽혀서 도끼질을 해야 하고, 도끼로 얼음을 깰 때는 얼음 파편이 주변으로 날린다. 또한 도끼의 날은 얼음을 깨기는 하지만 원하는 것보다 얼음이 더 많이 깨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구멍을 뚫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자루는 가운데 부분의 경우 손으로 잡기 알맞은 굵기이며, 한쪽에는 날이 달려 있고 다른 한쪽은 자루보다 더 굵다. 이 부분을 ‘박’이라고 한다. 박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얼음 위에 얹혀 놓았을 때 자루 부분이 얼음과 닿지 않게 한다. 자루가 얼음에 닿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가 얼음으로 파고들 수 있다. 또 얼음이 녹아 자루 부분이 젖을 수도 있다. 박은 이러한 현상을 예방한다. 둘째, 박은 얼음을 깰 때 얼음끝이 미끄러져서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얼음을 다 뚫었을 때 굵은 박이 없다면 내리는 동작의 관성에 의해 얼음끝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박이 손에 걸리게 된다. 셋째, 손목에 끈을 거는 역할을 한다.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얼음끝을 놓치게 될 수 있는데, 얼음 위에 미끄러지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멀리 미끄러졌을 때는 그것을 회수하려 이동하여야 한다. 이때를 위해 박에 줄을 묶고 그것을 손목에 걸고 작업을 한다.

이 외에도 부수적인 역할로 낚싯대를 걸쳐 놓기도 한다. 얼음구멍 앞에 얼음끝을 얹혀 놓고 그 위에 삼봉낚시의 밑부분을 걸쳐 놓으면 낚싯대가 얼음에 닿지 않는다. 낚싯대가 얼음과 접촉해 있으면 고기가 잡혔을 때 즉시 잡기가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얼어서 얼음

과 붙어 버릴 수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얼음끝은 물이 언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얼음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지금은 전기톱이나 전기드릴을 이용해 손쉽게 뚫을 수 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얼음낚시를 즐기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였다. 긴 자루의 아랫부분에 날이 달려 있어 허리를 굽혀서 작업해야 하는 도끼와 달리 서 있는 상태에서 얼음을 깰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자루보다 굵은 ‘박’이 있어 편의성도 갖추었다. 이러한 도구는 한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였지만, 전통시대의 어법이 단절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얼음끝은 사진이나 유물로만 남고, 세부명칭이나 각각의 쓰임새는 모두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佃漁志, 견지낚시(송우, 사초, 1993), 내수면 어구어법 도감(신종근 외, 국립수산물자원원 중앙내수면연구소, 2018), 양평군지(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한강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5), 한강 얼음낚시의 특성과 어로조직(편성철, 민속학연구40, 국립민속박물관, 2017), 두피디아(doopedia.co.kr),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편성철(片成哲)

얼음낚시

정의 물이 언 얼음에 구멍을 뚫고 고기를 잡는 낚시어로 행위.

내용 겨울이 되면 한강 이북의 하천은 물이 언다. 물이 언다고 하여 어느 곳에서도 얼음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럭이 올라가도 얼음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얼어야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다.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겨울이 추운 북반구 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로행위이다. 한강에서는 주로 삼봉낚시를 사용해 얼음낚시를 즐겼다. 특정 지역에는 얼음낚시와 관련한 계조직이 존재하여 낚시꾼들과 공존하였다. 이러한 계조직은 서울 마포에서는 1940년대까지 목격된 기



너비5 길이133



너비14 길이114

얼음끝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얼음낚시 | 1930년대 |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

0

얼매그물

록이 있으며, 서병원(남, 1934년생)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 나루마다 있었고 팔당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있었다. 그의 증언을 통해 20세기 후반까지 얼음낚시와 관련된 계조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물고기를 일정한 구역의 그물 안으로 몰아넣고 낚시꾼들은 해당 구역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낚시를 한다. 계조직의 명칭은 영좌계(領座契), 물이계, 머리계, 머리괴, 두계(頭契) 등으로 불린다. 양평 일대에서는 물이(모리)를 ‘머리’라고 발음을 하니, 두계는 ‘머리계’를 그 의미와 상관없이 발음만 듣고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다. 즉 실제 조직의 명칭은 영좌계와 물이계가 사용된 것이다. 얼음 아래로 그물을 치고 막대나 나무 밑동으로 만든 물이토막으로 얼음을 두들겨 그물 안으로 물고기를 몰고 들어간다.

한강 여러 곳에서 조사되지만 팔당 인근 물이계는 그물을 치는 장소가 열두 곳이 있어서 ‘열두바탕’이라고 불렸다. 낚시꾼들은 열두 곳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물을 설치하였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양덕리에도 얼음낚시 장소가 한 곳이 있었으며, 이곳은 ‘물판’이라 불렸다.

열두바탕이나 물판에 입장한 낚시꾼들은 얼음에 구멍을 뚫고 낚시를 내린다. 삼봉낚시를 여러 대 사용하기 때문에 얼음구멍을 가로가 긴 직사각형으로 뚫는다. 낚싯대를 하나만 사용한다면 구멍을 작게 뚫어도 된다. 삼봉낚시는 잉어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잉어가 낚싯줄을 건드리고 갈 때 낚아채서 잡는다.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둔해져 훑치기로

낚아채기가 용이하다.

때로는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있는 곳에 바늘을 옮겨놓기도 한다. 오랫동안 입질이 없을 때는 ‘가늌손대’라는 도구를 이용해 바늘을 원하는 장소로 옮긴다. 잉어가 지나갈 만한 장소나 물고기가 몰려 있는 곳으로 옮긴다. 가늌손대는 장대 끝에 철사로 고리를 만들어 낚싯줄을 걸고 뺄 수 있도록 만든 도구이다.

특징 및 의의 물이 얼어붙는 한겨울에도 낚시꾼들은 낚시를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농경사회에서 낚시는 농한기의 주요 소일거리이며, 때에 따라서는 마을의 겨울철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물이 언 한강에서 하는 삼봉낚시는 구한말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광경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외국인들이 남긴 기행문이나 사진으로 그때 모습이 전해지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인쇄된 ‘조선풍속첩서’에도 여러 편이 남아 있다.

한강의 얼음낚시는 물이계라는 공동체와 낚시꾼이라는 개인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던 관행이 있었다. 현재도 얼음낚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물이계는 찾아볼 수 없고, 지자체에서 얼음낚시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 얼음낚시 장비들은 현대화되면서 20세기 후반까지 볼 수 있었던 도구들은 개인 소장품이나 박물관의 유물로만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佃漁志, 양평군지(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한강사(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1985), 한강 얼음낚시의 특성과 어로조직(편성철, 민속학연구40, 국립민속박물관, 2017),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현지조사자료(강우규, 경기 일산, 2020.2.4; 서병원, 경기 일산, 2020.2.4; 손낙기, 경기 하남, 2004.4.28.).

필자 편성철(片成哲)

얼매그물

정의 흘그물 혹은 2중 이상의 긴 띠 모양으로 만든 그물을 어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부설하여 대상 생물이 그물에 얽히도록 하여 어획하는 어구.

내용 엽애그물은 형태적으로 볼 때는 자망의 걸그물류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어획기작으로 보면 걸그물에는 어류가 그물코에 걸리거나 꽃혀서 어획되는 반면 엽애그물에는 엽혀서 어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어획기작의 차이는 어구를 구성하는 그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엽애그물은 그물을 부착하는 뜰줄과 발줄에 그물의 길이를 걸그물보다 길게 달아서 움살이 많이 생기게 하거나, 그물을 두 장 이상 달아서 대상어가 그물에 걸리거나 꽃혀서 어획되기보다 엽혀서 어획되도록 어구를 구성한다. 그물코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물을 사용할 때는 그물감의 길이보다 짧은 줄에 그물감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줄의 길이에 대한 그물감을 뺀 긴 길이로 성형률을 나타내는데, 자망의 경우 성형률을 작게 어구를 구성하면 그물의 주름이 많아져 움살이 생기면서 대상 어류를 엽히게 해서 어획할 수 있다.

엽애그물은 그물코에 꽃히기 어려운 형태의 어류인 ‘체형이 납작하거나 몸에 돌기가 많은 어류’를 대상으로 한 장의 그물에 성형률을 작게 하여 그물에 주름을 많이 줌으로써 대상 어류가 엽혀서 어획되도록 한다.

엽애그물은 그물의 수에 따라 홀엽애그물·이중엽애그물·삼중엽애그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그물을

뺨침대를 사용하여 엽애그물이 주머니 모양이 되도록 어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주머니엽애그물이라고 일컫는다. 주머니엽애그물은 어획 원리가 입구일정 어구류와 유사하지만, 어구의 구조와 조업방법 등이 엽애그물과 더욱 유사하므로 엽애그물류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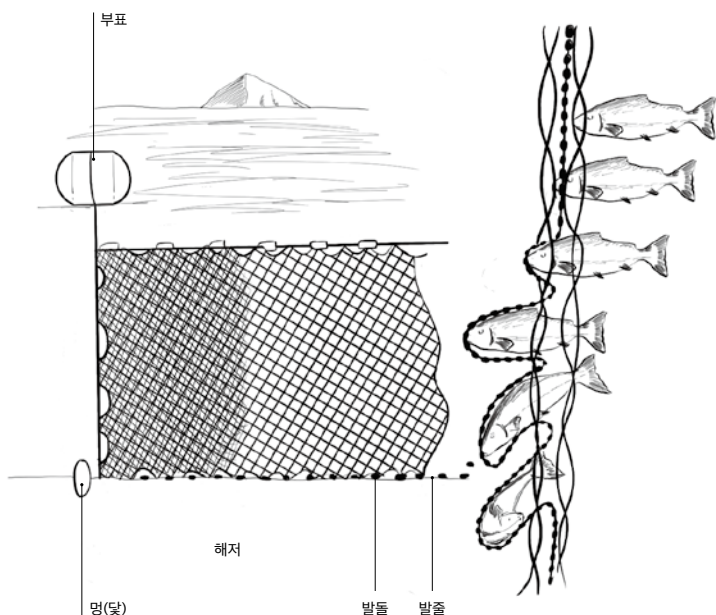
주머니엽애그물의 널리 사용된 것은 약 20년 전부터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정망(碁網)이라는 어구가 설명되어 있는데, 어구의 형태와 운영에 대해서 “천만 형태의 그물을 해저에 병풍처럼 세우고 닻을 고정한 것으로, 종래 전라도·충청도 지방에서 주로 조기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민어·붕장어·달강어 등을 혼획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어구의 구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업방법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망과 일치한다.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 닻으로 어구를 고정하고 일반 자망과 달리 뜰과 발돌이 부착되지 않은 뜰줄과 발줄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물을 수직으로 전개하는 뺨침대를 두고 그 뺨침대 사이에 주머니가 형성되도록 약 30%의 성형률로 그물을 부착한다. 어구를 수직으로 부설하기 위해 현재에는 뺨침대에 대형의 뜰을 다는데, 과거에는 주로 유리로 된 뜰을 이용하였다. 이어업은 주로 조류가 강한 서해안에서 수행되는데, 대상 어류의 서식 수심에 조류의 방향에 직각으로 어구를 부설한다. 어구의 부설은 먼저 뺨침대·뜰줄·발줄 등을 설치하고, 뜰줄과 발줄에 대상 어류를 잡기 적당한 그물코의 그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망은 어선에 그물을 수평으로 올려 어선이 그물 밑으로 들어가면 그물이 어선을 가로지르는 형식으로 지나면서 뺨침대와 뺨침대 사이의 주머니에서 어획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징 및 의의 주로 사용하는 엽애그물로는 가오리 저자망(底刺網), 가자미 저자망, 대게 저자망, 꽃게 저자망 등이 있다. 또 주머니엽애그물로 꽃게 주머니엽애그물, 병어 주머니엽애그물, 젓새우 주머니그물, 꽃새우 주머니그물, 참게 주머니엽애그물 등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필자 조삼광(趙三光)



엽애그물 | 국립수산과학원

여수수산물시장

麗水水産市場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에 있는 수산물 전문 시장.

내용 여수수산물시장은 1968년에 현 위치인 여수시 교동 여객선터미널길 24(교동 680번지)에서 개장한, 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다. 당시에는 ‘남산 품물시장’이라 불렸으며, 연등천 주변에 자리한 상설 시장이었다. 1986년에 지금의 자리에 시장 건물이 들어섰으며,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먹거리장터로도 유명하다.

여수수산물시장 주변으로는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과 교동시장, 서시장,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은 1982년 여수항과 인근 도서 지방의 여객 그리고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교동시장은 인근 여수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해 상인과 소비자가 모여들면서 1965년에 개설된 상설시장이다. 서시장은 연등천을 사이에 두고 교동시장과 마주한 전통시장으로, 수산물·농산물·의류·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4와 9로 끝나는 날에는 5일장이 열린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2004년 여수 남산동 바닷가에 현대화된 시설로 들어선 시장이다.

1984년 12월 전남 여수시 남산동과 돌산읍 우두리를 연결하는 돌산대교가 준공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돌산공원 개발 방법의 하나로 1986년 교동시장 인근에 수산물시장을 건립하였다. 이것이 지금의 여수수산물시장 건물이다.

이후 2002년 수산물특화시장 육성시책에 따라 여수시는 넓고 협소한 교동 수산물시장을 인근 여수수협 소유 부지 및 국유지로 확장·이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수시가 93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 교동시장을 매입하여 시민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여수수산물시장 주주 128명 중 56명이 추가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주를 반대하였다. 이들은 2003년 여수시를 향의 방문하여 ‘현 교동수산물시장을 유지한 채 신규 시장 건립 추진’과 ‘현 교동시장 부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하였다.

2004년 수산물시장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 측에서는 교동시장 내에서 활어를 판매할 상인 30여 명을 모집하였다. 반면 수산물시장 이전을 찬성하는 상인 측에서는 1차로 자신들이 매입한 남산동 일대에 2004년 가설시장을 열어 활어 상인을 중심으로 가게를 이전한 후 여수종합수산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하수도 시설 미비로 인근 해역에 오수를 방류하던 여수종합수산물시장은 2004년 하수도 관로를 새로 설치하였다. 또한 여수종합수산물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 개설 등 주변 환경 개선사업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남산교~여수종합수산물시장 구간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폭 15m의 4차선 차도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29일 정식으로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이 개장되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3층 건물의 수산물 전용 시장으로 1층 점포에서 횡감을 구매해 2층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다.

여수시는 (주)여수수산물시장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시장 이전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동시장, 여수수산물시장,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이 공존하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여수수산물시장은 1968년 전남 여수시 교동에 개장한 수산물 중심의 전통시장이다. 총 부지 면적은 1,537㎡이다. 이곳에는 2009년부터 400m 수중에 해수관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살균과 정화 과정을 거친 청정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여수수산물시장 | 전남 여수 | 2021 | 국립민속박물관



여수수산시장 | 전남 여수 | 2021 | 국립민속박물관

마무리하여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났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사람들이 드문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근에서 잠을 자던 상인들도 화재 발생 직후 긴급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120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전소되어 소방서 추산 약 5억 원의 피해를 봤다. 다행스럽게도 6개월 후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재개장하였다. 현재는 활어·선어·건어·조개류·건어물 등 수산물 외에도 젓갈·김치·채소 등을 판매한다. 1층에서 횡감을 구매해 2층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여수시사(여수시사편찬위원회, 2010), 디지털여수문화대전(yeosu.grandculture.net/yeosu), 여수시청(yeosu.go.kr).

필자 박종오(朴宗吾)

여울견지

정의 강江이나 천川의 여울에서 외작 얼레인 견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낚시의 한 종류.

개관 전통낚시의 하나인 여울견지는 어로 장소인 ‘여울’과 어로 도구인 ‘견지’가 결합하여 생겨난 말이다. 일반적으로 낚시는 물이 깊은 곳에서 하는데, 여울견지는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에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대나무와 같은 탄력

이 있는 나무로 만든 납작한 외작 얼레, 즉 견지를 사용한다. 여울견지는 연鳶을 하늘에 날리듯이 견지로 물이 흐르는 여울에 낚싯줄을 감았다가 늦췄다가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여울견지는 흘리는 낚시라는 의미에서 ‘유조流釣’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우리나라 강 상류 지역은 구불구불한 골짜기로 물이 흐르는 감입곡류하천(嵌入曲流河川)이 발달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천이 곡류하면 물의 공격을 받는 사면斜面에는 깊은 소溜가 형성되지만 이후 일정한 장소에 이르면 퇴적물이 하천에 퇴적하여 상대적으로 수심이 얇고 물살이 빠른 지역이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 중에서 바닥이 굽은 자갈돌로 형성된 지역을 여울이라 한다. 낚시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여울에서 견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를 여울견지라 한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의 어조漁釣—조작釣簍—유조법流釣法에서는 여울견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낚시(釣)의 이름인데, 종류는 동일하지 않다. 대체로 낚시는 물이 돌아나가는 못의 깊은 곳에서 한다. 그러나 오직 이 낚시는 여울(淺灘)에서 하는데,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므로 이름이 유조流釣이다. 釣之名, 品不一. 大率用之於水涯淵深處. 惟此釣用之淺灘, 隨流而求魚, 故名流釣.”

전어지에 의하면 견지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길이는 8~9촌(약 26~30cm)이고, 너비는 5촌(약 16~17cm)이며, 가운데에 장대를 끼워 자루를 만든다. 其法, 剖竹作小方匡, 長八九寸, 廣五寸, 中貫一竿爲柄. 낚싯줄을 견지의 한쪽 끝에 매어 손으로 견지의 자루를 잡고 돌리면 낚싯줄이 스스로 얼레(匡)에 감기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얼레로 실을 감는 것과 같다. 繫緝一端于匡, 手執柄旋轉, 則緝自收絡于匡, 如篋之收絲也. 낚싯줄은 30여 척(약 9m)인데 끝에 낚싯바늘(針鉤)을 달고, 위에 콩만 한 납환을 달며, 그 위에 몇 마디쯤 되는 거리에 한 마디 정도의 물억새 줄기를 단다. 緝長三十餘尺, 末繫針鉤, 上懸豆大鉛丸, 丸上進數寸繫荻梗寸許. 미끼는 지렁이(蚯蚓) 혹은 물 밑의 돌에 붙어 있는 청충(靑蟲)을 쓴다. 以蚯蚓或水底附石靑蟲爲餌.



군돌목 여울 | 강원 영월 | 2018 | 국립민속박물관



남한강 여울 | 강원 영월 | 2019 | 국립민속박물관

한편 견지낙지도 여울견지와 마찬가지로 ‘견지’라는 낚시대를 사용하지만, 겨울철 저수지나 호수의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여울견지와는 구분된다.

특징 및 의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 중에서 낚시바늘(鉤)을 이용하는 것을 낚시라 한다. 따라서 여울견지도 낚시바늘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낚시의 한 종류이다. 여울견지는 물살이 빠르고 얇은 여울에서 견지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낚시를 드리우고 물고기가 미끼를 먹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견지를 이용해서 낚시줄을 당겼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해야 고기를 낚을 수 있다. 요즘도 흔하지는 않지만, 대나무로 만든 견지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견지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林圖經濟志, 한강수로와 어로문화(국립민속박물관, 2018),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우승하(禹承河)

여지도서 輿地圖書

정의 18세기 중엽 조선 후기 영조 때 각 고을의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지리지.

내용 55책의 필사본으로, 295개 읍지邑誌,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지鎭誌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한 편찬 연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1757~1765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행정구역을 감안하면 읍지를 기준으로 한성부와 개성부 등 전국 39개 읍지가 누락되었으나 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 등에는 누락된 고을이 없다.

내용으로는 30여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강역疆域·방리坊里·도로道路·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형승形勝·성지城池·관직官職·산천山川·성씨姓氏·풍속風俗·능침陵寢·단묘壇廟·공해公廨·제언堤堰·창고倉庫·물산물産·교량橋梁·역원驛院·목장牧場·관애關陬·봉수烽燧·누정樓亭·사찰寺刹·고적古跡·진보鎭堡·인물人物·한전旱田·진공進貢·조적糶糴·전세田稅·대동大同·봉름俸廩·군병軍兵 등의 순서로 비교적 일률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없는 항목도 있다.

어업과 관련한 내용은 항목에 따라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주로 물산 항목에서 각종 수산물이 소개되어 있다. 내륙은 민물고기, 바닷가는 바닷물고기를 포함한 해산물이 소개되어 있다. 일례로 강원도의 내륙인 원주原州·춘천春川·정선旌善·영월寧越·평창平昌 등에서는 모두 누치·열목어·쏘가리 등이 공통적으로 물산 항목에 등장한다. 바닷가인 삼척은 문어·방어·연어·송어·대구·숭어·황어·고등어·넙치 등의 물고기가 김·미역·전복·홍합 등의 해산물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진공 항목에는 물산 항목에 소개된 물종 중 서울로 올리는 중요한 것을 소개하였다. 정선과 평창에서는 열목어가 진공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해산물의 경우 물산 항목에 물종 자체가 소개되어 있는 반면 진공 항목에는 가공 여부가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삼척의 물산 항목에는 문어와 대구로, 진공 항목에는 말린 문어와 날 문어 그리고 반쯤 말린 대구와 말린 대구 등으로 나타난다. 충청도 은진의 진공 항목에는 말린 송어, 굴비,

웅어 식해 등이 보인다. 경상도 지역의 물산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항목을 소개한 뒤 현재 생산 여부를 밝힌 점이 특이하다. 이를테면 경상도 창원부昌原府의 경우 “오징어·대구·낙지·붕어는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청어·황어·홍어·송어·조기·웅어 등은 따로 표시하지 않아 『여지도서』 단계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속 항목에서는 주로 바닷가 고을의 어업과 관련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강원도 고성군高城郡의 “농사에 힘쓰며 고기잡이를 잘한다.”, 통천군通川郡의 “물고기를 잡고 소금을 만들어 이를 팔아 생활한다.”, 경기도 남양부南陽府와 인천부仁川府의 “고기잡이와 소금을 구워 이익을 취하고 농사와 길쌈에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 적다.”, 전라도 진도군珍島郡의 “백성들은 고기와 소금에 의존하며, 농사에는 그다지 힘쓰지 않는다.”, 황해도 연안부延安府의 “바다에 잇닿은 지역의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굽는 일을 제멋대로 한다.” 등이 그것이다.

간혹 형승形勝 항목에서도 어업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기도 한다. 강도부江都府, 즉 강화江華의 형승 항목에서는 “소금을 굽고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여 또한 그 이익을 한껏 취한다.”라는 내용이, 평안도 순천군順川郡은 “여기저기 고기잡이배가 떠 있고, 굽이굽이마다 낚시터가 자리 잡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의 편찬은 조선 전기에 간행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방 통치에 널리 활용되고 있던 『신증동국여

지승람』을 조선 후기 실상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체제는 대체로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가깝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누락된 호구戶口·전결田結·부세負稅·군병軍兵 등 국가의 통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와 군사 관련 조항이 『여지도서』에는 개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지도서』는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73년 축소·영인하여 상하 2책으로 간행하였다. 영인본에서는 누락된 읍지 39개와 영지 6개의 지리지를 보유편補遺編으로 추가하였는데, 『여지도서』 원본과 시기·형식·내용이 다른 읍지가 많다. 2009년 흐름출판사에서 영인본을 바탕으로 국역본 50책을 간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여지도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圖와 서書의 결합이라는 점이 형식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읍지의 첫머리에 고을별 채색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관찬官撰으로는 첫 전국적인 지리지인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항목에서는 물론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같은 항목이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물산’ 조항을 예로 들면 『여지도서』 물산 조항에 나타난 토산물의 30%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또한 『여



강도부지

여지도서 | 한국교회사연구소·한국민족문화대백과



풍덕부지

지도서』의 물산 조항은 대동법 실시 이후 중앙 정부에서 진상 물자를 책정하여 궁중에 상납하게 할 때 책정 기준으로 삼았던 토산물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료적 성격에서도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성씨’ 조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와 충청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일치한다. 200여 년 동안 거주민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지역은 『여지도서』 편찬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 어렵다. 경상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평안도·함경도·전라도 등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형식과 무관하게 당시 살고 있던 거주민을 대상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사이에 광범위한 본관의 개정, 즉 개관改貫이 이뤄졌음을 확인케 해주는 대목이다.

전국적인 관찬 지리지의 편찬과 간행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여지도서』는 공식적인 간행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현존하는 『여지도서』에는 누락된 고을이 많고 지역별로 수록 기준과 내용에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미완의 전국 지리지로 남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지도서』는 18세기 중엽이라는 특정 시기에 그 나름대로 기준으로 전국 313개 관부官府의 지리지를 수합함으로써 조선 후기 지방 사회 실상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여지도서(국사편찬위원회, 1973),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 연구(서종태, 한국사학보25, 고려사학회, 2006), 여지도서의 성격과 도별 특성(변주승, 한국사학보25, 고려사학회, 2006), 여지도서 성씨조의 검토(김우철, 한국사학보25, 고려사학회, 2006),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우철(金友哲)

연안부두어시장

沿岸埠頭魚市場

정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번지에 있는 인천 최대의 수산물 유통시장.



인천중앙어시장 | 인천 중구 | 2021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인천어시장은 1898년에 일본인 이나다 가쓰히코 稲田勝彦가 청국거류지 경계에서 개설한 어시장이 효시이다. 그러나 어시장은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1900년에 인천공동어시장이 설립되어 해안정2정목(현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해안동2가)에 문을 열었다. 인천공동어시장은 경인철도의 개설과 러일전쟁에 따른 호경기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1906년 본정2정목(현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에 새로운 어시장(동흥 어시장이라고 불렀고, 기존의 어시장은 서씨 어시장이라고 불렀음)이 개설되며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후 두 어시장은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합병 논의가 불거졌고, 결국 1907년 10월 29일 자본금 30만 원으로 설립된 인천수산주식회사로 통합되었다.

한편 개항기 인천에는 일본인 어시장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경영하는 어시장도 있었다. 1899년에 자본금 2,680원으로 설립된 인천항어상회사의 어시장이다. 당시 조선인이 설립한 유일한 어시장으로, 설립 초 사장은 김덕흥金德興이었다. 인천항어상회사는 1911년 조합원 총 52명의 어상조합으로 변경하였다. 1913년에 발간된 『인천항상공업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판매액은 800원인데 이중 절반은 인천수산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조선인 어업자에게서 구입한다고 하였다. 송어, 조기, 새우, 게 등 조선인이 좋아하는 어류를 주로 판매하였다.

인천 어상들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마포객주 출신의 정흥택鄭興澤이었다. 정흥택은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여 러일전쟁 이후 인천의 어류 유통망을 장악하였



인천중합어시장 | 인천 중구 | 2021 | 국립민속박물관

다. 신포동 41번지에 있는 정홍택의 생선전生鮮廐은 오늘날 신포시장이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인이 설립한 인천수산주식회사는 1936년 경기도어업조합 인천지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현재 인천수협(수협)의 전신이 되었다.

기존에 인천항 8부두 자리에 있던 인천수산시장이 새로 매립된 연안부두로 이전하여 1981년 현재의 연안부두어시장으로 건립되었다. 1만 1,574㎡의 대지에 세워진 3층 건물로서 매장 면적은 7,632㎡, 점포 수는 500개, 점포당 면적은 15.27㎡이다. 지하층은 회센터, 1층은 점포, 2~3층은 가정집과 횡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활어·건어물·조개·꽃게·젓갈류 등 400여 종의 수산물을 취급하며, 인천시 전역은 물론 수도권 서부 및 중부 내륙권을 상권으로 하는 초광역권형 수산물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특징 및 의의 연안부두어시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1,000억 원대에 달하며 인근 수산물도매업체의 매출까지 합하면 5,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꽃게 철에만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아울러 인근의 밀집한 횡집 등과 연계되어 소래어시장과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매년 10월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안부두축제가 열린다.

참고문헌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이영학, 역사와 현실18, 역사비평사, 1995), 인천의 길과 시장(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6), 仁川府史(仁川府, 1933).

필자 류창호(柳暢浩)

정의 동해안 연안의 하천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경 산란과 수정을 위해 회귀하는 연어를 포획하는 것.

내용 연어는 청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국내 연어는 침연어chum salmon의 한 종류로, 몸은 원통형이고 머리는 원추형이다. 연어는 모천회귀성母川回歸性이 있어 반드시 부화하여 자라던 하천으로 돌아온다. 하천에서 부화한 연어는 6cm 정도로 자라면 바다로 내려가고, 3~5년 뒤에 모천母川으로 되돌아와 산란한다. 산란기는 9월에서 11월이며, 산란 후에는 생을 마감한다.

강원도 삼척 오십천과 마읍천, 강릉 남대천, 양양 남대천, 경상북도 울진 왕피천 등 동해안으로 향하는 큰 하천에서는 매년 10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부화하였던 연어들이 산란과 수정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강의 중상류로 갈수록 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모래와 자갈이 폭넓게 분포하는 곳이 많아서 연어가 알을 낳고 보호하기 좋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강원도 지역과 관련한 각종 지리지를 보면 동해안 전 지역에서 연어를 특산물로 공납한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강릉 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사례에는 ‘하등夏等에는 건련어乾鱈魚, 추등秋等에는 생연어生鱈魚, 동등冬等에는 염련어鹽鱈魚’라고 하여 연어를 진상한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가을에 연어가 동해안 지역의 하천으로 올라왔음을 알 수 있다.

연어의 모천회귀성을 이용한 연어잡이는 주로 10월에서 11월에 이루어진다. 산란철에 맞춰 연어가 올라오면 강 주변 주민들은 포획틀·그물·통발·작살·낙시 등을 이용하여 연어를 잡는다. 예전에는 회귀하는 연어의 수가 매우 많아서 낙시나 작살·그물 외에도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였다. 1890년대에는 두만강 유역을 비롯하여 함경도 지역에서 연어를 잡기 위해 어망을 설치하거나, 작살·몽둥이 등을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전한다.

1960년대에 내수면어업을 중시하면서부터는 지방

자치단체 단위에서 연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치어稚魚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의 하천별로 조직화되어 있는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연어가 올라오는 기간에 강을 가로지르는 그물을 설치하여 연어를 포획하고, 알을 수정·배양하여 다음 해에 어린 연어를 강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강에서 연어를 포획할 수 있다. 다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연어를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낚시로 잡는 것은 법으로 제한하지 않아 일반인들도 연어잡이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삼척시 미로면 오십천·마읍천에서는 전통 어구인 ‘오리’를 이용해 연어를 잡았다. 오리는 철사 2줄 끝을 날카롭게 갈아서 만든 것이다. 오리를 장착한 나무판에 작은 돌을 올려 낚시터에 고정한다. 이 장치 위로 연어가 지나갈 때 낚아채면 연어가 오리에 걸려 잡힌다. 이후에는 낚시 도구가 발달함에 따라 낚시 3개를 묶은 삼봉낚시로 연어를 잡았다. 연어가 잘 지나가



오십천 연어포획틀 | 강원 삼척 | 2019 | 김도현



연어 포획 | 강원 삼척 | 2019 | 김도현

는 곳에 삼봉을 늘어뜨려 놓고 연어가 지나갈 때 낚아채어 잡는 것으로 일종의 ‘홀치기낚시’이다. 지금은 하류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중류까지 올라오는 연어가 거의 없어 이 방법으로 연어를 잡는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경북 울진 왕피천에서 연어를 잡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통발잡이’이다. 이곳 주민들은 예로부터 통발을 놓는 유명한 여울목을 ‘연어잡이터’라고 부르는데, 처서處暑가 다가오면 연어잡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통발계’를 조직하였다. 통발계는 통발 설치 재료 준비부터 설치까지의 과정을 함께한다. 이들은 먼저 말뚝으로 사용할 자재와 싸리나무 그리고 새끼줄을 준비한다. 이후 연어가 지나가는 여울목에 준비한 자재로 말뚝을 박고, 싸리나무로 발을 엮은 뒤 여울목에 건너 쳐서 통발 울타리를 설치한다. 다음에는 연어가 들어갈 입구를 내고, 기본발에 잇댄 덧발로 울타리를 돌려 쳐서 원통발을 만들어 연어 통발 설치를 끝낸다. 일단 입구로 들어간 연어는 원통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힌다. 보통 연어의 한 무리가 15~20마리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적어도 2~3무리가 통발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연어 통발 계원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동이 트면 원통발 안에 든 고기를 작살로 찍어 잡았다.

둘째는 ‘작살잡이’이다. 주로 달밤에 여울목을 지키다가 연어 떼를 발견하면 작살로 잡는 방법으로, 연어잡이에 이용된 작살은 삼지창이다.

셋째는 ‘그물잡이’이다.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목에 장벽그물을 설치하여 연어를 유도한 다음 그물에 걸린 연어를 포획하는 방법이다. 동해안에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강릉의 연곡천, 동해의 전천, 삼척의 오십천 등에서도 행해진다.

특징 및 의의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여 일정 크기로 자라면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모천으로 회귀하는 대표 어종이다. 바다에서도 중요한 어획물이지만,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어족자원이다. 매년 10월에서 11월 중 연어가 올라오면 강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포획틀·그물·통발·작살·낚시를 이용하여 연어를 잡아서 반찬 또는 제수용으로 유

용하게 활용하였다. 연어썸, 연어구이, 염장된 연어알 등을 만들어 밥상을 풍요롭게 한 것이다. 또한 늦은 가을 강에서 잡는 연어는 취미 활동으로도 인식되었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삼척군지(삼척군편집위원회, 삼척군, 1984), 삼척지역 내수면 어업 민속 고찰(김도현, 박물관지27,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21),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경상도 지역(한국예술종합학교 아태전통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9).

필자 김도현(金道賢)

연평도 조기어장

정의 흑산어장, 칠산어장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조기 어장 중 하나.

개관 조기는 양쯔강 동중국해의 모래펄에서 겨울을 난 후 북상을 한다. 북상하는 조기를 따라서 조기잡이 어선도 뒤를 따른다. 조도어장(2월)―흑산어장(2~3월)―칠산어장(4월)―격렬비열도의 녹도어장(죽도어장, 4월)―연평어장(4~5월)―평안도 남포의 대화어장(6~7월) 순으로 북상한다. 대화어장을 거쳐서 발해만과 압록강 하구까지 올라간 조기는 다시 왔던 경로를 따라 동중국해로 내려가서 월동한다. 북상할 때 산란을 하므로 한 지역에서 1~2개월간 어획을 할 수 있지만 남하할 때는 특정 해역에 머무르지 않고 곧장 이동한다.

내용 조기의 북상을 따라 상륙한 조기잡이 어선은 연평도 해안을 가득 메운다. 조기잡이 시기 연평도 조기어장에 어선과 상고선商賣船(장사할 물건을 싣고 다니는 그리 크지 않은 배) 등이 많을 때는 4,000~5,000척에 달한다. 조기를 잡는 배와 조기를 육지로 수송하기 위한 상선 간에 바다 위에서 조기가 거래되는 파시波市가 형성된다. 어선과 상선의 선원이 수만 명이었고, 이들을 따라다니는 상인과 작부는 수천 명이다. ‘돈 실러가세 돈 실러가세/ 연평바다로 돈 실러가세’라는 노래 구절은 연평도 조기어장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작



조기 어선 | 인천 웅진 | 1965 | 국가기록원

은 섬에 수많은 선원과 상인이 모여들며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술과 옷을 파는 각종 유흥시설 등이 일시적으로 모여든 파시촌을 형성한다.

광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봄철 조기잡이로 천문학적인 어획고를 올렸다. 광복과 함께 38선이 그어지면서 조기잡이 어장이 축소되었다. 연평도 조기어장이 반으로 나뉘어 어획고가 줄었고, 평양과 개성 등 굴비의 주요 소비처까지 잃었다. 그럼에도 1960년대 후반까지 연평도 조기어장은 조기잡이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다. 1968년 5월 26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기 파시는 열리지 않았다. 조기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서해와 연평도(나승만 외, 민속원, 2011), 조기의 섬에서 꽃게의 섬으로 연평도(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2018).

필자 김창일(金昌一)

염도계

鹽度計

정의 용액 속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도구.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바닷물로 소금을 만든다. 바닷물의 염도는 2~3도인데 제염 과정에서 염도를 측정할 때 염도계鹽度計를 사용한다. 소금을 만드는 방법에는 전통



염도계(뽀메) | 전북 부안 | 2010 | 이혜연

0

염막

제염법인 자염 제염법이 있고, 자염에 이은 천일염 제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염법은 바닷물을 농축하거나 증발해서 소금을 만드는 것으로 어느 제염법이든 염도계가 필요하다.

제염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도계는 뽀메, 달걀, 대름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뽀메는 프랑스 화학자 보메Baumé, A.(1728~1804)가 고안한 액체의 비중을 측정하는 비중계이다. 고안자의 이름을 따서 ‘보메 비중계’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구진마을에서는 이를 줄여서 주로 뽀메라고 부른다. 뽀메는 주로 자염(구진마을에서는 ‘육염’이라고 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도계로 사용되었다.

구진마을에서 사용하던 뽀메는 0~40도의 염도를 측정하는 긴 막대형 유리제품이다. 나무관에 소금물과 뽀메를 넣으면 나무관 위로 올라온 뽀메의 눈금이 염도를 나타낸다. 염도가 높을수록 뽀메가 위로 올라온다. 자염 생산 과정에서 농축된 소금을 보관하는 ‘염수통’의 염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였으며 천일염전에서는 반장이 증발지와 결정지의 염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였다.

둘째, 가정집에서 장을 담그거나 소금물 농도를 측정할 때 전통적으로 달걀이 쓰였다. 달걀을 소금물에 띄워 염도를 측정한 것이다. 구진마을에서도 뽀메를 사용하기 전에는 달걀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달걀이 염도를 측정하는 염도계로 이용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태안 지역에서는 자염을 만

들 때 간통에 모인 농축된 소금물의 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름을 사용하였다. 대름은 송진으로 동그랗게 만든 덩어리를 나무자루에 이은 줄 끝에 매달아 만든 것이다. 송진 덩어리가 뜰락 말락 할 정도가 되어야 염도가 적당하다. 이처럼 대름이 소금물에서 뜨는 정도로 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대름 보기’라고 한다.

참고문헌 태안의 자염 생산기술과 생산도구(이혜연, 섬과 바다의 민속연구 그 행로와 전망, 민속원, 2019), 한국서민생활사의 전개(이혜연, 민속원, 2014), 네이버지식백과(terms.naver.com).

필자 이혜연(李惠燕)

염막 鹽幕

정의 소금가마를 걸어 놓고 채합採鹹 작업으로 모은 함수를 끓여 소금을 결정하는 곳.

내용 염막은 자염의 생산 과정에서 전오煎熬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사리 때도 물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 염막의 규모는 일정치 않으나 보통 10~20평이고 흙과 돌로 겹겹이 쌓아 원형의 벽을 만든 후 초가지붕을 올린 매우 간단한 건축물이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짚이나 갈대, 띠 등을 엮어서 만들기도 한다.

염막 가운데에는 소금가마가 있고, 가마 아래에 아궁이[竈]가 있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는 통로를 따



염막 | 전북 고창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라 뒤쪽의 굴뚝으로 나간다. 아예 굴뚝 없이 지붕 위에 사방 1칸의 구멍을 뚫기도 하나 이런 경우 비가 올 때는 작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 아궁이는 땅을 정방형으로 파낸 뒤 점토와 석회, 돌을 혼합하여 만든다. 가마 아래와 접하는 부위 4곳에 구멍을 뚫어 불길이 여러 곳으로 퍼지게 하였고, 분구焚口(아궁이)보다 아궁이 바닥을 낮게 하여 공기의 지나친 공급을 방지하였다. 염막 한쪽에는 함수鹹水(염분이 들어 있는 물)를 저장하는 함수류鹹水溜를 설치하였고, 다른 한쪽에는 결정염을 일정 기간 보관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출장居出場을 두었다.

특징 및 의의 염막은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정기적으로 수선이 필요하기에 염막 주인에게 세를 얻거나 공동으로 경영한다. 세를 든 경우 염막 주인이 먼저 굽고 난 후에 순서를 기다려 굽는다. 이때 들어가는 연료는 각자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소금과 새우젓(윤형숙 외, 민속원, 2010),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 민속(유승훈, 민속원, 2008), 韓國水産誌1(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 韓國鹽業調査報告(臨時財源調査局, 度支部, 1908).

필자 류창호(柳暢浩)

염바가지

정의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에서 짬물을 더할 때 이용하는 도구.

내용 천일염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전의 기본적인 구조는 증발지, 결정지, 저수지, 함수지, 소금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염도 2~3도의 바닷물을 증발지에서 수분을 증발하여 단계적으로 염도를 올려서 결정지에서 염도 25~28도가 되면 소금을 낸다.

천일염전 염판의 바닥재는 토판土版, 웅편甕片, 타일, 장판 등으로 변천하였다. 토판 바닥은 갯벌의 흙을 다져서 만들며 결정지 바닥의 중앙 부분은 네 면의 주



염바가지 | 1983 | 국립민속박물관

변보다 약간 높게 만든다. 이런 구조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주변보다 높아 소금물의 깊이가 얇은 중앙 부위에서 먼저 결정체가 생성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소금의 결정체가 생기는 것을 전라남도 신안군의 도초도에서는 “소금씨가 생긴다.” 또는 “소금꽃이 핀다.”라고 한다.

둘째, 비가 오면 염전의 소금물을 빼서 함수지에 보관하는데, 염수를 뺄 때 중앙 부위가 주변보다 높으면 물을 빨리 뺄 수 있다.

염전에서 오후 3~4시쯤에는 결정지의 중앙 부위에 수분이 말라서 소금이 노출된다. 이를 도초도에서는 “등난다.”라고 한다. 그대로 두면 소금이 늘어붙어 주변에 고인 염수를 끼얹어 주는데, 이때 사용하는 바가지를 염바가지라고 한다.

염바가지는 주로 ‘바가지’라고 불렀다. 예전에는 바를 반으로 쪼개서 만든 바가지(쪽박)를 사용하였기에 쪽박으로 덧물을 끼얹는 작업을 ‘쪽박질’이라고 하였다. 결정지에서 덧물을 줄 때 온도가 낮으면 소금 결정이 늦어진다. 햇볕으로 데워진 40도 이상의 염수를 덧물로 줘야 소금이 빨리 생성된다. 결정지의 염도가 높으면 소금에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염바가지로 덧물을 끼얹는다. 바가지는 쪽박 이후 군인 철모의 내피(일명 하이바)에 긴 막대기를 달아서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소금꽃이 핀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서민생활사의 전개1(이혜연, 민속원, 2014), 현지조사자료(박성창, 전남 신안, 2021.7.8.).

필자 이혜연(李惠燕)

정의 소금을 채취·저장·운반하는 일을 하는 염전 노동자.

개관 염전의 인적 구성과 직분은 감독·염부장·호장(반장)·부호장(부반장)·원염부·덧염부(작업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염전의 간수 푸기, 채염, 소금운반 등 실질적 소금생산은 ‘원염부’라고 불리는 일반 염부가 담당하였으며, 소금생산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일시적으로 일급 노동자나 부녀자 작업수를 채용하였는데, 그들을 ‘덧염부’라고 하였다. 원염부는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임금에 약간 차이를 두었는데, 보통 2~3년 일하면 부반장이 되었고, 여기에 2년을 더 일하면 난치반장으로 승진되었다. 그러나 덧염부들은 소금 성수기에 일을 하고, 수확기가 지난 10월 말에 내보내졌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염부가 염전에서 일하는 모든 이를 포함한다면, 염부장에서 덧염부까지 포함할 수 있다.

내용 염전의 기본 단위는 10정보(1정보당 3,000평)마다 1호로 엮인다. 1호가 10개 모여서 100정보가 되면 1구가 되며, 1구의 제일 높은 사람을 ‘감독’이라고 칭한다. 감독 밑에는 염부장, 반장(1호당 1명), 부반장, 증발수, 염부들이 있다. 염부장은 감독과 반장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관리자로서 20정보를 책임지며, 1구당 2명씩 반장 4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장은 1호당 1명이 배치되었으며, 10정보를 관할하고 부반장

을 비롯하여 다른 염부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장은 염도를 가늠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책임자이다. 반장 밑에 부반장은 2명이며, 소래염전의 경우 반장이 관할하는 영역은 10정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정보를 책임지며 나머지 5정보는 부반장이 담당하였다. 증발수는 ‘난치반장’이라고도 하며, 염도 조정과 유수 관리 등 제염製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부반장은 반장 아래의 직급으로, 호당 2명이 배치되었다.

염부는 ‘원염부’라고 하며 A·B·C 등 3등급으로 나뉘고, 물푸기·채염·목도 등 숙련도에 따라서 반장이 평가하여 나눈다. 1호당 10명이 소금생산을 하며, 소금생산의 최고기인 5월에서 7월까지의 12~13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임시직을 고용하였다. 임시직은 ‘덧염부’라고 하며, 소금 최고 생산기간에만 채용한다. 염부들은 반장이 뽑았다.

인천광역시의 소래염전·남동염전·군자염전 등 대형 염전에는 소금생산 염부 이외에도 보선반과 영선반이 따로 있었다. 보선반은 소금을 운반하는 가시령차 철길 및 경운기 등 염업과 관련한 모든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영선반은 곶배·대패·무자위 등 염전 도구 제작 및 소금창고 내부 보수 등을 담당하였다. 1968년부터 소래염전 영선반에서 근무한 김진세 씨는 현재 남아 있는 소금창고와 관련해서 “내가 여기 박은 못이 100개 정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소금창고는 꾸준히 관리되었다. 소금창고 보수를 위한 나무는 강원도에서 사다가 썼는데 나무를 깎아서 기둥도 세우고 송판을 벽에 붙였다. 또한 지붕 수리도 해마다 하였다. 지붕에는 기름 먹은 종이를 깔고 그 위에 함석을 얹은 다음 고파스(타마고)를 깔며 칠하였는데, 비가 쏟아져도 물이 새지 않는다. 슬레이트는 벌어져서 소금창고 지붕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염부의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소금운반 목도질이다. 목도에는 소금 광주리 2개를 앞뒤로 거는데, 앞은 크고 뒤는 작다. 즉 봄에는 앞 광주리에 70kg, 뒤의 광주리에 60kg을 담았고, 가을에는 앞에 60kg, 뒤에 50kg으로 봄보다 적게 담았다. 목도채는 아까시나무를 1년 정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염부의 키에 맞게 만들었다. 목도질은 출렁출렁해서 발을 맞추지 않으면 잠시



염부 | 전북 부안 | 2000 | 황현만



염부 | 경기 안산 | 정연학

도 서 있지를 못하였는데, 리듬을 타는 요령을 습득하면 오히려 힘이 덜 들었다. 염전 도랑을 건널 때는 앞으로 밀어 출렁거리게 해서 앞에 있는 광주리가 먼저 도랑을 넘어가게 해야 한다. 그러나 염부들은 맨발로 목도질을 하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도랑에 넘어진 적이 많다고 한다. 염부들은 좋은 소금을 많이 내기 위해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품앗이를 하였다. 소금생산이 한창일 때는 저녁 시간이 없었다. 자기가 속한 호의 일이 다 끝났어도 다른 염전에 소금이 하얗게 내려 앉아 있으면 품앗이를 해야 하였다. 따라서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장과 난치반장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전매청 소속의 염부들은 반장을 잘 만나 소금생산을 많이 해야 성과급을 받았다. 소래염전에서는 ‘소금 잘 내는 반장을 만나면 두둑하게 성과급을 받고, 술 많이 먹는 반장을 만나면 쌍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하였다. 또한 그날의 일기를 잘 보는 반장이 소금을 많이 걷는다. 바람이 많이 불 것을 예상하고 물을 많이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 반장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난치반장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이다. 매일 아침 난치반장은 난치 5단계, 누테(느테) 4단계, 결정지 4단계 등의 염도를 관리하느라 온종일 염판을 돌아다녔다. 소금을 거둘 때 비가 오면 소금꽃이 안 피어 고생이 더 심하였다.

염부들은 봄·가을에는 오전 7시에, 소금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오전 6시에 염전에 나갔다. 염전에 나오면 소금을 걷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결정지, 누테, 난치의 염판을 닦아내야 한다. 점심시간은 봄과 여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래염전의 경우 봄에는 1시간이

고 여름에는 2시간이지만, 점심시간 후 5시 30분까지 채염을 하면 그 사이에 새참이 나왔다. 새참은 통에 밥만 타 오고, 반찬은 집에서 가져왔다. 이때 힘들어 양재기에 소주를 마시기도 하였다.

염부들은 퇴근 후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염도 높은 간수를 구덩이에 넣기 위해 염전으로 향하였다. 따라서 염부들의 집은 염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일부 사람들은 염전에서 마련한 사택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비가 오면 개나 고양이도 집에 들어가는데, 염부들은 염전으로 뛰어나오기에 개나 돼지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소금 상인들은 깨끗한 소금을 원하였다. 따라서 염부들은 개흙이 묻은 소금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광주리와 삼태기에 담아 염도가 높은 도랑의 간수로 살살 흔들어 씻기도 하였다. 또한 껌파리(옹기조각)이 위에 소금을 깔 다음 다시 걸으면 개흙이 안 올라와서 소금이 깨끗해졌다. 가장 깨끗한 소금은 비 오고 난 다음 날 나는 소금이었다. 비가 오면 비설거지하고 그다음 날 말려서 롤러로 다지면 개흙을 뱉아도 발자국이 안 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곳에 간수를 넣어 소금을 내면 아주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염부들은 소금생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비록 소금생산이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염주들은 소금을 처음으로 생산한 후 그 소금을 쌓아두고 염신(鹽神)에게 제의를 거행하였다. 소금 풍요와 염부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제의는 과거 자연을 생산한 염막뿐만 아니라 훗날 천일염 소금창고 앞에서도 거행되었다. 그 신앙의 힘이 약해지고 제물이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염신에 대한 제의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벌막을 짓거나 섭판을 만들 때 그리고 첫 소금을 구울 때도 소금 풍요를 위한 고사를 지냈다. 제의는 보통 만조 때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날은 소금생산 종사자는 물론 염부 가족들도 참여한다. 소래염전처럼 대형염전들은 염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대표로 염부장이 “올 한 해도 소금을 많이 수확하게 해 주세요.”라며 절을 하고 나면 염부들은 술을 한잔하며 뒤풀이를 하였다. 이날 염부들도 배부르게 잘 먹었기에 그들 스스로 ‘염부 생일날’이라고 하였다. 인천의 소래·남동·군자염전처럼 대형염

전의 경우는 염부들이 모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사는 염전회사 간부들이 지내고 염부들에게는 소주 한 병과 닭을 주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염부들의 노동은 힘이 들고, 그들이 없는 평지에서 땀별을 맞으며 작업을 하다 보니 그 고통은 배가되었다. 그러나 염부들의 수입은 농민보다 많았기에 비록 노동은 힘이 들지만 기회가 되면 염부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농민들도 소금생산 성수기에는 임시 염부로 소금생산에 동참하였다.

참고문헌 20세기 초 인천지역의 소금생산(유승훈, 인천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개항기 제염업에 대한 연구(이영학,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1), 소금꽃이 핀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소금의 민속지(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2016), 시흥해역의 염부생활과 염업(주강현·이기복, 시흥시사6, 2007),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류창호, 보고서, 2017), 염부 소금밭에 돌아오다(박상희,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흥에코뮤지엄연구회, 2018).

필자 정연학(鄭然鶴)

염부두 鹽埠頭

정의 과거 인천항에서 수입 소금을 하역하던 부두.

내용 일제강점기 인천부(현 인천광역시)는 천일염의 주요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등 중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이입염(輸入鹽)이 해상 운송을 통해 집적되는 집산지였다. ‘청국염(淸國鹽)’이나 ‘호령(胡鹽)’ 등으로 불린 수입 천일염은 일단 인천항에 하역된 후 철도 등 육상교통을 통해 전국으로 반출되었는데, 정식 판매되기 전 소금을 임시로 야적한 곳이 염부두였다. 염부두는 월미도 입구에 해당하는 현재의 인천항 제7부두 근처에 있었다.

비록 천일제염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1920년대까지는 조선 내의 소금 자급률이 크게 떨어져 총소비량의 절반 또는 2/3를 수입 소금에 의존해야 하였다. 주로 랴오둥반도 다롄항의 관동주염(關東州鹽)과 산둥반도의 산둥염(山東鹽)이 수입되었는데, 이들 소금 산지와 거리가



염부두 | 인천 중구 | 2019 | 류창호

가까운 인천항이 수입 소금의 주요 집산지가 되었다.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소금 수요의 최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롄과 산둥에서 건너온 수습 척의 정크junk(선박의 일종)가 소금을 가득 싣고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이때 수입량이 최대 8만~10만t에 달하여 항구 내의 창고 시설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항구 공지에 야적하였는데, 그곳에서 비와 이슬을 맞은 소금의 표면이 굳어지며 소금산을 만들어 냈다. 크기가 보통은 400만 근에 높이가 4~5칸, 큰 것은 2,000만 근에 높이가 20칸이 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금산이 해안 일대에 늘어선 모습은 하나의 장관을 이루었다. 이를 해관, 갑문식 선거(船渠) 등과 함께 인천의 3대 명물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었다. 염부두의 모습은 1930년대 현덕(玄德)의 소설 <남생이>에 등장한다. 주인공 ‘노마’의 아버지가 인천항에서 소금가마를 저 나르다가 폐결핵에 걸려 자리에 눕는 이야기이다.

특징 및 의의 인천의 염부두는 1970년대 연안부두로 이전하였다. 연안부두로 이전한 후에도 약 10명의 소금 위탁업자가 몰려 국내 소금 수요의 절반인 연간 100만 가마(약 30억 원)를 취급하는 국내 최대의 소금 상권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산 소금의 수입이 막히고, 소금 생산과 판매가 민영화된 이후로는 점차 쇠락해져서 현재 염부두에서는 소금 상인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참고문헌 소금이 만들어낸 근대의 표상과 인천의 염전(류창호, 인천역사8,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2011), 鹽의仁川(石谷寅三, 朝鮮之水産105, 朝鮮水産會, 1934).

필자 류창호(柳暢浩)

염부삽

정의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에서 염전 독을 정비할 때 사용하는 삽.

내용 천일염은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바닷물의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서 단계적으로 증발시켜 만든다. 천일염전의 기본적인 구조는 제1증발지, 제2증발지, 결정지, 저수지, 함수지, 소금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바닷물을 수로를 통해 저수지에 보관하거나 직접 증발지로 연결하는 지역도 있다. 논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논두렁 보수이다. 쥐구멍이 있거나 무너진 곳을 수리하는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일염전에서도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및 염전 독의 보수가 중요하다. 이때 염부삽을 이용해서 작업한다.

예전에 염전 바닥이 토판이었을 때 바닥에 초록색 이끼가 4~5mm 끼는데 이것을 긁어모아 염전 독을 만들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도초도에서는 증발지에 생기는 이끼를 ‘뽕짜구’라고 불렀는데, 뽕짜구는 점착력이 강해서 염전 독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염전독을 재정비하는 일은 겨울철에 한다. 도초도에서는 12월에 뽕짜구로 독을 정비하였는데 이 작업을 “독 바른다”라고 한다. 염부삽은 길이 20cm, 폭 15cm 정도의 직

사각형의 철판에 긴 막대를 박고 가로로 나무막대를 붙여 손잡이로 삼는다.

특징 및 의의 염부삽은 수로를 보수할 때 염부鹽夫가 사용하는 삽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1394년(태조 3)에 전남 영광군에 배 10척의 왜구가 침입하였는데 염부 30여 명이 왜구를 물리쳤다고 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1406년(태종 6) 신안군 암태도에 침입한 6척의 왜선을 격퇴한 염부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였다는 등 염부에 관한 열아홉 건의 내용이 있다. 이처럼 염부는 과거 지역에서 소금 생산자를 지칭하는 단어였으나 2021년 현재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소금꽃이 핀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소금의 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16), 한국서민생활사의 전개1(이혜연, 민속원, 2014), 현지조사자료(박성창, 전남 신안, 2021.7.8.),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필자 이혜연(李惠燕)

염세

鹽稅

정의 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인 염분鹽盆과 염정鹽井이나 생산된 소금에 부과하던 세.

개관/역사 고려시대에는 징세제를 시행하여 염분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액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14세기 충선왕 때에는 염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에서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모두 관리하여 사사로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각염제榷鹽制를 시행하여 약 80년간 소금 전매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조선의 개국으로 각염제는 폐지되고 다시 징세제로 복귀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과염법課鹽法을 시행하여 각 도의 염세 가운데 1년 경비와 공조에 바치는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으로 바꾸게 하여 그 곡식을 군자에 보태게 하였다. 이를 통해 모자라는 군자곡을 채우고 백성들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였다. 1444년(세종 26)에



염부삽 | 길이49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는 흉년으로 의창義倉에 비축된 곡식이 부족하여 진휼곡이 부족해지자 의염창義鹽倉을 세우고 의염창에 비축된 의염을 팔로 바꾸어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였다. 그 이듬해 1445년(세종 27)에는 흉년으로 의창의 곡식이 고갈되자 소금 생산에 적절한 공한지를 찾아내고 소금을 생산할 염호鹽戶를 차출하여 소금 생산을 최대한 늘리고 생산된 소금을 팔아서 의창의 곡식을 채워 넣는 의염법을 제정하고, 염부를 관장할 기구로 의염색義鹽色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반발도 적지 않았던 데다가 여러 폐단이 야기되어 1년 만에 폐지되었다.

무엇보다도 염세의 운영을 어렵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염분과 염전을 왕실 궁가宮家, 각사各司, 권세가, 지방관서와 지방의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염세의 탈세·첩징疊徵·납징濫徵이 만연하였다는 점이다. 국가가 한때 강력하게 개입하여 이들을 염세 징수에서 배제해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다시 되풀이되곤 하였다. 1716년(숙종 42)에는 어염세를 총괄할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 공정한 수세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여 절목까지 완성하였으나 결국 시행하지 못하였다. 1728년(영조 4)에는 국방이나 아문에서 직접적으로 어염세를 징수하는 것을 배제하여 어염세를 관에서 징수하여 해당기관에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750년에 양인의 신분身布를 연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이 단행되어 감필減疋으로 인한 재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어염선세가 부각되었고, 이때 숙종 때 실현되지 않았던 절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어염세의 징수에 일대 전환이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뒤 국방·아문·토호의 염세 징수는 다시 재연되었다.

내용 고려에서는 염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징세제가 시행되다가 14세기 충선왕 때에는 소금전매제가 시행되었으나 조선에서 다시 징세제로 복귀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1460~1485)에서는 각도의 염분을 등급화한 뒤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호조·본도·본읍에 비치하게 하고, 염분의 등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였다. 염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을에는 세금으로 거둔 소금을 운반해서 염창鹽倉에 비축해 두고 고을 주민들에게 곡식이나 베를 받고 팔아서 그 곡식과 베를 군자軍資

에 보충하게 하였다. 경기도·충청도·황해도에서는 염세를 사재감司宰監에 상납하게 하고, 그 밖의 도에서는 각 고을의 염창鹽倉이나 군자감軍資監에 내게 하였다.

염분에 부과되는 세금은 염분의 크기, 철분鐵盆이나 토분土盆 같은 염분의 재질, 철분의 경우 파손 여부에 따라 달랐다. 서남해안에서는 갯벌에 바닷물의 소금농도를 4~5배로 올린 함수鹹水를 퍼내는 염정鹽井에 부과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널따란 갯벌 염전의 비옥도, 즉 생산성에 따라 달리 과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세기부터는 점차 생산된 소금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1882년에 새롭게 개편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1883년부터 염세를 장악하여 1894년까지 징수를 담당하였고, 이때의 염세는 염부鹽釜와 염정鹽井 같은 생산시설에 부과하지 않고 생산된 소금에 부과하여 1석당 6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중앙정부 외에 국방, 아문, 지방관아가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폐단이 여전히 존재하여 제염업자와 염상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갑오개혁 이후 염세의 징수기관은 탁지부에서 궁내부로 바뀌어 세금은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부과되었고, 다시 담당기관은 내장원으로 바뀌었다가 1906년 통감부의 <염세규정鹽稅規程>에 따라 생산수단이 아닌 생산물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소금의 생산은 1년에 두 번 이루어졌기에 어세·선세와 함께 염세도 1년에 두 번 봄·가을에 징수하여 ‘춘추세’라고도 불렀는데, 『균역사무목均役事目』(1752)에서는 경상도의 경우 1년에 한 번 봄에만 징수하였다. 세금 액수는 지역적 사정과 염분·염정·염전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어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속대전續大典』(1746)에 따르면 염분 1좌당 연간 소금 4석을 부과하였다. 1883년 들어 생산된 소금에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 후에는 소금 1석당 6전을 내게 하였고, 유통과정에서도 소금값의 1/100을 세금으로 내게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염세는 대개 어세漁稅나 선세船稅와 함께 관리되어 국가에서 주목한 재원이었으나, 사적인 국방과 아문·권세가에게 장악되어 탈세·첩징·납징이 잦아 늘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염세는 초기엔 생산시설 염분이나 염정에 부과되었으나 19세기 이후로 점차 생산물에 부과되면서 근대적인 조세체계로 편입되었고, 20

세기 이후로는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사적인 성격의 기관과 권세가에 의한 첩징·납징이 소멸되어 정세기구의 일원화가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14세기 각염제의 성립과 운용(권영국, 한국사론1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17세기말~18세기 전반 어염세 수세규정 정비와 관수관급제(이옥, 조선시대사학보26, 조선시대사학회, 2003), 1894~1910년 해세제도의 변화와 세제 정비의 방향(박성준, 한국사연구128, 한국사연구회, 2005), 19세기 후반 정부의 염세징수와 그 성격(이영학, 한국학연구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필자 정연식(鄭演植)

염소

정의 왕실이나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소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국 군현에 설치한 특수 행정구역.

내용 전근대 사회에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바닷물을 길어 바로 끓이는 해수직자법과 염전에 해수를 끌어들이어 함수鹹水를 채취한 다음 이를 염부鹽釜에 넣고 끓이는 염전식 제염법이 있다. 동해안은 해수직자법, 서남해안은 염전식제염법이 시행되었다. 염소는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염전식제염법을 주로 행하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염분鹽盆(바닷물을 고아 소금을 만들 때 쓰는 큰 가마)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상도와 양광도(현재의 경기도·충청도 지역) 그리고 전라도 순이며, 염호鹽戶(바닷물에 열을 가하여 소금을 만들던 사람)가 많은 지역으로는 양광도·전라도·경상도 순이다. 고려시대에 염소로 밝혀진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의 구향다염전소(仇向茶鹽田所)와 포보염전소(浦保鹽田所) 그리고 대촌염전소(大村鹽田所) 등이 있으며, 전남 보성군과 승평군(현재의 전남 순천시 일대) 그리고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염소가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그 외 염전은 상당수가 섬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일반인의 소금 생산 외에 따로 염소를 뒤 왕실이나 국가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는데, 국왕은 필요에 따라 궁인이나 관원에게 염분을 하사하여 점차 염분의 사유화

가 진행되었다. 소금 매매를 통한 이익이 많아지면서 권세가는 점차 염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염소의 주민은 장인과 소민으로 나뉜다. 염소 장인은 염분에 불 때는 일 등 기술이 필요한 일을 담당하였고, 소민은 바닷물을 길어오거나 염전을 갈고 뿔감을 조달하는 단순 노역을 담당하였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염소가 해체되자 조선 왕조는 염간鹽干으로 하여금 소금을 생산하게 하였다. 소금 생산에서 가장 힘든 일은 뿔감 조달인데, 조선은 선군船軍에게 뿔감을 조달하게 하였다. 이에 선군의 위상은 다른 군인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충선왕은 재정난 해결과 권세가의 염분 소유를 막기 위해 각염제(소금전매제도)를 시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염분을 국가에 소속시키고, 군현민을 징발하여 염호로 삼았으며, 민부民部(육조 가운데 호구·공부·전량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가 소금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앙관청이나 왕실 또는 사원 소유의 염분만 민부에 소속시켜 일원화하였을 뿐 개인 소유의 염분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민부로 하여금 전부 사들여 팔게 하였기에 국가는 유통권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각염제는 염분 소유주의 반발, 소금독점으로 인한 공급 부족, 관염관管鹽官의 부정 등 여러 폐단이 노출되었다. 전매제의 시행을 뒷받침할 만큼 국가 통제력이 강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세가에 의한 독점현상이 나타나면서 소금공급이 더욱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금의 구매 대가로 납부하던 염가포鹽價布가 새로운 조세 항목이 되어 농민층의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려는 각염제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각염제는 폐지되고 징세제로 바뀌었다.

특징 및 의의 고려시대에는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소는 필수적이었는데, 특히 염소에서의 소금은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고려 전기의 소금 생산체제는 염호에 의한 민영이 기본이며, 일부 염소를 설치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금을 공급받는 이원적 형태였다. 염호

는 자기 소유의 염분으로 소금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부담하여 생산한 소금의 일정량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매매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염소의 경우 국가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어량魚梁을 설치해 줬으리라 생각된다. 고려 후기 각염제에 의한 생산체제도 고려 전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유통이 전매로 이뤄지는 점이 다를 뿐이다.

염소에서 장인은 가장 중요한 일인 가마에 불 지피는 일을 담당하였고, 바닷물을 긴거나 뿔감을 마련하는 일은 염소민이 담당하였다. 힘든 노역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대다수의 소금을 국가에 강제로 빼앗기는 일은 일반 염호보다 염소민에게 더욱 가혹하였다. 특히 각염제 시행은 국가가 유통을 장악하여 생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염소뿐만 아니라 일반 염호도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어 고려 후기의 소금 생산은 전기보다 더 큰 규모의 염소 형태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염호는 생산을 기피하고 흩어졌다. 더욱이 충목왕 때부터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염소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후 조선 초기에는 염간이라는 양인 신분이면서 천역에 종사하던 신랑역천身良役賤 계층이 소금 생산에 종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曹溪山松廣寺史庫, 朝鮮王朝實錄, 14세기 각염제의 성립과 운용(권영국, 한국사론1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고려시대의 염업제도(손홍렬, 청대사림3, 청주대사학회, 1978),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 소연구(이정신, 해안, 2013),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유승훈, 민속원, 2008), 高麗時代の所について(北村秀人, 조선학보 50, 대한조선학회, 1975),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이정신(李貞信)

염업 鹽業

정의 암염鹽巖, 함수鹹水, 해수海水 등 1차 원료에서 소금을 제조하는 산업.

역사 조선시대까지 소금은 값비싼 상품이였으므로 정부가 제염업에 관여하였다. 고려와 조선 정부는 소금을 전매하거나 염세鹽稅를 매겨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

고자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각염법權鹽法을 시행하여 여러 도道에 사신을 보내고 소금을 전매하도록 하였다. 백성 중에서 염호鹽戶를 뽑았으며, 염창鹽倉을 건설하였다. 조선시대에 전매제는 철폐되었으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국영 형태로 제염장을 운영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염철사鹽鐵使 제도가 시행되었다. 염철사는 해변에서 염호를 모아서 소금가마를 설치하고 소금을 굽게 하였다. 병자호란 직후에는 청나라에 바치는 세폐歲幣의 부담으로 서산·태안 지역에서 염철사 제도를 운영하였다.

1731년(영조 7) 조선은 낙동강 하구의 명지도鳴旨島에서 공염제公鹽制를 운영하였다. 전국적인 흉년으로 진곡賑穀을 확보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명지도 공염장은 정부와 관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되었다. 산산창蒜山倉에서는 염민鹽民에게 쌀 1석을 나눠주고 소금 2석을 받아 다시 쌀 2석으로 교환하였다. 명지도 공염제가 염민을 착취한다는 비난이 계속되었지만 혁파되지 못하고 조선 말기까지 운영되었다.

1907년 탁지부度支部에서는 인천 주안朱安에 처음으로 천일염 시험장을 설치하였다. 주안의 천일염 시험장은 대만의 천일염전을 모방하여 축조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주안의 천일염 시험장을 토대로 하여 본격적으로 천일염전의 확장에 나섰다. 평안도 광양만廣梁灣·귀성貴城·남시南市, 인천의 주안·남촌南村·소래, 황해도 연백에 대규모의 천일염전을 구축하였다. 1920년대부터 천일염이 대량 생산되었고, 조선의 주요 제염업도 자염업에서 천일염업으로 바뀌었다. 일제는 1942년 5월 〈조선염전매령〉을 공포함으로써 소금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였다.

광복 이후 제염업의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대규모 염전이 북한으로 귀속됨에 따라 남한 지역은 소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정부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천일제염을 민간에 허락하여 소금 생산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소금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염증산 5개년 계획(1952~1956)을 실시하였다. 정부가 강한 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과잉염이 생겼다. 5년여 만에 소금 기근이 아니라 소금 과잉을 해소할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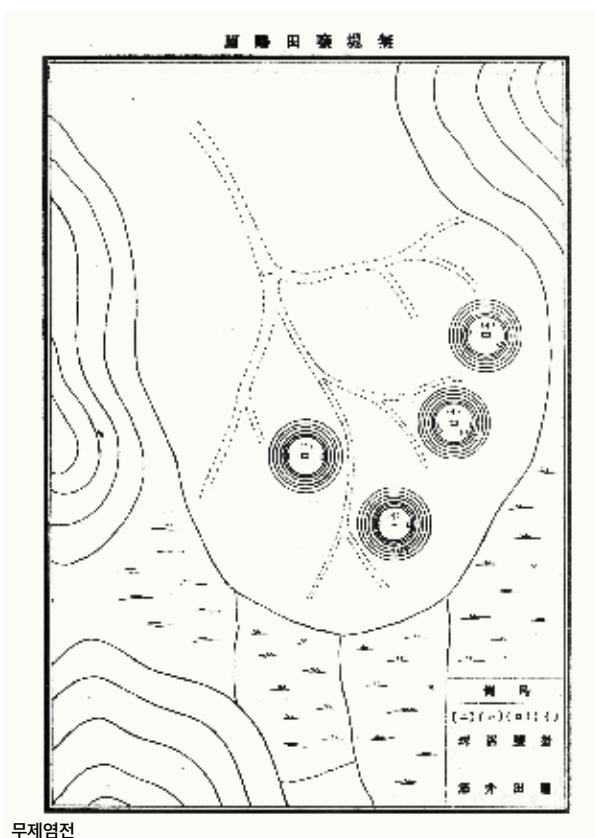
책을 고민하였다. 1960년 이후로 민간염전을 폐전하였으며, 소금 전매제도를 폐지하여 제염업체가 소금을 자유롭게 생산하도록 하였다.

내용 소금은 생산 원료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다에서 생산하는 해염(海鹽), 호수에서 생산하는 지염(池鹽), 우물에서 생산하는 정염(井鹽), 땅에서 생산하는 토염(土鹽), 암석에서 생산하는 암염(巖鹽) 등이다. 인접한 중국은 제염업이 다양하게 발전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직 바닷물의 염도를 높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방식이 이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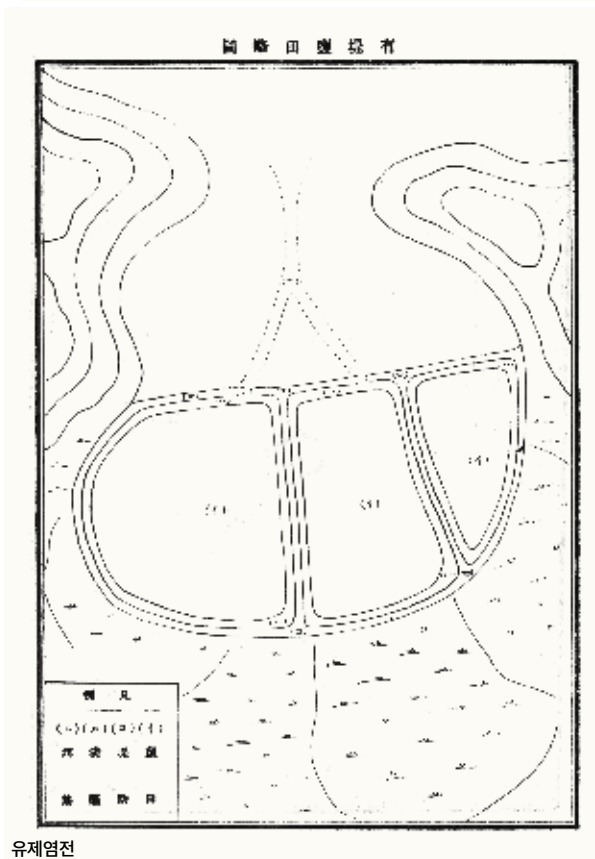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소금을 조선시대에는 ‘자염(煮鹽)’이라고 하였으며, 근대기에는 ‘전오염(煎熬鹽)’이라고 하였다. 이 외 자염은 화염(火鹽)·육염(陸鹽)·재래염(在來鹽) 등으로 불렸다. 자염을 만드는 제염방식은 크게 직자식(直煮式)과 염전식(鹽田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자식은 말그대로 바닷물을 바로 끓이는 방식이다. 바닷물을 오랫동안 끓이면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이 결정된다. 직자식은 끓이는 시간이 길고, 많은 연료가 소비되는 원시적 방식이다. 제염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직자식으로 소금을 생산하였지만, 점차 염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염전식 자염법은 염전에서 생산한 짠흙(鹽土)을 여과하여 짠물(鹹水)을 만들고, 이를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바닷가의 갯벌이나 모래는 해수를 머금고 있다. 농기구와 소를 이용하여 계속 갈아엎으면 수분이 증발하고 염분이 붙어 짠흙이 생산된다. 이 짠흙을 염정(鹽井)이라는 여과장치 위에 넣고 다시 바닷물을 부으면 아래에서 염도가 높아진 짠물을 얻을 수 있다. 이 짠물을 염막으로 옮겨 소금가마에 넣고 끓이면 자염이 된다. 염전식 자염법은 직자식 자염법보다 발전된 형태이지만 많은 연료가 소비되는 근본적 한계는 해결될 수 없었다. 조선 전기부터 이미 자염을 생산하는 제염지 주변의 산은 벌목으로 인하여 민둥산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석탄을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개선책이 강구되었지만, 화력이 강해 소금의 질은 떨어졌다.

조선시대 자염법은 해수직자식, 무제염전식, 유제염전식 등이 공존하는 가운데 염민(鹽民)들은 해안의 지



무제염전



유제염전

염전의 형태 | 한국수산지

리조건에 맞는 자염법을 사용하였다. 조선 전기까지 제염업은 대개 제방이 없는 무제염전^{無堤鹽田}에서 이루어졌다. 염전에 제방이 없으므로 간조에 드러난 갯벌을 이용하여 제염 작업을 하였다. 조수가 들어오면 갯벌을 가는 채합^{採鹹} 작업은 불가능하였고, 짘물을 모아서 끓이는 전오^{煎熬} 작업만 가능하였다. 조선 후기가 되면 남해안을 중심으로 제방이 있는 유제염전^{有堤鹽田}이 설치되었다. 남해안 지역은 비교적 조차가 작기 때문에 낮은 제방을 쌓아서 조수를 막을 수 있었다. 조선 후기까지 서해안 지역은 무제염전식 자염법이 이어졌으며,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직자식으로 제염이 이뤄졌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1차 원료로 바람과 태양의 에너지를 가하여 생산한 소금이다. 천일염은 태양염·청염^{淸鹽}·관염^{官鹽} 등으로도 불렸다. 자염업은 바닷물을 끓여서 생산하는 소금이고, 천일염은 바닷물을 말려서 생산하는 소금이다. 자염은 펄감을 연료로 하여 바닷물에 화력을 가해야 하지만 천일염은 연료가 필요 없이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서 소금을 얻는다. 천일제염업은 구한말 일제가 도입한 이후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주요 제염업으로 성장하였다.

주안에 처음으로 설립된 대만식 천일염전은 염전에 해수를 주입한 뒤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점차 염분의 농도를 높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천일염전은 다단계식으로서 저수지, 제1증발지, 제2증발지, 결정지, 함수류^{鹹水溜}, 제방, 수로 등으로 구성된다. 작업은 크게 해수취입작업^{海水取入作業}, 함수농축작업^{鹹水濃縮作業}, 채염결정작업^{採鹽結晶作業} 등으로 나뉜다. 저수지에 해수

를 주입하여 저장한 후 제1증발지와 제2증발지로 해수를 통과시킨다. 증발지로 갈수록 점차 함수 농도가 높아지고 최종 결정지에 도달하면 채염한다. 면적은 저수지—증발지—결정지로 갈수록 점차 좁아진다. 주안에서 시작된 천일제염시험장은 천일염업의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천일제염업에서는 간수와 염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염부들은 수시로 염전에 나가 해수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염도계(보메)를 들고 다니며 염도를 체크하고 간수를 이동시킨다. 인천의 소래염전에서 저수지로 들어오는 해수의 염도는 약 2도, 제1증발지에서는 2~6도, 제2증발지에서는 10~15도, 결정지에서는 25도가 된다. 날씨와 기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제1증발지까지 10일, 제2증발지까지 15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정지에서는 25도의 간수를 주입하여 1~2일 만에 소금을 결정한다. 해수가 결정지로 오면서 줄아들기 때문에 ‘덧물’이라 부르는 함수를 원물에 더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 천일제염업은 자염업처럼 막대한 연료가 소요되지 않지만, 계절과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천일제염업은 2월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 3월 말부터 채염 작업을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5~6월에는 제염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며, 우기^{雨期}인 7~8월에는 작업이 중단될 때가 많다. 우리나라의 봄은 기후가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아 소금이 많이 생산된다. 보통 최고의 품질로 꼽히는 천일염도 이 기간에 생산되며, 송홧가루가 날리는 철이라 하여 ‘송화염’이라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전이 제일 많은 지



영백염전 | 전남 영광 | 2012 | 유승훈



염부 | 국립민속박물관

역은 전라남도이며, 그 가운데 신안군이 대표적 제염지이다. 신안군의 천일염 생산량은 우리나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개항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제염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재제염(再製鹽)은 자염과 비슷하게 재차 가공하여 만든 소금이다. 중국의 천일염은 염가가 낮지만, 자염 맛에 익숙한 조선인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값싼 천일염을 들여와 해수에 녹인 뒤에 다시 끓이는 재제염이 성행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시작된 재제염업은 인천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여러 항구지역에도 재제염 공장이 건립되었다. 산업화 시절에는 울산 지역에 기계염 공장이 건립되었다. 기계염은 인공적 기계설비에서 생산한 소금이다. 즉 해수를 주입한 후 이온교환수지에서 염화나트륨을 분리해서 만든 소금이다. 염화나트륨 함량이 99% 이상으로 정제염이라고도 부른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제염업은 바닷물을 1차 원료로 하는 자염업과 천일제염업이 주를 이뤘다. 근대 이전에는 자염업으로 소금이 생산되었다. 바닷물에는 약 3%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을 가해 수분을 증발하는 방법으로 소금을 얻었다. 자염업에는 바닷물을 바로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직자식 자염법과 갯벌을 이용하여 염도를 높여 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염전식 자염법이 있다. 염전식 자염법은 무제염전법과 유제염전법으로 나뉜다. 구한말까지 우리나라 자염법은 해수 직자식, 무제염전식, 유제염전식이 공존하는 가운데 염민들은 해안의 지리조건에 맞는 자염법을 사용하였다. 직자식 자염법에 비하여 염전식 자염법은 발전된 방식이었지만 연료 소비가 많은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천일염은 해수를 유입한 뒤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결정한 소금이다. 천일제염업은 구한말 일제의 염업정책에 따라서 도입되었다. 구한말 인천 주안에 최초의 천일염 시험장이 설립된 이후 일제강점기 평안북도의 광양만과 인천의 군자·소래 등 서해안의 북쪽 지역에 주로 천일염전이 세워졌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염업은 자염업에서 천일제염업으로 재편되었다. 광복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자

남한은 소금 기근에 시달렸고, 6·25전쟁 때 서해안에 대대적으로 천일염전이 증설되었다. 하지만 소금 수급 정책의 실패로 천일염전을 민영화하고 폐전하는 정책이 펼쳐졌다. 값싼 수입염과 정제염의 등장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는 천일제염업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유승훈, 민속원, 2012), 조선시대 소금생산방식(고광민 외, 신서원, 2006), 천일염(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韓國鹽業調査報告(臨時財源調査局, 度支部, 1908).

필자 유승훈(柳承勳)



정의 바닷물을 유입한 뒤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결정하는 장소.

개관 우리나라 제염업은 해수를 원료로 하므로 모든 염전이 해안에 분포되어 있다. 염전은 제염업 방식에 따라 자염전(煮鹽田)과 천일염전(天日鹽田)으로 구분한다. 근대 이전까지 자염전은 우리나라 해안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 자염전은 자연 그대로의 갯벌이나 모래밭을 말한다. 염전에서는 함수를 끓이기 전에 채합(採鹹) 작업을 한다. 축력과 인력을 이용하여 모래나 개흙이 깔린 염전 바닥을 갈아서 염도를 높인다. 자염전은 제방의 유무에 따라 무제염전(無堤鹽田)과 유제염전(有堤鹽田)으로 구분된다. 무제염전은 조금(小潮)에 채합 작업을 해야 하지만 유제염전은 조수를 막는 제방이 있으므로 채합 작업에 장애가 없다. 자염전의 중요한 제염시설로는 염정(鹽井), 염막(鹽幕), 염부(鹽釜) 등이 있다.

구한말 인천 주안에 최초의 천일제염시험장이 설립된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평안북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천일염전이 세워졌다. 천일염전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천일염전은 조수의 유입과 넓은 간석지가 필요하므로 지형적으로 서해안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천일염전은 대개 6·25전쟁 이후에 만



백령도 염전 | 인천 옹진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든 것이다. 우리나라 천일염전의 특성은 다단계식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다단계 천일염전은 마치 바둑판처럼 각 칸이 구분되어 있다. 염전의 구조는 크게 저수지, 제1증발지, 제2증발지, 결정지 등으로 구분된다. 염부가 매일 날씨를 보고 해수를 다음 단계로 옮겨 수분을 증발시킨다. 대체로 저수지에서 바닷물을 받아들인 후 보름이 지나면 결정지에서 소금이 생산된다.

내용 염전이 설치되기 좋은 지형은 해안선의 굴곡이 있는 만灣이다. 만은 태풍과 해일 등의 피해가 적을뿐더러 제방 설치도 쉽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자연전이나 천일염전 모두에 해당된다. 서해안에서는 과거 자연염을 생산하였던 갯벌이 천일염전으로 바뀐 곳도 많다. 자연전은 평탄한 간석지와 미세한 토사가 구비되어야 하고, 주변에는 연료가 풍부해야 한다. 생산된 소금을 운송할 수 있는 수로 확보도 자연전의 중요한 입지조건이다.

우리나라 자연염은 서해안에서 많이 생산된다. 일반적인 자연전은 서해안에서 널리 퍼져 있는 입빈식入濱式 무제염전無堤鹽田이다. 입빈식 무제염전은 만조에 해안가로 밀려온 해수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제염작업을 하는 염전이다. 입빈식 무제염전의 전체적 형상은 원

뿔형이다. 해수가 들어오는 갯도랑의 끝 지점에 둥그렇게 염전이 있는데, 지면이 중앙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고 평탄한 중앙에는 염막鹽幕과 염정鹽井을 설치한 형태이다. 염막 아래 경사면은 염전 지반으로서 점질토로 되어 있다. 만조에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침윤되며 간조에 토사를 긁어서 건조한 후에 염정으로 운반하여 염도가 높은 짠물을 얻는다.

제방을 쌓아서 조수를 통제하는 유제염전有堤鹽田은 우리나라 남해안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유제염전은 만 지형의 중간을 막아서 제방을 설치하였고, 수문을 만들어 해수의 개폐를 가능하게 하였다. 제방 안쪽에는 여러 염전이 모여 있으며, 염전과 염전 사이에도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 염전은 전체적으로 방형이며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다. 토질은 미세한 모래이거나 모래와 개흙이 혼합되어 있다.

양빈식揚濱式 무제염전은 조석潮汐의 차가 적은 강원도와 함경도 지방에 있다. 입빈식 염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갯벌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는 반면 양빈식 염전은 인공적으로 염판을 만든다. 해면海面보다 높고 해안선에서 떨어진 곳에 먼저 점질토로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사질토를 깔아서 염전을 설치한다. 다음은 바닷가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오게 한 뒤 이를 염

전에 적시고 채합 작업을 한다.

자염전의 제염시설로는 염정鹽井, 염막鹽幕, 염부鹽釜 등이 있다. 문헌에서는 합수를 만드는 시설을 ‘염정鹽井’ 또는 ‘소정沼井’이라 한다. 이를 전라도에서는 섯등, 경상도에서는 섯, 강원도에서는 간수통, 충청도에서는 간통이라 한다. 염정은 흙과 이물질을 걸러내고 짠물鹹水만을 통과하는 여과장치로서 솔가지, 나무, 돌, 모래 등으로 제작한다. 염정을 만드는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염전에서 만들어진 짠흙鹽土을 위에 올려 두고 바닷물을 부으면 짠흙에 붙은 염분이 흘러 내려 아래에서 염도가 높은 짠물을 얻는다.

염막과 염부는 주요한 전오煎熬시설이다. 근대 사료에서는 ‘부옥釜屋’이라 하였다. 염막은 짠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로서 비바람을 막고 안정적으로 전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염막 가운데는 소금가마가 있고, 아래는 불을 피우는 아궁이가 있고, 위로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굴뚝을 만들었다. 소금가마는 짠물을 받아서 끓이는 시설이다. 가마에서 짠물을 끓이는 과정은 소금의 품질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단계이다. 소금가마의 종류에는 철부鐵釜, 토부土釜, 석부石釜 등이 있다. 구한말까지 토부와 철부가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부가 보편적인 가마이다. 토부는 조개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회를 주재료로 제작한다.

천일염전은 구한말 인천 주안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천일염전은 바둑판처럼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은 방·배미·칸 등으로 부르는데, 단의 숫자와 면적은 염전마다 다르다. 염전 구조는 크게 저수지, 제1증발지(난치), 제2증발지(누테), 결정지 등으로 구분된다. 저수지는 사리에 해수를 받아서 저장하는 장소, 증발지는 수분을 증발하는 장소이다. 결정지는 최종적으로 소금을 결정하여 수확하는 장소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천일염전의 제1증발지, 제2증발지, 결정지는 각각 4~6단으로 조성된다. 각 단에는 해수가 유통되는 수로가 있다. 천일염전에 속한 시설로는 해주와 소금창고 등이 있다. 해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합수를 저장하는 시설로서 지붕을 씌운 형태이다. 결정지 근처에는 소금을 운반하여 보관하는 소금창고가 있다.

천일염전에서는 바닥 면 관리가 중요하다. 바람과 햇볕만으로 자연스럽게 소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바닥을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천일염전에서 염부들은 매일 바닥의 손실을 파악하고, 평탄 정도를 점검한다. 간수가 고르게 깔렸다 해도 바닥이 평평하지 않거나 구멍이 있으면 소금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증발지의 갯벌을 갈아엎어 주고, 롤러로 밀어서 평평하게 만든다. 결정지에서도 바닥 면을 살펴보고 틈이 생긴 부분은 보강한다.

천일염전에서 증발지 바닥은 대개 천연 갯벌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천일염을 ‘갯벌 천일염’으로 부르는 이유도 제1증발지와 제2증발지에 갯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결정지는 소금이 결정되는 곳이므로 개흙이 혼합되지 않고 결정이 되도록 인공적 재료로 바닥을 조성하였다. 초창기 천일염전은 갯벌의 흙을 그대로 이용한 ‘토판’으로 1950년대까지 유행하였다. 토판은 소금이 결정될 때 갯벌 흙의 영향으로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옹패판’이 등장하였다. 옹패판은 옹기의 깨진 편을 바닥에 깔아 만든 것이다. 옹기의 매끈한 면을 살린 덕에 소금의 결정이 깨끗하고 소금을 모으기가 편리하였으나 옹기 편이 자주 떨어지고 갯벌 노출면도 적지 않아 이후에 고안된 판이 도자기로 만든 타일판이다. 지금도 천일염전에서는 타일판을 간혹 볼 수 있다. 타일판은 소금의 품질을 높였지만 경비가 많이 들었다. 이에 등장한 재료가 비닐 장판으로, 천일염전 결정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닐 장판은 소금 결정이 빠르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해성분 시비에 휩싸인 탓에 현재는 친환경 염전용 장판으로 교체되었다.



어류정 천일염전 | 인천 강화 | 1994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염전은 소금을 생산하는 기반 시설이다. 우리나라 염전으로는 자염전과 천일염전이 있다. 자염전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쇠퇴하였으며, 산업화 시기를 전후로 거의 사라졌다. 지금 볼 수 있는 염전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분포된 천일염전이다. 우리나라 천일염전의 특징은 다단계식이라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천일염전에서는 염전 한 곳에 해수를 넣은 뒤에 1~2년 동안 햇볕과 바람을 맞게 하여 소금을 생산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천일염전은 마치 바둑판처럼 각 칸이 구분되어 있다. 천일염전에서는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등 여러 단을 거치면서 소금을 결정하는 게 특징이다. 염부는 매일 날씨를 보고 해수를 다른 칸으로 이동하여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한다.

한반도 서해안에는 천혜의 간석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다. 갯벌은 자염전과 천일염전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이다. 지금까지 서해안에서 양질의 천일염이 생산되는 이유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는 갯벌이 드넓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의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전이 집중된 곳이자 천일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전남은 우리나라 갯벌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개흙의 성분도 천일염을 생산하기에 양호한 지역이다.

조선시대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자를 ‘염한鹽漢, 염간鹽干, 식간식干, 공간工干’이라 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장적帳籍에 등재되어 의무적으로 소금을 생산하여 국가에 바치는 염민이었다. 우리나라 해안 마을에서는 ‘여맹이’ ‘염한이’ ‘여망이’라는 말이 아직도 사용된다. 염전에서의 제염 노동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여맹이가 눈 뚫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전해진다. 이외에도 일정량의 소금세를 내고 자유롭게 소금을 생산하는 사간私干이 있었고, 수군水軍들도 평시에는 해안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일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이후로는 소금 생산자를 주로 염부鹽夫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유승훈, 민속원, 2012), 조선시대 소금생산방식(고광민 외, 신서원, 2006), 천일염(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韓國鹽業調査報告(臨時財源調査局, 度支部, 1908).

필자 유승훈(柳承勳)

오리

정의 물에 낚시를 던져 놓고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서 잡는 낚시어구.

내용 오리는 어종에 따라 산천어오리, 송어오리, 잉어오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오리라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전해진다. 첫 번째는 눈(바늘 사이)에 흰색 오사리(이른 철의 사리 때 잡은 새우)를 끼우는데 이 모양이 오리발의 갈퀴와 유사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갈



꼬리오리낚 | 너비8 길이38



결정석 | 너비23 길이50



오리낚 | 길이30

오리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고리 모양의 바늘이 오리목을 꿰었다는 것이다.

서울의 노량진에서는 주로 봄에 잠시 사용하는데, 대개 송어를 잡는다. 물이 따뜻해지고 바다에서 송어가 올라올 때 사용하였다. 첫 장마가 지고 잉어들이 올라갈 때는 잉어를 잡기도 하였다.

오리낙의 모양은 그림처럼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오리낙, 두 번째는 꼬리오리낙, 세 번째는 꺾정쇠라고 한다. 꺾정쇠는 주로 평안도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꼬리오리낙과 꺾정쇠의 휘어지지 않은 꼬리 부분은 오리낙을 잡아챌 때 바늘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오리는 던질 수도 있고 직접 들고 들어가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있다. 머슴땀(견지낙시와 오리낙에 사용되는 보조도구)을 이용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여울의 물살이 셀 때는 바늘 중간에 납판(편납)을 달아 무게를 무겁게 하였다. 오리를 사용해 물고기를 채는 방법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물살의 세기, 방향, 깊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채는 방법과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오리는 하천에서만 쓰이는 어로도구로 중부와 북부에서 주로 쓰였다. 하천의 흐름과 하천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 어로도구로,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조선의 민속전통4(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현지조사자료(강우규, 경기 일산, 2020.2.4; 서병원, 경기 일산, 2020.2.4; 손낙기, 경기 하남, 2004.4.28.), 국립민속박물관(nfm.go.kr),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필자 편성철(片成哲)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정의 19세기 이규경李圭景(1788~1856)이 편증한 박물고증서.

개관 『오주연문장전산고』는 60권 60책 필사본으로 저

술되었다. 이중 최근에 재편집하여 모아 놓은 어류 항목의 모음집 글자 수는 3만 8,082자이다(글자 수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자료의 2021년 6월 10일 기준). 필사본은 최남선崔南善이 소장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으며, 최남선 소장본을 필사한 책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서 보관해왔다. 규장각에는 현재 2종이, 각각 2책과 4책이 결본인 채로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본래 권의 차례(이하 권차)와 세부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완성된 책은 서명에 이어 권1, 권2 등과 같이 권차가 적혀 있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또한 대제목이나 소제목 등으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증설’처럼 항목 아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형식의 항목 수는 총 1,416개이다. 이 중 ‘독서동변의오기讀書洞辨疑誤記’ 하나만 예외인 형식을 보여준다. 인용 서적은 661종에 달한다. 이처럼 변증설을 나열하면서 1책의 분량이 나으면 한 책으로 엮였다. 또한 본래 저술은 주제별로 묶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저자는 책의 최종 편집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책의 체제는 비교적 최근에 대대적으로 재편집되었다. 1977년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의 전신)가 이이李穡(1681~1763)의 저술인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5편篇 23류類 176항項의 체계를 갖춰 재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편집된 뒤 원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문장부호를 추가한 정본定本을 한국고전종합DB에 포함하여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DB 원문은 현재 전하는 필사본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체제와는 판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DB로 제공되는 원문은 저자나 저술 당시의 편찬 참여자의 편집본이 아님에도 새로운 편차가 만들어져 이 책을 주제별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이규경은 정조 대에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서적 검토 및 필사 등을 담당할 실무직)으로 활약한 이덕무李德懋(1741~1793)의 손자이자 이광규李光葵(1765~1817)의 아들이다. 따라서 가학家學의 전통은 그의 학문의 기반이었다. 또한 서유구徐有榘(1764~1845), 서유본徐有本

(1762~1822), 최한기崔漢綺(1803~1877), 최성환崔聖煥(1813~1891), 김정호金正浩(1804 추정~1866 추정) 등 박물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폭넓은 학문 세계를 추구하였다. 이규경은 1808년(순조 8) 21세의 나이에 규장각 검서관에 응시하였지만 낙방하였고 그 후로도 두 차례 더 응시하였지만 떨어졌다. 그는 평생 서울과 지방(주로 충청도)을 오가며 방대한 박물학적 세계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가학의 전승, 박물학을 추구했던 학자들과의 적극적 교류, 서울과 지방을 왕래하는 과정 등이 이 저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내용 오주五洲는 저자의 호이고, 연문衍文은 군더더기 글이라는 뜻이다. 장전長箋은 훈고訓詁나 고증의 문체를 활용하였다는 의미이며, 산고散稿는 정리하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원고라는 뜻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오주 자신이 고증의 방식을 차용하여 장황하게 글을 쓰고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원고’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겸양의 표현이다. 책명에 비록 겸손을 표현하였지만, ‘산고’라는 명칭은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고 평가할 만하다.

서문에서 저자는 “명물도수名物度數의 술術(명칭[名]·사물[事]·법식[法]·수량[數]을 연구하는 학문)이 성명의리性命義理의 학學, 즉 성리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폐기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명물도수 분야를 술術(술법)로, 성명의리 분야를 학學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명물도수가 격이 더 낮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하돈변증설河豚辨證說’에서 박학격물지사博學格物之士(박학과 사물 탐구를 추구하는 학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저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다. 저자는 명물도수를 학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영역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문헌을 인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다룬 분야는 역사·경학·천문·지리·불교·도교·서학·풍수·예제·재이災異(재앙이 되는 괴이한 현상)·문학·음악·병법·풍습·서화·광물·초목·어충어蟲·의학·농업·화폐 등이다. 박물학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가 들어 있다.

어魚 항목은 5편 23류 176항에서 「만물편」 ‘충어류’

에 있다. 어魚 항목에 소개된 변증설 34개의 주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물고기 전반 ②망어望魚는 태생이다 ③금어金魚, 화어花魚 ④비어飛魚(날치) ⑤좌어坐魚(개구리) ⑥선어鰩鰐(드렁허리) ⑦오망동烏望鯢(망둑어), 수점어水鮫魚(물메기) ⑧고래鯨, 악어鰐 ⑨예鯢, 인어人魚와 그 기름으로 만든 등불[漆燈] ⑩용어鰲魚(청어), 부록 대어帶魚(갈치) ⑪온어鰻魚(멸치) ⑫북어北魚 ⑬후어鰻魚(투구게) ⑭견절鰓節(가다랑어포), 주도酒盜(술도둑, 가다랑어내장젓갈) ⑮가지嘉支, 강치強治, 해마海馬, 용용鰐鰐 ⑯용龍 ⑰용은 새끼를 9마리 낳는다[龍生九子] ⑱용의 문무를 논하다[論龍文武] ⑲용은 난생이고 호랑이는 태생이다[龍卵虎胎] ⑳척목尺木(여의주) ㉑주루珠瑤(진주 품는 대합조개의 일종) ㉒거북龜, 부록 대모玳瑁(바다거북) ㉓오총귀五總龜(천 년 산 거북) ㉔해분모海粉母 ㉕게가 목숨을 구걸하였다는 이야기[蟹乞救命] ㉖해경海鏡(게가 기생하는 조개의 일종), 수모水母(해파리)와 함께 쇠결瑣瑁(조개의 일종)도 변증한다 ㉗자고刺姑(가재), 부록 게[蟹] 종류 ㉘하돈河豚(복어) ㉙염사蟬蛇(여인과 교접한다는 비단뱀), 상사사相思蛇(상사병으로 죽은 남자 원귀가 변한 뱀) ㉚뱀의 피가 백태를 치료한다[蛇血開翳], 부록 체모황螻螳黃(큰 거미의 일종), 상시고桑翅蠶(날개 달린 뽕나무잠) ㉛해구海狗(물개) ㉜해삼海參, 부록 해구海毬(성게), 복합鰓蛤(전복)의 암수 구별 ㉝계곡繼穀조개 또는 적곡積穀조개(강릉에서 나는,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조개) ㉞오만동五萬銅(오만동이), 삼천족三千足(삼천발이) 등이다.

이상의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부분 어류 전반이나 특정 어류에 관한 상세한 고증으로 구성되었다. 첫 변증설인 어변증설魚辨證說에서 “어魚는 인충鱗蟲이라고도 한다. 지금 인충에는 360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용이 으뜸이다.”라는 언급으로 다루는 주제들의 범위를 추론할 수 있다. 용과 뱀뿐만 아니라 개구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에서 나온 이전의 어류서, 즉 『우해어보牛海異魚譜』 『자산어보玆山魚譜』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진어지佃漁志』 등에서는 어류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책에는 용과 관련된 변증설 5개가 어魚 항목에 있다. 뱀은 2개의 변증설에서 다뤘다. 또한 같은 사례로 좌어를 이 항목 안에 넣었다. 물론 이와 같은 분류는



오주연문장전산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저자의 시도가 아니며 후대에 이뤄졌다. 하지만 용을 포함한 360종의 인충을 저자 자신이 분류하였어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물고기로 대표되는 수생 동물뿐만이 아니라 인류(人類(비늘 있는 동물류))라는 동물 전체를 포괄한 전통적 분류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망동·수점어변증설’처럼 문헌 고증 없이 오로지 보고 들은 내용으로만 구성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기존 어류 전문서처럼 생김새와 생태에 관한 세밀한 묘사와 이용법 등을 보여줬다.

조선에서의 실태를 전하는 기록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봉어찜이 유명한 곳은 제천 의림지, 전주부 삼례역, 평양부, 의주부, 경흥부 적지(赤池)라거나, 청어 정액을 암컷이 삼켜 부화한다거나, 부안현 바다의 물매기는 어른 봉양에 좋다거나, 물고기 행동을 보고 날씨를 점친다거나, 조선 영조 말엽 말을 할 줄 아는 잉어(5~6척 크기)가 있었다거나, 계의 종류로 고서에서의 기록 이외에 시골 사람에게서 들어 알게 된 꽃게·밤게 등이다. 또한 고래가 죽어서 해안으로 밀려오면 여기에서 취하는 고래기름의 이익을 관아에서 독차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민폐를 싫어하여 다시 바다로 밀어 넣어 다른 고을로 가도록 한다고 하였다. 조선의 근해로 이양선이 머물면서 고래를 잡는 시대상을 설명하였다. 청어가 풍성하여 팔도에 유통되는 현상과 갈치가 서해와 남해에서 풍부하게 나는 현상, 명태의 유통과 쓰임새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전문이 없는 어류는 다른 기록을 옮겨 전하였다. 오만동·삼천족 등은 저자가 보지 못하여 변증만 하고, 이를 아는 자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두 종의 생물 중 오만동은 『자산어보』에서 음충(淫蟲)이라는 생물로 속명을 오만동이라고 하였다. 이는 미더덕과 비슷하게 생긴 오만동이를 가리킨다. 삼천족은 『자산어보』에 나오는 천족섬(千足蟻)을 가리킨다. 속명을 삼천족 또는 사면발(四面發)이라 하였으며, 이는 불가사리의 일종인 삼천발이를 가리킨다.

이 외에도 어류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계가 목숨을 구걸하였다는 전설 등 어류 관련 고사도 소개하였고 천 년 산 거북이인 오총귀(五總龜)를 매우 해박한 사람 또는 해박한 내용이 담긴 책에 비유하는 등 어류를 인간세계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기괴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후대에 신기한 것에 호기심을 갖는 이들에게 대답해주기 위한 자료로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둔다는 의견을 밝혔다. 용을 비롯하여 현대의 관점에서 황당무계하게 보이는 여러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징 및 의의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조선시대 백과사전으로 『지봉유설(芝峰類說)』 『성호사설(星湖僞說)』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등을 계승하였다. 박물학적 지식을 모은 만큼 전통시대의 이해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분야의 학문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책의 ‘어’ 항목은 최근 완역이 되기까지 주목된 적이 거의 없었다. 어류 전문서로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3대 어보로 알려진 서적과 비교도 시도되지 않았다. 고증에 주로 치중한 글이다 보니 저자 자신이 경험하였거나 전해 들은 현장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어류 전문서에서 보여주지 못한 어류 관련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 어 항목의 번역서 출간으로 앞으로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오주연문장전산고 만물편 총어류(이규경, 전병철·이규필 역, 국립해양박물관, 2019),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김채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중국 서적의 인용과 지식의 수용(박영순, 중국인문학회64, 중국인문학회, 2016),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명현(鄭明炫)

오징어잡이

정의 추광성(趨光性) 어종인 오징어의 성질을 반영해 돛보 낚시와 물레, 조획(상)기, 채낚시,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포획하는 조업 방식.

내용 동해안의 오징어 집산지인 경상북도 울진 죽변항의 어민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력형 채낚기 어구 어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오징어 낚싯대를 이용해 손으로 직접 낚는 방식과 ‘돛보낚시’라고 부르는 외줄낚시법 방식으로 오징어를 잡았다. 이후 돛보낚시는 물레와 유사한 도구인 물리를 부착하여 여기에 낚시를 여러 개 단 줄을 늘어뜨려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변화·발전하였다. 이를 죽변항 어민들은 ‘물레낚시’라고 부른다. 이때 물레는 손으로 직접 돌려 잡는 방식이므로 ‘수동 물레낚시’라고 부른다. 이후 전기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인 ‘자동 물레낚시’ 방식으로 발전한다. 당시의 오징어잡이 어선은 대개 3~4t 규모의 목선이었다. 오늘날 대규모 집어등을 설치하여 잡는 방식은 물풍선을 부착한 자동 조획기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오징어를 포획한다.

돛보낚시는 1970년대 초 경북 울진 봉수포구를 비롯하여 죽변항 등 동해 연안 해촌에서 성행한 오징어잡이 방식이다. ‘돛보’라고 부르는 추(錘)를 낚싯줄 중앙에 부착하여 원줄을 손으로 조작하며 잡는 줄낚시 방식이다. 죽변항의 어민들은 보통 두 개의 낚시와 추를 부착한 돛보낚시를 직접 제작하거나 선구점(船具店)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돛보에 집어등 역할을 하는 건전지를 이용한 방식은 50여 년 전인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그 이전에는 남폿불(석유에 심지를 꽂아 불을 켜는 램프)을 이용해 오징어를 잡았다. 당시에 죽변항 어민들은 건전지를 부착한 돛보낚시를 ‘전기돛보’라고 불렀다. 어민들은 선구점에서 건전지(일명 ‘빡작이’)가 부착된 돛보낚시를 구입하거나 건전지 뭉치만을 별도로 구입해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어민들이 ‘작은 배’라고 부르는 3~4t 규모의 어선에는 5~6명의 어민이 승선해 작업에 나서며, ‘큰 배’라고 부르는 5~6t 규모의 어선에서는 15명 이상의 선원



오징어 자동 조획기



집어등

오징어잡이 | 경북 울릉 | 2017 | 한국교육방송공사·공유마당

이 작업한다. 오징어 채낚기는 물레와 집어등, 돛보낚시 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포획하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뜻한다. 외줄에 달린 여러 개의 낚시를 바다에 늘어뜨려 낚시마다 한 번에 오징어를 포획하는 기술을 으뜸으로 쳤다. 죽변항 어민들은 이 기술을 두고서 ‘오징어를 붙인다’라고 말한다. 당시 오징어를 잡기 위한 낚싯줄의 길이는 대개 1m가량으로, 여기에 20자루의 낚시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자루는 낚싯바늘 1개를 뜻한다. 자루와 자루 사이의 간격은 보통 1m이다. 또 물레를 통해 감아올리는 뒷줄은 보통 30~50m 규모이며, 낚시 자루를 부착한 줄은 대개 바닷속 40~50m 아래로 내려 조업하였다. 당시 작은 배의 경우 해 질 무렵 조업에 들어가 다음 날 해 뜰 무렵까지 선원 1명당 100고지가량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오징어 1고지는 20마리를 뜻하며, 1두릅과 같은 수량이다.

수동 물레가 등장할 무렵 ‘살살이’라고 부르는 오

징어잡이 방식이 함께 등장하였다. 살살이는 외줄낚시 방식이다. 외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차례로 부착하여 손으로 뒷줄을 움직여 오징어를 유인하여 잡는 방식이다.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 손놀림을 정교하게 움직여 잡는 방식이므로 ‘살살이’라고 불렀다. 살살이의 낚시 모양은 돛보낚시와 구별된다. 살살이 낚시는 모양이 둥근 돛보낚시에 비해 납작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손으로 움직이며 오징어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돛보낚시에 비해 훨씬 가볍다. 살살이 방식은 자동어획기가 주로 사용되는 현재에도 어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특징 및 의의 오징어 철이 되면 죽변항에는 붙박이 선구점 외에도 외지에서 들어온 이동식 선구판매상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오징어 회유지를 따라 항포구를 이동하며 돛보낚시를 비롯한 어구를 판매하였다. 1970년대 당시 죽변항은 여름오징어 철인 8월 무렵과 겨울오징어 철인 11~12월경에 성황을 이뤘다. 이 시기는 여름 오징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회유하는 기간이며, 겨울 오징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기간이다. 어민들은 오징어가 북쪽에서 남하하는 8월경 해가 질 무렵에 오징어잡이에 들어가 다음 날 해 뜰 무렵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다. 당시 오징어를 많이 잡는 어선은 1일 2회 오징어 조업을 하기도 하였다. 여름오징어는 대개 1개월 지속된다. ‘물레’라고 부르는 수동식 롤러가 등장하고 이것이 자동식으로 변화하면서 죽변항은 오징어 집산지로 명성을 떨쳤다. 남쪽불을 이용하던 것에서 건전지를 이용한 집어등이 도입되고, 손으로 직접 잡는 방식에서 수동 물레로 더 나아가 자동 물레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오징어 생산량이 급증하였다고 어민들은 기억한다. 이 무렵 죽변항은 ‘이까 개락’이라는 향언^{향言}과 ‘죽변항의 개도 지전을 물고 다닌다’는 향언이 회자될 정도로 오징어어업 전진기지로 거듭났다.

참고문헌 모래 위에 세운 터전 속초시 청호동(김창호·이수근·이유리, 국립민속박물관, 2014), 뱃볼 푸른 동해에서 피어나다(심일종·박재홍, 경상북도·국립민속박물관, 2009), 사람과 문화의 동해포구사(허영란 외, 민속원, 2021), 오징어와 함께한 울릉도 사람들(김경도·유기선, 울릉군·독도박물관, 2016), 이미지와 상상의 동해포구사(허영란 외, 민속원, 2021), 처음 만나는 동해포구사(허영란 외, 민속원, 2021).

필자 남효선(南孝銑)

정의 오징어 포획을 위해 하나의 낚싯줄에 여러 개의 오징어낚시를 아래로 연이어 달아 놓은 기계식 어구.

내용 오징어채낚시는 외줄의 낚싯줄에 50~60개의 오징어낚시를 자동조획기 또는 자동조상기에 연결하여 물레(롤러, 자새)를 자동으로 감아올리고 내리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오징어를 낚아 올리는 기계식 어구를 이용한 어법이다. 죽변항을 비롯한 동해 연안에서는 동력형 채낚기 어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오징어 낚싯대를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낚는 방식과 ‘돛보낚시’라고 부르는 외줄낚시법으로 오징어를 잡았다. 이후 돛보낚시는 물레와 유사한 도구인 롤러를 부착하고 여기에 낚시를 여러 개 단 줄을 늘어뜨려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변화·발전하였다.

조획기는 사람이 손으로 손잡이를 돌리며 조업하는 수동조획기와 선박에 설치한 자가발전기의 동력을 이용하여 정전과 역전을 반복해 낚싯줄에 반동을 주는 자동조획기로 나뉜다. 죽변항과 울릉 지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자동조획기가 보편화되었다. 다만 조업에는 조류 등의 상황에 따라 수동식과 자동식이 혼용되며 ‘살살이’라고 부르는 외줄낚시법이 병행되기도 한다. 살살이는 외줄낚시 방식으로 외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차례로 부착하여 손으로 뒷줄을 움직여 오징어를 유인하여 잡는 방식이다.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 손놀림을 정교하게 움직여 잡는 방식이므로 ‘살살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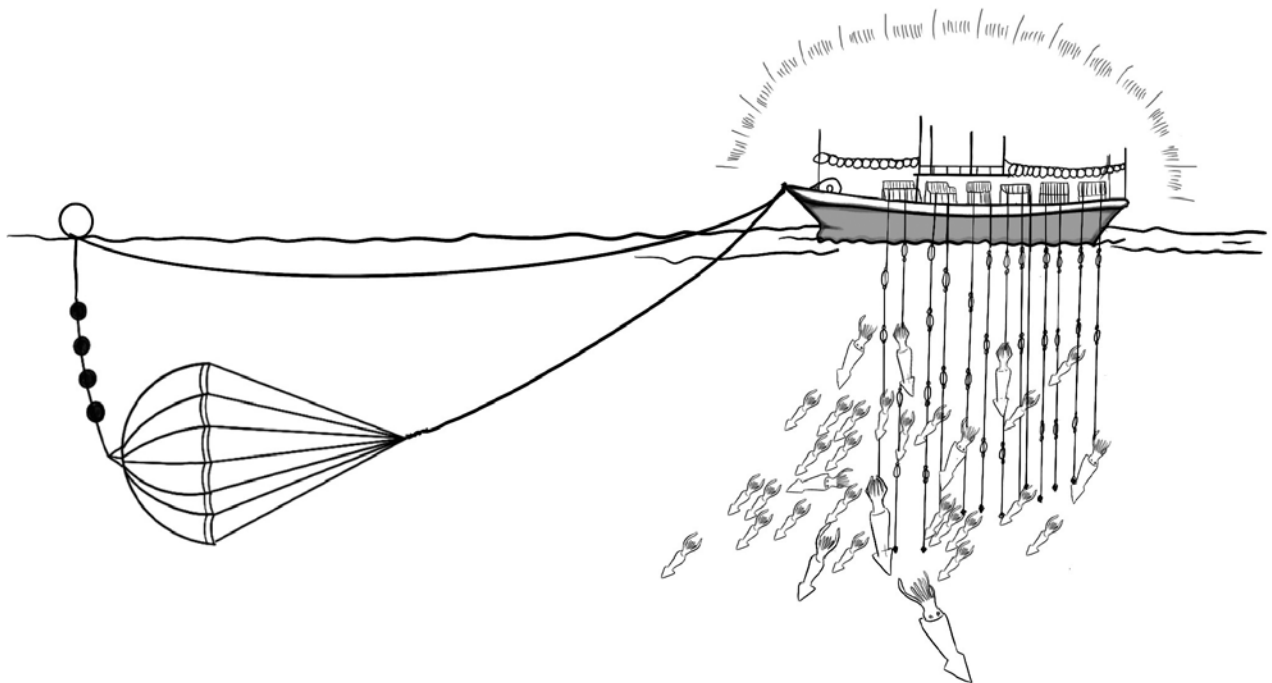
오징어잡이 어선 | 2020 | 채지형·공유마당

살살이 낚시는 모양이 둥근 돛보낚시에 비해 납작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손으로 움직이며 오징어를 유인하는 방식이므로 돛보낚시에 비해 훨씬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살살이 방식은 자동어획기가 주로 사용되는 현재에도 어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수동조획기는 배의 가장자리에 장착한 물레에 원줄과 낚싯줄을 연결한 방식이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낚싯줄을 끌어 올려 오징어를 잡는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낚시는 1m 50cm 간격으로 30개가량을 부착한다. 수동조획기는 선원 한 명이 한 대씩 맡아 작업하며 낚싯줄이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획기의 간격은 2m 50cm가량 띄워 설치한다. 선장이 조류의 움직임과 수온 등을 면밀하게 살펴 조업 장소를 정해 ‘씨앙카’(시앵커sea anchor, 물풍선, 물밑낙하산)를 내리면 조업이 개시된다. 채낚기어선의 선원은 각자의 물레가 설치된 자리에 앉아 물레를 조종하며 오징어잡이에 들어간다. 잡아 올린 오징어는 롤러 대 위에 자동으로 떨어지며, 낚시가 다 올라오면 롤러를 풀어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한다.

수동조획기는 사람이 직접 물레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므로 어장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회유하는 오징어 어군이 적을 때 효과가 크다. 자동조획기는 수동 롤러 대신 전기동력을 이용해 낚시에 자동으로 상승 하강의 반동을 주어서 오징어를 잡는 기구이다. 자동조획기 1대에 낚시 2조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조획기를 관리할 수 있다. 자동조획기는 컴퓨터로 반동주기와 오르내림의 폭을 조정하는데, 이를 ‘사쿠리’라고 부른다.

특징 및 의의 죽변항에서는 1990년대 중엽부터 오징어채 낚시가 본격 도입되었다. 자동식 기계로 조업을 하는 만큼 오징어 어군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조업 효과가 크다. 반면에 오징어 어군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효과가 절반 이상 떨어진다. 24t 규모의 채낚기어선은 일반적으로 조상기 여덟 대를 설치한다. 최대 1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수동물레는 대개 10명이 작업한다. 오징어 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앵커(씨앙카)를 내리는 위치를 선정하는 일이다. 시앵커를 내리는 위치를 정하는 일은 선장이나 선주의 몫이



다. 많은 경험의 필요하므로, 선장 또는 선주는 조류의 움직임과 오징어 어군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핀 뒤 수심을 조절하여 시앵커를 내린다. 그래서 죽변항의 오징어잡이 선주들은 ‘씨앙카가 오징어를 잡아 준다’고 여긴다.

참고문헌 동해의 전통어업기술과 어민(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2012), 뱃불 푸른 동해에서 피어나다(심일중·박재홍, 경상북도·국립민속박물관, 2009), 오징어와 함께한 울릉도 사람들(김경도·유기선, 울릉군·독도박물관, 2016), 현지조사자료(남성목, 경북 울진, 2021.6.10.), 디지털울릉문화대전(ulleung.grandculture.net).

필자 남효선(南孝鎭)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정의 얇은 수심과 조수 간만의 차이 등을 이용한 완도 지역의 전통적 김 양식 방법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

내용 문헌상 김이 토산품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초인 것으로 보인다. 김은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 토산품에 ‘해의海衣’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며,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중국 명나라에 조공품 중 하나로 ‘해의’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 김을 특산품으로 인식하였으며, 양식을 하지 않고 채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주요 생산지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연안의 21개 군현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는 김의 생산지가 34개 군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 강원도 동해안 지역까지 김을 생산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 동해안 지역에서 김이 생산되었다고 하여 김 양식이 당시 우리나라 연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해안 지역은 파도가 거칠고 수심이 깊어 김 양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 생산 또한 대개 ‘짬’이라고 불리는 바위에서 마을 공동체가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어보慈山魚譜』에서도 다양한 김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돌에 번식하고 있어 이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 전남 완도 | 2021 | 국립민속박물관

를 채취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양식과 관련된 기록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선 인조 때 전라남도 광양 사람인 김여익이 바닷가에 떠밀려 온 대나무에 김이 붙어 자라는 것을 보고 광양 태인도 주변 섬에 대나무로 만든 썰을 꽂아 김을 양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썰을 만들 조릿대를 박아 김을 양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처럼 대나무(혹은 나무)를 박아 양쪽에 밧을 거는 것이 아니고, 썰을 갯벌이나 얇은 바다에 꽂아 넣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이후 조선 후기부터 광양 남해안 일대에서 썰을 이용한 김 양식 재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전국적으로 김 양식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듯하다.

한편 19세기 전남 완도 지역에서는 단순히 썰을 이용한 것을 넘어 대나무 살을 엮은 때발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조선 철종 시기 완도군 조약도에 살았던 정시원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 놓은 죽방렴에 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대나무 살을 갯벌에 꽂아 김 양식

을 하였다고 한다. 배수환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완도 인근과 섬진강 하구 등 남해안에서는 김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경술국치 직후인 1910년대 완도를 방문한 일본인이 수평발로 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폐발식 김 양식법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김 양식 방법은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수평발의 모체라고 보았다.

즉 20세기 초반 완도 지역의 김 양식은 17~18세기의 썰 방식에서 발전하여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 대나무나 나무를 꽂고 양쪽에 걸어놓은 폐발이 해수면과 마주 보고 있는 수평식으로 바뀌어 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일본에서 폐발 양식을 개량한 ‘뜯발 양식’이 개발되면서 지금의 ‘지주식 김 양식법’과 유사한 ‘수평 김 양식기법’으로 개량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전국 각지에서 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조합이 설립되었고, 김 또한 양식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완도군에 ‘해태어업조합’이 설립되고 ‘해태전습소’가 운영되면서 현재 지주식 김 양식법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김 양식은 조선 내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동아일보』 1928년 8월 2일 자 기사 <도서순례 완도해방면(8)> 내용에 따르면 이 조합은 함경도 명태조합에 버금가는 규모였으며, 조합원이 6,925명에 달하였다. 당시 가격은 김 한 묶음의 값이 1~3원가량이었으며, 값이 비싸 현지에서도 김을 먹지 못하고 대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광복 이후 김 양식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김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수가 이전에는 약 800만 속(1속당 100장)이었으나 광복 이후인 1948년에는 489만 속 수준으로 준 데 이어 1950년대에는 100속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주식 재배로 인한 김 양식이 다시 활발하게 성행하게 된 것은 1965년 한일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김이 일본에 대량 수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일본으로 수출되는 김의 90%가 완도산이었다.

1970년대 말부터 완도 지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늘면서 고금도의 김 양식은 포화상태였다. 화룡리·상정리·도남리·적잔리·항동리·가교리·세돌



재래식 김 양식장



재래식 김 채취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 전남 완도 | 2015 | 완도군

리 등 주변에 있는 섬 일대를 김밭이 빈틈없이 에워쌌을 정도였다. 김 양식 방식은 부류식으로 대체되면서 1990년대 후반 지주식 김 양식은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개포 간척사업으로 해류가 변화하고, 김 양식 외에 굴 양식 등 다른 양식업이 고금도 주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주식 김 양식 재배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청룡리·가교리·봉명리 등 일부 지역은 현재도 지주식 김 양식을 이어가고 있다.

지주식은 대나무나 나무 기둥을 세워 김밭을 매는 방식이고, 부류식은 부표를 띄워서 김밭을 매는 방식이다. 지주식은 만조선과 간조선의 사이 부분인 조간대, 수심 10m 내외의 바다나 갯벌 또는 갯골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부류식은 해역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1월부터 다음 해 3~4월까지 채취한 김은 발장에 김뜨기를 한 후 건조장에서 하루 정도 말렸다. 건조 작업은 보통 집 앞마당에 설치하였으며, 김 채취량이 많은

어민의 경우 논과 밭에도 건조장을 설치하였다. 건조장 위치는 김의 품질을 좌우하므로 남향이면서 토양의 배수가 잘되고, 바람이 잘 드는 곳을 골라 건조장을 설치하였다.

1960년대 인공 채묘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자연 채묘에 의한 김 양식이 이루어졌다. 자연 채묘는 김밭에 방사무늬김이 붙는데, 방사무늬김은 번식력이 좋고 환경적응력이 뛰어나 생산성도 높다. 이러한 김은 생산량의 70%가 김밥용 김으로 가공된다. 완도 소안도에서는 현재도 자연 채묘에 의한 부류식 김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완도 고금도에서는 자연 채묘와 함께 바다 갯바위에 자라고 있는 돌김에서 채취한 포자를 이용한 긴잎 돌김을 양식한다. 돌김은 중성포자가 나오지 않아 채묘 후 3~4회만 채취할 수 있어 10회 정도 채취가 가능한 방사무늬김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적다. 돌김은 23℃에서 채묘를 할 수 있지만, 방사무늬김은 23℃ 이하에서 채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지주식 김 양식은 채묘시기에 차이를 두어 인공 채묘한 김과 자연 채묘한 김을 함께 양식한다.

특징 및 의의 김 양식의 시작은 전남 광양 태인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유력하고, 남해안 일대와 완도 근해에서 전통적인 김 양식이 이루어졌다. 완도 지역에서는 오늘날의 지주식 김 양식 방법이 구한말부터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완도 지주식 김 양식 방식은 근대적인 김 양식 기술의 변천과 발전, 생산량 등을 고려한다면 그 위상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지주식 김 양식은 지역 어민들이 여름철 우기와 겨울철 갈수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주대 세우는 방법을 달리 하고, 어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 기술을 도입하는 등 오랜 세월을 걸쳐 어민들의 경험지식이 쌓여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완도 지역의 전통적인 김 양식법의 가치를 인정하여 어업자원과 기술을 보존하고자 2017년 12월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로 지정하였다. 또한 양식 도구 지원, 양식어장 환경 관리 등 전통 지주식 양식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 양식 기술발전 과정의 한·일비교(김연수, 한국도서연구29-2, 한국도서학회, 2017), 완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설명서(완도군, 2017), 우리나라 김 양식업의 발달과 발달과정-1 조선왕조실록까지의 김 양식사(배수환, 한국수산과학회지24-3, 한국수산과학회, 1991), 우리나라 김 양식업의 발달과 발달과정-2 일제치하의 김 양식사(배수환, 군산수산전문대학 연구보고25-1, 군산대학교, 1991), 전통적 김 양식 기술의 전개와 의례의 상관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송기태, 도서문화5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9), 도서순례 완도해방면8(동아일보, 1928.8.2.), 국가중요어업유산(국가중요어업유산.kr).

필자 윤경식(尹璟植)

외끌이기선저인망

정의 긴 자루 모양의 그물 양쪽 끝에 날개그물을 연결하고, 날개그물 양쪽 끝에 기다란 끌줄과 후릿줄을 연결한 어망漁網을 삼각형 또는 마름모꼴로 투망投網하여 끌줄과 후릿줄이 일직선으로 오르라들 때까지 어선을 전진시켜 해저海底에 서식하는 어류 등 수산동물을 후려 모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어구漁具.

개관 외끌이기선저인망은 줄 등으로 수산동물을 후려서 잡는 후릿그물류에 속하며, 이러한 그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초기에는 줄의 한 쪽 끝을 해안에 고정하고, 인력으로 줄과 그물을 바다로 끌고 가서 해안으로 되돌아와 줄과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려 어획하는 갯후리(지인망地引網)이었다. 이 갯후리가 무동력선을 이용하여 줄과 그물을 바다로 끌고 가서 해안으로 되돌아오는 배후리로, 배에 그물을 신고 좀 더 먼 바다로 이동하여 조업하는 손방으로 발달하였다. 이 손방을 동력어선으로 더 먼 바다로 나가고 기계적으로 양망揚網할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이 외끌이기선저인망이다. 현재 갯후리는 일부 지역에서 체험어업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배후리나 손방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외끌이기선저인망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다.

내용 외끌이기선저인망은 후릿줄과 끌줄을 연결한 그물을 삼각형 또는 마름모꼴로 투하한 다음 끌줄을 끌어

끌줄과 후릿줄이 오르라들면서 수산동물을 그물 속으로 후려 몰아넣어서 잡는 어구이다. 그물의 이동이 거의 없고, 끌줄과 후릿줄에 의해 포위된 수산동물만을 어획할 수 있으므로 끌그물이 아닌 후릿그물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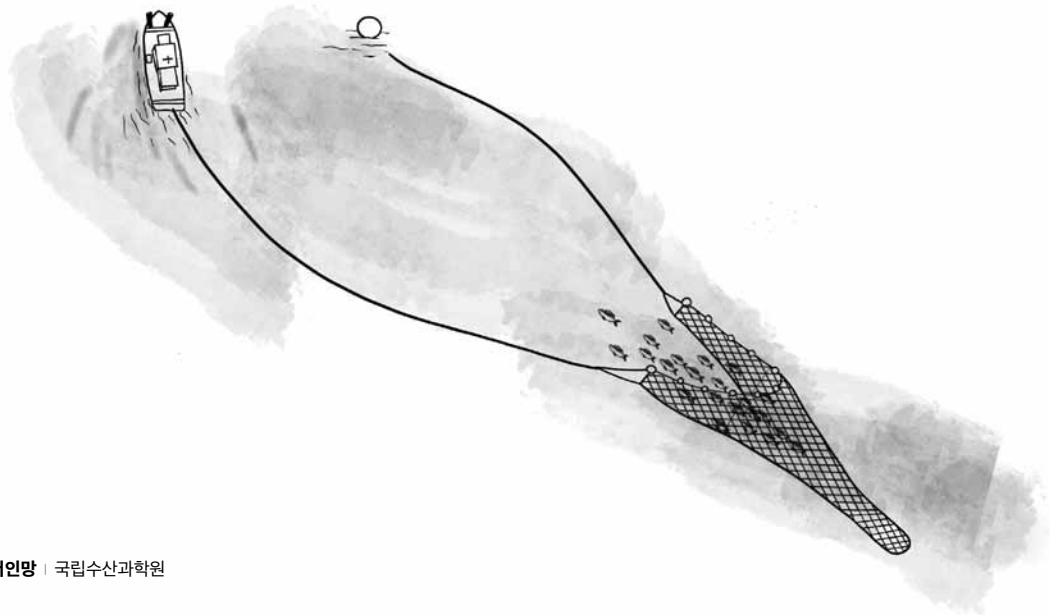
외끌이기선저인망의 어획효율은 발줄이 해저에 밀착하고 빨리 오르라들지 않는 것이 좋다. 끌줄과 발줄은 섬유로프를 쓰는데, 끌줄과 발줄이 1,000m 이상으로 길어서 드럼 같은 것에 감을 수 없어 갑판에 줄을 사려 놓기 편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줄은 다른 저인망 어구와 같이 보빈 같은 것을 잘 쓰지 않고, 와이어로프에 현 그물감(망지網地) 등으로 지름 5~8cm 덧감기한 것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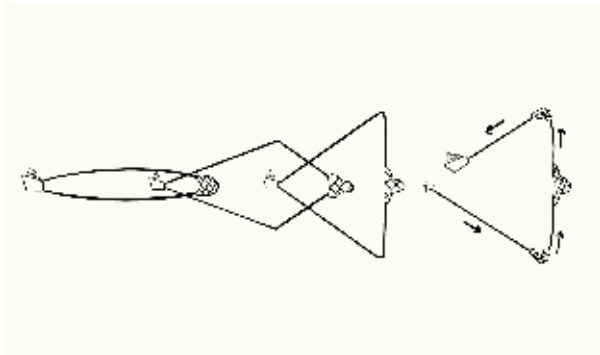
외끌이기선저인망은 어구를 투망하기 위해 그물을 조업 갑판의 좌현 쪽에 정리해 놓는다. 이때 자루 입구가 안쪽으로, 끝자루 끝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한다. 투망할 때 배의 우현 쪽에 오는 날개는 선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좌현 쪽 날개는 선수 쪽으로 향하게 한다. 우현 쪽 날개에 붙은 줄은 좌현 선미에 놓고, 좌현 쪽 날개에 붙은 줄은 배의 상부 구조물 뒤로 돌아 우현 선미에 위치하도록 정리한 후 우현 쪽 끌줄 끝에 부표를 단다. 선장의 투망 지시가 내려지면 부표를 투입하고, 끌줄을 내어 주면서 어선을 예망 예정 방향의 150° 정도 오른쪽으로 돌려 전속 전진시킨다.

끌줄이 다 나가고 후릿줄과 연결한 부분이 오면 선

수艀首(뱃머리)를 오른쪽으로 약 90° 돌린다. 후릿줄이 거의 다 투입될 때 선수를 오른쪽으로 약 30° 돌리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시키면서 그물을 투입한다. 그물이 거의 투입되면 다시 배를 전속 전진시켜 선수를 다시 오른쪽으로 약 30° 돌린다. 후릿줄과 끌줄 사이의 체인이 투입되고, 선수를 오른쪽으로 약 120° 돌려서 전진시키면 우현 쪽 끌줄이 거의 다 나갈 무렵에 부표에 도달하게 된다. 우현 쪽 끌줄 끝고리는 미리 우현 쪽 스톱퍼에 걸어 놓고, 부표를 건져 올려 거기에 묶인 좌현 쪽 끌줄 끝고리를 끌어서 좌현 쪽 스톱퍼에 건다. 투망이 끝나면 그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좌우의 끌줄과 발줄이 나란히 될 때까지 배를 1.5~2kt 속도로 전진시킨다.

50분 정도 배를 전진시켜 좌우의 끌줄이 나란해지면 전속으로 10분 정도 어구를 끌어서 자루 입구에 배회하는 수산동물을 완전히 자루에 몰아넣는다. 그다음에 선수를 그물 방향으로 180° 돌려 끌줄을 롤러를 사용하여 윈치winch드럼에 감으면서 선미 양 현 통로에 차례로 사린다. 이때 끌줄을 선수 롤러로 가져가기 위해 돌림줄을 이용한다. 줄이 다 올라오면 돌림줄을 사용하여 그물을 좌현 쪽으로 가져와서 끌어 올리고, 끝자루를 데릭 혹derrick hook에 걸어서 올린 다음 갑판 위에 어획물을 쏟아 낸다. 어획물을 분리하고 어창에 넣은 다음에 그물을 다시 투망 전의 상태로 정리한다. 이





외끌이기선저인망 | 신종근

때 후릿줄과 끌줄 등은 차례로 뒤집어 맨 먼저 올라온 끝이 위로 와서 풀려나가기 쉽도록 정리하며, 그 끝을 다시 부표에 묶어 언제라도 투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다.

특징 및 의의 외끌이기선저인망의 장점은 어군탐지기 등으로 수산동물을 발견한 즉시 투망하므로 어획에 실패할 확률이 낮고, 끌어구에 비해 저질 상태가 나쁘거나 협소한 어장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이 적고 해저에 모여 있는 수산동물의 어획에 유리하다. 반대로 단점은 매우 긴 끌줄과 후릿줄이 필요하며 줄을 사리는 데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주로 조업하는 시기는 9월 초부터 다음 해 6월 말까지이며, 7~8월은 휴어기이다. 주로 잡는 수산동물은 가자미류, 조기류, 눈볼대, 아귀, 갈치, 가오리류, 서대류 등이다.

참고문헌 고등학교 해양생산기술-상·하(경상남도 교육청, 창원종합인쇄, 2011), 어구분류 및 각부명칭(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물학원, 1987), 어업-상·하(부경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대한교과서, 2002), 한국어구도감(배봉성 외, 국립수산물학원, 2008), Pair trawling and pair seining-the technology of two boat fishing(David Thomson, Fishing News Books, 1978), 日本漁具・漁法圖說(金田禎之, 成山堂, 1978).

필자 신종근(辛鍾根)

외줄낚시

정의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기 위해 한 개의 낚싯줄에

한 개 혹은 여러 개 낚싯바늘을 달아 놓은 낚시어구.

내용 외줄낚시에는 대낚시, 손줄낚시, 끌낚시 등이 있다.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낚시는 낚싯대를 사용하며, 손줄낚시는 낚싯대 없이 줄감개에 낚싯줄을 감아서 하고, 끌낚시는 배가 낚싯대를 끌고 가면서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줄 하나에 하나의 바늘만을 사용하였지만 최근 들어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기도 한다.

외줄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싯줄, 낚싯바늘, 봉돌 그리고 미끼가 필요하다. 낚싯줄은 과거에는 면사(綿絲)를 사용하였으나 합성섬유가 나오면서 나일론으로 교체되었다가 지금은 폴리에틸렌 합사PE, 나일론, 카본(탄소선) 등을 사용하고 있다. 낚싯바늘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미늘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을 잡을 때는 미늘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바늘의 크기나 모양은 대상 어종의 종류, 크기, 입의 크기, 식성 등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미끼는 자연산 혹은 속임낚시를 사용한다. 자연산 미끼는 활동 미끼, 선어 미끼, 냉동 미끼, 염장 미끼 순으로 좋고 전해진다. 선망어업과 달리 외줄낚시는 어구 구입비가 적게 들고 활어 상태로 위판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대상 어종 역시 돔, 농어, 방어, 가자미, 복어 등의 고급 어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 연안과 남해안에서는 방어 외줄낚시를 사용한다. 제주에서는 살아 있는 자리돔을 미끼로 사용하는데, 자리돔의 등에 바늘을 꿰고 줄을 풀면 움직이는 자리돔을 방어가 먹는다. 손에 전달되는 느낌으로 방어가 걸린 것을 확인하면 줄을 당겨 잡는다. 또는 복어 껍질이나 방어의 껍질을 길게 잘라 만든 속임낚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비닐로 제작된 것도 많이 사용한다. 거문도와 방어진에서는 속임낚시를 이용해 방어를 낚는다.

문어 외줄낚시는 주로 강원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스티로폼 부이(buoy, 부표)에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한다. 미끼는 천이나 비닐을 길게 잘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소금에 절인 돼지비계를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모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 낚싯대 혹은 자새(얼레)에 줄을 연결

하고 배 위에서 조업하는 것과 달리 문어 낚시는 부이를 바다 위에 던지고 그 밑에 줄이 달려 있다. 개별 부이가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신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경험과 감각으로 문어가 걸린 것을 파악해야 한다. 부이가 조류를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거나 정지되어 있을 때 낚시를 끌어 올린다.

끝낚시는 어구를 수평 방향으로 끌어 물고기의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남해안에서 삼치나 방어를 대상으로 조업을 한다. 바늘을 일정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를 사용하며, 끌고 가는 도중 미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속임낚시를 많이 사용한다. 조류 방향으로 바늘을 던지고 낚시를 끌고 다니다가 대상물이 걸린 감각이 오면 줄을 끌어 올려 어획물을 떼어내고 다시 낚시를 던지는 것을 반복한다. 조업은 낮에 이루어진다.

충청도에서 보구치와 농어, 인천·경기에서 민어, 강원도·경상도에서 광어, 전라남도 남해안에서 도미, 충청도와 전라도 서해안에서 농어, 전라북도 군산에서 봉장어 등을 외줄낚시로 잡는다.

특징 및 의의 외줄낚시는 어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즐기는 낚시법이다. 낚싯줄과 낚싯바늘만 있으면 외줄 낚시라고 부를 수 있으며, 대상 어업에 따라 바늘의 종류와 미끼 등을 결정한다. 어부들은 고급 어종을 잡아 활어로 팔기 위해서 외줄낚시를 한다.

참고문헌 알기쉬운 한국의 어업(국립수산과학원, 2010),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어업용구(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한국어구도록3(국립수산진흥원, 1968).

필자 편성철(片成哲)

우렁이잡이

정의 맨손 또는 간단한 어구로 우렁이를 잡는 일.

개관 우렁이는 우렁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옛



우렁이 | 충북 청주 | 2018 | 박종익

문헌에는 전라田螺·토라土螺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논고동 또는 골뱅이라고 부른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에는 전라를 ‘울렁이’라 하고, “모양이 달팽이와 비슷하며, 그 껍데기는 나사 모양을 이룬다. 색깔은 청황색이고, 논·호수·개천에 산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논이나 소택지沼澤地에 주로 서식하는 우렁이는 근년에 농약의 오염으로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우렁이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물풀이나 플랑크톤과 같은 작은 생물을 먹이로 삼는다.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 수컷의 오른쪽 측수는 구부러져 있어 생식기 기능을 한다. 한 마리의 암컷은 40~1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새끼는 알로 태어나 어미의 몸속에서 부화하여 밖으로 나온다.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1년 정도 자라면 생식능력을 갖춘다.

내용 우렁이잡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6월 이후 여름과 가을이 적기이다. 이 무렵이 되면 논바닥에 깊이 들어간 월동한 우렁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논에 서식하는 우렁이잡이의 경우 벼농사의 주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논에 모를 심으려면 물을 잡고 몇 번의 갈이를 하여야 한다. 특히 모내기 직전에는 흙을 고르는 썰레질과 번지질을 하는데, 바로 이때가 우렁이잡이의 호기이다. 우렁이는 별도의 도구나 어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채취할 수 있다. 단지 눈에 띄는 우렁이를 맨손으로 잡아 바구니나 그릇에 담으면 그만이다. 최근

도시 근교에서는 농촌 생태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우렁이잡이가 종종 활용되는데, 뜰채와 유사한 작은 어구로 우렁이를 건져 올린다.

우렁이는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체이다. 따라서 논이나 하천 주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황새·백로·왜가리 등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모내기가 끝난 들녘에서는 으레 새들이 무리를 지어 우렁이·개구리·들쥐 같은 먹이를 잡아먹는데, 농부들은 벼의 성장기에 큰 새들이 논으로 날아드는 것을 길조로 여겼다. 벼농사에 피해를 주는 각종 애벌레와 들쥐 따위를 함께 잡아먹는 까닭이다.

왕우렁이를 벼농사의 제초에 활용하는 농법은 우렁이잡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즉 논에 방사된 왕우렁이는 벼 이삭이 팠 무렵에 제초의 임무를 마치고 논을 벗어나 주변의 하천이나 저수지로 이동하여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면 갑자기 불어난 왕우렁이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야생에서 성장한 왕우렁이는 육질이 질기다. 이 때문에 식용할 경우 배춧잎 등의 채소를 먹이로 주며 일주일 남짓 양식한다.

특징 및 의의 우렁이는 무논을 비롯해 도랑이나 하천 등에 서식한다. 어미 우렁이는 봄철에 산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40~1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이렇게 태어난 우렁이는 진흙바닥이나 수초에 점착해 성장하는데 불과 두세 달이면 성체에 이른다.

이렇게 성장한 우렁이는 쉽게 눈에 띈다. 이 때문에 눈에 띄는 우렁이를 손으로 건져내는 방식으로 우렁이를 잡는다.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우렁이는 뜰채와 같은 도구로 건져낸다. 또 겨울철의 경우 논에서 우렁이를 잡기도 한다. 논 가운데 용천湧泉이 있는 경우 논바닥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곳을 택해 논바닥을 판 뒤 그 속에서 겨울을 나는 우렁이를 잡는다.

한편 근래에 왕우렁이의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렁이양식이나 우렁이농법에 왕우렁이가 수입되어 보급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우렁이농법에 동원되는 왕우렁이는 논 속의 잡초나 해충, 플랑크톤을 먹고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왕우렁이는 논에서 성체가 된 후 홍수기에 하천으로 이동한다. 이들 왕우렁이 또한 맨손으로 잡거나 뜰채 등으로 건

져 잡는다.

참고문헌 閨閣叢書, 蘭湖漁牧志,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익(朴鍾翼)

우뭇가사리채취

정의 조간대潮間帶의 바위에 착생하여 서식하는 우뭇가사리를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뜯거나 베거나 캐는 일.

개관 우뭇가사리는 우뭇가사릿과의 홍조류 식물로 길이가 10~30cm이며, 조간대의 중부와 하부에 있는 바위에 착생한다. 우뭇가사리는 넓게는 애기우뭇가사리·막우뭇가사리·실우뭇가사리·개우뭇가사리 등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좁게는 참우뭇가사리만을 지칭한다. 우뭇가사리는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른다. 부산·통영·거제 등지에서는 ‘우무’ 혹은 ‘천초’라 부르고, 강원도 일대에서는 ‘한천’이라 일컫는다. 제주도에서는 ‘우미’라 부르며,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어장을 ‘우미바당’이라 한다. 우뭇가사리는 일반적으로 ‘가사리’로 불리며, 모양과 형태가 소의 털과 비슷하다 하여 ‘우모’ 또는 ‘우모초’라 부르기도 한다. 우뭇가사리는 가공을 통해 식용할 수 있으며, 묵 형태로 만든 것을 ‘우뭇가사리묵’ ‘우무’ ‘우묵’이라 부른다. 우뭇가사리는 한천寒天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내용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의 기록을 보면 울산 기장현(현 부산광역시 기장 지역)의 토산물로 우모가 언급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도 진도의 특산물로 소개되었다. 『도문대작屠門大嚼』(1611)에는 “바닷가에서 나는 해초에 우모라는 것이 있는데, 열을 가하면 녹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하여 묵을 만든다.”라고 기록되었다. 『해동죽지海東竹枝』(1925)에는 “우모초는 해마다 여름이면 남해안에

서 생산되는데, 우뭇가사리로 투명한 우모포(牛毛泡)를 만들어 궁궐에 진상하며 목을 가늘게 썰어 초장을 쳐서 냉탕으로 만들어 마시면 상쾌하기 때문에 더위를 씻을 수 있고 갈증을 덜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뤄 우뭇가사리를 식품으로 이용한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특히 여름철 별미로 식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어업·수산업 협동조합으로 ‘거제한산도곽전조합’이 설치되었을 정도로 우뭇가사리는 미역과 함께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조류였다.

우뭇가사리를 비롯한 해조류는 채취방식과 도구의 사용 여부에 따라 표현이 다르다. 일반적인 해조류 채취 작업은 ‘맨다’ ‘훅는다’ ‘긴는다’라고 말하며, 별다른 도구 없이 맨손으로 채취할 때는 ‘뜯는다’라고 표현한다.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장소는 주로 연안에서 가까운 갯바위이다. 그래서 ‘갯밭’이라 부른다. 해녀들은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 장소를 일컬어 ‘바다 밭’이라 한다. 우뭇가사리는 바닷물이 썰물일 때 갯바위에 붙어 있는 것을 맨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뜯거나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거나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해녀들이 물질하여 바닷속에서 채취한다. 채취한 우뭇가사리는 곧바로 햇볕에 말려 건조한 후 바짝 마른 우뭇가사리를 민물에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다시 건조한다. 이런 과정을 10여 차례 반복한다. 건조와 세척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우뭇가사리의 색깔은 점점 흰색이 된다.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시기는 대개 4~7월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적살’이라 부르는 부유물이 우뭇가사리의 표면에 부착된다. 적살이 붙으면 손질이 번거롭다. 경상남도 거제 통영 지역에서는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 일반초·이반초·삼반초·사반초·오반초 등으로 구분한다. 일반초에서 삼반초까지는 적살이 없어서 우뭇가사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손질하기 편하다. 사반초와 오반초는 적살이 많아서 손질할 때 빈 병이나 방망이로 두들겨 적살을 털어 낸다. 손질을 마친 우뭇가사리로 우무 콩국, 우무 냉채, 우무 무침 등을 만들어 먹는다.

특징 및 의의 우뭇가사리는 꾸준히 양식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뭇가사리의 서식환경과 생장 조

건이 양식업에 적합하지 않았던 탓이다. 지금까지 우뭇가사리는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것을 단순 채취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연안 갯바위에 붙어 있는 우뭇가사리는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채취할 수 있지만,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는 우뭇가사리는 해녀들이 물질로 채취한다.

참고문헌 우뭇가사리 채취방식과 한천의 상품화 과정(민경택, 도서문화5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0), 장흥 해역에서의 우뭇가사리 양식학적 연구(오성균,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용역 농경·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경상도 지역(한국예술종합학교 아태전통연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9).

필자 박정석(朴正石)

우해이어보 牛海異魚譜

정의 1803년 김려(金鑣)(1766~1822)가 우해(牛海)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특이한 어류를 연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연구서.

개관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저술되었으나 남아 있지 않고, 『담정유고(潭庭遺藁)』(1882) 권8에 수록되어 있다. 글자 수는 9,834자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연세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魚譜)이다. 상자에 오랫동안 보관된 글을 그의 조카 학연(鶴淵)에게 정서하게 해서 1권으로 만들었다고 책 마지막 붙이는 글에 적혀 있다.

『우해이어보』에 실린 어류는 총 106종이다. 이 중 72종은 대표 어종이고, 34종은 근연종(하위 어종)이다. 어류의 총수는 이전까지는 박원준(『한국 최초의 어보 우해이어보』, 2004)의 번역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은 대표 어종의 수를 계산할 때는 문제없지만, 근연종의 수에서는 수정이 약간 필요하다. 박원준 본에서는 ‘대게’ ‘명주조개’ ‘황소라’ 등을 대표 어종으로 파악하였으나, 『우해이어보』 원본에 따르면 대표 어종은 ‘게(蟹)’ ‘조개(蛤)’ ‘소라(螺)’ 등으로 되어 있어 앞의 명칭 3개는 근연종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박원준 본은 ‘전복’의 근연종을 ‘기와전복와복(瓦鰓)’과 ‘꼬막와룡자

『瓦礫子』 등 2개로 파악하였다. 실제 내용은 기와전북이 꼬막을 번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근연종은 기와전북 1개이다. 이를 종합하면 근연종이 2개 증가한 셈이다. 따라서 『우해이어보』에서 다룬 어류의 총수를 기존에 알려진 104종에서 106종으로 수정해야 한다.

『우해이어보』는 『자산어보』(자산어보 茲山魚譜)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 등과 함께 조선의 3대 어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난호어목지』(전어지)는 어류뿐만 아니라 육지 동물까지 다루고 있어서 온전한 어보는 아니다.

김려는 본관이 연안(延安)이고, 선조 때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1562~1613)의 후손으로 노론계 명문가 출신이다. 1797년 강이천(姜彝天)(1768~1801)의 유언비어 사건에 휘말리면서 함경북도 부령으로 유배되었다. 1801년 신유사옥(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진해로 유배지를 옮겼다. 이곳에서 『우해이어보』를 지었다. 이후 1806년 아들이 올린 상소로 10년 가까운 유배에서 풀려났다. 1812년 의금부를 시작으로 관직에 올랐고 이후 정릉참봉(靖陵參奉)·경기전영(慶基殿令)·연산현감(漣山縣監)을 거쳐 함양(咸陽) 군수 재직 중 세상을 떠났다.

내용 우해는 경상남도 진해(鎭海)의 옛 지명으로, 우산(牛山)이라고도 한다. 우산은 울티리(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와 고현리(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우산을 딴 명칭이다. 이어(異魚)는 특이한 물고기를 말한다. 즉 『우해이어보』는 진해 지역에서 나는 특이한 물고기를 연구한 어보라는 뜻이다.

『자산어보』나 전어지와는 달리,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고 한 어종씩을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자산어보』나 전어지와 같은 분류를 따라 구별하면 대표 어종 중 비늘이 있거나 없는 어류(인류(鱗類)와 무린류(無鱗類)) 53종과 껍데기 있는 어류(개류(介類)) 19종 등이다. 하위 어종으로 소개한 근연종 중 비늘이 있거나 없는 어류는 29종이고 껍데기 있는 어류는 5종 등이다. 김려는 여기서 껍데기 있는 어류, 즉 지금의 갑각류와 조개류를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이 점으로 보아 갑각류와 조개류를 본래는 어보(魚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산어보』는 226종의 해양 생물(바다 식물, 바다

벌레 등 포함)을, 『난호어목지』는 154종(전어지는 152종)의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를 다룬 데 비해서 『우해이어보』에 실린 어류 중 수가 적은 이유는 특이한 어류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서문에 따르면 『우해이어보』에서는 잉어, 상어, 방어, 연어, 민어 등 사람들이 잘 아는 어류를 다루지 않았다. 해마(海馬)·해우(海牛)·해구(海狗)(물개)·해저(海猪)(돌고래) 등 어족과 관계없는 동물도 제외하였다. 아주 작고 가치가 없어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해양 동물과 이름은 있으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해양 동물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라남도 신안 흑산도 주변 해양 생물의 다양함에 크게 자극받아 짓기 시작한 『자산어보』처럼 김려도 특이한 어류가 육지 동물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저술 동기는 서로 비슷하다. 하지만 저자가 알게 된 모든 해양 생물을 기록하려 하였던 『자산어보』와는 달리 특이한 어류만으로 탐구 대상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전체 어류종수는 적다. 이 같은 저술 의도는 훗날 농사짓는 사이에 애깃거리로 삼기 위함일 뿐 학식이 넓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저자의 겸사(謙辭)(겸손의 표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진해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김려는 섬들과 가깝고 집이 바다에 닿아 있는 곳에서 살았다. 그곳은 울현촌(栗峴村)(울티리)의 소금 굽는 사람 이일대(李日大)의 집이었다. 이곳에서 뱃사람이나 어부와 허물없이 지내면서 어류를 좋아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대바구니와 낚싯대를 들고 주인집 어린아이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며칠 밤을 새우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우해이어보』의 탄생 배경이다.

각 어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되어 있다. 어명, 이명(異名), 형태, 습성, 요리법, 맛, 효능, 어획 방식 및 어구, 유통방식, 어촌의 풍속 등인데, 내용이 소략한 항목은 이 중 몇 개만 갖췄다. 어명에 한글은 쓰지 않고 한자만 썼으며 한글음을 한문의 차자로 쓰면서 한자를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위의 서술 요소 중 가공법과 요리법을 소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감송(鮫鯨)(감성돔) 식해, 보라어(甫羅魚)(볼락) 젓갈, 말갈(鰻鱺)(매가리 즉 전갱이 치어) 젓갈, 용란

(삼치알젓), 자해紫蟹(대게) 포, 오로鰯鯢(갑오징어) 숙회, 와각탕瓦殼湯(조개탕) 등이 그것이다.

『우해이어보』에는 치료 효과를 설명한 대목도 있다. 문절어文節魚(문절망둑)는 불면증에 좋다고 하였고, 도골鰵魚은 치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음경海陰莖(개불)은 발기부전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와룡자를 생리불순 치료제로 시험해보라고 하였다. 『자산어보』나 전어지에서서도 치료 효능에 대해 설명한 항목은 있으나 서로 겹치는 대목은 거의 없다.

『우해이어보』에는 다양한 어로법도 소개하였다. 어뢰魚牢(어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 큰 나무로 울짙을 나란히 박고 그사이에 죽렴竹簾(대나무발)을 쳐 놓으면 밀물 때 물고기가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당시 우해 앞바다에는 이런 어뢰 수십 개가 마치 바둑알처럼 빼곡하게 설치되었다고 한다. 어뢰 어법 이외에 낚시또는 맨손으로 잡거나, 삼태기·뜰채 등을 사용하거나, 작살로 잡는 어류도 소개하였다. 『난호어목지』(전어지)에서도 어살호(圖)로 고기 잡는 법을 설명하였으나 이 어뢰와는 구조가 다르다.

『우해이어보』의 또 다른 특이점은 여성의 삶을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삶은 오로鰯鯢(갑오징어)에 이명주耳鳴酒(귀박이술)를 파는 할머니, 매가리젓갈을 팔러 혼자 배를 몰고 오는 고성(高城)의 아줌마 어부, 멀

리 반성灘城장에 정어리를 팔러 가는 양도羊島 아줌마 등을 통해 지역 여인의 억척스러운 생활력을 보여줬다. 한편 부전조개로 몸을 꾸미는 어촌 여인이나 금실이 좋다는 원앙어를 사기 위해 비녀와 바꾸는 여인의 모습에서 여성스러운 면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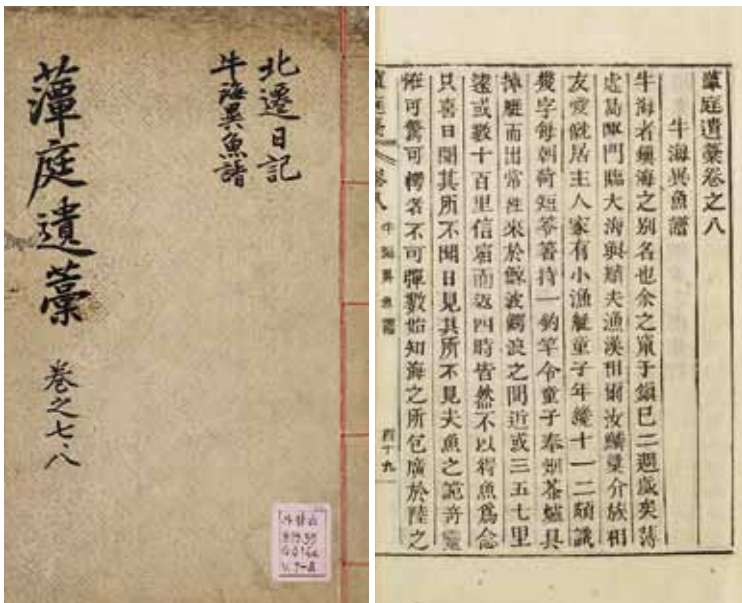
당시 현실 세태를 꼬집기도 하였다. 파계승과 정분을 나누는 여자 이야기로 당시의 성 풍속을 비꼬았다. 부산 동래의 왜상倭商과 빈번하게 행해지는 녹포어(철갑상어) 밀무역 정황도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밀무역을 하는 이유는 관청에서 세금을 매길 것을 걱정해서이다. 또한 어부가 청어를 감추는 점도 말하였는데, 이유는 역시 세금을 두려워해서였다.

문헌 고증은 이후에 나오는 어류서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 참고문헌은 몇 종에 지나지 않았고, 문헌 고증의 대상도 6종(대표 어종 5종, 근연종 1종)에 불과하다. 『자산어보』와 전어지(『난호어목지』)의 다각적이고 폭넓은 문헌 고증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특징 및 의의 『우해이어보』는 『자산어보』나 전어지와는 달리 한시 작품을 어보에 함께 수록하였다. <우산잡곡 牛山雜曲>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표제어 72종 중 38종에 관련 된 한시 39수(54.2%)를 창작하였다. ‘해蟹(게)’ 항목에만 2수가 실렸고, 나머지에는 모두 1수씩 실렸다. 우산牛山은 진해의 옛 지명이고, 잡곡雜曲은 잡스러운 소재를 다룬 노래라는 뜻으로 <우산잡곡>은 진해 지방의 잡스러운 소재로 표현한 노래이다.

<우산잡곡>은 표제어의 한 어종을 여러 가지로 해설하고 해설과 연관된 느낌을 맨 뒤에 덧붙인 시이다. 대표 어종과 관련짓기도 하고, 근연종과 관련짓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어종의 해설과 <우산잡곡>은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 <우산잡곡>은 대부분 앞의 해설 내용을 이해해야 해독할 수 있다. 한시에서는 어로 현장을 묘사하고, 어촌의 풍경과 어류의 유통과정을 보여줬으며, 우해 지역과 주변 지역 여인의 모습을 노래하였다. 따라서 한시는 『우해이어보』를 서정성이 풍성한 작품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전문 어류서가 없었던 조선시대에 한 유학자가 새로운 어류를 모아 책으로 엮은 최초의 시도였다. 이전에는 간과하였을 법한 어류 지식이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우해이어보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실천하려는 학문 분야로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薄庭遺藁, 牛海異魚譜, 19세기 초 담정은 무엇을 보았나(박수현, 미디어중, 2019), 우해이어보(김려, 박원준 역, 다운샘, 2004),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신우해이어보(최현섭·박태성, 지앤유, 20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명현(鄭明炫)

운반선 運搬船

정의 바다 어장의 조업선에서 잡은 고기를 소비지 어항까지 운반하는 선박.

내용 바다 어장의 조업선에서 잡은 고기를 어항까지 운반하는 선박으로, 조선 후기부터 서해의 조기어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조기는 어획기가 짧은 반면 어획량이 풍부하였고 소비지에서의 수요도 매우 높았다. 운반선이 출현한 시기는 대체로 조기어업에서 중선어법中船漁法이 도입되어 대량으로 어물을 포획할 수 있는 어획능력이 갖추어진 조선 후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중선망中船網은 닻을 내려 어선을 고정된 뒤에 양현측兩舷側에 달린 낭상囊狀의 어망 2통을 펼쳐 조류에 따라 내왕하는 어류를 대량으로 포획하는 어구이다.

조기어장으로 출항한 어민들은 어기漁期 내내 바다에서 닻을 내려 중선망으로 고기를 잡았고, 어획된 어물은 운반선으로 옮겨 소비지까지 운송하였다. 짧은 어획기에 최대한의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 어선과 운반선 사이의 분업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조기어업에서 시작한 운반선은 조기 외에도 민어, 도미, 준치, 새우 등 서해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어종으로 확대되었다. 운반선은 바다 위에 떠서 조업하는 어선으로부터 물고기를 매입해 운반하기도 하였지만, 어선이 필요로 하는 물자 공급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운반선은 범선帆船·기선·석유발동기선·부선艇船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운송방법도 염장·냉장·활어 등 다양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얼음을 채워 서해 어장에서 어획된 어물들을 냉장 상태로 한강



델감 운반선 | 20세기 초

의 마포 등지로 운송한 빙어선氷魚船도 운반선의 한 형태였으며, 운반선 중에서 단순한 운송기능에 머물지 않고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구매한 뒤 육지의 객주에게 어획물을 판매하는 상고선商賈船과 강화시선배도 운반선의 일종이었다. 이 외에 육지를 오가며 큰 배에서 잡은 고기를 운반하는 소형 거룻배도 운반선의 일종이었다. 거룻배는 돛을 달지 않고 가까운 바다를 다니는 가장 작은 배로, 손쉽게 만들어 널리 이용된 배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919년 전국에 2,738척의 상고선과 운반선이 운항하였으며, 이 가운데 조선인이 운영하는 상고선은 전라남도가 621척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기도 282척, 경상남도 264척, 충청남도 196척, 황해도 154척 순이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이후 조기어장처럼 짧은 어획기에 최대한의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어선에서 포획한 어물을 소비지까지 운송한 것이 운반선이다. 중선어법이 도입된 조선 후기 이후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고선·빙어선·거룻배·강화시선배 등도 운반선의 일종이며, 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상고선 또는 운반선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8~20세기 서해의 조기어업과 어민문화(오창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조선수산개발사(吉田敬市, 박호원·김수희 역, 민속원, 2019), 한국수산업사(박구병, 태화출판사, 1966), 朝鮮總督府統計年報(朝鮮總督府, 1919),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필자 고동환(高東煥)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蔚州 大谷里 盤龜臺 岩刻畫

정의 한반도 남동해안 울산만과 연결된 태화강 상류 대곡천 변에 위치한 수렵어로 계통의 암각화.

내용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만에서 태화강을 따라 약 25km 떨어진 대곡천 변의 거대한 암벽에 조각된 신석기시대 수렵어로 계통의 암각화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해양어로 활동과 육지동물 생태가 반영된 암각화이다. 육지동물은 사슴·호랑이·표범·멧돼지 등이 묘사되어 있고, 해양동물은 포유류의 대형고래whale가 제일 많이 묘사되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북태평양에서 서식하는 6종의 대형고래 그림과 대형고래를 사냥하는 고래 작살잡이 배 그림 6점이 묘사되어 있다. 대형고래와 작살잡이 배의 그림은 반구대 암각화가 북태평양 고래 생태권에 속하는 암각화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만과 연결된 태화강 대곡천 변 암벽에 위치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집단은 대곡천을 따라 울산만까지 내려가 작살잡이로 고래를 사냥한 고래잡이 전문 집단으로 보인다. 대형고래들은 몸체의 길이가 15m에서 25m 크기의 수염고래들이다. 이 대형고래들은 주로 북극해, 베링해협, 캄차카반도, 오호츠크해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염고래들이다. 베링해협에서 리만 한류가 연해주의 연안 해류를 따라 한반도 남동해안 울산만까지 내려온다.

베링해협과 오호츠크해의 대형고래들은 10월경 월동越冬과 분만을 위하여 리만 한류를 타고 한반도 남동해안까지 내려왔다가 이듬해 3월경에 다시 북상하여

이동migration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구대 암각화는 베링해협, 캄차카반도, 오호츠크해와 한반도 동남해안 울산만이 동일한 대형고래 해양 생태권으로 보인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북태평양 대형고래의 동물생태와 오호츠크해 아무르강 유역의 육지동물 생태계가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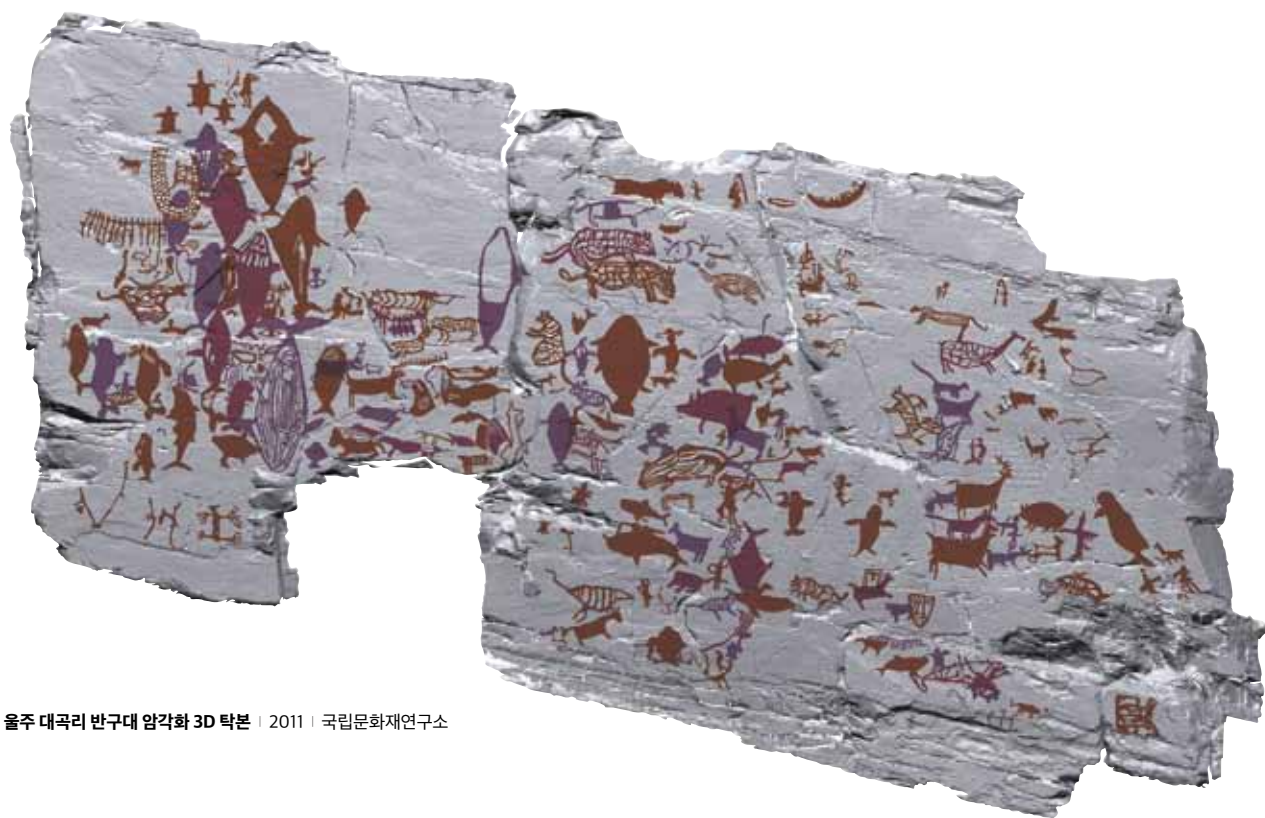
반구대 암각화에는 인물상 14점, 동물상 193점, 도구 11점, 미상 조각 78점 등 모두 296점이 조각되어 있다. 인물상은 측면 전신상이 12점, 얼굴상이 2점이다. 동물상은 사슴·호랑이·표범·멧돼지 등 육지동물이 86점이며, 바다동물은 바다거북·대형고래·돌고래·상어 등 64점이 조각되어 있다. 육지동물은 무기로 사냥하는 수렵상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동물번식의 교미상이 조각되어 있다. 바다동물은 새끼를 뱀 대형고래와 새끼를 등에 업은 어미 고래가 묘사되어 있으며, 작살이 고래 등에 꽂혀 있는 그림과 고래사냥을 하는 작살잡이 선단船團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반구대 암각화의 동물 구도에는 해안지대에서 이동생활을 하면서 계절적으로 유목생활과 해양수렵을 병행하는 해양수렵민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겨울에는 육지동물을 사냥하고 여름에는 바다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어로의 생활 관행이 깃들여 있다. 북태평양의 대형고래들이 월동하여 따뜻한 울산만 해역에서 새끼를 분만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이동해 온다는 고래생태 기록화記錄畫이기도 하다. 작살잡이 선단의 배 문양에는 5명에서 15명까지 배에 탄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뱃머리에서 고래를 향하여 작살을 던지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집단은 고래사냥 작살잡이 전문의 해양 수렵민들로 보인다.

반구대 암각화는 4개 층위로 제작되었고, 조각기법은 면각과 선각이다. 동물 형상에 따라 면각과 선각의 겹침도 나타난다. 면각 그림은 동물상의 모든 부분을 쫓아파기 기법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북아시아 유목민들의 암각화에서 나타나는 조각기법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면각 그림은 북극해 추코트카Chukotka 반도 펙티멜Pegtymel 암각화에 묘사된 면각 그림과 흡사하다. 면각 그림은 고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흑등고래가 유영하면서 분기噴氣하는 모습을 조각할 정도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울산 울주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3D 탁본 | 2011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래생태와 관련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작품으로 보인다.

선각 그림은 동물상을 쪼아파기와 그어파기 기법으로 새겼다. 대형고래의 배 주름 형상을 표현한 선각 그림과 고래를 부위별로 해체하는 도상의 선각 그림이 있다. 육지동물의 점박이·선각 그림은 외관상 동물의 특징과 털 무늬 형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점과 선으로 제작되었다. 점박이 무늬는 표범을 표현한 것이며, 선각 무늬로는 호랑이와 멧돼지 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선각 그림은 윈트겐식 엑스레이x-ray 기법으로 해석한다. 연해주 하바롭스크Khabarovsk 근처 아무르강 유역의 시카치알란Sikachi-Alyan 암각화에도 엑스레이 기법과 점박이 기법이 나타나 반구대 암각화와 상호 연관성을 보여준다. 반구대 암각화의 면각 및 선각 그림은 동북아시아 암각화의 조각기법과 매우 흡사하다.

반구대 암각화에 등장하는 고래의 유형은 대형고래whale와 돌고래dolphin이다. 대형고래는 북방긴수염고래, 혹등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들쇠고래가 묘사되어 있다. 돌고래는 참돌고래와 들쇠고래가 있다. 대형고래

는 북태평양 베링해협·알래스카·알류산열도에서 서식하는 수염고래이고, 돌고래는 적도 부근 남태평양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이빨고래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한반도 남동해안 해역이 다양한 종의 대형고래와 돌고래가 서식하는 해양생태계 어장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의 대형고래와 돌고래의 등장은 리만한류와 구로시오 난류가 울산만 해역에서 교차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에서 작살·낚시·어망추·패추貝簍 등 어로도구가 출토되었지만, 이들 어로도구를 이용하여 대형고래를 포획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울산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반구대 암각화의 조각 주체를 입증하는 유물이 출토된 바가 없다. 다만 울산광역시 황성동 유적과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고래뼈는 반구대 암각화의 대형고래와 동일한 종의 고래로 보인다. 반구대 암각화의 작살잡이들이 사냥한 고래이거나 좌초하였던 대형고래 뼈일 수 있다는 소리이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6점의 배 문양이 등장한다. 배

의 형상은 한결같이 굽은 곡선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통나무배와 목선은 바다에서 곡선형으로 휘어지는 배가 아니다.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의 배들은 바다사자의 가죽으로 만든 우미악(umiak)으로 추정된다. 우미악은 북극해와 시베리아 베링해협, 캄차카반도, 오희크해 등지에서 고래잡이용으로 사용하는 가죽배(skin boat)이다. 가죽배는 해서포유류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주로 바다코끼리와 바다사자의 가죽을 사용한다. 가죽배는 물고기잡이용 카약(kayak)과 고래잡이용 우미악이 있다.

우미악은 가문비나무 등 침엽수로 뼈대를 만들고 고래기름으로 방수 처리한 가죽을 씌워서 만든다. 가죽은 바다코끼리와 바다사자의 표피를 사용하며, 2~3년에 한 번씩 새 가죽으로 교체한다. 배의 길이는 800cm, 높이는 60~65cm이다. 우미악은 나무 뼈대와 가죽으로 만들어졌기에 선원들이 들고 옮길 정도로 가볍다. 해양수렵민들이 우미악을 타고 고래사냥에 나가면 중력으로 배가 휘어진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듯 고래생태와 고래사냥에 대한 섬세한 표현이 반구대 암각화에 깃들여 있다. 베링해협, 알류산 열도, 캄차카반도, 오희크해 해역에서는 지금도 우미악에서 작살을 던지는 고래잡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고래잡이용 작살과 우미악이 반구대 암각화에 나타나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작살잡이 고래사냥 그림은 북극해 추코트카 반도 펙티멜 암각화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첫째,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하는 한반도 남동해안 울산만 해역은 동북아시아 대형고래의 생태계에 속한다. 둘째,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시대 유목 및 해양수렵 계통의 북방계 암각화이다. 셋째, 반구대 암각화는 전 세계적으로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의 생태계를 가장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해양수렵계 암각화로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러시아 바위그림 연구의 새로운 사항(E.데블레트, 세계의 바위그림 그 해석과 보존 한국 암각화 발견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2010), 반구대 암각화의 작살잡이와 우미악(송화섭, 비교민속학49, 비교민속학회, 2012),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전호태, 한림출판사, 2013), 한국 암각화의 제의성(이하우, 학연문화사, 2011), 한국 암각화의 조성 주체와 제작배경(송화섭, 대곡천 암각화군 역사문화사 비교연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전보존연구소, 2016).

필자 송화섭(宋華燮)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

정의 경상북도 울진과 울릉도에서 떼배를 이용하여 돌미역을 채취하는 일.

개관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제주 해녀어업(제1호), 보성 뽕배어업(제2호), 남해 죽방렴어업(제3호), 신안 천일염업(제4호),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제5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제6호),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제7호), 통영·거제 건내량 돌미역 채취어업(제8호),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제9호) 등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양식미역 최대 생산지는 전라남도이고, 돌미역 최대 생산지는 경북이다. 경북 해안에서 채취하는 돌미역은 전국 돌미역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이다. 울진은 해녀가 돌미역 대부분을 채취하고, 울릉도는 해녀와 어촌계에서 고용한 잠수부가 주로 채취한다. 과거에는 주민이 떼배를 타고 나가서 채취하였다. 아직도 이런 전통어업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울진과 울릉도다. 미역은 1년생으로 수온과 해수 흐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 울릉도와 울진은 보통 4~5월 무렵에 채취하는데 오동나무 등으로 만든 떼배를 이용하여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이 행해진다.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1리·나곡3리·나곡6리 등과 울릉군 북면 천부리·죽암리·현포리 등이 떼배를 이용해 돌미역을 채취한다.

과거 울진·울릉 지역은 돌미역 채취 전에 미역바위(짬)를 분배하였다. 돌미역이 자생하는 수중 암반을 ‘짬’이라 하는데, 이를 어촌계원에게 한시적으로 소유권을 줘서 돌미역 채취에 참여하게 한다. 각각의 짬에서 생산되는 돌미역의 양과 질이 다르기에 추천으로 분배해 불만을 최소화하였다. 같은 조에 묶인 어촌계원은 짬 관리와 채취를 공동으로 하고, 돌미역 수확이 끝

나면 해체되는 한시적인 생산 공동체였다. 같은 조에 속한 어촌계원은 1년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녔다. 1990년대부터 어촌계에서 짬 분배뿐만 아니라 돌미역의 채취와 건조,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공동으로 작업한 후 판매 대금을 어촌계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생산량이 많은 짬을 배정받은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방편이다.

울진·울릉 지역은 공동 짬매기 작업을 한다. 돌미역 생산을 높이기 위해 농부가 김매기를 하듯이 미역바위에 붙은 규조류와 잡조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지역에 따라 기세작업, 돌깎기, 돌메기, 개닭이, 바당풀캐기 등으로 부른다. 울진은 매년 입동을 전후로 보름 정도 짬매기를 한다. 미역바위를 긁어서 깨끗하게 청소하여 미역 포자의 안착을 돕고, 안착된 미역 뿌리의 부착력을 높이는 작업이다. 짬매기를 한 곳에서 성장하는 돌미역은 파도가 세게 쳐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짬을 매는 도구는 장대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쓸개’라 한다. 현지에서는 ‘썰개’ ‘실겅대’라 부른다.

돌미역 채취작업은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다. 파도가 잔잔하고, 습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떼배를 타고 나간다. 습도가 높은 북동풍, 남동풍, 북풍이 불 때 건조한 미역은 색이 누렇게 변해 상품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북동풍, 남동풍, 북풍이 불면 미역채취를 하지 않는다. 습도가 낮은 남서풍, 북서풍, 서풍이 불 때 건조한 미역은 색이 까맣게 되어 상품성이 높다.

떼배를 이용한 미역채취는 통상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 한 사람은 창경(짬수경)으로 돌미역이 있는 곳을 파악하여 낫대(설낫)를 이용해서 채취작업을 한다. 다른 한 명은 떼배의 노를 저으며 돌미역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창경은 목판을 사다리꼴로 만들고 바닥면에 유리를 부착한다. 물이 스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 가장자리에 콜타르를 바른다. 낫대는 돌미역의 밑동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긴 나무막대 끝에 낫을 부착한다.

떼배는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뗏목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오동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구조는 밑판, 노를 설치하는 노지게, 노를 끼우는 돛줄, 노, 섯대(떼배를 움직이는 긴 막대) 등으로 이뤄진다. 밑판 제

작은 8~10개의 오동나무를 연결해서 만든다. 보통 1~2년 그늘에 말린 후 사용한다. 통나무배에서 발전한 단계인 가공한 판재로 만든 경주 안압지 목선(8세기)보다도 형태상으로 원시적이다. 떼배는 바닥이 편평해서 수심이 얇은 곳을 쉽게 오갈 수 있다. 바닥이 뽕족한 기존의 배는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는 데는 좋지만, 갯바위에 부딪히면 침몰하는 반면 통나무로 만든 떼배는 갯바위에 부딪혀도 손상이 없으며 파도가 쳐도 흔들림이 적어서 돌미역 채취에 수월하다. 원시적이고 소박하지만, 돌미역 채취와 운송에 적합하다. 떼배는 돌미역 채취뿐만 아니라 손뽕치잡이와 오징어 낚시 등에도 이용된다.

과거에는 채취한 돌미역을 자갈밭에 널어서 말렸으나 요즘은 건조 밭을 이용해서 말린다. 울릉도는 건조 방식이 다양하다. 해안 몽돌 위나 미역틀에 올려서 건조하거나, 짚방석과 나무로 짠 틀 위에서 건조하기도 한다. 요즘은 기계식 온풍기를 많이 이용한다. 이 외에 오징어 건조장에 널어서 말리기도 한다.

미역을 채취할 때는 날씨가 최소한 3일 이상 쾌청해야 한다. 미역을 채취하는 당일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취한 후 자연 건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 건조 방식으로 3~4일 말리면 상품성이 있는 건미역이 된다. 건조 과정에서 이슬·안개비를 맞으면 변색되기에 저녁에는 한곳에 모아서 거적을 덮어 둔다.

돌미역 채취는 울진·울릉 지역 주민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므로 돌미역과 관련된 민속신앙도 있다. 정월 대보름에 ‘서숙(매좁쌀) 뿌리기’를 통해 돌미역이 서숙처럼 빼곡하게 붙기를 기원한다. 또한 울진 지역 어촌계는 짬매기를 한 후에 보름달이 뜨는 날을 잡아 막걸리에 좁쌀을 넣어서 미역바위에 뿌린다. 이를 ‘짬고사’라 한다. 짬에 미역 포자가 잘 붙도록 기원하는 제의이다.

특징 및 의의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은 2021년 3월 8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이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전해야 할 전통어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떼배 채취어업은 환경친화적인 전통 방식이다. 자연산 돌미

역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 생태계 보호와 주민참여 등 전통어업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를 입증하였다.

현재 울진·울릉 돌미역 채취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며 마을의 공유자산으로 공동채취·공동분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어업활동은 바다와 어업자원이라는 공유재를 이용하기에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의해 이용되고 관리된다. 또한 이를 통해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된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현실에서 공동체 문화를 통한 공유자원 활용은 위기에 처하였다. 전통어업유산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이다. 어촌민의 고령화에 따라 전통어업 방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 전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지속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경북 동해의 민속과 생활(경상북도, 2020), 동해안 어촌의 돌미역 채취 방식과 소득분배 방식 비교(김창일, 비교민속학69, 비교민속학회, 2019), 미역바위를 가꾸며 살아가는 울산 구유동 제전마을(김창일·변윤희, 국립민속박물관, 2017), 큰섬이 지켜주는 삼척 갈남마을(김창일·이승형, 국립민속박물관, 2014), 때배와 LNG 운반선(김창일, 동아일보, 2020.6.19.).

필자 김창일(金昌一)

웅어잡이

정의 웅어가 강으로 돌아오는 계절에 그물로 잡는 일.

개관 웅어는 청어목 멸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서남해안 일대에 두루 분포하는 웅어는 조선시대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물고기였다. 이를 위해 궁중의 음식을 맡아보는 사옹원司饔院에서는 행주幸州(현 경기도 고양)에 ‘위어소葦魚所’와 석빙고를 설치하고, 매년 음력 3~4월에 관리가 50여 일간 머물면서 웅어를 관리하였다. 웅어는 위어葦魚로도 불린다.

검재 정선鄭愼(1676~1759)은 조선 후기 행주의 웅어잡이를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1740년 양천현령陽川縣令으로 부임한 정선은 한강 건너편 행주나루 웅어잡이

에 나선 어선의 모습을 한 폭의 진경산수로 펼쳐놓았다. 이른바 <행호관어도杏湖觀漁圖>이다. 또한 정선은 가까운 지인에게 편지로 웅어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웅어를 잡아 진상하고 나머지는 도성에 사는 지인에게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 정선이 그린 <척재제시惕齋題詩>에는 패랭이를 쓴 어부가 세도가의 선비에게 굴비처럼 엮은 웅어 한 두름을 바치는 장면이 보인다.

충청남도 부여 백마강 위어는 백제 패망의 역사와 연계되어 술한 전설을 낳았다. 당시 웅어는 임금에게만 진상하던 귀한 생선이었는데, 의자왕이 즐겨 먹었다 하여 ‘의어’라 불렀다고도 한다. 일설에는 사비성을 점령한 소정방이 입맛이 없어 위어를 찾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하찮은 물고기까지 이렇게 의로울 줄이야!”라고 탄식하며 백제와 화친을 맺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백제가 멸망한 뒤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갈 때 위어가 뱃머리를 들이받아 못 가게 하였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의로운 고기란 뜻의 ‘의어義魚’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설도 있다. 이처럼 웅어는 한강·임진강·금강·대동강 등 민물과 갯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에서 서식한다.

내용 웅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는 회유성 어종이다. 산란기인 4~5월이 되면 바다에서 강의 하류로 거슬러 올라와 갈대가 무성한 곳에 알을 낳는다. 그래서 ‘갈대 위葦’자를 써서 ‘위어葦魚’라고 쓴다. 강에서 부화한 어린 고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성어가 되어 다시 산란 장소로 돌아온다. 이 시기에 웅어가 올라오는 길목에 그물을 쳐서 잡는다.

웅어로 유명하였던 한강 하류에서 지금도 웅어잡이가 이뤄지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의 전류리 포구이다. 이곳은 임진강이 합류하는 최북단 내수면 어로 어장으로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이다. 밀물과 썰물의 순환 주기에 따라 조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유속이 매우 빠르다. 이러한 생태환경은 강과 바다를 오가는 다양한 어종이 번성하는 내수면 어로의 기반이 되었다. 전류리 포구 어민은 26명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쾡지배와 자망 등으로 고기를 잡는다. 1970년대 어업 전성기에는 22척의 쾡지배가 어로에



행호관어도 | 정선 | 조선 | 간송미술문화재단

종사하였으나 어족자원의 감소로 4척만 남았다. 주요 어종은 봄어기의 웅어를 비롯하여 황복·농어·새우·숭어 등이다.

웅어는 성질이 급한 탓에 그물에 걸리면 금세 죽는다. 이 때문에 고기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내장이나 꼬리를 떼어내고 얼음에 재워 회로 먹는다. 봄철의 웅어는 살과 뼈가 연해 미식가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회를 뜨면 살이 부드러워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 정약전 丁若銓(1758~1816)은 『자산어보 茲山魚譜』에서 웅어의 맛을 “극히 감미로워 횡감으로는 상등으로 친다.”라고 치켜세웠다. 웅어회는 4~5월이 제철이다. 6월 이후에는 뼈가 역세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웅어를 활용한 요리는 회무침, 구이, 웅어완자, 웅어전, 매운탕 등이 있다. 웅어완자는 웅어 살과 뼈를 칼로 곱게 다진 다음 밀가루 반죽에 섞어 동글게 빚은 음식이고, 웅어전은 얇게 저민 웅어를 돼지기름에 부친 음식이다.

특징 및 의의 웅어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이다. 강의 하류에 거주하는 사람은 은빛 물결로 일렁이는 웅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하였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어획한 웅어는 봄철의 미각을 돋우는

별미였다. 지방질을 가득 함유한 웅어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이 무렵 어민은 웅어 한 두름을 팔아야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강의 하류마다 지천으로 넘쳐났던 웅어는 수질오염과 난개발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강 입구를 막은 하구언 河口堰 공사로 바다에서 들어오는 회유 길목이 차단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백마강 명물이었던 위어회와 수라상에 올랐던 행주나루 웅어가 사라진 까닭이다.

참고문헌 蘭湖漁牧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茲山魚譜, 금강유역의 어로문화(강성복, 금강 수로와 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9), 백제 관련 설화 자료집(황인덕·박종익,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0), 부여의 전설(부여군지, 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1·2(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20).

필자 강성복(姜成福)

원양어업
遠洋漁業

정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

인과 합작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개관 우리나라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해외 수역이라 하는데, 이 해외 수역을 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이라 한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 해무청과 중앙수산시험장이 주도한 230t 급(600마력) 원양어선인 지남호에 의한 인도양의 다랑어연승 시험조업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65년에는 라스팔마스(스페인 카나리아제도) 근해에서 트롤 시험조업, 1966년에는 북태평양에서 트롤 시험조업, 1969년에는 남아메리카 수리남공화국 근해에서 새우 트롤 시험조업, 1971년에는 가다랑어채낚기 시험조업, 1979년에는 북태평양에서 빨강오징어 유자망 시험조업 등을 거치면서 급속히 발전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원양어업 지원과 원양산업계의 참여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이룩하였다. 처음 시험조업이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난 1987년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원양어선 수가 712척(총 톤수 35만 9,741t)이었으며, 어획량은 88만 2,600t이나 되었는데 이는 1987년 우리나라 어업총생산량인 333만 1,825t의 26.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초창기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외화 획득과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77년 태평양 연안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북태평양 어장을 대부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태, 오징어, 다랑어류 등 주요 어업자원에 대한 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1994년에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하 <유엔해양법>) 발효로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과 인도양 등 세계 대부분 해역에서 공해 어장을 상실해서 연안국과 어업협상을 통해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60년대 개척기, 1970년대 신장기, 1980년대 채편기를 거쳐 1990년대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와 연안국의 200해리 설정 등의 여건 악화로 어장이 축소되었음에도 원양어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12월 30일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원양어업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그 후 1971년 1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원양어업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하였다. 2007년에 제정되었고, 2020년 2월에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7050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수역에서 단독이나 외국인과 합작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원양어업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을 원양어업 관련 사업이라 한다. 해외 수역은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의미한다.

원양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이나 어구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양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을 허가하는 조업 구역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 구역으로 허가할 수도 있다.

원양어업은 대부분이 어선어업인데, 원해어업이라고도 한다. 장기간에 걸쳐 먼바다에서 어획물을 저장·가공하는 설비를 갖추고 조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업의 종류도 다양하다.

원양연승어업에는 참치연승어업과 원양저연승어업이 있는데, 어선의 크기는 신 톤수 110t 이상이다. 원양기선저인망어업도 어선의 크기는 110t 이상이다. 원양선망어업은 규모가 가장 큰 어업으로서 350t 이상이다. 원양트롤어업은 북양트롤어업과 해외트롤어업으로 구분되는데 북양트롤은 220t 이상, 해외트롤어업은 어선 크기가 150t 이상이다. 새우트롤어업은 60t 이상이다. 원양자망 및 원양봉수망어업은 110t 이상이다. 원양채낚기어업에는 가다랑어채낚기(어선 크기 150t 이상), 오징어채낚기(어선 크기 60t 이상), 외줄낚시어업(어선 크기 60t 이상) 등이 있다. 원양통발어업과 원

양안강망어업의 어선 크기는 각각 60t 이상과 70t 이상이다. 원양모선식어업에는 모선식트롤어업과 모선식외줄낚시어업이 있는데 모선, 부속선, 탑재식 어로선 등을 둔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대부분 연안국에 입어를 지불하고 조업을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다한 조업 경비, 부족한 승선 인원, 수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어가 하락 등으로 원양어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2019년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51만 1,738t으로 1987년의 5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태평양에서 약 40만 2,453t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다음으로 남빙양 4만 3,890t, 대서양 4만 2,218t, 인도양 2만 3,176t의 순이었다. 2019년 원양어업에서 주로 생산된 어종은 가다랑어가 약 2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랑어류가 약 2만 6,000t, 꽁치 8,000t, 대구류 약 2만t, 오징어류 약 2만t, 명태 약 2만 5,000t, 남빙양새우 4만 3,000t, 메로(이빨고기) 3,000t 외에 새치류·민어류·상어류·새우류 등 다양하다.

1960년대 초반 100척 미만이던 원양어업의 어선이 1970년대 후반에는 사상 최고인 850척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생산 측면에서도 1960년대에는 10만t에도 못 미쳤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50만t에 육박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도 2,000만 달러 내외이던 것이 3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전을 이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연안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유류 파동, 어가 하락, 공해조업 규제 확대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활발하게 조업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46만 2,125t을 어획해서 4억 5,531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6,000여명의 어선원이 세계 21개소의 어업기지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로뿐만 아니라 양식 및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해외 수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계 주요 연안국에 어업기지를 두고 어업기지에서 어획물의 유통, 선용품의 공급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태평양 지역에 8개소, 대서양 지역에 12개소, 인도양 지역에 5개소 등 23개국의 주요 항구에 25개소의 어업기지를 두었다. 하지만 그

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태평양 9개소, 대서양 10개소, 인도양 2개소 등 세계 17개국의 주요 항구에 21개소의 어업기지를 두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원양어업기지를 중심으로 태평양 해역에 150척, 대서양 해역에 49척, 인도양 해역에 12척, 남빙양 해역에 3척 등 214척의 원양어선이 조업을 펼치고 있다. 해역별 주요 어업기지 설치지역을 보면 태평양에서는 우리나라 부산항을 포함하여 키리바시·투발루·마이크로네시아·솔로몬·파푸아뉴기니·피지 등이며, 대서양에서는 우루과이·포클랜드·칠레·페루·수리남 등이다. 인도양에는 세이셸, 모리셔스, 세네갈, 기니, 앙골라, 케이프타운 등에 원양어업 기지를 두고 있다.

세계의 각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어업자원의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원양어업국은 해외어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어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의 조건에 따라 입어를 지불해야 하며, 어획량이나 조업하는 어선 수와 어구 등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2018년 말까지 13개 연안국과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직접 입어 또는 공동어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들 연안국과는 어업훈련생 초청 및 수산 전문가 파견을 비롯하여 경제협력 등 지원책도 추진하였다. 어업 협정 체결국은 일본, 호주, 이란, 프랑스,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쿡제도, 투발루, 모리타니, 에콰도르,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중국 등이다.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전 세계 수산국의 어업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연안국의 200해리 선포 및 어업자원의 자국화 선언으로 연안국의 입지가 강화된 반면 원양어업국은 기존 어장의 상실과 조업 어장의 축소로 원양어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공해상 어업도 인근 연안국 자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유엔해양법> 협약 제118조에는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세계의 바다를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공해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 공해는 어느 특정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해역으

로 어느 국가든 국제법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영역이다. 공해어업 관리에 관한 협약을 시행하는 조직으로서 각종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었다. 어업 관련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관련 지역 국제수산기구에서 어업자원을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들 주요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2015년까지 중동대서양어업기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북서대서양어업기구, 중부베링해명대보존관리협약, 인도양다랑어위원회, 북태평양어업위원회 등 13개 주요 원양어업 관할지역 어업관리 기구에 가입하였다. 이들 국제수산기구는 관련 통계자료 수집을 비롯하여 조사연구 정보교환과 자원의 보존 및 배분 등을 협약 목적으로 하며, 어업 목표 어종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관리와 부수 어획종 또는 보호종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

참고문헌 국제수산기구 동향 및 필드가이드(국립수산과학원, 2006), 수산일반(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7), 어업-상(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3), 우리나라 수산자원 연구 100년의 발자취와 미래(국립수산과학원, 2020), 원양어장개발 50년(김영승, 국립수산과학원, 2007), 한국의 어구어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 200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립수산과학원(nifs.go.kr), 한국원양산업협회(kosfa.org).

필자 박종화(朴鍾和)

위어소 葦魚所

정의 사옹원에 소속된 기관으로 위어, 즉 웅어를 잡아 어공御供(임금에게 물건을 바침)하던 곳.

내용 위어소는 조선시대 위어葦魚를 잡아 사옹원에 바치던 기관이다. 위어는 갈대 사이에서 산란하는 습성이 있어 이름에 갈대 ‘위葦’자가 붙었다는 설이 있으며, 웅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위어를 왕실과 사가에서 평상시에 먹었지만 제수용으로도 사용되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위어는 강원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잡혔다. 위어소는 고양

高陽, 교하交河, 김포金浦, 통진通津, 양천陽川 등 한강 하류의 5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권 4(1625)의 기록을 보면 위어소 소속 어호漁戶 수는 임진왜란 전에는 380호였지만 전후戰後에는 162호만 남았다. 『육전조례六典條例』(1866)에는 위어소 어호가 김포에 36호, 교하에 33호, 통진에 61호, 고양에 20호, 양천에 12호 등 모두 162호로 기록되어 임진왜란 이후 축소된 어호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어소 소속 어호는 빙장역氷藏役(얼음을 저장하는 역)을 면제받았다.

참고문헌 東國輿地勝覽, 承政院日記, 물고기 뛰어오르다 동아시아 2500년 옛사람들이 사랑한 우리 물고기(기태안, 푸른지식, 2016), 조선수산업발사(吉田敬市, 박호원·김수희 역, 민속원, 2019),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필자 김진백(金鎭白)

유령어업 幽靈漁業

정의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廢漁具에 걸리거나 갇혀서 죽는 것과 죽은 물고기가 미끼가 되어 다른 물고기가 유인되어 연쇄적으로 죽는 것.

개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하여 물고기가 죽는 유령어업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선박항행 및 해양레저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는 수산업 전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 과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어업으로 인한 유령어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유령어업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유령어업을 줄

이기 위한 규제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유령어업을 근절할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내용 유령어업이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즉 유령어구에 의하여 물고기가 잡혀 죽는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fishing’을 어업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포획 또는 어획이다. 어업(fishery)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수산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여 판매하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ghost fishing’을 유령어획 또는 유령포획이라 함이 적절하다.

유령어업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구가 바다에 버려져서 장시간 방치되기 때문이다. 어구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망·통발·낙시로 구분된다. 낙시를 제외한 어구는 대부분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서 바다에 버려질 경우 수백 년 이상 썩지 않고 침적하게 된다. 따라서 유령어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유령어업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어구는 자망(刺網)과 통발이다. 자망 어법(漁法)은 가늘고 질긴 나일론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도록 하여 어획하는 방법이고, 통발 어법은 통발이라는 어구에 물고기가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여 어획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런 어구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어구의 기능을 상실한 폐어구를 미회수 어구, 유실 어구 또는 폐기된 어구로 구분하고 있다. 즉 고의로 회수하지 않거나 선상에서 바다에 버리는 경우와 어구 걸림 및 탈락 등 타의에 의하여 유실된 경우이다. 어떤 경우이든 유령어업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고의로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FAO와 UNEP는 전 세계에서 매년 폐어구가 64만t 가량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양어업의 30%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어구 사용량은 16만t 이상이고, 이 중 4만 4,000t 정도가 조업 중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폐어구 중에 수거되는 것은 약 15%에 불과하며 3만 3,000t 정도는 매년 바다에 쌓여 가고 있어 유령어업의

피해는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회수하지 않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를 수거하며, 바다에 버려지더라도 분해되어 유령어업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버리거나 유실되어도 유령어업을 발생시키지 않는 어구, 즉 생분해성 자망과 통발을 개발하여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한편 이미 버려진 바닷속의 폐어구를 조속히 수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나아가 더 많이 잡는 어구가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어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령어업의 문제는 이제 어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업계, 전문가



페그물에 걸린 물고기 | 2018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버려진 폐어구 | 2018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

유령어업은 인간의 이익추구를 위한 어업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로 되돌아오는 구조이다. 인간의 이기적 행동으로 인하여 자연과 인간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참고문헌 페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유령어업 효과에 대한 실험적인 고찰(김성훈 외, 수산해양교육연구28-5,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6), 페어구 발생 실태 및 체계적 관리 방향(이정삼·김대영, 수산해양교육연구28-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6), 페어구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이정삼 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필자 류정곤(柳廷坤)

유영층 游泳層

정의 수중에 어류가 서식하는 층.

개관 어류는 서식할 수 있는 수온의 상한과 하한선이 있는데 이를 서식수온棲息水溫이라고 한다. 서식수온 중에서 어류의 활동에 가장 적합한 수온대가 적서수온適棲水溫이다. 어류는 적서수온을 중심으로 한 서식수온대 내에서 주로 살아가게 되는데, 수중에 어류가 서식하는 층을 유영층이라고 한다.

변온동물인 어류는 수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온이 상승할수록 대사작용이 빨라져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 수온이 낮아질수록 대사활동이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어류는 서식에 적합한 수온을 찾아 이동한다.

어류의 유영층은 어종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어로 작업이나 유어遊魚활동에서 대상 어류의 유영층을 파악하는 것은 어획 성과 또는 조과釣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내용 우리나라에는 총 42목 213과 1,304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민물고기가 212종, 바닷물고기가 1,092여 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분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리한 넬슨Joseph S. Nelson의 어류 분류체계를 이용한다. 또 생태적으로는 서식 환경, 생활 습성, 서식 수온, 식성, 주로 활동하는 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적인 구분 방법 중 서식 환경에 따라 어류를 구분하면 담수 어류, 기수역 어류, 연안중층 어류, 연안심층 어류, 외양표층 어류, 외양심층 어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수 어류에는 붕어와 잉어를 비롯한 민물고기 대부분이 포함되며, 기수역 어류에는 농어·망둥이·숭어·학꽂치·황어 등이 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 염분이 담수보다 높고 해수보다 낮게 형성되는 해역을 말한다.

연안중층 어류에는 감성돔·돌돔·참돔 등이 있으며, 연안심층 어류로는 노래미·볼락·우럭 등이 있다. 외양표층 어류로는 고등어·가다랑어·다랑어·삼치 등이 있고, 외양심층 어류로는 대구·명태·우럭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 습성에 따라서는 일정 범위 안에 머무는 정착성 어류와 일정한 구간을 회유하는 회유성 어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정착성 어류는 특정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거리가 멀지 않은 어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정착성 어류로는 넙치·가자미·돌돔·우럭 등이 있다.

회유성 어류로는 붕장어·청어·꽂치·연어·뱀장어 등이 있다. 회유란 어류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그 동기에 따라 산란 회유·생육회유·색이회유·계절회유로 구분한다. 산란 회유는 산란기가 가까워지면서 산란장을 찾아 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붕장어·연어·뱀장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성장에 따라 적당한 서식처로 이동하는 생육회유 어류로는 해조지대에 모이는 치어들 대부분이 해당한다. 먹이가 많은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색이회유索餌回遊 어류에는 전갱이·가다랑어·부시리 등이 있다. 생활하기에 적당한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계절 회유 어종으로는 고등어와 방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착성 어류 중에는 저서성底棲性인 것들이 많고, 회유성이 강한 어류에는 중층을 유영하는 종류가 많다.

서식 수온에 따라서는 난류성 어류와 한류성 어류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성 어류는 북태평양 서부와 일본열도 남쪽을 따라 흐르는 구로시오해류로부터 분리되어 우리나라 주변수역으로 유입되는 대만난류, 동한난류, 황해난류 등에 분포한다. 한류성 어류는 북쪽에서 흘러내려 오는 북한한류 등에 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난류성 어종에는 고등어·다랑어·방어·전갱이·갈치 등이 해당하며, 한류성 어종에는 가자미·대구·명태·연어·임연수어·청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식성에 따라 초식성, 육식성, 잡식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수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 어류,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어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주야성 어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행성 어류로는 돌돔·망둥이·숭어 등이 있으며, 야행성 어류에는 민어·불락·붕장어·조기 등이 있고, 주야성 어류에는 고등어·전갱이·감성돔·농어 등이 포함된다.

수중에서 생활하는 어류는 변온성 동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수온이 내려가게 되면 어류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이와 함께 항체 생산도 느려져 면역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 수온이 올라가면 어류의 대사활동이 빨라져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수온이 올라가면 수중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류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류는 서식할 수 있는 수온의 상한과 하한선 이내에서 수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서식수온이라고 한다. 서식수온 중에서 어류의 활동에 가장 적합한 수온대를 적서수온이라고 한다. 서식수온과 적서수온은 어종에 따라 다르며, 이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어장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처럼 수중에서 어류는 활동에 적합한 수온을 찾아 유영하며, 이런 수층을 유영층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로나 유어를 위해서는 대상 어종의 적서수온 같은 자료를 미리 파악하고, 어선이 위치한 해역 주변에서 적서수온에 해당하는 수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호수나 저수지, 바다에서는 표층에서 심층으

로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표층의 경우는 바람의 영향으로 위와 아래의 물이 혼합되면서 비슷한 수온이 형성되는 층이 존재하는데, 이를 혼합층이라고 한다. 혼합층은 해양에서는 저위도와 고위도보다 중위도에서 깊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심층에서는 표층과 같은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낮은 수온을 항상 유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온이 낮아짐에 따라 밀도가 높아져 무거운 물이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되므로 이를 섞이게 하는 물리적 현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다. 혼합층과 심층 사이에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속하게 낮아지는 층이 있는데, 이를 수온약층이라고 한다.

한편 해양에는 수온과 염분 등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범위가 나타나는데, 이를 수괴水塊, water mass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류의 유영층은 수온을 중심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괴에 나타난다. 수괴는 수온-염분도 T-S diagram, Temperature Salinity Diagram를 이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수온 T와 염분 S을 각각 세로 Y와 가로축 X으로 하여 특정 관측점의 수온-염분값을 각각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여러 관측점의 좌표값을 표시한 뒤 등고선과 비슷한 형태의 등밀도선을 표시하면 동일한 수괴를 파악할 수 있다.

수괴는 온도와 염분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매우 큰 물덩어리이다. 주변의 다른 특성을 가진 수괴(해수 덩어리)와 열이나 염분을 교환하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특징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류의 유영층은 이러한 수괴 중 해당 어류의 특성에 맞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획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에는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온과 수심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군의 밀도까지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바다에서 어군탐지기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어로활동을 위한 어장의 대략적인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면 어장탐색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로활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어획하고자 하는 대상 어종의 서식수온이나 적서수온과 비슷한 수괴의 분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어류가 서식하는 유영층을 파악하는 것은 어로활동에 있어 기초적인 일이다. 이는 변온동물인 어류가 수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동하면서 적서수온을 중심으로 한 서식수온층에 유영층을 형성하여 유영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선박 주변에 어군이 밀집된 수심층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넓은 바다에서 어군이 위치한 지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탐색하고자 하는 해역의 수온을 중심으로 하는 수괴의 분포를 사전에 파악하고, 어획 대상 어종의 유영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서식수온 및 적서수온과 비슷한 수괴를 찾는다면 어장탐색의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로작업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참고문헌 2020 국가생물종목록(국립생물자원관, 2021), 바다낚시 첫걸음-상·하(예조원, 2011), 어군탐지기에 의한 어군량 추정에 관한 기초적 연구2(이대재, 수산해양기술연구27-1, 한국어업기술학회, 1991), 어군탐지기에 의한 어군의 분포와 생태계측에 관한 연구(이대재, 한국어업기술학회지28-4, 한국어업기술학회, 1992), 여름철 남해의 수괴와 자치어 분포(전승미·차성식, 2001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 오징어의 습성과 어장탐색(김용문, 어선13, 선박안전기술공단, 1982), 국가어도정보시스템(fishway.go.kr).

필자 류정근(柳廷坤)

유자망 流刺網

정의 물고기가 모여 있거나 이동하는 길목에 그물을 수면에서 수직으로 펼쳐서 조류를 따라 흘러보내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하여 잡는 어구.

내용 유자망 어법은 물고기가 모여 있거나 이동하는 길목에 긴 띠 모양의 그물을 수직으로 펼친 뒤 조류에 따라 흘러보내면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하여 잡는 어업 방식이다. 그물을 일정 장소에 고정하지 않고 조류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조업한다는 점에서 흘림그물 또는 흘림걸그물 등으로 불린다. 유자망의 길이와 그물코의 크기는 대상 어종의 종류, 어장의 상태,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사용되는 유자망은 높이 15~27m, 길이 1k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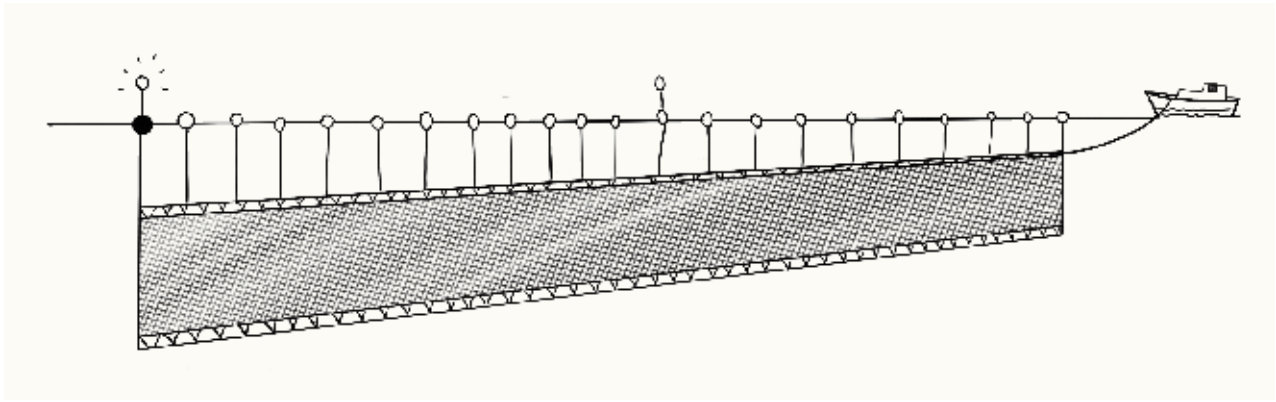
이며, 먼 대양에서는 길이 10~30km의 대형 유자망이 사용된다.

그물을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고정걸그물 어업, 흘림걸그물 어업, 두리걸그물 어업 등으로 구분하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된다. 동해에서는 꽁치·명태·오징어 등을, 남해에서는 멸치·삼치·고등어·전갱이 등을, 서해에서는 참조기·전갱이 등을 어획하며 연근해 어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정걸그물(고정자망류 固定刺網類, Set gill nets)은 수면 저층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다. 그물 위쪽에는 뜰(그물이 수면에 뜰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을, 아래쪽에는 발돌(그물이 수면 아래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을 달아 수직으로 펼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 방식이다. 크게 바닥고정걸그물과 뜰고정걸그물로 구분된다. 바닥고정걸그물은 발돌을 무겁게 하여 수면 저층에 설치하며, 뜰고정걸그물은 발돌을 가볍게 하여 수면 표·중층에 설치한다. 주로 명태·도루묵·볼락·임연수어·참돔 유자망 등이 있다.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며, 어선의 대형화로 인하여 어구 규모와 배 한 척당 사용하는 어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흘림걸그물(유자망류 流刺網類, Drift gill nets)은 수면 표·중층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다. 그물을 수직으로 펼친 뒤 고정하지 않고 해류와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하여 어류를 잡는 어업 방식이다. 그물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표를 설치하여 수시로 위치를 확인한다. 또한 그물을 던질 때부터 걷어올 때까지 예상 이동 거리 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므로 근해나 원양에서 회유성 어종을 주로 잡는다. 간혹 연안에서 저층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바닥흘림걸그물을 사용할 때도 있다. 국내에서는 꽁치·오징어·송어·멸치·고등어·삼치·참조기 유자망 등이 있다.

두리걸그물(선자망류 旋刺網類, Encircling gill nets)은 수면 표·중층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된다.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어 위협을 하면 물고기가 흩어지면서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하는 어업 방식이다. 그물을 수직으로 펼치는 방법은 다른 어법과 동일하며, 이때 2~3종의 그물을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그물의 폭이 매우



유자망 | 인천광역시

크다. 특히 어군이 모여 있는 부분은 3중 그물로 구성되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수심이 얇은 연안에서 주로 행해지며 송어·전어 유자망 등이 있다.

지역사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월곶포구와 오이도포구 등에 출입하는 소형 어선들은 대부분이 유자망 어선이다. 시흥 해역 인근의 팔미도·덕적도·쌍섬 등지에서 주로 꽃게, 대하, 도다리, 병어, 전어, 송어, 가자미, 광어, 넙치, 가재 등을 잡는다. 오이도를 비롯한 시흥 해역에서는 유자망을 ‘척고그물’ 또는 ‘초코그물’이라고 부른다. 1965년부터 출현한 소형 어선을 ‘초코배’라고 부르고, 초코배에서 사용한 유자망을 ‘초코그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초코그물은 3중 그물로 어족자원을 남획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시흥 해역은 전통적으로 갯벌에서 행해지는 조개류 채취 어업이나 말목과 그물을 이용한 어살 어업이 주를 이루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염전이 개발되면서 갯벌 어업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1980~1990년대에 시화지구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서 갯벌이 사라져 소형 선박을 이용한 유자망, 연안 안강망, 연승, 낭장망, 통발 어업 등이 주류를 이뤘다.

시흥 해역에서는 높이 1.5m, 길이 40m에 이르는 크기의 유자망을 ‘한 떼’의 단위로 센다. 2중 그물로 바깥 그물은 88~95.5mm, 안쪽 그물은 50mm 크기의 그물코로 구성된다. 어선은 대체로 5t 미만이며, 두세 명이 승선하여 함께 조업한다.

특징 및 의의 유자망 어업은 다른 어법에 비하여 조업선과 어구의 규모가 작음에도 대상 어종을 잡는 즉시 선상에서 빙장 처리한 후 육상에서 엄장 처리를 거쳐 냉동·건조하는 가공제품을 생산한다. 이 때문에 어획물의 신선도가 유지되어 상품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문헌 선자망어업이 어업생물에 미치는 영향(한인우 외, 수산해양기술연구 53-1, 수산어업기술학회, 2017), 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현황과 어획변동에 관한 연구(강성국,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국립수산물관리원(nifs.g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정명훈(鄭明勳)

육상수조식양식어업

陸上水槽式養殖漁業

정의 해안 가까운 육상에 콘크리트나 합성수지로 다양한 크기의 수조를 설치하고, 양수 시설로 해수를 교환하면서 수산생물을 키우는 양식 방법.

역사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은 <수산업법>(법률 제4252호, 1991.2.2. 시행)에서 규정된 명칭이다. 제14차 개정에서는 육상양식어업을 신설하며 육상의 사유지에 인공적으로 양식시설을 조성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육상수조식양식어업으로 규정하였고, 종전의 면허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였다(제41조). 제16차 개정(법률 제5131호, 1995.12.30. 개정)에서는 허가어

업이었던 육상양식어업을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5년 만에 폐지하고, 제44조 신고어업으로 규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으로 육상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하여 더 자유로운 육상양식어업 활동을 보장한 것이다.

제26차 개정(법률 제7314호, 2004.12.31.)에서는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의 구분별한 신규 진입으로 인한 적조 피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였다.

내용 해안 가까운 육상에 콘크리트나 합성수지(FRP 등)로 다양한 크기의 수조水槽를 설치하고, 양수 시설로 해수를 끌어 올려 교환하여 주면서 수산생물을 키우는 방법이다. 노폐물은 사육 수조를 통과하는 유출수流出水를 따라 밖으로 배출되며, 산소 공급기를 통해 끊임없이 산소를 보충해 양식 어류의 건강을 증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8호, 2021.2.9.)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에서 육상수조식양식업을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 민물, 기수汽水(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서성의 넙치류 양식, 전복 양식, 새우 양식 등에 주로 사용한다. 순환여과 시스템이나 새우류에서는 바이오플락bio-floc 시스템(미생물 등을 활용해 사육수 내 오염물질을 정화한 후 다시 양식생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생태계 순환 체계) 등으로 사육생물의 수질 환경을 조절한다. 육상수조식은 원래 어패류의 종자 생산을 위해 고안된 가온 종자 생산 시설이었다. 그러나 유영 범위가 좁은 어류 양식에 도입하여 크게 성과를 보자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의 대표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다.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예로서 전복 육상 양식장은 전복의 생리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건과 시설유지를 위한 지형 조건 그리고 관리 인력의 복지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조류의 소통이 원활한 외양성을 띤 해안
2. 간조 시에도 수심이 확보되어 해수의 취수에 영

향이 없는 곳

3. 저질이 모래나 암반으로 되어 있어 풍파에도 수질의 혼탁이 적은 곳

4. 장마나 홍수 시 담수나 갯벌 물의 영향이 적으면서 해수의 비중이 1.020 이상인 곳

5. 육상 또는 해상 교통이 편리하여 관리가 쉬운 곳

6. 적조의 발생이 없고 수온 변동이 심하지 않은 곳으로서 겨울철 최저 수온이 8℃ 이상이며, 여름철 최고 수온이 27℃를 넘지 않는 곳

7.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없는 곳

8. 인근에 도시와 공장 등 오염원이 없어 수질 및 공해의 피해가 없는 곳

전복 육상 양식장의 선정에 있어 해수의 수질 점검과 취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 간조와 최대 만조 시에 조사해야 하며, 이 외 적조 및 태풍 피해 등에 대해서는 주변의 청취조사나 해당 지자체의 피해조사 사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육상수조 양식은 겨울의 저수온기나 여름의 고수온기에 히트펌프나 보일러 또는 냉각기를 사용하여 사육생물에 적합한 수온을 조절하며, 사육생물의 관찰이 쉽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것 등 장점이 많다. 특히 육상에서 양식 환경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 생물의 생존율이 높고, 관리 작업이 용이하며, 도난과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육상수조식 양식은 육상에 기본 시설인 양성 수조를 설치하고, 그 밖의 어류 활동을 촉진하는 유수시설流水施設·가온시설加溫施設, 사료의 저장 및 제조 시설, 기



힌다리새우 양식 | 인천 강화 | 2019 | 국립민속박물관



전복 양식 | 전남 완도 | 2015 | 완도군

계·전기 시설, 관리사 및 창고 시설 등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갖추고 어류를 계획적으로 양식하는 ‘육상의 어류 생산공장’과 다름없는 양식 방법이다.

참고문헌 양식개론(유성규, 구덕출판사, 2001), 양식어업의 어장이용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최정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2), 전복양식시설과 배합사료(해양수산부, 200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박민우(朴民祐)

은어잡이

정의 4~5월부터 11월까지 강에서 은어의 생태 특성을 이용하여 낚시·투망·죽대·맨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어를 잡는 일.

개관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地理志를 보면 동해안 전 지역에서 은어銀魚를 공납으로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입술 주변이 하얗서 은구어銀口魚 또는 배 부분이 은빛으로 반짝여서 은광어銀光魚, 한 해만 살기에 연어年魚라고도 불린다.

은어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산란하며, 알에서 부화한 치어는 바다와 민물 경계인 하류로 내려가서 겨울을 난다. 봄이 오면 은어는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가을에 산란한 뒤 하류로 내려와 생을 마감한다. 이때 하류로 내려오는 은어를 ‘내림은어’라 하는데, 내림

은어는 먹이활동을 안 하므로 굶어서 죽는다. 이러한 성정이 선비를 닮았다 하여 ‘물속 군자[水中君子]’로 불리며 널리 사랑받기도 하였다.

내용 은어를 잡는 방법은 쭈리질, 파리낚시(털바늘낚시), 곤쟁이낚시(공갈낚시), 은어를 미끼(도모, 뽕고기)로 큰 은어를 잡는 돌림(놀림)낚시, 걸쟁이낚시(걸쟁이질), 홀치기낚시, 맨손잡기 등 다양하다.

봄에는 쭈리질·파리낚시·곤쟁이낚시로 작은 은어를 잡으며, 7~8월 사이에는 비교적 큰 은어를 잡는다. 물이 차면 은어의 활동이 줄어 낚시로 잡기 힘들다. 비가 오면 낚시를 중단하고 며칠 뒤 수온이 올라갔을 때 낚시를 재개한다. 은어는 이끼가 낀 돌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은어를 잡을 수 있다.

쭈리질과 곤쟁이낚시는 4월에서 5월경 일몰 30분 전에 제일 잘된다. 날벌레가 많이 나는 시간대로 작은 은어들이 날벌레를 먹기 위해 수면 위로 튀어 오르기 때문이다. 쭈리질은 두 발(3.5~4m) 길이의 대나무 낚싯대로 잡는다. 미끼로는 돌에 붙어 1cm 되는 짐을 짓고 사는 작은 애벌레를 잡아서 사용한다. 곤쟁이낚시는 곤쟁이를 미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한다. 파리낚시는 하천 안쪽으로 들어온 은어를 가짜 미끼로 잡는 방법이다.

7~8월이 되면 은어는 20~30cm로 자란다. 성장한 은어는 강의 중상류에서 청태 같은 이끼를 먹고 살기 때문에 미끼를 쓰는 낚시가 통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돌림낚시로 영역배타성을 이용하여 잡아야 한다. 돌림낚시는 작은 은어로 큰 은어를 잡는 방법이다. 우선, 곤쟁이낚시로 작은 은어를 잡는다. 이때 작은 은어를 뽕고기 또는 도모라고 한다. 작은 은어의 아가미에 낚싯바늘을 꽂고 움직임이 많은 뒷부분에 작은 삼중낚시를 꿰어 큰 은어를 유인하여 잡는다. 큰 은어 한 마리의 활동 영역은 반경 1m로, 은어를 한 번 잡으면 1m 이상 이동하여 다른 은어를 찾아야 한다.

겨울철 강 상류에는 조금 따뜻한 샘물이 있는데, 이곳에 남은 은어를 ‘묵사리’라고 한다. 하류에서 잡히는 은어는 1년생이지만 묵사리는 2년생으로 다른 개체보다 크기 때문에 6월부터 돌림낚시를 하여 잡을 수 있다. 매년 6월에는 2년생인 묵사리를, 7~8월에는 성장



돌림낚시 | 강원 삼척 | 2019 | 김도현



돌림낚시 미끼 | 강원 삼척 | 2019 | 김도현

한 1년생 은어를 돌림낚시로 잡는다.

경상남도 하동군을 비롯하여 남해안 지역의 물살이 빠른 하천에서는 걸갱이(글갱이)로 은어를 잡는다. 걸갱이낚시 도구는 걸갱이와 묶은 바늘, 조래기, 물안경 등이다. 물안경을 쓰고 은어를 보면서 낚싯대에 매단 바늘로 은어의 몸통 아래쪽을 걸어 잡는 방법이다. 머리를 약간 돌려 옆을 보고, 왼손으로 은어를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걸갱이를 잡고 있는 오른팔을 약 45° 위로 꺾어서 은어를 향해 내려친다는 느낌으로 낚는다. 은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살 아래로 쫓으면서 잡는다.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서는 은어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 대나무 같은 긴 막대를 대어서 은어를 몰아 손으로 잡는데, 이를 ‘몰이’라고 한다.

한편 맑은 물에서 낚싯바늘을 늘어놓고 기다리다 은어가 지나가면 채쳐서 잡는 방법도 있다. 은어는 매우 빨라 그물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로 여기지만 투망이나 여러 망태의 정치망을 활용하여 은어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어업 허가가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은어에 대한 생태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은어잡이가 전승되고 있다. 꾸리질과 곤쟁이낚시, 파리낚시부터 돌림(놀림)낚시, 걸갱이낚시, 흘치기낚시, 맨손잡기까지 습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양한 은어낚시를 할 수 있다. 민물고기 중 최고로 여겨지는 은어를 잡는 것은 하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7~8월 무더운 여름에 하는 취미 활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해안에

서 은어를 잡는 시기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8월 31일까지 제한된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삼척지역 내수면 어업 민속 고찰(김도현, 박물관지27,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21), 은어 잡이가 한창인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동천(조해훈, 인저리타임, 2021.6.27.).

필자 김도현(金道賢)

의염색 義鹽色

정의 국가의 관리하에 생산된 소금을 팔아 마련한 곡식으로 의창의 곡식을 보충하여 염세의 철저한 관리와 의창의 충실화를 함께 이루기 위해 1445년(세종 27)에 설치한 기구.

개관 의창은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진휼賑恤의 성격을 띤 시설이었는데, 의염창義鹽倉도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다만 의염창은 곡식이 아니라 소금을 관장하는 시설이었다. 고려 때에도 의염창이 설치되어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봄과 가을 두 차례 소금을 지급하였다. 1372년(공민왕 21)에 판도좌랑版圖佐郎 최유경崔有慶의 건의로 권세가와 토호들이 점령한 의염義鹽의 염분鹽盆들을 모두 염창鹽倉에 속하게 하였으며, 1392년에 조선이 개국되면서 관제를 공포할 때에도 염세를 관장하는 의염창을 두었다.

내용 1445년 8월에는 공조참판 권맹손(權孟孫)의 건의에 의염색이 설치되어 전운색(轉運色)과 아우르게 되었다. 의염을 팔아 곡식을 사들여서 의창의 빈 곳을 채우려면 많은 의염을 생산해야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 생산이 적합한 곳에 충분한 염호(鹽戶)를 배정하여 소금 생산의 극대화를 꾀해야 하였다. 그래서 각도의 소금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445년 9월 초에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 경차관(敬差官)들을 파견하였다. 강원도 삼척, 경기도 남양(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황해도 웅진, 경상도 동래(현 부산광역시 동래), 충청도 태안, 전라도 홍양에 파견된 경차관들은 이듬해 정월에 돌아와서 각 고을의 염분 숫자, 소금 생산에 동원된 인원, 소금 생산량, 소금을 팔아서 얻은 곡식과 배그리고 남은 소금의 양과 소금 생산에 들어간 비용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으로는 소금을 화매(和賣)한 이익이 적지 않아 의창의 곡식을 채우는 데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자 누락된 염호들을 엄밀히 조사해서 찾아내고 숨긴 염분도 찾아내어 만전을 기한 다음에 법을 제정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공한지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소금을 생산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본래 소금 생산에 종사하던 염호를 찾아내거나 선군(船軍)을 동원하여 소금을 굽는 방책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흥년에 염호를 차출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많았고,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자 염간(鹽干)들이 고된 소금 굽는 일이 직역으로 고착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금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금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다. 염전이나 염분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던 지방의 이익과도 상충하여 시행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결국 의염색은 설치된 지 8개월이 지난 1446년 5월에 폐지되고 전운색이 다시 복구되었다.

특징 및 의의 고려 이래로 염세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소금 생산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편차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문제 등으로 언제나 개혁적인 정책의 집행이 쉽지 않았다.

의염색도 그러한 여러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였다. 더군다나 흥년에 시행된 탓에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백성들의 작은 이익까지 넘보려는 악법’이라는 비난마저 일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1년도 채 못 되어 중단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14세기 각염제의 성립과 운용(권영국, 한국사론1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충선왕의 염법개혁과 염호(강순길, 한국사연구48, 한국사연구회, 1985).

필자 정연식(鄭演植)

의염창 義鹽倉

정의 여말선초 국가에서 전매하는 소금의 생산·유통을 담당한 관청.

내용 염세(鹽稅) 실무는 국가에서 전매하는 소금을 말한다. 고려 초기부터 도염원(都鹽院)이 맡아봤으나 염분(鹽糞)을 궁가나 권세자에게 많이 나눠 줘 염세를 국가재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충렬왕(忠烈王)은 재임 초기부터 염세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1292년(충렬왕 18)에는 염세 관리를 위해 지방에 염세별감(鹽稅別監)을 파견하였다. 그 후 1309년(충선왕 원년) 도염원을 민부(民部)에 병합하고 소금전매제인 각염법(榷鹽法) 시행을 위해 의염창(義鹽倉)을 창설하였다. 의염창 창설 이후에도 염세 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염세 징수관을 지방에 파견하였다. 예를 들면 충혜왕 때는 염장별감(鹽場別監)과 염철별감(鹽鐵別監)을 지방에 파견하였으며, 공민왕(恭愍王) 때도 염철별감을 파견하였다. 의염창은 1392년(태조 원년)에 제정된 문무백관의 관제에도 염세 관장 기관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었으나 태조가 즉위하자마자 소금전매제 시행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1394년(태조 3)경 사재감(司宰監)에 기능을 넘겨주고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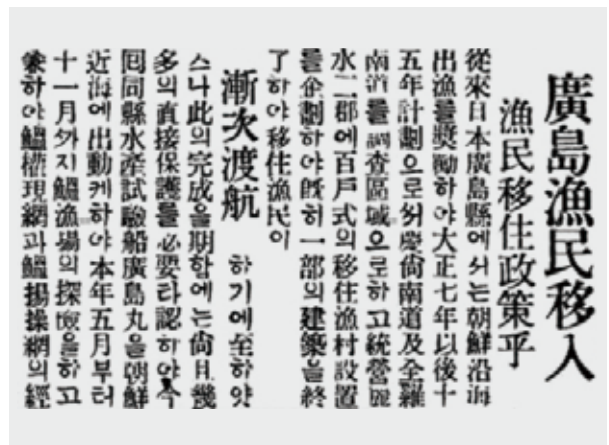
참고문헌 고려시대의 염업제도(손홍열, 청대사립3, 청주대학사학회, 1979), 고려 후기 염업고(홍종필, 백산학보30·31, 백산학회, 1985),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이육,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필자 김진백(金鎭白)

정의 일제강점기 전후 한반도의 도서 해안 지역에 건설되었던 일본인 어민의 집단 거주 어촌.

역사 일본은 1883년 <제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이하 <조일통상장정>) 및 1889년 <조선일본양국통어장정>(이하 <조일통어장정>)을 체결하여 어장 침탈을 위한 합법성을 확보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1897년 <원양어업장려보조법>을 발표하여 한반도 해역을 침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양어업장려보조법>이 제정되면서 한반도 연안으로 출어하는 일본 어민은 정부에게서 교부금을 받게 되었다. 1900년 ‘한해통어조합’이 설립되어 여권 없이도 조선으로 도항이 가능해지면서 일본 어민의 이주가 점차 늘어났다. 일본은 특히 한반도 연안에서 무역항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경기도 인천(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현 부산광역시)·마산(현 창원시), 함경남도 원산(현 강원도 원산) 등을 어업근거지로 주목하였다. 1900년 일본 정부 주도로 부·현별로 ‘조선해통어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지방에서 통어조합 설립이 완료되기 전에 ‘조선해통어조합연합’을 결성한 다음 본부를 부산에 뒀다. 한반도 해역에서 일본인의 어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였다. 연합회 업무는 조선해 입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일이었으나 무엇보다 조선을 침략하려는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컸다.

1903년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조선해통어조합 및 연합회가 해산되고 ‘조선해수산조합’이 설립되었다. 일본은 1904년 6월 강제로 <조일통어장정>을 개정하여, 입어 금지구역인 평안도·황해도·충청도·경기도 등의 연해 어장을 개방토록 하였다. 이로써 일본 어민은 조선의 모든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입어하게 되었다. 1904년 <어업근거지이주규칙>을 발표하여 일본인의 이주 자격을 구체화하였다. 1905년 <원양어업장려보조법>을 전면 개정하여 일본 어민의 출어와 이주 지원책을 강화하였다. 일본 정부는 종래의 단순 입어에서 어업 이주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일본 정부의 일관된 어업 정책은 한반도의 식민기지화였다.



히로시마 어민 이입 | 1922.5.24. | 동아일보

내용 1908년 <한일어업협정>과 <한국어업법>이 제정되면서 일본 어민은 한반도 연안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앞두고 경남 부산 영도, 울산(현 울산광역시) 방어진, 거제 장승포 등지에 본격적으로 식민 이주어촌을 건설하였다. 거제 장승포의 ‘이리사촌’은 조선해수산조합에서 전략적 목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조합 직영어촌이었다. 한반도 곳곳에 이주어촌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게 된 데에는 전략적인 목적과 일본 내부의 어업환경 악화가 맞물려 있다. 당시 일본은 연안 어장의 어자원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촌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어 인구송출 압박이 팽배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급속도로 늘어났던 이주어촌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증가세가 점차 누그러졌다. 이미 형성된 이주어촌에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규모도 커졌다. 1914년 기준으로 한반도에 건설된 이주어촌은 100개가 넘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 패하면서 이주어촌에 살았던 일본인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건물과 공간은 사뭇 달라졌지만,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일본 어민은 일본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곳곳에 집단 거주지를 만들었다. 일본인 학자 요시다吉田敬市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건설한 이주어촌을 보조이주어촌補助移住漁村이라 하고, 어민이 스스로 건설한 이주어촌을 자유이주어촌自由移住漁村이라고 하였다. 이런 구분은 일본인의 관점에서 이주어촌의 설립 시기와 이주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이든 한반도에 설립되었던 일

본인 이주어촌은 건설 당시 혹은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 어민도 이주 혹은 정착 과정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후원과 도움을 받았다.

이주어촌 건설 이후의 전개 과정과 발전양상은 보조이주어촌이든 자유이주어촌이든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주어촌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헌병대), 외부(일본)와의 연락망인 우체국, 2세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 등이 있었다. 이주어촌에 설치된 치안·교육·정보기관은 식민 지배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주어촌은 경찰서·우체국·학교 등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으며, 거주 공간의 구분과 경계는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 이주어촌에 자리를 잡았던 일본 어민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식민’의 목적으로 정착하였다. 한마디로 일본인 이주어촌은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위해 전략적 혹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건설된 일종의 식민기지였다. 이주어촌에

정착한 일본 어민은 점차 단순 어업 종사자에서 자본주의적 어업 경영자로 성장하였다. 일본 어민이 담당하였던 종래의 힘든 일을 저임금의 조선인이 떠맡으면서 일본인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더 손쉽게 축적할 수 있었다.

특징 및 의의 일본인 이주어촌은 주로 한반도 연안의 경상북도 포항, 경남 울산·부산·마산·통영·삼천포(현 사천시), 전라남도 여수 등과 같은 도시지역과 경남 거제도·육지도·남해도, 전라북도 어청도, 전남 나로도·거문도 등과 같이 일본과 가까우면서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건설되었다. 일본인은 식민 이주어촌에서 어업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며, 일본이 패배하여 본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이곳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일본 음식을 먹고, 일본 복장을 하고, 일본 학교에 다녔다.

참고문헌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김수희, 경인문화사, 2010), 식민 이주어촌의 흔적과 기억(박정석,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여박동, 보고사, 2002).

필자 박정석(朴正石)



일본식 가옥 | 경남 고성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일본식 가옥 | 부산 영도구 | 2019 | 국립민속박물관

입호제도 入戶制度

정의 마을어장, 임야, 시설 등 공유자원 이용과 이를 운영해 얻는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마을 규칙.

내용 입호는 마을공동체 성원 자격을 얻는 규칙이다. 성원 자격은 공유자원의 가치나 크기, 마을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는 유사하다. 가장 먼저 마을에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하고 마을에서 정한 거주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마을에서 정한 가입금(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입금은 공유자원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산성이 높은 마을어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금이 많다. 마을어업의 가치가 없는 경우 가입금이 없는 어촌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사하는 것



입호 주민 전용 어장 | 전남 무안 | 2010 | 김준



입호 가구 어장 | 전남 장흥 | 2007 | 김준

만으로도 성원 자격을 갖기도 한다. 반대로 마을어업 가치가 높은 경우 외지인의 입호를 불허하기도 한다.

마을어장 개발에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입호를 하려면 구성원이 자격을 내놓았을 때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갖기도 한다. 마을 내부에서도 외지인과 마을주민 사이에 가입금의 차이가 있다. 외지인에게는 높은 가입금을 부과하지만 마을주민(출향인사를 포함하는 마을도 있다)에게는 낮게 부과한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식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입호를 하면 공유자원의 권리를 얻는 것 외에 마을회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도 주어진다. 입호를 위해 마을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어진다. 가입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다.

1960~1970년대 가입금은 ‘백미’ 몇 가마로 정하였다. 마을주민일 경우 장남은 부모 입호권을 물려받고,

차남은 분가해 새로운 권리를 얻어야 한다. 출향인사가 귀향해 거주할 경우에도 외지인과 같이 새로운 입호권을 받지만 입호료는 외지인보다 낮았다. 이 당시에는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많아 분가해서 술을 걸고 살림을 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이렇게 입호를 하면 마을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당시 마을공동어장은 지주식 김양식이나 투하식 굴양식 등 양식어업 중심이었다. 가구당 10여 척 지주식 김양식을 하면 생계유지는 물론 자식 교육에 필요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기에 마을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은 중요하였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라 하더라도 마을총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였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기존 성원들에게 미치지 않는 양식 규모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회원에게 15줄의 양식줄을 준다면 신규 가입자에게는 7줄이나 10줄 미만을 줬다. 입호권은 곧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권리였다. 과거에는 입호권을 갖기 위해서 ‘결혼—분가—승인—입호료’ 등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에는 ‘이주—승인—입호료’ 과정을 거친다.

오늘날에는 입호 자격을 얻었다라도 마을어업이나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마을 어촌계에도 가입해야 한다. 어촌계원이 되면 마을 공유자원 중 어업활동과 관련된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마을어장에서 얻는 소득이나 수산가공으로 얻는 수익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입호제도는 마을별로 규칙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어촌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되면서 어촌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가입을 원하는 귀촌자는 입호료나 마을발전기금을 ‘진입장벽’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어민들은 평생 어장을 관리하고 지켜왔으며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한다. 가입금이 어촌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마을 규칙이라는 점도 존중해야 한다. 이는 법과 제도 이전에 마을 규칙이기 때문에 마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어촌문화의 다양성은 경제적 기반이기도

하다. 최근 어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을사업이나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수산물가공공장, 마을펜션, 특산물판매장 등 새로운 공유자원도 형성되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인 구조와 어촌사회 변화에 따라 마을 규칙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다.

참고문헌 바닷마을 인문학(김준, 따비, 2020), 어촌사회학(김준, 민속원, 2010).

필자 김준(金準)

잉어잡이

정의 강과 저수지 등지에서 잉어를 잡는 어로행위.

내용 잉어는 주로 바닥이 진흙이고 유속이 느린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살지만 적응력이 뛰어나고, 조개·물풀·새우·곤충 등 먹이를 가리지 않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류이다.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하기에 전국의 강과 큰 저수지가 있는 곳에서는 잉어요리가 발달하였다.

잉어는 수요가 많다. 이에 맨손어업, 가리, 작살, 그물, 살, 낚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사시사철 잉어를 잡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가뭄이 들면 못안못의 물을 빼낸 후 햇불을 들고 밤낮으로 잉어를 잡았다고 한다.

잉어를 그물로 잡을 때는 바닥에 자망을 설치하여 잡는다. 현재 평택호(아산호)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장마 기간을 제외하고 홀자망을 이용해 잉어를 잡는다. 댐으로 인해 생긴 인공담수호로 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 그물에 달린 발돌의 무게만으로 어구를 고정한다. 청평호와 예당호도 삼중자망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영산강에서는 바닥에 삼중자망을 설치하는데, 유속에 따라서 강을 횡단하거나 흐름에 따라 설치한다. 강을 가로질러 설치할 때는 4쪽마다 부표를 달아 지그재그로 그물을 깔고, 양 끝 부표줄에 돌을 달아 고정한다. 한 번에 20~30쪽가량을 사용한다.

영산강에서는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잉어를 잡는다. 만경강도 삼중자망을 사용하며 6월 초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물이 어는 시기를 제외하고 잉어를 잡는다. 경호강도 11월 초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삼중자망을 사용한다.

잉어잡이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동강에서는 겨울이 되면 얼음에 구멍을 뚫고 얼음 밑으로 그물을 쳐서 강을 막았다. 얼음 위를 두드리며 잉어를 몰아오면 못질꾼들이 못으로 잉어를 찍었다. 임진강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겨울철 잉어를 잡았다. 이렇게 잡은 고기는 그물질, 몰이질, 못질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 이렇게 겨울철 잉어를 작살로 잡는 방법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에 소개되어 있다. 한강에서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몰아오는 것은 동일하나 못이나 작살이 아닌 삼봉낚시로 고기를 잡는다. 주민들이 조직한 ‘계’에서 얼음 밑 그물로 만들어 놓은 ‘방’ 안에 고기를 몰아넣으면 낚시꾼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삼봉낚시를 드리운다. 마포에서 양평에 이르기까지 얼음낚시 장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경기도 팔당 인근이다. 양평 두물머리에서 팔당댐 밑까지 그물을 치는 장소가 열두 곳이 있어 이를 ‘열두바탕’이라고 불렀으며,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방’을 만들어 낚시꾼을 받았다.

전어지에는 물이 언 강에서 혼자서 잉어를 잡는 법도 나와 있다. 바닥에 못이나 송곳이 박힌 나막신을 신고 다니다 잉어를 발견하면 얼음을 두들기며 잉어를 놀라게 하여 잉어가 도망치다 지칠 때까지 쫓는다. 그러다 잉어가 멈추면 얼음을 뚫고 작살로 잡는다. 이러한 방법은 화천이나 충주 등지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다.

어살을 설치하여 잉어를 잡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팔당 인근 열두바탕에서는 음력 8월부터 선달까지 반월형의 말뚝을 박아 잉어를 잡았다.

특징 및 의의 잉어는 등용문 고사, 효자 이야기, 파평윤씨(坡平尹氏) 시조담 등에도 등장한다. 잉어는 탕뿐만 아니라 보양식으로 쓰이는 물고기이다. 전국의 하천에서 잉어를 잡았으며 붕어와 함께 잉어는 낚시꾼의 주 어획 대상이다.

잉어를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내수면어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법으로 잉어를 잡았다. 어살·자망·낙시·작살 등을 비롯해 저수지 물을 빼고 잡고, 얼음을 뚫어 잡았다. 임진강, 대동강, 한강 등 물이 어는 지역에서의 겨울어로는 모두 잉어를 잡기 위한 어로행위였다.

참고문헌 佃漁志, 양평군지(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임진강1(경기도 박물관, 2001), 조선의 민속전통4(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한강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5), 한강 얼음낙시의 특성과 어로조직(편성철, 민속학연구4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2017),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현지조사자료(강우규, 경기 일산, 2020.2.4; 서병원, 경기 일산, 2020.2.4; 손낙기, 경기 하남, 2004.4.28.).

필자 편성철(片成哲)

天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

정의 영도대교 밑에 길게 늘어선 부산광역시의 수산물 시장, 즉 건어물시장·부산어패류종합시장·신동아시장·노점 일체 또는 법적인 상호를 쓰는 부산어패류종합시장을 말한다.

개관 자갈치시장은 가난한 어부들과 자갈치 아지매(아주머니)들이 버려진 생선상자로 좌판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다. 1935년 영도 선착장 완공 이후 인근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광복 후 상인 조합이 결성되면서 시장의 골격을 갖추었다. 그 후 대한해협을 건너온 귀환 동포와 6·25전쟁으로 밀려든 피란민들이 모여들어 본격적인 어물상가로 발전되었다.

1969년 부산은 노점상인 수용 대책과 주변 정비 일환으로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었고, 현 위치에 3층 건물이 건립되어 1970년 자갈치시장이 문을 열었다. 1972년 자갈치시장은 정식으로 시장 등록을 하였다. 1985년 큰 화재로 자갈치시장의 점포 231개소가 소실되었으며, 1986년 수산물종합백화점 형식의 건물로 새 단장을 하였다. 그러나 1986년 대형 화재 및 재해 위험건물 D등급 판정을 받고, 1994년 조합

원을 중심으로 시장 현대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01년 11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2006년 9월 갈매기 모양을 본뜬 7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것이 지금의 ‘부산어패류처리장’이다.

현재 자갈치시장은 부산어패류종합시장에 280개 점포, 건어물시장에 119개 점포, 신동아시장에 404개 점포, 노점 340개, 기타 100개 점포 등 모두 1,243개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다. 일일 방문객 수는 2020년 기준 약 1만 2,300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3,700억 원이다.

내용 자갈치시장은 국내 최대의 활선어시장이다. 어시장은 충무동의 선착장 일대 거리로만 300여m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부산시 내 전체 수요량의 80% 이상을 공급한다. 이들 어패류는 부산 가덕도·영도와 경상남도 거제도·통영 앞바다 등 남해에서 어획된 것으로 새벽 6시부터 자갈치시장 위판장에서 거래된다. 자갈치시장의 하루 활선어와 어패류의 위판 종류는 2020년 기준 300여 종에 이르며, 판매량은 4~6t이다.

자갈치시장 하면 ‘곰장어(떡장어)구이’가 유명하다. 부산어패류처리장 1층뿐만 아니라 자갈치시장 곳곳에 곰장어구이집들이 들어서 있다. 곰장어구이는 광복 이전까지 한국인의 기호식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지갑과 구두 등의 가족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죽만 사용하고 버리던 것을 싼값에 사다 구워 판 것이 시초가 되어 널리 식용되기 시작하였다. 자갈치시장에서 곰장어구이집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자갈치시장 | 부산 중구 | 2021 | 국립민속박물관

자갈치시장에는 싱싱한 활어회만 있는 게 아니다. 건어물도 회 못지않은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곳 건어물은 대부분 산지 직거래를 통해 구입되며 일부는 수협 남포동 공판장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의 건어물이 부산에 모여 퍼져나간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상인이 펼쳐놓은 건어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 자갈치건어물도매시장이다. 2,500여 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이곳에는 2020년 기준 두 골목에 걸쳐 160여 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특징 및 의의 자갈치시장은 1933년 자갈치 해안인 남빈(현 남포)이 매축(埋築)되자 부산항에서 고기를 잡던 영세한 어부들과 아지매들이 그곳에서 수산물을 파는 노점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광복 후 돌아온 귀환 동포들과 6·25전쟁 피란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장사를 하러 몰려들면서 본격적인 어물시장으로 발전하였다. 판매기(넙짚지)를 깔고 노점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파는 자갈치 아지매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은 다른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광경이다. 이와 더불어 자갈치건어물시장에는 1934년 이래 조성된 점포병영주택이 2020년 현재 150여 채가 남아 근대 상권으로 군집성이 있으며, 군데군데 보존이 잘된 일본식 주택도 있다.

자갈치시장은 국내 최대의 수산물시장으로서 부산 시내 전체 어패류 수요량의 80% 이상을 공급한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싱싱한 활어나 곰장어구이를 맛보기 위해 들르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어패류는 제

1·2구 잠수기수협공판장이나 해녀들에 의해서, 활어는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 어선에 의해 부두에서 직접 공급되어 해양 도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함’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부산의 억척 엄마 자갈치 아지매(유승훈, 여성우리62,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9), 어시장의 사적변천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김청열·조대훈, 경영사학28-1, 한국경영사학회, 2013), 韓國水産誌1(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

필자 문혜진(文慧珍)

자라잡이

정의 맨손이나 작살·뜰채·그물 등을 이용하여 자라를 잡는 일.

개관 자라는 거북목 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이다. 지역에 따라 자라, 자리, 자래 등으로 불린다. 한자로는 별鼈, 단어團魚, 팔왕八王, 각어脚魚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등갑의 길이는 15~17cm이고, 등갑과 배갑은 인대 조직으로 붙어 있다. 주둥이는 길게 튀어나왔는데, 머리와 목을 갑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네 다리는 굵고 짧으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물에서 민첩하게 움직인다. 자라는 밑바닥에 개흙이나 모래·자갈이 깔린 하천 또는 담수호에 산다. 드물게는 개천에서 포착되기도 한다.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조개 등을 먹이로 삼는다. 5~7월에 하천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는다.

자라는 약재와 식재료로 두루 이용되었다. 『동의보감東醫寶鑑』(1613)에는 자라의 등갑과 살의 약성·약효·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규합총서閩閩叢書』(1809)에는 자라점을 ‘왕비탕’이라 하고, 맛이 아주 좋다고 하였다. 또 “새끼 자라를 먹지 말라.”라고 하거나 “자라 고기를 먹으면 몸이 움츠러든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 『지봉유설芝峯類說』(1614)에는 “자라를 즐겨 먹던 고을의 원님이 자라가 눈물을 흘리기에 놓아주자 고마워하는 듯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처럼 예



자갈치시장 | 부산 중구 | 2021 | 국립민속박물관



자라 | 충남 금산 | 2018 | 박종익

天

자
망

부터 자라는 보혈補血에 이롭고 맛이 좋아 어획의 대상이었다.

내용 자라는 물속에서는 민첩하여 잡기가 어렵다. 이따금 바위에 올라 별을 쫓다가도 천적의 위협을 감지하면 재빨리 물로 들어간다. 줌처럼 물을 떠나지 않는 자라가 하천 주변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다. 바로 산란기이다. 이때가 맨손으로 자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자라를 잡는 데 쓰이는 어구에는 작살·뜰채·그물 등이 있다.

작살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가장 원시적인 어구 중 하나이다. 보통 찌르개살과 작살 두 종류가 있다. 근래까지 민간에서 널리 사용된 작살은 쇠스랑처럼 날카롭게 버린 삼지창三枝槍, 혹은 일지창一支槍이다. 여기에 길이 3m쯤 되는 장대를 끼우는데, 긴 것은 4~5m가 족히 된다. 작살로는 자라나 모래무지,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치리·잉어·붕어 등을 포획하였다. 삼발이로 강바닥을 긁으면 자라나 모래무지 등이 튀어나오는데, 작살을 던져 췌어 잡는다.

금강 상류에서는 작살을 ‘창살’이라고 부른다. 형태는 쇠스랑과 유사한 삼지창으로, 길이 20cm 남짓한 쇠창살에 5~6m의 장대를 끼운 어구이다. 늦가을에 강의 모래 속에 숨은 자라나 큰 고기를 찍어서 잡았다. 또한 백마강 일대에서는 강물이 결빙되는 겨울철에 작살을 이용한 어로가 전승되었다. 얼음을 반경 30cm 정도 크기로 깨고 그 속에 작살을 넣어 강바닥을 긁으면 고기가 작살에 췌어 올라온다.

어구로 낚아채는 방법도 있다. 금산 적벽강 일대에서는 뜰채와 다슬기를 채취하는 형망桁網이 자라잡이의 유용한 어구로 사용되고 있다. 다슬기 형망은 작은 배에 그물을 매달아 바닥을 긁거나 훑어 다슬기를 잡는 어법이다. 주로 야간에 채취가 이루어지는데, 어망이 강바닥을 긁으면 진동과 불빛에 놀란 자라가 수면 위로 떠 오른다. 이때 뜰채를 갖고 있다가 빠르게 자라를 낚아챈다. 뜰채질을 할 때는 자라의 머리를 먼저 어망으로 넣어야 한다. 그래야 손쉽게 포획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빠져나가거나 놓치기 일쑤이다. 자라잡이에 능숙한 어부는 2인 1조로 매월 50~60마리의 포획이 가능하다고 한다. 뜰채를 이용한 자라잡이는 6월부터 여름이 적기이다.

특징 및 의의 자라는 연못이나 비교적 깊은 물에 산다. 과거 천수답 주변에 둠병을 조성한 곳에 으레 자라가 있었다. 하천의 경우 물살이 빠르지 않고 수심이 깊은 곳에 산다. 활동영역이 넓지 않고 담수나 늪지 같이 좋아하는 서식환경에 집중되어 있다.

자라는 개체 수도 많지 않고 은폐된 환경을 좋아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라를 잡기가 쉽지 않다. 과거 둠병이나 연못에서 고기를 잡다보면 몇 마리의 자라를 잡을 수 있었다. 작살을 동원해 잡거나 우연히 족대에 자라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근래 다슬기잡이 어부나 내수면 어부들이 형망이나 정치망을 통해 자라를 잡고 있다.

참고문헌 閭閻叢書, 蘭湖漁牧志, 금강 유역의 어로문화(강성복, 금강 수로와 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9), 섬진강 유역의 전래어법과 어로기술·어로유산(강성복, 무형유산4,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익(朴鍾翼)

자
망
刺網

정의 대상 생물이 망목(그물코)에 꽃히거나 얹히게 하여 잡는 어구.

내용 자망은 그물의 구성이 쉽고 어민들이 조업방법 및 어획 원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어구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1908년부터 1911년까지 작성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몇몇 자망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명태자망·상어그물·정망·삼치유자망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자망이라고 하면 걸그물류와 엽애그물류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이들 두 종류의 그물류는 가로로 긴 사각형의 그물을 수면이나 해저 면에 수직으로 부설한다는 점과 목표로 하는 대상어가 자망을 지나쳐갈 때 어획한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도 비슷하고 어획방식도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걸그물은 대상 생물이 꽂혀서 잡히고 엽애그물은 대상 생물이 엽히거나 가두어져 어획된다는 점과 이들 어구는 각각의 어획방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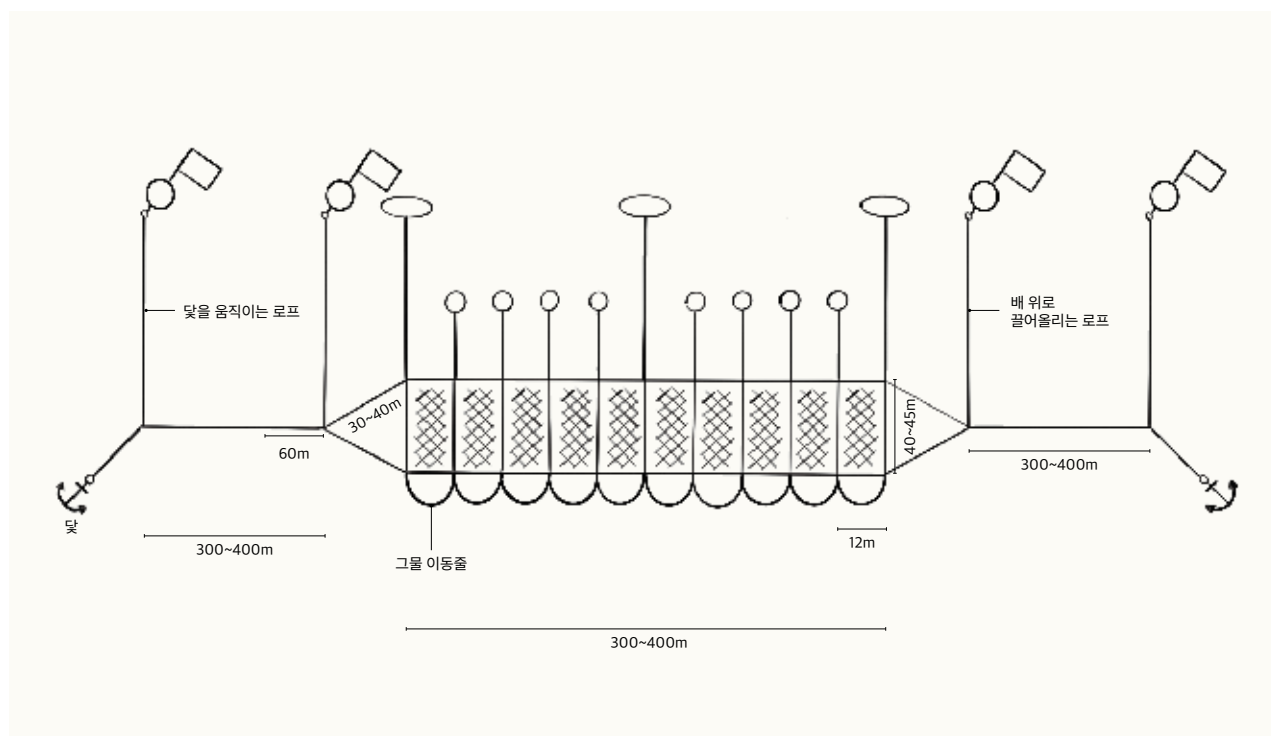
걸그물류는 가로로 긴 사각그물을 물고기 등 대상 어획물이 지나가는 길에 설치하여 어획물이 그물코에 꽂히도록 하여 잡는다. 걸그물류 어구는 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일정한 가로 방향으로 긴 사각형 그물의 윗부분에 부자(뚝)를 부착한 뚝줄을 달고,

아랫부분에는 발돌(침자)을 단 발줄을 달아서 그물을 수면 혹은 해저 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부설하여 그물코에 대상 어류가 꽂히게 하여 어획한다.

이때 그물코의 크기가 물고기의 가장 큰 아가미 부분 둘레보다 작으면 물고기의 머리 부분이 그물코에 꽂혀 양망 중에 빠지기 쉽고, 그물코의 크기가 물고기의 아가미 부분 둘레보다 크면 물고기가 그물코에 잘 걸리지 않게 되므로 목표로 하는 대상어의 크기를 고려하여 그물코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엽애그물의 형태는 걸그물과 유사하다. 하지만 어획물이 그물코를 지나다가 어류는 아가미나 지느러미가, 패류는 껍데기가, 갑각류는 발이나 등딱지 등이 그물발에 엽히도록 어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엽애그물은 그물에 어획물이 잘 엽히도록 그물에 주름을 많이 주거나 이중 이상의 그물을 사용하는 것이 걸그물류와의 큰 차이점이다.

자망은 어구를 부설하는 수심에 따라 표층자망, 중층자망, 저층자망으로 구분한다. 자망어구를 특정한 수심에 부설하는 이유는 목적하는 대상 생물의 서식수심과 관계가 있다. 특히 목표로 하는 대상 생물이 계절별·시간별 서식수심이 달라지면 이를 고려하여 어구



침대자망 | 국립수산물학원

의 수심을 결정하고 부설한다. 어구의 부설 수심을 조절할 때는 뜬의 부력과 침자의 침강력의 차이를 이용한다. 그물감이 부표줄의 어디쯤에 부착되었는지 등에 따라 수심 조절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층자망은 뜬의 부력이 침자보다 상당히 크고 뜬줄을 부표줄의 상단, 즉 부표와 근접하여 붙임으로써 그물감의 뜬줄이 수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물감을 중층에 부설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부표줄에서 부설하고자 하는 수심만큼 내려간 위치에 그물감을 부착하는 것이다. 이때 뜬줄보다는 그물의 침강력이 강하면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부표줄 부표의 부력이 어구의 전체 침강력보다 커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어구를 멍이나 닻을 이용해 바닥에 고정하고 이와 연결된 부표줄의 대상수심에 부력이 침강력보다 높은 그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층자망으로 어구를 부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층자망을 중층자망과 부설하는 방식으로, 밧줄이 해저에 닿도록 하면 된다.

자망은 부설 위치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고정그물·흘림그물(유자망)·두릿그물(선자망)로 나뉘기도 한다. 고정그물은 그물의 한쪽 혹은 양쪽 끝에 그물을 고정하기 위해 닻이나 멍을 내려 해저에 고정하는 것이고, 흘림그물은 어구가 조류나 해류에 따라 자유로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두릿그물은 그물로 어군을 둘러싸고 소리나 빛 등으로 자극을 주어 고기가 놀라서 도망가며 그물코에 끼히도록 하거나 유형속도가 빠른 어군을 둘러싸서 도망가는 어군이 그물에 얽히도록 하여 어획하는 것이다.

자망은 그물감을 연결하여 가로로 긴 어구를 만드는 것으로, 어구의 구성이 쉬워서 어민들이 조업방법 및 어획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기 쉽다. 또한 어선의 크기, 조업자의 수, 어장의 크기, 목표어군의 크기 등 주어진 작업환경에 따라서 어구의 크기를 조정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근래에는 양망 시 그물이 쉽게 뜯어지지 않도록 뜬줄에서 밧줄로 그물실보다 굵은 줄(일명 지지줄)을 내려 묶는 그물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줄 자망이라고 한다. 지지줄 자망은 그물이 뜯어지지 않도록 보



자망 조업 | 차봉진

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지줄의 길이를 그물감의 수직길이보다 짧게 함으로써 그물에 움살(그물감의 길이가 지지줄 보다 길어 생기는 주름 혹은 주머니)을 만들어 어획물이 얽히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망을 투망할 때는 닻이나 멍을 먼저 물속에 넣고 그다음으로 부표를 단 부표줄을 물속으로 넣는다. 이어서 어선을 미속으로 전진하면 그물은 자연스럽게 펼쳐지며, 그물을 드리우고 나면 나머지 한쪽의 닻을 넣어 전체 투망을 마무리한다. 양망은 투망의 역순으로 진행되는데, 한쪽의 부표줄을 어선으로 올린 후 정지한 상태에서 그물을 끌어 올린다. 투망은 과거의 방식과 차이가 없으나 양망은 어업기기의 발달에 따라 과거와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자동화된 기기가 개발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인력으로 그물을 끌어 올렸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양망기를 사용한다. 양망기는 원형의 물러에 그물이 통과하면서 마찰력으로 그물이 어선으로 올라오는 구조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자망의 종류로는 걸그물류 중 고정걸그물인 명태 저자망, 도루묵 저자망, 임연수어 저자망, 까나리 저자망, 오징어 저자망, 청어 저자망, 볼락 저자망, 참돔 저자망, 양태 저자망, 쥐치 저자망, 잉어 저자망 등이 있다. 아울러 흘림걸그물류인 콩치 유자망, 오징어 유자망, 빨강오징어 유자망, 송어 유자망, 고등어 유자망, 방어 유자망, 멸치 유자망, 동갈치 유자망, 참조기 유자망, 부세 유자망, 민어 유자망, 삼치 유자망, 상어 유자망 등이 있다. 이 밖에 두리걸그물류인 송어 선자망과 전어 선자망, 깔그물류로 까나리 깔자망도 있다. 엽애그물류로는 흘엽애그물류인 가오리 저자망, 가자미 저자망, 대게 저자망, 꽃게 저자망, 꽃게 주머니엽애그물, 병어 주머니엽애그물, 젓새우 주머니그물, 꽃새우 주머니그물, 참게 주머니엽애그물 등이 있다. 또한 이중엽애그물류로는 민어 이중자망이 대표적이며 삼중엽애그물류인 볼락 삼중자망, 망둑어 삼중자망, 가자미 삼중자망, 넙치 삼중자망, 대구 삼중자망, 송어 삼중자망, 잉어 삼중자망, 붕어 삼중자망, 쏘가리 삼중자망, 대하 삼중자망, 중하 삼중자망, 보리새우 삼중자망, 꽃게 삼중자망, 꽃게 사중주머니엽애그물 등도 있다.

참고문헌 어업-상(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2003),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물과학원, 2008), 한국의 어구어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88),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필자 조삼광(趙三光)

자산어보 玆山魚譜

정의 19세기 전반 정약전(丁若鏞, 1758~1816)과 이청(李淸, 1792~1861)이 흑산도를 포함하여 서남해에 서식하는 생물을 연구한 최초의 수산학서이자 해양생물학서.

개관 3권 1책의 필사본으로 저술되었으며, 글자 수는 2만 3,022자이다. 원본은 전하지 않고 전사본이 국내에 10종, 일본에 2종 전한다. 2000년대 이후에 국내의 필사본 대부분을 대조하여 오류를 수정한 교감본이 제

시되었다. 저자는 정약전으로 알려졌으나, 현존 본의 『자산어보』는 정약전 단독 저술이 아니라 이청과 공동 저술한 것이다. 정약전의 1차 원고에 이청이 보완을 하였다. 보완한 분량은 전체의 42%를 웃돈다.

『자산어보』는 어보(魚譜(어류 전문서))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 백과사전이지만 조선 최초의 어보는 아니다. 최초의 어보는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1803)이다. 『자산어보』는 『우해이어보』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후에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에 반영됨) 등과 함께 조선 3대 어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난호어목지』는 어류를 포함하여 육지 동물 전반을 함께 실었기 때문에 어보라기보다 동물 백과사전으로 봐야 한다. 『우해이어보』는 어류 중에서도 특이한 어류만 106종을 다뤘고, 『난호어목지』는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를 아울러 156종을 다뤘다(전어지는 여기에서 4종을 제외한 152종을 다룸). 이에 반해 『자산어보』는 어류를 비롯해 조류·충류·식물 등을 포함하였으며, 해양생물은 표제어로만 셀 때 총 226종이다.

정약전은 남인 가문인 압해정씨(押海丁氏)이다. 33세(1790)에 증광별시에 급제하여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정조에게 발탁되었다. 신유사옥(신유박해, 1801)으로 동생 정약종과 매부 이승훈이 참수되는 등 멸문지화에 이르렀을 때 그는 흑산도로, 동생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형을 받았다. 유배 초기 정약전은 우이도에서 보내다가(1801~1806) 흑산도 사미촌(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사리)에 거주하던 중(1806~1815)에 『자산어보』 1차 원고를 저술하였다(1814).

이청은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의 집에 거처한 인연으로 정약용의 제자가 되었다. 『여유당전서』 저술의 중요한 조력자 중 한 사람으로, 경전과 역사 방면의 문헌 대조와 비교 및 검토에 능하였다. 정약전의 1차 원고인 『자산어보』 권2 체제를 문헌 고증 위주로 보완하여 현존본인 권3 체제로 만들었다. 보완 시기는 1822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약용이 정약전의 묘지명을 썼을 때(1822) 『자산어보』가 2권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 자산(玆山)은 흑산(黑山)을 순화하여 부른 명칭이다. 『자산어보』는 흑산도 주변의 어류를 정리한 어류 전

문서라는 뜻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약전의 서문을 필두로 권1 인류鱗類(비늘 있는 어류), 권2 무린류無鱗類(비늘 없는 어류)와 개류介類(껍데기 있는 어류), 권3 잡류雜類(기타 해양 생물류) 등의 순서이다. 서문에서는 『자산어보』의 저작 동기와 저작 과정 그리고 그 효용성에 관해 서술하였다. 또한 여기에 장창대張昌大(1792~?)의 도움을 받았다는 언급도 하였다. 최근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장창대는 흑산도 동북쪽의 대둔도 사람으로 정약전의 공저자 이청과 동갑이다. 이를 통해 정약전은 장창대보다 34세 많음에도 그에게서 해양 지식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산어보』는 경험과 문헌에서 얻은 지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 부분은 대부분 정약전의 저술이고, 문헌에서 얻은 지식 부분은 모두 이청의 저술이다. 문헌을 통한 고증은 226종 중 80종이다(전체의 약 35%). 정약전은 유배지에서 자신이 모르고 있는 해양 생물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을 지식으로 정리하기 위해 명칭을 기존의 알려진 이름과 민간에서 통용되는 속명으로 썼다. 알려지지 않은 명칭은 새로 짓기도 하였다(전체의 약 58%). 그는 많은 해양 지식이 일부 공간 또는 소수의 생업 종사자에게서만 전해지는 상황을 개탄하였다. 그는 해양 지식이 ‘치병治病’, ‘이용利用’, ‘이재理

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박물학자를 자처한 정약전은 해양 생물을 세밀히 관찰하였고,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지식은 섬 주민의 도움을 받았다. 섬 주민 중 장창대는 『자산어보』 저술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자산어보』에서는 해양 생물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는 대항목·중항목·소항목(표제어) 등으로 구분된 3단계 구조이다. 이를 정리하면 해양 생물이 4상위류類(대항목), 55하위류類(중항목), 226종種(소항목) 등으로 수록되었다. 이 중 이청이 보완 과정에서 추가한 생물 종은 4하위류 16종이다. 즉 226종의 생물 중 16종은 이청이 추가한 내용이었다.

권1에서는 인류 20류 72종을 다뤘다. 권2에서는 무린류 19류 43종과 개류 12류 66종을 소개하였다. 권3에서는 어류를 제외한 나머지 해양 생물을 잡류로 총칭하고 해충海蟲 4종, 해금海禽 5종, 해수海獸 1종, 해초海草 35종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었다.

각 해양 생물 종을 서술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해당 생물의 명칭이 나온 뒤 속명俗名(민간의 명칭)이 소개된다(약 83%). 이 명칭과 속명이 사전의 표제어에 해당한다. 본문에서는 해당 생물의 크기, 형태, 색, 외형적 특징, 생태, 맛, 이용법, 어획 시기, 어획 방법, 섬사람의 경험담, 용도 등이 실렸다. 문헌 고증 부분은 모두 이청이 쓴 것으로, 위와 같은 설명에 이은 동그라미(○) 표시 뒤에 나온다. 이러한 구성을 모두 갖지 않은 간략한 항목도 많다.

『자산어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논란이 있었다. 첫째, 단독 저술이나 공동 저술이냐이다. 둘째, 서명을 ‘현산어보’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문제는 공동 저술로 봐야 한다. 원문에는 “청안晴案(이청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이라는 표현(71회)과 “원문에는 빠져 있어서 지금 보충한다原篇缺今補之.”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대부분 고증과 관련된다. 그러나 총 226종 중 16종의 새로운 해양 생물을 추가하였는데, 이런 대목은 모두 정약전이 아니라 이청이 썼다. 그 분량이 42%가 넘기 때문에 『자산어보』를 정약전 단독 저술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초기의 『자산어보』 연구에서는 이런 글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이를 모두 정약전이 썼다고 하였던 것이다.



자산어보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둘째 자산어보를 현산어보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자茲’가 겹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현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원이 『현산어보를 찾아서』(2002~2003)를 통해 ‘현산어보’를 책 제목으로 내세우자 한때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자’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실증적 반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대체로 ‘자’로 읽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자산어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산학·해양생물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적 분류 방식을 창안하였다. 창안자는 1차 원고 저술자인 정약전이다. 그는 해양생물을 분류체계상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나눴으며, 이들의 유관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가장 상위 범주에서는 총 4류, 즉 인류·무린류·개류·잡류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단계의 상위 범주에서 인류에는 20류, 무린류에는 19류, 개류에는 12류, 잡류에는 4류를 배속해 총 55류로 나눴다. 여기에 비슷한 종끼리 묶어 하위 범주를 각각 72종, 43종, 66종, 45종 등 총 226종으로 세분하였다. 그중 16종은 이청이 후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정약전이 세운 체계에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둘째, 체계적 분류를 위해 이름 없는 생물이나 기존 이름을 수정하는 이른바 ‘창명創名(작명)’을 시도하였다. 창명 대상은 전체 226종 중 131종(약 58%)에 달한 반면 기존 이름을 기록한 종은 불과 63종(약 29%)이었고, 방언의 의미를 되살려 한자어로 번역한 종은 32종(약 14%)이었다. 이는 연구 대상의 대부분이 작명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물의 이름은 오랜 세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착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 개인에 의한 창명 시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더하여 정약전이 한 창명 시도가 해양 생물 지식을 학문적 차원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점을 보면, 이는 이명법의 제창자 린네에 비견될 만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해양 생물의 명칭, 크기, 형태, 생태, 맛, 어획 방법, 이용법 등 수산학 정보를 세밀하게 정리하였다. 세밀한 관찰을 통해 해양 생물 각각이 드러내는 외형적 특성을 이해하였고, 섬 주민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관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랜 경험 지식까지 반영하였다. 구전 지식을 담아낸 이 같은 저술은 서구에서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경험을 통한 연구와 자연사에 관심이 증가한 맥락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넷째, 경험 지식과 문헌 지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우해이어보』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만물편 ‘충어류’와 같은 조선의 저술과 중국의 기존 수산학·해양생물학 저술과 크게 구별된다. 다만 『난호어목지』(전어지)는 『자산어보』와 유사한 특성이 반영되었다.

섬에 거주하는 현지인의 경험 지식을 정약전이 최대한 반영하고, 이것을 문헌에서 이청이 고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산어보』는 기존의 지식과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선례를 보여줬다.

『자산어보』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해당 생물의 그림이 실려 있지 않고, 특정 어종에서는 묘사가 간략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림을 넣지 않아도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이름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종들이 있다. 그림을 신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선의 다른 어류 전문서도 같은 한계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자산어보』가 저술되기 100여 년 전에 어보가 출간되었다. 간다 겐센神田玄泉의 『일동어보日東魚譜』(1719)이다. 이 책에는 344종의 어류를 소개하였고, 각 항목에 그림도 실려 있다.

2012년 정약전은 『자산어보』의 업적을 인정받아 과학국립과학관의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자산어보』는 이준익 감독이 동명의 영화로 개봉하기도 하였다. 영화에서는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쓰게 된 배경과 장창대와의 협력과정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蘭湖漁牧志, 五洲衍文長箋散稿, 牛海異魚譜, 茲山魚譜, 佃漁志, 근세 동아시아의 어보와 어류지식의 형성(김민기, 역사와 경계99, 부산경남사학회, 2016), 자산어보(정약전·이청, 정명현 역, 서해문집, 2016),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성격(정명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조선시대 어보의 민족생물학적 재해석(조숙정, 한국문화인류학51-2,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현산어보를 찾아서5(이태원, 청어람미디어, 2003), 海峽を越えた朝鮮半島の魚譜(中野泰, 神奈川大学 国際常民文化研究機構年報5, 2015).

필자 정명현(鄭明炫)

정의 화력으로 바닷물을 끓이고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결정하는 생산 방식.

개관 자염업은 바닷물[海水]에 열을 가해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소금을 자염[煮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자염업은 직자식[直煮式]과 염전식[鹽田式]으로 구분한다. 직자식은 바닷물을 바로 끓이는 방식이며, 염전식은 염전에서 채합[採鹹] 작업을 통하여 짙물[鹹水]을 생성한 뒤 이를 끓이는 방식이다. 염전식은 제방의 유무[有無]에 따라 무제염전식[無堤鹽田式]과 유제염전식[有堤鹽田式]으로 나눈다. 조선 말기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제염전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며, 유제염전식은 창원과 김해 등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행하여졌다. 염전식은 해수가 자연스럽게 염전으로 흘러들어오는 입빈식[入濱式]과 인위적으로 해수를 염전에 퍼넣는 양빈식[揚濱式]이 있다. 염전식 자염업은 채합과 전오[煎熬] 작업을 거친다. 채합 작업은 해수가 빠진 갯벌이나 모래밭을 갈아서 짙흙[鹽土]을 만든 뒤에 다시 염정鹽井이라는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짙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전오 작업은 염도가 높아진 짙물을 소금가마에 넣고 끓여서 소금을 석출하는 과정이다.

내용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따르면 구한말 직자식 제염법이 함경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직자식은 바닷물을 바로 끓여서 소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염전에서 채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닷물을 가마에 바로 넣고 끓이기 때문에 연료가 다량 소비된다. 바닷물을 끓이는 방식은 염전식과 큰 차이가 없다. 염전식의 염막에서는 짙물을 저장하는 함수류[鹹水溜]를 따로 두지만 해수직자식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함경도 외에도 염전 조성이 어렵고 땀감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는 해수직자식으로 제염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자염업은 평안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 조차가 큰 서해안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입빈식 무제염전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방이 없어 해수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므로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

하여 채합 작업을 한다. 사리에 염전까지 들어온 바닷물을 개흙에 젖게 하고, 조금에는 염전을 갈아서 염도를 높인다. 입빈식 무제염전에서 채합 작업은 조석의 성쇠에 따른 보름의 주기성을 갖는다. 조선 후기 서해안 염전에서는 상현[上弦]과 하현[下弦] 전후로 약 5일 동안 본격적으로 채합 작업을 하였다. 이 시기 물때는 조금으로 바닷물이 염전까지 닿지 않아 염부가 소를 끌고 다니며 흙을 갈아엎었다. 채합 기간의 일기는 소금의 생산량과 염가[鹽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빈식 무제염전방식은 주로 동해안 지역에서 행하여진다. 양빈식 무제염전방식은 자연스럽게 해수가 염전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해수를 퍼나른다. 물지게를 지고 바닷가에 가서 해수를 길어 올린 뒤에 염전으로 옮겨온다. 물통에 담긴 해수를 도랑에 부어 채워 넣은 후 도랑에 있는 해수를 바가지로 퍼서 염전에 뿌린다.

유제염전식 자염업은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행하여진다. 유제염전은 제방으로 조수를 차단하므로 채합 작업이 무제염전에 비하여 수월하다. 무제염전에서는 조수가 빠지는 조금을 전후로 염발 갈이를 한다. 반면에 유제염전에서는 대개 사리 이틀 전에 염발 갈이를 하고 염전 바닥을 잘 정리해 둔다. 사리에 맞춰 제방의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을 끌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염 방식은 무제염전과 큰 차이가 없다.

지역사례 전라북도 곰소만에서는 사리가 오기 며칠 전부터 제염 작업이 시작된다. 채합 작업에 사용하였던 쇳등 위의 개흙을 염전 면에 다시 뿌린다. 사리가 되면 해



씨레질 | 충남 태안 | 2003 | 유승훈

수가 염전까지 깊게 들어와 침윤되면서 개흙은 염분을 가득 머금게 된다. 조금을 전후로 단단해진 염전 바닥을 쟁기로 뒤집고 썬레를 끌고 다니며 햇볕을 끌고루 받게 염밭 갈이를 한다. 하부의 흙이 뒤집히고 햇볕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개흙에 염분이 생성된다. 이 방식으로 초벌과 두벌로 썬레질을 며칠간 계속하여 생성된 짎흙을 나래를 이용하여 섯등에 모은다. 짎흙을 모아서 섯등 위에 올린 다음 고무래로 흙을 고르고 단단히 다진다. 가장자리에는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점토로 테를 만들어 두른다. 섯등이 완성되면 해수를 위에 붓는다. 섯등 근처에 웅덩이를 파놓은 후 사리 때 흘러들어와 저장된 해수를 이용한다. 해수를 부으면 섯등 아래의 염수통으로 짎물이 내려오게 된다. 이 짎물을 염막까지 운반하여 가마에서 끓인다. 가마에 짎물을 70% 정도 채우고 불을 지피면 수분이 증발하여 소금이 결정된다. 소금이 결정될 무렵에는 불을 잘 조절해야 하며, 간수 위로 떠 오른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충청남도 서산·태안의 자염업은 섯등을 이용한 자염 방식과 차이가 있다. 서산·태안 지역에서 설치하는 통자락과 간통은 독특한 제염시설이다. 서해안 지역은 대부분 해수가 잘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섯등을 만들고, 이곳에 해수를 붓는다. 통자락은 사리 때 바닷물에 잠기게 되며, 통자락 가운데 있는 간통으로 해수가 침투하면서 내부에 자연스럽게 염수가 모인다. 서산·태안에서는 먼저 갯벌을 깔때기 모양으로 둥글게 파내 통자락을 만든다. 통자락 중앙에는 섯등과 같은 짎물 여과 시설인 간통을 설치한다. 간통은 소나무 말뚝을 박고 이를 서로 엮어맨 후 둘레를 따라 짚이나 억새로 둘러싼다. 통자락이 완성되면 다음은 개흙을 깔고 말리는 작업을 한다. 통자락에서 파낸 흙을 썬레질하고 덩이판으로 흙덩이를 부수면서 짎흙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짎흙을 통자락 주위에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조금 들인다’고 한다. 이후 사리에 밀려 들어온 바닷물은 짎흙을 통과하여 염도가 높아진 상태로 간통 안으로 흘러들어 온다. 사리가 지나가면 간통의 입구를 열고 함수를 채취한다. 간쟁이는 함수를 염막 안에 설치된 간수 구덩이인 버긱통에 운반하여 가마에 넣고 끓여서 소금을 생산한다. 통자락의 간통 주위에 있던 흙은 가래로 퍼서 다시 염전 바닥에 뿌린다. 서산·



간통 만들기 | 충남 태안 | 2003 | 유승훈

태안에서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을 ‘통조금’이라 한다.

동해안에서는 해안에 염판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한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모래사장을 논 모양으로 닦아 야산의 찰진 산흙을 깔고 염전 바닥을 다진다. 해수가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곳곳에 해수 저장 구덩이를 파두며, 수로의 입구에 해수를 퍼붓는 수구水口를 조성한다. 물지게로 해수를 퍼서 부으면 수로를 따라 물이 흘러 구덩이에 고인다. 다음은 매진 산흙을 염전에 뿌리고 썬레와 번지를 이용하여 염전 흙을 간다. 이 같은 작업을 하루에 2~3회씩 3~4일간 계속하면 염분이 붙은 짎모래(鹹砂)를 만들 수 있다.

경상북도의 영해寧海 지역도 염전을 만드는 일부러 시작한다. 넓은 모래사장을 골라 점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바닥을 조성하고, 해수가 흘러가는 도랑과 함수여과 장치인 섯을 만든다. 둥그렇게 진흙으로 섯의 벽면을 만들고, 내부는 나무 막대기를 엮어서 고정하고, 위에는 밀짚으로 초가지붕을 이듯이 덮어둔다. 염판을 만들고 나면 다음은 함수를 물지게로 부어서 나르고 염판에 뿌린 뒤에 썬레로 간다. 이렇게 만든 짎흙을 섯 위에 올려두고 해수를 부어서 짎물을 만든다. 함수를 가마에 넣고 끓이는 과정은 아시구이, 재벌구이, 마지막구이 등으로 진행된다. 아시구이는 가마를 처음에 서서히 가열하면서 짎물을 올리는 과정이다. 재벌구이는 본격적으로 불을 때서 짎물을 1/3 정도로 줄이는 과정이며, 마지막구이는 뒷물을 올리고 함수를 계속 줄여서 최종 소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짚물 끓이기 | 충남 태안 | 2003 | 유승훈



소금 결정 | 전북 고창 | 2008 | 김준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자염업은 수천 년 지속된 전통적인 소금 생산 방식이다. 자염업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 방식으로 크게 직자식 제염법과 염전식 제염법이 있다. 염전식 제염법은 우리나라 자염업의 주류로서 삼국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행하여졌다. 염전식 제염법은 갯벌에서 짚흙을 만드는 채합 작업을 거쳐서 염도가 높은 짚물을 생성한다. 다음은 짚물을 가마에 넣고 끓여서 최종 소금을 생산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염이 가장 활발하게 생산된 곳은 서해안이며, 그중에서도 갯벌이 잘 발달된 호남지역이다. 호남에서는 언덕 모양의 섯등을 이용하여 짚물을 생산하는 자염업이 유행하였다. 서산·태안에서는 갈때기 모양으로 갯벌을 파서 만든 통자락과 간통을 이용한 자염업이 전하여진다. 자염업은 바닷물을 끓여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큰 틀은 유지되었지만,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자염업은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므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한국수산지』에서는 구한말 자염의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에서 27%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염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연료비의 평균 비율은 49%였다. 지역적 편차가 큰 것은 연료의 공급 상황과 자염 생산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연료는 잡목과 솔가지, 갈대 등을 땔감으로 이용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제염장 주변의 산은 민둥산으로 변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석탄을 이용하였으나 품질이 좋지 않았다. 자염업의 높은 연료비는 염가를 상승시키고 자염의 경쟁력을 하락하게 하였다. 개항 이후로 중국의 천일염이 수입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천일염이 생산됨에 따라 점차 자염업은 힘을 잃게 되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유승훈, 민속원, 2012), 조선시대 소금생산방식(고광민 외, 신서원, 2006), 천일염(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韓國鹽業調査報告(臨時財源調査局, 度支部, 1980).

필자 유승훈(柳承勳)

작살

정의 해양에서 바다 포유류나 대형 어류를 찢어서 포획하는 자돌구(刺突具)의 일종이자 포경업의 도구.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작살과 찢르개살을 구분하지 않고 작살 혹은 창 등으로 통칭하여 불렀는데, 그 기능과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찢르개살과 달리 작살은 미늘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포획물에 작살이 명중하였을 때 대상물이 미늘에 걸려 빠지지 않으므로 연결된 로프를 가지고 조절하여 깊은 바다에서도 포획할 수 있다.

작살은 회전분리식 작살과 고정식 작살로 구분된다. 회전분리식 작살은 작살, 자루, 작살과 자루를 연결하는 중간자루, 로프, 공기주머니(부대淨袋) 등으로 구성된다. 공기주머니를 민족지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르강 하구역의 원주민들이 순록의 가죽이나 돼지의 방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루, 로프, 공기주머니 등은 산성이 강한 한반도 토양에서는 부식되기 쉬운 유기물

질인 관계로 잔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단지 조개무지에서 확인되는 작살을 통해 작살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회전분리식 작살은 형태가 개와식(開窩式)으로 작살의 선단부는 뾰족하고, 중간부의 중병에 연결하는 부분은 편평하며, 꼬리 부분은 경사진 모양이다. 초기 철기시대의 작살은 전체 형태가 삼각형에 가깝고, 꼬리 부분이 뾰족하거나 혹은 선단부가 뾰족하며, 배 쪽이 두껍고, 양 측면은 편평하고 스펀지가 없다. 미늘은 양쪽에 붙어 있고 양 측면을 관통하는 로프 구멍이 뚫어져 있다. 작살이 투사되어 포획물에 명중하였을 때 작살은 포획물의 몸속에서 회전하여 빠지지 않게 되고, 작살은 자루에서 분리되어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가지고 포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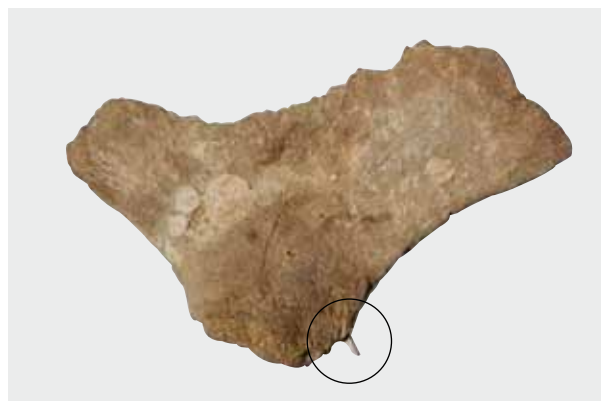
고정식 작살은 선단부가 날카롭고 몸통 양면에 좌우대칭으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미늘이 만들어져 있다. 자루에 연결되는 부분은 몸통과 단이 지는 철쭉자형을 띤다. 이렇게 끝부분이 철쭉자형을 띤 것은 몸통 부분에 로프를 연결하였을 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한편 남해안 서부지역의 완도 여서도 패총에서는 별자형의 소형 작살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작살의 선단부는 대부분 훼손되었는데, 이는 대상물이 빗맞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이들 작살은 어류 전용으로 보고 있다. 작살의 주된 재료는 제작하기에 용이한 사슴의 가지뿔이며, 그 외에도 사슴 뼈와 멧돼지의 엄니 등을 기본 재료로 이용하였다.

회전분리식 작살은 신석기시대, 초기 철기시대, 원삼국시대에 남해안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원삼국시대 웅천패총에서 출토된 작살은 일본의 이키壹岐섬의 하루노쓰지原ノ辻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고정식 작살은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만 확인되는데 동북지방에서 확인되고, 별자형의 소형 작살은 남해안 지방 서부지역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동북지방의 작살은 시기와 형태가 연해주의 보이스bois만 유적에서 출토된 작살과 유사하여 동일한 문화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작살이 사용된 예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유적에서 출토된 ‘골촉 박힌 고래뼈’로, 작살이 신석기시

대 포경업에 사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포경하는 장면이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현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잘 표현되었다. 여러 명이 배를 타고 나가 모두 앉아서 노를 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수의 한 사람이 일어서서 로프를 잡고 작살에 명중된 고래와 겨루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 고래류를 대상으로 하는 작살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해녀와 스킨스쿠버에 의해서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작살업이 일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징 및 의의 작살은 한반도 동북지방의 선봉 서포항 패총과 나진 농포동 패총, 남해안 지방의 부산 동삼동 패총, 완도 여서도 패총 등에서 여러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작살이 확인된 곳에서는 고래류, 돌고래류, 강치, 물개 등의 뼈가 출토되어 작살업을 추정하게 한다. 이렇게 신석기시대부터 작살을 이용한 포경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외양성 어업이 일찍부터 성행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특히 신석기시대에 속하는 울산 황성동 유적에



골촉 박힌 고래뼈 | 폭1 길이4 | 울산 | 울산박물관



돌작살 | 길이12 | 경북 울진 | 신석기시대 | 국립경주박물관



고래작살 | 너비5~6 길이11~13 | 울산 남구 | 장생포고래박물관

서는 고래 뼈에 작살 축이 박혀 있는 채로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작살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또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 여러 종류의 고래가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는 등에 작살이 박혀 있는 고래와 배에 탄 채 그 작살과 연결된 로프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인다.

벼농사가 도입된 청동기시대에는 작살을 사용하는 포경업이 쇠퇴하였고, 이후 초기 철기시대의 사천 늑도 패총에서 작살이 확인되었다. 이때까지의 작살은 사슴의 뿔과 뼈, 멧돼지의 엄니 등의 재질로 제작되었다. 작살의 형태를 통해 신석기시대에 연해주와 동북지방은 동일한 문화권이었음을 보여주고, 원삼국시대에는 남해안과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일본의 도서지방과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작살을 이용한 주된 어업은 포경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일제강점기에 장생포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포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적 포경 금지 조치에 따라 1982년부터 국내 고래포획을 전면 금지하였다. 작살을 사용한 어업은 현재 거의 소멸되고 없다.

참고문헌 반구대 울주암벽조각(황수영·문명대,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4), 울산 황성동 신석기시대 유적(최은아·김상현·마경희, 고적조사보고27, 한국문화연구원, 2012), 조선유적유물도감1-원시(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8), 한국 어구도감(배봉성 외, 국립수산물과학원, 2002),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김건수, 학연문화사, 1999).

필자 김건수(金建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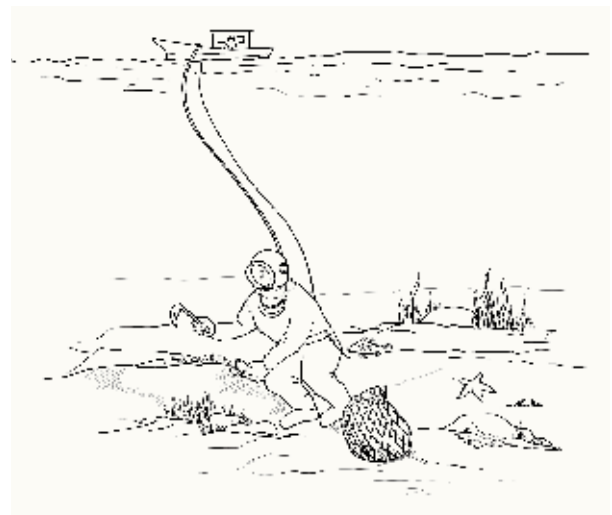
잠수기어업

潛水器漁業

정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수중에서 전복, 소라, 문어 등의 어패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역사 우리나라에서 잠수기어업은 1879년 일본인이 거제도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이후 거제도 연안에서 본격적으로 잠수기어업이 이뤄졌다. 잠수기 어선은 기계(펌프)를 사용하여 잠수부에게 공기를 주입한다고 하여 ‘기계선’으로도 불렸다. 1907년 무렵 한반도 해역 전역에서 잠수기어업이 성행하였으며, 1908년 한반도 해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 조업 구역에 제한을 뒀다. 1929년 2차로 어업구역을 네 구역으로 조정하였으며, 구역마다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가 제한되었고 이후 구역별로 잠수기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광복 이후 ‘귀속재산’ 형태로 남아 있던 잠수기와 잠수기 어선을 바탕으로 잠수기어업이 재개되었다.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및 1962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잠수기어업이 공식화되었다. 현재 잠수기어업의 조업 구역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다섯 구역으로 나뉘었다.

내용 잠수기어업은 근해어업으로 분류된다. 근해어업은 어업별 어선의 명칭, 어선의 톤수와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 사유, 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등이 지정



잠수기어업 | 국립수산물과학원



잠수기어업 | 강원 삼척 | 2018 | 김준

된다. 잠수기어업은 마을어업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을어업 어장에서 조업할 수 없고 일몰 이후에는 조업이 금지된다. 선박에서 잠수부와 연결하는 호스는 1인당 150m 미만으로 제한하고, 선박 길이의 1/2에 해당하는 선수부의 좌현과 우현의 외판은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잠수기어업은 원칙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 혹은 도지사가 해당 관할 수역의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물성 수산동물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 및 노즐의 규격 등을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잠수기어업의 조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장에 도착하면 ‘모구리’ 혹은 ‘머구리’로 불리는 잠수부가 선수 현측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잠수부는 선박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호흡한다. 잠수부는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어획물을 갈퀴 혹은 칼 등으로 포획하여 망태에 담는다. 작업이 완료되면 잠수부가 배 위의 선원과 연결된 줄을 당겨 신호를 보낸다. 선원은 잠수부로부터 신호가 오면 호스를 당겨 잠수부를 배 위로 끌어 올린다. 조업 시기와 시간은 대상물과 어장에 따라 다르다. 과거 잠수기어업 종사자는 선장, 잠

수부, 한장(한판), 주내끼, 화장 등 5~6명이었다. 한장은 선상에서 주로 잠수부에게 공기를 주입하는 펌프질을 담당하였다. 주내끼는 잠수부의 보조자로 잠수부가 잠수복을 착용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화장은 선원을 위해 식사를 담당한다. 선장을 제외한 모든 선원은 펌프질에 동원되었다. 현재 잠수기 어선에는 선장, 잠수부, 선원 등 3~4명이 승선한다. 1968년 에어 컴프레서(공기압축기)가 도입되면서 수동식 펌프가 사라지고, 수동식 펌프를 가동하였던 인원이 필요 없게 되면서 선원도 절반으로 줄었다. 잠수기어업으로 포획·채취하는 어패류는 소라, 전복, 키조개, 개조개(대합), 개불 등 대개 정착성 수산동물이다.

특징 및 의의 잠수기어업은 수심이 깊은 수중에서 어획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로 방식과 차이가 있다. 비록 일본인이 조선의 어장을 무단으로 침탈하면서 도입하였던 어법이지만,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어업으로 성장하였다. 잠수기어업은 어선과 어구의 동력화 및 기계화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선과 어구가 동력화되면서 선원 규모와 역할이 많이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잠수부의 역할과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중

요해졌다. 잠수기어업에서 어로 성공은 선장이나 어로장이 아닌 잠수부에게 달렸다. 잠수부가 어로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의 능력에 따라 총어획량이 좌우된다. 현재 잠수기어업은 일제강점기에 비해 많이 쇠퇴하였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남해안 잠수기어업의 잠수현황과 법률상의 쟁점(허경,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한국 남해안 잠수기어업의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이선길,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한국 잠수기 어업의 발달과정과 작업방식(민경택,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필자 박정석(朴正石)

天

잠수부

잠수부 潛水夫

정의 선상에서 공기를 주입받으며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채취하는 전문 어로인.

개관 잠수부는 모구리 혹은 머구리로 불렸다. 모구리와 머구리는 일본어 ‘모구리潛り, もぐり’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잠수부는 잠수복과 투구 또는 마스크·납·신발 등의 장비와 갈퀴·칼·망태 등의 도구를 갖추고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는다. 투구식 또는 마스크식 잠수기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채취한다. 잠수부는 잠수기어업의 핵심이다. 잠수기는 시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사용하였던 잠수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었다.

첫째는 잠함식潛函式 잠수기이다. 가장 오래전에 고안된 방식으로, 사람이 큰 통 안에 들어가 잠수한다. 초기에는 목재로 만든 큰 통 혹은 목조 형태였으나 이후 재질이 목재에서 철재로 바뀌었다. 잠함식 잠수기는 다시 고압잠함과 저압잠함으로 구분된다. 고압잠함은 잠수기 안에서 사람이 받는 압력이 해저 압력 이상으로 높은 형태이다. 저압잠함은 1기압 정도의 낮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고압잠함 방식은 잠수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둘째는 투구식 잠수기이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이다. 투구식 잠수기는 연軟 헬멧과 경헬멧 두 가지가 있다. 연 헬멧은 방수 장치에 고무포를 사용하고, 경 헬멧은 고무포 대신 철재로 제작하였다.

셋째는 마스크식 잠수기이다. 마스크식 잠수기는 크게 일반 마스크식과 방수 마스크식으로 구분된다. 일반 마스크식 잠수기는 1900년쯤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호흡에 필요한 마스크가 안면을 덮는 방식이다. 수온이 매우 낮고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 작업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일반 마스크식 잠수기를 보완한 형태가 방수 마스크식 잠수기이다. 방수 마스크식 잠수기는 현재 잠수기 어업자와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사용하는 다이버 슈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복 전체를 고무로 제작하고, 여기에 호흡할 수 있는 별도의 마스크를 부착한 형태이다.

현재 잠수부가 사용하고 있는 잠수기는 크게 천해양淺海用 잠수기, 헬멧식 잠수기, 순환자급식 수중호흡기, 스쿠버 잠수기 등이다. 천해양 잠수기는 해산물 채취 및 해난구조 등과 같이 비교적 얇은 수심에서 작업할 때 사용된다. 헬멧식 잠수기는 투구식 잠수기의 개량형이다. 주로 장시간 잠수할 때 사용하며, 철재로 된 통관이나 쇠붙이로 제작한다. 하지만 무게가 무거워



잠수부 | 인천 옹진 | 2020 | 박정석

수중에서 활동이 제한적이다. 순환자급식 수중호흡기는 산소통, 재호흡대, 탄산가스 흡수장치가 부착된 단독 잠수기이다. 10m 이상의 수심에서는 작업이 위험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쿠버 잠수기는 단독 잠수가 가능하다. 수중 스포츠, 수중 사진 촬영, 영화 촬영,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된다. 잠수기 어업 현장에서는 잠수부의 활동이 제한적인 헬멧식 잠수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개 수중에서 활동이 자유로운 스쿠버 잠수기를 사용한다.

내용 잠수기어업에서 어획량은 전적으로 잠수부의 역량에 달렸다. 무동력선이었던 시기에는 선장을 제외한 모든 선원이 돌아가면서 펌프질을 하였다. 펌프로 잠수부에게 공기를 주입해 줘야만 잠수부가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었다. 1968년 에어 컴프레서(공기압축기)가 도입되면서 고된 펌프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승선 인원 또한 줄었다. 잠수부는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업 시간은 늘어났다. 에어 컴프레서를 이용하여 수심에 상관없이 일정한 양의 공기를 주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였다. 펌프로 공기를 주입할 때는 최고 25m 수심에서 작업하였지만, 에어 컴프레서가 도입되면서 최고

40m까지 내려가 작업한다. 1990년대에 дайвер 슈트가 도입되면서 잠수기어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дайвер 슈트 잠수복을 착용한 잠수부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작업 능률이 향상되었다.

잠수기어업의 어로 성공은 잠수부의 능력과 직결되어 잠수부의 수익 배분 비율이 선주보다 높다. 잠수기어업의 인원은 일반적으로 선주, 잠수부, 선원 혹은 선주, 선주 겸 잠수부, 선원 등으로 구성된다. 수익은 ‘깃가림제’로 배분한다. 깃가림제는 보합제歩合制로 불리는 일종의 성과급제 방식이다. 수익 분배 비율은 어선마다 다르지만 대개 선주 35%, 잠수부 40%, 선원 25%로 분배한다. 선주 겸 잠수부는 ‘반선주’로 부른다. 반선주가 포함되는 경우는 선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이거나 다른 이유로 선주의 지분 일부를 잠수부에게 매각할 때 발생한다. 대개 잠수부가 선주의 지분 50%를 소유한다. 반선주가 포함된 수익 배분은 선주와 반선주 40%, 잠수부 35%, 선원 25%이다. 선원의 배분 비율은 25%로 동일하다. 선원이 2명일 경우, 즉 선장과 화장이 따로 있을 때는 각각 12.5%를 배분받는다. 대개 총 수익에서 별도로 10%의 가수금假受金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분한다. 가수금에는 어장 구매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잠수기어업은 선주와 잠수부의 공동 사업 성격이 강하다.

특징 및 의의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부는 선상에서 공급되는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긴 시간 동안 수중에서 작업한다. 따라서 잠수부는 압력의 변화에 의한 신체 손상과 호흡 가스로 인한 장애 등 다양한 잠수 관련 질환에 노출된다. 잠수 작업을 중단한 후에는 골괴사와 저체온증 등에 시달리며, 작업 중에는 수중생물에 의한 외상을 비롯하여 각종 사고에 노출된다. 잠수부의 작업 수심이 깊을수록, 작업 시간이 길수록, 작업 횟수가 많을수록 어획량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커진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남해안 잠수기어업의 잠수현황과 법률상의 쟁점(허경,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한국 남해안 잠수기어업의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이선길,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한국 잠수기 어업의 발달과정과 작업방식(민경택,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필자 박정석(朴正石)



잠수복 | 경남 거제 | 2019 | 박정석

장어갈퀴

정의 갯벌을 긁거나 훑쳐 장어를 잡는 어구 중 하나.

내용 장어갈퀴는 민물장어나 갯벌의 갯장어를 잡는 도구이다. 장어를 잡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썰레로 어획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장어갈퀴를 이용하여 뺨을 훑쳐(지역에 따라 뒤집다, 긁는다 등의 용어를 쓴다) 잡는다. 장어갈퀴는 갯벌을 긁어 잡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어담장’이나 ‘장어독다물’ 등과 병행하거나 어구에 갇힌 장어를 집는 등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쓰인다. 장어갈퀴는 장어담장, 봉장애굴, 장어열, 장어독다물, 장어썰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구이다. 물론 장어갈퀴를 독립적으로 활용하여 장어를 어획하는 방법도 있다.

전라남도 순천 지역에서는 이를 ‘소살’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장어창’ ‘장어긁개’ 등으로도 부른다. 박종오의 연구에 의하면, ‘다메’ 혹은 ‘가끄掻く, かく’라고도 부른다. ‘가끄’는 장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일본어이다. 장어가 사는 곳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을 ‘장어갈퀴’로 훑어(뒤집어, 긁어)서 잡는다. ‘장어갈퀴’의 크기는 1m에서 1.5m가량으로 일정하지는 않다. 손잡이가 있는 자루는 대나무로 만들고, 갈퀴로 불리는 쇠날은 3~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갈퀴처럼 생겼기 때문에 쇠갈퀴 혹은 장어갈퀴라고 부른다.

장어갈퀴로 장어를 잡을 때는 한 손으로 장어갈퀴 자루 윗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루 아랫부분을 잡아 갯바닥을 순식간에 긁어 올린다. 그러면 뺨(개흙) 속에 숨어 있던 기다란 장어의 몸이 3~4개의 장어갈퀴에 걸려 포획된다. 장어갈퀴의 대나무 자루가 어느 지역은 짧고 어느 지역은 긴 것은 바다의 갯벌이나 강의 갯벌 생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루가 짧으면 조업자의 허리가 아프고 길면 훑어 올리기가 힘들다.

장어갈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변산반도 대항리 살자리에 설치되었던 대맥이 그물에 든 장어를 잡을 때 ‘갈퀴쟁이’로 불리는 갈퀴를 사용한다. 이 어구로 뺨을 뒤



장어갈퀴 | 길이181 | 국립민속박물관

집어 장어를 잡는다. 대맥이는 개맥이의 다른 말로 역새살이라고 한다. 장어뿐 아니라 숭어·농어·조기 등도 어획한다.

잘 알려진 장어잡이는 풍천장어로 불리는 선운사 내해 혹은 천변의 ‘장어열’이다. 장어열은 일종의 돌무더기이다. 주진천·인천강·장수강 등의 천변에 설치되어 있다. 장어열은 먼저 1평 내외의 돌무더기를 1m 정도 높이의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다. 전통적으로는 돌을 지게로 저서 옮겼다고 한다. 현재는 기계로 돌무더기를 쌓는다. 기본적으로는 이 돌무더기에 들어오는 장어를 장어집게로 살그머니 집어내어 어획한다. 여기서 장어집게는 넓은 의미에서 장어갈퀴의 일종이다. 후대에 와서는 장어열 주위로 그물을 치고 장어가 돌무더기로 들어오면 그물 밖으로 다시 돌을 집어내어 그 속에 들어 있는 장어를 어획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다른 사례는 전남 강진만에 분포하는 ‘장어독다물’이다. 장어독다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00여 년 전 누군가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한다. 전라북도의 풍천장어잡이와 대동소이하다. 먼저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일정 기간을 기다린다. 그런 뒤 그물통(후꾸리)이 달린 사각그물을 돌무더기 주위로 설치한 다음 돌을 들어 내면서 그물 안에 들어 있는 장어를 잡는다. 이때 그물통으로 들어가지 않은 장어는 다시 장어 ‘걸쟁이’로 긁어서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장어 걸쟁이가 장어갈퀴이다. 독다물은 전남 강진읍에서 내려오는 ‘골창’이라는 곳과 ‘돼지막’이라는 해안에서 주로 행해졌다. 또 다른 사례는 장흥 내안의 ‘장어담장’이다. 이 또한 전북지

역의 장어얼이나 강진 지역의 장어독다물과 동일한 방식이다. 여기서는 돌무더기를 들어내고 잡는 것이 아니라 ‘수경찍기’로 잡는다.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각틀의 유리를 통해 연탄집게처럼 생긴 집게로 장어를 집어내는 방식이다.

장어담장 어업이 행해지는 곳은 전남 장흥군 용산면을 관통하여 흐르는 남상천 주변 해안이다. 보성만과 장재도에서 덕암리 쪽으로 들어오면 거의 강이나 다름없는 남상천이 길게 뻗어 있는데, 이곳에서 장어담장이 성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잡히는 장어를 ‘붕장어’라고 부른다. 고흥만의 ‘붕장애구덕(붕장애굴)’도 이와 유사하다. 붕장어를 잡기 위한 구덩이라는 뜻이다. 장어얼이나 장어독다물 등과 비슷한 구조이다. 먼저 갯벌에 약간의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의 깊이는 무릎 정도로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된다. 구덩이를 팔 때는 넓적한 돌이 있는 곳을 파는 것이 좋다. 이 돌을 ‘너리석’이라고 한다. 너리석 주변에 갯돌을 옮겨 구덩이를 메운다. 장어얼처럼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메우는 정도의 높이까지만 차곡차곡 쌓는다. 간조가 되면 구덩이의 돌을 들어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붕장어를 긁거나 훑쳐 어획한다.

특징 및 의의 다산茶山 정약용 丁若鏞이 〈탐진어가耽津漁歌〉에서 표현하였듯이 남녘 깊은 강진만의 독다물은 돌무더기를 쌓아 만든 이른바 ‘돌그물’로, 잡는 주요 어종은 장어이다. 여기서 장어집게 등의 장어갈퀴가 사용되었다. ‘독살’ ‘독다물’ ‘독발’ 등은 모두 오래된 고기잡이 방식이다. 돌담 형식으로 쌓아서 잡는 방식과 돌무더기를 쌓아서 잡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맥락은 같다. 지금은 그 자취가 많이 사라졌지만 서해에서부터 남해에 이르는 야트막한 갯벌 지역에서 행해진 고기잡이 방식 중 전통적인 어로법이다. 그물로 돌무더기를 에워싸는 방식을 사용하기 전에는 손이나 낚시를 이용해 돌틈 속의 장어를 잡았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철사 등으로 만든 낚시를 입에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돌담 틈의 장어를 잡는 원시형 어로 방식이 행해졌다. 돌무더기와 장어갈퀴를 사용하는 장어잡이는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갯벌 생태환경을 고스란히 이용한 어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널배를 이용한 갯벌어로 관행과 공동체(박종오, 도서문화5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7), 대부도 홀곳 마을 돌살(이세나, 어항25, 한국어촌어항협회, 2006), 돌살의 문화적 종다양성과 전 지구적 분포(주강현, 역사민속학2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섬진강 유역의 어살연구(강성복·박종익, 한국민속학64, 한국민속학회, 2016), 순천만지역의 생업활동과 어로도구(선영란·김미향, 도서지역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연구성과물, 2002), 전남의 민속문화(국립민속박물관·전라남도, 2011), 전통어렵 돌살에 대하여(정연학, 비교민속학11, 비교민속학회, 1994), 한국의 해양문화1-서남해역 하(해양수산부, 2002), 이윤선의 남도인문학(전남일보, 2017.8.10.), 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이윤선(李允先)

장어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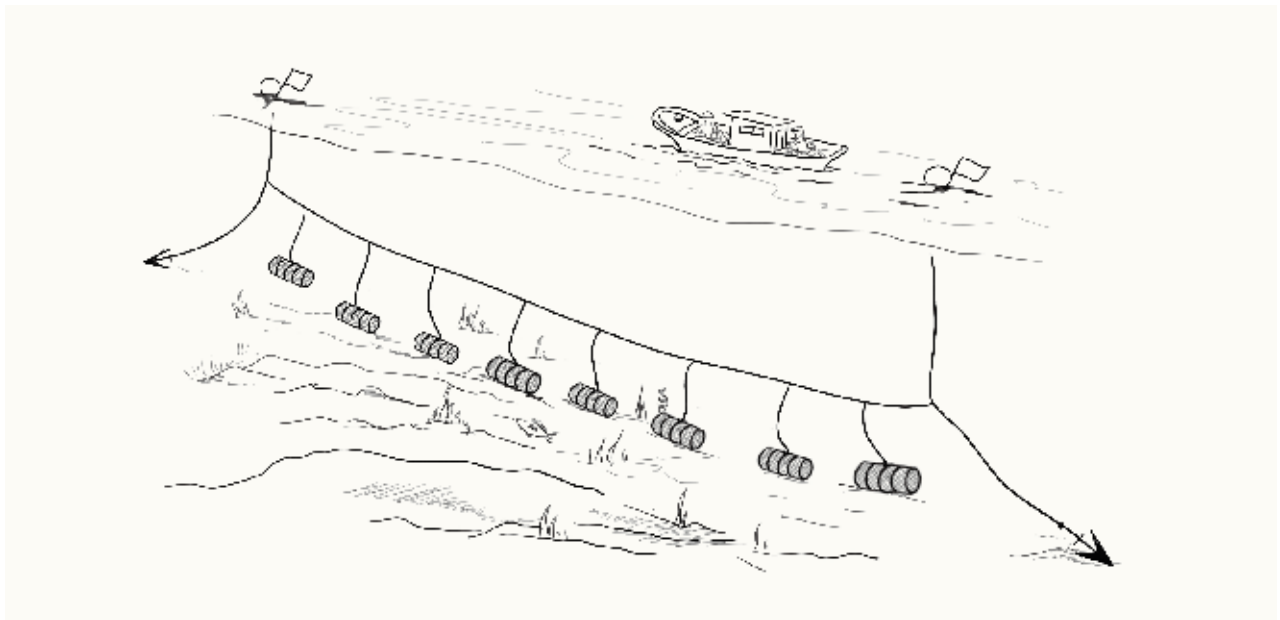
정의 주낙이나 통발을 이용하여 장어를 포획하는 일.

개관 한반도 근해에서 어획되는 장어는 크게 붕장어, 갯장어, 먹장어, 민물장어(뺨장어) 등이다. 일반적으로 장어는 플라스틱이나 대나무로 만든 원통형 통발 혹은 낚시를 이용하여 어획한다. 주요 조업 해역은 동중국해·흑산도·거문도·제주도 근해이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의 만에서도 어획한다.

붕장어는 붕장어과에 속하며, ‘아나고穴子, あなご’라고 불리는 바닷물고기이다. 붕장어는 주로 해조가 무성한 만의 모랫바닥이나 민물이 흘러드는 만 혹은 섬 주변의 물살이 느린 곳에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낮에는 모랫바닥과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 어린 물고기, 게, 새우 등을 잡아먹는다. 붕장어 어기는



장어잡이 통발 | 전남 신안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장어잡이 통발 | 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안은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고, 남해안은 3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와 8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이다.

갯장어의 생김새는 붕장어나 먹장어와 비슷하지만, 몸뚱이가 길며 옆으로 납작하다. 삼각형 모양의 입은 몸에 비해 큰 편이며 양턱에 2~3줄의 이빨이 있고 배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바위틈 등지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활동하기 시작한다. 갯장어는 보통 ‘하모’라고 부른다. 하모는 아무것이나 잘 문다고 하여 ‘물다’라는 일본어 ‘가무(噛む, か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갯장어의 어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갯장어는 주로 연안 진흙 바닥에 서식하며, 주요 어장은 남해안이다.

먹장어는 먹장어목 피장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다른 물고기에 달라붙어 살과 내장을 파먹는 기생 어류이다. 뱀장어와 모양은 비슷하며, 턱이 없어 입이 둥근 원구류에 속한다. ‘곰장어’로도 불린다. 먹장어의 어기는 11월부터 1월까지이다.

민물장어는 뱀장어목 뱀장어과에 속한다. 바다에서 태어나 강으로 올라가 생활하는 회유성 어류이다. 다양한 서식환경과 염분 농도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 일생을 바다 혹은 강에서만 보내기도 한다. 민물장어는 뱀장어, 참장어, 궁장어 등으로도 불린다. 민물장어

는 5~12년간 담수에서 성장하여 성어가 되면 산란을 위해 바다로 간다. 민물장어 성어기는 봄과 가을이며, 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가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이다. 부화된 새끼는 다시 담수로 올라오는데 그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내용 붕장어는 주로 통발 어업으로 어획한다. 조업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통발과 직육면체 혹은 원통 모양의 철제 열개에 그물망을 씌운 스프링식 통발을 사용한다. 붕장어는 남해안을 비롯하여 서해안의 충청남도 당진·보령·태안 등지에서 어획한다.

갯장어는 주낙을 이용하여 어획한다. 주낙은 5m 간격으로 낚싯바늘을 단다. 주낙 한 통에 130개의 바늘이 달린다. 혼자 조업할 때는 14~15통, 두 명이 조업할 때는 20통 정도를 부설한다. 주낙에 사용하는 미끼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5월부터 7월까지는 냉동 전어를 미끼로 쓰고, 7월 중순 이후에는 산 고등어를 쓴다. 어로 작업 시간은 하지 이전에는 밤에 조업하고, 하지가 지나면 아침 혹은 낮에 조업한다. 갯장어의 주산지는 경상남도 남해·사천, 전라남도 여수 등지의 남해안이다.

먹장어는 붕장어와 함께 통발어업으로 포획한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먹장어를 포획할 수 있는 어로 구

역이 축소되면서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 지역에서 곰장어(먹장어)잡이가 유지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망, 연승, 갈퀴, 통발 등으로 포획하였다. 정치망으로 민물장어를 잡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주로 연승과 장어통발을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장어잡이는 통발이나 주낙을 이용한다. 장어의 종류에 따라 포획하는 어구와 어법에 차이가 있다.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어구가 달라진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대량으로 서식하는 붕장어는 주로 통발을 사용하지만, 이빨이 있는 갯장어는 주낙을 사용하여 포획한다.

참고문헌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용역 농경·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경상도지역(한국예술종합학교 아태전통연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9),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필자 박정석(朴正石)

재건

정의 어촌에서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어장의 조직을 나타내는 명칭.

내용 어촌에서는 전통적으로 미역과 김 등의 해조류를 공동채취하여 공동분배를 해왔다. 주로 마을 단위로 공동작업을 하는데, 마을의 공동어장을 각 구역으로 나누어 정해진 구역에서 공동작업을 한다. 공동어장의 어로 구역을 부르는 명칭은 지역에 따라 ‘뚝’ ‘주비’ ‘통’ ‘갱번’ 등 다양하게 불린다.

재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군도에 주로 분포하는 명칭이다. 마을의 공동어장은 관행적으로 공동재산이었고, 해조류 채취권을 갖기 위한 기본조건은 일정 기간 그 마을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독립한 가구의 경우 마을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도군도에서는 공동어장의 채취권이 있는 가구를 ‘입호入戶’라고 한다. 입호는 공동어로 구역에서 미역과 돌김 등의 해조류 채취권을 갖는다. 조도면의 성남도에서는 12월 말에 열리는 마을총회에서 입호에 대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마을에서 입호의 승인을 받으며 일정 금액을 입호료로 지불하고 마을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대접하였다. 이러한 입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공동어로 작업에 참여하여 해조류 채취를 할 수 있었다.

지역사례 조도면 하조도의 신육리 읍구마을에서는 미역, 톳, 가사리(불등풀가사리), 세모(참풀가사리) 등의 해조류를 공동으로 채취하여 공동분배를 한다. 읍구마을에서는 어로작업의 조직을 ‘재건’이라고 부르고 어로 구역은 갯번이라고 한다. 읍구마을의 어로조직은 4개가 있고 어로구역인 갯번은 매년 교체한다. 교체 주기는 음력 9월 1일부터 이듬해 음력 8월 30일까지이다. 4개의 재건에는 각각 1명의 갯강구가 있고, 이들은 해안수를 관리하고 공동채취 작업을 감독한다.

조도군도에서는 마을의 갯번에서 채취하는 해조류를 ‘해안수海岸收’라고 한다. 해안수란 바닷가에서 채취하는 수확물이라는 뜻이다. 마을에서 갯번의 해조류를 공동채취할 때 해안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갯강구’라고 하는데, ‘개+강구’로 이루어진 말이다. 강구는 ‘감독하는 사람’을 뜻하는 ‘감고監考’에서 비롯된 말로, 갯강구는 개圃를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공동어장인 갯번은 마을의 공동재산이라서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이 소유권을 ‘갯번짓’이라고 한다. 짓은 ‘무엇을 나눌 때, 각자에게 돌아오는 한몫’의 뜻을 지닌 ‘짓’의 이 지역 말이다. 갯번짓을 소유한 가구가 공동으로 해조류 채취작업을 하고 공동분배를 한다. 이때 각 가구에 분배되는 해안수를 ‘원짓’이라고 하고, 갯강구에게 수고한 값으로 주는 해안수를 ‘갯강구짓’이라고 한다. 배를 타고 공동어장으로 나가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 배의 주인에게 주는 해안수는 ‘뱃짓’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재건은 전남 진도의 조도군도 분포하는 공동어장 조직을 부르는 명칭이다. 대부분의 어촌지역에서는 공동어로 작업을 하는 구역 및 조직의 명칭이 동일

한 경우가 많으나, 조도면 도서지역의 일부 마을에서는 어로조직은 재첩이라고 하고 어로구역은 갯변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공동어장을 부르는 명칭에는 지역적 분포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안군의 도서지역(흑산도, 비금도, 도초도)에서는 ‘뚝’이라고 부르고, 경상북도 영덕군과 울진군에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채취하는 미역 바위를 ‘짬’이라고 부른다. 조도면의 도서지역 및 동해안의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마을 공동어로 구역을 ‘갯번’이라고 한다.

경상남도 통영시의 오비도에서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밧등에 있는 공동어장을 5개로 나누고 수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은 교대로 운영하였다. 바다의 생태환경과 조건에 따라 해조류의 수확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촌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추첨이나 순번에 따라 교체하는 방법으로 공동어장을 운영하였다.

참고문헌 조도 조사노트(고광민, 2008), 현지조사자료(차동길, 전남 진도, 2008.12.28.).

필자 이혜연(李惠燕)

재첩잡이

정의 맨손이나 손틀방, 배틀방을 이용해 재첩을 채취하는 일.

개관 재첩은 강에 서식하는 강조개로, 옛 문헌에는 현蜆으로 표기되어 있다. 재첩의 종류는 다양하나 그중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애용된 재첩은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강 하구와 석호(潟湖)에 서식하는 기수재첩이다. 재첩잡이는 주로 봄과 가을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강바닥 토양이 펄로 된 곳에서는 겨울에도 재첩잡이를 한다. 우리나라 전통 재첩잡이는 사람이 직접 재첩틀을 움직이는 손틀어업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첩틀의 재질 및 형태는 변화되었지만 손틀어업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손틀어업이 주를 이루는 재첩잡이는 1950년대 재첩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대량 채취방식으로 전환되어 무동력선에 재첩틀을 매달아 수력을 이용한 물돛배 재첩잡이로 확대되었고, 이후 동력선이 등장하고 어선이 기계화·현대화되면서 형망 재첩잡이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형망 재첩잡이는 1968년 재첩 대일 수출로 재첩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화되어 낙동강에서는 1970년대 명지 어민이 시작하여 점차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섬진강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내용 재첩은 특정한 도구 없이도 누구나 쉽게 채취할 수 있으나 어민은 주로 갈퀴 형태의 타원형 틀(재첩틀)에 손잡이 대를 단 어구(손틀방)를 사용한다. 손틀방의 명칭은 지역마다 달라서 낙동강에서는 ‘거리’ 또는 ‘갈코리(갈퀴의 방언)’, 섬진강에서는 ‘거렁이’ 또는 ‘거렁이’, 송지호와 섬강에서는 ‘조개 기계’라고 한다.

손틀방을 사용하여 재첩을 잡는 손틀어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강에 들어가 손틀방으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떠올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배 위에서 손틀방으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떠올리는 방식이다. 전자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손틀방에 단 네 발 정도의 손잡이 대를 어깨에 걸치거나 손잡이 대에 끈을 매달아 허리에 차고 움직인다. 낙동강에서는 각기 ‘넷거리’와 ‘맷거리’로 구별 지어 부르지만, 섬진강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거리질’이라 부른다. 후자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재첩을 잡는 방식으로 낙동강에서는 ‘손거리’라 부른다. 전자는 발의 감각으로 재첩의 유무를 감지하면서 재첩틀을 조종하지만 후자는 재첩틀의 손잡이 대를 통해 손의 감각만으로 재첩의 유무를 감지해서 재첩틀을 조종한다. 한편 낙동강은 강바닥이 돌과 굴 껍데기로 이루어진 곳이 많은데 이곳에서 재첩을 잡을 때는 손틀방으로 강바닥을 긁는 대신 텅기듯 쳐올리는 방식으로 잡는다. 이를 ‘어덕치기’ 또는 ‘찍발치기’라고 한다.

손틀어업은 한 사람이 하나의 재첩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첩 채취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50년대 낙동강과 섬진강 강변마을 아낙들의 재첩국 행상이 활성화되어 재첩 수요가 증가하자 낙동강과 섬진강에서



끄신바리



배틀방



손틀방

재첩잡이 | 부산 | 2019 | 황경숙

는 손틀어업보다 노동시간 대비 재첩 채취량이 많은 물돛배 재첩잡이가 시작되었다. 물돛배는 배의 측면에 물받이 천을 달아 조류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를 말한다. 물돛배 재첩잡이는 배의 다른 측면에 손틀방을 3~4개 달아 배의 움직임으로 재첩을 잡는 방식으로 낙동강에서는 ‘네거리’, 섬진강에서는 ‘진거리’ ‘뱃거리’ ‘물뽕작업’이라 불렀다.

수력을 이용한 물돛배 재첩잡이는 1960년대 목선(木船)에 경운기나 오토바이 등 육상 엔진을 장착한 배가

등장하면서 동력을 이용한 형망 재첩잡이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에 형망 재첩잡이는 종래의 재첩틀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속기를 장착한 형망 재첩잡이와는 다르며, 낙동강에서는 ‘끄신발이(끄심바리)’ ‘끈발이’ ‘꿍딱거리’ 등으로 불렀고, 섬진강에서는 ‘끄신발이’라고 불렀다.

1968년 재첩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재첩의 판로가 내수용에서 수출용으로 확대되었고 어선도 기계화·현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첩잡이 방식도 큰 변화를 맞았다. 하나는 재첩 수출이 겨울철로 제한되어 종래의 재첩잡이 방식으로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쉽지 않았기에 봄과 가을 사이에 미리 재첩을 잡아 팔에 저장·축양하는 재첩 축양장을 조성하였다. 이를 낙동강에서는 ‘조개장’이라고 부른다. 섬진강은 강바닥이 모래층으로 되어 있어서 재첩 축양장은 섬진강과 섬진강 지류인 내륙 하천의 경계지에 조성되었다. 재첩 축양장은 재첩 수출이 시작된 이후 2010년대까지 지속되는데, 낙동강에서는 1987년 하굿둑 조성으로 재첩잡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외지의 재첩 종패를 들여와 키우는 재첩 양식장으로 전환하였다. 다른 하나는 형망 재첩잡이 시대를 연 것이다. 동력선에 감속기를 장착한 본격적인 형망 재첩잡이는 1970년 낙동강 명지 어민이 시작하여 이후로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섬진강에서도 널리 행해졌다. 형망 재첩잡이는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의 요인이 되어 불법 어로로 규정되었다가 섬진강에서는 수심이 깊은 곳의 재첩을 채취하고자 하는 어민의 요구로 1998년 합법화되었고, 낙동강에서는 2001년 재첩 양식장 관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합법화되었다.

현재 재첩은 섬진강 일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천, 강원도 횡성군 섬강 일원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잡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 최대의 재첩 산지였던 낙동강은 1987년 하굿둑 조성 후 개체 수가 감소하여 1990년대 자연 채취 대신 재첩 양식장 중심으로 재첩잡이가 이뤄졌다가 2010년대 후반 재첩잡이가 전면 중단되었다. 전라남도 별교와 강진, 강원도 송지호는 염도 상승과 수질 오염으로 인해 재첩의 개체 수가 줄어서 현재 재첩잡이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재첩잡이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도수망에서 형망으로 어로방식이 확대되었다. 도수망 중 가장 오래된 손틀어업은 자연 생태계 순환을 도모하고 자원보호에 입각한 전통 재첩잡이 방식으로, 현재 전라도와 강원도 재첩 산지에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중 2018년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되었다. 손틀어업과 더불어 1950년대 이뤄진 몰돛배 재첩잡이는 강 하구의 자연적 환경을 활용한 독특한 도수망 어로 방식으로 해면어업과 차별되는 내수면어업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참고문헌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황경숙, 국립민속박물관, 2020), 현지조사자료(김석만, 경남 하동, 2021.5.25; 2021.5.27; 이상인, 강원 고성, 2021.5.31.).

필자 황경숙(黃京淑)

적도제

赤道祭

정의 항해 중 처음으로 무풍지대인 적도를 지날 때 무사통과하기를 바라며 지내는 의례.

내용 적도제는 항해 중 적도를 처음으로 통과할 때 지내는 의식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14~17세기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의 배가 적도를 통과할 때 적도통과crossing the line 의식을 지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이 외국항로를 지나는 우리나라 선원들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30도, 남위 30도까지의 해역은 기온이 높고 바람이 없는 곳이라 적도무풍대doldrums라고 부른다. 과거 범선을 이용하여 항해하던 시대에는 이 적도무풍대를 지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무사히 적도를 통과하기를 바다의 신에게 기원하며 살아 있는 말과 같은 공물을 바치는 의례를 행하였고, 이를 적도제Neptune's revel라고 한다. 적도제는 배의 출항지나 선원들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

타난다. 우리나라 선박의 경우는 적도제를 고사告祀 형식으로 지낸다. 돼지머리 등을 놓은 제사상을 준비하여 절을 한 뒤에 음식을 선두에서 바다로 던져 공물을 바친 후 축제를 즐긴다. 또는 연극 형식을 차용하여 적도를 가장 많이 통과한 선원이 바다의 신海神 넙튠 역할을 맡아 제의적 연극을 행한다. 다른 선원이 해신에게 적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청하면 해신은 선장과 선원의 간청을 받아들여 안전한 항해를 함께 기원해주고, 이후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를 벌인다.

현대에 적도제는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의례적 성격, 긴 항해에 지친 선원·여객을 위로하며 즐기는 축제의 성격, 그리고 적도를 처음 통과하는 신입 선원이 진정한 뱃사람으로 거듭나는 통과 의례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바다의 뒷이야기-바다의 풍속 적도제(이재우, 해양한국10,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6), 양망일기(하동현, 베토, 2021),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이란섭(李蘭燮)

적조

赤潮

정의 식물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으로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황색·적갈색 등으로 변색되는 자연현상.

개관 적조red tide는 해류 및 조류의 소동이 원활하지 않고 일조량, 수온, 염분, 영양염류 등 적조생물의 대량 번식에 알맞은 해양환경이 조성될 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7~10월경 높은 일조량과 수온 등 적조생물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다. 적조는 남해안에서 발생하여 바람과 해류를 따라 동해안까지 넓게 발생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조를 발생시키는 생물은 70여 종이 있는데, 이 중 코클로디니움이라는 편모류가 가장 많이 적조를 발생시킨다.

적조는 수산업이나 관광산업과 심미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양식 어패류 폐사와 같은 수산업 피해, 해수

육장 폐쇄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 빨간 바닷물 색깔과 악취로 인한 심미적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적조로 인한 수산업 피해액은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2018년까지 약 1,761억 원이었다. 특히 1995년에는 양식 중인 어패류 약 2,600만 마리가 폐사하여 764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속한 예찰 및 예보, 적조 피해 저감 시설 설치, 황토살포와 같은 적조 방제方劑 등이 있다. 여름철만 되면 반갑지 않은 적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수산업계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적조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161년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하며 이후 1398년(태조 7)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나타난다. 그 외에도 적조에 관한 기록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역사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적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높은 수온 등 적조생물의 성장에 알맞은 환경의 조성, 적조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필요한 풍부한 일조량, 장마로 육지의 영양염류가 연안에 대량 유입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즉 적조는 적조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자연적 환경이 조성될 때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하지만 육상에서 질소나 인과 같은 오염원이 대량 유입되고 다른 자연조건이 맞을 때 발생하게 되므로 완전한 자연재해라고는 할 수 없다.

적조를 발생시키는 생물종 수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이나 우리나라는 녹조류 4종을 포함하여 70여 종

이 있고, 대부분 규조류와 편모류이다. 2000년대 초반 43종에 비하여 종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적조생물이 마비성, 설사성, 신경성 패독 등을 가진 유독성이면 어패류가 물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적조생물을 흡수하여 중독으로 죽는다. 그러나 이러한 유독성 적조생물은 몇 종에 불과하고 유독성 적조 발생도 수년에 걸쳐 1~2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피해를 주는 적조생물은 무독성이 많은데, 어패류가 폐사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적조생물이 분비한 다량의 점액질이 어류 아가미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산소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함으로써 질식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적조생물이 대량 발생하여 영양염류를 다 써 버리면 죽게 되는데, 죽은 적조생물이 세균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여 어패류가 질식사하여 폐사하는 것이다.

적조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방법은 약품을 살포하는 화학적 방법, 적조생물을 응집시키거나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물리적 방법,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조 발생 해역이 넓고 자칫 수산생물 및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황토살포를 통해 적조를 방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적조는 자연적 조건 외에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공장의 오폐수, 축산분뇨 등 영양염류의 영향도 크다. 따라서 생활하수 등 육상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적조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인 항공기로 촬영한 적조 띠 | 부산 | 2020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안에 나타난 적조 현상 | 2014 | 김웅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징 및 의의 적조는 자연현상이지만 거의 매년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여 수산업 피해를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화로 인하여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바다로 대량 유입되면서 적조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적조 방제 수단은 황토살포가 유일한 실정이다.

적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 다만 적조 발생을 신속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피해를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적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오염원 배출 줄이기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방제효과 면에서 뛰어난 방제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2019년 적조 대응 종합 대책(해양수산부, 2019), 유해적조 피해 발생과 대책(김학균, 한국방재학회지7-3, 한국방재학회, 2007), 적조 바로알기(국립수산물연구원, 2016), 적조방제용 황토살포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류정곤 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필자 류정곤(柳廷坤)

전복따기

정의 바다에 잠수하여 전복을 따는 일.

개관 전복 채취의 역사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해안 패총유적에서 두루 발견되는 전복 껍데기는 바닷가에 정착한 인류 식량자원의 하나가 전복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조선시대 전복은 조정에 진상되는 중요한 해산물이었다. 이 때문에 서해 도서지역의 어민은 해마다 전복 공납貢納의 역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1798년(정조 22) 보령의 외연도 두민頭民 김복돌金卜斗이 충청수영에 부패한 생복生鰓을 바쳤다가 곤장에 맞아 죽은 사건은 그 실상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전복 진상의 폐단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복 공납의 폐단은 날로 심해져 19세기 초에는 큰 섬조차 “열 집에 아홉은 도망을 가서 비

어 있다.”라고 언급될 정도였다.

서해안 일대에서 전복 채취는 본래 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몫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제주 해녀의 출가出稼는 기존 해산물 채취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해녀를 고용한 나잠업(해녀배사업)이 전국 도서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일제의 잠수기선까지 도입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해삼의 채취를 전담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져 해산물 채취의 근간을 이룬다.

내용 전복따기는 해녀의 물질과 잠수기선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작업이다.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5~6월은 해삼이 중심이 되고, 7~8월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금어기로 설정하였다.

전복 채취는 물때의 주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해녀들이 물질하기에 양호한 시기는 조금이다. 조류의 흐름이 약한 데다 물이 맑아 물속에서 시야 확보가 유리하여 수심이 깊은 곳까지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봄·여름에는 하루 2회 작업도 가능하다. 이처럼 전복 채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물때는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봄철 사리는 물질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가을철 사리는 물이 흐려져 해산물 채취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심해지는데, 이는 물발이 강해져 바닷물이 뒤집어지기 때문이다.

전복은 해저의 바위에 붙어 서식한다. 따라서 잠



전복따기 | 강원 삼척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전복따기 준비 | 전남 완도 | 2011 | 국립민속박물관

수로 4~10m 정도 자맥질을 해야 채취할 수 있다. 채취 방법은 칼처럼 날카로운 빗창을 바위틈에 찔러 넣어 떼어내되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해녀들은 한 번의 입수로 몇 개의 전복을 채취한다. 계절에 따라 전복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노다지를 만나면 어망 대신 가슴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호흡이 허락하는 짧은 시간에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전복의 활동이 일시에 왕성해지는 현상을 ‘기발이’ 또는 ‘전복기발이’라고 한다. 이는 암초에 붙었던 전복이 바위 위로 기어오르거나 해초 따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현상을 말한다.

특징 및 의의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난 해산물이다. 조선시대에는 진상품으로 공납되었으며, 민간에서는 바다의 보양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전복따기는 해녀의 물질과 잠수기선이 중심이 되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해산물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어촌계 공동어장의 보편적인 어로 관행이다. 최근 전복 채취는 수익성이 악화일로에 있다. 어족자원의 감소로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전라남도 완도·진도 등 서남해안에서 양식으로 출하되는 전복량은 늘어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備邊司謄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茲山魚譜, 서해 도서 지역의 해녀 기원과 어로활동(강성복, 해녀연구총서3, 학고방, 2014),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의 낙도민속지(한상복·전경수, 집문당, 1992), 황금담치 외연열도 사람들(강성복, 민속원, 2019).

필자 강성복(姜成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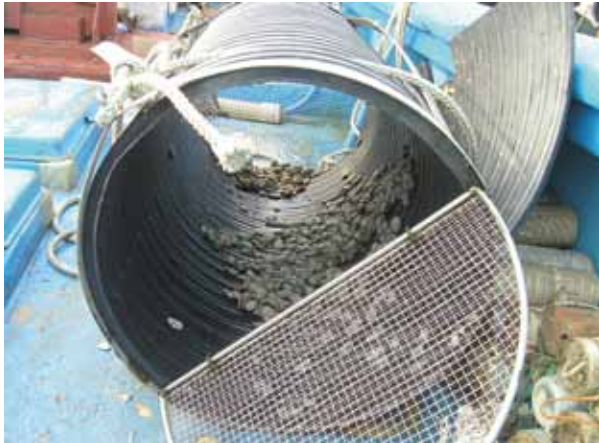
정의 전복 인공종자를 가을철과 봄철에 전복 가두리나 수하식 채룻에 넣은 후 먹이 공급과 사육밀도 조절 등의 관리를 통하여 상품 크기까지 키우는 일련의 과정.

역사 『한국어업사』에 의하면 전복은 1276년(충렬왕 2) 원나라에서 탐라국(현 제주도)의 진주를 가져갔다는 기록에서 제주 해녀가 전복 등을 나잠으로 잡아서 진주를 채취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양식 관련 자료는 없다. 1973년에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물연구원)에서 전복 종자 6만 마리를 최초로 인공생산한 후 1988년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에서 채룻양식을, 전라남도 여수와 경상북도 울릉도 어촌지도소(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및 경북어업기술센터)에서 가두리 양식을 시도하였다. 1990~1994년 해남어촌지도소(현 전남도 소속)에서 채룻식 수하양식을 개발하였다. 그 후 1990년대부터 전복 인공종자가 대량생산되자 정부의 보조로 마을 공동어장에 종자를 방류하여 양식하는 바다식양식이 성행하였다. 2001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완도어촌지도소) 등에서 『가두리식 전복양식』 기술지를 발간하고 면허를 처분하면서 전남 완도와 그 부근 지역이 전복 가두리 양식의 주산지 되었다.

내용 양식 대상이 되는 전복은 5종으로, 이 중에서 가두리 양식에 사용하는 종은 북방계에 속하는 참전복이다. 나머지 4종은 남방계에 속하며 제주도 등지에서 양식한다. 전복양식 방법의 변천을 보면 처음에는 바구니 또는 암석 등을 이용한 축양에서 채룻을 이용한 수하식과 목제를 이용한 뗏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산업의 발달로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은 석유화학제품의 양식 기자재가 보급되면서 전복양식용 가두리가 본격적으로 개발·보급되었다. 더불어 대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복 먹이인 다시마와 미역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무거운 가두리망의 보수 및 교체도 손쉬워지면서 양식장이 대규모화되었다. 이로 인해 전복 가두리 양식장 면적은 2002년에 비하여 2017년에는 47배인



전복 가두리양식 셀터 | 2017 | 한국교육방송공사·공유마당



전복 채종양식 | 강원 강릉 | 2003 | 오봉세

9,591ha로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810배인 1만 6,027t으로 증가하였다.

보편적인 전복 가두리양식을 위해서는 가두리 면적 1㎡당 각장 2cm 전후로 성장한 종자 1,000마리 정도를 입식한다. 입식 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60~70%,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에 30~40%의 비율로 가두리에 넣어준다. 2년 뒤 전복이 성장함에 따라 사육 밀도는 1㎡당 250마리 수준으로 조절한다. 1개 가두리(가로 2.4 × 세로 2.4 × 깊이 2.5m) 안에 전복이 부착하여 숨어 지내는 공간으로 PVC 재질의 셀터(길이 1m 전후)를 15~16개 넣는다. 양성 기간은 보통 18개월로 상품 크기인 각장 6~7cm 전후인 것부터 채취하여 판매한다. 판매는 여름철 고수온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채취·선별하여 판매한다.

지역사례 최근 2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전남 완도 및 부근

지역은 전국 전복 가두리양식시설의 90%가 설치될 정도로 우리나라 전복 양식업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발전 원인은 양식 기술의 발전, 질 좋고 값싼 양식 기자체의 대량 보급, 인공종자의 대량생산, 양식장 인근에서 미역과 다시마 등 먹이 대량 공급 및 기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경상남도 거제시 일원에서 가두리를 이용한 전복 양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소규모이다. 동해안의 강원도 강릉·속초 지역은 다시마와 미역이 풍부하나 수심이 깊고 파랑이 심하여 어초 형태의 침하식 양성 시설을 개발하여 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국립수산물학원의 『전복 양식 표준 지침서』처럼 전복 양식용 가두리는 어류용 가두리에 비해 소형이고 횡렬로 두 줄 또는 네 줄로 길게 연결된 형태를 취한다. 이런 가두리 배치로 관리선에 부착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손쉽게 사육 관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뒤쪽으로 갈수록 가두리 내의 해수 흐름이 약하여 전복의 폐사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전복양식 가두리 시설에 소요되는 자재는 기본적으로 종자, 닛, 가두리, 그물망, PVC 셀터 등과 크레인이 부착된 관리선 등이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 최근에는 시설비가 더 저렴한 전복연승식 가두리 시설이 개발되었다. 전복가두리 양식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판매가가 1kg당 3만 원 전후로 높아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어 급격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참고문헌 속담 속 바다이야기(이두석 외, 국립수산물학원, 2007), 수변정담(국립수산물학원, 2005), 전복 양식 표준 지침서(국립수산물학원, 2008), 천해양식(유성규, 새로출판사, 1979), 천해양식어업발달과정에 관한 연구(최정윤, 수산경영론집16-1, 한국수산경영학회, 1985), 한국어업사(박구병, 정음사, 1975), 해양수산통계연보(해양수산부, 2018).

필자 오봉세(吳捧世)

전어잡이

정의 주로 8t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선망이나 양조망을 사용하여 전어를 잡는 어로 행위.

내용 전어는 서·남해안의 수심이 얇고 물살이 빠른 삼각주 지역에 많이 서식한다. 근해성 물고기로 여름에는 먼바다에서 지내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근해나 하구의 기수역(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수역)에서 서식한다.

문헌에 따르면 조선시대부터 전어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충청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충청도·경상도·전라도·함경도 등지에서 전어가 잡힌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약전이 집필한 『자산어보茲山魚譜』에는 전어를 한자로 ‘箭魚’라고 쓰고 그 속명도 같다고 하였으며 “큰 것은 1척(약 30cm)가량이고 몸이 높고 좁다. 빛깔은 청흑색이다. 기름이 많고 맛이 좋고 질다. 흑산도에 간혹 있는데, 육지에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만 못하다.”라고 기록하였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錢魚’라고 칭하며 “서남해에서 난다. 등에는 가는 지느러미가 있어 꼬리까지 이른다.”라고 하였고, “상인은 염장하여 서울에서 파는데 귀천貴賤이 모두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 그 맛이 좋아 사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錢魚라고 한다.”라며 전어라는 이름의 유래도 언급하고 있다.

조선 후기 전어잡이는 입하(음력 5월 5일) 전후에 전어가 내유할 때 그물을 펼쳐서 어획하였다. 1903년에 간행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는 “우리나라 연해에 널리 분포하며, 상당히 많이 잡힌다.”라고 하였으며 “가덕도·거제도·진해·고성 연해의 어장(재래식 정치망)과 대부망에 적지 않게 잡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근래에는 연안선망어업으로 주로 양조망을 이용하여 5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어잡이를 한다. 긴 네모꼴의 그물을 활용하여 어군을 포위한 다음 조임줄을 조여 전어가 그물 아래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범위를 좁혀 어획한다. 그물은 날개그물·몸그물·고기받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물 상부에는 뜸(그물이 수면에 뜰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을, 하부에는 발돌(그물을 수면 아래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을 달아 수직으로 펼친다.

대부분은 어선 한 척에 그물 하나로 조업하며 그물 배 한 척, 어군탐지선 한 척, 운반선 한 척이 하나의 선



전어잡이 | 전북 고창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단을 이뤄 조업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그물배는 그물 투망과 양망을 담당하며, 어군탐지선은 전어 어군을 탐색하고, 운반선은 어획된 전어를 육지의 항구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난류성 어종인 전어는 수온 상승에 따라 2000년대 중반 들어 서해안에서도 잡히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동해안에서도 잡힌다. 전어는 성질이 급해 어획 후 생존시간이 길지 않아 전국으로 유통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전어를 수족관에 보관하는 방법이 개발된 데 이어 2004년부터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지역사례 광양만은 전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생태환경을 이루고 있다.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내만이며, 섬진강 민물과 바닷물이 혼재하는 곳으로 산란조건이 적합하다. 또한 섬진강에 유입된 모래로 인하여 수심이 얇은 모래펄로 되어 있으며, 해안을 따라 넓은 갯벌이 발달하여 전어가 산란·성장하기에 적합한 어장이다.

전어는 봄이 되면 산란기에 접어들어 광양만의 수심이 얇은 곳을 택하여 산란하며, 전어잡이는 이 길목을 노려 조업한다. 가을에는 수온이 내려가면서 난대성 어류인 전어가 수온이 높은 곳으로 군집하는데,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성향이 있어 배 위에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광양만 전어잡이 배는 앞이 뾰족한 삼판식으로 두 척이 한 선단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중선을 타고 조업을 하였

는데, 이를 조선배라 불렀다. 앞이 뭉툭하여 멍텅구리 배처럼 생겼고, 나무뿔을 사용하였으며, 수심이 낮고 갯벌이 발달한 한국 연안에 적합한 어선이다.

특징 및 의의 전어잡이 조업 시기는 한물에서 다섯물(물때는 간조와 만조 사이의 시차를 말하며 15일을 주기로 규칙성을 갖는데, 한물에서 열다섯물로 구성)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물이 조금씩 살아나고 조류도 세지 않아 조업하기에 적합하다. 어망을 이용하여 어군을 포위해 잡는 방식은 물살의 흐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좋은 시기는 세물에서 다섯물까지다. 이 시기에는 조류의 이동이 중간 수준이어서 전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곱물이나 여덟물이 되면 물살이 세져 조업을 할 수가 없어 이때는 그물과 배를 손질한다.

물때의 이동 시간과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전어 때가 물살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어가 가능한 시기, 어장으로 출어하고 돌아오는 시점, 그물을 내리고 당기는 시점 등은 모두 물때에 의해 결정된다. 전어잡이 시간은 물때의 시간에 정확히 맞춰야 한다. 전어잡이에서는 전어의 활동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물때에 따라 출어, 어장 정하기, 투망, 양망, 귀항 시간 등이 정해진다.

참고문헌 蘭湖漁牧志, 林園經濟志,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茲山魚譜, 韓海通漁指針, 진월 전어잡이 소리의 전승 맥락 고찰(나승만, 한국민요학30, 한국민요학회,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encykorea.aks.ac.kr).

필자 정명훈(鄭明勳)

전어지

佃漁志

정의 1840년 전후 서유구徐有渠(1764~1845)가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연구한 동물 백과사전.

개관 4권 2책의 필사본으로 저술되었으며, 글자 수는 8만 8,497자이다. 초고 원본은 일본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30년대 전사본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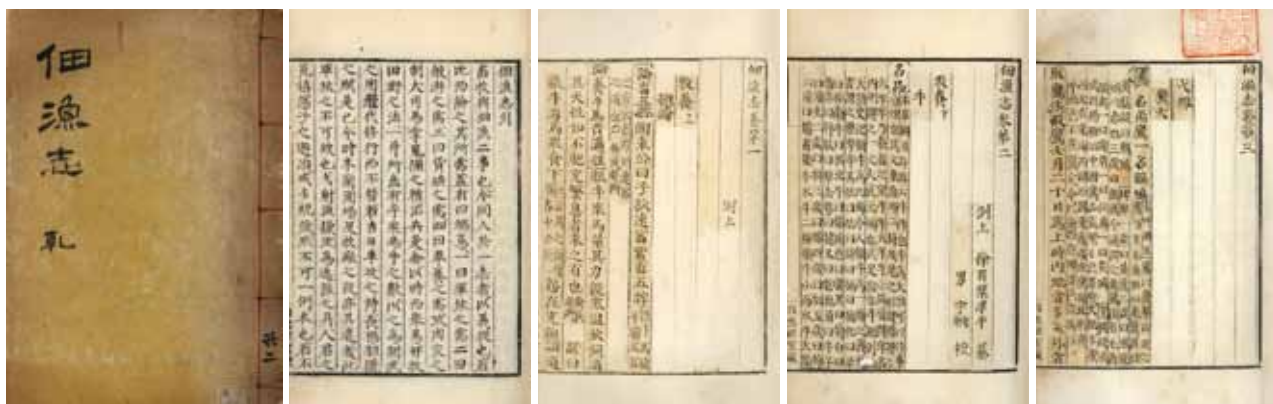
전어지는 동물 백과사전으로, 조선 최대의 실용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16개 분야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책이다. 전어지는 이제까지 어보魚譜(어류 전문서)로만 알려졌다. 이유는 수산학과 해양생물학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만 연구되어 그 부분만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어보의 성격과 함께 어류 이외의 동물까지 망라한 동물연구서이다. 이는 책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전어佃漁’는 ‘사냥과 어로漁撈(고기잡이)’라는 뜻이며 ‘지志’는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는 한문 문체로, 특정 분야의 전문서를 뜻한다. 따라서 전어지는 ‘사냥과 어로 전문서’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목축과 양어·양봉까지 포함하였다. 동물을 야생에서 잡는 법과 기르는 법까지 아우른 것이다.

서유구는 본관이 대구(달성)이다.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고위 관직을 두루 지냈다. 조부 서명옹徐命膺(1716~1787), 부친 서호수徐浩修(1736~1799), 숙부 서형수徐澄修(1749~1824) 등의 가학에 깊은 영향을 받아 경학이나 경세학보다는 천문·수학을 비롯하여 농학·공업·상업 등 실용 학문에 심취하였다. 그 결과 40년 동안 『임원경제지』 권113을 저술하였다.

『임원경제지』의 16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본리지本利志(곡식 재배 백과사전) ②관휴지灌畦志(채소·약초 재배 백과사전) ③예원지藝畹志(화훼 재배 백과사전) ④만학지晩學志(과일·나무 재배 백과사전) ⑤전공지展功志(의류 백과사전) ⑥위선지魏鮮志(풍흉 예측 백과사전) ⑦전어지 ⑧정조지鼎俎志(요리 백과사전) ⑨섬용지贍用志(건축·도구·일용품 백과사전) ⑩보양지葆養志(건강 양생 백과사전) ⑪인제지仁濟志(의학 백과사전) ⑫향례지鄉禮志(향촌 의례 백과사전) ⑬유예지游藝志(교양·기예 백과사전) ⑭이운지怡雲志(문화·예술 백과사전) ⑮상택지相宅志(주거선택 백과사전) ⑯예규지倪圭志(가정 경제 백과사전) 등이다.

내용 전어지는 조선의 3대 어보로 알려진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1803), 『자산어보茲山魚譜』(1822년경),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1837년경)보다 뒤에 나왔다. 완성된 시기는 1837~1842년경이다. 『난호어목지』는 대부분



전어지 |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이 전어지 저술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난호어목지』 대신 전어지를 3대 어보에 넣기도 한다. 조선의 3대 어보는 모두 같은 시대에 저술되었다.

전어지는 서유구가 1837년에 옮겨간 번계樊溪(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에 지은 서재 ‘자연경실自然經室’에서 쓴 원고에 실려 있고, 자신의 <오비거사생광자표五費居士生曠自表>(1842)에서 『임원십육지』 『임원경제지』를 완료하였다고 적은 점으로 보아 184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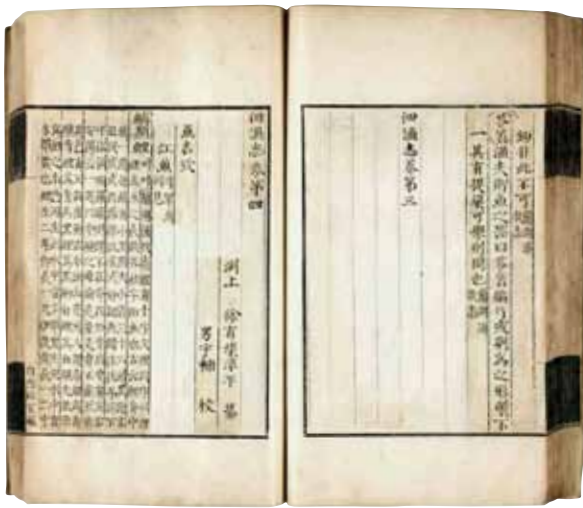
전어지 권1·2는 「목축·양어·양봉」, 권3은 「사냥」과 「고기잡이」, 권4는 「물고기 이름 고찰(어명고)」 등이 주제이다. 권1에서는 목축 총론과 말 기르는 법을 다룬다. 권2에서는 말을 제외한 모든 가축과 물고기와 벌 등 12종을 다룬다. 이 중 양어법을 소개하는 <물고기>에서는 양어가 생계를 꾸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런 이유로 물고기 기르는 법을 여러 가지로 모아뒀다.

권3에서는 <매와 사냥개>를 사육하고 길들이는 법을 비롯해 총과 활, 그물과 함정 등으로 들짐승이나 날짐승 사냥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고기잡이의 필수품인 그물과 더불어 통발, 낚시, 작살 등 주요 어구도 설명하였다. 이들 중 축고(쭈쭈한 그물), 후릿그물, 반두, 썰이, 차망(갈래그물), 좌중(삼태그물), 어조망漁條網(큰 배 밑에 설치하는 안강망), 문망(기둥으로 고정된 어조망) 등을 설명한 글은 묘사만으로도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그물 외에도 통발·어살·낚시·작살 등을 이용한 어로, 약·보자기·이불·거적·모래·수수 등을 이용해 고기 잡는 법 등 묘사가 세

밀하고 생생하다. 도롱이·대삿갓 등 기타 낚시도구까지 포함하였다. 이상의 어구와 어로법 내용은 대부분 조선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으로 의미가 크다. 이는 모두 『난호어목지』에서 인용된 내용이지만, 해당 부분의 『난호어목지』는 전하지 않고 있다.

권4에서 논한 「어명고」는 물고기를 <민물고기江魚(강어)>와 <바닷물고기海魚(해어)>로 크게 나누고, 각 물고기를 <인류鱗類(비늘 있는 어류)> <무린류無鱗類(비늘 없는 어류)> <개류介類(껍데기 있는 어류)> 등으로 더 나눴다. 이 같은 분류는 『난호어목지』보다 진전된 형태이다. 『난호어목지』는 어류를 강어와 해어로만 나눴기 때문이다. 대표 어종의 하위 범주에 근연종을 배치한 『자산어보』의 분류 체계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각 어종의 대표 명칭을 적은 표제어를 기준으로 민물고기 52종과 바닷물고기 77종 등을 합하여 총 129종이 소개되었다. 각 표제어에서 소개한 근연종까지 포함하면 종은 훨씬 늘어난다.

그 외로 <물고기에 관한 기타 논설>(이하 <기타 논설>)에서 28종을 고증하는 데 할애하였다. 28종 중 5종은 앞서 소개한 물고기 129종 중 한 종에 해당한다고 고증하였다. 고증된 5종은 ‘낙랑의 일곱 물고기를 분별하다’의 7종 중 앞 5종인 사魛(상어), 첩鯪(가자미), 국鰻(상괘이), 꾀鰻(복어), 용鰻(상어의 일종인 호사 또는 녹사) 등이다. 나머지 23종은 129종에 속한 물고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권4에서 서유구가 다룬 어종의 총수는 129종(인류·무린류·개류)과 <기타 논설>에서 다룬 28종을 합쳐 총 157종이다. 이 중에서 고증을 통해 129종과 겹치는 어류 5종을 제외하고 최종적



전어지 |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으로 동정(同定(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하지 못한 23종만을 합치면 152종이다.

152종이 전어지 표제어에서 수록한 어족의 총수이다(『난호어목지』에서는 154종을 다뤘고, 이 중 4종을 제외한 150종이 전어지에 포함되었다). 『자산어보』에서 다룬 226종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우해이어보』의 106종에 비하면 많다. 다만 『자산어보』에 수록된 해초(海草)는 전어지가 아니라 『임원경제지』의 두 번째 분야이자 채소·약초 재배 백과사전인 관휴지에 배치되었다. 여기에서 다룬 해초는 13종으로, 이 중 5종은 『자산어보』에서 가져왔다.

권4에서 각 어류를 서술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해당 어류의 명칭이 나온 뒤에는 당시 통용되던 한글 이름이 적혀 있다. 조선의 어류서 중에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과 병기한 서술은 전어지와 『난호어목지』 밖에 없다. 이어서 각 어종을 해설하는 내용은 명칭 고증과 오류 수정, 명칭의 유래, 생김새, 크기, 습성, 서식처, 주요 산지 및 나는 때, 이동 경로, 맛, 잡는 법, 용도, 효능, 선호도, 가공법, 운송로, 유통실태 등 어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전어지는 관찰과 탐방뿐만 아니라 명칭 고증을 위한 문헌 고증도 하였다. 권4에서 99종의 어종(152종의 약 65%)을 문헌 고증을 통해 어명을 확정 짓는 연구를 치밀하게 병행하였다. 그럼에도 물고기 명칭에 대한 문헌 고증이 없는 것도 있다. 고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 전어지에 실린 물고기 중 문헌 고증 기록이 없는 어종은 152종 중 53종(민물고기 23종, 바닷물고기 30종)이다.

권4의 모든 기사는 서유구의 또 다른 저술 『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에 수록된 한 표제어(〈낙랑의 일곱 물고기를 분별하다(辨樂浪七魚)〉)를 제외하고는 『난호어목지』 중 한 권에서 거의 옮겨졌다. 『난호어목지』에 수록된 4종이 빠지고 몇 곳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을 뿐이다.

전어지에는 78종의 문헌이 인용되었다. 이 중 『난호어목지』 1종의 인용 부분은 전어지 저술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42.1%).

전어지 권4의 글자 수는 총 2만 6,712자이다. 여기에 권3에 수록된 「고기잡이」의 글자 수 9,299자까지 합하면 3만 6,011자이다. 3대 어보 중 앞 두 어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장 늦게 지어졌지만, 어보 성격의 저술로서는 조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다.

특징 및 의의 전어지는 어명이나 물명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국어학을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난호어목지』와 연속선상에서 한글을 비교해 보면 전어지에 인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는 동일인의 저술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생긴 변화이다.

그동안 3대 어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그럼에도 전어지는 가장 주목을 덜 받았고 연구도 다른 두 책보다는 적게 이뤄졌다. 완역서가 나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듯하다. 전어지 번역서는 2007년에 발행되었으나 전어지의 권4「어명고」만을 옮긴 것이다. 어로법까지 다룬 권3을 포함한 전어지 최초의 완역서는 2021년에 나왔다.

전어지는 『우해이어보』나 『자산어보』와는 달리 바닷물고기와 함께 민물고기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어류 연구서이다. 권3에서 어구 만드는 법, 도구로 각종 물고기를 잡는 법, 기타 고기잡이법 등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어족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균형 잡힌 어류학 저술이다. 이런 특성을 두고 조선에서는 전어지(『난호어목지』)만이 어보에서 어서(漁書(어업 전문서))로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蘭湖漁牧志, 牛海異魚譜, 茲山魚譜, 佃漁志, 근세 동아시아의 어류지식과 해양어업(김문기, 역사와 경계114, 부산경남사학회, 2020), 임원경제지 전어지1·2(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 역, 풍석문화재단, 2021), 자산어보(정약전·이칭, 정명현 역, 서해문집, 2016), 전어지(서유구, 김명년 역,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평역 난호어명고(서유구, 이두순 역, 수산경제연구원BOOKS·블루앤노트, 2015).

필자 정명현(鄭明炫)

젓독

정의 어패류 등을 소금에 절여서 발효·숙성·저장할 때 사용하는 용기.

내용 젓독은 배에 싣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크고 작은 독을 이르며, ‘젓동이’ 또는 ‘젓갈독’으로도 불린다. 장인들은 거친 해상과 육상 수송 과정에서 깨지지 않도록 젓독을 구웠다.

젓갈은 주로 어패류 등에 소금을 넣고 절여서 담근다. 소금양은 어패류 무게의 20~30%가 적당하다. 이 비율로 소금을 넣어야 젓갈 재료가 상하지 않으면서 숙성된다. 젓갈은 먼저 어패류를 소금물로 씻는다. 어류는 내장을 빼지만 멸치와 새우 등은 내장을 빼지 않고 젓갈을 담근다. 독에 어패류를 한 켠 놓은 후에 소금을 뿌리고 다시 어패류를 올리고 소금을 뿌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는 어패류가 보이지 않도록 소금을 가득 었는다. 젓독은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한 후에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 상온에서 2~3개월 지나면 형태가 유지

된 젓갈로 발효되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면 겉모습이 몽그러진 젓갈로 숙성된다.

어부들은 배에서 수산물과 소금을 번갈아 가면서 켜켜이 젓독에 넣은 후에 젓막으로 옮겨서 보관하였다(전라북도 부안). 젓막은 선주나 부잣집에서 운영하는 토벽과 초가지붕으로 된 상업적인 저장공간이다. 이곳은 1970년대까지 운영되었으며, 젓독 4,000~5,000여 개를 저장하였다. 민가에서는 젓항아리를 이용해서 그늘진 광 등에 보관하였다. 이후에는 드럼통을 이용해서 젓갈을 담그는 지역도 있었다(충청남도 서천).

젓독은 전체적으로 일반 항아리와 비교해서 크기가 작고, 폭이 좁다. 크기가 작은 이유는 배에서 젓갈을 담가서 민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입은 크기와 폭에 비해서 넓다. 모양은 직선이며 길다. 젓독 입을 크게 만든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상인이 동일한 용량에 더 많은 양의 젓갈이 들어 있는 것처럼 구매자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젓독의 원래 형태는 입과 밑이 거의 같은 크기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젓독은 기본적으로 원통형과 원추형이지만,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원통형은 넓은 입과 어깨에서 배를 거쳐서 밑바닥까지 거의 일직선이거나 점차로 좁아진다. 간혹 원통형 중에서 어깨가 입보다 약간 넓은 상태에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젓독도 볼 수 있다. 이는 원통형과 원추형 중간 정도의 형태이다. 원추형 젓독은 입과 밑바닥의 지름이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인다.

젓독 면은 전체적으로 잿물을 바르는 반면에 잿물을 바르지 않고 구운 독도 있다. 문양은 ‘全羅北道’(전라북도) 등 글자를 쓰거나 음각선 등의 띠줄과 띠문을 두르고, 용수철문 등을 새겼다. 내면에 도개(질그릇 따위를 만들 때 그릇 속을 두드려서 매만지는 데 쓰는 조그마한 방망이) 자국이 남아 있는 젓독도 있다. 적갈색과 흑갈색 등 여러 색채를 띤다. 양옆에 손잡이를 달아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든 젓독도 있다.

오래전부터 일반가정에서는 다종다양한 어패류를 소금에 절여 젓동이에 담은 후에 아가리를 널찍한 돌로 눌러 놓았다가 밀반찬이나 조미료로 사용하였다. 살림 규모가 큰 집은 부엌 말고도 반찬을 장만하는 반빫간(집에서 반찬을 만드는 곳)과 마루방 옆 장독대 등



젓독 | 국립민속박물관



정독 | 국립민속박물관

에 곡식을 가득 담은 큰 질독뿐만 아니라 젓독도 보관하였다. 젓독은 젓갈에 따라서 장독대에 놓았다. 새우젓·멸치젓·조기젓 등은 큰 독에, 곤쟁이젓·소라젓 등은 작은 독에 담아서 보관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젓독은 선상에서 사용하는 젓갈 생산용기와 발효용기, 유통용기, 저장용기 등의 역할을 하였다. 젓독은 민가에서 젓갈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젓갈 항아리와 다른 용기이다. 1970년대 이후로 어선의 기계화와 동력화, 포장 용기의 변화, 젓갈 제조업 전문화 등으로 젓독의 중요성이 퇴조하였다. 하지만 선상에서 바로 젓갈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어촌민속지-경기도·충청남도(국립민속박물관, 1996), 전북 부안 연동 마을의 용기 이용에 관한 연구(유승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정어리잡이

정의 두릿그물[旋網]에 속하는 어망인 건착망[巾着網]으로 정어리를 잡는 일.

개관 정어리는 남해에서도 잡히지만, 대부분 동해에서 잡힌다. 정어리는 일본 규슈九州 남서 해상에서 한반도의 남해와 동해를 거치는 회유성 어종이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지만, 시기별로 회유하는 무리의 양에 차이가 있어 어획량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191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말까지 대량의 정어리 무리가 동해로 회유하여 정어리 어획과 가공이 이뤄져, 동해안 북부지역 도시 발달의 한 원인이 되었다. 1941년부터 갑자기 회유량이 급감하여 어획량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1980년대 연평균 약 13만t의 어획고가 확인되지만, 1990~2010년에는 약 2만t으로 급감하였고 2010년대에는 연평균 3,000t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용 정어리는 한국 최초의 어보인 김려金鱣(1766~1822)의 『우해어보牛海異魚譜』에서는 증열蒸鬱, 정약전丁若銓(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서는 증열어曾孽魚라 부르는 것이 확인된다. 증열이란 ‘답답해서 머리가 아프다[蒸蒸鬱鬱]’라는 뜻으로, 지방이 많아 쉽게 변질되는 정어리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정어리는 연안성 어류로 등쪽은 암청색, 옆구리와 배는 은백색을 띤다. 옆구리에 한 줄로 된 7개 내외의 흑청색 점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몸길이는 19~21cm, 체중은 평균 90g 내외이다. 특히 12~17%에 이르는 높은 지방 함유량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 해역의 정어리는 주로 규슈 남서쪽의 온난 수역에서 산란을 마치고 봄철 수온 상승과 함께 북상한다. 동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며 겨울철에는 남쪽으로, 여름철에는 북쪽으로 회유한다.

‘농군濃群’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한 정어리 무리가 동해에 나타난 것은 1910년대부터이다. 1916년 11월 강원도 통천 지역에서 약 50만 관(약 1,900t)과 1917년 10월 강원도 간성(현 고성) 지역에 약 2만 3,000관

(약 9t)의 정어리가 잡힌 것이 당시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1920년대에는 300t급 선박의 항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의 정어리가 내유來遊하였다.

정어리의 대규모 내유는 1940년대 초반까지 계속 되었고, 대량의 정어리 어획으로 이어졌다. 1913년 약 2만 4,000t이던 정어리 어획고는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27년 약 27만t에 이르렀고, 1937년에는 약 139만t, 1939년에는 약 121만t으로 정점을 찍었다. 대표적인 정어리 어항은 함경북도 청진淸津으로, ‘정어리의 청진’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 시기 정어리 대량 어획은 정어리의 대규모 내유라는 ‘공급’과 일본의 유지油脂 화학공업 발전이라는 ‘수요’와 함께 어획 기술의 발달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191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 형태의 어유魚油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화합으로써 가공이 가능한 경화유硬化油 기술을 발전시켰다. 비누·양초·글리세린·화장품 등의 공업용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던, 기존의 고가였던 우지牛脂를 경화유로 대체하였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 경화유에서 추출한 글리세린이 일본군이 사용하는 화약용 원료로 인정되어 경화유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었다. 당시 일본 어유 생산의 90% 이상을 정어리기름(온유鰵油)이 차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조선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여기에 정어리어업이 곧 건작망어업이라 불릴 정도로,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인들이 들여온 동력을 이용한 기선건작망機船巾着網 어법은 정어리잡이에 사용되었고 어획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하지만 1941년 약 63만t, 1942년에는 약 7만t,

1943년에는 전무할 정도로 정어리 어획은 급감하였다. 당시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류 변화와 그동안의 남획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정어리 어획량이 급감하는 시기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벌이는 시기와 맞물려 ‘망국어亡國漁’라 불릴 정도로 일본의 유지 화학공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광복 이후 정어리는 다시 한반도 해역에 등장하였고, 남한 지역에서의 정어리 어획고는 1970년대부터 확인된다. 매년 차이가 있지만, 1970년대 총 21만t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총 138만t의 정어리가 잡혔다. 이후 1990~2000년대 총 22만t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대는 총 3만t으로 급감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정어리는 어체에 함유한 많은 지방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에 어유 생산의 주원료로 어획되어 가공·활용되었다. 1937년 일본이 단일 어종으로 세계 1위의 어획고를 기록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정어리를 잡았다. 194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정어리는 30년이 경과한 1970년대부터 다시 잡히기 시작한 물고기로, 일제강점기에 남획·수탈된 대표적인 어족 자원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牛海異魚譜, 茲山魚譜,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김수희, 경인문화사, 2010), 자산어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정약전·이청, 정명현 역, 서해문집, 2016),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3~1941 복각본(朝鮮總督府, 고려서림, 1987), 한국 정어리 어업사(박구병, 부산수대논문집21, 부산수산대학교, 1978), 朝鮮水産開發史(吉田敬市, 朝水會, 1954), 강원도온대어(매일신보, 1916.11.19.), 강원도 약어상황(매일신보, 1917.10.20.), 국가통계포털(kosis.kr).

필자 심재욱(沈在昱)

정치망 定置網

정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한자리에 그물을 고정해 두고 그곳을 지나가는 어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구.

내용 회유성 물고기가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가기는 쉬



청진항 어유공장 | 함북 청진 | 일제강점기 | 국립해양박물관

우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어구를 설치하여 물고기가 어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조업방식으로, 함정어구류라 통칭한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놓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장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대상 어종의 움직임이 많아야 하며, 해저 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모래 또는 가는 자갈이 있는 곳을 주로 선정한다.

물고기가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방법에 따라 어구 구조와 규모가 다양하다. 종류에 따라 그물 안으로 유도하는 가두릿그물어업, 숨을 곳을 만들어 쥐 잡는 은신함정어업, 해조류를 따라 연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가둬 잡는 장벽함정어업, 깔때기 장치를 가진 바구니 함정어업, 비탈그물이 장치된 낙망어업 등이 있다.

가두릿그물어업은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어군의 통로를 차단한 뒤 그물 안으로 유도하여 잡는 조업방식이다. 회유성 어군이 움직이는 지역에 긴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는 통그물을 설치한 후 어군이 길그물을 따라 통그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여 어획한다. 일정 장소에 고정해 설치한 뒤 하루에 1~2회 그물에 들어간 물고기를 잡는다.

초창기의 통그물은 삼각형 모양으로 한쪽 면 전체가 입구로 되어 있어 물고기가 들어가기도 쉽고 되돌아 나오기도 쉬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물 형태가 타원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변경되었으며, 한쪽 면의 일부만 입구를 만들어 물고기가 되돌아 나오기 어렵게 개량하였다. 통그물의 형태가 삼각형인 것은 대부망, 타원형인 것은 대모망, 직사각형인 것은 각망이라고 한다.

낙망어업은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어군의 통로를 차단한 뒤 그물 안으로 유도하여 잡는 방법으로, 가두리그물을 개량하고 발전시킨 어업방식이다. 통그물은 헛통과 원통으로 구성되었는데, 원통의 입구에 비탈그물을 설치하여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가 되돌아 나가기 어렵도록 설계하였다.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설치한 다음 하루에 1~2회에 걸쳐 그물에 갇힌 물고기를 어획한다. 즉 한곳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자리그물의 일종으로 어장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어장 선정 요건은 연중 많은 물고기가 회유해 오는 곳이어야 하며, 해저가 평탄하고 수심이 얕아 닻으로

어구를 고정하기 쉽고 갯벌 또는 사니질이어야 한다. 또한 파도나 해조류가 강하지 않아야 한다.

은신함정어업은 일정한 장소에 숨어서 서식하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만든 그물을 설치한 뒤 물고기를 잡는 어업방식이다. 주요 은신함정류로는 문어단지와 주꾸미소호가 있다. 과거부터 어구구조 및 조업방법 등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지와 소호의 재질이 변화하였다.

기계적함정어업은 미리 설치한 함정에 물고기가 들어오면 기계장치에 의해 입구가 차단되거나 올라미에 걸리도록 하는 어업방식으로 국내에서는 개폐식 문어단지 등이 있다.

울타리어업은 어군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그 속에 갇히도록 하는 어업방식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울타리만 설치하였으나, 최근에는 울타리 중간과 양쪽 끝에 여러 형태의 함정을 만들어 갇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개량하여 사용한다.

어살어업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아주 얕아지는 곳에 나무를 박고 대나무를 엮어 만든 발이나 그물을 쳐놓았다가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함정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업방식이다. 과거에는 대나무 발로 미로를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 죽방렴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물감을 이용한 어전을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정치망은 어군을 능동적으로 쫓아가서 어획하는 어구가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놓고 조업을 하는 수동적 어업으로 기후와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획량의 변동이 가장 큰 어업이다. 또한 금어기에 어획하지 말아야 할 어종이 정치망에 걸려 죽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연안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서해안 고창지역 어살어업의 변화과정 고찰(송기태, 도서문화5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8), 국립수산물과학원(nifs.go.kr).

필자 정명훈(鄭明勳)

제따먹기

정의 바다에 나가 차례로 낚시를 놓아 자기 낚시에 잡힌 것만 갖는 것.

내용 제따먹기는 개인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자기가 갖는 것으로 수확량에 따라 선주에게 20~30%를 뺏았으로 내놓는다. 제따먹기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 한 묶음인 ‘한 닥’을 놓는 순서를 정하는데 대개 나이 순서대로 놓는다. 자망그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한 닥’으로 보통 50~80cm이며, 이 닥을 10~15개 이어서 자망그물 ‘한 틀’을 만든다. 한 배에 선원 5명이 출어하였을 경우 1번으로 그물을 놓는 것을 ‘선채’라고 하는데 1—2—3—4—5번 순서로 놓고 5번을 ‘후채’라고 한다. 다음 날 다시 출어하였을 때는 2번이 ‘선채’가 되고 1번이 ‘후채’가 되며, 셋째 날 출어할 경우 3번이 ‘선채’가 되고 2번이 ‘후채’가 된다. 이렇게 매일 순서를 바꾸는 것은 바다 조류에 따라 그물을 놓을 때 고등어, 새치, 멸치, 명태 등 고기가 모여 있는 곳에서 공평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개인이 그물을 가지고 나갈 경우 5닥 정도를 소지하므로 5명이 나가면 전체 25닥의 그물을 놓게 된다.

자망어업에 사용하는 그물은 삼중망·이중망·홀그물 등인데,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남산바리’ ‘망성바리’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수심에 의한 어종의 분포에 따라 그물코 크기나 그물 투망 위치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어종의 고기를 잡는 전통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 방법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고기를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낚시바리로 선원끼리 몫을 나누는 ‘제따먹기’를 하면 낚시를 본인이 만들어 장만하고 바다에 나가 자기 낚시에 잡힌 것만 갖는다. 낚시바리의 장점은 ‘밑갓(미끼)’을 고기가 잘 무는 것을 사용하고, 낚시도 녹슬지 않게 자기가 관리한다는 점이다.

제따먹기와 달리 보통 ‘합동바리’라 하는 것은 선주의 돈으로 낚시를 장만해서 낚시로 어획한 것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 낚시나 미끼 등 비용은 전체 수입에서 빼고, 짓가리 하는 ‘뱃짓’은 한 ‘짓’을 놓고 선원들이 한

짓씩 나눠 갖는다. 동해안은 물 깊이가 깊고 밑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물 밑에 설치하는 물밑자망과 물 위에 뜨게 하는 ‘뜰자망’을 사용한다. 그물 설치하는 대체로 물고기 눈에 그물이 잘 보이지 않는 잔잔한 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식때와 표식때줄을 놓으면서 닳을 떨구고, 닳줄이 다 나가면 그물을 ‘선채’부터 ‘후채’까지 정해진 차례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쳐놓은 그물은 밤새 놓아두었다가 다음 날 새벽에 어장에 도달하여 각자의 그물을 끌어 올린다. 그물을 올리고 나면 순서대로 각자의 그물을 새로 투하한다. 명태가 그물에 걸리면 다음 날 잡아 항구로 들어와서 그물에 걸린 것을 벗기게 되므로 신선도 측면에서 낚시로 잡은 명태와는 차이가 난다.

특징 및 의의 제따먹기는 개인 그물에 잡힌 고기를 선원 각자가 분담하여 갖는 것이다. 한 배에 여러 명이 승선할 경우 그 분배 방식을 정하는데, 수확량의 일부를 선주에게 떼 주고 나머지를 바다에 그물을 놓은 선원들이 각각 거둔 만큼 자기가 따먹는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고성군 명태어로민속지(장정룡, 고성문화원, 2009), 동해시의 어로문화(장정룡, 동해시, 2000), 동해의 전통어업기술과 어민(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2012) 삼척의 어촌·어로민속(장정룡, 삼척시립박물관, 2012), 속초시 어로민속지(장정룡, 속초문화원, 1997), 한국의 해양문화4-동해해역(해양수산부, 2002).

필자 장정룡(張正龍)

제주 해녀어업

濟州 海女漁業

정의 제주 해녀들이 산소공급 장치 없이 보통 10m 이내 깊이의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약 1~2분간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어업 시스템.

개관 제주 해녀어업은 제주 해녀들의 수산물 생산 및 생계 수단으로 제주해역에서 연간 90일 정도 물질작업을 하고 공동생산과 판매로 경제활동에 임한다.

주로 채취하는 해산물을 살펴보면, 패류貝類로는 소라·전복·오분자기 등과 해조류로는 톳·천초·감

태·청각·몸 등이 있다. 이 외에 문어·해삼·성게 등도 채취한다.

해녀들의 일터인 마을어장은 간조와 만조가 있는 조간대와 그보다 깊은 수심의 조하대로 나뉜다. 제주에서는 조간대를 ‘갯갯’이라 하고 조하대는 ‘결바당’이라 하는데, 이곳은 수심이 깊고 ‘여’라고 부르는 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제주 해녀들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장을 육지에서 농사를 짓는 ‘밭’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당밭’이라고 한다. 주로 여, 덕, 코지(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나가 있는 육지의 한 부분) 등과 같은 지형으로 되어 있으나 해녀들이 작업하는 어장에는 각각의 지명이 정해져 있다.

‘여’는 물에 잠긴 바위로, 밀물 때는 보이지 않고 썰물 때만 나타나는 일종의 바닷속 섬이다. 해산물 서식처로서, 바위에 따라 생산되는 해산물도 약간씩 다르다. 해녀들은 ‘여’를 작업장소로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곳에서 나는 해산물의 상황을 파악하고 찾아간다. 일종의 어장인 셈이다.

물질을 할 때는 자연친화적인 채집 기술을 사용한다. 어족자원의 생태환경을 지키면서 작업하기에 지속 가능한 작업 기술이기도 하다. 해녀들은 물질하는 바다 어장을 1년에 두세 번 해안과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며, 오분자기·전복·홍해삼 등의 종패를 뿌려서 어족자원을 증식하면서 어장을 경작한다.

제주도 내에는 마을어장별로 102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계원은 마을어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어부와 해녀로 구성된다. 특히 어촌계장은 제주 해녀들이 물질하는 마을어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취 시기, 작업 일시,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크기 등을 규정하고 물질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통제한다. 해녀회는 신입 해녀의 물질 자격 인정과 날씨나 일기에 따른 작업 여부, 작업 장소, 바다 어장 청소 ‘개딱이’ 등 회의를 통해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물속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상호안전을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물질하는 공동시스템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협동과 신앙공동체로 이어진다.

내용 제주도 내 해녀들이 작업하는 마을 어장 면적은 1

만 4,346ha이며, 해녀가 있는 어촌계 마을은 5만 7,427ha이다. 어업 종사자 가운데 해녀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매우 높다. 제주 지역은 입지 여건이나 산업구조상 수산물이 수출품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수출 수산물의 평균 80% 이상을 해녀들의 어획물로 충당하는 만큼 제주에서 해녀들의 경제적 역할은 중요하다.

1970년에 1만 5,000명을 웃돌던 제주 해녀 수는 1980년에 7,80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8년 수협별 통계에 의하면 현역으로 일하는 해녀들의 수가 제주시 수협 1,604명, 한림 수협 575명, 추자도 수협 90명, 모슬포 수협 358명, 서귀포 수협 668명, 성산포 수협 538명 등으로 총 3,833명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2019년 통계에서는 전체 해녀 3,820명 중 50세 이상 고령자가 3,731명으로 97.7%를 차지하였다. 30~49세는 22명으로 8.3%에 달하고 30세 미만 해녀는 6명으로 0.1%로 나타났다.

1970년 이래 제주도의 어업인구와 해녀인구는 계속 감소하였지만, 어업인구에서 차지하는 해녀인구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특히 제주 해녀어업 소득은 제주도 어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70년 제주 해녀어업 생산량은 2만 48t으로 제주도 연근해 어선어업 생산량의 77.6%를 차지할 정도로 해녀어업 생산량 비중이 높았다. 소라를 비롯한 고급 수산물을 수출하여 어가뿐만 아니라 제주도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에도 제주 해녀어업 생산량은 1만 3,285t으로 연근해 어선어업 생산량의 36.8%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여 2019년 3,496t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녀어업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생태계 변화와 외부 환경 악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해녀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활발한 조업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녀 1인당 물질 연평균소득은 2000년대 260만~350만 원 수준이었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340만~55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635만 원, 2019년에는 513만 원 수준이었다.

해녀공동체는 물질 기술과 경험 등에 따라 서열이 분명한 만큼 해녀 개인의 물질소득도 일정하지 않다. 능력이 뛰어난 ‘상군’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중군, 하

군 순으로 이어진다. 해녀들은 물질 기술을 익히는 한편 어장 특성에 대한 지식을 하나둘 늘려가면서 숙련도 높은 완전한 해녀가 된다. 특히 기술과 지식이 가장 뛰어난 ‘상군’ 해녀는 어장 지형을 숙지하여 암초와 지형물의 특성을 터득하고 해산물 생태에 따른 서식처도 거의 알고 있다. 마을 어장에 대한 지식은 ‘어머니가 딸에게조차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경험지식을 강조한다.

해녀들의 물질작업 일자를 일반적으로 ‘물때(물찌)’라고 한다. 작업하는 날은 날씨나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서 작업을 결정한다.

한 달 전·후반 15일 주기의 ‘물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조수 간만의 차가 작은 제주시는 ‘조금’(음력 7일, 23일)부터 ‘여섯물’(음력 14일, 29일)까지 작업한다. 제주도 동부지역인 구좌읍 김녕리는 ‘조금’을 전후하여 ‘막물’(음력 6일, 21일)부터 ‘다섯물’(음력 13일, 28일)까지 8일간 작업한다. 인근의 구좌읍 하도리는 ‘조금’(음력 8일, 23일)부터 ‘다섯물’(음력 13일, 28일)까지 6일간 작업한다. 이 기간은 조수 간만의 차가 작아 조류의 흐름이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해산물을 발견하고 자막질하였을 때 정확한 장소에 잠수할 수 있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짙은 테왁과 해산물을 담은 용구인 망사리가 조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 해산물을 쉽게 넣을 수 있다.

해녀들의 물질작업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바람이 조류의 방향대로 불면 먼바다로 나가지 않고 가까운 어장에서 작업하고,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불면 먼바다로 나가서 물질한다. 바람이 조류의 방향대로 불면 바람 빠르기가 더해져 조류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불면 조류가 더디게 흐르기 때문이다. 마을 어장은 조류나 바람에 따라 작업을 행하는 장소가 고정된다.

해녀공동체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 지식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해양생물의 생태 유지로 지속가능한 생업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채취한다. 해산물의 산란기를 중심으로 채취 금지 기간을 결정하고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생태 지식을 체득한다.

예를 들면 소라 금채기는 6~8월, 전복 금채기는



오분자기 종패 | 제주학연구센터

10~12월, 오분자기 금채기는 7~11월, 우뚝가사리 금채기는 11~4월, 톳 금채기는 10~1월, 해삼 금채기는 7월이다. 이러한 금채기 준수와 더불어서 크기 제한 규정도 있다. 전복은 체장 10cm 이하, 소라는 체장 7cm 이하이다. 마을 어장 공동관리 중 TAC(채취허용 총량)을 지정하여 소라 자원을 관리하는데, 그 이상은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해녀들의 잠수작업은 호흡을 조절하고 수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몸 기술은 물론 ‘가늠’ ‘헛물질’ 등 여러 기술이 요구된다. ‘가늠’은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곳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 육지부의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신이 있는 곳이나 생산물이 나오는 어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헛물질’은 ‘헛숨’이라고도 하는데, ‘헛무레’라고 하는 소라·문어·전복·오분자기 등을 잡을 때 물속에 여러 번 들어가 어획물을 발견하고 다시 들어가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나 전복, 우뚝가사리, 톳 등의 패류나 해조류를 이용하여 독특한 조리법으로 대대로 전해져 온 음식을 ‘제주해녀음식’이라고 한다. 이는 제주의 전통음식이면서 제주 해녀들이 창안한 음식이다.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 유형으로는 밥, 죽, 범벅, 국(물회), 구이, 젓갈, 어적(魚炙) 등이 있다. 대표적인 해녀음식으로는 전복죽, 오분자기죽, 문어죽 등의 죽 종류와 미역을 이용한 미역국이나 모자반을 이용한 일명 ‘몸국’이 있다.

어촌계에 속한 해녀회의 역할은 어장 공동관리·공

동작업, 공동체 이익증진·복지실현, 해녀 권익신장 등으로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공동체적 성향이 강하다. 마을 어장 공동관리는 어족자원 보호와 어장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제주사회는 대변화를 맞이하였다. 양식장 난립 등으로 해녀 어장이 큰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감귤농업과 관광산업이 태동하며 제주경제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고학력화되면서 해녀업을 선호하지 않았고, 다른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해녀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는 수출 활로가 개척되어 수산물 가격 폭등으로 제주 해녀들이 호황을 누렸다.

해녀들의 옷과 도구의 사용은 과학적이면서 실용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 해녀들은 1970년대 이전에는 면으로 만든 ‘물소중이’를 입고, 중반 이후부터 고무 잠수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고무 잠수복 덕분에 해녀들은 추위 영향을 덜 받아서 조업시간이 늘어나고, 수압의 지장을 덜 받아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져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해녀공동체를 상징하는 ‘불턱’(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고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만든 곳)은 1980년대 들어서 현대식 탈의장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데, 해녀들의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온수 샤워 시설과 휴식 공간도 마련되었다.

해녀 개인의 전문적 물질기술과 해양환경 및 생태에 대한 전통지식을 지닌 해녀를 전문가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형유산보유자 자격을 주었다. 2016년에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등재되었고, 2017년에는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권장한 토착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계기로 ‘해녀협회’가 설립되었다. 그동안 마을어촌계에 소속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마을 해녀회가 2017년 4월 하나의 단체로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녀협회 회원은 현직 해녀 4,005명(정회원)과 전직 해녀 5,495명(준회원)이 합하여 모두 9,500명이다. 지구별 협회는 수협 단위별로 6개를 두고 있다. 해녀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배려와 공존의 해녀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존·발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봉사와 문화사업이다. 그 외 제주해녀어업과 문화유산의 세계화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NGO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이며, 기타 해녀들의 생활 터전인 제주 바다와 생태환경적 공존을 위한 바다환경 보전사업, 제주해녀의 상호친목 및 우의도모 등 협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그간 마을별 해녀회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제주도 전역의 해녀회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마을 어장의 생태환경 보전과 해녀문화의 전승·보전, 국내외 문화교류, 해녀의 복리증진 등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징 및 의의 제주해녀는 가족의 식량 및 생계유지를 위해 화산섬의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물질 기술과 전통 지식을 축적하여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격을 갖췄으며, 바다 어장의 자원관리에 힘쓰면서 제주 여성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다.

해녀공동체는 나잠裸潛이라는 물질 방법을 고수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존중하였고, 물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들 나름대로 규약 등을 제정·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협조하는 모범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바다라는 자연을 개척하면서도 육상과 공존하며 해양경관의 모습을 잘 보전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세계적인 가치와 더불어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해녀(좌혜경 외, 민속원, 2006). 제주해녀어업시스템 FAO 등재신청서(제주학연구센터, 2020), 사단법인 제주어 연구소 (jejeuo999.kr).

필자 좌혜경(左惠景)

제주도해녀어업조합
濟州道海女漁業組合

정의 제주해녀들에 대한 일제의 수탈을 막고 육지로 물질 간 해녀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기관.



제주도해녀입어문제경과 | 일제강점기 | 제주해녀박물관

개관 일본 어민은 1876년 개항 이후에 어업권을 침탈하고, 1883년 〈한일통상장정〉 체결 뒤에는 제주어장 침탈을 시작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김태호를 중심으로 한 제주 유지들은 해녀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1919년 10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조직하였다.

해녀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어업권의 대부분을 받는 조합원에 한해 어업에 관한 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어장에서 얻은 수입을 은행이나 금융조합에 예입하도록 관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사(현 제주도지사)의 조합장 겸임으로 건립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횡포가 극도로 심해져서 제주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내용 제주해녀들은 나잡^{裸潛}으로 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하였다. 제주도에서 그 업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점차 다도해·경상북도·강원도·함경도·황해도 등 전국 각지 연안은 물론 일본·러시아·중국 등의 연해에 출어하여 올린 어획고는 본도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였다.

출향한 해녀들은 소수의 독립 출어자를 제외하면 객주(거간)의 손을 거치는데, 그들은 해녀 모집자 및 감독자가 되어 매년 음력 12월쯤 제주도로 와서 해녀들을 모집하고 데리고 가서 부당하게 금전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이를 본 제주 지역의 유지들은 제주해녀와 출향해녀의 구제 보호와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원은 제주도 일원 지구 내에 거주하는 해녀와 뱃사공이 대상이었고, 사무소는 제주도청사 구내에 두었으며 조합 지부는 지구 내의 각 면사무소 내에 설치하였다. 또한 제주지구 이외에도 경남 울산과 부산 관내에 출어한 조합원의 감독과 보호 및 구제를 위해 부산에 출장소를 두었고, 전라남도 목포와 여수 방면 출어자를 위해 여수 읍내에 임시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지구 확대로 인하여 조합원이 잡은 해산물의 공동 판매와 기타 제 시설의 사업이 제주도 내 본부만으로 관리가 어려워지자 서귀포시청 내에는 출장소를 두었고, 성산포·김녕리·한림리·모슬포 등지에는 서기 주재소를 설치하였다.

제주도 출향 해녀들과 그 지방 어민들 사이에 우물가사리채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조정하였으며, 1925년 2월 전남와 경남 수산 당국 간 협상으로 '해녀의 입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31년 구좌읍 하도리산 감태 구매 때 중량을 속이고 지정경매 가격을 착취하는 하도리 감태 부정 사건이 발생하자 하도리 해녀들은 해녀어업조합인 관제조합을 분쇄하자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요구 조건과 투쟁 방법을 결정하여 제주읍의 해녀어업조합 본부로 가서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32년 1월 7일 하도리 해녀 300여 명이 세화리 장날에 본격적인 시위를 전개하여 해녀어업조합(제주읍)으로 행진 도중 해녀어업조합 구좌읍 지부장이 요구 조건의 해결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받고 해산하는 등 해녀항일운동의 단초가 되었다.



18개조 요구구 삼백해녀 시위 | 1932. 1. 14. | 조선일보

특징 및 의의 해녀어업조합은 조합원의 조난구출 사업, 수산물 가공과 판매, 학자금 보조, 부정수단을 강구하는 사밀매 근절에 힘썼다. 이후 제주도 어업조합 탄생의 기초를 마련하고 기관은 해녀들의 권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해녀들을 수탈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 규약집(제주도, 1926), 제주의 해녀(김영돈, 제주도, 1996), 제주해녀문화의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좌혜경·강정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4).

필자 좌혜경(左惠景)

조간대

조간대

조간대 潮間帶

정의 조석 변화에 따라 간조에는 수면 위로 노출되고 만조에는 수면 아래에 잠기는 연안 지역.

개관 해양학에서는 조간대의 전반적인 평균 노출에 근거하여 조간대를 세 개의 구역으로 분류한다. 고조간대(상부 조간대)는 최고 만조에만 물로 덮이고 대부분 시간은 노출되어 있으며, 중조간대(중부 조간대)는 규칙적인 조수에 의해 노출과 잠수를 반복하고, 저조간대(하부 조간대)는 주로 최저 간조에만 공기에 노출된다. 조간대와 구분하여 해안선을 기준으로 조간대의 평균 저조선 아래쪽 영역을 조하대(潮下帶)라고 하며, 조간대의 평균 고조선(高潮線) 위쪽 영역을 조상대(潮上帶) 또는 비말대(飛沫帶)라고 한다. 조간대에는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며, 조수에 의해 만들어진 좁은 폭의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조간대 암석 해안의 전형적인 서식 동물로는 성게, 말미잘, 따개비, 게류, 홍합, 불가사리, 복족류 등과 삿갓조개·딱지조개·쇠고둥 등과 같은 연체동물이 있다.

내용 과학 용어로 조간대라고 불리는 바다 공간을 보통 갯벌이라고 한다. 어민들의 생업 터전으로 중요한 바다 공간인 조간대와 관련된 어촌 사회의 민간 명칭과 구분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전라남도 조도에서는 바닷물이 넘나드는 일정한 공간과 이곳 여성들이 어패류나 해조류 등을 채취하는 바다 안팎의 공간 등을 포괄하는 바다를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육지 바로 다음의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안가 ‘땅’ 지역인데, ‘짜지’와 ‘모래땅’으로 세분된다. ‘짜지’는 해안의 모래·돌·뺨(펄) 등이 섞여 있는 땅 또는 지역이며, ‘모래땅’은 해안의 순 모래만 있는 땅 또는 지역이다. 둘째는 짜지와 모래땅의 다음 영역으로 갯벌에 해당하는 ‘뺨’이다. 마지막은 ‘뺨’ 다음 영역으로 ‘물’로 불리는데, 바닷물이 써도 항상 물만 있는 영역이다. 이 세 영역의 경계선은 각각 ‘뺨각단’과 ‘물각단’으로 불린다. ‘뺨각단’은 짜지·모래땅과 뺨 영역의 경계선을 가리키며, ‘물각단’은 뺨과 물 영역 간의 경계선으로 간조 때의 경계선을 가리키고 물이 쓸어가는 최대한의 끝 지역이 된다. 대략적으로 짜지와 모래땅 영역은 조상대와 상부 조간대, 뺨 영역은 중·하부 조간대, 물 영역은 조하대 이하의 구역에 해당한다. 뺨각단은 대략 조간대의 만조수위선, 물각단은 조간대의 간조수위선에 해당한다. 조도 여성들은 ‘뺨’ 영역을 중심으로 한 바닷가 또는 해변가를 가리키는 ‘갱변’에서 굴·낙지·조개·게·고둥·물고기·해조류 등을 잡거나 채취한다.

경상남도 사량도에서는 조간대에 해당하는 바다 공간을 ‘개짜문’ 또는 ‘갱문’이라고 하는데,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 물이 켜졌을 때 바닷속의 땅이 드러나는 공간 영역을 가리킨다. 물이 켜졌을 때 땅과 물의 경계선을 ‘물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도의 ‘물각단’과 마찬가지로 조간대의 간조수위선에 해당한다. 사량도에서도 조개나 고둥·굴·파래·툰·미역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 포획·채취는 개짜문(즉 갯문)에서 이뤄지며, 주로 여성들이 행한다.

특징 및 의의 조간대는 조석으로 물에 덮이거나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환경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은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모두에 적응해야 하는 변화가 큰 서식지이다. 그러므로 조간대에서 서식하는 생물은 대상분포(帶狀分布)의 특이한 생태계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조간대는 조석이 발달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넓게 나타나는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전남 지역에

우리나라 갯벌의 약 83%가 분포한다. 조간대에는 다양한 어패류와 해조류가 서식하기 때문에 갯벌은 어민들의 중요한 생업 공간이 된다. 또한 조간대는 생물상이 풍부해서 철새의 먹이터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갯벌(고철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의 언어 민속지-경상남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지질학백과(gskorea.or.kr), 해양학백과(ksocean.or.kr).

필자 조숙정(趙淑晶)

조개무지

정의 옛사람들이 식료로 채집한 조개를 먹고 버린 껍데기가 쌓여서 형성된 일종의 쓰레기더미 유적.

내용 조개무지란 옛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가 쌓여 형성된 유적을 말한다. 조개껍데기가 쌓여 무덤처럼 더미를 이루기 때문에 패총(貝塚), 조개더미, 조개무덤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조개무지는 조개 서식지에 인접한 해안가, 도서지방, 강가, 호숫가 등에 주로 분포한다. 특히 수렵·어로·채집 생활을 하였던 선사시대에는 바다나 강에서 쉽게 채집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식량자원인 조개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그 결과 대규모 조개무지가 발생하였다.

조개무지는 유적을 구성하는 조개류의 서식지에 따라 바닷조개로 구성된 ‘함수(鹹水) 조개무지’와 민물조개로 구성된 ‘담수(淡水) 조개무지’로 크게 나뉜다. 그리고 바닷조개와 민물조개가 섞인 정도에 따라 다시 순함수·주함수·주담수·순담수 조개무지 등으로 세분된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조개무지는 주로 바닷조개로 구성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함수 조개무지가 많다. 조개무지는 주로 조개껍데기로 구성되나 이 외에 다양한 동식물성 음식물 쓰레기와 파손된 토기·석기·골각기 등의 일상적인 생활 쓰레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개무지에서는 다른 유적에서는 잘 보존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하여 조개·뽕·뽕·이빨

등으로 제작된 도구나 장신구, 인골 등이 잘 보존되고 발견된다. 조개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조개무지의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산성토양에서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의 분해를 늦추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조개무지에서는 야외 화덕자리가 자주 발견되며, 집자리와 무덤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조개무지의 크기와 구성은 환경, 유적의 입지·기능·형성 기간, 생계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간 거주한 집자리와 관련되어 형성된 조개무지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유구나 유물의 구성을 보이지만, 단기 거주형 집자리와 관련된 조개무지에서는 유구와 유물이 제한적으로 발견된다. 이 밖에 조개 가공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점유된 조개무지는 조개껍데기 위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의 고고학 자료에서 볼 때, 인류가 식량자원으로 조개를 채집하기 시작하는 것은 약 70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북부에 위치한 석회암 동굴 유적인 약 70만 년 전의 카오 파 남 Kao Pah Nam 유적에서 발견된 담수 굴(freshwater oyster)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해양 식량자원인 바닷조개류의 채집은 이보다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굴·홍합·삿갓조개류 등이 발견된 프랑스의 테라 아마타(Terra Amata) 유적으로 미루어 보아 해산 조개류는 약 30만 년 전부터 채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조개류를 채집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조개무지가 출현하는 것은 자연환경이 지금과 비슷해지는 약 1만 년 전의 전신세(全新世)에 들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기온 상승과 함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조개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각지의 해안지역 거주민들이 식량자원으로 어패류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조개무지는 약 20만 년 전의 중기 구석기시대에 이미 출현한다. 이와 같은 이른 시기의 유적은 남아프리카의 남부 해안에서 다수 발견되는데, 피너클 포인트(Pinnacle Point)와 블롬보스(Blombos) 동굴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조개무지는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출현하지만, 아직 구석기시대의 조개무지가 발견된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른 시기의 조개무지가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에 의해 파괴되었거나 해저에 가라앉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조개무지가 인간 활동의 산물로 인식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 덴마크의 워사에 Worsaae와 스티스트럽 Steenstrup 등에 의해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7년에 이루어진 김해 조개무지에 대한 조사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조개무지가 형성되는 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개무지가 출현하는 것은 약 8,000년 전의 신석기시대부터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조개무지는 모두 597개소이다. 동일 지역에서 중복되었지만 형성된 시대가 다른 유적을 모두 합산하면 698개소에 이른다. 이러한 조개무지는 주로 해안과 도서지방에 위치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해안 340개소(56.8%), 남해안 211개소(35.2%), 동해안 30개소(5.0%), 제주도 20개소(3.3%) 등이다. 조개무지가 지역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과 깊이 연관된다. 조개무지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이 지역에 리아스식 해안과 조간대가 발달되어 조개의 서식과 채집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동해안 지역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조간대가 발달하지 않은 지형적인 여건상 주 채집 대상이었던 조간대성 조개의 서식과 채집에 적합하지 않다. 그 결과 함경도 지역을 제외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조개무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조개무지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322개소(46.1%), 청동기시대 76개소(10.9%), 삼한·삼국시대 233개소(33.4%), 통일신라시대 6개소(0.9%), 고려·조선시대 23개소(3.3%), 시대 미상 38개소(5.4%)이다.

신석기시대의 조개무지는 서해안 185개소(57.5%), 남해안 110개소(34.2%), 동해안 23개소(7.1%), 제주도 4개소(1.2%) 등 총 322개소가 발견되었다. 농경이 발달하지 않아 식량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수렵·채집경제 단계의 신석기시대에는 안정적인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그 결과 ‘조개무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조개무지가 남겨졌다. 이 가운데 남해안 지역의 조개무지는 규모가 크고 여



부산 범방 조개무지 전경 | 부산 강서구 | 복천박물관



연평도 모이도 조개무지 근경 | 인천 옹진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러 시기에 걸친 다문화층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물이 다량 발견되어 장기간 거주한 집자리와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해안 지역의 조개무지에서는 무덤도 다수 발견되어 장기간 점유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일본 산 흑요석·사누카이트로 제작된 석기와 일본의 조몬 토기가 발견되어 초기 신석기시대부터 해양을 통한 교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서해안 지역의 조개무지는 규모가 작고 주로 굴로 구성된 단조로운 구성을 보이며, 발견되는 유물의 종류나 수량도 적다. 특정 자원을 획득하거나 조개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점유된 유적이거나 계절적으로 잠시 머문 단기 거주형 집자리와 관련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의 옹기 서포항, 울산 세죽리 조개무지 △남해안 지역의 부산 동삼동·범방, 김해 수가리, 통영 연대도·육지도·상노대도,

창녕 비봉리, 여수 안도 조개무지 △서해안 지역의 온천 공산, 인천 을왕동, 부천 시도, 시흥 오이도, 서산 대죽리 조개무지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조개무지는 76개소가 확인되어 유적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조개무지의 급감에 대해서는 농경의 정착에 따른 생업경제의 변화나 토지 이용양상의 변화, 해수면 변동 등에서 그 요인을 찾고 있다. 다수의 청동기시대 조개무지가 발견된 안면도 고남리 유적의 입지를 보면 신석기시대의 조개무지처럼 해발 20~25m의 구릉에 분포하고 있어 해수면 변동 가능성은 뚜렷하게 엿보이지 않는다. 농경을 위해 내륙 지역에 취락이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개채집이 어렵게 되고, 그에 따라 해안 지역의 조개무지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낙동강 중·하류지역에서 채첩을 주체로 하는 담수 조개무지가 다수 확인되어 내륙 수계에서 여전히 조개를 채집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안 지역에 잔류한 일부 집단은 농경과 더불어 수렵·어로 활동을 병행하였고, 그들에 의해 조개무지가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안면도 고남리 조개무지와 보령 소송리 조개무

지 등에서는 다양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다량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조개무지는 단기 점유된 앞선 신석기시대의 조개무지와 달리 농경의 정착과 함께 장기 거주한 집자리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으로, 그 기능과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조개무지로는 나진 초도, 웅기 서포항, 안면도 고남리, 서천 옥북리, 보령 소송리, 군산 가도, 제주도 상모리 조개무지 등이 있다.

모두 233개소가 확인된 삼한·삼국시대의 조개무지는 서해안 124개소(53.2%), 남해안 86개소(36.9%), 제주도 15개소(6.4%), 동해안 8개소(3.4%) 등 주로 서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분포한다. 이 시대에 조개무지가 다시 급증하는 것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한 정치 집단이 대두하면서 경제적인 교역이 활발해지며 해안 지역 거주민이 증가하고 어로에 종사하는 전문 집단이 등장한 결과로 추정된다. 서해안 지역 조개무지의 경우 대체로 앞선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조개무지와 중복되어 형성된 양상을 보인다. 군산 남전 조개무지와 인천 운남동 조개무지 등과 같은 정주성(定住性) 유적도 있지만 대부분 근거지와 떨어져 굴 등 특정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 아래 집자리 | 부산 영도구 | 복천박물관

자원의 획득을 위해 단기간 점유한 유적의 성격을 띤다. 이에 반하여 남해안 지역의 조개무지는 규모도 큰 편이며 여러 시대의 조개무지와 중복되지 않고 단독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개무지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쓰레기와 함께 주변에서 집자리, 생업·생산 관련 유구, 무덤 등이 발견되어 정주성 집자리와 관련된 유적임을 말해 준다. 특히 환호시설이나 목책 등 방어시설을 갖춘 고지성高地性 취락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집단 간의 긴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적에서 출토된 복골卜骨, 소형 토기, 토제 곡옥, 동물형 토기 등 제의적 성격을 띤 유물도 당시의 불안정한 정세를 반영해 준다. 이 밖에 이 시대의 조개무지에서는 화폐·한경漢鏡·동축銅鑲 등의 중국 유물과 야요이弥生 토기나 하지키土師器 등 일본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당시 조개무지가 교역로상에 위치하며, 조개무지를 남긴 집단이 중국·일본과의 물자교역의 중심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군산 남진·가도, 해남 군곡리, 동래 낙민동, 김해 회현리·부원동, 창원 남산·외동성산, 고성 동외동, 제주도 곽지 조개무지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조개무지는 옛사람들의 생업활동과 관련된 생활유적으로, 특히 해양 식량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조개무지는 옛사람들의 생활 및 문화와 당시 환경을 밝혀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보고寶庫이다. 따라서 조개무지 유적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고환경古環境, 유물과 유적의 편년, 생업경제, 주거 및 유적 점유양상, 기술상, 제사 의례, 교역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조개무지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조개무지를 남긴 집단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고 있다. 조개의 성장선 분석이나 산소동위원소 분석은 고환경과 조개채집의 계절성을 복원하고, 나아가 유적의 점유양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인골에 대한 탄소·질소 동위원소 분석은 과거의 식생활 양상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주고 있다. 이처럼 옛사람들이 남겨 놓은 중요한 문화유산인 조개무지가 담고 있는 많은 고고학적 정보를 밝히

기 위해서는 지질학, 해양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분야와의 학제 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선사·고대의 패총 인간 바다 그리고 삶(북천박물관, 2011), 한국의 조개더미 유적 1·2(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2010), Shell middens as archives of past environments, human dispersal and specialized resource management(M. Álvarez et al., Quaternary International239, Elsevier Science B.V., 2011), The Archaeology of Aquatic Adaptations(Erlandson, J. M., Journal of Archaeological Research9-4, Plenum Publishing Corporation, 2001).

필자 안덕임(安德任)

조개방

정의 갯바닥에서 조개를 긁어서 잡는 데 사용하는 어구.

내용 조개방은 조개홀치 또는 거랭이, 조개틀, 조개방틀로도 불린다. 조개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갯벌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 따위의 조개를 긁어서 모으는 데 쓰인다. 조개방은 갯벌과 바다 이외에도 강과 같은 담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양은 쓰레받기처럼 생겼는데, 입구는 넓게 만들고 바닥은 쇠 날을 촘촘하게 엮어서 바닥을 긁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쪽에는 긁어 모은 조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망을 씌우고 이를 철사 등으로 고정된 구조로 되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을 보면 크기가 다른 네 개의 반원형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철근을 촘촘하게 묶어 바닥을 넓게 만들



조개방 | 가로70 세로61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고 양 끝을 접어 옆면 골격을 완성하였다.

이용할 때는 넓이 1m 내외의 것은 끈을 달아서 사람이나 소가 갯벌에서 끌고, 2m 이상의 큰 것들은 배에 달아서 끈다. 배의 크기에 따라 2~4개의 조개틀을 달아 강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23-어업용구(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92), 한민족역사문화도감-생업(국립민속박물관, 2008),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은현정(殷賢貞)

조개써레

정의 쇠꼬챙이를 톱니 모양으로 엮어 자루에 매단 후 물속 바닥을 파내어 조개를 잡는 도구.

개관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서식하는 조개류를 대상으로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손에 잡고 해저를 긁어 잡는 도구를 수용기구류(手用器具類)라 한다. 이러한 도구로는 미역·다시마 틀이류, 해삼·문어걸이류, 소라·성게 줍쇠류, 해삼·굴집게류, 조개써레류 등이 있다. 이들은 도구에 대상 해산물을 직접 감거나 혹은 직접 걸리게 하여 잡는다. 틀이류는 긴 막대기 끝에 여러 단의 작은 가지를 달아 이를 비틀어 해조류가 감기게 만들어 채취하는 도구이고, 걸이류는 막대기 끝에 매단 쇠꼬챙이에 해삼이나 문어를 걸어 잡는 도구이다. 줍쇠류



조개써레 | 경남 남해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는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막대 끝에 대상물을 대고 눌러 갈라진 틈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대상물을 끼게 만들어 잡는 도구이고, 집게류는 집게 모양으로 만든 어구를 지레 원리를 이용해 대상물을 집어 올리는 도구이다. 써레류는 끝이 뾰족한 여러 개의 쇠꼬챙이를 나란히 여러 개 엮은 것을 장대 끝에 묶어 바닥을 파내어 펴 속에 숨은 조개 등을 노출하거나 쇠꼬챙이 사이에 걸리게 하여 잡는 도구이다.

내용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개류는 바지락, 꼬막, 홍합, 맛, 백합, 채첩, 굴, 모시조개 등이 있다. 조개류는 대개 모래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모래펄이 많은 지역에는 바지락과 백합이 살고, 진흙 펄이 많은 지역에는 꼬막이 서식한다.

조개잡이는 거의 맨손어법으로 채취하는데, 양식어업은 형망을 사용해 대량 채취가 가능하다. 지금도 조개 채취에는 소규모 맨손어법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데, 주로 호미나 갈퀴 등의 도구를 사용한다. 간석지에서 갯벌이 드러나면 호미나 갈퀴로 펄을 긁거나 뒤집어서 조개를 잡는다. 사람이 직접 손을 넣어 잡을 수 없는 깊이에 있는 조개는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이용해 잡기



조개써레 | 너비45 길이184 | 국립민속박물관

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조개씨레이다.

조개씨레는 마치 농기구 중에서 갈아 놓은 논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씨레처럼 생겼다. 즉 긴 각목에 끝이 뾰족한 살 10여 개를 박아 놓은 모양이다. 때로는 갈퀴처럼 한쪽 끝을 모은 다음 철사를 부챗살 모양으로 엮어 만든 것도 있고, 씨레 뒤쪽으로 철사로 엮은 자루를 함께 매달기도 한다.

조개씨레를 물속에 넣고 바닥을 파내 펄 속에 묻혀 있는 조개 등의 대상물을 노출하여 손으로 집어내거나 씨레에 박아 놓은 살과 살 사이에 조개류가 걸리도록 하여 잡는다.

조개씨레와 비슷한 것으로 틀방그물이 있다. 틀방그물은 자루그물 입구에 일정한 틀을 단 어구로, 모래나 펄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바닥을 긁어서 잡는다. 즉 끌어구류의 일종이다.

경상북도 포항 등지에서 사용하던 바지락씨레는 15cm 정도 길이의 철제 침 12개를 각각 2.5cm 간격으로 달아 틀을 제작하고 철망을 단다. 중앙에 긴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손잡이를 잡고 바닥을 긁어서 바지락을 채취한다. 부산광역시 가덕도 등지에서 바지락이나 새조개를 잡는 데 사용하는 씨레는 철제 갈고리 두 개를 여러 개 연결하여 만든다. 철제 갈고리를 3cm 간격으로 세 줄씩 철사로 가로로 엮고 그 중간에 대나무를 단 것이다. 갈고리 끝이 위쪽으로 휘게 만들어 걸린 조개류가 들어 올릴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씨레를 내려 바닥을 긁어 끌어 올리면 바지락이나 새조개 등이 잡힌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지락 채취기와 비슷하다. 조개씨레를 대신하여 바지락 채취기 등의 끌어구류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둘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다만 씨레류는 기구에 직접 수산물이 감기거나 걸리게 하여 잡는 도구이고, 틀방그물류는 기구에 부착된 자루그물에 대상 수산물을 담아 잡는 도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수산동식물을 대상으로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물속에 집어넣어 대상 수산물을 기구에 걸리게 하여 잡는 도구가 수용기구류이다. 이 중 조개씨레는 톱니 모양으로 쇠꼬챙이를 엮은 후 긴 자루에 매달아 바닥을 파내 조개를 잡는 도구이다. 과거에는 연안에서

많이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형망桁網 등의 끌어구류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보고서23-어업용구(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물과학원, 2002), 한국의 해양문화1~5(해양수산부, 2002).

필자 박종오(朴宗吾)

조금

정의 만조와 간조의 수위 차이가 최고로 작고 물의 흐름이 약한 물때.

개관 조석潮汐이란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해면의 규칙적인 승강운동을 가리킨다. 조차가 큰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는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두 번 12시간 25분 간격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조수가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바닷물의 수평운동을 조류潮流라고 한다. 조류는 대략 6시간 12분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며 밀물과 썰물이 교대로 하루에 네 번 반복한다. 조석과 조류 현상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민간 명칭이 ‘물때’이고, 물때 중 하나가 ‘조금’이다. 『여암전서旅庵全書』에는 ‘소음小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소음小音’은 ‘족+음’ > ‘조금’ > ‘조금’의 차자 표기이다.

내용 서해안 물때 체계에서 ‘조금’은 보름 주기 물때의 15개 명칭 중에 음력 8일과 23일에 해당하는 물때를 일컫는 말이며 ‘한조금’이라고도 한다. 날짜에 따라 ‘초여드레 조금’과 ‘스무사흘 조금’ 두 종류로 구분한다. 남해안 물때 체계도 사리와는 달리 조금을 구분하는 명칭은 똑같다. 전날인 7일과 22일 물때는 ‘아침조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작은 조금이라는 뜻으로 큰 조금인 한조금과 구별된다.

의미가 확장되어 ‘조금’은 ‘물이 가장 죽은 단계’에 해당하는 물때를 가리킨다.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는 ‘아침조금’부터 ‘한매(1물)’까지, 전라북도 곰소만에서



곰소만의 조금 간조 때 선착장 | 전북 부안 | 2007 | 조숙정

는 ‘아침조금’부터 ‘두마(2물)’까지, 전라남도 조도에서는 ‘아침조금’부터 ‘무수’까지, 그리고 경상남도 사량도에서는 ‘얼너물(14물)’부터 ‘서물(3물)’까지를 ‘조금’으로 본다. 사리와와의 이분법적 구분에서는 ‘물이 죽어가는 단계’와 ‘물이 가장 죽은 단계’의 물때를 합쳐 조금(강화도, 곰소만)으로 보기도 하고, ‘물이 가장 죽은 단계’와 ‘물이 살아나는 단계’의 물때를 합쳐 조금(사량도)으로 보기도 한다.

보름 주기 물때가 한 달에 두 번 반복될 때 사리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상위 범주로서 조금의 물 상태는 매번 같지 않고 달라진다. 전북 곰소만에서는 보통으로 물이 들고 썰는 조금은 별개의 명칭 분화 없이 ‘조금’ 또는 ‘조금’이라고 하고, 보통 ‘조금’보다 물이 적게 들고 적게 썰는 조금은 구분하여 ‘박조금’ 또는 ‘박조금’이라고 부른다. ‘박조금’의 ‘박-’은 ‘박薄하다’에서 온 말로 ‘박한 조금’이다. 또는 ‘조금 중에도 물이 박하게 썰다.’ 등으로 설명된다. 조도에서는 ‘겉조금’과 ‘박조금’으로 구분한다.

조수 간만의 차가 미약하여 물때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동해안에서도 ‘조금’이 사용된다. 그러나 동해안의 조금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물때 체계의 조금과는 차이가 있다. 경상북도 후포에서는 달의 밝기가 어두운 때를 가리켜 ‘조금’ 또는 ‘달조금’이라고 한다. 반달을 전후로 달이 어두운 조금 때는 보름달을 전후로 달이 밝은 ‘달밝기’ 때보다 물살이 센 편이어서 작업하기는 좋지 않지만 평소보다 고기가 많이 잡힌다.

특징 및 의의 물때 체계에서 조금과 사리의 구분이 중요한

데 어로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보름 주기 물때의 명칭 체계에서 사리와 함께 조금만 하위 명칭이 세분되며 각 물때가 되는 음력 날짜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다. 이것은 음력 15일과 30일의 사리와 음력 8일과 23일의 조금이 날짜상으로 어떤 주기의 물때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사리와 조금이 보름 주기 물때 체계의 준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참고문헌 旅菴全書, 바다 생태환경의 민속구분법(조숙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동해안 해류 구분법과 무대에 관한 민속지식(조숙정, 비교민속학73, 비교민속학회, 2021), 한국의 물때 체계(왕한석, 한국문화인류학51-3,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한국의 언어 민속지-전라남북도(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필자 조숙정(趙淑晶)

조기잡이

정의 조기(주로 참조기)를 잡는 다양한 어업.

개관 조기는 사료에서는 한자로 석수어石首魚 또는 석어石魚라고 쓰며, 기를 보강해 준다는 의미로 조기助氣라고 쓰기도 한다. 조선 태조 때부터 왕실에서 친신 등의 제물로 사용되었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등의 각종 지리지에도 각 지역의 토산물이나 공납으로 등장한다.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에는 위를 열고 기를 보익補益하는 데 좋으며 소화도 잘되어 좋다고 하였다. 지금도 여름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 말린 조기를 먹으면 좋다는 말이 있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조기는 19세기에 함경도 지방을 제외한 동남해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소비되었다. 조기는 서해와 남해 전역에서 어획되었는데, 조기에 대한 선호가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많이 잡아도 모두 팔릴 정도로 상품 가치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조기가 회유하는 경로나 산란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업이 발전하였다.

한국인은 조기를 매우 좋아해 한국인이 진출한 해외 각지의 대형 한인마트에서는 근방에서 어획된 조기류를 팔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전후부터 조기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남해를 시작



조기잡이 | 인천 웅진 | 1965 | 국가기록원



조기 손질 | 인천 웅진 | 2017 | 웅진군

조기잡이

조기잡이

으로 기존의 조기 어업이 급격히 쇠퇴하였다. 현재는 제주도와 동중국해 사이에서 조기 유자망 및 안강망 어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조기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1992년 중국과 수교 직후 중국 수입 조기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도 한국인 상인의 주도로 조기가 어획되어 국내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고 주로 경상도에서 소비된다.

내용 참조기는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뒤에 봄철이 되면 서해를 따라 북상하며 산란한 뒤 다시 동중국해로 돌아간다. 참조기 어업은 이러한 조기의 이동 습성, 조기 산란장이나 이동경로 주변의 자연환경, 한국인의 높은 조기 선호 문화에 맞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서해 조기잡이의 대표적인 어구였던 망선망, 중선망(안강망 포함), 닻배그물(정선망) 등 대형 어선과 대형 그물을 이용한 어법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기 동안 어장에 머물며 계속해서 조기를 어획하는 어선에서 조기를 받아 내륙 포구로 나르던 상고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선과 내륙 포구를 빠르게 오가는 상고선 덕분에 조기잡이 어선은 다수의 선원이 큰 그물로 한 번에 많은 조기를 잡을 수 있게 구조가 크고 안정적이었다. 짧은 어기에 많은 조기를 어획하기 위해 각지의 어선이 조기과 함께 북상하며 조기를 어획해 어업 기간을 연장하는 어업 관행이 19세기 초기에 발달하였다. 이에 많은 선원이 한 어기 동안 먹을 식량을 배에 싣고 다니며 오랫동안 선상 생활을 하는 어업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처럼 짧은 어기에 회유하는 조기를 되도록 많이

어획해 판매하는 전략은 조선 후기 대형 어선과 그물 어업 기술 그리고 상고선과 객주와의 분업 구조에 반영되었다.

정문기(1939)는 당시 주요 어업 근거지, 주변 집산항, 소비지 등을 조사하였다. 남쪽부터 주요 어업근거지를 열거하면 전라남도 흑산도, 전라북도 위도, 황해도 연평도, 압록강 하구의 평안북도 대화도 등이 있었다. 각지에서 어업 근거지로 모인 어선이 어획한 조기는 상고선에 의해 가까우면 수십km 또는 수백km 떨어진 집산 항으로 이동하였다. 대표적인 집산 항은 전남 목포와 법성포, 전북 군산, 충청남도 결성,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마포, 평안남도 진남포, 평양직할시, 평북 용암포 등지이다. 이곳에 모인 조기는 다시 수운과 육운을 통해 전라도,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의 내륙 각지로 운반되어 소비되었다.

망선망·중선망·정선망처럼 대형 어선에 싣고 서해의 여러 조기 어장을 이동하며 난바다에서 조기를 어획하는 어구도 있었지만, 육지나 섬 가까이 조기가 이동하는 곳에서 조업하는 조기 어구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어살, 주목망, 외줄낚시 등이다. 조기는 산란 때 외에는 중저층에 머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연안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정치어구에는 보통 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산란장 주변이나 산란장을 찾아 북상하는 경로 주변에서는 조기를 쉽게 어획할 수 있어 주목망이나 어살은 산란장이나 조기 회유로 근방에 많이 설치하였다. 주목망은 전남 영광 칠산바다, 충남 보령 녹도 근방, 황해 연평도 주변에 주로 설치하였다. 어살은 전남 영광군 칠산바다, 전북 고창 북서부, 충남 보령

령과 홍성 근방의 천수만 일대에서 주로 설치하였다.

조기잡이 어살이나 주목망은 망선망, 중선망, 정선망 등과 마찬가지로 어선이나 어구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 따르면 어조망을 매기 위해 세우는 나무의 길이가 6~10길(약 12~20m)에 달하였다. 오카 요이치(1905)에 따르면 황해도 연평도 근방에서는 1척당 35~45인승 정도의 대형 어선이 사용되었고 충남 지역에서는 1척에 22~23인이 타는 어선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1908년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는 60~70석 내지 100석을 실을 수 있는 어선에 어부 14~16명이 승선해 조업한다고 하였다. 주목망은 망선망, 중선망, 정선망처럼 조기 회유 시기에 맞춰 이동하며 주목망을 설치하였다. 1905년 자료에 따르면 황해도 연평도 근해와 강화도 연안, 홍주군 안도(안면도로 추정) 등지에서 주목망을 신고 와 조업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서해를 따라 북상하며 산란하는 조기 때도 많지만, 산란 이후 남하하거나 남해안을 회유하는 부류도 있었다. 조기 어업 중 외줄낚시나 연승어업은 산란 이후 깊은 바다로 들어가 회유하는 조기 떼를 어획하기 위한 어법이다. 조기가 연안으로 근접하지 않고 주로 조기의 회유로 주변 도서에서 발전하였다. 앞서 설명한 조기그물어선어업이나 정치어업이 규모가 크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만 조기낚시어업은 영세 어민 2~4명이 작은 어선을 타고 스스로 준비한 낚시로 가까운 바다에서 조기를 어획하는 것이다. 서해에서는 전북 군산 선유도의 외줄낚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 망선망·중선망·정선망 등과 같은 대형 어선과 그물어업에 부수적인 어업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낚시어업은 경상남도와 전남 남쪽의 도서 지방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지』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5~8명이 함께 외줄낚시를 나간다고 하였으며, 20세기 중후반에 사용되던 2~4명이 탑승하던 어선보다 규모가 큰 어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승어업은 일제강점기 전후 작은 유리구슬을 부표로 사용하는 등 기술 개량이 이뤄지면서 보급되었다. 연승어업은 여름철 조류가 약한 때에 맞춰 조기 회유로 주변에서 성행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전남 조도부터 경남 통영 한산도까지 상당히 넓다. 『한국수산지』 권1에 따르면 남해에서 어획된 조기는 경남 삼천

포, 통영, 마산 등을 통해 경상도 내륙으로 운반되었다. 이러한 남해의 어업 및 방식은 조기 어획량이 급감하는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조기 어업은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의례적 관행의 원천이 되었다. 서해의 대형 어선 어업은 많은 자본을 투자해 짧은 기간 큰돈을 벌어들이는 어업이었던 만큼 풍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배고사를 지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어장을 지키는 신의 가호(加護)를 빌기도 하였다(배연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참조). 많은 어민이 조기를 쫓아 낚선 곳을 다니며 장기간 선상 생활을 하였던 만큼 협업이 필요하였다(조도 닛배노래, 배치기소리 참조). 또 조기를 받아 가는 상고선이나 육지의 객주와의 신뢰 관계도 중요하였다. 조기 어장 주변에는 조기를 쫓아 어선과 상고선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따라 주막 등의 상업시설이 설치되어 일시적으로 시장을 이루기도 하였다(파시 참조). 객주들은 선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명절이면 선주(船主)에게 뱃기(船旗)(뱃사람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배의 고물이나 이물에



만조 | 국립민속박물관



간조 | 김창일

연평도 안목어장의 주목망 | 인천 용진 | 2018

다는 삼색 혹은 오색으로 만든 깃발)를 선물하기도 하고, 어선이 포구로 들어오면 객주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출어고사의 비용을 대기도 하였다. 전라도 서안에서는 새로 잡힌 조기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관행이 있었다. 조기는 조상신과 후손을 연결해 주는 물고기이기도 하였다(조기심리 참조).

특징 및 의의 조기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이 선호하며 어획해 온 물고기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서해와 남해에서 어획된 조기는 육운이나 수운을 따라 내륙까지 운반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조기 문화권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기의 습성에 따라 어업 기술이 개발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조기를 따라 이동하며 협업하고 다른 지역 사람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기는 한국인과 함께 한국 민속을 만들어 온 또 하나의 주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蘭湖漁牧志, 世宗實錄地理志, 鄉藥集成方, 18~20세기 서해의 조기 어업과 어민 문화(오창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서해와 조기(나승만 외, 경인문화사, 2008), 조기 평전(주강현, 바다위의정원, 2021), 조선석수어고(정문기,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 한국수산지(朝鮮總督府 農商工部 水産局, 이근우 외 역, 새미, 2010), 最新韓國事情(閔庸一, 靑木高山堂, 1903),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오창현(吳昌炫)

조새

정의 돌이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굴을 긁어서 채취하거나 굴 껍데기를 깎 때 사용하는 도구.

내용 선사시대 조개무지에서는 다량의 굴 껍데기가 발견되는 등 굴은 오랜 시간 인간의 주요 먹거리로 사용된 수산물이다. 굴은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채취가 이루어진다. 『자산어보(茲山魚譜)』에는 굴을 모려牡蠣(굴)·소려小蠣(가시굴)·홍려紅蠣·석화石華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석화는 “바위에 붙어 있어 쇠송곳으로 채취하였다.”라고 전한다. 쇠송곳 형태의 채취 도구가



조새 | 국립민속박물관

조새와 유사한 형태의 도구로 보인다.

조새는 25~30cm의 길이로 쇠 날과 몸통, 손잡이, 종질개로 이뤄져 있다. 쇠 날은 조새마다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둥근 머리 쪽의 쇠 부분으로 바위틈에 서식하는 굴을 찍어 채취한다. 종질개는 손잡이 아래 부분에 붙어 있는 쇠 부분으로 굴의 알맹이를 꺼내 데 사용한다. 최근에는 주로 손잡이에 쇠 날과 종질개가 부착된 형태로 만든다. 굴 껍데기를 제거한 뒤에는 알굴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플라스틱 바구니 대신 ‘굴함지’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굴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대한제국 말기부터 시작된 굴양식은 수하식과 투석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하식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용하는 양식법으로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에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굴을 양식한다. 투석식은 갯벌이 발달한 서남해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양식법으로 간석지에 돌을 집어넣어 그곳에 붙어 자라는 굴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투석식양식으로 성장한 굴이나 자연산 굴을 채취하고 껍데기를 제거할 때 주로 조새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채취 방식은 마을 공동체 내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뤄지는 소규모 활동이다.

참고문헌 남해안어업기술문화(권유리·전경호, 국립해양박물관, 2020), 자산어보(정약전·이칭, 정명현 역, 서해문집, 2016), 한국수산지-100년 전 일본인이 본 우리의 바다1-1·1-2(朝鮮總督府 農商工部 水産局, 이근우 외 역, 새미, 2010),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encykorea.aks.ac.kr).

필자 전경호(全京浩)

조선국원산출장복명서

朝鮮國元山出張復命書

정의 1894년에 일본 농상공부 기수 가부라기 요미오 鎬木餘三男가 등 함경도와 강원도의 어업 현황 등을 조사한 문헌.

내용 함경남도 원산 산업회의소가 원산 일본 영사관의 외무성 통상국장 하라 다카시原敬 앞으로 조사자 파견을 의뢰하였다. 이에 가부라기 요미오가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가부라기의 파견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은 일본 외무성의 기밀문서로 남아 있다.

가부라기는 1893년 8월 21일 도쿄에서 출발하여 8월 30일 원산에 도착하였다. 이후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그 일대의 수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강원도와 함경도 두 지역의 지리, 중요 수산물, 어업상황, 일본출가어업자, 어획물의 제조 등이다. 특히 중요 항만의 지도를 첨부하였다.

그는 먼저 원산만 내 송전항의 굴 서식지, 영흥천의 연어 어장을 돌아본 다음 원산만 내의 여러 섬과 강원도 연해의 여러 어촌과 항만을 살펴보았다. 다시 북상하여 명태의 대표적인 산지였던 신포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풍랑을 피해 어선을 정박시킬 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눈여겨보고, 통천군에 속하는 금리金里와 흡곡현에 속하는 치고니를 양항으로 꼽았다. 장전동長箭洞의 경우는 만의 입구가 동북쪽을 향해 있고, 폭은 1,500m 전후이며, 수심은 깊은 곳이 30m에 이르고 얕은 곳은 10m 정도라고 하였다. 또 마을 동쪽에 언덕이 있어서 외해의 어군을 탐지하거나 날씨를 살펴보기 편리하고 하천이 흘러들고 있어서 물이 흐려질 염려가 없으므로, 장래 어업용 건조장이나 제조장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상·강원·함경도 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비롯하여 장전동·금리·치고니·아계我溪·가목도哥牧島·차호遮湖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주요 수산물로 정어리, 청어, 까나리, 방어, 마래미, 빙어, 도미, 가자미, 명태, 전어, 꼬치고기, 학꽂치, 도루묵, 고등어, 전갱이鰆, 달강어魷魚, 농어, 숭어, 상어, 고

래, 가오리, 돌고래, 바다표범 등을 비롯하여 홍합, 굴, 백합, 전복, 게, 해삼, 미역, 다시마, 우뚝가사리, 소금 등의 현황과 생산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가부라기 요미오의 조사는 1894년이라는 이른 시점에 강원도·함경도의 어장을 눈여겨보았고, 일본인 어부들이 이곳에 와서 조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본 정부에 알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 외무성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 해에 책자로 간행하였다. 또한 가부라기의 파견과정에 원산 상공회의소, 원산 일본영사, 외무성 외무대신·통상국장, 농상공부 농상무대신·농무국장 등이 관계하여 조사를 진행시킨 점을 볼 때 이 조사가 외무성과 농상공부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이근우, 수산경영론집43-3, 한국 수산경영학회, 2012), 조선시대 말 일본의 한해 입어 장려책(장수호, 수산연구 29,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9), 朝鮮國元山出張復命書(鎬木餘三男, 日本農商工部, 1895).

필자 이근우(李根雨)

조선다도해여행각서

朝鮮多島海旅行覺書

정의 1936년에 전라남도 임자도·증도·수도, 영광군 낙월도 등을 탐방하고 남긴 기록.

내용 시부사와 게이조渋谷敬三, 아키바 다카시秋葉陸 등이 1936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남 신안군의 임자도·증도·수도, 영광군 낙월도 등을 돌아보면서 다도해 사람의 생업과 생활사에 대한 글과 사진을 남겼다. 이 글을 1939년에 발행한 것이 『조선다도해여행각서』이다.

『조선다도해여행각서』는 시부사와 게이조의 「서문」, 아키바 다카시의 「다도해 순항기」와 「다도해 견문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인 「다도해 견문기」 앞쪽에는 한 페이지에 1~2장씩 크게 사진을 배치하여 사진 39장을



조선다도해여행각서 | 국립민속박물관

실었다. 본문에는 해당 사진의 번호만 기재하였다.

『조선다도해여행각서』에 실린 39장의 사진은 임자도 진리마을 사진이 7장, 임자도 하우리마을 사진이 2장, 수도 사진이 4장, 상낙월도 사진이 8장, 하낙월도 사진이 8장, 대허사도 사진이 7장, 대태이도 파시 사진이 1장, 민어잡이 배와 새우 그물 사진이 각각 1장이다. 각 섬의 사진 배분을 고려한 것 같다. 『조선다도해여행각서』 일행은 마지막 날인 8월 19일에 중도(中島)의 우전리(羽田里)를 방문하였고, 생업·복식·생활도구·연중행사 등 다양한 기록을 본문에 남겼다.

특징 및 의의 1930년대에는 카메라가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이기에 이 시대의 사진 자료는 매우 귀하다. 『조선다도해여행각서』에 실린 사진 한 장 한 장이 시대적으로도 매우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조선다도해여행각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시부사와 게이조가 1930년대에 찍은 영상은 2016년 일본 이와나미 서점이 고화질 영상으로 편집한 DVD와 함께 책으로 발행하였다. DVD와 책에는 다도해에 대한 글과 1936년에 촬영한 영상이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조선다도해여행각서의 길을 따라(이혜연·고광민, 민속원, 2019), 朝鮮多島海旅行覺書(アチツクミュージアム, 丸善株式會社 三田出張所, 1939), 甦る民俗映像-渋沢敬三と宮本馨太郎が撮った1930年代の日本・アジア(宮本瑞夫 外, 岩波書店, 2016).

필자 이혜연(李惠燕)

조선수로지

朝鮮水路誌

정의 1894년에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군함의 항해, 정박, 물자보급 등을 위해 조선의 항로, 정박지, 장애물, 등대 등을 조사하여 편찬한 문헌.

내용 수로지란 해도(海圖)·등대표(燈臺表)와 함께 항해의 3대 안내서로, 특히 군함과 같은 대형 선박의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조선수로지』는 1894년에 이어 1899년, 1902년(추가 보완), 1907년에도 간행되었다. 수로지라는 문헌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새로운 항해 정보 등을 갱신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총 네 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조선의 형세·기후·바람·조류 등을, 제2편은 조선 서안의 압록강과 대동강·한강·연평열도·제물포·아산 등을 다루었다. 제3편은 흑산도·제주도·완도·거문도·소안군도·순천포·육지도·남해도·가덕도·부산항 등을 취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편은 동해안의 영흥만·원산진·신포·조산만·두만강 등을 다루었다.

책머리에 「조선연안해도색인」이 붙어 있는데,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도가 많다. 특히 대동강과 장산곶 그리고 제물포 및 연평도, 백령도, 태안반도 일대의 자세한 해도가 실려 있다.

주요 항구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당시 개항장이었던 인천·부산·원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러 항구로 입항하기 위해 필요한 항해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1894년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해로, 일본 해군이 전장이 된 조선 연안에 대하여 자세한 수로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수로지』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해군의 조선 연안 측량 및 항해 성과 그리고 영국이 명명한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 해군이 초창기에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및 항해와 관련된 우리말이 소개되어 있어 당시의 어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일본 최초의 문헌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이근우, 수산경영론집43-3, 한국 수산경영학회, 2012), 朝鮮水路誌(海軍省 水路部, 1894).

필자 이근우(李根雨)

조선수산공진회

朝鮮水産共進會

정의 19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최초 전국 단위의 대규모 수산물 박람회.

개관 일제강점기 조선의 수산업은 일본 자본가의 자본 투입 증가 및 어장의 독점 등으로 점차 식민지화되었다. 1920년대부터는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일제의 수산업 홍보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수산박람회가 지역 단위별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23년에는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수산회가 설립되었는데, 강력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이 단체를 중심으로 각 도道 수산회와 함께 조선수산공진회를 개최하였다.

내용 조선수산공진회 설립 목적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통해 조선의 수산업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이익 증대와 일본인에게 조선 수산 개발의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 대규모 수산업계의 종사자와 조선에서 수산업을 주도하는 일본인 혹은 친일



조선수산공진회 입장권 | 1923 | 국립해양박물관

자본가 등의 후원으로 행사가 열렸고, 식민통치의 관점에서 수산품의 우열을 가리는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수산공진회는 개최 기간 중 부산 지역 네 곳에 회장會場을 마련하고 출품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전시하였다. 제1 회장은 대정공원(현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마련하여 어선魚船·어구류·염장품 등을 진열하였고, 제2 회장인 구舊 부산역(현 중앙역) 주변의 경상남도 물산진열관에서는 어유魚油·비료·조미품·가공품·해조류·수산물의 사업성과 등을 진열하였다. 영도에 있는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에 차려진 제3 회장에는 관청·학교·연구단체의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제품과 동력기, 자체 제작한 기계류, 수족관 등을 진열하였다. 제4 회장은 부산상업회의소에 마련되었으며, 식량과 공예품 등을 진열하였다.

공진회 출품작은 조선 내에서 어획·채취·산출·가공·제작·제조한 것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국외 출품작은 조선 수산업 개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총 9,411점이 출품되었고, 일본·대만·만주 등지에서도 2,413점이 출품되었다. 당선작은 조선 전통의 출품작이 제외되고 일본식 어구·어법·사업성과가 대다수 뽑히는 등 기존 조선의 어업 방식을 무시하면서 일본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일본 어업 방식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읽혔다.

대형 동력선을 사용하여 정어리·명태·고등어 등을 대규모로 어획하는 일본식 기선건착망機船巾着網(현재



조선수산공진회 부산부 안내 지도 | 1923 | 국립해양박물관

명칭은 선망어업(旋網漁業)으로 그물로 무리 지어 다니는 어군을 둘러 포획한 뒤 그물 아래를 좁혀서 잡는 어업 방법)은 1등과 명예상을 받음으로써 조선의 수산 자원 남획을 독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람회 동안 28만 명 정도가 관람하였고 이 기간에는 내빈을 위한 영빈관 운영과 기차 운임 할인권 배부, 대표 사업가 표창, 불꽃놀이, 미술 골동 전람회, 연등 행사, 마라톤 대회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일제는 조선수산공진회를 통해 조선의 수산업을 본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관로 확장과 일본의 어업 기술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식민통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일본식 어구 및 어업 방식으로 인한 조선 어장에서 남획과 어업자원의 수탈이 빈번하게 일어나 점차 우리 어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1915년 조선수산공진회에 반영된 일제의 식민지 수산정책(이기복, 역사민속학2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1923년 부산에서 열린 조선수산공진회와 수산업계의 동향(김동철, 지역과역사21, 부경역사연구소, 2007), 일제하 어선동력화 추이와 조선의 수산업(이기복, 역사민속학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권유리(權宥利)

조선어업협회순라보고

朝鮮漁業協會巡邏報告

정의 1897년 2월에 결성된 조선어업협회가 조선 연안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들의 어업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자료.

내용 1890년 후반 조선 연안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일본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보호·감독·통제할 목적으로 총 13회에서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1·2·9·11·12회를 제외한 보고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어업협회는 본부가 있던 부산에서 순라선을 통해 전라남도 목포, 제주도, 강원도 죽변, 함경북도 서수라 등을 왕래하면서 각지에서 일본 어선의 어업현황을 비롯하여 어획물의 가공·유통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어

민들의 우편·질병·희망사항 등도 조사·처리하였다. 나아가 조선인의 어업 및 일본인에 대한 정서를 파악하는가 하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분쟁을 나서서 해결하기도 하였다.

조선어업협회가 조선해통어조합으로 흡수된 이후에는 통어조합이 동일한 형식으로 순라보고를 계속하였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을 통해 외무성에 보고하면 이를 다시 일본 어부의 원양 출어를 총괄하는 농상공부도 회람하였다.

특징 및 의의 종래의 조사가 어종, 수산물, 지형, 주요 항만 등을 주로 조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보고서의 특징은 조사 범위에 현실적인 조업 현황, 어업자들의 출신지, 건강 상태와 질병, 면허증 소지 여부, 어업상의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순라선이 조선 연안의 어촌 마을 등에 상륙하여 그곳의 농업 상황이나 주변 지역과의 연결 그리고 조선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까지 파악하였다는 점과, 조선인과 일본인의 분쟁에도 개입하여 이를 직접 해결하였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을 통해 외무성의 외무차관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일본 어민들이 조선의 바다에서 조업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영사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고, 또한 그 상황을 일본 외무성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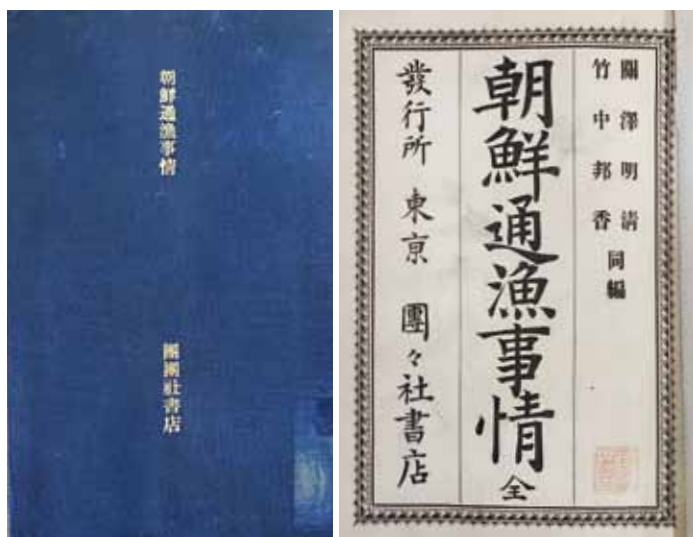
참고문헌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이근우, 수산경영론집43-3, 한국수산경영학회, 2012), 조선시대 말 일본의 한해 입어 장려책(장수호, 수산연구29,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9), 朝鮮國元山出張復命書(錦木餘三男, 日本農商工部, 1895).

필자 이근우(李根雨)

조선통어사정

朝鮮通漁事情

정의 1893년에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가 메이지明治



조선통어사정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정부의 명령으로 조선 연해의 지리와 기상, 주요 수산물과 어업 상황 등을 조사하여 편찬한 수산 관련 문헌.

내용 목차는 총론, 조선해 출어의 기원연혁, 통어규칙, 지리(경상도·전라도·강원도·함경도·충청도·경기도), 해리 및 기상, 주요 수산물, 조선인 어업의 정태情態, 출가어선의 수 및 그 이익, 어획물의 판매와 제조, 출가어업자에 대한 희망, 정부에 대한 희망, 자본가에 대한 희망, 부록(수호조규, 통상장정 및 각종 법규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론에서는 조선해의 어업과 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어부들이 조선해에서 조업을 하면서 조류의 완급이나 해저의 심천深淺과 암초의 유무 등을 숙지하게 되는데, 이를 군사상으로 이용하면 대단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부를 해병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리에서는 조선의 지리적 위치, 경도·위도, 팔도, 주요 강을 설명하였다. 그중 개별 도시로는 부산항을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주요 수산물로는 ①포유류로 고래 ②고어류古魚類로 상어·가오리 ③경골류 중 극기류棘鰭類로 농어·도미·민어·조기·갈치·방어·고등어·망어 등, 연기류軟鰭類로 대구·명태·넙치, 후표류喉鰭類로 꽁치·연어·전어·청어·멸치·붕장어 ④두각류로 문어·오징어 ⑤복각류로 생복·맛(맛치)·백합(조개)·홍합·자개(진주패)·굴 ⑥유각충

류로 새우·게 ⑦망자충류芒刺蟲類로 해삼·성게를 다루고 있다. 담수어로는 잉어·뱀장어·미꾸라지·메기·자라를 이름만 언급하였다. 해조류로는 가사리·우뭇가사리·김·미역·다시마(곤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염을 다루었다.

특히 수산물을 설명하면서, 먼저 일본 명칭을 쓰고, 우리나라 이름을 한자와 한글로 표시한 다음, 한글 이름 옆에는 다시 일본어로 음을 달았다. 예를 들어 고등어의 경우 한자로 청鱈(사바)이라고 쓴 뒤 우리나라 이름은 한자로 고도어古道魚, 한글로 고등어라고 적은 다음에 일본어로 음을 달았다. 이는 수산물의 일본 명칭과 한국 명칭을 정확하게 대응시켜 수산업자들에게 조선의 수산 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이 보고서가 갖는 의의는 세키자와가 당시 일본에서 수산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으므로 메이지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는 메이지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선의 바다로 진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조사 자체가 정부 주도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메이지 시대 조선 바다에 대한 조사는 메이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임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이근우, 수산경영론집43-3, 한국수산경영학회, 2012), 조선시대 말 일본의 한해 입어 장려책(장수호, 수산연구 29,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9), 朝鮮通漁事情(關澤明清·竹中邦香, 團圓社書店, 1893).

필자 이근우(李根雨)

조선해수산조합

朝鮮海水產組合

정의 1883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 제41관으로 일본인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연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이래 한반도 연해로 출어하는 일본 어민이 늘어나자 1902년 9월에 이리사 기요세이入佐清

내용 조선과 일본이 1883년에 체결한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조선 어선이 일본의 히젠·지쿠젠·이와미·나가토 연해에서 어업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 어선이 조선의 전라도·경상도·강원도·함경도 연해에서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가 담겨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연해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내도來島(다른 곳에서 섬으로 옴)하는 일본 어민의 숫자가 날로 늘어났다. 조선은 일본 어민의 무분별한 출어를 방지함과 아울러 일정한 규정에 따라 어세漁稅를 징수하고자 일본 측에 어세 협상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 1889년 말에 〈조일통어장정〉(이하 〈통어장정〉)을 체결하였다.

〈통어장정〉에 따르면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지방의 해안으로부터 3해리海里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선박 척수尺數와 소유자 성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영사관을 거쳐 지방 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지방 관서는 신청서를 확인한 후 1년 기한의 어업준단漁業准單(어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조선과 일본 정부가 상대방 어선의 조업 구역을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으로 제한한 것은 그 해역이 바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해이기 때문이다. 해안선으로부터 얼마까지의 거리를 영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적 논란거리였지만, 1793년 대불동맹 이후 해안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도 해안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관할 수역으로 삼았다.

한편 〈통어장정〉에 따르면 어업준단을 발급받은 선박은 규모에 따라 일본 은화 3엔에서 10엔 정도의 어업세를 내야 하였다(탑승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엔이었으며, 4명 이하일 경우에는 3엔이었음). 일부 일본 어민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입어하거나 어업준단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논란을 빚자 일본 정부는 1897년에 조선해어업협회朝鮮海漁業協會를 만들어 어업준단 발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신청서 납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1899년에 일본 내 각

부현府縣에 조선해통어조합을 만들고, 조선해어업협회를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로 개편해 조선해통어조합을 산하에 두도록 하였다. 1902년에는 외국 영해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고자 만든 〈외국영해수산조합법〉에 따라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의 명칭을 조선해수산조합으로 바꿨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 육군 중위 출신이자 부산재향군인회 분회장이던 이리사 기요세이를 조합장으로 내세우고, 에히메현 조선해통어조합 대표 무라카미 몬시로村上紋四郎와 야마구치현 조선해통어조합 대표 오카 주로岡十郎 등을 설립위원으로 삼아 조직을 구성하였다.

부산에 거점을 둔 조선해수산조합은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수행한 업무를 보다 확장해 장승포 등에 일본인 어업 이민 근거지를 만들고 일본인 이민을 지원하는 일도 맡았으며, 일본인이 채취한 수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또 한국인 어민과 일본인 어민 사이에 조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본인 편에 서서 분쟁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을 사실상 보호국으로 만든 일본은 어업 이권 침탈을 본격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존의 〈통어장정〉을 대신할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한제국과 일본은 1908년에 〈한일어업협정〉(‘어업에 관한 한일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함)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일어업협정〉에는 “일본국 국민은 한국의 연해, 강, 만, 하천, 호수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다(제1조).”라는 내용과 함께 “그 영토 안에서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지의 어업관계 법규를 준수(제2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요컨대 일본인이 한반도 해역에서 조업할 때 대한제국 어업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일본 어민에게 대한제국 어민과 동일한 제도하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 어민에게 적용하기로 된 어업 관계 법령이란 대한제국 〈어업법〉을 뜻한다. 이 법은 1902년에 제정된 일본 〈어업법〉을 준용해 만든 것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조업 행위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제국 〈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

어업의 범주는 ①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고 일정한 어기(漁期)를 정해 물고기를 잡는 어업(제1종 면허어업) ②일정한 구역 안에서 기구를 설치해 양식하는 어업(제2종 면허어업) ③육지 또는 암초에 지점을 정해 어망을 예양(曳揚)하는 어업(제3종 면허어업) ④일정한 수면을 어망의 부설 장소로 정하고 일정한 어기에 이를 사용하는 어업(제4종 면허어업) 등 네 가지이다. 요컨대 면허어업이란 얕은 바다에 밀물과 썰물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독살이나 안강망을 이용한 소규모 어업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허를 얻어야 하였다.

면허어업 제도는 오래전부터 소규모 연해 어업이나 해산물 채취에 종사하던 어촌 거주 어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어촌에 살면서 면허어업으로 분류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모종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단체에 속해야 하였다. 1912년에 공포된 <어업령>에 따르면 면허어업은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어업조합이 면허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어업권)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어촌에 거주하는 어민은 해당 행정구역에 설립된 어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어업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면허어업과 달리 허가어업은 면허가 발급된 해역 이외의 바다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력이나 기력(機力)을 응용하여 어망으로 어류를 가둬 잡는 어업’이나 잠수기를 사용하는 조업처럼 대규모로 행해지는 어업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허가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도 단위로 설정된 어장(참고로 함경북도 연해 어장을 제1어구로 분류하고 함경남도 연해 어장은 제2어구로 분류하였음.)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조선해수산조합은 신청서를 수납하는 업무를 맡아 보았다. 어업 허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조선해수산조합원이 된 다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취득해야 하였다.

어업조합과 조선해수산조합이 관리하는 어장은 서로 달랐다. 어촌 거주 어민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맡아 보던 어업조합은 먼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

었으며, 관할 구역 앞바다에 표목(標木)을 세워 관리 구역을 표시하고 그 구역 안에서 조합원이 조업하는 행위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어업조합과 달리 조선해수산조합은 해안으로부터 3해리 안에 속하는 해역 전체를 몇 개의 어장으로 구획한 다음 그 어장 안에서 허가어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처럼 조선해수산조합은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입어권 관련 제반 신청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전담하였으며, 나중에는 순시선을 갖춰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일까지 하는 등 수산 관리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일제는 조선해수산조합의 업무가 많아지자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이 조합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경술국치 이후에도 조선총독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도왔다.

한편 조선해수산조합은 1912년부터 조선인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어장 입어 신청서를 수납하는 업무도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어업 실무를 모두 맡아 처리하는 조직으로 커진 조선해수산조합은 1923년에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선수산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선수산회 출범 이후에도 수산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조직이 만들어졌으나 이 단체는 어물 유통업이나 굴 채취업 등에 종사하는 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 조선해수산조합 및 조선수산회와는 성격이 달랐다.

특징 및 의의 조선해수산조합은 일본 어민이 한반도 연해에 와서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로 출범하였으며, 대한제국 <어업법>과 조선총독부 <어업령>에 따른 허가어업 관련 사무까지 맡아보면서 몸집을 키운 단체이다. 이 단체가 들어서면서 일본 어민은 비교적 편리하게 한반도 연해 어장에 대한 조업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조선해수산조합은 일본 어민의 빈번한 출어로 피해를 보게 된 한국인 어민이 항의와 불만을 제기하였을 때 일본 어민의 편에 서서 분쟁을 처리하였으며, 일본 어민이 조업 중 폭풍우를 만나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 어민의 어장 입어권에 대한 허가 신청 업무도 맡아 보면서 허가어업에

관한 실무를 모두 장악한 사실상의 관 조직으로 커졌다. 조선해수산조합은 어업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식민지 조선의 이권을 확보하고 일본 어민 편에 서서 이익을 보장한 조직으로, 식민지 어업 정책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단체이다.

참고문헌 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최재성, 사학연구108, 한국사학회, 2012), 대한제국 시기~1920년대 일제의 수산조합 운영과 수산업 침탈(アチックミュージアム, 역사와 담론51, 호서사학회, 2008), 통감부의 어업 이민 장려와 어업법 제정(이영학, 한국학연구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필자 최병택(崔柄澤)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 朝日通商章程

정의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근대적 통상관계를 규정한 통상조약.

내용 이 장정은 1876년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 총 11조)과는 다른 장정으로,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과 변리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가 대표로 나서 체결된 총 42조의 장정이다.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이라고도 한다.

제1관부터 8관까지는 일본 상선이 조선의 통상항에 입항한 이후 밍아야 할 각종 수속 및 화물 운반과 관련된 조항이다. 일본 상선이 조선의 통상항에 입항하면 먼저 해관의 조사를 받은 다음 48시간 이내에 상선의 선장이나 대리인이 일본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입항 수속을 밍아야 한다. 또한 일몰 이후 일출 때까지 해관의 허락 없이 화물을 육지에 내리거나 배에 싣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해관의 허가 없이 혹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옮긴 물품은 모두 몰수하도록 규정하였다.

9관부터 25관은 주로 수출입품 통관 시의 관세 납부, 관세 산정, 면세 등과 관련된 규정들이다. 관세와 관련된 물품 가격의 산정은 해관 감정사의 감정에 따른다거나, 수입화물에 손상이 있을 때 그 파손금액에

따라 감세를 한다거나, 화물 목록에 없는 물품을 숨겨서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거나 화물의 품종 수량을 속이는 경우 물품 압수 및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선원이나 승객의 일상용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과세 대상인 물품을 지나치게 많이 소지한 경우에는 과세한다거나, 일본 공사관이 사용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검사할 수도 없다는 규정도 있다.

관세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조선의 통상항에서 이미 관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선 내의 다른 지역에서 운송세 등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수입품 화주가 물품을 인수한 다음 이를 환송하려는 경우 수출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일본 상선이 조선의 통상항에서 선적한 조선국 산물은 수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시킨다는 규정도 있다. 관세 부과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세세한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제26관부터 30관까지는 일본 상선의 출항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이미 출항 수속을 마친 이후 선박 측의 사정으로 다시 물품을 선적하거나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항 수속 및 출항 수속을 다시 밍아야 한다거나, 우편선의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수속과 출항 수속을 할 수 있다거나, 배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거나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조선의 통상항에 들르는 상선과 어선은 입항 수속 및 출항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31관은 조선 정부가 앞으로 통상항 내의 수리 및 등대 암초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조선은 항구와 연안에 간이등대라고 할 수 있는 등간燈竿 및 등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제32관에서는 군함 및 일본 정부에 속한 상품을 탑재하지 않은 선박이 조선국 통상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출항 수속을 하지 않으며 통세를 지불하지 않고, 조선의 해관 관리가 이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상선이 아닌 군함이나 측량선과 같은 선박들은 조선 측에서 전혀 감독·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밀무역과 아편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가 하면 자연재해나 병란 등의 사고로 식량이 부족할 가능

성이 있어서 미량米糧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미리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제35관에서는 벌금 몰수 및 기타 벌칙에 관한 사건의 경우 조선 해관장의 고소에 따라 일본 영사관에서 이를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제41관은 일본 어선은 조선의 전라도·경상도·강원도·함경도 등 4도에서 그리고 조선 어선은 일본의 히젠肥前(현 시가현佐賀県과 나가사키현長崎県의 일부), 지쿠젠筑前(현 후쿠오카福岡県의 북서부), 나가토長門, 이와미石見, 이즈모出雲(현 시마네현島根県의 동부), 쓰시마對馬 해안에서 왕래 포어捕魚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특징 및 의의 〈조일통상장정〉은 9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31관에는 ‘통상항구의 수리 및 등대 설치를 위하여 일본 상선으로부터 통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일본 상선에 대하여 관세 및 통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상선의 화물 육양 및 선적 원칙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관행이 아니라 조약과 규정에 의한 통상체제가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군함이나 측량선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배에 대해서는 조선이 조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일본 어민들이 전라도·경상도·강원도 해안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선 어민들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일본도 조선 어민에게 일부 해안을 개방함으로써 호혜적인 규정처럼 보이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외양으로 조업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어민에게 조선의 바다를 일방적으로 개방한 결과를 가져왔다.

곡식의 수출을 금지할 때는 일본 영사관에 먼저 통보해야 한다거나 몰수·벌금 등의 각종 처벌은 일본 영사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불평등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 측의 방곡령 시행과 관련하여 일본이 통보 시기나 작황 등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한 방곡령 사건의 발단이 된 규정이 바로 이 통상장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맨 뒤에 첨부된 해관세목은 당시 교역된 물품의 내역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박한민, 역사와 경제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장정체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저항과 만국공법(박은숙, 역사학보226, 역사학회, 2015), 조일통상장정 운영과 조일의 대응(박한민, 동국사학6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韓國條約類纂(統監府, 1908).

필자 이근우(李根雨)

조일통어장정

朝日通漁章程

정의 1889년(고종 26)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어업 협정.

내용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에 의한 조선의 개항은 일본인들에게 한반도 수역 어업 진출에 의욕을 갖게 하였다.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제3조에 “조선의 평안도와 황해도, 중국의 산둥성山東省(산둥성)과 봉천성奉天省(펑톈성, 현 랴오닝성) 등의 연해 지방에서 두 나라의 고깃배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청국 어민들이 조선의 평안도와 황해도 연해에 올 수 있게 되자 일본도 일본 어민이 조선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1883년 7월 25일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제41관에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의 전라·경상·강원·함경의 4도 해안에서,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의 히젠肥前, 지쿠젠筑前, 이와미石見, 나가토長門(조선 해안이 면한 곳) 이즈모出雲, 쓰시마對馬島의 해변을 왕래하면서 어획함을 승인한다.”라고 하여 조선 전라·경상·강원·함경 등 사도四道 해안에서 일본 어민의 어로가 허락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선박 기술로 일본 연해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어민에게만 조선 연해에서의 어업 활동을 일방적으로 허용한 셈이었다.

한편 일본인 조선해역 통어자를 규제하기 위한 〈조선국해안어채범죄조규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도 〈조일통상장정〉과 함께 같은 날 체결되었다. 이 조규에는 일본 어민이 조선 해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처벌 권한을 일본 영사에게 이관한다는 불평등한 내용이 담겼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 당시 제41관에서 출어 가능 지역만 설정하였을 뿐 어업 문제에 대한 세부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체결 당시 어세 외에 기타 세금과 관련된 항목은 2년 후에 운영 상황을 조사하여 다시 논의해 정하기로 하였다.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후 조·일 양국 어민들 간에는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였다. 일본 어민들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으로 건너와 어업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조선인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이 심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일본 어민의 어업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1885년 6월 어세와 기타 세목을 협정하자고 일본 측에 제의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1886년 3월 대장성에서 외무성 초안을 수정하면서 조선 정부와 협상하며 1889년 11월 12일 <조일통어장정>을 체결하였다.

<조일통어장정> 제2조에서는 어업세를 규정하였다. 어업세는 1년을 기한으로 하였고, “탐승인 10명 이상은 일본 은화 10원圓, 5명 이상 9명 이하는 5원, 4명 이하는 3원으로 한다.”라고 어업세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어업 허가증을 수령한 어선은 포획한 어류를 그 나라 해변 지방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또한 일본 어민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조선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여 일본 영사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였다(제11조).

당시 일본 수산 전문가의 저서 『조선통어사정』(1893)에 의하면, 당시 1년간 일본 어민의 어업 수익은 150만~200만 원가량이었는데, 조선 정부에 납부한 어업세는 3,000원에 불과하였다. 총수익액의 0.1~0.2% 비율일 정도로 일본 어민의 이익 수취가 컸다. 또한 일본 어민들은 발달한 어선 어구를 동원하여 조선 연해의 해삼, 전복, 상어, 도미 등을 어획하였다. 특히 일본 연해에서 사용이 금지된 잠수기선을 동원하여 전복과 해삼을 싹쓸이하여 제주도와 경상남도 연해의 어민들과 충돌이 심하였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민과 일본 어민 간에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제주도민의 서울 상경 시위와 제주도 파견 관리의 배척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조약 개정 책임자 미국인 르젠드르Le Gendre, C.를 파견하여 <조일통어장정>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지연 술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일통어장정>은 조선 어민이 일본 해역에서 어로를 행하고, 일본 어민은 조선 해역에서 어로를 행한다는 형식상의 균등함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어로 기술 수준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본 어민에게만 조선 해역 어로권을 허용한 셈이었다. 또한 어업세를 규정하였지만, 일본의 어업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비율이었다. 아울러 당시 조선 정부의 해안 통치 수준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일본 어민의 불법 어획이 매우 심하였고, 어업제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처벌 규정에서도 규칙 위반자의 처벌을 조선인은 일본 국내법에 의하여 처리한 반면 일본인은 일본의 영사재판에 맡기고, 정식 통어 수속 없이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밀어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업세와 비슷한 금액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는 등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일통어장정>의 체결은 조선 해역 어로권을 정식으로 일본에 양여함을 의미하였고, 일본의 조선경제 침탈의 합법적 경로가 되었다.

참고문헌 1892년 조일 어업관련 조약개정 교섭과 국제관계(김희연, 한국사연구170, 한국사연구회, 2015),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이영학, 역사와현실18, 한국역사연구회, 1995), 한일 조약 자료집(동북아역사재단, 2020).

필자 이영학(李永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정의 1882년 10월(양력) 조선과 청이 양국 상인들의 무역에 관해 최초로 맺은 통상조약으로 불평등조약.

내용 전문前文과 8개 조로 이뤄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에는 불평등조약이었고, 청나라에는 조선을 침탈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 체결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문호개방 이후 조선에서 일본인의 상업 활동이 확대되고, 무관세무역으로 조선 시장이 침탈되

자 조선 상인을 위한 상권 보호가 절실했다. 조선은 1880년 인천 개항을 놓고 일본과 협상하면서 개항으로 인한 사신 파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선에서 일본 상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와의 통상通商 관계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1881년 조선은 청淸에 사신을 파견하여 청나라에 상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통상 제의를 하였다. 당시 조선 국왕은 조선과 청의 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조·청 관계를 전통적 조공 관계에서 근대적 조약 관계로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렇게 되면 청과 대등한 관계의 국가로서 조선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에 상주하는 사신을 둠으로써 조공사절과 칙사 왕래에 따르는 조선 측의 경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선 국왕의 뜻에 조선 관료가 모두 찬성하지는 않았다. 조선 관료 대부분은 전래적인 사대事大 관계를 고집하였는데, 이는 그 시기 조선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청과의 통상 협상은 1882년 어윤중魚允中이 문의관問議官으로 청에 파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청은 조선에서 일본 상인이 독주하는 것을 막고, 남쪽으로 부동항을 확보하러 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조선에 각국과의 통상을 권유하였다. 어윤중과 청과의 협상은 1882년 7월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나 중단되었다. 청 군대에 의해 임오군란이 진압되고, 청 군대가 조선에 상주하는 상태에서 조선은 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후 조선과 청의 통상 협상은 재개되어 1882년 10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내용은 처음 조선이 통상조약을 청에 제의할 때 의도한 것과는 달랐다. 조선 국왕은 근대 국제법의 저축을 받는 당시 국제관계를 토대로 조선과 청이 대등한 위치에서 통상조약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반면 청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청의 조공국이었음을 근거로 조선을 근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속국으로 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통상 제의에 ‘속국’인 조선과 대등하게 교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통상조약 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조선의 국제적 위

상에 대한 조선과 청의 대립은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것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로 인해 조선의 비준조차 요구되지 않는 일방적인 조약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이 1882년 10월 23일(음력 9월 12일) 청 황제의 비준으로 탄생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불평등조약이었다. 치외법권을 비롯하여 조선 시장을 청에 내주는 무역 침탈과 청 어선의 어로 침탈을 뒷받침해 주는 규정 그리고 청나라 병선의 조선 연해 왕래 등의 조항은 조선에서 청이 정치·경제·군사적 침탈을 자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이 체결하는 일본·영국과의 조약 개정 등에 원용되면서 불평등조약 체계 확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징 및 의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3조에는 조선의 평안도와 황해도, 청의 산둥省山東省과 평톈성奉天省(현 선양) 등의 연안 지방에서 양국 어민의 어채漁採 허용이 규정되었다. 이때부터 조선 연안에서 청나라 어선의 무차별적인 고기잡이는 더욱 횡행하였고, 어업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과 청 사이의 어업분쟁이 상존하게 되었다. 조선과 청 사이의 어업분쟁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이 조약이 폐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기후 바다 어업분쟁(김문기, 중국사연구63, 중국사학회, 2009), 조선의 근대화를 막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구선희, 내일을 여는 역사9,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02),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김종원, 역사학보32, 역사학회, 1966),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구선희, 혜안, 1999), 한국 근대 주권대원의 파견과 운영 1883~1894(한철호, 동학연구23, 한국동학학회, 2007).

필자 구선희(具仙姬)

조침
釣針

정의 갈고리 모양의 물건에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도구.



단식조침 | 길이 5 | 경남 사천 | 초기
철기시대 | 국립진주박물관

결합식조침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내용 낚시는 낚싯바늘·낚싯줄·낚싯대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람의 팔이 낚싯대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낚싯대가 생략되기도 한다. 낚싯바늘은 위에서부터 귀·허리·침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일체형일 때는 단식낚시라 하고 허리 부분과 침 부분을 별도로 제작하여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할 때는 결합식 낚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 모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일체형만 사용된다. 낚싯바늘을 이용한 어로 행위는 바늘 하나를 사용하는 외줄낚시와 여러 개의 바늘을 사용하는 주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낚싯바늘은 신석기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동해안에서 남해안에 걸쳐서 확인되는 결합식 낚싯바늘이 중심이다. 대부분 귀에서 허리까지는 돌을 갈아서 'J' 자형을 만들고, 침 부분은 사슴의 뿔 또는 뼈와 멧돼지의 엄니를 갈아서 두 개를 겹치거나 붙여서 만든 결합식 낚싯바늘을 사용하였다. 단식낚시는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소량 확인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귀에서 허리까지와 침 부분을 모두 골각제로 제작한 경우가 있고, 전라남도 완도 여서도 패총에서 발견된 것처럼 전복 껍데기를 갈아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아직 낚싯바늘이 확인된 곳은 없으나 국보 '전 영암 거푸집 일괄' 중 '동부銅斧·낚싯바늘 용범'을 통해 청동기시대에도 낚싯바늘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 들어 현재의 낚싯바늘과 비슷한 형태의 철제 대형 낚싯바늘이 쓰였음이 남해안 지방의 패총에서 확인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철 제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철제 낚싯바늘이 소형화되고, 고분에 매장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흑산도에서 사용되는 낚싯바늘 가운데 형태와 기능이 다른 홍어잡이 전용의 걸낙이 있다. 걸낙은 형태가 'ㄷ'자형인 낚싯바늘로 1910년대에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보통의 낚시에서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유인하여 포획하는데, 걸낙은 미끼가 없는 예리한 바늘에 미끼를 끼우지 않고 사용한다. 홍어가 회유하는 길목인 홍도 인근에 걸낙 바늘을 주낙 형태로 설치하여 홍어와 아귀를 잡는다.

참고문헌 선사·고대의 패총 인간 바다 그리고 삶(북천박물관, 2011), 어구(고광민,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조개와 사람의 시간 패총에 묻다(목포대학교박물관, 2020), 한국 어구도감(국립수산물과학원, 2002),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 문화(김건수, 학연문화사, 1999), 홍어(윤형숙 외, 민속원, 2009).

필자 김건수(金建洙)

조행일록

漕行日錄

정의 1862년 11월부터 1863년 5월까지 전라도 함열현감 임교진(林喬鎭)(1803~1865)이 성당창聖堂倉 조운 영운관으로 임명되어 함열현 인근 8읍의 세곡을 경창京倉까지 운반하면서 작성한 일지.

내용 임교진의 자는 백신伯臣이다. 본관은 나주이고, 부친은 통훈대부행 사복시 주부 임영철이며, 모친은 파평윤씨이다. 임교진은 1837년(헌종 3) 진사에 입격하여 1856년(철종 7)에는 경기전慶基殿 참봉을, 1861년(철종 12)에는 사옹원 주부와 한성부 주부 등을 지냈다. 이후 1862년(철종 13) 6월 임교진은 함열현감 겸 성당창 조운 영운관에 임명되었다. 11월 2일에 성당창 소속 8읍(함열·고산·진산·익산·금산·운봉·용담·남원)의 조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봄까지 세금수납을 관리·감독하였다.

당시 성당창(현 전라북도 익산 성당리에 있었던 조

창)에는 세곡을 보관하는 9동의 창고倉庫가 있었다. 그 중 7동이 성당창에 있었고, 2동은 남원과 운봉에 있었다. 성당창에서 보관하는 세곡은 전세田稅로 걷은 쌀 561석 2두와 콩 118석 7두, 삼수량三手糧 176석 1두와 대동세 상납미 150석 등이었다. 세곡 수납이 완료되면 다음 작업은 세곡을 선박에 선적하는 일이다. 선박에 적재하는 작업은 모두 두 차례로 나뉘어서 진행하였다. 1863년 3월 초하루에 1차 선적을 하였는데, 이것을 초분初分이라 한다. 3월 5일에 순풍제를 올렸다. 2차 선적은 3월 13일에 시작하여 3월 15일에 끝났다. 이것을 대분大分이라 한다. 이렇듯 초분과 대분으로 나뉘어 적재작업을 진행한 것은 안전을 위한 규칙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성당창의 세곡을 모두 12척에 나뉘어 실었다. 조운선 함자선鹹字船에 함열현 소속 8읍의 전세미가 선적되었고, 또 다른 조운선 서자선署字船에 함열현 8읍의 대동미가 적재되었다. 나머지 10척의 선박에도 도착지별로 조세와 대동미를 선적하였다.

임교진은 조운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호선 함자선에 승선하여 12척의 조운선을 총괄하였다. 성당창의 세곡이 조운선에 모두 선적된 것은 1863년 3월 중순이었다. 임교진은 웅포(현 전북 익산시 웅포면)에 조운선을 정박해 놓고 3월 26일까지 포구에서 대기하였다. 왜냐하면 3월 26일이 웅포에 오일장이 서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조운선의 사공과 조졸들이 장거리 항해 때 먹을 반찬을 비롯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3월 26일 웅포장이 파장되었음에도 임

교진은 여전히 포구에 머물렀다. 항해에 가장 중요한 바람을 기다린 것이다. 3월 27일에 동풍을 타고 물러나는 조수를 따라 12척의 조운선이 바다로 항할 준비를 하였다. 그에 앞서 임교진은 좌수와 도사공을 서천 용당(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으로 보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1863년 3월 27일 밤 성당창 조운선단은 포를 쏘고 나팔을 부는 소리를 뒤로한 채 출항하였고, 당일 임피(현 전북 군산)에 당도하여 1박을 하였다. 3월 28일에 성당창 조운선단은 한산을 경유하여 서천포에 당도하였고, 3월 29일에 옥구 앞바다에 이르렀다. 인근 해상의 일기가 고르지 않아 4월 3일까지 가도에서 체류하였다. 4월 5일에 오죽도 서쪽 바다를 지나 죽도와 개화도 인근에 닿을 내렸다. 4월 8일에는 새벽에 서천을 출발하여 원산진 고대도에 당도하였다. 이때 원산도 차사원差使員(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던 관원)으로부터 조운선단에 대한 중간 점검을 받았다. 4월 18일에 세곡선은 원산도를 출발하여 안면도 부근에 정박하였다. 4월 19일에 경도와 삼도를 지나 안흥량安興梁(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당도하였다. 안흥량은 서해의 험초저險阻處(물살이 빠르고 항해가 어려운 바다)였기 때문에 성당창의 세곡선 12척도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두 패로 나뉘어 출항하였다. 이후 난지도를 경유하여 수원의 풍도·승왕도·이적도·덕적도·자오도(현재 자월도)·제량도·여흥도·변도(고갈섬이라 칭함)·월미도·영종진 등을 지나 4월 23일에 강화도에 당도하였다. 이제 강화도에서 한강을 따라 양화진에 당도하는 여정만 남았다. 마침내 5월 2일에 성당창 조운선 12척이 양화진에 도착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행일록』은 함열현감 겸 조운 영운관 임교진이 성당창 소속 8읍의 세곡선을 1863년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한양으로 운반하면서 작성한 항해일지이다. 필사본으로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성당창 소속 8읍의 세곡을 수합하는 과정, 총 9동의 성당창 창고에 적재하는 과정, 다시 12척의 조운선에 선적하는 과정, 출항 전에 올리는 배고사, 이후 성당창에서 한양의 양화진에 이르는 노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조운제도를 파악할



조행일록 | 국립해양박물관

참고문헌 임교진의 조행일록을 통해 본 1863년 성당창의 조운 실태(문경호, 진단학보128, 진단학회, 2017), 조행일록으로 본 19세기 조운의 운영실태(안길정, 사립29, 수선사학회, 2008), 조행일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성당창의 조운로와 조운선 호송 실태(문경호, 도서문화4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7).

필자 김경옥(金京玉)

죽대

天

죽대

정의 하천이나 갯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구.

개관 죽대는 길이 2~3m쯤 되는 2개의 장대를 A자형으로 교차해 묶은 후 삼태기처럼 안쪽으로 움푹 파인 그물을 두른 어구이다.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형태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물 밑바닥에 납덩어리나 돌을 매달아 물에 넣었을 때 쉽게 가라앉게 한다. 또한 하천에서 사용하는 죽대는 위를 고정하지 않고 한두 명이 손잡이를 잡고 고기를 떠내는 것이 보통이다. 죽대는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에서는 사두, 충청남도 서산·당진·태안 등 내포지역에서는 사돌·사닥, 전라북도 완주에서는 반두·돛대, 전북 부안과 순창에서는 포망·포대·쪽대·독대, 전라남도 함평에서는 사달, 제주도에서는 맞잡이라 한다. 압록강 중류로 흘러드는 평안북도 강계의 독로강 일대에서는 줄반두라 한다.

내용 죽대를 이용한 어로작업을 죽대질·사두질·반두질이라 한다. 어로방법은 어구를 바닥에 대고 밀어서 대상물을 잡거나, 밑으로 어구를 넣어 대상물을 떠올리는 방식이다. 전자는 주로 갯벌이 발달한 곳에서 새우·망둥이 따위를 포획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하천에서 붕어·잉어·가물치·칠어(끄리) 등을 잡는 방식이다. 또한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에 죽대를 대 위에서 내려오는 고기가 저절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도 있다. 지난날 한강 하류의 행주나루 및 전류리 포구 등에서 널리 전승되었던 장어잡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죽대로 고기 잡이 | 충남 금산 | 2018 | 강성복



죽대로 고기 잡이 | 충남 태안 | 2018 | 강성복

강의 장어잡이는 추석 사리 무렵이 절정을 이뤘다. 해마다 가을에 산란하러 바다로 내려가는 이른바 ‘내림장어’가 포획 대상이었다. 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죽대를 받치고 있으면 하류로 내려가던 뱀장어가 자연스레 걸려든다. 이때 어부는 재빨리 죽대를 들어 올려 강변에 파놓은 구덩이에 뱀장어를 넣고 다시 죽대를 맨다.

전북 순창에서는 천렵 시에 사용한 어구가 죽대였다. 마을에서 모내기와 밭농사가 일주 갈무리되면 시냇가로 천렵을 하러 갔다. 죽대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쌓인 피로를 풀었다. 죽대질은 한 사람이 어구를 벌린 채 아래쪽에 서 있고, 두세 사람이 위에서 고기를 몰아 떠내는 방식이다. 혹은 죽대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풀썩(풀썩)이나 큰 돌이 있는 곳에 대고 살살 흔들면 고기가 들어간다. 이때 한 사람은 망이나 그릇을 들고 따라다니며 고기를 받는다. 죽대질은 물의 깊이가 무릎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고기의 은신처인 갈대 뿌리나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서 하는 게 좋다. 저수지의 물이 줄어드는 갈수기에 흙탕물을 일으켜 호흡이 곤란해진 고기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면 죽대

로 떠서 붕어·가물치·메기 등을 잡았다.

어촌에서는 죽대와 부게가 하나의 짝을 이룬다. 이 때문에 갯벌로 나서는 어부는 반드시 부게를 등에 짊어지고 간다. 부게란 잘게 쪼갠 대오리나 싸리나무로 바닥은 좁고 위는 다소 넓게 엮은 것인데, 채취한 해산물이나 독살에서 잡은 고기를 담는 도구이다. 방언으로는 부게·조락·다리깨 등으로 불린다.

갯벌의 죽대질은 밀물과 썰물 때 어로가 이뤄진다. 가령 경기도 화성과 안산 어촌에서는 밀물에 사두질로 망둥이·송어·새우 등을 잡는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죽대를 대고 있으면 조류를 따라 밀려온 고기가 걸려든다. 반면에 썰물에 잡는 서산 가로림만 망둥이잡이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망둥이가 다니는 갯고랑에 죽대를 몇 분 정도 담가둔다. 그물을 치듯이 일종의 텃을 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밀챙이’라 불리는 작은 소라를 미리 채취해 뒀다가 미끼로 쓴다. 목걸이처럼 철사줄에 꿰어 죽대의 안쪽 그물 가장자리에 늘어뜨려 망둥이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때 어부는 나뭇가지 따위로 죽대의 손잡이를 탁탁 두드리는데, 그 소리에 놀란 망둥이 떼가 혼비백산하여 죽대 안으로 들어간다.

특징 및 의의 죽대는 갯벌을 끼고 있는 어촌과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어구이다. 그 명칭과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하천과 바다, 포획 어종, 어로 시기가 서로 다른 생태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산물이다. 갯벌에서 사용되는 죽대의 경우 위를 묶고 손잡이를 수직으로 대어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갯바닥을 미는 작업방식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것이다. 반면에 하천에서 사용하는 죽대는 주로 민물고기를 떠내는 방식으로 어획하는 까닭에 굳이 고정할 필요가 없다. 즉 한 사람이 죽대를 잡거나, 두 사람이 양쪽에서 손잡이를 들고 죽대질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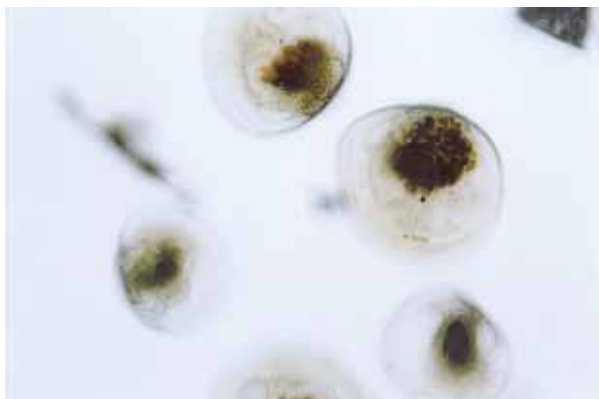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 1·2(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디지털순창문화전자대전(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강성복(姜成福)

정의 부착 기질을 사용하여 양식용 수산동식물의 종자를 부착하거나 천해나 간석지 바닥에 가라앉은 종자를 채묘 또는 채집하여 확보하는 일.

역사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따르면 전라남도 광양만 내의 섬진강 하구에서는 굴을, 순천 여자만 내의 대포와 하대진포 등지에서는 꼬막(새꼬막)을 각각 양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자산어보茲山魚譜』에서도 굴과 꼬막류의 양식이 언급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이미 굴과 꼬막류 등의 종자를 자연에서 확보하여 양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한말 시기인 1897년에 자연산 굴이 대량 서식한 강원도 원산만(영흥만) 부근에서 가리비나 굴 패각(껍데기)을 살포하여 채묘하여 양식한 기록이 있다. 이후 1909년 함경남도 송전만에서도 소나무로 만든 쏘(나뭇가지 다발)을 세워 굴을 채묘하는 송지식松枝式, 전남



가리비 부착기 유생 | 강원 강릉 | 2003 | 오봉세



가리비 치패 양성 | 강원 삼척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영암의 잡목식雜木式과 죽지식竹枝式的 건흥법建築法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 1959년에는 가리비나 굴 패각을 이용한 우산식雨傘式과 간석지에 말목을 세워 채묘연採苗漣으로 채묘하는 말목수하식 방식이 소개되었다. 1960년대에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제품인 PE 로프, 스티로폼, 코팅사 등이 대량 보급되면서 종자채묘 방법도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전남 순천시 여자만에서는 1960년대 후반 어민이 썰물 때 수심 1~2m 전후의 바다에 말목을 세우고, 해수면 위로 그물망을 수평으로 펼쳐 새꼬막 종자를 채묘하였다. 가리비와 피조개 종자채묘도 1978년 채룡이나 양파망에 그물 등을 부착 기질로 넣어 채묘하였고, 홍합은 페타이어나 플라스틱 조각을 잘라서 채묘연에 끼워 수중에서 채묘하였다. 반면에 바지락, 꼬막, 백합 등의 종자는 바닥에 가라앉은 종자를 채취나 채집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확보하였다.

전북(1973년), 가리비(1974년), 피조개(1980년), 굴(1995년), 바지락(2003년), 꼬막(2015년) 등의 인공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내용 패류의 종자채묘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종자에 크게 의존한다. 채묘는 서식장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채취하거나 부착 기질을 수중에 설치하여 부착한 것을 종자로 확보한다.

패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굴은 가리비나 굴의 패각과 암석·나뭇가지를 부착 기질로 사용하였고, 바닥 식양식의 대표적인 바지락과 꼬막은 서식장 바닥에 가라앉은 유생이 성장한 종자를 채취나 채집하여 사용하였다. 피조개·새꼬막·가리비·홍합 등은 부착 기질로 채묘망, 그물, 페타이어나 플라스틱 조각, 가리비 패각 등을 사용하여 채묘한다.

지역사례 꼬막은 전남 별교 지역의 갯벌에서, 새꼬막은 전남 순천 여자만에서, 바지락은 전라북도 고창군 곱소만(구 줄포만)과 충청남도 서산·태안·보령, 울산광역시 태화강 하구 등에서 종자채묘를 한다. 그러나 전북 종자는 제주도, 전남 완도·해남 등의 육상 전북 종묘(종자) 배양장에서 인공 종묘를 생산한다.

한편 경상남도 거제·통영과 전남 여수·광양의 간석

지에서는 굴 종자채묘를, 경남 마산만과 여수 가막만에서는 홍합 종자채묘를 한다. 피조개는 경남 거제와 마산 해역에서, 가리비는 강원도 속초·강릉·삼척 등지에서 종자채묘를 한다.

특징 및 의의 간석지나 천해 바닥에서 종자를 채묘하는 품종은 바지락, 꼬막 등 비부착성 패류이고, 수중에서 종자채묘를 하는 새꼬막, 홍합, 굴, 가리비 등은 부착성 패류이다. 패류의 종자채묘 방법은 자연적으로 대량 발생한 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매우 저렴하게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유생 발생량과 생존율이 자연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자채묘량의 풍흉豐凶이 심하여 안정적으로 종자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고자 인공 종묘를 생산하여 양식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茲山魚譜, 朝鮮王朝實錄,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박민우 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2016), 참굴 채묘 및 수하양식 시험(정지홍, 중앙수산시험장, 1961), 천해양식(유성규, 새로출판사, 1979), 천해양식어업발달과정에 관한 연구(최정윤, 수산경영론집14-2, 한국수산경영학회, 1985), 한국수산업사(박구병, 태화출판사, 1966), 해양수산통계연보(해양수산부, 2018), 해양수산부(mof.go.kr).

필자 오봉세(吳捧世)

주꾸미소호

정의 주꾸미를 잡기 위해 단지를 이용해 만든 어구.

개관 주꾸미는 문어과의 연체동물이다. 몸통에 여덟 개의 다리가 달린 것은 낙지와 같지만, 크기가 더 작다. 낙지는 보통 70cm 정도이며, 주꾸미는 20cm 정도이다. 주로 수심 10m 정도인 연안의 바위틈에 서식하며 밤에 활동한다. 산란기는 4~6월이다. 몸 색깔은 변화가 많으나 대체로 자회색이다. 좌우 세 번째 다리의 연결된 부위에 황금색의 눈 모양 고리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쭈쭈미’ ‘쭈깨미’ 등으로 부르고, 경상도에서는 ‘쭈깨미’라고도 부른다. 흔히 ‘쭈쭈미’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주꾸미’이다.



주꾸미소호에 들어간 주꾸미 | 2017 | 한국교육방송공사·공유마당



주꾸미소호 제작 | 전북 군산 | 1996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주꾸미는 그물로 잡거나 소라와 고둥의 빈 껍데기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잡는다. 주꾸미는 수심이 얕은 모래나 자갈 바닥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되는데, 이곳에 있는 소라 껍데기 등에 숨어서 서식·산란한다. 『난호어명고 蘭湖魚名考』에 “조개껍데기 속에 살아서 이름이 패소貝鰯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조개껍데기 속에 서식하는 주꾸미의 습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원줄, 즉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소라 껍데기를 달아 바닷물 속에 넣었다가 껍데기에 들어간 주꾸미를 어획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주꾸미소호’라고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쭈꾸미 단지’ 혹은 ‘소래팽이’ 등으로도 표현한다. 주꾸미소호는 은신함정류의 일종으로 일정한 장소에 숨어서 살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생물을 어획하는 방법이다. 즉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만든 어구를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간 대상물을 잡는 것이다.

주꾸미소호는 일반적인 주낙의 형식과 같으며, 낚시가 달린 부분에 소라 껍데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원줄에 1m가량 아랫줄을 달고 아랫줄에 소라 껍데기를 매단다. 소라 껍데기 끝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줄을 연결한다. 어선의 규모에 따라 사용 어구 수는 다른데, 여수 지역에서는 보통 1t급 내외 어선에 총 3,000~4,000개를, 5t급 내외 어선에 총 7,000~8,000개를 사용한다. 이들을 200~300개씩 여러 곳에 분산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어구를 바다 밑에 늘어놓으면 주꾸미가 산란이나 거처를 위해 소라 껍데기 속으로 들어온다. 주

꾸미소호를 걷어 올리면 소라 껍데기 속에 숨어 있던 주꾸미가 밖으로 나온다. 주꾸미는 주로 봄철에 많이 잡히는데, 어획이 좋은 장소에서는 매일 한 번씩 조업하며, 일반적으로는 2~3일마다 한 번씩 조업한다.

일반적으로 주꾸미소호는 두 종류를 사용한다. 하나는 봄철 주꾸미를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을철 주꾸미를 잡는 것이다. 소라 껍데기가 큰 것은 봄 주꾸미를, 작은 것은 가을 주꾸미를 잡기 위한 것이다. 주꾸미가 봄철에 산란하므로 봄 주꾸미가 가을 주꾸미에 비해 크기가 크다. 봄 주꾸미를 잡기 위해서는 가을 주꾸미를 잡는 것에 비해 소라 껍데기가 큰 것을 사용한다. 보통 주꾸미소호로는 피빨고둥 껍데기가 가장 좋다. 소라 껍데기에 붙은 따개비 등을 죽이기 위해 보통은 보름마다 육상에서 말린다.

요즈음에는 소라 껍데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파이프프로 만든 은신처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름이 45mm인 PVC를 30cm 길이로 자르고 10cm 간격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각각에 구멍을 낸다. 이것이 원주형 통이다. 또 같은 파이프를 10cm 길이로 잘라 세 개를 방사형으로 묶은 것이 방사형 통이다. 둘 다 두 마리 이상의 주꾸미를 잡을 수 있다.

주꾸미 수요가 많은 봄철은 주꾸미 산란기와 겹친다. 이 때문에 주꾸미 어미와 어린 개체가 감소하고 있어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꾸미 금어기이다.

특징 및 의의 주꾸미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주된 산란기이다. 봄이 되고 수온이 올라가면 알을 낳을 산란방을 찾

는다. 산란방은 주로 모래 위에 있는 전복, 조개, 고둥 등의 껍데기나 바위틈이다. 주꾸미소호는 이런 주꾸미의 산란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주꾸미소호는 소라 껍데기 외에는 밀천이 들지 않고, 주꾸미를 산 채로 판매할 수 있어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로 방식이다.

참고문헌 蘭湖魚名考,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물과학원, 2002), 한국의 해양문화1~5(해양수산부, 2002).

필자 박종오(朴宗吾)



주낙 | 경남 남해 | 2013 | 류지형

주낙

주낙

주낙

정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원 생물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잡기 위하여 한 가닥의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어업자원 생물을 잡는 어구.

개관 주낙은 부설 방법에 따라 명 또는 닛으로 고정하는 고정낚시류와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하는 흘림낚시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어업자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고정낚시류를 사용하고, 바다의 표층이나 중층을 회유하는 어업자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흘림낚시류를 사용한다. 주낙long line은 낚시를 질서 있게 드리워야 하므로 보통 한 가닥의 기다란 모릿줄main line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아릿줄branch line)을 내고, 그 끝에 낚시와 미끼를 단 어구이다. 주낙어업은 한 마리를 낚아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낚시를 동시에 드리웠다가 차례로 들어 올려서 낚는 것이 좋다. 이것이 주낙어법이다.

내용 주낙어법은 수평으로 어구를 드리워서 표층과 중층에 유영하는 어류를 잡는 뜬주낙drifting long line과 해저 깊은 곳에 서식하는 어류를 잡는 땅주낙set long line 등이 있다. 수직으로 어구를 펼쳐서 표층에서 심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유영하는 어류를 잡는 방식은 선주낙vertical long line이라고 한다.

뜬주낙은 주낙 어구를 바다의 표층이나 중층에 띄워서 설치하고 흘러가게 하면서 중층이나 표층 부근에 유영하는 회유성 어류를 낚는 흘림낚시 어법이다. 땅주낙은 저서에 서식하는 저서정착성 어종을 잡기 위하여 어구를 해저에 고정 설치해서 어획하는 고정낚시류를 말한다. 즉 대상 생물을 일시에 여러 마리를 잡기 위하여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마다 미끼를 채운 낚시 한 개씩을 달아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물을 낚아 잡는다.

뜬주낙은 부연승 또는 흘림낚시라고도 한다. 바다의 중층에 주로 분포하는 어업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낚시가 수면 아래 일정 깊이에 분포해야 하므로 모릿줄에 부표줄을 내고 그 끝에 부표를 단다. 부표줄, 아릿줄, 모릿줄의 길이에 따라 낚시가 위치하는 수층이 달라진다. 부연승은 저연승에 비해 어구가 조류에 따라 이동되기 쉽고 어장의 선택범위가 넓다. 다랑어주낙, 상어주낙, 옥돔주낙, 복어주낙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다랑어주낙은 해외어장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원양어업이며, 전형적인 부연승(뜬주낙)이다. 미끼는 싱싱한 꼴치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을 사용한다. 조업 해역은 태평양과 인도양·대서양의 열대 해역이며, 중심어장은 적도를 중심으로 남위 20도와 북위 20도 부근 해역이다.

옥돔주낙은 제주도 서남방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다. 미끼는 염장한 오징어나 고등어를 2.5cm 정도로 절단해서 사용한다. 어선은 5~13t급 내외이고, 4~5명이 승선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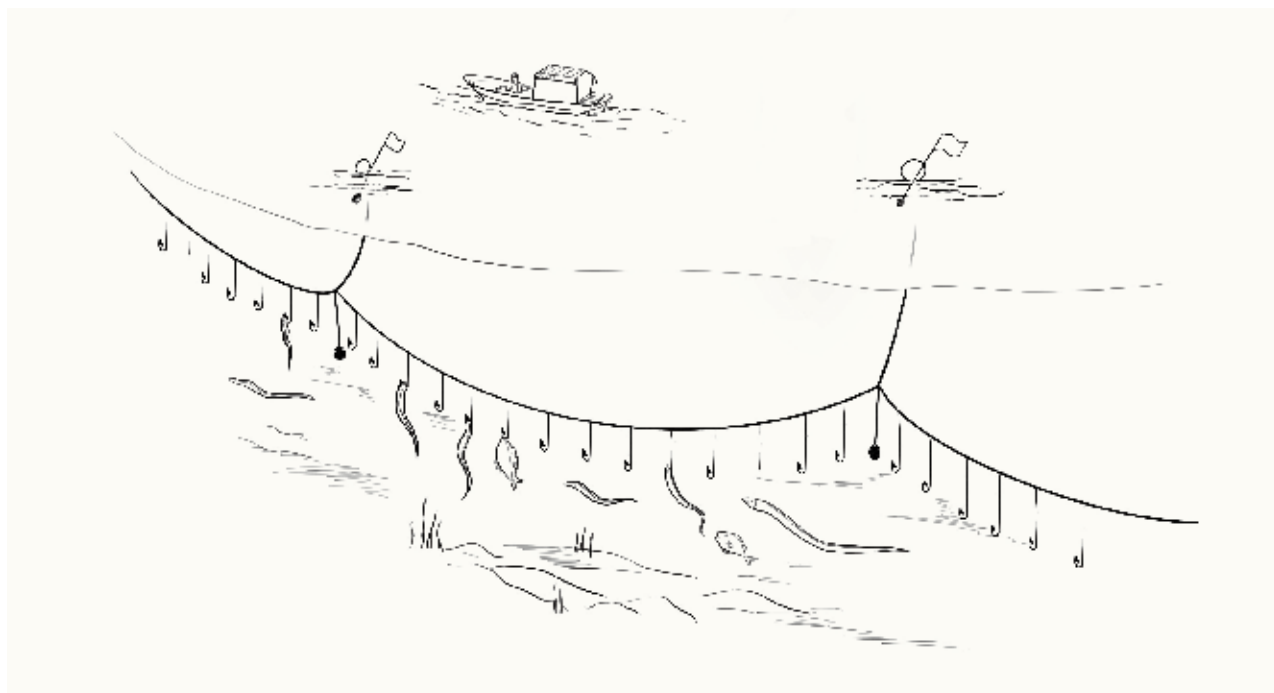
조업한다. 일반적으로 1항 차에 4~5일이 소요되며, 1일에 2회 조업한다. 투승投繩(주낙을 연결하여 놓아가는 일)에 약 1시간 30분, 양승(주낙을 감아올리는 일)에 4~5시간이 소요된다.

바닥주낙은 저연승 또는 땅주낙이라고 한다. 보통 땅줄낙시라고도 하는데, 해저 바닥 또는 바닥 가까운 곳에서 서식하는 어류를 어획 대상으로 한다. 낙시가 해저 바닥에 닿아야 하므로 뜬이 필요 없다. 적당한 간격으로 추를 달아서 어구를 해저에 가라앉힌다. 뽕쳐 놓은 어구의 양 끝에는 닻을 놓아서 어구를 고정하고 그곳에 수심보다 긴 부표 줄을 매달고 깃발이나 뜬 같은 표지를 물 위에 띄워서 어구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동해 연안에서는 명태를,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는 갈치·가자미·조기·홍어·민어·갯장어·붕장어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한다.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 성행하는 낙지주낙도 땅주낙으로 분류한다.

홍어주낙은 낙시를 해저 또는 해저 가까이에 설치하는 저연승으로 조업 수심은 40~90m이다. 수심에 따라 부표 줄의 길이를 조절한다. 투승은 투묘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어선을 천천히 전진하면서 실시하고, 양승은 투승을 마친 후 조류가 바뀌기 한 시간 전까지 기다렸다가 실시한다. 어구의 규모는 모릿줄의 길이로

결정되는데, 보통 광주리당 180m가 들어가며 쉼 광주리 분량을 사용한다. 조업은 야간에 이뤄진다. 어구의 특징으로는 모릿줄 두 광주리당 한 개의 뜬줄을 내어 부표등을 켜다. 또 어구를 해저에 고정하기 위하여 두 광주리당 한 개의 닻을 모릿줄에 연결한다.

가자미주낙은 경상북도 동해안의 수심 30~40m 정도인 연안 2~3m 해역에서 주로 조업한다. 주낙의 전체 길이는 2~3km이며 오전 4~5시쯤에 출항하여 명, 부표, 낙싯줄 순으로 투승한다. 낙시가 바닥에 묻히거나 해류나 조류에 의해 밀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시 40~50개마다 소형 뜬과 발돌(낙시의 미끼나 그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붕돌)을 단다. 미끼는 겨울에는 소형 새우를, 봄부터 가을까지는 지렁이나 조갯살을 사용한다. 가자미주낙은 연간 조업하지만 성어기는 3~8월이다. 7~8월쯤 동해 남부 연안 해역에 주위보다 5~10℃ 이상 수온이 낮아지는 저수온대(냉수대)가 발생하면 가자미의 먹이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조업은 하지 않는다. 어선은 1t 급 내외이며 2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투승이 완료되면 10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승한다. 1일 1회 조업하고 투승에 1시간 정도, 양승에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된다.



주낙 | 국립수산물학원

붕장어주낙은 모릿줄의 총길이와 조업 방법이 가자미주낙과 비슷하다. 다만 붕장어주낙에는 미끼로 오징어·전어·고등어 등을 사용하며, 낚싯줄과 낚시가 가자미주낙보다 강하고 크다. 동해 남부와 남해안 일대에서 연중 조업하며 10월에 어획량이 가장 많다.

갈치주낙은 남해안 연안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주어기는 9~12월이다. 오후 2~3시쯤 어장에 도착하여 낚시에 미끼를 채우면서 조업 준비를 한다. 새벽 3시부터 낚시 약 100개짜리 쉰 광주리를 수중에 투승한다. 투승이 완료되면 1~2시간 대기하였다가 처음 투승한 위치로 돌아와서 양승을 시작한다. 양승은 유압식 양승기로 하며 한 번 사용한 어구는 육상에서 정리하여 다시 사용한다. 1일 1회 조업하며 투승에 2시간 정도, 양승에 4시간 정도 소요된다.

낙지주낙은 붕낚시류로 낚싯줄에 납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붕을 달고 붕 위에 낚시를 함께 묶어 어획하는 방법인데, 대상 생물인 낙지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몸통이 낚시에 걸리게 하거나 달라붙도록 하여 잡는다. 붕에는 살아 있는 작은 게 미끼를 묶고 낙지를 유인한다. 1t급 어선에 1~2명이 승선해서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 야간에 주로 조업한다. 사용하는 낚시 수는 600~700개이다. 주낙의 양 끝에는 조업 중 주낙을 절단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낙 위치를 알리기 위한 등불 부표를 사용한다. 붕은 주로 대나무를 사용하며 붕의 끝에 낚시를 묶고 가운데 부분에 미끼를 고무줄로 고정한다. 등불은 보통 오동나무로 만든 받침대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등불을 단단히 고정하여 사용한다. 등불 아래쪽으로 긴 줄을 내고 그 아래에 작은 돌을 달아 침자沈子(어구漁具가 물 밑으로 드리워지거나 가라앉게 하기 위하여 그물 아래에 다는 납이나 돌로 만든 추)의 역할을 하여 어구가 측면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한다. 주낙의 한쪽 끝에는 끌줄(배에 그물을 달아 끄는 줄)을 묶어 배에 연결한다. 해 질 무렵에 투승을 시작하여 투승이 완료되면 끌줄을 선미에 연결하고 배를 천천히 30분 정도 전진하면서 아주 느리게 어구를 끌고 간 다음 배를 정지하고 양승을 시작한다.

주낙을 서서히 끌어서 대상 생물을 유인하는 어구 어법을 예승이라고 한다. 이 어법은 끌낚시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구의 길이가 아주 길며, 어구를 끌고 가는 하지만 미끼가 살아 있는 효과를 줘서 유인하는 것이므로 주낙류로 분류한다. 하룻밤에 10회 정도 조업하며 날씨가 좋은 잔잔한 날에 조업한다.

선주낙은 선낚시라고도 하는데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아릿줄을 달지만, 뜬주낙이나 땅주낙처럼 모릿줄이 수면이나 해저에 나란히 뻗치는 것이 아니다. 모릿줄 끝에 추를 달아서 모릿줄이 수직으로 뻗치도록 해 뒀다가 수시로 끌어 올려 어획한다. 어획물을 따내고 다시 어구를 드리우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방어선낚시와 돛선낚시 등이 있다.

선주낙의 변형으로 모릿줄과 아릿줄의 기능을 서로 겸하게 하여 모릿줄 끝에 첫 번째 낚시를 달고, 거기에서 일정 길이의 낚싯줄을 내어 그 끝에 다음 낚시를 매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다. 오징어낚시어법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1개의 낚시 채에 여러 개의 낚시가 붙은 겹낚시를 쓴다. 오징어낚시는 처음에는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단 줄을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였으나 점차 발전하여 배전에 롤러를 설치하여 올리고 내리게 되어 작업이 능률화되었다. 최근에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기계화된 자동 조상기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주낙어업으로는 명태, 넙치, 농어, 복어, 가자미, 갯장어, 돛류, 조피볼락, 볼락 주낙 등이 있다. 이들 어구는 과거부터 구조 및 조업 방법 등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사용하는 전통 어업이다. 다만 낚싯줄 재료로 과거에는 면사에 갈물(떡갈나무 껍질에서 얻는 검붉은 물감)을 먹여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어구의 종류에 따라 나일론, 구라론, 폴리에틸렌, 경심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 어선의 대형화로 어장을 먼바다로 확대하고 있으며, 어로 장비의 개선으로 어선 한 척당 사용하는 어구 수를 늘려 조업하기 때문에 어업자원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상 생물이 야간에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서해와 남해 연안 해역에는 이들 어선이 설치한 어구들이 서로 얹혀 조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업종과 조업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어업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감척 사업과

어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업조정을 실시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참고문헌 수산일반(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7), 어업-상·하(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3), 한국의 어구어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 2004), 해양과학(부경대학교 1종도서편찬위원회, 2002), 해양수산용어사전(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02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ifs.go.kr),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org).

필자 박종화(朴鍾和)

주낙배

정의 주낙 어구를 갖춘 고기잡이배.

내용 주낙배는 주낙으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선이다. 주낙은 한 가닥의 긴 모릿줄에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짧은 아릿줄을 달고 그 짧은 아릿줄 끝에 낚시를 매단 것인데, 이 어구를 사용해 고기를 잡는 배를 주낙배, 즉 주낙어선이라 한다. 주낙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낙을 사용해서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주낙어선이라고 할 수 없다. 주낙뿐만 아니라 주낙을 바다에 시설하고 끌어 올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배를 주낙어선이라 한다. 우리나라 어선법에 따라 어선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원양어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선이 다랑어주낙어선이다. 원양다랑어연승어선이라고도 하는데, 기지선은 150~300t급 내외이다. 선원은 24명 내외이며 일반적으로 투승에 5시간 내외, 양승에 15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우리나라 연근해 주낙어선으로는 명태 주낙어선을 비롯하여 넙치·농어·복어·가자미·장어·돔·조피볼락·볼락 주낙어선 등이 있다. 이들 어선은 대상 자원의 종류에 따라 규모나 성능이 각기 다르다.

특징 및 의의 주낙배(어선)는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원이 어장, 규모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연근해 주요 주낙배의 규모와 어장·어기 등은 대상 생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특히 어장이나 어기와 미끼 등은



주낙배 | 강원 삼척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주낙 | 강원 삼척 | 2013 | 김창일

대상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명태 주낙배는 8t급 연안어선으로 기관은 150마력 내외이다. 6~7명의 선원이 승선해서 동해안의 강원도 연안에서 겨울철에 조업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명태의 급속한 감소로 최근에는 조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넙치 주낙배는 서해안 위도 연안의 수심 6~7m 해역에서 조업하는데 약 2t급 어선에 기관은 20마력 내외이고, 2~3명이 승선하여 조업하며, 넙치와 농어가 주 어업 대상 자원이다. 미끼는 뱀뱀이나 꽃새우를 사용하며 6~11월이 주 조업 시기이다.

농어 주낙배는 전라남도 서부 연안의 수심 10~20m인 해역에서 조업한다. 암초 주변의 필이나 모랫바닥인 해역에서 조업하는데 5t급 어선에 기관은 150마력 내외이며, 선원 3~4명이 조업한다. 농어류를 주로 어획하며, 민어·돔류 등도 어획한다. 4월부터 10월에 걸쳐 조업하며, 미끼는 꽃새우·중하·뱀뱀이 등을 사용한다. 경기도 영흥도와 덕적도 연안에서도 농어주낙

어선이 조업을 하는데 6월부터 10월까지가 주 조업 시기이다.

까치복 주낙배는 제주도 연안 3m 내외의 수심 60~70m인 해역에서 조업한다. 5t급 150마력 내외의 어선에 선원 3~4명이 승선한다. 어획 대상 생물은 까치복이 90% 이상이고 조피볼락과 고등어 등도 함께 어획된다. 연중 조업하나 4~11월이 성어기이다. 오전 5~6시쯤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탐색한 다음 어군 분포 수층에 투승한다. 어선 한 척이 70~80 바스켓의 모릿줄을 일직선으로 부설하며, 중간마다 부표와 발줄을 달아 낚시가 위치하는 수층을 조절한다. 투승이 완료되면 배를 어구로부터 분리하여 어구가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한다. 1시간 후 부표를 따라 어선을 천천히 전진하면서 인력으로 양승한다. 하루에 한 번 조업한다.

봉장어 주낙배는 경상남도 남해 서부 연안의 수심 7~8m 해역에서 조업하는데 1t급 10마력 내외의 소형 연안어선이 대부분이며 두 명이 승선해서 조업한다. 연중 조업하나 10월에 어획량이 가장 많다.

볼락 주낙배는 경남 연안의 수심 40~50m 해역에서 조업하는데 2t급 20마력 내외의 어선에 3~4명이 조업한다. 어획 대상 자원은 볼락이 40% 내외로 가장 많고, 노래미·가자미 등도 어획된다. 연중 조업하나 5~8월에 어획량이 많다.

가자미 주낙배는 경상북도 연안 2~3m 내외의 수심 30~40m 해역에서 조업하는 1t급, 10마력 내외의 소형 연안어선이다. 어획 대상 자원은 가자미가 대부분이다. 연중 조업하나 3~5월과 7~8월에 어획량이 많다.

옥돔 주낙(연승)배는 제주도 서남방 80~100m 해역에서 주로 조업한다. 5~13t급 150~300마력 내외인데, 선원 4~5명이 조업한다. 어획 대상은 옥돔이 60~70%이고, 보구치도 상당량 함께 어획된다.

그 외에 조피볼락 주낙배는 5t급 150마력이고 선원 3~4명이 조업한다. 돔·농어 주낙배는 1.5t급 20마력 내외이고, 황돔 주낙배는 4t급 100마력 내외이다.

참고문헌 수산일반(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7), 어업-하(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3), 한국 어구도감(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연구원, 2002), 한국의 어구어법(수협수산경제연구원, 200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립수산물연구원(nifs.go.kr).

필자 박종화(朴鍾和)

주목망

柱木網

정의 정치(定置) 어구의 하나로 그물의 입구 양쪽을 나무나 닻으로 고정하여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어군을 잡는 어업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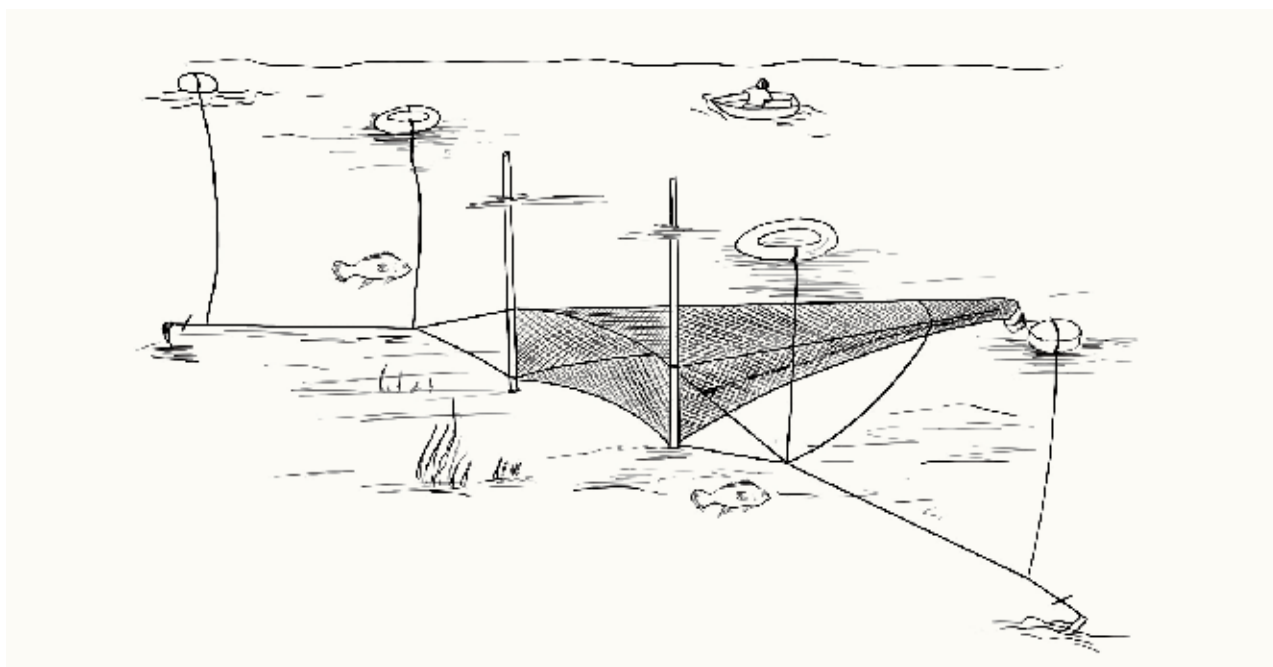
내용 주목망과 관련된 역사기록은 조선시대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문헌 자료에 따르면 주목망은 서해안 지역,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업 방식이 중국 산둥성(山東省) 연해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명확한 근거 자료는 부족하다. 조선시대 문헌인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에 황해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에 등장하는 온돌(溫垆)과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소개된 온량(溫梁)을 주목망과 관련된 어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주목망은 기다란 낭상(囊狀)의 어망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하여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를 포획하는 고정식 어구로, 주박(注朴)을 비롯해 주박망(注朴網)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어구의 명칭인 ‘주목(柱木)’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어업방식에서는 나무(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무는 물고기가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목망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주로 물고기가 많이 오가는 길목에 주목망을 설치하는데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7발, 더 깊은 곳은 16발 정도의 소나무 말장(말뚝)을 사용한다. 소나무를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다른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주목망 | 인천 강화 | 1994 | 국립민속박물관



주목망 | 국립수산물과학원

구입을 해서라도 가급적 소나무를 사용한다.

물이 빠져나가고 바닥이 드러나면 미리 준비해 둔 말장 등을 가지고 설치 장소로 들어간다. 일정한 간격에 맞춰 구멍을 파고 그곳에 말을 세운 뒤에 미리 파놓은 말장 구멍에 끈을 엮은 후 끈에 돌을 매달아 갯벌에 세워놓는데, 이 작업은 말장이 펄에 묻혀서 잘 서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앞줄과 뒷줄의 끈이 당겨지도록 말장은 12발 간격으로 세운다. 그물의 위는 ‘웃기다리’라고 하여 위에 달아매고, 아래는 ‘아랫기다리’라고 하여 돌을 아래에 달아매어 고정한다. 주목망의 끝부분을 ‘불뚝(그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낫줄’이 연결되어 있다.

안강망과 낭장망 등의 새로운 그물 어구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목망은 남해안의 어장漁帳, 동해안의 후릿그물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재래식 어구로 각광받았다. 무엇보다 전통어로 방식의 하나인 어살어업(독살 및 어전)에서 한 단계 발전된 어구로 평가되었으며, 1970~1980년대까지 서해안 여러 곳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주목망을 이용하여 잡는 어종은 매우 다양하다. 서해안에서는 갯새우를 많이 잡았는데 멸치를 잡는 멸치주목망과 해파리를 잡는 해파리주목망, 복어를 잡는

복어주목망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가운데 해파리주목망은 여타의 주목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해파리를 입망入網하는 과정에서 그물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루그물의 끝부분에 두꺼운 그물감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바다에 설치한 주목망은 비교적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물에 붙은 이끼나 각종 오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파도의 움직임에 그물이 터질 수도 있고, 불순물로 인해 잡은 어종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특징 및 의의 주목망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재래식 어구이자 서해안, 그중에서도 충청도 해안에서 널리 행해지던 어업방식이다. 낭장망과 안강망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으나 충청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목망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다.

주목망은 어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어구이다. 전통 어업방식의 하나인 어살어업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한 낭장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그물어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물질문화라는 점에서도 무척 의미가 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비교적 유리하며, 설치와 관리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어구이다.

한편 주목망을 설치하는 장소나 주목망을 개인끼리 매매하기도 하며, 조상 대대로 같은 장소에서 주목망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낭장망 어업을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均役廳事目, 備邊司謄錄, 어구학(김대안·고관서, 교문출판사, 1985), 조기에 관한 명상(주강현, 한겨레신문사, 199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23-어업용구(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92), 한국수산물발달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지도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66),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물과학원, 2002), 한국어어업사(박구병, 정음사, 1975).

필자 서종원(徐鍾源)

주문진수산물시장

注文津水産市場

정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을 주문진리에 소재하여 각종 활어·선어·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시장.

개관 주문진수산물시장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을 주문진리에 개설된 시장이다. 주문진 전통시장의 동쪽 방향에 개설되어 각종 활어와 선어 등을 판매한다.

주문진항과 인근 지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문진항을 중심으로 건어물시장, 어민시장(주문진어민수산물시장), 풍물시장(주문진항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좁은 의미에서 주문진수산물시장은 주문진 전통시장에 속한 수산물시장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주문진수산물시장은 각종 어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수산물시장과 건어물시장·어민시장·풍물시장을 포함한다.

내용 건어물시장 안쪽에 위치한 주문진수산물시장은 처음 개설되었던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어민시장과 풍물시장 그리고 건어물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면서 전체 주문진수산물시장의 규모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주문진수산물시장에 등록된 점포 수는 53개이다. 등록되지 않은 점포까지 포함하면 약



주문진수산물시장 | 강원 강릉 | 2021 | 국립민속박물관

70개의 점포가 있다. 주로 활어, 냉동 어류, 염장한 생선 등 활어를 판매하는 상인이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기도 한다. 수산물시장 바깥에 생선을 담은 대야를 두고 소량으로 판매하는 상인도 있다. 2층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건어물시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위판장을 중심으로 건어물 등을 리어카에 실어서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었다. 약 30년 전 주문진항을 지나는 도로를 개통하고 위판장을 정비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현재의 건어물시장이 형성되었다. 건어물상인협회에 가입한 점포는 80~90개이지만 비가입 점포를 합하면 100여 개 점포가 개설되어 있다. 건어물시장에 위치한 점포는 동해안지역에서 생산된 어물을 가공·판매하며, 남해안·서해안 등에서 잡히는 생선은 주문진·속초 등에서 가공된 것을 공급받는다. 주로 각종 건어물과 냉동보관 어물, 젓갈, 말린 해조류 등의 수산가공품을 판매한다. 지역 소매와 다른 지역 상인에게 도매 또는 통신 판매도 한다.

어민시장은 주문진항으로 어선이 들어오면 열린다.

새벽부터 오후 5~6시까지 운영하며 약 50개 점포가 주문진항 통행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어민들이 직접 잡은 활어와 선어를 주로 판매하며, 판매할 생선이 모자라면 입찰을 통해 공급받는다. 취급하는 어류는 어기에 따라 다양하다.

풍물시장은 주문진수산시장과 수협 위판장 부근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하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문진항 인근 매립지 별도공간에 형성되었다. 풍물시장의 토지는 대부분 강릉시 소유이며, 주문진항을 중심으로 동쪽, 즉 주문진항 쪽이 풍물시장 권역이다. 풍물시장 내 도로를 경계로 남쪽이 1단지, 북쪽이 2단지이다.

풍물시장은 생선을 주로 판매하는 좌판과 건어물 점포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와 식당 등 약 20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주로 운영된다. 풍물시장은 각종 활어를 비롯하여 대게·건어물·선어·젓갈과 절인생선 등을 판매하며, 어민시장과는 달리 주문진항을 통해 유입되는 어류와 함께 다른 지역 어류도 취급한다.

이 외에도 주문진항 인근에는 어민시장이나 위판장에서 구입한 생선을 손질해 주고 수고비를 받는 곳이 있다. 10여 명의 사람이 위판장 근처에서 매일 위판이 끝나는 시간까지 운영한다.

특징 및 의의 주문진항 근처에 위치한 주문진수산시장은 주문진항에 들어온 활어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건어물까지 다양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파는 전문 수산시장이다. 주문진수산시장에는 위치상의 주문진수산시장뿐만 아니라 건어물시장과 어민시장, 풍물시장 그리고 위판장 근처에서 활어를 손질해 주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주문진수산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주문진항과 어민시장 그리고 풍물시장 인근에는 활어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커피·초장·커피빵 등을 판매하는 가판대 등이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 ‘복어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참고문헌 현지조사자료(○○○, 강원 강릉, 2021.8.13.), 강릉시청 (gn.go.kr).
필자 김도현(金道賢)

정의 주벽망(柱木網) 어장을 오가며 물을 보고 고기를 운반하는 배.

개관 주벽망은 조류의 흐름이 빠른 곳에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어법이다. 서해안 일대에서는 ‘주벽’ 또는 ‘말장주벽’이라 부른다. 두 개의 말장(기둥)을 세우고 그물을 쳐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 이동하는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주벽망은 어장에 그물을 거는 말장과 주벽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장은 곧게 뻗은 굵은 소나무를 사용하였는데 길이는 주벽을 매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충청남도 보령 원산도 선촌의 주벽어장은 섬 내의 다른 마을보다 수심이 얕다. 짧은 말장은 서너 발, 긴 것은 대여섯 발이면 족하다. 반면에 충청남도 보령 고대도와 삼시도 사이의 어장은 수심이 다소 깊어 일곱 발에서 열 발쯤 되는 말장을 사용하였다. 어촌에서는 적당한 소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워 육지에서 구입한 나무를 배로 실어 왔다. 말장을 세울 때는 소나무 꺾질을 벗긴다. 소나무 꺾질을 벗기지 않고 세우면 나무가 썩어 썩기 때문이다. 하나의 말장에 세 개의 줄을 매어 해저에 돌을 담은 망태기로 고정한다. 이를 앞망, 뒷망, 연사망이라 한다. 한 틀의 주벽에는 그물을 고정하는 불망(불매망)까지 일곱 개의 망을 떨어뜨려야 한다. 따라서 주벽을 매는 일은 서로 번갈아가며 품앗이로 노동력을 해결하였고, 주벽배는 공동으로 배를 지어 운용하는 전통이 내려왔다.

내용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은 어로환경이 주벽을 매기에 유리하다. 특히 충남 보령 원산도에서 녹도에 이르는 바다는 수심이 얕고 조류가 강하여 천혜의 주벽어장을 형성하였다. 1910년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의하면 원산도 주변의 주벽망은 대략 510틀(罟)로 서해안 일원에서 가장 많은 주벽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녹도의 주벽망은 약 150틀(罟)인데, 어장의 상당수는 원산도 어민의 소유로 되어 있다. 어로기술이 있는 사람이 녹도까지 진출하여 주벽을 맺기



원산도 주벽배 | 충남 보령 | 2021 | 강성복

주비

주비

때문이다.

주벽배는 주벽망의 물을 보기 위해 어장을 왕래하는 전통어선이다. 물을 본다는 것은 하루 2회 그물을 건져 올리는 어로작업을 일컫는다. 물을 보는 방식에 따라 밀물에 고기를 잡는 ‘듬물주벽’과 썰물에 고기를 잡는 ‘쓴물주벽’으로 나뉜다. 주벽배는 나무로 건조한 목선으로 규모는 보통 2~3t, 큰 배는 5~6t급이다. 영세한 도서지역 어민은 3~5명이 자금을 출자하여 배를 갖추는 것이 관례였다. 원산도 초전항에서는 7명이 공동으로 주벽배를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주벽배의 구조는 먼바다로 나아가 고기를 잡는 어선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배의 길이에 비해 이물(艀)이 납작하고 넓되, 상하의 깊이(일명 고탱이)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려 선상에서 고기를 퍼 담는 작업을 고려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벽배는 돛을 달지 않는다. 포구와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까닭에 굳이 돛이 없어도 어장을 왕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해는 고물에 설치된 노와 키에 의지한다. 노의 길이는 4~5m로 긴 편이다. 순항할 때는 한 사람이 노를 잡고,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는 3~4명이 함께 젓는다.

주벽망으로는 일제강점기까지 청어·조기·갈치 등 주로 큰 고기를 잡았다. 어족자원이 감소하면서 그물코를 좁혀 갑오징어·실치·열치(참붕어)·꽃게·까나리·밴댕이·아귀 등을 어획하였다. 주벽배에는 새끼줄로 듬성듬성 떠서 엮은 여러 개의 ‘구력’을 비치하고, 그물로 건져 올린 고기를 바디(뜰채)로 퍼 담았다. 어부는 값비싼 어종이 그물에 많이 들면 절로 신이 나서 고기

를 꾸면서 ‘바디질소리’로 흥을 돋웠다.

특징 및 의의 주벽망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어로 환경에 최적화된 어법이다. 어장을 왕래하는 주벽배는 특성에 맞게 제작한 소규모 어선이다. 주벽망으로 고기를 잡던 시기에는 어촌마다 선박 건조기술을 보유한 목수가 있어 주벽배를 지었다고 한다. 1960년대까지는 목선이었고 이후 어선에 탈곡기용 발동기를 부착한 속칭 ‘참채기선’이 등장하였다가 동력선으로 교체되었다. 주벽망과 주벽배는 지난날 서해안 어촌사회에서 공동의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구성원들이 품앗이로 그물을 짜서 바다에 설치하고, 공동으로 배를 운용한 어로문화에는 힘도 덜고 품도 덜어주는 상부상조의 전통과 공동체의식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현지조사자료(강인길, 충남 보령, 2021.2.25; 조병석, 충남 보령, 2021.2.25; 최윤근, 충남 보령, 2021.7.5.).

필자 강성복(姜成福)

주비

정의 어촌에서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어장의 구역 및 조직.

내용 어촌에서는 전통적으로 김, 미역, 톳 등의 해조류를 공동채취하여 공동분배하였다. 주로 마을 단위로 공동작업을 하는데, 마을의 공동어장을 각 구역으로 나눠 정해진 구역에서 공동작업을 한다. 공동어장의 어로 구역을 부르는 명칭은 지역에 따라 ‘주비’ ‘뚝’ ‘통’ ‘반’ 등 다양하다.

주비는 전라남도 완도의 도서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주비는 공동어장의 구역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고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조직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을 제사를 지낼 때는 주비별로 제사를 지내는 공동체(共同體)가 되기도 한다.

관행적으로 마을의 공동어장은 공동재산이었고, 해조류 채취권을 갖기 위한 기본조건은 일정 기간 그 마을에서 거주하거나 결혼 등으로 분가를 해서 독립을 한 가구로 마을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조류 채취권 취득과 동시에 어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 받는 것이다. 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마을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공동어장에서 해조류의 공동채취와 공동분배에 참여한다.

공동어장의 채취권이 있는 가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남녀 구분 없이 한 가구당 한 명씩 참가한다.

‘주비’란 한 조직을 나타내는 ‘무리’의 옛말인데, 사투리로 ‘주배’라고도 한다. 주비의 대표를 ‘주비장’이라고 하고 조직의 인원 소집과 분배 등을 관리한다.

지역사례 전남 완도의 보길도, 고금도, 청산도, 생일도, 덕우도, 평일도(금일도), 소량도 등의 도서지역에 ‘주비’가 분포한다.

보길도 예송리에서는 공동어장을 네 구역으로 나눠 해조류를 채취한다. 네 개의 공동 어업 구역을 주비라고 불렀고, 해조류 채취는 남녀 모두가 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명 또는 두 명씩 참가할 수 있다. 주비의 대표를 ‘주비장’이라고 하는데, 주비장은 주비를 돌아보고 해조 채취의 시기를 판단하고 공동작업을 관리한다. 어장으로 갈 때 타고 가는 배를 운영하기도 하고 작업 인원의 배치를 조정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주비장에게는 두 배의 몫을 줬다.

고금도의 척찬리에는 1960년대 말에 미역양식이 도입되었고, 1974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양식이 시작되었다. 미역을 양식하는 어장은 마을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구역(주비)으로 구분하였다.

- 1구역: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작업의 편리함은 있으나 수심이 얕아서 미역의 질이 좋지 않다.
- 2구역: 수심이 적당하며 미역 작황이 좋고 작업하기 좋은 거리로 3구역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구역이다.
- 3구역: 수심이 가장 깊고 미역 질은 좋으나 작업하기가 위험하고 미역이 질병에 먼저 노출되는 구역이다.

고금도의 척찬리에서는 5년에 한 번 ‘주비 추첨’을

통해 양식어장을 분배하였다.

청산도의 국화리에서는 마을 공동어장을 ‘통’이라고 불렀고, 해당되는 통에서만 해조류를 채취한다. 해조류 채취는 마을 공동어장에서 어촌계의 공동작업으로 이뤄지고, 수입은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분배된다. 이같이 해조류를 공동채취하고 공동분배하는 공동어장을 부르는 명칭으로 완도군 도서지역에서는 주로 ‘주비’라고 하였으나, 청산도의 국화리에서는 공동어장을 마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 ‘동통’ ‘서통’으로 구분하였다. 마을에서 수확한 톳은 수협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연말에 공동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구당 일정하게 분배하였다.

생일도 서성마을의 공동어장은 세 구역(주비)으로 나누어져 있고, 주비의 대표를 주비장이다. 서성마을에서는 매년 정월에 당제를 지내기 위해 제주와 집사를 선출하였다. 제주가 제물을 마련하였는데 마을에서 연로한 여성 한 명을 선출하였다. 마을의 어촌계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의 마을 유지들과 함께 주비장은 마을 당제의 제주를 선출하는 위원이 된다.

덕우도에서는 덕우도 본섬을 다섯 개 구역으로, 부속 도서인 소덕우도(웃개, 아랫개)·형제도·구도·매물도·송도를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 공동어장을 열 개의 주비로 나눴다.

평일도(금일도라고도 함) 동백리에서는 생업 활동이 이뤄지는 갯밭을 ‘개포’라고 하였다. 개포는 네 곳으로 나뉘고, 각 개포의 조직을 ‘주비’라고 불렀다. 한 주비는 40~50호로 구성되었는데, 주비 단위로 해조류를 공동채취하고 공동분배한다. 주비마다 주비장이 있고 임기는 1년이다. 개포는 장소에 따라 환경조건이 다르기에 주비 단위로 돌아가며 장소를 바꾸는데, 선달그믐에 네 개의 주비가 교대한다. 새해 정월 초하루부터 새로운 개포와 새 주비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동백리의 갯제는 주비별로 모시는데, 이를 “갯제를 모신다.” 또는 “개 보러 간다.”라고 한다. 동백리의 개포 4구역은 ‘덜밑에’ ‘신추’ ‘뚝병치’ ‘년날이’ 등이다. 정월 초하루 저녁에 각 개포에서 주비장이 갯제를 모신다. 이때는 짚을 깔고 보리범벅과 술을 헌사하며, 새해 해조류의 풍년을 조용히 기원한다. 네 곳의 개포 중에서 ‘덜밑에’는 큰치라고 불리는 큰 선창 너머에 있는

마을 입구이다. ‘덜밑에(큰치)’의 갯제는 다른 세 곳과 다르다. 세 곳의 개포에서는 주배장이 조용히 비손을 하는데, 큰치에서의 갯제는 동네에서 남정네 열다섯 명 정도가 나와 깽매기(깽과리)를 치고 논다.

소랑도에서는 미역을 중심으로 해조류를 공동채취하는 조직 단위를 ‘주비’라고 하였고, 동주비·서주비·중주비 등 세 개의 주비로 나뉘었다.

소랑도에서는 해조류의 풍년을 기원하는 ‘개부름’을 “개 보러 간다.”라고 하였다. 예전에 다시마가 안 나올 때 소랑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는 미역, 김, 파래, 톳, 세모가사리, 불등풀가사리, 우뭇가사리 등이었다. 설달그믐 날 주비별로 ‘개부름’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주비당 서른 가구 정도로 구성되었고, ‘개부름’을 할 때는 서른 명 정도의 마을 청년이 장구·깽매기(깽과리)·소북·나발 등을 치면서 개보러 갔다. 제물로는 범벅과 나물 등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범벅은 보리를 볶아 가루로 만들었다. 밥고리(밥을 담은 바구니)에 범벅을 담고 된장으로 톳나물을 무쳐서 ‘개부름’ 장소로 가지고 간다. 개부름 장소에서 짚을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그리고 깽매기를 치고 갯밭에서 바닷물을 내려다보며 “다랑도, 섬도, 원도, 장도의 해초들 모두 이리로 오라!”라고 ‘개부름’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주비는 전남의 완도와 진도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공동어장과 그 조직을 부르는 명칭이다. 이같이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공동어장을 부르는 명칭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 영덕과 울진에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채취하는 미역바위를 ‘짚’이라고 부른다. 동해안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깽번’, 서해안 홍도에서는 ‘뚝’ 등으로 부른다.

경상남도 통영 오비도에서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밧등에 있는 공동어장을 5개로 나눠 수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은 교대로 운영하였다. 완도 지역에 분포하는 주비에서는 주로 주비 추첨을 통해 공동어장을 분배하였다.

바다의 생태환경과 조건에 따라 해조류의 수확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촌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추첨이나 순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공동어장을 운영하였다.

참고문헌 어촌사람들의 생산과 민속(이혜연, 민속원, 2013), 어촌사회 변동과 해양생태(김준, 민속원, 2004), 완도군의 문화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완도군, 1995), 한국 어촌사회와 공유자원(육동석·고광민·이혜연,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1), 현지조사자료(박성중, 경북 영덕, 2016.10.15.), About전남의섬(islands.jeonnam.go.kr).

필자 이혜연(李惠燕)

죽방멸치

정의 죽방렴(竹防簾)을 이용해 잡은 멸치.

개관 죽방렴은 물살이 빠른 좁은 물목에 설치하는 함정어구이다. 죽방렴이라는 말은 방렴에 대나무발(竹簾)을 사용하면서 생겨났다. 방렴은 조류의 속도가 빠른 곳이나 물고기의 회유로에 설치하는데, 본래는 청어와 대구 등을 잡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인들의 멸치 수요가 늘면서 멸치를 잡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문에 싸리나무 등으로 성글게 엮던 발을 대나무로 촘촘하게 만들게 되었다. 현존하는 죽방렴은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과 창선 사이에 있는 지족해협(일명 손도)과 남해군 창선과 사천시 삼천포 사이에 있는 삼천포해협에 있다. 죽방렴에 포획되는 어종은 멸치·삼치·갈치 등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주된 어획 대상물은 멸치이다.

내용 죽방렴 어업은 보통 음력 2월 중순이나 3월부터 시작하여 10월 말 정도까지 행한다. 추운 겨울철에는 물고기도 잘 들지 않고,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물을 철거한 후 고장 난 곳을 수리한다.

봄철 조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 한 달 정도는 ‘지름치’라고 불리는 멸치가 잡힌다. 이는 대개 첫갈용으로 쓰인다. 그 후에는 ‘실치’ 혹은 ‘시레기’라고 불리는 잔멸치가 잡힌다. 이는 볶아서 반찬으로 이용한다. 이 잔멸치가 보름 정도 자라면 ‘비재이’ 혹은 ‘배쟁이’라고 부르는 멸치로 성장한다. 이 배쟁이는 삶을 때 시간을 잘못 맞추면 쉬이 배가 터진다. 배가 터진 멸치는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배쟁이가 한 달 정도 자라면 중간 멸치가 된다. 이를 ‘중사리’라 한다. 윤택이 나고 보관이 편리하며, 맛도 좋아 최고로 쳐 주는 멸치이다. 이

중사리는 추석 전후까지 나오는데, 음력 8월 이후에는 멸치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기름이 차서 맛은 있으나 가격은 점점 내려간다. 중사리 이후에 잡히는 가을 멸치는 젓갈용이다.

조업은 하루에 두 번씩 이루어지는데, 조업 시간은 조석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보통 여덟 물에서 열두 물 사이가 물살이 빠르므로 많은 어획량을 올릴 수 있다. 바닷물이 빠져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간조(干潮) 때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정조(停潮) 시간에 맞춰 조업한다. 정조 시간이 되면 발통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죽방렴 안으로 들어간다. 발통 안에 부유하는 쓰레기를 걷어 낸 후 후릿그물로 멸치를 모은 다음 쪽대로 담아낸다. 사각으로 만든 발통 중에는 들망처럼 그물을 설치하여 잡힌 물고기를 걷어내는 것도 있다.

이렇게 갓 잡은 멸치는 바로 삶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멸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멸치는 멸막에서 삶는데, 이곳에는 숯·선반·저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다. 숯에 물을 채운 다음 소금을 넣고 끓인다. 소

금을 넣는 양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끓인 물속에 갓 잡아 온 멸치를 넣고 삶는데, 어느 정도 익으면 멸치가 떠오른다. 멸치가 떠오르면 대나무로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건져 낸다. 대나무로 만들어져 물기가 쉽게 빠지고, 삶은 멸치를 건져 내기도 쉽다.

건져 낸 멸치가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 이를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 물고기를 찌서 말리는 자건법(煮乾法)이다. 건조 과정을 마치면 크기에 따라 선별과정을 거치고 이를 상품화하여 판매한다.

특징 및 의의 멸치는 성질이 급해 잡히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다. 따라서 잡은 멸치를 얼마나 빨리 삶아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지가 멸치를 상품화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권현망(權現網)을 이용해 그물로 잡은 멸치를 대형 가공선으로 옮겨 소금물에 통째로 찌내는 것이다. 아울러 멸치 삶는 물에 넣는 소금의 양과 삶는 시간에 따라 말린 멸치의 맛이 달라진다. 그물로 잡는 일반 멸치와 달리 죽방멸치는 비늘이나 몸체의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잡힌다. 또한 잡은 후 단시간 내에 삶아 말리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죽방멸치는 조류를 이용하는 전승 지식과 바로 가공할 수 있도록 설비를 준비한 어민들의 현장 지식이 더해져 만든 소중한 문화자원이다.

참고문헌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죽방렴 관련 의례에 나타난 어로관념(박종오, 남도민속연구22, 남도민속학회, 2011),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 용역 농경·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경상도 지역(한국예술평합학교 아태전통연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9).

필자 박종오(朴宗吾)

중선망 中船網

정의 조선 후기에 주로 청어나 조기 등을 잡던 재래식 어조망(漁條網).

내용 19세기 초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전어지(佃漁志) 중 어조망 항목은 ‘중선망’이라고 부르는 어법을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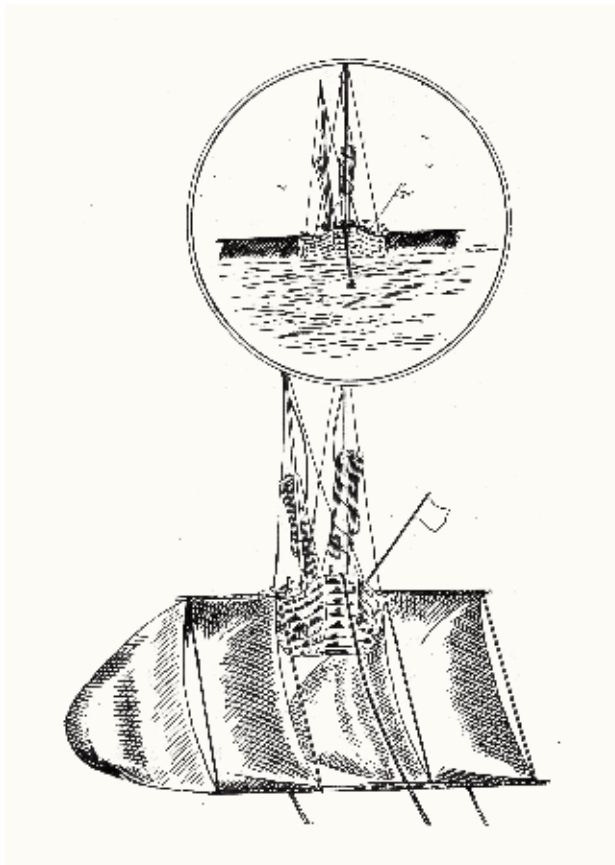
죽방렴 멸치잡이 | 경남 남해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히 설명하였다. 이 어업은 조류가 강한 시기에 청어나 조기 등이 회유하는 길목에 멈춰 서서, 어조망 한 쌍을 어선 양측에 부착하여 내린 뒤 물고기가 강한 조류에 휩쓸려 어조망 안으로 들어오면 어조망을 끌어 올려 어획한다.

이때 어선 양측에 매다는 어조망은 그물 입구 사방이 48발(72m)이고 앞뒤 길이가 45발(68m)이었다. 어조망 입구의 위아래로 12발가량의 소나무를 각기 매고, 어조망의 입구 한 변의 길이가 12발(18m, 1발을 1.5m로 계산) 내외이면 망구가 대략 정사각형 모양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앞뒤 폭은 어조망의 길이인 68m이고, 좌우 폭은 어조망 한 쌍의 길이인 약 36m에 선체의 폭을 약 5m로 가정해 더하면 당시 어조망을 부착하고 조업하는 중선의 크기는 대략 40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큰 그물을 사용한 것은 ‘그물이 아주 큰 것이 아니면 물고기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물이 크고 튼튼하지 않으면 조류에 휩쓸려 들어오는 수많은 청어나 조기 떼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때문이다.

큰 그물을 사용하기에 어선도 상당히 큰 것을 사용해야 하였다. 조류가 강할 때 큰 그물을 끌어 올려야 하였기에 ‘배가 아주 큰 것이 아니면’ 물고기 떼와 조류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복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전어지의 포석수어법捕石首魚法에 따르면 물고기가 조류에 밀려 그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이었기에 중선의 구조는 파도와 바람을 이기고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어야 하였다. 이처럼 대형 어망과 어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어민이 필요하였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권1의 도해편은 “중선에는 어부 25명 내지 30명이 탑승하며, 여기에 300관 내외를 어획한다.”라고 기록하였다. 당시에는 『한국수산지』의 설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중선도 많았던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 1913년 8월 6일 자에 실린 ‘안강망 어업 장래鰵網漁業將來’라는 기사를 보면 조선의 재래식 중선 한 척에 약 40명이 탑승하였다고 기록



중선 | 한국수산지 | 1908



후리선 | 기산풍속도첩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되었다.

조선 후기 번성하였던 중선망과 중선어업은 위에 서술하였듯이 거대한 그물을 사용하여 일시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한꺼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어법이었다. 그러나 어구 준비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였고, 조업에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서해 청어가 사라지고 주요 어군魚群의 밀도가 줄어들던 20세기 전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법이 되었다. 이에 19세기 후반 일본 규슈 북서부 아리아케해에서 발명되어 1900년쯤 한반도로 전파된 안강망으로 점차 대체되었다.

일본 규슈에서 안강망은 본래 젓새우·새우·도미 등을 잡기 위해 고안된 소형 어구였다. 한반도로 도입된 초기에는 ‘연승, 외줄낚시’ 등을 겸하는 3~4인용의 소형 어선에서 사용하였다. 1900년대를 거치며 안강망과 안강망 어선은 급속히 대형화되었다. 조선 서해 어민의 주요 어획 대상이었던, 서해의 강한 조류에 휩쓸려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떼를 지어 다니는 조기를 잡기 위해서 안강망과 어선은 자연히 더 커지고 견고해졌다. 큰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 위해 승조원도 늘어났다.

특징 및 의의 어조망이라고도 부르던 중선망은 조선 후기에 번성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안강망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지금도 서해 어민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재래식 어조망 어선을 대신해 등장해 조기, 갈치, 젓새우 등을 잡던 안강망 어선을 중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지속은 어조망으로 대표되던 중선망이 안강망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이 조선 어민에게는 단절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안강망은 재래식 어조망과 조업 방식은 다르지만, 그물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강망 도입은 청어와 조기 어업에 집중해 온 조선 어민이 20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변용하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20세기 전반 일본 안강망 기술의 전파와 조선 어민의 수용 과정(오창현, 도서문화4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4), 韓國水產誌(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안강망 어업 장래(매일신보, 1913.8.6.).

필자 오창현(吳昌炫)

정의 한선의 전형적 형태인 비우식 평저선으로 조선 후기부터 1930년대까지 서해안 일대에서 사용한 조기잡이 어로선.

역사 조선 전기 경제성 높은 어종인 조기는 특정 세력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조간대에서 주목망을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잡았다. 그러다 청나라가 개국하여 해금정책海禁政策과 공도정책空島政策을 표방한 명나라에게서 자유로워지자 17세기 중반부터 한반도의 섬과 바다가 개방되어 섬으로 이주하고 바다에 나가 어로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어업세력이 자본, 도구, 기술, 인력 등을 동원하여 바다로 진출하여 조기잡이를 하였는데 이때 등장한 어선이 중선이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전어지佃漁志에 중선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물고기가 오는 때를 정확히 알아 어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배를 세우고, 칩 껍질로 엮어 만든 어망을 내려 고기를 잡는 어선으로 소개되었다. 바닷물고기가 왕래하는 데는 시후時候(봄·여름·가을·겨울 사철의 절후)가 있고 물고기가 나다니는 길[條路]이 있다. 어부는 시후를 살펴 큰 배를 타고 투조投釣하여 길목에 세우고 선저宣低에 현망懸網하여 이로써 고기를 잡는다. 그러므로 어조망이라고 한다(연안 어부는 어선을 중선이라고 하고 어망을 중선망이라 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다). 그물을 칩껍질[麻繩]로 만든다. 해선醃船이라고 하여 젓갈 제조용 새우를 잡는 작은 것과 조기·청어 등을 잡는 큰 것이 있었다.

내용 평저형 비우식 중선은 서해 갯벌이 발달하고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 조업하기 위해 만든 배이고 표적 어종은 조기다. 어장에서 닻으로 어선을 고정해 뒤 망구를 벌려 주목망처럼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를 포획한다.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어군이 다니는 길목에 큰 닻으로 배를 고정하여 조류의 흐름에 맞서게 하고, 주목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어망 두 통을 어선의 현舷(배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 측에 달아 들어오는 고기를 잡는다. 비교적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배의 크

기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어부 25~30명을 기준으로 규모가 그 이상이면 대선, 이하면 소선이라고 한다.

두 개의 돛과 하나의 노가 있다. 바람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이물과 고물 규격이 거의 비슷하고, 상자 모양으로 생겼다. 고물비우에 키가 달렸고, 내려 쫓게 되어 있다. 선원은 25~30명이고 총길이가 40~50자 정도다. 줄을 많이 쓰는데, 짚 줄과 칩 줄을 쓴다. 그물을 달고 있는 암해와 수해를 이물에 차고 있으며, 양쪽에 두 개의 주머니그물을 달고 있다. 수해가 물 위로 나오면 그물도 어느 정도 물 위로 나온다.

선원이 하는 일은 닻줄을 조정하기 위해 망개를 돌리고, 그물을 올리고 내리기 위해 호룡을 돌리며 고기를 퍼 올리는 일이다. 무거운 줄을 많이 사용하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고기를 잡을 때 닻을 앞쪽에 준다. 닻이 가운데에 있어야 양쪽으로 두 군데 그물을 달 수 있다.

갑판은 판자로 된 널장을 깔았다. 널장 위에 나무와 풀로 우장처럼 만들어서 지붕 뒤통 가운데로 마주해서 덮어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도록 하였다. 그것을 ‘뚝’이라고도 한다.

줄은 칩으로 꼰 줄을 많이 사용하였다. 큰 배가 그물을 양쪽에 달고 닻줄에 매달려 조류에 맞선다. 닻에 긴 줄이 달렸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줄이 굵고 무거워서 “한 발도 지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다.

돛대는 이물돛대와 고물돛대 두 개가 있다. 이물돛대가 큰데, 이 점은 다른 배들과 비교할 때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물돛대는 이물대라고도 하며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 고물돛대는 고물대라고도 하며 뉘어져 있다.

사공이 키를 잡는다. 키에는 손잡이를 꽂는 구멍이 3~4개쯤 뚫렸다. 키가 원래는 배 밑창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얇은 곳으로 들어갈 때는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이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키를 내린다. 키 조정하는 손잡이가 키에 꽂혀 있는데, 이를 ‘창나무’라고 한다. 창나무에는 ‘장창나무’와 ‘중창나무’가 있다. 장창나무는 키를 다 내리고 꽂는데 깊은 물에서 사용하며 길이는 두 발 정도 된다. 중창나무는 얇은 물에서 키를 올리고 단단하게 당겼다 밀었다 하며 길이는 한 발 정도 된다. 암해와 수해에 그물을 연결하고 배 양쪽에 호룡이 있어 호룡으로 그물통을 조종한다. 가운데 있는 망개



중선배 | 인천 강화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중선배 | 인천 강화 | 1994 | 국립민속박물관

로는 닻을 조종한다. 그물 길이는 배 길이와 비슷하다. 고기는 물살의 흐름을 따라 그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물 아래쪽에 ‘불띠기’와 ‘막꾸리’가 있다. 불띠기는 그물통을 배 위로 달아 올리는 부분이다. 막꾸리는 고기가 모이는 그물 끝부분으로, 불띠기에 줄을 묶은 후 호룡을 돌리며 달아 올릴 때 배 위로 올라오는 부분을 뜻한다. 만일 그물에 수십 동 또는 100동의 조기가 들면 다 달아 올리지 못하기에 그물을 바짝 당겨놓고 ‘태’로 뜬다. ‘태’는 고기 뜨는 채를 말하며 그물 안에 태를 넣어서 뜬다.

특징 및 의의 평저형 비우식 전통 한선 형태의 중선은 수심이 낮은 서해안에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어로선이다. 중선은 조선 후기 바다가 해방되어 자본가들과 어민들이 바다로 진출하고, 사람들이 다시 섬에 들어가 살게 된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한반도의 바다가 어류로 가득 차서 황금 바다를 이룬 때다. 한반도의 어업 세력은 조기가 회유해 오는 서해안 연평어장과 칠산어

장에서 중선을 이용하여 어로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이 자본이 조선 후기 문화예술과 혁신을 조성하는 뒷받침이 되었다. 조선 후기 서해안에서 활동한 배들은 대부분 중선의 형태였고, 규모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군선으로서 전통 한선의 대표와 전형이 거북선이고 판옥선이라면 중선은 어선으로서 전통 한선의 전형이다.

참고문헌 林圖十六志, 서해와 연평도(나승만 외, 민속원, 2011), 한국어업사(박구병, 정음사, 1975), 한국의 해양문화1-서남해역 하(해양수산부, 2002),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필자 나승만(羅承晩)

증발지

蒸發池

정의 염전 지면을 직사각형의 여러 단으로 구획해서 저수지의 해수를 끌어들여 놓고, 햇볕과 바람에 의해 그 해수를 증발·농축하는 공간.

내용 증발지를 뜻하는 ‘난치’와 ‘누테’는 ‘빠또(호장 밑의 부책임자)’ 등과 함께 우리 염전에 흔적을 남긴 대표적인 중국어이다. 천일염전의 구조나 직위 등에 대한 용어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대부분 사용되나 일본어(15%), 중국어(3.78%), 기타 외래어 등도 함께 사용된다.



증발지 | 전남 신안 | 2016 | 신안군

증발지는 제1증발지(난치)와 제2증발지(누테)로 구분된다. 보통 제1증발지는 6단 2열로, 제2증발지는 4단 4열로 구축되는데 지역에 따라 크기와 단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해수는 각 단계를 지나면서 염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이 많을수록 증발이 잘된다. 제1증발지가 제2증발지에 비해 두 배가량 면적이 넓은 것은 증발된 해수가 아랫단으로 내려갈수록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천일염의 생산과정은 저수지의 해수를 제1증발지에 투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처음 보메 비중Baumé 2.5도에 불과하였던 해수가 난치 1단에서 약 8도의 함수가 되고, 다시 제2증발지 1단에 도달하면 약 15~17도로 상승한다. 이를 해수에 보관하고 있던 25도의 포화함수와 섞어 결정지로 보내면 약 28도에서 소금 결정이 시작된다.

특징 및 의의 천일염전 도입 초기의 증발지는 관리 부족으로 지면의 경화硬化 상태가 불량하고, 또 이끼류가 번식하는 등 함수의 손실률이 매우 높았다. 아울러 기후나 자연환경이 다른 중국식 염전을 그대로 모방한 결과 증발지 각 단의 축소되는 비율이 적합하지 못하였다. 193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자연환경에 맞는 증발지의 개량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는데 염전 내부의 제1증발지, 제2증발지, 결정지의 면적 비율을 6.5:2:1.5의 비율로 규격화하였다. 이러한 표준 면적 비율은 광복 후 전매청이나 (주)대한염업 등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염전 용어에 관한 연구(김희진, 한국국어교육연구회는문집14, 한국어교육학회, 1976), 소금과 새우젓(윤형숙 외, 민속원, 2010), 천일염 생산시설의 변화(문홍일, 도서문화4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한국 근대염업의 네트워크와 그 특성(류창호,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필자 류창호(柳暢浩)

지누아리채취

정의 얇은 바닷속으로 자맥질하여 바위 위에 돌아난 해초를 칼로 베어내는 일.

개관 지누아리는 홍조식물문 지누아리목 바닷말의 한 과로, 툇과 비슷한 해초이다. 수심 1.5~2m의 바닷속 암반 위에 서식한다. 강원도 전역의 해안가 바위 위에 돌아나는데, 특히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그 곳을 ‘지누아리밭’이라 할 정도로 많이 자란다. 특유한 식감과 맛을 지니고 있어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강릉대도호부와 강원 고성군의 토산조土産條에 지누아리인 참가사리[細緹]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지누아리가 16세기에 이미 지역 토산물로 유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채취하려면 해녀처럼 자맥질로 물속 깊이 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자맥질만 할 줄 알면 누구라도 지누아리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누아리의 주요 생산자는 지누아리를 채취해 생계수단으로 삼는 부녀자들이었다. 해녀라 부르지만 깊은 물속을 다니는 해녀와 달리 얕은 물가에서 자맥질로 해초를 뜯는다고 하여 ‘반해녀’로 구분하기도 한다. 값비싼 미역이나 전복·성게 등을 채취하는 해녀는 지누아리를 채취하지 않는다. 지누아리를 채취하는 사람들

은 ‘반해녀’라 불릴 정도로 그 직능이 제한적이지만, 물질을 할 줄 알기에 일반인과 달리 특별한 직능을 지녔다고 본다.

내용 지누아리밭은 강원 고성의 청간정을 비롯해 고성 가진항, 속초 외옹치, 양양 물치리, 강릉 정동진과 사천진항 일원 등이다. 이들 지누아리밭은 각 마을 소유로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채취할 수 있지만, 다른 마을 주민은 채취할 수 없다. 생산량이 급격히 줄면서 지역 구분이 사라졌다.

지누아리 채취는 1년 내내 이루어지는데, 겨울철에 채취한 것은 딱딱하고 여름철에 채취한 것은 부드러워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 계절별 지누아리를 다르게 즐긴다. 지누아리를 베어내고는 일정 기간 자라는 시간을 주기 위해 보름에 한 번씩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 바람이 불면 조업을 하지 않는데, 보통 한 달 동안에 총 10일 정도 작업한다.

해안가 수심 1~2m에 주로 서식하므로, 해녀는 주머니를 매단 고무튜브에 줄을 연결해서 자신의 허리에 묶고 튜브에 의지하여 작업한다. 얼굴을 물속에 넣고 물안경 너머로 지누아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어두운 새벽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물안경 너머 물속 세상을 훤히 내다볼 수 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얼굴은 물속에 넣고 지누아리를 찾아 물속 이곳저곳을 헤맨다. 지누아리가 보이면 물속으로 자맥질해 들어가 손에 든 칼로 지누아리를 베어낸다. 수백 번 자맥질해야만 주머니를 채울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해녀는 지누아리와 다른 해초가 함께 섞여 있으므로 식용이 가능한 풀과 먹지 못하는 ‘써거리(바다풀의 일종)’ 등의 잡풀을 골라낸다. 고른 지누아리는 생것으로 장에 내다 팔거나 상인에게 넘긴다. 참지누아리는 말리고, 물지누아리는 생것으로 판다. 잎이 두껍고 딱딱한 참지누아리는 주로 장아찌로 만들고, 물지누아리는 조직감이 단단하지 않아 말리지 않고 무침으로 만든다.

특징 및 의의 지누아리는 수심 1~2m에 서식하므로, 자맥질을 해야 채취할 수 있다. 강원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은 가계에 보태기 위해 지누아리를 채취해 왔

天

지누아리 채취



지누아리 고르기 | 2019 | 김효경

다. 깊은 수심에서 작업하는 해녀와 달리 낮은 수심에서 조업하므로 반해녀의 일이다. 조선시대부터 강원도의 특산물이었기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지누아리에 대한 추억들이 많다. 지누아리는 수백 번의 자맥질을 통해 채취한 후 고르고 말리는 등의 번잡한 수작업을 거쳐야 완성되는 식재료이다. 한마디로 부녀자들이 힘겨운 노력 끝에 얻는 산물이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용역 농경·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강원도 지역(한국예술통합학교 아태전통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9), 디지털강릉문화대전(gangneung.grandculture.net), 한국전통지식포털(koreantk.com).

필자 김효경(金孝慶)

지도총쇄록

智島叢瑣錄

정의 1895년(고종 32) 초대 지도군수智島郡守로 부임한 오횡묵吳弘默이 지도군 관할 부속 도서의 행정 및 생활상에 대해 일기체 형식으로 작성한 일지.

내용 오횡묵은 19세기 말에 10년 동안 강원도 정선군수, 경상도 자인현감·함안군수·고성부사·진보군수, 전라도 지도군수·여수군수·익산군수, 경기도 평택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임지의 행정 및 생활문화를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총쇄록'이라 하였다. 그가 작성한 총쇄록으로는 『정선총쇄록旌善叢瑣錄』(1887년 3월~1888년 8월), 『자인총쇄록慈仁叢瑣錄』(1888년 8월~1889년 4월), 『함안총쇄록咸安叢瑣錄』(1889년 3월~1893년 2월),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1893년 1월~1894년 11월), 『지도총쇄록智島叢瑣錄』(1895년 2월~1897년 5월), 『여수총쇄록麗水叢瑣錄』(1897년 5월) 등이 현전한다.

그중 『지도총쇄록』은 필사본 2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속표지에 '전라도지도군총쇄록全羅道智島郡叢瑣錄'이라 기재되었다. 이 자료에는 1895년 2월 11일부터 1897년 5월 17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지도군 부속 도서의 행정 전반에 관한 내

용이 담겨 있다. 본 자료의 첫 장면은 1895년 2월 11일 오횡묵이 고종을 알현하는 대목으로, 고종은 오횡묵에게 "지금 전라도의 섬들이 대양 한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당초 내륙지역 군읍에 속해 있었던 것은 당시 형편에 따른 것이다. 근래에 오래된 제도로 인하여 폐단이 발생하고 섬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육지 사람들에게 편박을 받으니, 동일한 군왕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 슬프다. 그대가 이 일을 맡아 형편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오횡묵이 지도군수로 임명된 것이다. 이후 오횡묵은 임지로 가기 위해 한양에서 출발하는데, 노정은 육로가 아닌 뱃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도총쇄록』에 한강을 통해 강화도로 이동한 다음 서해 연안을 따라 지도智島로 향하는 여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지도는 전근대 나주목의 부속 도서이다. 1896년 2월 3일 고종은 칙령 제13호 '전주·나주·남원부 연해 제도諸島에 군을 설치하는 건'을 발표하였다. 즉 전라도 서남해역에 3개의 군郡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바로 지도군·완도군·돌산군 등이다. 당시 내무대신 박정양朴正陽은 "이번 전라도에 3군郡을 설치한 특별한 이유는 내지內地와 도서島嶼를 동등하게 인식하려는 뜻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만경(현 전라북도 김제)부터 광양 해역에 있는 200여 개의 섬을 한 구역으로 묶어 지도군을 개설하였다. 또 남해안 영암·해남·강진의 크고 작은 섬을 한데 묶어 완도군을, 홍양(현 전라남도 고흥)에서 광양까지의 섬을 한데 묶어 돌산군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서남해역의 모든 섬이 신설 군읍에 편제되었다. 섬에 군읍이 설치된 것은 행정편제의 변화이자 동시에 섬사람도 국가의 제도권에 포함함을 의미한다.

특징 및 의의 『지도총쇄록』에는 지도읍을 비롯하여 부속 도서에 관한 안내 정보가 수록되었다. 예컨대 산천, 지형, 포구, 마을, 지명, 호구, 호적, 행정편제, 동헌東軒, 관원官員, 병정兵丁, 면임面任, 하리下吏, 두민頭民, 방언감관防壩監官, 전답, 둔전, 궁방전, 목장, 목장전牧場田, 부세賦稅, 향회鄉會, 이회里會, 향약鄉約, 절목節目, 향교, 양사재, 서재書齋, 시회詩會, 풍속, 민속, 유배인, 효열孝烈, 보부상, 순시巡視, 대한제국 시기 지도군 관내 16개 면面の 구획,

섬에서 일어난 사건, 일본 사람들과의 갈등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 정보가 담겼다. 섬의 행정편제를 구축하기 이전과 이후의 제도 변화를 읽고 해석하기에 적절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1896년 지도군 창설과 서남해 도서 지배구조의 재편(송양섭, 한국사학보26, 고려사학회, 2007), 국역 지도군총쇄록(오형목, 김정섭·김형만 역, 신안문화원, 2008), 섬과 바다의 사회사(김경옥, 민속원, 2012), 지도군총쇄록(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금호문화재단, 1990), 지도군총쇄록을 통해 본 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의 위상변화(김경옥, 역사학연구29, 호남사학회, 2007).

필자 김경옥(金京玉)

진수식

진수식

진수식 進水式

정의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바다에 띄울 때 행하는 의식.

개관 진수식은 새롭게 건조한 배를 물에 띄우는 시점에서 목수의 수고를 격려하고 선원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선주가 제물을 준비하고 도목수가 의식을 주관하며, 선주에 따라 무당을 초빙하여 굿을 하기도 한다. 배에는 선주의 친지나 친구들이 선물한 삼색기·오색기·대어기를 걸어 화려하게 치장하고, 통돼지·시루떡·삼색과일·생선·술 등의 많은 제물을 배에 진설한 뒤 폐선廢船될 때까지 배가 튼튼하고 만선을 거두기를 빈다. 의식은 도목수·선주 순서로 재배를 하고, 고사가 끝나면 소금·술·쌀 등을 배 위에 뿌려 부정을 가시게 한 다음 배를 바다로 내리는데 이때 ‘선왕떡’을 의식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던진다. 선왕떡은 지폐와 동전을 넣은 떡으로, 이것을 주운 사람은 한 해 동안 재수가 좋다고 하여 서로 앞다투어 줌는다. 고사가 끝나면 도목수가 선주를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그 때야 배가 재수가 좋다고 한다. 한편 경상남도 통영 지역에서는 돼지머리와 돼지 발목의 뼈를 서낭이 있는 선장실에 걸어두고, 도목수는 어선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는 의미에서 배의 뒤쪽 이물 쪽에 틈을 내어 돈을 넣어주기도 한다. 선주는 그간의 답례로 도목수에



황포돛배 진수식 | 서울 마포구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진수식을 ‘목수 생일날’이라고 한다.

내용 진수식은 선주 개인은 물론 마을 잔치 형식으로 진행된다. 배를 내릴 때는 둥근 나무를 깔고 굴려서 물에 띄우기 때문에 많은 손이 필요하다. 배 내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합세하여 배를 굴리고 선주는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경남 마산시 귀산동貴山洞에서는 195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처녀가 배를 끌게 하였는데, 젊은 여자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처럼 배가 만선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어선에 건 각종 깃발은 진수식 때 모두 처음 등장하는데, 어선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진수식 분위기를 더욱 띄운다. 그런데 지역별로 다른 서낭기의 인식 차이에 따라 진수식 때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선주에게 선물하는 깃발도 차이가 난다. ‘上’자 깃발을 서낭기로 보는 서해지역에서는 삼색기나 오색기 또는 대어기를 선물하고, 삼색기나 오색기를 서낭기로 인식하는 동해와 남해안지역에서는 보통 대어기를 선물한다. 그러나 강원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주에게 삼색기 또는 오색기를 선물하기도 하는데, 이때 선주 자신이 준비한 오색기만 서낭기로 인식하고 평상시 배고사나 만선 때 이 깃발만을 건다. 선주의 서낭기는 선물로 받은 오색기보다 크게 만들어 변별력을 가지게 한다. 한편 대어기 선물 풍속은 한국의 전통적 풍속이 아닌 일본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삼색기·오색기 등을 선물하는 풍속도 염색기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낭기는 현재 현수막을



진수고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작하는 업체에서 실크 인쇄기로 제작하지만, 과거에는 전주 가정이나 무당들이 대신 만들어 주었다. 동해안지역에서는 무당으로부터 좋은 날짜를 받아 선주가 직접 만들었고, 서해지역에서는 선주가 제작하기도 하지만 무당이 대신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서낭기 제작은 하루를 넘기지 않으며, 무당의 제작 비용도 깎거나 흥정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1978년 경남 창원(현 통영) 지역의 서낭기 제작비는 5,000~8,000원 정도였는데, 대략 쌀 한 말 가격으로 비싼 편이다.

오늘날 진수식 때 배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주된 것발은 대어기大魚旗이다. 대어기는 ‘만선기’라 불리기도 한다. 대어기의 문양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고기 그림이며, 해당 어선이 잡는 주 어종을 그려 넣는 것이 전통이지만, 잡는 어종이 점차 무시되면서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대어기에 많이 등장하는 물고기가 도미와 새우인데, 보기도 좋으면서 눈에 잘 띄고 그리기 쉽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진수식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축제적인 의미가 강하며,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음식과 노래 등으로 잔치 분위기를 냈다. 선주 친지나 친구들이 술 등을 사 오기도 하였다. 또한 어선에 걸린 깃발의 수를 보고 그 선주의 인간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어촌마다 어선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진수식을 거행하였지만, 현재는 대도시 조선소에서 어선을 주문·제작하여 가져온다. 그러다 보니 마을공동체가 참여하여 배

를 내리는 진수식은 사라졌고, 현재는 대어기·오색기 등의 깃발만 걸어 어선이 새롭게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준다.

참고문헌 경남 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동남해안의 어로민속(김몽상, 한국민속학16, 한국민속학회, 1983), 뱃고사의 서낭기에 대하여(하효길, 한국민속학12, 한국민속학회, 1980), 부산지방의 어로속신 고(류종목, 민속문화1-1, 동아대학교문리과대학 부속 한국민속문화연구소, 1978), 어로민속(권삼문, 한국민속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집문당, 199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농악·풍어제·민요(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한·일 뱃기 장식 비교 연구(정연학, 민속연구3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7), 한국의 배서낭과 어로금기(정연학,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3,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일해양민속지(정연학 외, 국립민속박물관, 2018).

필자 정연학(鄭然鶴)

집어등 集魚燈

정의 추광성趨光性 어종인 오징어와 갈치 따위를 포획할 때 선박 주변이나 어장 주변으로 어군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내용 집어등은 추광성 어종인 오징어와 갈치 따위를 포획할 때 선박 주변이나 어장 주변으로 어군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이다. 과거에는 햇불이나 카바이드불, 수박등, 남폿불(램프)을 사용하였다. 수박등은 석유를 이용한 호롱불 원리와 유사한 것으로, 수박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수박등이라고 불렀다. 램프불은 휘발유를 이용한 것으로, 당시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남폿불과 같은 형태이다. 1970년대 초부터 건전지(일명 뽕짝이)를 이용하였다. 당시 죽변항의 어민들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사용하던 외줄낚시법인 ‘돔보낚시’를 이용하였다. 돔보낚시는 돔보라고 부르는 ‘추鍾’을 낚싯줄의 중앙에 부착하여 원줄을 손으로 조작하며 잡는 낚시 방식이다. 죽변항의 어민들은 보통 두 개의 낚시와 추를 부착한 돔보낚시를 직접 제작하거나 선구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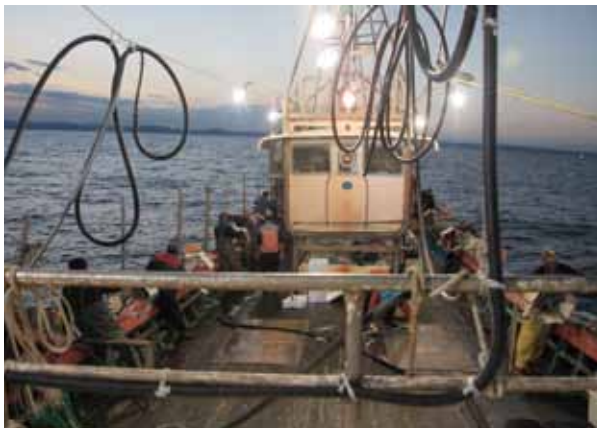
돔보낚시를 할 때 집어등 역할을 하는 건전지를 이용한 방식은 50여 년 전인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돔보낚시에 건전지를 부착한 형태로, 죽변항 어민

들은 이를 '전기돔부'라고 부른다. 당시 어민들은 선구 점에서 건전지가 부착된 돔보낚시를 구입하거나 건전지 뭉치만을 별도로 구입해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오징어 철이 되면 죽변항에는 불박이 선구점 외에도 외지에서 들어 온 이동식 선구 판매상이 다수 있었다. 이들 이동식 판매상은 오징어 회유지를 따라 항포구를 돌아다니며 돔보낚시를 비롯한 어구들을 팔았다.

오늘날 오징어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전구를 이용한 집어등은 1980년 무렵 축전기가 등장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에는 축전기 대신 자가발전기를 선박에 설치해 사용하였다. 백열등을 사용하면서 백열등의 열과 밝기가 너무 강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때문에 선원들은 반드시 불빛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였다. 최근 국립수산물과학원과 수산업계에서는 형광등이 수은 등 환경오염 물질을 지녀 LED집어등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집어등 | 국립민속박물관



집어등 | 경북 포항 | 2010 | 류지형

특징 및 의의 수산업계에서는 형광등이 에너지 효율성은 높지만, 수은 등 환경오염 물질을 지니고 있어 백열등과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광원으로 LED 램프를 권유하고 있다. 어선 한 척당 사용하는 집어등 광력은 10t 미만인 연안어선의 경우 81kW, 29t급 근해어선은 120kW, 69t급 근해어선은 132kW를 사용한다. 현재 집어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램프는 메탈할라이드 램프로서 한 개의 전력소모량이 1.5kW 규모이다. 24t급 채낚기 어선의 경우 500~700HP급 자가발전기 2대를 비치하고 1.5kW 램프 80개를 장착한다. 현행 법규는 12kW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조업에 나서기 전에 선주와 선장은 반드시 선박에 설치된 자가발전기의 성능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조업에 나서면 주로 오후 6시 50분에서 7시쯤에 집어등을 켜다. 밤새도록 조업을 한 후 일출 무렵에 집어등을 끈다.

참고문헌 기계공학대사전(기계공학대사전편찬위원회, 집문사, 1991), 울릉군지(울릉군지편찬위원회·울릉군, 2007),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 2013), 현지조사자료(남성목, 경북 울진, 2021.6.10.).

필자 남효선(南孝鎭)

짓가림

정의 풍선배 시절 고기잡이에서 선주와 선원이 어획물을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분배하는 것 또는 방식.

내용 짓은 어획물을 분배하는 단위이다. 선주는 배를 비롯하여 그물 같은 어로 도구와 비용 일체를 담당하고, 선원들은 어로 기술과 노동을 제공한다. 짓가림에는 뱃짓과 몸짓 등이 있는데, 뱃짓은 선주가 차지하는 몫이다. 여기에는 출어 비용을 포함한 제반 경비가 포함된다. 조기잡이 중선이나 닛배 등 원거리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뱃짓의 비중이 높고, 마을 인근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뱃짓의 비중이 낮다. 몸짓은 개별 선원들이 차지하는 몫이다. 지역마다 다른 점이 있지만 장기간 출어하는 조기잡이 풍선배 어로선의 경우 뱃짓과 몸짓의 분배는 6:4 또는 7:3이 기본이다.

선원 간 짓가림 비율

번호	역할	기본 임금	추가 임금	개별 그물 수량	임금 합계
1	사공	1.5	0.5	1폭	2짓
2	일등수동무	0.5	0.5	1폭	1짓(원짓)
3	일등수동무	0.5	0.5	1폭	1짓(원짓)
4	선원	0.5	-	-	0.5짓(반짓)
5	선원	0.5	-	-	0.5짓(반짓)
6	선원	0.5	-	-	0.5짓(반짓)
7	선원	0.5	-	-	0.5짓(반짓)
8	선원	0.5	-	-	0.5짓(반짓)
9	선원	0.5	-	-	0.5짓(반짓)
10	선주	-	-	6폭	3짓

짓가림은 짓나눔이라고도 한다.

전라남도 진도 조도면의 닻배 조기잡이의 경우는 10짓을 단위로 나눈다. 선주와 선원이 6:4로 나눈다. 선주가 여섯 짓, 선원(동사 또는 뱃동무)이 네 짓을 갖는다. 이를 사륙제라고 한다. 선원이 14명이라고 하면 네 짓을 열다섯으로 나누어 사공과 화장은 반 짓을 더 가지고, 나머지 동사들은 똑같이 나눈다. 그리고 조금 남겨서 고생한 이물사공에게 더 주는데, 이를 도둑이라고 한다.

전남 장흥 대덕읍 방배 어로에서는 짓가림으로 분배하는데, 뱃짓 한 짓을 포함해서 세 짓으로 나누어 배임자가 두 짓을 받는다. 전남 고흥 도덕면 용동리 전어잡이에서는 짓가림제로 소득을 나눈다. 선원들이 여덟 사람이기 때문에 뱃짓을 열여섯 짓으로 나누어 절반인 여덟 짓은 모든 물자를 제공한 선주에게 준다. 이물사공과 화장이 한 짓 반을 배정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이 나눈다. 전남 해남 북평면 묵동리 개맥이에서는 3:7로 분배하였다. 모든 장비를 준비하는 선주가 7을, 선원들이 3을 차지하였다.

전남 무안 청계면 복길리 유자망 조기잡이에서는 특별한 짓가림을 한다. 6·25전쟁 직후 씬판배 유자망을 사용하였는데, 이 시기에 선주와 선원이 3:7로 짓가림을 하였다. 선주와 선원 일부가 개별로 그물을 준비하고, 그만큼 짓가림에서 추가 분배를 받는다. 아홉 명의 선원 모두 반 짓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그물을 가지고 간 선원은 반 짓을 추가하고, 선장(사공)은 그물의

추가 여부와 상관없이 한짓 반을 받는다. 선원들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주가 갖는다. 즉 그물이 반 짓의 몫이 된다. 그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선장과 일등수동무에 한정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남 신안 가거도 멸치잡이 배들은 마을의 전통적 짓가림을 따랐다. 한 배에 14명이 타고, 동네 규칙에 따라 뱃동무들은 모두 같은 짓을 받는다. 총 20짓으로 나누어서 선원 14명이 한 짓씩 먹고, 배 몫으로 한 짓, 배부인 몫으로 다섯 짓이 나간다. 배부인 몫은 경비이다. 또 가장이 없는 집에서는 멸치잡이 배가 들어오면 부인이 부두에 나가서 멸치 푸는 일을 돕고 일정한 만큼의 멸치를 받는데, 이를 공짓이라고 한다.

연평도 중선의 짓가림은 3:7제이다. 선원이 3, 선주가 7을 갖는다. 8명의 선원이 짓을 나눌 경우 선원들 몫을 모두 9짓으로 나눈다. 사공이 한 짓 반, 나머지 모든 선원은 한 짓씩 나누며, 이물사공에게 조금 더 준다.

갯짓은 갯벌에서 일할 수 있는 조업권이다. 조간대 해조류 채취가 발달한 마을에서는 한 집에 한 명씩 조간대 어로에 참여하여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이를 ‘갯짓 먹는다’라고 한다. 공동으로 참여하고 분배는 일의 능력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한다. 짓가림은 이때 채취한 해조류를 나누는 방식이다.

보합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어업 임금 지불의 형태인데, 어로 수입에 맞춰 짓가림처럼 분배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풍선배 시대와 다른 점은 선장·일등항해사·어로장과 일반 선원 간의 임금격차가 보다 크다는 점이다.

특징 및 의의 짓은 어획물을 분배하는 단위이다. 짓가림은 일체의 출어비용을 담당하는 선주와 기술 및 신체를 제공하는 선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의 관행이자 계약이다. 6:4는 선주와 선원들 사이의 분배 비율이다.

짓가림은 월급제와 달리 수확한 소득을 비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농업사회에서의 분배와는 완전히 다른 계산법이다. 농업사회의 경우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농업노동자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소득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향이 있다. 또 소득을 나누는 기회가 1년 1회 또는 2회 정도이다.

짓가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업사회에서는 소득을 나누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6:4가 분배하는 기준이다. 더구나 수확물을 거두어들이는 횃수가 한 어기당 여러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농업사회에 비해 열려 있다. 이런 점들이 조선 후기 섬과 바다를 격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짓가림은 조선 후기 등장한 획기적인 분배 방법으로 섬과 바다의 어민들을 발전시킨 동력이 되었다.

참고문헌 목범선 시대 연평도 조기잡이 망어로 민속지(나승만, 서해와 연평도, 민속원, 2011), 한국의 해양문화1-서남해역 하(해양수산부, 2002)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 2020).

필자 나승만(羅承晩)

짬

정의 미역을 비롯한 각종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패류와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바위.

내용 동해안에서는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 있는 바위 중 미역이 서식하는 바위를 짬이라고 한다. 짬에는 미역을 비롯한 각종 해조류가 서식해 이를 먹이로 하는 패류와 물고기들이 주변에 모여든다.

주요 소득원인 미역이 짬에서 많이 생산되기에 ‘미역바위[藪巖]’라 하며, 여기에 ‘곽암세[藪巖稅]’라는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서해안에서는 ‘갯바위’라고 부르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는 육지와 연결하여 형성된 바위를 함께 지칭하는 과정에서 불린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을 기준으로 짬은 다양하게 불린다. 개인소유가 허가되지 않던 곽암은 1908년(융희2) 칙령 제39호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서 왕이나 귀족들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되어 공암[公岩]과 사암[私岩]으로 구별되었다. 공암은 원래 궁내부 내장원의 소유로 국유화되어 있고, 사암의 경우 개인 소유 또는 지역 어촌의 공유로서 그 채취권을 전매할 수 있었다. 곽암의 소유와 이용 형태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옛날부터 국가 소유였음을 알 수 있다. 관리 형태는 첫째, 국가의 처분·관

리에 기초한 곽암 지배, 둘째, 권문세가·관가의 조세 기능에 기초한 곽암 지배, 셋째, 어민의 곽암 이용권에 기초한 곽암 지배로 구분되었다. 저마다 곽암의 소유주라고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어민 집단인 어촌의 공동 소유와 이에 기초한 어민들의 공동이용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리하여 고려나 조선시대의 곽암은 전지[田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유 곽암에 대한 권문세가나 관가의 사점[私占]과 환원의 반복과정이라 볼 수 있으나 한말에 와서 곽암에 관한 제도적인 소유 형태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1911년 6월 제령 제6호인 전문 28조의 〈어업령〉이 공포되어 광복 전까지의 전용어장인 곽암의 소유·권리 형태는 어민의 집단인 어업조합이 어업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는 형태였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미역바위[藪巖]·미역밭[藪田]에 대한 소유 과정을 보면 매매를 통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을 입향이 오래된 가문들일수록 곽전주[藪田主]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는 상속을 통해 소유하게 된 사례들이 많다.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 수산자원에 대한 국유화 원칙이 선언되면서 곽전주 측이 끊임없이 곽전을 둘러싼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어촌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소유 관계를 알고 기에 그 권리를 당연히 인정해 주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마을 앞바다에 있는 바위들은 흔히 ‘○○네 미역들’ 또는 ‘○○네 돌’이라고 불렸다.

짬을 부르는 명칭은 해당 짬의 소유 관계나 형태, 주로 생산되는 조류 등에 따라 다양하다.

울산광역시 강동 지역 판지 어촌계에는 사유재산으로서의 곽암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판지어촌계의 11개 곽암 중에서 반암[班岩]은 일명 양반암[兩班岩]으로 불리는 곽암으로, 울산박씨 문중이 사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소유하고 있다. 이에 짬을 ‘양반돌’ ‘박윤웅[朴允雄]돌’ 등으로 부른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강원도 삼척을 비롯하여 동해안에 그 사례가 많다.

짬의 형태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해진 명칭도 있다. 경상북도 울진 나곡리에는 12개의 곽암이 있다. 그 명칭은 하구암·중암·마두암·내계암·가치암·잔찰암·송

어암·외계암·자잠암·우억암·마작암·사작암 등인데, 바위의 여러 가지 형상이나 특성을 따서 명칭을 달고 있다. 예컨대 미역바위 주위의 물결이 늘 잔잔하기에 ‘잔찰암’이라고 표기하고, 미역바위 주위에 숭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여 ‘숭어암’이라고 부른다. 추자도에서 툿이 자라는 바다밭을 ‘툿박우’, 동해안에서 미역이 많이 생산되는 바위를 ‘미역바우’라고 한 것은 생산되는 조류를 반영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짬을 통해 각종 패류나 돌김도 생산하지만, 이용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미역이다. 이에 미역을 중심으로 한 짬 운영 형태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마을 공동으로 채취하여 분배, 어촌계 주도, 마을에서 해녀를 고용하여 채취, 마을이나 어촌계에서 채취권을 판매, 개별 채취 등 다양한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계가 주관하며, 채취권을 상인이나 채취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받고 넘기는 형태이다. 강원 강릉시 심곡동에서 어촌계가 미역바위를 관리하는데, 매년 값을 정해 상인들에게 팔았다. 마을의 주민들은 상인들이 잠수부 등에게 맡겨 채취한 미역을 미역밭에 팔려 상인들에게 넘겨주고 인건비를 받는다.

동해시 대진마을에서는 마을의 주요 소득원이 공

동어장인 짬(물밑바위)과 모래 위 수면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이다. 짬과 주변에서는 미역과 다시마를 채취하고 전복과 성게 그리고 멍게 등을 채취한다. 해산물의 채취를 위하여 어촌계가 직접 나서지 않고 전문 채취자(잠수기배, 해녀海女, 해남海男)들에게 조업을 위탁한다.

둘째, 미역바위 이용권 추첨을 통해 어촌계원들에게 분배하는 형태이다. 곽암은 각 곽암에 따라 미역의 생산량이 다르고, 또 미역 채취작업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에 경북 울진군 나곡마을 사례를 소개하면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12개 곽암에서 생산 가능한 미역량이나 미역의 질과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곽암당 4~5명씩 인원을 먼저 배정해 놓고, 이에 각 계원이 추첨을 통하여 각자 이용할 수 있는 곽암을 배정받는다.

경상북도 영덕 노물리에서는 매년 어촌계 사무실에 각 가구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추첨을 한다. 그 결과 각 짬에서의 생산량에 따라 적게는 한 가구에서 많게는 여덟 가구까지 배정된다.

마을 주민 중 새로 전입해 온 사람은 7년, 분가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추첨을 통한 짬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즉 공동 자원 중 하나인 곽암을 분배받는다



갈남 앞바다의 짬 | 강원 삼척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은 이 마을 공동체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 셈이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미역바위를 소유한 경우 직접 또는 해녀 등을 고용하여 미역을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짬에 대한 권리는 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주로 주요 소득원인 미역에 한정하며, 일부 마을에서는 돌김 생산권을 권리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에 미역·돌김 이외의 각종 패류나 해조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미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소득을 안겨주는 짬에서의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 공동으로 또는 어촌계원들을 중심으로 짬에 붙은 각종 패류나 잡조류를 굵어내는 청소를 한다. 일종의 김매기인데 서해안에서는 이를 ‘갯닭이·갯딱기·갯바닥청소’라 하며, 동해안에서는 ‘짬매기·기세작업·돌매기·돌깎기·개닭기’라 하고, 제주도에서는 ‘바당 풀캐기’라 한다. 동해안에서는 해녀들이 호미나 기세 작업에 특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굵고 후벼내어 미역바위를 깨끗이 하는데, 이는 미역 포자의 안착을 돕고, 뿌리 부착력을 높여 파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특징 및 의의 짬 또는 갯바위가 있는 지역에서 어업공동체가 발달한 것은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가 경제성 있는 소득 작물로 특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역은 다양하게 활용되어 소비되었기에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여겨졌다.

조선 고종 대에 수축한 준경묘·영경묘를 유지하면서 청명제를 지내기 위해 삼척도호부에서 걷은 일부

마을의 곽암세(舊巖稅)를 양묘를 수호하기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라는 기록이 『고종실록(高宗實錄)』에 전한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에 부과된 해세(海稅)는 크게 ‘어염선곽세(漁鹽船舊稅)’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해조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곽세(舊稅)라고 한 것으로 보아 미역이 해조류를 대표하였고, 이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왕실과 권문세도가에 의해 곳곳의 곽암·곽전이 사점(私占)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해조류가 어촌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어업공동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채취·분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걸친 10여 년은 제1종 공동어장의 분쟁이 가장 빈번하였던 시기인데, 심한 경우 집단 간 난투극이 어장에서 벌어지기도 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를 속칭 ‘미역바위싸움’이라 한 것으로 보아 해안 마을에서 소득원으로서의 짬이 지닌 경제적 위상을 새삼 느끼게 한다.

짬은 경제적으로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막배를 끌어내리는 밧줄을 바닷속의 곽암에 묶어 도르래와 연결하는데 이용하는 등 어촌에서 그 쓰임새 또한 매우 많았다.

참고문헌 조도군도 관매도의 미역발 경작과 생업전략(송기태, 남도민속연구26, 남도민속학회, 2013), 준경묘·영경묘 수호활동과 제향(김도현, 박물관지20,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3), 한국의 해양문화1~5(해양수산부, 2002), 현지조사자료(○○○, 강원 삼척, 2019.4.).

필자 김도현(金道賢)

짬뽕어잡이

정의 맨손이나 그물 혹은 바늘 여러 개를 묶은 낚시로 몸통을 걸어 짬뽕어를 잡는 일.

개관 짬뽕어는 농어목 망둑어과의 바닷물고기이다. 서남해 넓은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종이다. 물고기이지만 해염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가슴 지느러미로 갯벌 위를 기거나 뛰어다닌다. 조간대에서



미역짬배분표 | 강원 삼척 | 2014 | 국립민속박물관

서 낚싯대를 던진다. 뽕배(널배)처럼 밀고 이동하기도 하고, 잠시 켜쪽에 앉아 한숨을 돌리며 쉬기도 한다.

요즘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낚싯대와 바늘을 이용하며, 켜쪽 대신 뽕배를 이용한다. 그러나 도구만 달라졌을 뿐 쟁뚱어를 잡는 기술과 지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특징 및 의의 쟁뚱어는 서남해 넓은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종으로, 환경오염에 아주 민감하여 청정한 곳에서만 서식한다. 물고기이지만 헤엄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가슴지느러미로 갯벌 위를 기거나 뛰어다닌다. 지금도 전남의 서남해안 갯벌 지역에서는 이러한 쟁뚱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훌치기 낚시로 쟁뚱어를 잡는다. 갯벌에 사는 쟁뚱어의 습성을 이용한 어로 지식과 쟁뚱어를 이용한 음식 문화가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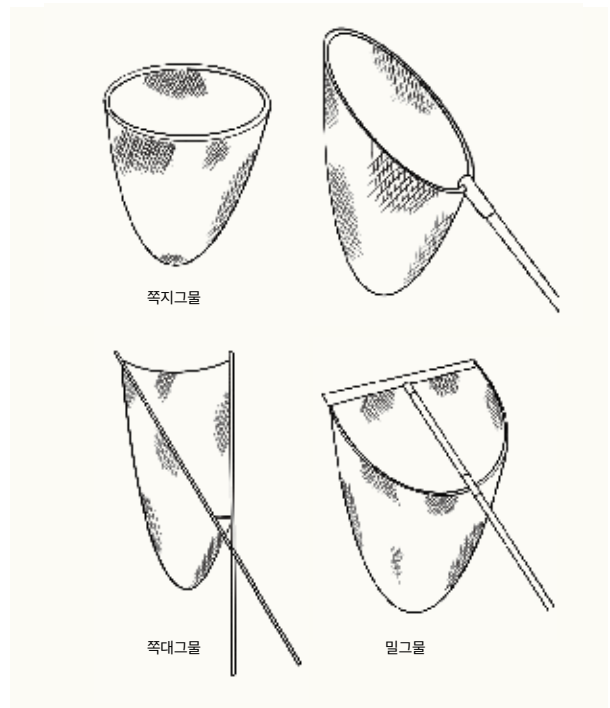
참고문헌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어족 자원과 음식문화(선영란·김준·심운정, 영산강연구센터 2010년도 연구사업보고서, 전남발전연구원 영산강연구센터, 201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2(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필자 박종오(朴宗吾)

쫄지그물

정의 입구일정어구류(袋網類)의 채그물류(抄網類)에 속하는 어구漁具로, 원형이나 자루형 그물의 사방 또는 자루의 입구 쪽에 나무·대나무·철사 등으로 된 테가 붙어 있고 테의 한쪽에는 어구漁具를 조작하기 위한 손잡이인 채가 달려 있는 어구.

내용 채그물류란 그물을 대상물 밑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떠서 잡는 어구漁具이다. 떠서 들어 올린다는 점에서 들그물어법(撈網漁法)과 같고 실제로 비슷한 어구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들그물어법은 대상물이 그물 위에 오도록 기다렸다가 뜨는 소극적인 어법인 데 반하여 채그물어법(抄網漁法)은 그물을 대상물 밑으로 이



쫄지그물 | 국립수산물학원

동시켰다가 떠서 올리는 적극적인 어법이라는 점이 서로 다르다.

채그물류에는 실뱀장어쫄지그물 등의 쫄지그물류, 새우쫄대그물 등의 쫄대그물류, 새우밀대그물 등의 밀그물류 그리고 멸치챗배그물[焚寄抄網] 등의 채당김그물류가 있다.

들그물에 사용하는 어구도 채그물과 같거나 거의 흡사한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그물과 들그물을 같이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의 채그물류는 멸치챗배그물처럼 규모가 있는 몇 가지 어구를 제외하면 독립된 어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다른 어구를 이용하여 가두어 놓은 물고기를 채그물로 떠서 올리는 보조어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쫄지그물의 형태는 주로 원형그물의 둘레에 또는 자루형그물의 입구에 나무·대나무·철사 등으로 된 테가 있으며, 이 테의 한쪽에 채(손잡이)가 달려 있다. 흡사 잠자리채에 가까운 모양이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그물이 쫄대그물이다. 쫄대그물은 주로 사각형이나 자루형 그물감의 마주보는 두 변 또는 자루의 입구 쪽에 나무·대나무 등으로 된 뽕침대가 붙어 있는 그물로, 뽕

침대를 길게 하여 손잡이로 사용한다. 즉 긴 손잡이가 한 개 있는 것을 쪽지그물로, 두 개인 것을 쪽대그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을 묶어 족대그물이라고 한다.

쪽지그물은 매우 간단한 구조여서 그물류 중에서는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그물이다. 원시시대부터 시내와 강 그리고 얕은 바다 등에서 물고기를 떠 올려 잡는 데 쪽지그물이 사용되었다. 쪽지그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물이 사용된다. 그물을 만들어 사용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청도 오진리 바위그늘 유적과 서울 암사동 유적 등에서 발견된 그물추[網錘]나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그물문토기편[網文土器片](그물 문양이 그려진 토기 조각) 등 신석기시대의 여러 유물을 통해 적어도 이 시대에 이미 그물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쪽지그물도 신석기시대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쪽지그물은 그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대나무나 가는 나무줄기로 테를 만들고, 그 사이에 갈대와 억새 또는 잔 나뭇가지 등을 엮어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의 그물을 대신한 전형[前形]의 어구로써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쪽지그물은 크기가 작아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으므로 오늘날에는 맨손어업이나 유어[遊漁]의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쪽지그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실뱀장어를 포획할 때이다. 실뱀장어는 부화한 뱀장어의 자어[子魚]로, 부화한 랩토세팔루스가 해류와 함께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변태하여 실뱀장어가 된다. 실뱀장어는 뱀장어 양식의 종묘로 사용되어 매우 비싸게 거래된다. 이러한 이유로 실뱀장어가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제주도 연안, 서해 연안, 남해서부 연안 및 연안의 갯벌이나 강 하구 등지에서 밀물을 따라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어업이 발달하였다. 그중에서도 쪽지그물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서 실뱀장어를 잡는 가장 간단한 어구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쪽지그물은 주머니 모양 그물감의 입구에 원형 또는 반원형의 테가 있고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또 그물감의 재질은 나일론이고, 그물 실의 굵기는 210데니어 2합사, 그물코의 크기는 2mm 내외인 것이 보통이다. 조업시기는 실뱀장어의 이동시

기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데, 남해 연안의 하천은 3~5월이고 서해 연안의 하천은 4~6월이다. 실뱀장어는 낮에 수심 깊이 침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업은 주로 밤에 하며,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쪽지그물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수심 1m 내외의 물속에 들어가 잡는다. 과거에는 이 시기가 되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든 횃불로 인해 야간에 장관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대부분 손전등을 사용하고 있어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징 및 의의 쪽지그물은 그물류 중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시시대부터 시내와 강 그리고 얕은 바다 등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쪽지그물이 사용되었으며, 그물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대나무 등으로 테를 만들고 잔 나뭇가지 등으로 그물을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어구학(김대안·고관서, 현대인쇄소, 1985), 어업-상(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2006),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한국의 어구어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88).

필자 배봉성(裴偉晟)

찌르개

정의 어류를 찢어서 포획하는 도구.

내용 찌르개는 선단부와 자루로 구성되는데, 유적에서는 자루가 잔존하지 않고 선단부만 잔존한다. 선단부는 날카롭고, 스킴에서 경부까지의 폭이 일정하며, 길이가 10cm 정도로 미늘이 없다. 대상물을 찢어서 포획한다는 점에서는 작살과 동일하지만, 그 기능과 형태에 있어서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작살은 포획물에 명중하였을 때 미늘이 있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줄을 매어 깊은 바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찌르개는 미늘이 없으므로 사람 손이 미늘의 역할을 대신한다. 즉 찌르개는 수심이 얕은 해안이나 하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작살과 용어를 구별해 사용하여야 한다.



뭇 | 너비18 길이9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가오리 꼬리뼈 연장 | 국립김해박물관



찌르개살 | 길이6 | 강원 양구 | 청동기시대 | 국립춘천박물관

재질은 골각, 돌, 철로 나뉘어진다. 그중 골각제는 사슴의 뿔이나 긴 뼈 그리고 특이하게 가오리의 꼬리침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골각제 찌르개는 신석기시대 동북지방의 서포항 패총에서만 확인되고, 원삼국시대에는 남해안 전역에서 확인된다. 가오리 꼬리침은 원삼국시대 남해안지방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제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쳐 동북지방과 서북지방에서 확인되고 있다. 철제는 삼국시대 남해안 지방의 웅천 패총과 복천동 고분에서 확인되는데, 무기와의 구별이 쉽지 않다. 자루에 철제의 창류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창류 가운데는 미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시기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도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찌르개를 하천변이나 해안가에서 사용해 왔으며, 부르는 명칭 또한 ‘무시’ ‘뭇’ ‘던짐창’ ‘삼식이 창’ ‘망탕이 작살’ 등 다양하다. 이처럼 찌르개는 하천변에서 이루어지는 내수면어업과 얽은 바다에서 행해지는 내만성어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어로 도구이다.

참고문헌 어구(고광민,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한국 어구도감(배봉성의, 국립수산물학원, 2002),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김건수, 학연문화사, 1999).

필자 김건수(金建洙)

참게잡이

정의 맨손, 수수, 햇불, 통발, 어살 등의 도구로 참게를 잡는 일.

개관 참게는 바다와 하천을 오가며 사는 갑각류이다. 우리나라 전 연안의 기수역을 비롯하여 담수지역에 널리 서식하고 있다. 참게는 하구역에서 부화하여 유생기를 보내고 점차 성장하면서 담수역으로 이동한다. 담수역에서 2~3년간 자리를 잡고 살다가 성체로 성장한 다음 산란을 위해 다시 하구역으로 내려간다.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참게류에는 참게·동남참게·애기참게·남방참게 등이 있으며, 주요 어로 대상은 참게와 동남참게이다. 이들은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참게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참게의 갑각은 둥근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마는 납작하다. 갑각 윗면은 약간 볼록하고 H자 모양 홈이 뚜렷하며, 앞면과 집게 아래쪽에 연한 털이 있다. 바다에 가까운 하천 유역에 많고, 논두렁 등지에 구멍을 파고 살기도 하며, 잡식성이다. 지역에 따라 ‘기’나 ‘참게’ 등으로 부른다.

내용 참게는 수수와 어살 등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잡아 왔다. 『자산어보(慈山魚譜)』는 “어부들은 얇은 여울에 가서 돌을 모아 담을 만들고 새끼로 짐을 지어 그 안에 넣어두면 참게가 그 속에 들어와서 은신한다. 매일 밤 햇불을 켜고 손으로 참게를 잡는다.”라고 참게 잡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또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에는 ‘현축서포해법(懸蜀黍捕蟹法)’이라 하여 수수를 이용해 게를 잡는 방법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새끼를 꼬아 굵은 줄을 만들어 놓고 수수 이삭을 가는 줄에 매어 달아 시냇물 위에 쳐 두면 수수를 먹는 참게를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섬진강이나 금강 등지에서는 수수를 이용해 참게를 잡았다. 가을철 산란을 위해 하구역으로 내려가는 참게의 이동통로에 수수목을 설치하여 잡는 방법이다. 강을 가로질러 드문드문 수수를 걸어둔 새끼줄을 설치하는데, 밤에 이동하던 참게가 수수를 먹기 위해 물러들 때를 기다려 조업하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이다.

섬진강에서는 어살을 이용해 참게를 잡기도 하였다. 여울목 양쪽을 V 모양으로 돌을 쌓아 물목을 차단하여 물살을 빠르게 유도한 다음 그 한복판에 쭈기를 설치한다. 쭈기는 잘게 쪼갠 대나무로 원통형 외양을 만들고 안쪽에는 원뿔형의 속발을 설치하여 일단 들어온 참게나 어류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도구이다. 가을철 산란기를 맞아 하구역으로 이동하는 참게가 물흐름이 빠른 곳으로 모여 쭈기 통에 갇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섬진강 유역에서는 강아지풀이나 털 익은 벼 이삭 등으로 구멍에 숨어 있는 참게를 잡기도 하였으며, 제주도에서는 개구리를 매단 줄이나 칩닝쿨을 대나무에 묶은 다음 이것으로 낚시를 하듯 참게를 잡기도 하였다.

섬진강·낙동강 등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행하는 참게 어법은 통발을 이용한 것이다. 이동식 혹은 스프링식 통발을 참게가 이동하는 경로에 설치하여 통발에 가두어 잡는 방법이다. 통발 속에 미끼를 넣어 두고 이것을 먹으려고 들어온 참게를 포획한다. 다루기 편리하고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통발을 주로 사용한다. 통발은 공장에서 만든 것을 사서 사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바다와 하천을 오가며 사는 참게는 다양한



참게 통발 | 황현만

방식으로 어획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참게를 식용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양식하는 국가는 아주 드물다. 이런 까닭에 일찍부터 우리나라는 수수 등을 이용해 참게를 잡는 어로 방법이 발달하여 왔다. 지금도 통발 등을 이용해 꾸준히 어획하고 있다. 참게잡이는 음식문화와 결부된 한국만의 독특한 어로문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茲山魚譜, 佃漁志, 섬진강 유역 참게 소비전통과 음식문화의 변화 (박종오, 남도민속연구36, 남도민속학회, 2018),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2(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2(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 용역 농경·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경상도 지역(한국예술종합학교 아태전통연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9).

필자 박종오(朴宗吾)

채그물

정의 위에서 둥근 그물로 물고기를 떠서 포획하는 어로 손도구.

내용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널리 쓰이는 도구로, 둥글게 생긴 잠자리채 형식이 일반적이지만 반두 형식도 널리 쓰인다. 손도구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어구들로, 적어도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사시대의 하천·호수 등의 내수면에서는 주로 천렵에서 사용되는 쪽대 또는 반두 등의 어망류가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쪽대 또는 반두 등이 바닷가 돌살(돌살) 아니라 강가에서도 널리 애용되고 있음은 이 계통의 어구 족보가 상당히 보편적일뿐더러 원초적임을 잘 보여준다.

챗배는 불을 밝혀서 멸치 떼를 모이게 한다. 멸치는 속성상 불을 좋아하고 뜬물로 올라오는 생선이라 채그물을 이용하여 손쉽게 퍼낼 수 있다. 현대에는 멸치 유자망 등의 대형 그물로 어획하거나 배후리로 잡아들이고 있으나, 전통시대에는 햇불과 채그물을 이용하는 소박한 어법이었을 것이다. 채그물이 가장 긴요하게 쓰이는 곳은 어살어업이다. 조간대에 어살을 설치하면



쪽반이 | 강원 양양 | 주강현



쪽반이 | 충남 태안 | 주강현

물이 덜 빠지는 물때에는 고기를 건져 올려야 한다. 임통의 둥병은 어살이 서 있는 조간대에서 가장 깊은 곳이므로 물이 고이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숫대야 정도의 지극히 적은 양이 고여서 작은 새우 같은 고기들은 바가지 정도로 쉽게 떠낼 수도 있지만, 무릎 깊이까지 임통이 들어차는 곳도 있다. 같은 어살이라도 사리와 조금이 편이하며, 특히 조금에는 물이 거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고기를 잡아 내거나 뜰 수 있는 손도구가 필요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손도구는 손으로 떠내는 ‘사들’이다. 사들은 기능이 같으면서도 지역별로 명칭이나 크기·형태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충청도 서천에서는 삼각대로 쪽대·뜯채·바자가 쓰인다. 동그란 형태를 뜯채·바자라 부른다. 당진 성구미에서는 삼각형으로 바디 혹은 쪽대라 부른다. 태안반도의 청포대에서는 큰 것은 사들이라고 하고, 작은 것은 쪽대 혹은 쪽반이라 부른다. 의항리에서는 사들이라 부른다. 변산반도 궁항에서는 쪽반이를 쓰며, 경상도 문항에서는 Y자형의 삼각대를 쪽지라 부른다. 쪽지는 쪽대의 방언이다.

문항의 쪽지는 손잡이 부분을 가죽나무로 만들었으며, 손잡이 길이 30cm에 총길이 80cm로 손쉽게 다룰 수 있을 만한 크기이다. Y자형 틀에 가로로 철사를 매달고 거기에 튼튼하게 그물을 고정하였다. 전남 해남 중리에서는 고기를 건지는 도구를 ‘쪽바지’라 부른다. 제주도 연대에서는 ‘쪽반이’라는 말이 쓰인다. 제주도의 멸쪽바지(멸치쪽바지라는 뜻)는 국자사들과 형태가 비슷하다. 나무를 이어서 장경 190cm, 단경 150cm 정도의 어음을 만들고 이를 Y자형 나무에 연결한 것이다.

쪽반이 계열의 지역별 이칭

지역	명칭	비고
충남 서천	쪽대·뜯채·바자 뜯채·바자	삼각형
당진 성구미	바디·쪽대	삼각형
태안 청포대	사들 쪽대(쪽반이)	큰 것 작은 것
태안 의항리	사들	
변산반도 궁항	쪽반이	
경남 남해 문항	쪽지	Y자형
전남 해남 중리	쪽바지	
제주시 일대	쪽반이	

특징 및 의의 쪽반이 계열의 지역별 이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쪽반이 계열 명칭, 즉 쪽대·쪽반이·쪽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더러 사들도 쓰인다. 그러나 뜯채에서 보듯이 ‘뜯채’ 혹은 그냥 ‘채’로 쓰는 곳도 있는바, 채란 잠자리채·파리채 등의 손도구를 가리키는 말에 붙는 접미사 같은 것이다. 이들 손도구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자 그대로 채로 떠내듯이 건져내는 ‘테류’ 혹은 ‘쪽반이류’가 있으며, Y자형으로 만들어진 ‘쪽대’나 그러한 기능이 보다 발전한 ‘사들류’가 있다. 고기를 건져내는 테류·쪽반이류는 제주도의 경우처럼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잠자리채만한 아주 작은 것도 있다. 불로 나무를 둥글게 휘어서 만들어 쓰다가 어구점·대장간에서 휘어진 테두리를 사다가 쓰는 식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어구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손도구로 낚시꾼의 필수품이기도 하다. 반면에 쪽대는 Y자형의 나무를 가지고 테두리를 삼아서 그물을 덧대어 새우·멸

치 등을 떠낼 때 쓴다. 개인 1인용 손도구로 널리 쓰이는데, 쪽대·쪽지 등으로 널리 불린다. 쪽대가 확대 발전하면 서해안에서 곤쟁이새우 등을 잡는 대형 쪽대가 된다. 쪽대를 밀어서 새우를 잡아 올리며 바가지로 새우를 퍼담아 등 뒤의 부게에 넣는다.

참고문헌 신이 내린 황금그물·돌살(주강현, 들녘, 2006), 한국현대문화사 대계3-과학·기술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78).

필자 주강현(朱剛玄)

채들망

정의 어선의 한쪽 현(옆구리)에서 채를 내어서 그물을 수직으로 내려 대상 어류가 그물 위에 위치하면 돛을 줄을 감아 그물을 들어 올려 어획하는 어구 및 어법.

내용 어선의 한쪽 현에 부착된 뺨침대 혹은 뜰대(그물 등을 수면 아래로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긴 막대)에 어구를 부착하여 물속으로 드리우고, 어군이 그물의 위 쪽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어구에 연결된 돛줄을 당겨 어획하는 그물 혹은 그런 그물을 사용하는 어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남부 연안에서 멸치를 조업 대상으로 하는 채들망과 경상북도 울릉도 연안에서 화살꼴뚜기를 조업 대상으로 하는 채들망이 잘 알려져 있다.

채들망어업 중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세 척의 어선이 함께 조업하는 멸치삼척들망어업을 한 척의 어선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것으로, 까래그물 양측에 날개그물이 있고 뒤쪽에 고기받이 그물이 있어 마치 쓰레받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조업은 주로 해가 질 무렵에 시작된다. 조업은 주로 전남의 해류나 조류가 강한 해역에 해류나 조류의 방향을 가로질러 닻줄을 설치한 후 그물을 해류나 조류에 따라 투망하고, 그 위에서 불배가 멸치를 유도하면 조임줄을 감아올려 멸치를 어획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때 그물을 모두 배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물의 고기받이 부분은 물

속에 남겨두고 주머니 모양이 되도록 한 후에 죽대를 이용해 멸치를 퍼서 올린다. 멸치채들망은 멸치챗배어업(분기조망)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어업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멸치채들망은 들망어업의 한 종류이지만, 멸치 챗배어법은 입구일정어구류로 분류된다. 멸치채들망은 어선이 정지한 상태에서 멸치를 유집誘集하여 어획하고, 챗배에서는 유집된 멸치를 어선이 움직이면서 어획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화살꼴뚜기를 대상으로 하는 채들망어구도 멸치채들망어구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조업방법은 차이가 있다. 멸치채들망어업처럼 해 질 무렵에 주로 조업을 시작하며, 조업해역에 도착하면 선수와 선미에서 우현 측면과 좌현 측면에 직각이 되도록 총 네 개의 닻을 내려 선박을 고정한다. 선박이 고정되면 좌·우현에 화살꼴뚜기 유집을 위한 집어등을 밝힌다. 선박 주위로 화살꼴뚜기가 모이면, 어구를 투망할 현의 집어등을 꺼서 반대편 현에 어군이 모이도록 한다. 투망이 완료되면 어구를 투망한 쪽에 집어등을 켜고, 어군이 모여 있던 현 쪽의 집어등은 소등하여 어군이 어구를 투망한 쪽으로 모이도록 한 후 그물을 양망한다. 이때도 고기받이는 물속에 두고 죽대를 이용하여 화살꼴뚜기를 퍼냄으로써 어획물이 적게 손상되도록 한다.

특징 및 의의 목표 어종은 주로 표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하며, 불빛으로 어군을 유집하여 어획하는 경우가 많다. 멸치채들망어업의 경우 어구의 형태는 멸치삼척들망어업과 유사하지만 조업을 어선 한 척이 수행하므로 멸치삼척들망과 조업방법이 다르다.

참고문헌 연근해어업개론(이병기·박승원·김진건, 태화출판사, 1983), 한국 어구도감(배봉성, 국립수산물과학원, 2002), 한국의 어구어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성진사, 1988).

필자 차봉진(車奉眞)

채롱

정의 전복이나 가리비, 진주조개 등 패류의 수하식양

식을 하기 위해 피복 철사로 만든 틀에 그물을 씌우거나 플라스틱 재료로 성형하여 만든 바구니.

내용 채롱採籠은 비부착성의 패류(전복, 가리비, 진주조개 등)를 수중에 넣어 양식하기 위해 피복된 철사에 그물을 씌우거나 플라스틱 재료에 해수가 드나들 수 있게 많은 구멍이 있도록 성형한 바구니를 말한다. 그물을 씌운 채롱 등은 성장에 따라 망목의 크기를 교체하면서 채묘 시의 작은 치폐稚貝일 때부터 성폐까지 양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채롱은 형태에 있어서 둥근채롱, 사각채롱pearl nets, 네모통채롱, 원통칸막이채롱lantern nets, 편평칸막이채롱pocket nets(그물주머니채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참가리비양식에 사용되는 원통칸막이채롱은 망목 2cm 내외 되는 그물로 만든 원형의 채롱으로서 채롱 하나의 높이는 20cm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15개 연결한 것이다. 참가리비를 채롱의 옆쪽에 만들어진 입구를 통해 넣고 줍실로 입구를 막은 다음 수하한다. 이것은 경비가 많이 드나 수용할 때 넣거나 꺼내는 데 관리가 아주 쉽고, 양성 중에 참가리비의 형태가 달라지는 일도 적으며, 패각에 부착하는 부착생물도 적다. 그러나 파도가 심한 곳에서는 편평칸막이채롱에 비하여 성장이나 생존율이 다소 낮다.

편평칸막이채롱은 망목 2cm 정도 되는 그물로, 여러 개의 주머니 끝과 같이 나열해서 여기에 참가리비를 넣은 후 줍실로 주머니 입구를 막은 뒤 수하한다. 이것은 경비는 많이 드나 관리가 쉽고 양성 중에 패각 형태가 변형되는 일도 적으며, 파랑이 심한 곳에서 양성 하더라도 성장이 빠르고 생존율이 비교적 높다.

사각채롱은 소형 치폐의 중간육성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30cm 정도의 간격으로 채롱을 연결하여 수하함으로써 채롱 내의 참가리비가 폐사한 경우 폐사체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원통칸막이채롱 및 편평칸막이채롱에 비해 작업시간이 좀 더 긴 단점이 있다.

채롱식양식basket culture은 그물이나 기타 재료로 만든 수용기採籠을 해수의 중층이나 저층에 로프로 여러 개 매달아 양식하는 방법으로, 넓게 보면 수하식양식 방법의 일종이다. 해수의 교류가 잘 되어 바다보다 환



가리비 양식 채롱 | 2016 | 국립수산물과학원

경이 좋기 때문에 성장이 빠르다. 패류는 수온 또는 먹이생물의 종과 양에 따라 성장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전복처럼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는 관리에 용이한 수층 또는 해수의 교류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대상 종에 따라 채롱을 수하할 적정 수층이나 채롱의 모양이 다양하다.

특징 및 의의 채롱을 사용한 양식 방법은 이때패류二枚貝類를 양식할 때에 주로 포식자에 의한 피포식이나 퇴적물에 의한 질식 등으로부터 양식생물을 보호하고 먹이 공급을 원활히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탁도가 심한 바다에서는 채롱망이 막힐 염려가 있다. 또한 망목에 해조류가 부착하여 양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폐사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참고문헌 양식개론(유성규, 부산 구덕출판사, 2001), 양식어업의 어장이용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최정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2).

필자 박민우(朴民祐)

채묘장 採苗場

정의 부착성 또는 일시부착성 수산생물의 부유생활 기간을 지난 부착시기에 부착기질을 넣어 종자를 채취하는 장소.

내용 채묘seed collection는 부유생활기를 지나 부착생활을 하는 굴·담치·피조개·가리비·진주조개 및 우렁챙

이·미더덕 등의 유생과 해조의 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부착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질을 넣어 부착하여 종자를 채취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바지락은 유생 시기의 부유생활을 마친 다음 바닥에 착저할 때 족사를 이용하여 부착생활을 하다가 잠입생활로 들어간다. 그러나 부착생활 기간 중 저면의 모래에 아주 작은 족사로 부착하고 몸을 지지하는데, 이 족사의 부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착기에 부착하여 채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간석지에 나뭇가지나 대나무 등을 세워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수의 흐름을 완만하게 조절해 주어 치패들을 많이 바닥에 가라앉혀 채묘한다. 이를 완류식(緩流式) 채묘라 한다. 바지락의 경우 완류식 채묘의 효과는 성숙 부유 유생의 수를 비롯하여 지형이나 해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발생량은 완류식 시설을 하지 않은 대구조에 비해 1.5~15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동식물의 채묘법에는 자연채묘와 인공채묘가 있다. 자연채묘는 자연발생 종자를 부착하여서 채취하는 것으로, 굴·가리비·멍게 등 부착성 동물의 부착기 유생이나 김·미역 등 해조류의 유주자를 야외에서 패각이나 인공섬유 등의 채묘기에 부착하여 확보한다. 자연채묘는 유생의 발생 시기나 집적이 자연환경에 지배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전에 굴·피조개·가리비·멍게 등의 부유 유생 발생상황이나 분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묘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인공채묘는 인공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어미를 산란·수정·발생시켜 부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부착기를 투입·부착시켜 종자로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김에서는 사상체를 배양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유주자를 그물망 등에 부착하는 것이 보급되어 있다. 또 미역에서도 탱크 안에서 가는 종사에 유주자를 부착시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채묘장은 자연채묘에서 이들 유생이나 치패·포자 등이 잘 부착하는 채묘 적지(適地)를 말한다.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생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이 장소의 환경조건에 따라 채묘 성과가 좌우되므로 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채묘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장의 기초조사를 가급적 장기간 하

여야 한다.

채묘장 선정 시 적정 환경여건의 예로, 서해 연안에서 굴 채묘장을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자연산의 모패(어미굴)가 많이 서식하는 곳 ②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이 용이한 곳 ③채묘 시기에 파도의 영향이 적은 조용한 내만으로 4시간 노출 수위 이하의 면적이 넓은 곳 ④수질오염이 없고, 유생의 성장에 좋은 먹이가 풍부한 곳 ⑤담수의 유입이 약간 있으나, 그 양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 ⑥유속이 1초 동안에 5cm 이하인 곳으로 부니량(浮泥量)이 적은 곳 ⑦해적생물인 따개비와 진주담치 등이 적은 곳.

우렁챙이의 경우 예전에는 우렁챙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에 각종 채묘기를 6~9m 층에 수하하여 채묘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자연채묘를 하지 않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채묘장은 부착 시기의 수산생물 유생이나 치패·포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수역으로, 대부분 대상 종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자연에서의 서식이 많은 곳이다. 그러므로 동일장소에서 채묘를 하여 상품 크기까지 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착 시기까지 부유생활을 하는 기간이 긴 종은 유생이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고, 유생 시기에 낮은 염분을 선호하여 연안 가까이에 분포하는 종은 채묘장과 성육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연안의 오염이나 자연채묘의 불확실성으로 실내에서 인공적으로 채묘하는 수산생물 종들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서해안 간이수하·수평식 굴양식 방법(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수산기술지1, 1995), 양식개론(유성규, 구덕출판사, 2002), 우렁챙이 양식(국립수산진흥원, 수산기술지, 1978), 採苗(excite.co.jp), 天然採苗(pref.miyagi.jp).

필자 박민우(朴民祐)

천
낙

정의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넣은 낚싯바늘을 빠

르게 당겨 물고기의 몸통에 꽂아 고기를 잡는 어로법.

내용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지 않고 빠르게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잡아챌다고 하여 썰낚 또는 썰질이라고 부른다. 미끼도 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여 도둑낚이나 강도낚이라고도 한다. 고기를 잡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 개 혹은 네 개의 바늘을 사용하는데, 이 모양이 사슬 같다고 하여 사슬낚이라고도 한다.

바닷가에서 대낚에 삼발바늘을 이용하여 송어를 잡기도 하는데, 이것은 홀치기라고 한다. 홀치기 역시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바늘을 당겨서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썰낚과 홀치기를 같은 것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썰낚은 주로 대동강이나 한강에서 잉어·송어를 잡으며 사슬낚바늘을 견짓대와 함께 사용한다. 삼봉낚시도 썰낚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견짓대를 사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사슬낚과 바늘의 모양이 다르다.

낚싯바늘은 겨울용과 여름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겨울용은 여름용보다 무른 바늘을 사용하는데, 강한 바늘을 겨울에 사용하면 낮은 수온 때문에 더 딱딱해진 낚싯바늘이 고기가 요동칠 때 부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바늘은 일반적으로 세 개를 사용하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첫낚·둘째낚·끝낚이라고 부른다. 첫낚에서 끝낚까지의 길이는 한 발가량 된다. 썰낚용 봉돌 밑으로 세 개의 바늘을 다는데, 봉돌 밑에서부터 끝낚이 있는 곳까지를 ‘갈바’라고 부른다. 썰낚을 탬질이라고 하는데, 갈바 위에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가 잡힌다. 이를 물고기가 ‘갈바를 탄다’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갈바에 물고기를 태우는 행위라서 탬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끝낚 위로 바늘을 하나 더 달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낚’이라 부른다. 썰낚용 봉돌은 바나나 모양으로 휘어져 있으며,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다. 항상 같은 모양으로 바닥에 가라앉게 하기 위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다. 낚시를 시작하기 전 봉돌을 물속에 넣었다가 빼서 손바닥으로 쥐고 수온을 확인한다.

썰낚용 바늘의 미늘 부분에는 날을 세울 수 있는 칼침이 있다. 날을 세운 칼침으로 물고기의 살을 찢으면

서 몸에 박히도록 한다. 바늘 끝이 부러지거나 무더지면 솟돌에 갈아서 날을 세우는데, 이것을 갈음질이라고 한다.

강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버덕낚과 걸통낚으로 구분한다. 버덕낚은 바닥에 걸리는 곳이 없는 곳, 걸통낚은 밑걸림이 많은 곳을 의미한다. 걸통낚을 할 때는 침 부분을 안쪽으로 조여 살집 부분을 좁혀서 낚시를 한다.

줄을 당기는 방법에 따라 바늘의 미늘이 위로 향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향할 수도 있다. 바늘의 허리는 바닥을 향하고 미늘 쪽은 위로 향한 상태로 고기를 채는 것을 날치기 혹은 탬질이라 하며, 그 반대 방향으로 고기를 채는 것은 복치기 혹은 덮질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썰낚은 배를 타고 하는 견지낚시의 한 종류이다. 1960~1970년대에는 견지낚시가 썰낚을 의미할 정도로 많은 낚시꾼이 있었다. 썰낚을 하기 위해서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야 하며, 낚시꾼들은 물고기들의 생태와 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낚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어휘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썰낚을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하고, 〈하천법〉·〈수도법〉 등의 제약을 받으며, 잉어 소비의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요즘에는 한강에서 썰낚을 찾아볼 수 없다.

참고문헌 견지낚시의 역사와 고증(이하상, 목근통, 2019), 현지조사자료(강우규, 경기 일산, 2020.2.4; 서병원, 경기 일산, 2020.2.4; 손낙기, 경기 하남, 2004.4.28; 정중호, 경기 양평, 2017.4.20.).

필자 편성철(片成哲)

천일염업
天日鹽業

정의 염전에 바닷물을 끌어 들여서 태양열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하여 소금을 만드는 일.

개관 서해 경기만 일대는 주변에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여 염전 조성에 유리하다. 점토와 사토가 절반으로 이뤄져야 바닥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고, 바닥이 단단

하여야 물의 침투가 적고 수분 증발이 잘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여름에도 비가 적고 일조시간이 길어 일조량이 풍부하여야 한다. 유통이 쉽고 소비시장과 가까운 곳이 염전 입지로 최고이다. 경기만 일대가 그런 곳이다.

우리나라는 1907년 인천 주안에 최초로 천일염전을 축조하여 소금을 생산한 이래 1950년대까지 서남해안 일대에 많은 염전이 보급되었다. 특히 6·25전쟁 피난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염전이 조성되었다. 전라남도 신안 증도염전·영광염전, 경기도 화성 공생염전, 인천광역시 영종도 삼목염전 등이 그러하다.

천일염전은 저수지·증발지·결정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대시설로는 해수와 소금창고 등이 있다. 저수지는 해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한 달에 두 번 만조에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저장하며, 증발지는 저수지에 저장된 바닷물을 끌어 들어 수분을 증발하고 염도를 높이는 곳이다. 제1증발지를 ‘난치’, 제2증발지를 ‘누테(느테)’라고 한다. 결정지는 증발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소금을 결정하는 곳으로

소금창고 앞에 조성한다.

천일염전은 저수지와 증발지 높이의 차이에 따라 고지식高地式과 저지식低地式으로 나뉜다. 고지식은 저수지의 높이가 증발지보다 낮아 저수지의 바닷물을 수차나 펌프 같은 동력으로 퍼 올려 증발지로 보낸다. 고지식은 저수지 면적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염전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지식과 달리 바닷물을 퍼 올려야만 한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가 전라북도 옥구(800정보)와 전남 무안(604정보) 지역을 천일염전 예정지로 지정하였다가 취소한 이유는 저지식이었기 때문이다.

내용 소금생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닷물의 염도를 조절하면서 증발지에서 결정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보통 바닷물의 염도는 3도 정도로, 난치에서 증발하여 염도가 15도 정도 되면 느테로 이동하고, 22도 정도 되면 결정지로 함수를 옮긴다. 염도가 25도 정도 되면 소금 꽃이 피고 28도에 소금 결정이 이뤄진다. 해수 농축에 의해 염분의 농도가 상승되는 과정은 흔히 ‘보메(뽀메)



증도 태평염전 | 전남 신안 | 신안군

비중Baume's specific gravity계'로 측정한다.

염전은 제1증발지를 가장 큰 면적으로 구성하고 차츰 면적이 작아지도록 조성한다. 염도가 높아지면서 함수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증발지의 함수가 결정지로 잘 흐를 수 있도록 기울기도 잘 조절해야 한다. 농축된 함수를 보관하는 곳을 '해주'라고 하며, 15~17도의 함수와 혼합하여 25도의 함수를 만들어 결정지로 투입한다. 매일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 해주의 함수는 예전에는 무자위로 퍼 올렸지만, 지금은 경운기나 펌프를 사용한다.

소금생산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5월에서 6월에 가장 많은 양의 소금이 생산된다. 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 굳히기이다. 판 굳히기는 염전바닥을 밟아서 굳도록 하는 작업이다. 그런 다음 롤러를 굴리고 덜 마른 속은 누르면서 굳힌다. 처음 염전을 만들 때 판을 굳히는 '지고작업'은 몇 달이 걸리며 대어섯 번은 되풀이해야 한다. 염전작업 중 염전바닥에 흙을 추가하거나 덜어낼 때는 흙을 발로 잘게 밟고 평평하게 만드는데, 이 작업을 '발바리'라고 한다. 염전바닥이 토판인 경우에는 매년 20~30명을 동원하였는데, 1950년대 국민학생들이 염전에 자원봉사하러 가는 경우가 그 해 해당하였다. 학생들은 염전바닥을 다지는 일을 '발바리하러 가자'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염전작업과 관련하여 염전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넣어 수평을 측정하는 일을 '물 나라시', 물을 빼고 말린 상태에서 바닥 흙을 깎아 내거나 돋우어 평평한 상태로 만드는 일을 '맨 나라시'라고 한다.

3월 중순부터는 바닷물을 안치기 시작하며, 2~3일

이 지나면 채염을 시작한다. 이때 소금은 소금꽃이 적게 피어 설탕처럼 입자가 작은 '죽소금'이 나온다. 죽소금은 4월 초까지 생산되며,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아까시나무 꽃이 필 무렵에는 구덩이에 노랗게 송화가루가 내려앉으며 그때부터 소금이 무한정 나온다. 이때 소금이 네모 반듯반듯하고 서글서글하여 제일 좋기에 염부들은 이 소금을 술안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결정지에 소금물을 투입하는 것을 '소금물을 안치다'라고 하며, 소금이 결정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을 '소금꽃이 핀다' '소금이 온다' '소금이 뜬다'라고 표현한다. 소금을 한 번 채취하고 남은 30도의 염수는 뒷물칸통의 17도 염수와 섞어서 25도로 맞추는데, 이것을 '물배합'이라고 한다. 배합된 염수는 바로 소금물로 안치는 것이 아니라 해수에 들어가는데, 이를 세 번 이상 재 활용하지 않는다. 그 이상 되면 소금에서 쓴맛이 나기 때문이다. 일부 염전에서는 결정지에 남은 염수를 소금생산 후에 그대로 버리고 새로운 물로 안친다. 그러다 보니 소금의 생산 시간은 길고 생산량은 적어 고가의 소금으로 판매된다. 결정지에 물이 없는 상태가 되면 바닥의 분비물을 청소하는데, 갯벌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토판염 시기에는 염도가 10도 정도 되는 물로 청소를 하였다. 장판으로 바뀐 현재에는 약 4도의 물로 결정지와 수로를 청소한다. 이때 느테에서는 약 2시간 간격으로 물을 보낸다. 2시간은 판이 마르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판이 잘 말라야 수분 증발이 잘된다.

소금생산에 사용하는 도구로는 함수를 퍼 올리는 무자위, 염전바닥을 고르는 롤러, 결정지에서 소금을 거둘 때 쓰는 대파·소파·소금삽, 소금을 운반하는 목도, 염도를 표시하는 비중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고무곰베, 소금 칼, 소금 삼태기 등이 쓰인다. 염전바닥은 토판, 옹판, 타일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바뀌었다. 초기의 염전바닥은 갯벌을 그대로 다진 토판이었다. 1955년 이전 염전 결정지의 소금판은 현재와 같은 타일이 깔려 있지 않아 소금에 갯벌이 섞여 검은색을 띠었다. 이곳에서 채취된 소금을 토판염이라고 하는데, 현재 소금에 비해 청결성은 떨어지지만 각종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고가에 판매되었다. 1955~1980년대에는 소금의 청결성과 채취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향아리 등 옹기 파편을 결정지에 깔아 사용하였다. 1980년



중도 태평염전 | 전남 신안 | 신안군



신의도 염전 | 전남 신안 | 정연학



영광 염전 | 전남 영광 | 정연학

대 초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정사각형의 타일을 사용한 다. 타일은 옹패판에 비해 표면이 매끄러워 소금 채취 작업이 더욱 쉬우며,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태양열 흡수량이 빠르고 많아 염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 현재 전남 신안군 일대에서는 PVC 장판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기존의 토판에 비해 노동력은 감소하는 대신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특징 및 의의 2018년 5월 2일 문화재청은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는 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은 2007년 6월부터 천일염전 문화재등록 추진과 관련하여 전남·전북·충남·인천·경기 등 5개 시·도의 대표적인 염전 9개소를 조사하여 전국 최초로 신안 증도의 태평염전(등록문화재 360호)과 소금창고(등록문화재 361호), 비금도의 대동염전(등록문화재 362호) 등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대동염전은 1948년 광복 후 조성된 염전 중 조성

당시 최대 규모와 우수한 경관을 지녔다는 점을,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된 염전으로 피난민 정착을 위해 조성된 단일염전 중 국내 최대 규모(90만 평)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반해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시흥과 충남 등에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관염전은 폐업을 한 지 오래되어 명맥이 끊어졌다. 소금창고는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졌다. 다만 증도 태평염전의 소금창고는 유일하게 석재로 만들어져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염전 공간 중 난치의 면적이 넓었으나 최근에는 느테와 결정지의 면적이 넓어졌다. 과거에는 노동력이 풍부하였지만 현재는 가족 중심의 노동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염전에 사용하는 도구도 많이 변화하였다. 소금생산 과정은 변화가 없지만, 염전바닥의 재질, 고랑의 마감재, 함수를 옮기는 동력, 소금 운반 도구, 소금창고와 소금 쌓는 방법 등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함수를 옮기는 동력도 무자위에서 자동펌프 양수기로 바뀌어 자동으로 이뤄지고, 소금 운반 도구는 목도에서 외발차에 이어 현재는 철도 레일을 이용한다. 소금창고도 현대식 구조물로 개조하고, 소금을 쌓는 것 역시 삼을 이용한 수작업에서 리프트를 이용해 자동으로 올라가 쌓이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염전은 이제 단순히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관광콘텐츠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20세기 초 인천지역의 소금생산(유승훈, 인천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개항기 제염업에 대한 연구(이영학, 한국문화1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1), 소금꽃이 핀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소금의 민속지(정연학·박혜령, 국립민속박물관, 2016), 시흥해역의 염부생활과 염업(주강현·이기복, 시흥시사6,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류창호, 보고서, 2017), 염부 소금밭에 돌아오다(박상희,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흥에코뮤지엄연구회, 2018).

필자 정연학(鄭然鶴)

청어잡이

정의 방렴防簾 등의 정치어구定置漁具나 자망刺網, 지인망地引網, 선망旋網 등의 그물을 이용하여 청어를 잡는 일.

내용 1611년(광해군 3)에 편찬된 허균許筠(1569~1618)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청어는 극히 흔하였는데 고려 말에는 감산되어 쌀[米] 1되[升]에 청어 40미尾 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청어잡이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조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32)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의 토산조土産條에는 청어가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등 전도의 연안에서 어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해안에서는 청어잡이를 ‘청어바리’라고 부른다.

경상도 지방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청어잡이 어구는 방렴防簾이다. 방렴은 바다에 발[簾]을 세워 어류를 잡는 채래식 어구의 일종이다. 대를 엮어 발을 만들고 말목[抹目]을 세워 지주로 삼아 물고기가 가는 길을 횡단하여 한곳으로 모아 잡는다. 방렴은 어장漁帳과 함께 경상도의 대표적 정치어구였으며, 주로 대구와 함께 청어를 어획하는 데 사용되었다. 동해안에서는 이 외에 그물을 이용하여 청어를 잡았다. 구한말에 청어자망은 ‘청어그물’ 또는 ‘청어망’이라고도 하였다.

구한말에 그물을 이용한 청어잡이 방식은 유자망 방식으로, 이는 그물을 수면에서 수직으로 펼쳐서 조류를 따라 흘러보내면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끼히게 하여 잡는 어법이다. 광복 이후 1950년대에는 동해안에서 청어를 기선저인망·정치망·기선유자망 방식으로 잡았다. 1970년대에는 (외끌이)기선저인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기선견착망도 일부 사용되었다. 기선저인망은 커다란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단 선박 한 척이 바다의 저층을 끌어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현재 동해안 청어잡이는 남해 선단이 동해안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3~6월 사이에 기선저인망(간혹 기선견착망)으로 잡고 있다. 기선견착망은 주머니 모양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발줄 아래에 있는 찢줄을 죄어 고기들이 아래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위범위를 좁혀 잡는 방식이다.

특징 및 의의 한국에서 청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종이었고 한때는 최대어획종에 오르기도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궁窮한 선비와 가난한 백성이 만약 청어가 없었더라면 무엇으로 소찬素饌을 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확성 대중어大衆魚로서 빈민들까지도 이를 많이 소비하였다. 청어는 특히 명절인 설날을 비롯한 정월에 그 수요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구한말에는 청어의 감산으로 외국산 청어를 수입까지 하였다. 이는 청어가 당시 생활필수 품목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어는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포항 일대의 바닷가에 떠밀려 내려올 정도로 많이 어획되었다. 이에 집집마다 청어를 통째로 쥔에 엮어 말려서 과메기를 만들어 먹었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 따르면 “관목貫目은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고 멀리 수송할 수 있는데 어획 후 곧 배 위에서 말린 것이 좋다고 하였고, 또 이를 통속적으로 관목이라고 하는데, 양 눈에 새끼를 관통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붙인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관맥이’나 ‘과미기’ 또는 ‘과목이’ 등으로 불리는 건청어가 ‘관목’, 바로 ‘과메기’인 것이다.

청어알은 건조하여 시판市販하기도 하였는데,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어부들은 알이 붙어 있는 해초를 채집하여 말리면 알도 함께 말라 이를 시장에 찬물饌物로서 판다.”라고 하였다. 청어알은 침성점착란沈性粘着卵이기 때문에 해조류에 잘 부착하며, 정치망에 부착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그물코網目이 거의 막힐 만큼 대량으로 산란할 때가 있었다고 하며, 이를 인양하여 몽둥이로 털어서 얻은 알微卵을 식품으로 팔거나 비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청어의 가공법으로 특기할 것은 훈제법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청어를 연돌煙突(굴뚝)에 훈하여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를 연관목煙貫目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19세기 초에 이미 청어의 훈제품이 제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거리 운송용으로는 염제품도 제조되었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권1(1908)은 “내장臟腑을 제거하지 않고 고기 통째로 소금을 뿌려 막사 내에서 방형으로 퇴적하여 염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광복 후 동해안의 청어는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크기가 작아서 대부분 비료 혹은 미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포항 일대에는 청어 대신 어획량이 높은 꽂치를 통째로 15일 정도 말려서 과메기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 포항 죽도시장에서 배를 갈

라 만든 배진과메기가 판매되면서 배진과메기가 구룡포과메기로 브랜드화되었다.

참고문헌 均役事目, 蘭湖漁牧志, 名物紀略, 世宗實錄地理志, 惺所覆瓿, 星湖僊說, 新增東國輿地勝覽, 五洲衍文長箋散稿, 牛海異魚譜, 茲山魚譜, 訓蒙字會, 한국어도보(정문기, 일지사, 1977), 한국청어어업사(박구병, 부산수산대학교 논문집17, 부산수산대학, 1976), 日本漁業史(山口和雄, 東京大學出版會, 1957), 朝鮮通漁事情(關澤明清·竹中邦香, 團團社書唐, 1893), 韓國水產誌(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

필자 문혜진(文慧珍)

초망 抄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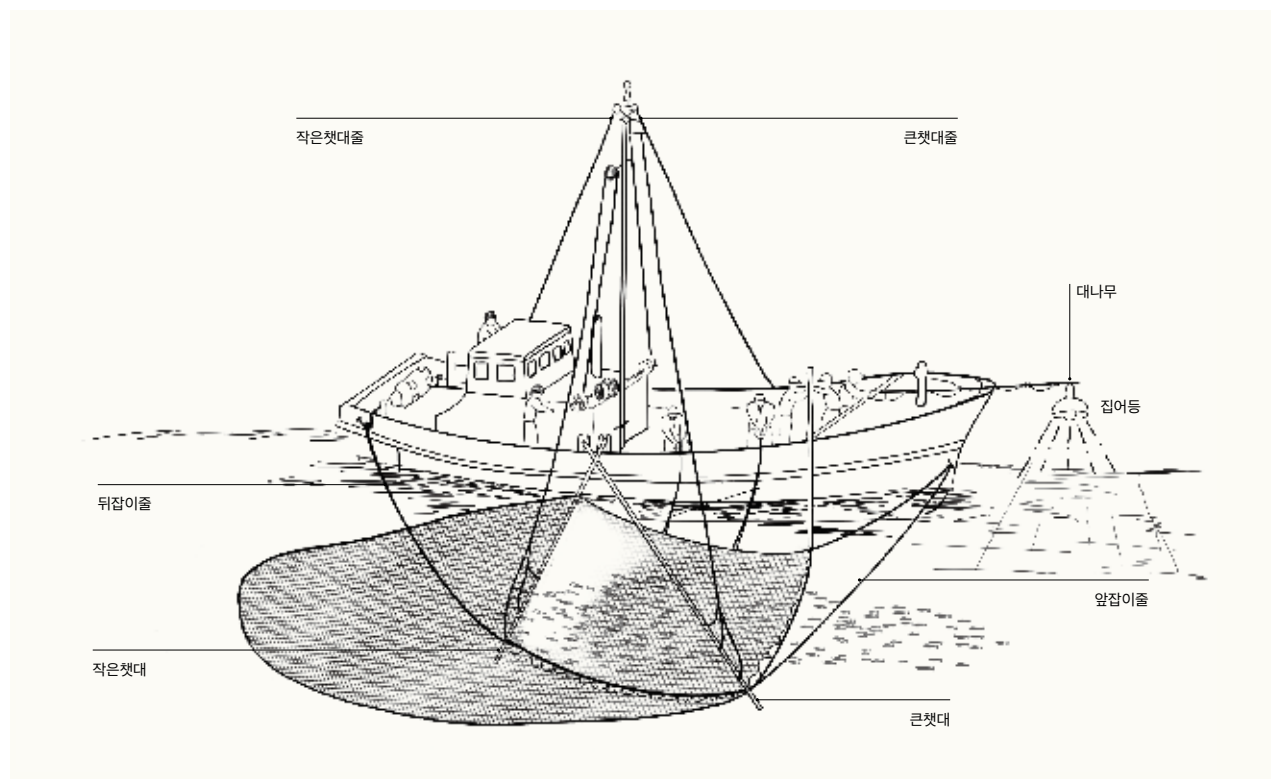
정의 수중에 그물을 펴 두고 그 위에 물고기가 들어오면 위로 들어 올리는 어로 방식.

내용 초망이 지닌 특징은 그물을 바다에 펼쳐놓은 다음 물고기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유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양이 되면 그물을 위로 끌어 올린다는 점이다. 물

고기를 유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미끼를 이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집어등集魚燈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타의 어구가 그러하듯 초망은 어종의 크기와 습성에 따라 소형과 대형 등 크기가 다양하다.

어구로서 초망의 역사는 조선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약전丁若銓이 남긴 『자산어보茲山魚譜』(1814)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멸치는 밝은 빛을 좋아하므로 야간에 어부들은 불을 밝혀서 멸치를 유인하여 함정에 이르면 손그물[匡網]로 잡는다[退性喜明光每夜漁業執火燎而引之及到窪密以匡網].”라고 한 내용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241호, 1996.12.31.)이 변경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망은 ‘분기초망어업’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분기초망이란 우리나라 전통어업의 하나인 챗배를 가리키는데, ‘분기焚奇’는 횃불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면 챗배란 불을 보고 쫓아온 멸치를 건져 올릴 때 어선의 외판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초망 어선 구조 | 국립수산물학원

챗배는 커다란 수건 모양의 쪽대그물 좌우 변에 ‘채’라고 불리는 막대기를 붙인 그물을 뱃전 옆에서 입구가 선수船首 쪽으로 향하도록 수면 아래에 펼쳐놓고, 선수 쪽에 장치된 집어등으로 어군魚群을 모아 노를 저어서 그물을 어군 밑으로 이동하여 채로 떠서 어획하는 도구이다. 보통 길이 약 10m에 폭 2m 정도 되는 왜선형倭船型 어선을 이용하며, 망지網地는 모두 면사綿絲 20번수로 짠 결절망지結節網地와 직망지織網地를 사용하였다.

이 어업방식으로 잡는 어종으로는 멸치를 비롯해 자리돔과 숭어가 있다. 각각의 어종 명칭 뒤에 ‘초망’ 혹은 ‘들망’이라는 용어를 붙여 개별 어업방식을 나타낸다. 개별 어업방식은 대상 어종과 어장의 크기에 따라 규모가 차이를 보이는데, 자리돔들망어업의 경우에는 보통 3척(본선 1척, 보조선 2척)이 함께 작업을 한다. 자리돔들망은 해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그물을 끌고 가서 고정된 다음 투망이 완료되면 본선과 보조선이 각각 돛줄을 조정하여 해당 어종을 잡는 방식이다.

멸치의 주광성走光性을 이용한 멸치초망은 집어등을 이용하여 멸치를 그물 위로 유도한 다음 그물을 들어 올려 잡는다. 멸치초망은 사다리꼴 모양의 까래그물이며, 아궁이 쪽을 제외한 세 변에 울타리를 세운 쓰레받기 모양을 하고 있다. 어장의 수심이나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반디뚝줄의 길이가 어선의 길이와 거의 같은 것이 원칙이며, 그물의 깊이는 수심과 거의 같게 하여 아궁이 밧줄 쪽이 해저海底에 닿도록 한다. 날개의 길이가 너무 길면 양망揚網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짧으면 입망入網이 불안한데, 대체로는 30~50m이다. 이 어업방식은 쓰레받기 모양의 그물 속으로 어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그물을 충분히 가라앉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물이 충분히 가라앉지 못하면 어군의 입망을 방해하고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쫓아내게 된다. 따라서 그물감의 재료는 비중이 커서 물에 잘 가라앉아야 하며, 그물의 실은 가늘고 강해서 유수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초망을 이용한 어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종이 숭어이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숭어의 습성을 고려하여 대략 6척의 어선이 그물을 해저 바닥에 설치한 후 어

군이 그물 속에 들어오면 재빨리 걷어 올려 잡는다. 숭어초망은 밑판과 옆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밑판에는 그물이 수중에서 가라앉도록 납이 부착되어 있고, 어군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쪽에는 옆판이 부착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어구로서 초망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수중에 그물을 미리 펼쳐놓은 다음 그곳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그물을 해저에 잘 가라앉게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그물 안으로 어군을 잘 유도하는 것과 적절한 시점에 그물을 위로 올리는 것이 어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그리고 어업의 규모와 대상 어종에 따라 한 척에서부터 여러 척의 어선이 필요한데, 여러 척의 어선이 어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개별 어선끼리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여타의 그물어업에 비해 먼바다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하며, 대상 어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크지 않은 편이다.

참고문헌 茲山魚譜, 알기쉬운 한국의 어업(국립수산물과학원, 2010), 어구학(김대안·고관서, 교문출판사, 1985),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물과학원, 2002).

필자 서종원(徐鍾源)

총허용어획량

總許容漁獲量

정의 과학적으로 산정된, 어종별로 연간 허용 가능한 어획량.

개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는 어업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총허용어획량TAC을 통해 당해연도의 어획량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획된 어획량은 곧 시장공급량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수산물의 안정된 수급체계를 보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중심 어업생산구조로의 발전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총허용어획량은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연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한도를 말한다. 이러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이를 모든 어업자에게 일정한 방법에 따라 배분하고, 이 배분된 할당량에 따라 어업이 시작되며, 어업자별 어획량의 합이 총허용어획량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것이 총허용어획량 제도이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유엔해양협약UNCLOS> (이하 <유엔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시 총허용어획량에 의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한일어업협정>에 연계하여 1999년에 처음으로 대형선망 고등어·정어리·전갱이어업과 근해통발 붉은대게어업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업종과 어종을 확대하여 2021년 현재에는 고등어·전갱어·붉은대게·제주소라·키조개·개조개·바지락·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참홍어·갈치·참조기 등 14개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엔해양법>의 발효로 최근 거의 모든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그 수역 내의 수산자원은 관할국에서 관리하도록 국제법상 허용되고 있다. 이에 각 연안국은 자국 관할권 내의 수산자원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정한다. 과거에 수산자원은 무한하고 누구든지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족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총허용어획량으로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다. 고갈되어 가고 있거나 보호해야 할 어종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어획량 자체를 조정·관리하는 방법이 수산자원의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총허용어획량이 바로 그런 수단 중 하나이다.

총허용어획량은 주로 어종에 중심을 두고 설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 해에는 고등어를 어느 정도 잡는 것이 좋은지와 그것이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해서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지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정하는 것이다. 우선 어떤 어업이 어느 시기에 어느 해역에서 어떤 크기의 물고기를 얼마나 잡는지를 조사한

다. 그런 다음 그 어종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를 통해 해당 어종이 산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서부터 산란하는 양, 산란 장소, 연간 얼마나 성장하는지 등의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자원 예측 및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예상 총허용어획량을 마련한다. 이것을 어업인, 수산 행정인, 수산 과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총허용어획량 조정위원회에 올린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된 총허용어획량을 공표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업 그 자체에 대한 규제·관리보다는 결과물인 어획량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이는 어획노력량 관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업관리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매년 관리주체와 생산주체가 함께 자원량을 평가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배분하여 어획량이 총허용어획량에 도달하면 어업을 즉시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운영체계에는 ‘총허용어획량 공급체계’ ‘배분체계’ ‘보고체계’ ‘규제체계’가 있으며, 이들 체계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총허용어획량 제도’라 부른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분배, 조업 및 규제 등의 모든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과학적 의사결정과 예방적 운영 형태를 띤다. 특히 총허용어획량 결정에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자원평가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자원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어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이를 어업인에게 배분한다. 이를 통해 할당어업이 이뤄진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근본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결정된 후 할당어업이 개시되기 때문에 어업이 지나는 근본적인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게 된다. 개별 어업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업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배분된 할당량에 의해서 이미 ‘가능한 최대 어획량’이 결정되는 셈이다. 즉 해당 어업 분야 전체의 최대 어획량인 총허용어획량을 세분화하여 개별 어업자에게 할당량을 배분하면 개별 어업자 단위의 가능한 최대 어획량도 결정된다. 이같이 배분된 할당량에 의해서 가능한 최대 어획량이 결정되면 시장의 수급체계에서 공급가능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어업자는 계획된 어업에 중

사할 수 있게 된다. 유통과 소비단계에서 시장수급 불안정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총허용어획량의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생물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모든 요인으로 결합한 통합 관리적 형태를 띠게 된다. 특히 총허용어획량은 반드시 생물학적 허용량(Allowable Biological Catch, ABC)을 바탕으로 결정하며, 과학적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할 때에도 가능하면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인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기본적으로 '생물적 지속성' '경제적 생존 가능성' '사회적 안정성' '행정적 효율성'을 운영체제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어업관리학(이상고·장창익, 세종, 2002), 해양생물경제학(이상고, 부경대학교출판부, 2007).

필자 이상고(李相高)

축제식양식어업

築堤式養殖漁業

정의 내만에 독을 쌓아 못을 만들거나, 바다에 제방을 만들어 천해의 일부를 막고 수문(水門)을 달아 물을 제방 안으로 순환시키면서 어류나 새우 등을 양식하는 방법.

역사 우리나라 어류 양식어업 가운데서 축제식양식어업은 가장 최초의 면허 대상이었으며, 1972년의 <양식어장시설 기준령>에서는 이를 '축양축기식양식(畜養畜機式養殖)'이라고 하였다.

<수산업법> 제11차 개정(법률 제3392호, 개정 1981.3.20.)에서 어민을 보호하고 수산종묘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종묘생산업을 도지사의 허가어업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기타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하여 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묘생산어업의 종류에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반영하였다. 제16차 개정(법률 제5131호, 개정 1995.12.30.)에

서는 어류 등 양식어업에 축제식양식어업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91호, 2005.3.31.)에 새로운 복합양식어업의 양식 방법으로 어류·해삼 또는 갑각류·해삼을 양식할 수 있는 축제식양식어업을 신설하였다. 이후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81호, 2005.6.23., 시행 2005.7.1.)에서는 2종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하여 수면을 보다 효율적·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류 또는 갑각류를 양식하는 축제식양식어업에 그 외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함께 양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얇은 내만에 독을 쌓아 못을 만들거나, 바다에 제방을 만들어 천해의 일부를 막고 간만차 또는 조류를 이용하여 수문을 통해 물을 순환시키면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방법이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8호, 2021.2.9.)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에서 어류 등 양식업, 복합양식업, 내수면양식업의 종류로서 축제식양식업은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류 양식 초기에는 주로 이 방법에 의해 어류를 양식하였다. 주로 간석지가 발달한 서해안에서 흰다리새우, 대하, 숭어 등의 양식이나 꽃게 등의 축양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내수면에서는 잉어와 붕어 등의 양식이나 축양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해수의 적은 교환율, 연작으로 인한 양식장의 노화현상,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대량폐사 등의 문제가 있어 최근에 와서는 축제식양식장을



축제식양식어업 | 인천 강화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축제식양식어업 | 2010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새로 만들지 않는 추세이다.

축제식양식에는 지중식과 수문식이 있다. 지중식池式은 완전히 연못처럼 육상에 설치된, 사방이 막혀 있는 양식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험 연구용이나 종자 생산용이며, 순환식 펌프를 사용한다. 수문식水門式은 풍파가 심한 장소에서 돌·콘크리트·방파제 등으로 해수의 일부를 차단한 후 만들어 놓은 수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해수의 간만 차이를 이용하여 수문으로부터 주·배수를 하고, 그 못 안에서 양식생물을 양성한다. 수심이 얕으면 썰물과 밀물 때의 환수 시 외에는 정수 상태가 되므로 수온의 변화가 심하고 밤에는 용존산소량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2m 내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만의 차가 크면 클수록 시설비와 양성지 해수의 환수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알맞은 조차의 크기는 4m 내외인 곳이 이상적이다. 수문에는 양식생물이 주·배수 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망 방지용 스크린screen을 설치한다. 바닥은 배수할 때 물이 완전히 빠

지도록 주·배수구 쪽으로 향하여 경사지게 만들어야 편리하다.

수문식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지형적으로 조건이 맞는 곳이 아니면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또 지중식과 마찬가지로 해수 교환이 어렵다. 특히 내만에 독을 쌓을 경우에는 해수를 교환하기 위한 조건이 더욱 나빠져서 방양밀도를 높일 수 없고, 대체로 양식생물의 성장도 불량하다.

특징 및 의의 서해안에 위치한 축제식양식장은 봄철에 연안 수온보다 1개월 정도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조피볼락, 감성돔, 가숭어 등의 종자생산이 시도되고 있다.

참고문헌 서해안 축제식양식장을 이용한 어류종묘생산 기술개발(해양수산부, 2002), 양식개론(유성규, 구덕출판사, 2002), 양식어업의 어장이용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최정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소, 2012), 어민을 위한 수산기술지-축양식 종합(국립수산진흥원, 1969).

필자 박민우(朴民祐)

정의 산지 어획물의 수집 및 반출 기능에 이용되는 수단.

내용 조선시대 출매선은 산지에서 소비지 시장으로 어물의 수집 및 반출 기능을 담당한 주요 운반선이다. 출매선이 가장 활발하게 어획물 수집 활동을 한 곳은 서해안의 조기어장, 남해안의 대구어장, 동해안의 명태어장이다. 한말韓末 남해안의 대구 출매선이 실어나른 주요 어획물 반출지는 부산, 통영, 삼천리 등이었다. 서해 칠산탄七山灘의 조기 출매선은 주로 법성포·군산·강경 등지로 어획물을 반출하였으며, 연평열도延平列島의 조기 출매선은 대부분 경성 부근의 마포·진남포 등지로 어획물을 반출하였다. 동해안의 명태 출매선은 신포新浦·신창新昌·차호遮湖 등지에서 명태를 수집하여 대개 원산·함흥 등지로 반출하였다.

출매선은 소속 근거지를 벗어나 여러 해역을 다니며 매매하였다. 한말 남해안의 대구어업 지역에서는 경상도 출매선뿐만 아니라 전라도·충청도 등지의 출매선도 거래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 특히 남해안 대구 출매선의 거래방식은 해상에서 구매하는 다른 지역의 거래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서해안은 조기 파시에서, 동해안은 명태 어장에서 출매선이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구매하였다. 하지만 남해안에서는 어선이 대구를 잡아서 어항의 어막漁幕으로 돌아오면 북을 쳐서 출매선에 알려 주고 포구에서 판매를 하였다.

출매선은 어획물 수집을 위하여 대개 어선에 자금을 전대前貸하고 출어 시에는 어장에서 어획물을 싼값에 독점 매수하였다. 예를 들면, 출매선이 조기를 매수할 때는 1,000미尾를 700미로 계산하고, 300미는 전대자금 이자로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선 1척에 3~5척의 전대 출매선이 붙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럴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어획물을 매수하였다. 출매선이 어장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수산물을 수집한 이유는 집산지와 어장 간의 가격 차이 때문이다. 한말 동해안의 출매선이 명태를 어장에서 구매해서 집산지로 가져가면 가격 차이가 1태貳당 2~4관문貫文, 즉 20~40냥이 났다. 명태 1태는 2,000마리이다.

원산·함흥 지방의 어상魚商이 운영하던 출매선은 건 폭肩幅 1장丈 2척尺에 적재력 100석石 정도의 크기로 선원 7~9명이 승선하였으며, 신포·신창·차호(현 함경남도 이원군)로 가서 한 번에 10~15태의 명태 선어를 구매하였다.

출매선이 수집한 어획물은 대개 소비지 또는 집산지의 객주를 통해 판매되었다. 출매선에는 운송 기능만을 가진 일반 출매선 그리고 저차低次 가공 기능을 갖춘 빙장선과 염어선 등의 특수 출매선이 있다. 출매선은 수산물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옮김으로써 조선 후기 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징 및 의의 육상陸商의 대표적 수산물 유통상이 부상負商이라면, 수상水商의 대표적 수산물 유통상은 출매선出買船이다. 출매선은 대량 거래 측면에서 보면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유통기구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육상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수상 운송수단인 출매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으며, 운영 수익도 많았다. 생산지에서의 어물 유통경로는 두 가지로, ‘생산자(어업자)—출매선—산지 거간—산지 객주—도·소매상—소비자’로 연결되는 생산지 중심형 어물 유통경로와 ‘생산자(어업자)—출매선—산지 거간—산지 객주—선상—소비지 거간—소비지 객주—시전—도·소매상—소비자’로 연결되는 생산지와 소비지 연계형 어물 유통경로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생산지에서 어물을 직접 소비하는 유통경로이며, 후자는 소비지(한성)에서 어물을 소비하는 경우의 유통경로이다.

참고문헌 국가 기록으로 본 조선 500년 수산업 연구 수산물 유통과 수산업 조세제도(김진백·장수호·김철희, 국립수산물과학원, 2018), 한국수산업사(박구병, 태화출판사, 1966).

필자 김진백(金鎭白)

칠게잡이

정의 칠게를 잡는 일.

개관 칠게는 절지동물문 십각목 달랑갯과의 게이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류이다. 주로 부드러운 갯벌 바닥에 직경 1cm 정도의 경사진 타원형 구멍을 파고 서식한다. 갯벌에 굴을 파고 서식하기 때문에 갯벌에 산소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유기 쇄설물을 섭식하여 갯벌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한 생물이다. 동해의 포항 이북을 제외한 전 해역에 분포한다. 전라남도 해안지역에서는 칠게를 ‘서렁기’라고 부르고 진도 지역에서는 ‘화랑기’라고 부르며, 순천 지역에서는 ‘썰룩게’라고 부른다. 충청도에서는 ‘능쟁이(능쟁이)’라고도 부른다. 사전에서는 “달랑갯과의 게, 등딱지의 길이는 3.6cm 정도로 길쭉하며, 앞이 조금 더 넓고 작은 과립과 털로 덮여 있다. 수컷이 암컷보다 집게다리가 크다. 해변의 진흙질 바닥에 구멍을 파고 사는데,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갯벌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 조건 중 하나가 철새의 도래와 보존이다. 그런 측면에서 갯벌의 효용과 칠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경우 먹이생물이 어류·갑각류·다모류·곤충류인데, 주로 갑각류를 섭식한다. 최우점 먹이생물은 풀망둑이지만 그 외에 칠게를 비롯하여 길게·징거미새우류·각시흰새우·참갯지렁이 등도 잡아먹는다. 송도갯벌과 시화호에서 발견된 저어새의 먹이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칠게는 낙지와 문어가 선호하는 먹이기도 하다. 연체동물인 낙지가 절지동물의 딱딱한 껍데기까지 부숴먹는 모습이 신비롭다. 칠게는 전라북도 새만금 광활 지역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영종도 용요갯벌의 사니질에서 많이 서식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 인천 척전갯벌 상부에서도 서식하고, 고군산군도 필질성 갯벌에서 우점하였다. 수컷은 집게다리가 큰데, 안쪽으로 휘었다. 암컷은 집게다리가 짧고, 다른 다리 마디의 앞부분은 숟가락 모양으로 파져 있다.

내용 칠게잡이는 주로 구멍을 뒤져 손으로 포획하는 맨손어업으로 이루어진다. 남해안의 여자만 거차마을의 경우 방법의 일종인 건강망을 이용하여 칠게를 잡

기도 한다. 거차마을에서는 V자 형태의 건강망을 설치한다. 대개의 방법이 모두 ㄱ자 혹은 V자 형태를 떠는 것은 모서리에 임통을 두어 고기를 어획하기 위함이다. 서남해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개구리를 미끼로 서렁기 낚시를 하기도 한다.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 등을 줄에 묶어 대나무 가지에 매달고 갯바위 등에서 아래편 갯벌에 던진다. 그러면 서렁기들이 개구리를 먹기 위해 달라붙는다. 이때 마치 낚시를 하듯이 건어 올린다. 순천만에서는 빨배를 이용하여 칠게잡이를 한다. 빨배를 타고 갯벌을 재빨리 이동하며 구멍 속의 칠게를 잡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갯벌 체험학습으로 칠게잡이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강화도의 갯벌체험도 그중 하나이다. 다만 근자에는 영종도나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으로 칠게잡이를 하는 바람에 갯벌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른다. 예컨대 플라스틱관 등으로 어구를 만들어 갯벌에 고정해 두고 마구잡이로 칠게를 잡는 방식인데, 사람들은 플라스틱 파이프를 가로로 쪼갠 후 갯벌에 묻어둔다. 이때 파이프 양쪽 끝에 지름 약 30cm의 플라스틱 통(양동이)을 설치한다. 그러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간 칠게는 옆으로만 가는 게의 특성상 임통의 변형인 양동이에 떨어져 잡히게 된다. 문제는 이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갯벌에 무수히 방치된다는 점이다. 칠게는 갯벌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잡는 방식이 갯돌을 들어 올려 잡는 방게류와는 다른데, 그러한 차이가 갯벌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서남해 진도 지역에서는 방게를 ‘똥장기’라고 한다. 등딱지의 길이가 약 3cm이고 폭은 3.5cm로 칠게보다 약간 작고, 몸은 사각형으로 약간 우툴두툴하고 칠게보다 다리에 털이 적다. 한자어로는 방해(螃蟹)라고 하며, 팽기·방게로도 불렸다. 해변이나 민물에 살며,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이러한 똥장기는 보통 삶아서 먹는데, 칠게는 절구통에 넣고 갈아서 게장으로 먹거나 간장을 부어 양념하여 게장으로 먹기도 한다. 게장은 밥도둑이라 할 만큼 재미(씹을수록 고소한 맛, 또는 그 음식 속에 녹아 있는 독특한 맛)가 깊다.

특징 및 의의 칠게잡이는 음력 3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

진다. 또 낙지 주낙에서 게가 주로 미끼로 활용된다. 사기 조각에 게를 묶어두면 낙지가 게를 먹기 위해 달라붙는다. 문어를 잡는 낚시나 통발의 먹이로도 사용된다.

참고문헌 널배를 이용한 갯벌어로 관행과 공동체(박종오, 도서문화5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7), 전남 하의도 갯벌에 서식하는 칠게, *Macrophthalmus japonicus*의 연령과 성장(권대현 외, 한국수산과학회지41-4, 한국수산과학회, 2008), 차세대염기서열 및 현미경 분석을 통한 저어새의 토사물 내 먹이생물 분석(김현정 외, 환경생물학회지36-2, 한국환경생물학회, 2018), 한국해양무척추동물도감(홍성윤, 아카데미서적, 2006).

필자 이윤선(李允先)

ㄸ

칠산 조기어장

칠산 조기어장

정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안에 걸쳐 있는 칠산^{七山} 바다에서 행해지던 조기 어장으로, 연평도 및 흑산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조기 어장 중 하나.

내용 회유성 어류인 조기는 오랫동안 서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어업 환경이 바뀌면서 예전의 화려하던 명성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1970~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해안 여러 곳에서는 조기 어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칠산바다에서 행해지는 칠산어장^{七山漁場}은 연평도와 흑산도 어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조기가 많이 잡히던 곳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칠산^{七山}’이라는 명칭은 영광군 낙월면에 속한 ‘칠피’라는 곳과 관련이 있다. 칠피는 일산도, 이산도, 삼산도, 오산도, 육산도, 칠산도라는 일곱 개의 무인도를 가리킨다.

칠산어장의 공간적 범주는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나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를 중심으로 하여 고군산도와 위도 앞바다 그리고 안마도 근해까지를 포함한다. 칠산어장에서의 조기 어업은 봄철, 정확하게 말하면 곡우^{穀雨} 무렵을 전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흑산도 근해에서 거울을 보낸 조기는 알을 낳기 위해 떼를 지어 북상하는데, 칠산어장에는 곡우 무렵에 도착하게 된다.



법성포 단오제 칠산용왕제 | 전남 영광 | 국립민속박물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칠산어장에서 조기잡이가 시작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토산품은 조릿대와 왕대 그리고 석수어(조기)인데, 군의 서쪽 파시평^{波市坪}에서 난다. 봄·여름 사이에 여러 곳의 어선이 모두 이곳에 모여 그물로 잡는데, 관청에서 그 세금을 걷어 나라에서 사용한다.”라는 기록을 보면 조선 초기부터 조기 어업이 이곳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영광군에 관한 기사 중 “북쪽 20리에 있는 파시전^{波市田}에서 조기가 산출된다. 매년 봄에 경외^{京外}의 상선^{商船}이 사망에서 모여들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판매하는데, 서울 저잣거리처럼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다. 고깃배들이 모두 세^稅를 낸다.”라는 기록 역시 칠산어장에서 행해졌던 조기어업의 실상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칠산어장이 조기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오래전부터 조기잡이 철이 되면 전국에서 몰려든 어선과 상선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어족자원의 고갈과 어선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조기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자연스레 조기를 잡기 위해 이곳을 찾던 수많은 어선과 상선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칠산 조기어장은 우리나라의 조기 어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어로요를 비롯해 서도민요의 뱃노래 등에도 등장할 만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어장이다. 조기 어업환경이 바뀌어 예전의 화려한 명성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수많은 어선과 상선이 조기를 잡기 위해 찾아오던 곳이었으며, 조업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970년대 조기어업 쇠퇴에 따른 위도 주민들의 대응양상 고찰(서종원, 한국전통문화연구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8),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서종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조기에 관한 명상(주강현, 한겨레신문사, 1998).

필자 서종원(徐鍾源)

콜드체인

정의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이하 수산물)의 유통 시 상품의 품질(선도 등)을 유통 목적에 맞추어 제품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물류기술.

개관 수산물은 상품 자체의 특징으로 미생물이나 효소의 작용을 받아 변질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 나빠져 상품의 가치가 낮아지며, 가치 저하가 심각할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얼음을 이용한 빙장법氷藏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해요인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고, 각각의 상품 특성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콜드체인을 도입하고 있다.

콜드체인cold chain은 저온유통이라고도 불린다. 넓

게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좁게는 수산물의 양륙 후부터 소매유통까지의 유통단계에서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여 유통하는 여러 기술의 융복합 시스템을 통틀어 칭한다.

내용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농축수산식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후 변화로 여름철 온도가 급상승하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 유통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위해 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 화학적·물리적 변화를 늦추기 위한 신선물류기술에는 냉동·냉장 포장기술, 운송기술, 물류 경로의 설계 및 유기적 통합, 모니터링 기술 등의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통틀어 콜드체인이라고 한다.

콜드체인은 기술적으로 ‘제품화 기술’ ‘물류 인프라 및 수송기술’ ‘품질 검증 및 보증기술’의 조합을 의미한다. ‘제품화 기술’은 제품 자체의 특성(온도와 습도에 대한 민감성, 온도와 습도 유지조건 등)에 따른 포장 등 제품가공기술을 말한다. ‘물류 인프라 및 수송기술’은 온도와 습도 유지, 모니터링, 제어 등 수송 중 품질을 보전할 수 있는 시설(창고 등)이나 장비(포장, 온도 조절 컨테이너, 트럭 등)와 관련된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품질 검증 및 보증기술’은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분석·인증·표준화 등 과학적인 운영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수산물은 육질이 부드러워 미생물이나 효소의 작용을 쉽게 받아 변질이 빠르다. 특히 어획 후 내장 제거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내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하여 변질이 촉진된다. 또한 수산물 내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로 인한 변색이 일어나기도 하며,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거나 단백질의 변성 등이 촉진되어 품질이 저하되기도 한다.

수산물의 이러한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까지 수산물을 얼음으로 덮어 운송하거나 얼음 위에 수산물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빙장법氷藏法을 활용하였다. 이는 얼음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저온 상태에 놓음으로써 변질 속도를 지연시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도 수산물 생산 후 양륙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산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품질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빙장법으로 수산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등 관리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현대화된 방법이 요구되었다.

콜드체인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 위해요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보호하여 소비자가 수산물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온도에 민감한 수산물을 적절한 온도에서 유통하지 못할 경우 상품으로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여 생산된 수산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의 품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선도鮮度, freshness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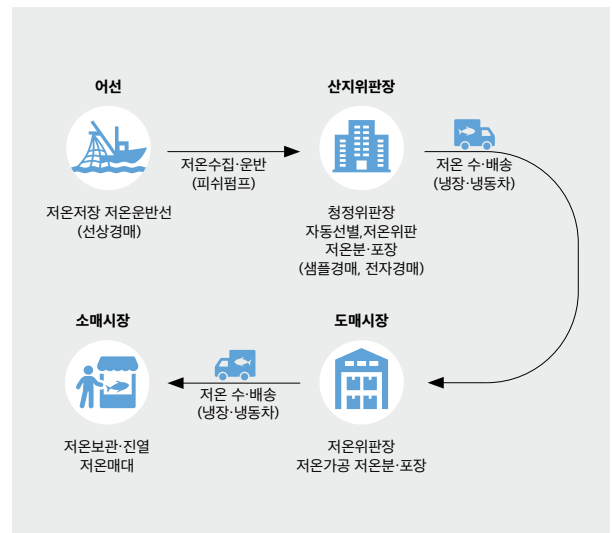
콜드체인 시스템은 상품의 관리와 유통 과정의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의 관리란 수산물이 유통되는 형태(활어, 신선·냉장, 냉동, 가공품)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온도 수준에 맞도록 상품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활어의 경우 다른 수산물과 별도의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드체인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유통 과정의 관리는 넓게는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좁게는 어획물 양륙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의 관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수산물은 상품에 따라 초저온·냉동·냉장으로 구분하여 온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통상 다랑어류는 영하 40℃ 이하의 초저온 상태의 시스템이, 냉동 수산물과 냉동가공식품 그리고 냉동연육은 영하 18~40℃의 시스템이, 그 외의 수산물은 영상 10℃에서 영하 18℃ 사이의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어육가공식품과 생식용 굴은 영상 10℃ 이하 수준을, 어류와 혼제 연어 등은 영상 5℃ 이하 수준을, 얼음을 이용한 빙장의 경우는 영상 2℃에서 영하 2.2℃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구분하고 있다.

전 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



수산물 저온유통 체계도 | 해양수산부

역의 콜드체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음식물쓰레기 방지에 대한 인식의 확산, 조직화된 소매업의 성장,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와 함께 정부 지원 및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콜드체인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콜드체인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말에는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콜드체인 기반의 수산물 품질 관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매뉴얼의 적용 범위는 품질관리와 유통단계로 구분하여, 어획 후 산지위판장에서 운송을 포함한 소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수산물의 선도관리 시설과 위생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리항목은 산지위판장과 공영도매시장의 작업구역별 시설·온도·위생관리, 제·저빙 및 냉동·냉장보관시설과 냉장·냉동 차량 관리 등이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유통 단계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온도 유지와 오염원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로 '아이스 컨베이어'나 '제트쿨러' 같은 설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아이스 컨베이어란 수산물의 상차나 하차,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컨베이어시스템에 냉각설비를 적

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제트쿨러 방식은 냉매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 공기를 튜브 내에서 고속으로 회전시켜 발생하는 냉풍을 이용하여 상품의 냉각에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상용화된 장치로 개발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수산물 유통 과정에 직접 적용되어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징 및 의의 콜드체인은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상품의 품질을 유통 목적에 맞도록 제품별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과 관리기법을 통틀어 말한다. 좁게는 상품의 양륙揚陸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넓게는 상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되는 단계까지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콜드체인기술은 수산물이 생산된 상태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여 소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품질 저하 및 변질로 인한 폐기를 최소화하여 식품 손실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2019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해양수산부, 2020), 고등학교 수산 일반(김삼곤 외, 경상북도교육청, 2018),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 매뉴얼(해양수산부, 2019), 콜드체인물류 시장 현황과 시사점(김소형, KOTI 물류브리프11-4, 한국교통연구원, 2019), KATS 기술보고서107-신선물류 산업 동향 및 표준화 동향(김종경,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2018).

필자 류정곤(柳廷坤)

키

정의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내용 한선韓船에서 배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장치는 돛, 노, 키(치) 등이다. 이 중에서 키는 배의 진로 방향을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 키라고 하는 명칭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경기도에서만 ‘키’라 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치’라고 불렀다. 키에 대한 우리나라 기록은 1972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발견된 『헌성유고軒聖遺稿』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1822년(순조 22) 3월 25일부터 윤3월을 지나 4월 26일까지 61일간의 사선 건조 과정

이 일기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배의 설계도와 함께 키의 그림도 남겨져 있다. 『헌성유고』에 그려진 키의 모습은 요즘 화물선 키의 모습과 유사하며, 거머리 못을 사용하여 키분을 부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키는 창나무, 키분, 킷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나무는 여목·키손·창손이라고도 부르며 키의 손잡이에 해당한다. 창나무는 킷대 상단에 꽂아 좌우로 비틀면 킷대와 키분이 그 방향에 따라 회전한다. 강진 용기배의 경우 길이가 다른 3개의 창나무를 갖추고 있는데, 3개의 창나무 중 긴 것은 키분의 아랫구멍에 끼워 사용하며, 방향을 전환할 때는 짧은 것을 윗구멍에 끼운 후에 긴 것을 뺀다. 방향을 전환한 후에는 다시 긴 것을 아랫구멍에 끼워 운행한다. 키분은 파리·파리채·치널·키판·치판·타널·답분·하타상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배가 이동할 때 물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키의 아랫부분에 붙어 있는 널판이다. 키분은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배의 전진 방향을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 ‘킷대’는 ‘킷대’, ‘키다리’라고도 부르는데, 키의 중심부를 이루는 둥글고 긴 나무 형태로 한쪽에는 파리가 달



완성된 키



삽입된 키

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창나무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키가 뺨는 방향에 따라 옥치와 벗치로 나뉜다. 전향타로 불리기도 하는 옥치는 선체 밑으로 뺨는 타로, 어선에 많이 사용되는 키이다. 후향타로 불리기도 하는 벗치는 선체 뒤로 뺨는 키로, 『각선도본各船圖本』에 기록되어 있는 「북조선」 「전선」 「병선」 등에 나타난다.

키의 제작은 ‘재료 선별·다듬기·재단’—‘키분 및 키창(치창) 제작’—‘조립 및 설치’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재료 선별·다듬기·재단은 제재소에서 단단한 나무를 선별하여 껍질을 벗긴 후 원형으로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다. 키분 및 키창 제작은 키분과 키창을 제작·조립하는 과정이며, 이때 키분의 상단과 하단에 도르래를 설치하여 키의 내림과 올림을 수월하게 한다. 조립 및 설치하는 완성된 키를 선다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배를 물에 띄우기 직전에 이뤄진다.

키를 조종하는 사람을 키잡이·조타수·타수라고 칭한다. 키잡이가 키를 조종하는 방식에는 ‘빠들어가다’ ‘나돌리기’ ‘대어가다’ ‘더 나가다’ ‘돛을 덜다’ ‘돌러가다’ 등이 있다. ‘빠들어가다’는 배를 운행하던 중에 키 조종의 미숙함과 맞바람에 의해 배가 빗각으로 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나돌리기’는 키를 밀고 아덧줄을 늦추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배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어가다’는 키를 밀어 바람에 가까이 붙어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가다’는 키를 당겨 뱃머리가 바람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돛을 덜다’는 키를 움직여 바람의 압력을 떨어뜨려 안전하게 배의 진로 방향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돌러가다’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키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 및 의의 키는 자동차의 핸들처럼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이다. 키는 몇 개의 판자를 붙여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배의 운항에 있어 중요한 장치이다. 전통 한선에 설치되는 키는 전향타前向舵와 후향타後向舵를 두루 사용하였으나 근대에는 후향타가 많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근대한선과 조선도구(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돛단배 이야기(마광남, 미래촌, 2009), 전통선박 조선기술3-강진 웅기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우리배 용어사전(seamuse.go.kr).

필자 이동아(李東娥)

태안어시장

泰安魚市場

정의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태안군 내 시장.

내용 충청남도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11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관할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충남 태안은 호남에서 한양으로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의 길목이었다. 이 바다에서 나는 토산土産은 김과 같은 해조류와 전복·석굴·조개·소라 등의 패류 그리고 해삼 외에 전어·송어·농어·청어·갈치·조기·오징어·삼치 등의 어류였다.

현재 태안읍 행정복지센터 근처 서문4길은 주민들이 조식시장朝夕市場이라고 부른 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장 입구부터 중간까지 절반은 주민들 사이에서 불린 어시장이 차지하였다. 상인들은 동태·조기·갈치 등의 어류와 패류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나머지 구역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일반 잡화를 판매하는 시장



태안서부시장 | 충남 태안 | 2015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이었다. 농촌 아낙들은 자신이 지은 농산물 등을 가져와서 골목에서 좌판을 벌이고 판매하였다. 당시 시장 인근은 경찰서·소방서·우체국 같은 관공서, 농협 같은 금융기관, 충남교통 터미널 등이 있어서 태안군의 행정·경제·교통 중심지로 시장 형성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 현재 시장 주변은 일반 주택가로 변하였다.

버스터미널이 신축 이전한 후에는 시장 판도가 변하였다. 초기 터미널 근처는 상인·주민·여행객들의 잦은 왕래로 노점상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하면서 점차 기존 상인들이 가세하였다. 조석시장 상인들은 하나둘씩 터미널 근처로 상가를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태안군이 인근의 5일장인 동부시장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하였지만, 시장은 주민들이 주로 찾는 서부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주민들은 지금도 서부시장 수산물 코너를 어시장으로 부른다. 어시장은 선어·활어·패류 판매점 50여 점포가 주류를 이루었다. 어시장 내 점포 수는 이들을 포함해서 건어물·선어 판매소 등과 함께 60여 개에 이른다. 판매는 어패류 등을 산매하는 방식, 활어를 회로 떼서 패류 등과 함께 판매하는 방식, 어패류를 판매하며 식당을 겸하는 방식, 건어물 또는 선어만을 판매하는 방식 등으로 한다. 활어와 패류를 취급하는 점포는 수조 등을 갖추고 있다. 어시장 근처에는 우럭 덕장도 있다.

항포구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과 수산물직판장이 개설되어 산매상과 소비자들에게 해산물들을 유통하고 있다. 서산수협은 안흥과 모항 및 채석포위판장을 운영하고, 남부수협은 마검포와 몽산·드르니·당암위판장을 운영하며, 안면도수협은 백사장과 영목위판장을 운영한다. 또한 어촌계와 선주 및 양식업 종사자들은 영어조합을 조직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태안군 내 어시장은 전통시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항포구와 연안에 위판장과 직판장을 개설하여 산매상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영어조합 결성과 생산·가공에 이은 택배와 인터넷 판매 등은 또 다른 방식의 어시장이다. 어족자원과 어업인력 감소, 어촌 고령화 등은 어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시장을 개척하게 한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충남 지역수협 혁신전략에 관한 연구(서정민 외, 충남연구원, 2016), 태안군지(태안군, 1996), 태안 통계연보(태안군, 2020), 현지조사자료(문무부, 충남 태안, 2021.6.27.), 서산수산업협동조합(seosansuhyup.co.kr).

필자 박종민(朴鍾珉)

테왁

정의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할 때 해엄처서 이동하거나 물 위로 올라와서 잠시 쉬기 위해 짚는 둥근 박.

개관 ‘테왁’은 해녀들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둥근 박으로 ‘두렁박’이라고도 하며, ‘큰 박’이라는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식물인 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나 현재는 스티로폼(styrofoam)으로 만든 것을 주로 사용한다.

테왁은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띄워서 해녀가 가슴에 얹고 해엄칠 때 주로 사용하지만, 물속으로 잠수하였다가 물 위로 올라와 숨비소리를 낼 때도 테왁을 붙잡고 잠시 쉰다. 테왁 밑에는 망사리를 달아서 어획물을 넣어둔다. 테왁의 크기는 망사리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해산물이 많이 담긴 큰 망사리 속 해산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커야만 하였다. 테왁은 바다에서 해녀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내용 테왁은 본래 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테왁’이라고도 불렸다. 박의 제주방언이 ‘꼭’이기 때문이다. 테왁의 크기는 보통 높이가 25cm, 둘레는 90cm 정도이다. 하지만 크기가 이보다 작은 것도 있다. 작은 박으로 만든 이런 테왁은 어린 해녀들이 처음 물질을 익힐 때 사용하던 것으로, ‘애기테왁’이라 불렸다. 이때는 채취물의 양이 적고 채취한 해산물의 종류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테왁의 전통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을에 잘 익은 박을 타서 꼭지를 따고 구멍을 낸다. 열기가 있는 곳인 부엌 같은 곳에 거꾸로 매달아서 두세 달 그대로 두면 박 속의 물이 마르고 씨와 속의 내용물이 분리

되어 나온다. 대막대 등을 이용하여 속이 텅 비게 파내어서 바깥 말린 후 구멍 낸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다. 막을 때에는 고무풀을 사용하였다.

또한 테왁의 윗부분을 짚었을 때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줄을 매어서 다는데, 이때 머리털·미(억새)·신서란·나일론끈 등을 사용하였다. 지역에 따라 만드는 법에 차이가 있어서 제주시 서쪽 편에 사는 사람들은 테왁을 네 갑으로 엮지만, 제주시 동촌 지역에서는 여섯 갑으로 엮는다.

1960년대 중반부터 스티로폼을 재료로 하여 둥근 테왁의 크기로 자르고 형겅이나 포를 이용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겹을 찢아 ‘스티로폼 테왁’을 사용한다. 근래에는 물질 작업을 하는 장소를 표시함으로써 배와의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눈에 잘 띄게 만든다. 지역마다 주황색이나 빨간색 등으로 테왁의 색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테왁 | 광복 이후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테왁 | 198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꼭테왁은 스티로폼 테왁보다 부력이 강하지만 깨지기 쉬운 재질이다. 테왁에 의지하여 작업하는 도중에 바위에 부딪쳐 깨지거나 하면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육지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그해에 번 돈을 테왁 속에 숨겨서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 돈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거나 가족들의 학비에 보태기도 하였다. 테왁이 금고 역할까지 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테왁은 해녀들이 사용하는 물질 도구이자 물질 작업의 상징이며, 해녀들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이다.

시아버지가 테왁과 망사리를 만들어 시집온 며느리에게 주는 것은 물질의 시작을 뜻하고, 나이든 해녀가 테왁을 없애 버리는 것은 물질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테왁은 물질의 표상과도 같은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해녀들은 소중하게 여겼다.

참고문헌 제주의 해녀(김영돈, 제주도, 1996).

필자 좌혜경(左惠景)

토굴새우젓

정의 소금에 절인 젓새우를 토굴에서 익힌 젓갈.

개관 젓새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잡히는 어종이다. 토굴을 이용하여 새우젓을 대량으로 숙성시키는 전통은 광복 이후에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남도 광천 웅암포구와 인천광역시 부평 등이 토굴새우젓으로 유명하다. 웅암포의 새우젓은 1949년 폐광 내부에 새우젓독을 보관하면서 비롯되었다. 웅암마을 뒷산에는 일제강점기 때 금광 개발로 뚫어 놓은 토굴이 있는데, 이곳에서 새우젓을 숙성시키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토굴 안의 온도는 사계절 15~17℃를 유지하기 때문에 새우젓 숙성

에 안성맞춤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상하지 않는다.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웅암포구는 1960년대 토굴새우젓이 유명해지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부평 토굴새우젓 역시 웅암포구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부평 산곡동 일대의 야산에 24개의 인공토굴이 있다. 이 토굴은 부평을 병참기지화하려는 일제가 미군의 폭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많은 조선인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 산곡동에 버려진 토굴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7개의 토굴이 새우젓·황석어젓 등을 숙성시키는 장소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광천의 토굴새우젓보다 부평토굴의 역사가 깊다고 한다. 부평토굴은 삼복 더위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시원하다. 따라서 이곳에 젓갈을 보관하면 숙성이 잘되어 여느 시장에서 파는 새우젓보다 맛이 훨씬 좋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과거 소래포구와 강화도에서 잡힌 새우는 물론 충남 일대와 전라남도 목포 등 서해안에서 잡힌 새우까지 이곳 토굴에서 숙성시켰다고 한다.

내용 새우젓은 젓갈을 담그는 시기에 따라 명칭도 다르고 맛도 차이가 있다. 익히 알려진 오젓·육젓·추젓이 그것이다. 오젓은 음력 5월에 잡은 새우젓으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육젓보다는 작다. 육젓은 음력 6월에 잡힌 새우로 담근 젓갈로, 알이 차고 살이 튼실하여 식감이 좋고 단맛이 풍긴다. 따라서 새우젓 중에서 최고로 칠 뿐만 아니라 값도 소고기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추젓은 가을에 잡은 새우로 담근 젓갈이다. 추젓은 오젓보다 작고 깨끗하다. 또 오젓이나 육젓보다 조금 함량이 적다. 어획시기가 신선한 가을이다 보니 조금을 적게 써도 부패하지 않고 값이 저렴하여 김치를 담그는 젓갈로 주로 쓴다. 토굴새우젓은 김장철에 맞춘 추젓의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값비싼 육젓은 상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냉장시설에서 숙성시킨다.

바다에서 잡은 새우젓은 그물에서 건져 올리는 즉시 어선에서 염장하여 신선도를 유지한다. 이를 토굴로 옮겨 일정 기간 숙성시킨 뒤 먼저 넣은 것은 빼내고 나중에 잡은 것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순환 생산한다. 토굴에 저장된 새우젓은 3개월 남짓 숙성시킨다. 따



광천 젓갈토굴 | 충남 홍성 | 2018 | 국립민속박물관



부평토굴 | 인천 부평구 | 2020 | 강성복

라서 오젓과 육젓은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제맛을 내고, 추젓은 11월이 지나야 한다. 이곳에 저장한 젓갈은 2~3년이 지나도 맛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 웅암포에는 약 30개의 토굴이 있으며, 굴 하나에 1,500~2,000개의 드럼통을 보관할 수 있다. 매년 생산량은 약 1,500t으로 전국 새우젓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에 현재 단절 위기에 놓인 부평의 토굴새우젓은 오젓과 추젓을 주로 숙성시켰으며 토굴의 바깥은 황석어젓, 안쪽에는 새우젓을 저장하였다고 한다. 새우젓 중에서 최고급으로 치는 육젓은 물량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인천과 강화도 일대에서는 새우가 잡히지 않아 전남 목포나 신안 등지에서 어획한 젓새우를 구입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육젓은 한 드럼에 1,000만 원 이상의 고가여서 토굴에 넣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싼 데다 안전상의 이유로 저온창고에서 숙성시켰다.

특징 및 의의 토굴에 저장한 새우젓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숙성된다. 따라서 저온창고에

보관한 것갈에 비해 맛이 달고 품질이 균일한 장점이 있다. 과학적인 숙성기법이 발전하였지만 토굴새우젓의 맛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냉장시설이 미비하였던 지난날 ‘자연 상태로 숙성시키면 맛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전통지식의 산물이다.

참고문헌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부평문화원, 2018),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1·2(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20), 홍성 독배마을(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대원사, 2008).

필자 강성복(姜成福)

E

툫양식

툫양식

정의 툫의 어린 유체(幼體)나 포복지(匍匐枝, 헛뿌리)를 수집하여 연승식 시설의 어미줄에 부착하거나 꽃아서 양식하는 과정.

역사 툫양식은 1980년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중도 연안 1ha에 10대의 연승식 양식시험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84~1990년에는 완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에는 자연산 어린 유체를 수집하여 미역양식 시설과 같은 연승식 시설의 어미줄에 부착하거나 꽃아서 양식하는 불완전 양식 방법이 주류를 이뤘다.

툫양식의 산업화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994~1997년에 수행한 툫 포복지 이식시험 연구의 성과로 시작되었다. 완도군 보길면의 한 양식장에서 5월경이면 철거하던 시설의 재활용 가능성을 시험한 결과 툫 포복지에서 재생된 엽체(葉體)와 자연산 엽체를 종묘로 한 경우 5월 이후에 생산성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연산 종묘를 채취할 필요 없이 양식장 포복지를 재사용함으로써 양식용 종묘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툫 포복지의 재생력을 이용한 종묘확보 방법은 현재 완도군 보길도와 노화도 지역에 정착되어서 포복지에 의한 툫양식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내용 툫(*Sargassum fusiforme*(Harvey))은 유성세대만 있는 다년생 해조류로 암·수 배우체에서 나온 난(卵)과 정자가 접합하여 유배를 만들고, 이 유배는 발아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유성생식 과정과 몸체의 가근부(헛뿌리)에서 새싹이 나와 새로운 개체로 자라는 무성생식(영양번식)의 두 가지 생식법이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툫은 배우체 세대이며, 길이는 1~2m에 이른다. 자연 상태에서 방출된 알과 정자는 수정하여 발생을 시작하면 어린 배(幼體)가 되고 가근세포로 발달하여 단단한 물질에 착생하고, 여름에 유체로 자란다. 가을이 되면 육안으로도 보이는 크기의 유체가 나타나서 겨울철에 들어가면서 성장을 시작하여 다음 해 3~4월에 왕성하게 자라 성체가 된다. 몸체는 외줄기이지만 여러 개의 줄기를 가지는 것도 나타난다. 5~6월에 성숙하여 알과 정자를 방출하면 점차 엽상체는 소실되고 뿌리 부분만 남는다. 또한 가을에는 남아 있던 뿌리 부분에서 포복지가 3~4개 생기게 되면 끝부분에서 직립체가 나와 새로운 툫으로 자라고, 묵은 뿌리 부분은 없어진다. 자연 상태에서는 유배에 의한 번식보다는 포복지에 의한 영양번식이 우세하다. 툫은 이처럼 매년 싹을 내면서 계속 생육한다. 따라서 다년생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뿌리에 의한 영양번식을 매년 되풀이하는 셈이다.

툫의 주 생산단지인 완도군 해역의 양식 환경조건에서는 종묘인 어린 툫 시설은 17℃, 양성은 17~20℃, 수확은 25℃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툫의 양식 방법은 종묘 시설(11월)—양성(12~4월)—수확(5~7월)—월하 관리(7~10월)를 반복하고 있다. 종묘 시설



양식툫 채취 | 전남 완도 | 2015 | 완도군



양식톳 채취 | 전남 완도 | 2015 | 완도군

은 자연산 톳 또는 월하를 거쳐 영양번식으로 발생한 7~15cm 크기의 양식 톳 뿌리를 이용한다. 종사種糸에는 10cm 간격으로 1개체씩 심으며, 이 종사를 어미줄에 시설하는 것으로 감기식과 끼우기식 2가지 방법이 있다. 양성시설은 1ha에 20대(1대는 100m)를 기준으로 하여 어미줄을 외줄로 설치하고 양 끝을 닻으로 고정하는 외줄 연승식과 가로세로 네 귀의 틀을 제작하여 닻으로 고정하는 사각 연승식으로 나눌 수 있다. 풍파가 심한 곳이나 외해에 면한 곳은 외줄 연승식, 풍파가 적고 조석 간만의 차이가 적은 곳은 사각 연승식으로 시설할 수 있다. 양성시설물은 외양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강풍과 파랑에 파손될 우려가 크다. 또한 종묘가 탈락하고 잡조류와 해적생물들이 착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시설물 보수 및 종묘 보식이나 잡조 제거 등 양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톳 채취 시기는 지역별이나 해황 여건 및 환경에 따라 다르고, 생 톳과 가공 톳 등 제품 생산에 따라서도 다르기에 시장성을 고려하여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톳 제품의 상품성을 고려한다면 성숙하기 전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

특징 및 의의 톳은 우리나라 모든 해안의 바위 조간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제주도와 남해 중서부 해안은 바위 조간대의 지형이 완만하고 파도의 영향을 적당하게 받아 톳에 적합한 환경을 이루어서 다른 해안에 비하여 톳이 매우 풍부하게 자란다. 그러나 조간대의 경사가 급하고 파도를 심하게 받는 동해안과 펄 조간대가 많은 서해안에서는 드물게 자란다. 자연산 톳이 자라는 조간대 바위에는 한살이가 비슷한 지충이 *Sargassum thunbergii*가 같이 자라면서 공간 확보 경쟁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해가 갈수록 지충이가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톳 바다 가꾸기에서는 경쟁 해조인 지충이를 없애 톳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한다. 갯둑기와 더불어 어린 톳이 잘 붙도록 바위를 조간대에 넣어 주는 투석 방법이 증식 효과가 크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톳의 수확은 보통 음력 2월 그믐부터 3월 보름 이전까지 이루어진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톳에 미세한 해조류가 많이 착생하여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을 나면서 톳 바다의 수온이 높고 낮음을 가늠하여 수확시기를 조절한다.

톳의 유성생식을 이용하여 종자(유배)를 생산하면

그해에 양성용 종자(어린 툏)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에 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성숙한 모조로부터 대량방출의 시기를 알맞게 조절하기 어려운 점, 채묘가 되더라도 유배의 탈락이 많은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양식 기술의 문제와 더불어 인공 종자(수정란 또는 유배)를 생산한 후 가이식(바다 적응 기간)과 본양성을 거쳐 상품 크기로 키워 채취하는 양식 과정은 기간이나 경제성의 이유로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다. 반면에 영양번식에 의한 양식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 그해에 종묘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까지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에서 양식 말기에 엽체를 채취하고 남은 포복지를 여름철 고수온기 동안 월하 관리하여 11월경 양식 시설 시기에 종묘로 재사용함으로써 양식장에서 그대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감소하는 자연 어장의 툏을 보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국립수산과학원, 2016), 한국동식물도감8-식물(해조류)(강제원, 문교부, 1968), 한국의 조류2-2-해산 갈조류2(부성민 외, 국립생물자원관, 2010),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 2013), 해조양식(강제원·고남표, 태화출판사, 1977).

필자 공용근(孔龍根)

툏채취

정의 조간대 갯바위에 서식하는 툏을 채취하거나 바다에서 양식한 툏을 거두는 일.

개관 툏은 갈조류 모자반과에 속한 바닷말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에 따라 툏, 툏나물, 따시래기, 흙배기, 봉당틀 등으로 불린다. 한방에서는 사슴 꼬리와 유사하다고 하여 ‘녹미채(鹿尾菜)’라고 한다.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서는 ‘토의채(土衣菜)’라 하였는데, 풀이하면 ‘툏나물’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또한 덧붙여 설명하기를 “길이는 8~9자 정도이다. 한 뿌리에 한 줄기가 난다. 줄기의 크기는 새끼줄 같으며, 잎은 금은화(金銀花, 인동꽃)의 꽃망울을 닮아 가운



툏을 채취하는 해녀들 | 제주 | 1980 | 국립민속박물관

데가 가늘고 끝이 두툥한데, 그 끝은 날카롭고 속이 비어 있다. 번식하는 지대는 지중(地中)과 같은 층이다.”라고 하였다.

툏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조간대 하부의 완만한 암초 지대에 군락을 이룬다. 오염원이 없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원에 두루 분포하는데, 자연산 툏 생산의 중심지는 제주도과 남해안 일대이다. 툏채취는 자연산 툏과 공동어장에서 양식한 툏으로 대별된다. 자연산과 양식산의 채취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양식툏은 전라남도 완도·진도를 비롯하여 신안·고흥·여수 등의 섬에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내용 툏은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뿌리에서 싹이 돋아난다. 10월이 되면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이고, 3~4월에는 성장 속도가 부쩍 빨라져 길이 60cm 내외가 되고, 큰 것은 1m 이상으로 자란다. 4~5월 이후에는 생식을 하고 조락기(凋落期)에 들어선다. 툏양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암초 지대에 서식하는 자연산 툏을 채취하였다. 그 시기는 겨울에서 봄 사이이다. 이는 해마다 춘궁기를 보내곤 하던 섬사람들의 어로생활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채취하는 툏은 바닥난 양식을 대신하는 식량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채취하기 적당한 물때는 바닷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기간이다. 조간대 하부에 군락을 이루는 까닭에 조금 때는 채취가 어렵다. 따라서 보름의 물때 주기에서 채취일은 3~4일에 지나지 않는다. 채취방법은 여느 해산물과 달리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맨손 채취가 가능하다.

양식돔은 전남 도서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특히 진도 내의 가사도는 양식돔의 주산지라 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급감하는 추이에 있다. 돔의 양식은 종묘이식, 어장 시설물 설치, 시설관리, 돔채취 및 건조작업 등이 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 종묘이식에는 자연산 어린 돔을 사용하는데, 11월에 종묘이식이 시작되어 이듬해 5월 초부터 7월 사이에 채취한다. 다만 나물돔으로 양식하는 돔은 10월에 종묘를 어장에 이식하여 12월이 되면 채취 및 출하가 이루어진다. 어장에서 수확한 양식돔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바다에서 채취한 상태의 ‘생돔’이고, 다른 하나는 햇볕에 건조한 ‘원조’ 그리고 원조를 삶아 찐 ‘가공돔’이 그것이다. 양식으로 채취한 돔은 극히 일부를 빼고 일본으로 전량 수출한다.

특징 및 의의 농촌에 보릿고개가 있듯이 어촌에도 춘궁기가 있다. 돔은 서해안과 남해안 도서지역 어민들이 춘궁기를 나는 바다의 구황식물이었다. 어민들은 갯밭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육지에서 팔아야 곡식을 구할 수 있었다. 잡곡에 돔을 섞어 지은 돔밥은 섬사람들이 부족한 식량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었다. 그런 점에서 돔채취는 거친 바다에서 식용자원을 얻는 어로활동의 일부였으며, 양식어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돔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돔은 건강식품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칼슘과 철을 많이 함유하여 빈혈에 좋고, 혈압이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갯 채취한 돔을 살짝 데쳐 갯

은양념에 버무린 돔나물은 봄철의 미각을 돋우는 먹거리이다.

참고문헌 茲山魚譜,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1~3(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한국무형유산 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강성복(姜成福)

통발

통발

정의 가는 뗏조각이나 싸리나무를 엮어서 입구는 넓게, 가운데는 좁은 통 모양으로 만들어, 한번 들어간 어획물이 거슬러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소형 함정 어구.

개관 통발은 형상에 따라 크게 원통형·원추형·반구형·사각형이 있고, 스프링을 사용한 접이식 통발도 있다. 형태가 같은 통발도 그물코(망목)의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달리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통발은 대개 포획하는 어종에 따라 새우통발, 게통발, 장어통발, 골뱅이통발, 갑오징어통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과 나일론·강철 등의 재질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장어, 꽃게, 문어, 고등 등을 포획하는 함정 어구를 충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내용 현재 어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발은 대개 철 구조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그물을 씌워서 만들지만, 용도에 따라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거나 그물이 아닌 철망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통발은 소형 어구로 연안이나 만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통발어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조업이 가능하며, 어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대상 생물이 통발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소극적 어법이다.

통발어업은 크게 근해통발어업과 연안통발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해통발어업은 장어통발어업과 기타통발어업으로 세분된다. 통발은 포획하고자 하는 대상 어종에 따라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인 통



채취한 돔 | 경남 남해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대나무 통발 | 바닥지름26 높이45



면사망지 그물 통발 | 지름37 길이58

통발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발의 형태는 봉장어 어획용 플라스틱 및 스프링식 통발, 피뿔고등과 꽃게 등을 어획하기 위한 원통형 통발, 붉은대게와 북쪽분홍새우 포획용 원뿔대형 통발, 문어 잡이에 사용하는 원통형 통발 등이 있다. 통발어업은 꽃게 65mm, 붉은대게 125mm, 대게 150mm, 기타 35mm 이하로 망목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한편 통발과 유사한 함정 어구로는 ‘가리’가 있다. 가리는 대오리를 엮어 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주로 냇가나 갯지 않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다. 하천에서 사용하는 함정 어구로는 ‘쭈기’가 있다. 쭈기는 잘게 쪼갠 대나무로 원통형 외양을 만들고 안쪽에는 원뿔형의 속발을 설치하여 들어온 대상물이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만든 어구이다. 입구 부분은 넓고 둥근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은 갈수록 좁게 만들어 끈으로 묶는다. 쭈기는 지역에 따라 크기가 다르지만 대략 1.5~2m이다. 강 상류의 여울목에 돌을 쌓아 물목을 차단하여 물살을 빠르게 유도한 다음 그 한복판에 쭈기를 설치한다. 쭈기가 고정식이라면, 가리는 이동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어통발은 기다란 원통 형태로 한쪽은 막고 다른 한쪽은 깔때기 모양의 입구를 만들어 대상 생물이 통발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플라스틱 어구를 사용한다. 장어통발어업의 경우 무동력선으로 이용하던 1960년대까지는 면사망으로 제작한 통발을 모릿줄에 매달아서 조업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대나무 통발과 면사망 그물 통발을 같이 사용하였다. 대나무 통발은 직경 15cm, 길이 62cm 정도였다. 대나무 통발 제작은 먼저 통대나무를 62cm 크기로 자른다. 다시 62cm짜리 통대나무를 16~18개의 가닥으로 잘게 쪼갠 다음 다른 대나무 줄기로 둥글게 엮어서 원통 모양으로 만든다. 면사망지 그물 통발은 굵기가 12mm인 철사로 둥글게 테를 만들고 직경 4mm의 철사 여섯 가닥을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하여 붙여 원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 그물감을 붙인 형태였다.

1980년대까지는 대나무 통발, 합성섬유 그물망지 통발, 플라스틱 통발을 혼용하였다. 하지만 대나무 통발은 플라스틱 통발 개발 직후 사라졌다. 플라스틱 통발의 경우 모양은 대나무 통발과 유사하지만, 값이 싸고 사용 기간이 길며 다루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나무 통발과 플라스틱 통발은 재질만 다를 뿐 입구가 하나이고 많은 구멍이 있는 등 구조와 크기는 차이가 거의 없다. 플라스틱 통발과 함께 직육면체 혹은 원통 모양의 철제 열개에 그물망을 씌운 스프링식 통발도 있다. 장어통발어업은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마다 고리를 달아 통발을 연결하여 해저에 투망한다. 통발을 투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통발을 끌어 올려 통발 속에 들어 있는 대상물을 어획한다.

한편 꽃게를 포획하는 데 사용되는 통발은 원통



통발어업 | 강원 삼척 | 2013 | 국립민속박물관



가리질 | 인천 강화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형 철제 구조물에 합성섬유 재질의 그물을 씌운 후 측면에 세 방향으로 유인구를 만든 형태를 사용한다. 통발 어구의 내부에 미끼를 넣고 냄새로 꽃게를 유인하여 꽃게가 통발 안으로 들어오면 가두어 포획한다. 꽃게잡이용 통발은 형태상으로는 서해안의 노래미, 고동, 잡어 등을 포획하는 통발과 유사하다.

특징 및 의의 전통적인 통발은 대나무나 싸리와 같은 재질로 만들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형 어구이며 남획의 우려가 적었다. 대상물이 있는 물속이나 물꼬에 미끼를 넣은 통발을 담가 두었다가 대상물이 통발 안으로 들어오면 포획한다. 통발을 이용한 전통적 어업은 어법 자체가 소극적이었으며, 포획하고자 하는 어종을 선택적으로 어획하였다. 통발어업은 간단한 장비를 가진 소형 어선으로 대상 생물을 활어 상태로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물속 지형이나 지질, 수심 등에 크게 제한받지 않고 연중 조업이 가능하다. 통발 안에 미끼를 넣거나 달아서 대상 어종을 유인하기도 하는 등 어획 성능이 뛰어난 어구이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재질로 만든 통발은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자망 어구와 함께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일으키는 어구로 지목되고 있다. 넓은 해역에 대량으로 설치된 어구는 다른 어선들에 의해 파손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계식으로 이루어지는 투망과 양망 과정에서 플라스틱 혹은 합성섬유 재질의 통발이 파손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반영구적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통발 어구의 유실과 파손은 단순히 어구를 분실하는 차원을 넘어 해양 생물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용역 농경·어로 분야 조사결과보고서-경상도 지역(한국예술통합학교 아태전통연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9),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1~3(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필자 박정석(朴正石)

통영·거제 건내량 돌미역 채취어업

정의 긴 대나무와 장대로 만든 틀잇대 끝에 살을 쫓아 바닷속에 집어넣어 바위에 붙어 있는 미역을 감아서 채취하는 어업.

내용 건내량은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와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길이가 약 3km에 폭은 약 180m에서 400m에 이른다. 한산대첩의 격전지이다. 1971년 거제대교가 만들어졌고, 1999년에는 신거제대교가 다시 놓였다. 진해만과 고성바다를 연결하는 바닷길이다. 이 길을 따라 남해의 많은 어패류가 산란과 서식을 위해 오가며, 부산과 진해와 마산과 고성을 오가는 여객선이나 고기잡이배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던 곳이다. 한때는 부산에서 여수까지 오가는 배들도 건내량을 지났다. 고려시대 정중부의 난으로 의종이 통영에서 거제 폐왕성으로 귀향하며 건넜다 해서 ‘전하도’라고도 한다. 고성에서 거제로 들어오기 위해 꼭 건너야 하는 바다였다.

자연산 돌미역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제주 해안까지 섬과 연안에 많이 서식하는 해조류이다. 미역양식이 활발하기 전까지 돌미역은 이 어촌들의 대표적인 생계수단이었다. 미역이 서식하는 해양환경에 따라 채취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제주처럼 물질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물이 빠진 갯바위에서 낚을 가지고 베는 곳도 있다. 또 울릉도나 강원, 경북처럼 수경을 이용해 물속에 있는 미역을 긴 장대에 낚아 베기도 한다. 통영 건내량에서는 독특하게 틀잇대를 이용해 미역을 채취한다. 조선총독부가 펴낸 『수산편람水産便覽』(1919)에는 미역채취 기술로 나잠裸潛, 간권竿捲, 권捲, 예채예探, 예취예取, 겸鎌, 권卷 등을 소개한다. 나잠은 물질을 해서 채취하는 것이며, 간권은 장대를 이용해 바닷속에 있는 미역을 틀어서 채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겸, 예채, 예취는 낚을 이용해 베는 것을 말한다.

이곳에서 장평리 연기마을과 덕호리 광리마을은 틀잇대를 이용해 미역을 채취한다. 틀잇대는 크게 손잡이, 몸대, 십자(틀잇살)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손잡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50~60cm 길이로 직각에 가깝게 구부러 틀잇대를 돌리기 좋게 만든다. 몸대는 왕대나무로 이뤄져 있으며, 손잡이까지 포함해 전체 길이가 8m 정도이다. 미역을 감는 끝부분은 70cm 막대기에 엇갈리게 구멍을 뚫어 열십+자로 5cm 폭에 50cm 길이의 판자를 끼웠다.

틀잇대는 조류 반대 방향으로 집어넣는다. 건내량은 수심이 5~6m 정도이다. 바닥에 닿을 정도에서 틀잇대를 넣어 손잡이를 돌려 열십자를 이용해 미역을 감

는다. 대어섯 바퀴 정도 돌리면 감긴 미역 양에 따라 묵직한 느낌이 손잡이를 통해 전달된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틀잇대를 들어 올린다. 먼저 뱃전에 툇툇 쳐서 바닷물을 털고 틀잇살 맨 아래 나무를 뽑고 남은 한 개도 뽑은 다음 미역을 대에서 밀어 털어낸다. 강원도에서도 소나무 장대 밑에 물푸레나무를 열십자로 달아 미역을 감아 올렸다고 한다. 깊지 않은 곳에서는 낚대로 베어서 채취하고 깊은 곳은 틀개로 감아서 채취하였다. 틀개를 사용하는 바다는 나중에 잠수부들이 그 작업을 대신하면서 틀개도 사라졌다.

미역채취는 물때와 관계없지만, 조류가 빠를 때는 힘들기에 피한다. 물때보다 중요한 것은 날씨이다. 채취한 돌미역을 하루 만에 충분히 말려야 색깔도 맛도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미역을 채취한다. 보통 사흘 정도는 날씨가 좋아야 안심하고 미역을 채취할 수 있다. 건조 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채취해도 상품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틀잇대를 돌려서 미역을 채취하는 과정은 힘이 많이 드는 고된 일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채취하고 여자들은 건조 과정에 참여한다. 400년 전통의 건내량 미역은 2000년대 초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서식처에서 미역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미역종묘를 이식하고 곰피 등 미역성장을 방해하는 해초들을 제거하였다. 다행히 이후 미역이 건내량에 다시 서식하기 시작하였다. 미역채취 기간은 보름 정도이다. 미역밭 ‘보름 농사’로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일 년 생활비를 얻는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나이가 많은 분들은 미역을 팔아 생활비를 하고 손주를 용돈까지 주고 있다.

미역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채취가 아니라 건조이다. 이곳에서는 건조기를 이용해 기계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햇볕에 의지한다. 좋은 빛과 바람으로 한 번에 말려야 색깔이 좋다. 맛에는 차이가 없지만 얼룩이 지거나 색깔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께서 꺼린다. 채취한 미역은 두 가지 형태로 건조한다. 미역틀에 얹어 가닥을 만들거나 한 줄기씩 말리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틀에 맞춰 말렸는데, 최근에는 한 가닥을 오롯이 줄에 걸어 말리기도 한다.

연기마을은 조상 대대로 양식보다는 채취어업에



건내량 돌미역 건조 | 1960년대 | 해양수산부



틀잇대 | 경남 통영 | 2020 | 김준

의지하였다. 건내랑 조류가 거칠고 수심이 깊지 않아 물때에 따라 변하는 바다 환경도 양식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다행히 물목이 좋아 멀리 가지 않고 돛, 장어, 학꽂치, 볼락 그리고 미역·김·청각·돛 등 해조류, 개조개·바지락·전복 등 패류를 채취할 수 있었다. 양식 어업이 본격화되기 전 통영은 어떤 어촌보다 부촌이었다. 좋은 미역밭을 가진 덕분에 미역만으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통영사람들치고 아이를 낳고 연기미역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덕분이다. 1930년대 미역채취 사진을 보면 노를 젓는 배에서 동력을 갖춘 배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 미역밭 외에 개조개와 바지락 등 패류도 많아 연기마을에 속하는 해간도 주변 바지락밭은 외지인에게 체험장으로 내주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통영·거제 건내랑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0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거제시와 통영시 경계를 지나는 건내랑에 어울리게 두 지자체가 함께 유산에 등재시킨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육지와 달리

바다는 해양생태계 특성을 고려하면 경계 짓기가 어렵다. 한때 통영 연기마을과 거제 광리마을이 서로 미역밭을 둘러싸고 경계를 나누고 채취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광리마을 어민들이 연기마을 앞에서 채취하고, 연기마을 어민들이 광리마을 앞에 가서 미역을 뜯기도 한다. 미역채취 일정과 어장관리도 공동으로 하고 있다. 돌미역채취는 어촌계원들에게만 개방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일정한 행사비만 내면 돌미역채취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보통 자연산 돌미역밭은 사유화되었거나 특정인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된 후 이곳 돌미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역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장지를 개발하고, 판매장과 마을축제를 계획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한편 수온 상승과 함께 해조류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건내랑도 예외가 아니다. 마을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사회의 생활폐수 유입을 막아야 하며,



통영·거제 건내량 돌미역 채취어업 | 해양수산부

미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미역바위 잡초제거 등도 요구된다. 또 지금까지 해안에 걸대를 만들어 말리거나 바닥에 펼쳐서 말렸던 것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건내량을 조망할 수 있는 마을이라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펜션과 카페 등도 늘어나고 있다. 또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 그만큼 돌미역 서식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참고문헌 통영·거제 건내량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자원 설명서(통영시·거제시, 2018), 섬문화 답사기-통영(김준, 보누스, 2020), 역사가 있는 어촌, 살아 있는 어업유산 마을(현대해양, 2018.6.18.), 통영 건내량 돌미역(조선일보, 2020.7.29.), 현지조사자료(장동주, 경남 통영, 2018.5.11.).

필자 김준(金準)

통영 통구민배

정의 경상남도 통영 지역에서 쓰였던 전통 배.

개관 통구민배는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쓰여 온 어선이다. 원래는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들었다고 해서 ‘통선’이라고 불렀다. 통구민배의 기원이 통나무배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상으로는 18세기의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과 19세기 초의 『경세유표經世遺表』 그리고 19세기 말의 경상도 수세대장에 ‘통선桶船’이라는 명칭으로 자주 등장한다. 근대에 들

어 개량식 목선 기술이 전파되면서 전체 모습은 많은 변형이 이뤄졌다. 1959년 사라호 태풍 때는 거의 모든 통구민배가 파손되었고, 그 후로 지은 통구민배는 대부분 돛이 사라지고 추진력이 동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선수 부분과 명에 부분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내용 통구민배는 선수와 선미가 위로 치솟아 있고, 전통 한선치고는 선수 부분이 좁은 형태이다. 선체는 길이 6~7m에 너비 2m 규모로 소형어선에 속한다. 배의 저판은 길이 5~6m, 너비 40cm, 두께 7cm 정도의 두꺼운 판재를 사용해서 배의 기초를 이룬다. 저판을 현지에서는 ‘원밑’이라 한다. 저판을 놓고 그 좌우에 밑삼을 평행하게 연결하고, 밑삼으로부터 좌우 외판을 3단씩 맞대어 위로 쌓는다. 첫 번째 외판을 ‘한판삼’, 둘째 외판은 ‘가운데삼’, 셋째 외판은 ‘웃삼’이라 부른다. 돛을 사용한 통구민배는 횡강력 부재인 명에가 선수부터 이물명에, 동명에, 한판명에, 도모명에 등 4개가 설치되었다. 선수는 3~4개의 판재를 가로로 대어 올렸고, 선수 끝에 ‘병애’라는 튼튼한 판을 올려붙인다. 병애는 파도나 바위에 접촉할 때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다. 또한 외판 상단 끝에 선체를 보호하는 테를 돌렸는데, 이를 ‘태방’이라 하였다. 전통적인 통구민배는 선미도 좁았으나 변화된 통구민배는 선미가 낮고 평평하다.

어로는 1950~1960년대에는 ‘주북’이라는 정치망 그물을 이용해 대구를 주로 잡았다. 선원 2~3명이 노를 젓고 어장에 쳐 놓은 그물을 걷어 올려 물고기를 잡았다. 1970~1980년대에는 유자망과 통발 등을 이용해도다리, 꽃게, 장어 등을 잡았다. 이 외에도 낚시를 이용한 문어, 조기, 상어, 갈치 등 상업성이 있는 물고기를 잡았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특히 낙망을 이용한 멸치잡이에 많이 사용되었다. 통구민배는 어로에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성게·미역·홍합 채취 등 주변 가까운 섬 바위에 붙은 해조류나 어패류를 채취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통구민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영 지역 바다가 비교적 잔잔하였기 때문이다. 통

구민배처럼 선수가 뽕족하지 않고 뭉툭한 형태는 파도를 가르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현지의 잔잔한 바다에서는 능파성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었다. 통구민배는 방향 전환이 쉽고 제작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계속 유지되었고, 또한 잠을 자거나 생활하기 좋게 뒤편에 공간이 있고 지붕을 쉽게 덮을 수 있어서 오래도록 선호되었다.

참고문헌 19~20세기 통영·거제 지방의 중소형 어선어업과 그 특징(오창현, 도서문화4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우리배·고기잡이(국립해양유물전시관, 1999).

필자 곽유석(郭儒哲)

통자락

정의 자염(煮鹽)을 만들 때 간통 주변에 갯벌 흙이 있는 터.

내용 통자락은 자염 생산방식 중에서 통조금 방식으로 만드는 설비이다. 통조금은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작을 때에 간통을 만드는 방식에서 연유한 명칭이다. 바닷물을 달여서 만드는 자염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 소금이고, 천일염은 1907년에 일본에서 도입한 '신기술'로 만든 소금이다. 19세기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소금은 불을 때서 만든 자염이었다.

염증산 5개년 계획은 1955년에 35만t 생산으로 소금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해서 생산과잉 현상을 일으켰다. 자염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생산량을 올리는 천일염에 밀려서 사라졌다. 정부는 1956년에 <조선염전매령(朝鮮鹽專賣令)>을 폐지하면서 <염전매법(鹽專賣法)>을 제정하였다가 1961년에 폐지하였다. 이유는 염업의 민영화화를 위해서였다.

바닷물의 염도는 3.5% 정도이다. 소금은 바닷물을 그냥 달여서 얻을 수 있지만, 가성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자체 맛을 낼 수 없다. 그래서 갯벌 흙에 바닷물을 투과시켜 염도를 한껏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은 다음에 달인다. 바닷물은 갯벌 흙을 투과하면, 염도가 높아지고 맛이 오묘해지는 등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자염 맛의 비밀은 바로 갯벌에 있다.

조금 때인 7일 동안 육지와 가까운 갯벌에는 물이 밀려가서 들어오지 않고, 갯벌이 햇볕에 드러나 바람을 맞으면서 마른다. 2~3일 후에는 이곳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변한다. 갯벌 흙의 염도는 물이 증발하면서 올라간다. 염부들은 갯벌을 투과한 바닷물을 염막까지 물지게로 나른 후에 가마솥에 붓고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 소금을 얻기 위한 일련의 작업은 그들에게 아주 힘든 노역이다. 충청남도 태안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통자락 방식을 개발해서 소금을 얻었다.

통자락은 갯벌 한가운데를 등글게 파고 바닷물이 모이는 통을 설치해서 만든다. 통자락은 염도가 높은 함수를 모으기 위한 염정(鹽井)이다. 염부들은 염도가 높은 함수를 모으기 위해서 갯벌 흙을 가래로 파내고 썰레로 갈고 뒤집는 함토 작업을 한다. 그들은 조금 때에



통자락 | 20세기 초



통자락 | 충남 태안 | 2003 | 유승훈

육지와 가까운 갯벌에 자리를 잡고 흙을 퍼낸다.

염부들은 지름 8~9m의 원을 그리며 퍼내는데, 가장자리보다 중심을 더 깊게 파서 완만한 분화구 모양의 원을 만든다. 제일 깊이 파 들어간 원 중심의 깊이는 1.5m가량이다. 원 한가운데에 바닷물이 모일 수 있도록 간통을 설치하면 통자락이 완성된다. 간통 제작 첫 순서는 통자락 중심부에 말뚝을 박는 것이다. 말뚝 간격은 밑을 넓게, 위를 좁게 유지한다. 다음으로는 바닷물이 간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띠로 엮은 밧이나 이영(나래)으로 말뚝을 두른다. 간통은 함수를 퍼낼 수 있도록 사각형 입구(틀)를 만든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통자락에서 만드는 함수량과 가마솥 크기에 맞춰서 만든다.

가장자리 갯벌 걸흙은 소를 이용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써레질과 덩이질로 갈아 뒤집는다. 사리 때는 바닷물이 하루에 두 번씩 통자락까지 들어왔다가 나간다. 잘게 부서진 흙은 콩알 모양으로 굳으면서 수분을 머금었다 내놓으며, 염도가 최대 15%까지 올라간다. 바닷물이 흙을 투과해서 간통에 모이게 하는 것은 통자락만의 고유 기술이다. 통자락에서 퍼낸 물의 염도는 7~8%이다. 염부들은 술가지 등 센 불로 때다가 은은한 불로 8시간 정도 함수를 달이면서 거품(불순물)을 걷어낸다. 이런 방식으로 함수 3t을 달이면, 입자가 곱고 염도가 낮은 순한 자염 60kg 정도를 얻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통자락은 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발달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양질의 자염을 얻는 기반 시설이다. 바닷물은 갯벌 흙을 투과하면서 염도가 높아지는 화학적 변화를 겪는다. 자염 맛의 비밀은 갯벌에 있음을 말해 준다. 자염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 정화하는 갯벌이 주는 천혜라고 할 수 있다. 통자락은 함도를 뒤엎은 염정으로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서 채함, 즉 염수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이는 바다의 천연자원을 인공으로 만든 '일종의 샘'으로 소중한 지역 생활 문화자산이다.

참고문헌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3(강정희·안귀남, 국립국어원, 2011),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 민속(유승훈, 민속원, 2008), 바닷물 달여 만드는 소금 50년간 끊겼던 맥 잇다(백승우, 농민신문, 201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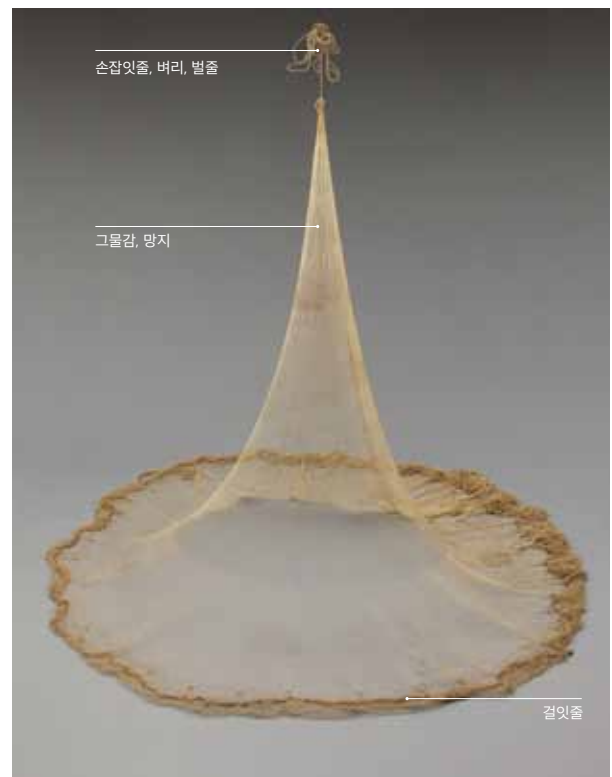
필자 박종민(朴鍾珉)

투망 投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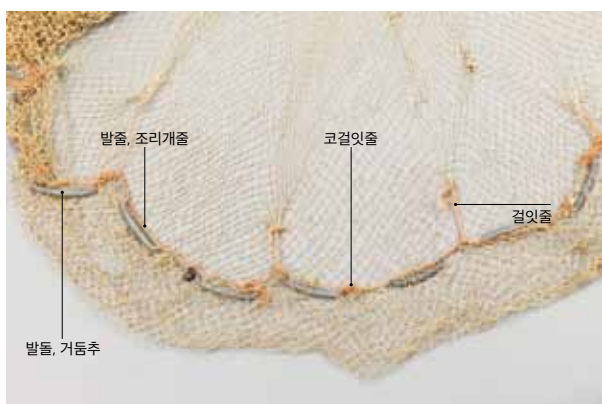
정의 무리 지어 있는 물고기 위로 원뿔 형태의 그물을 던지고, 그물의 입구를 좁혀 물고기를 잡는 어로행위.

내용 투망은 족대와 함께 전국의 하천과 얕은 바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로방법이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는 한자로 살망(撒網), 우리말로 '도망'이라고 적으며 배에서 던지는 투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투망은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원뿔 모양의 그물로, 아래쪽에 여러 개의 추를 촘촘하게 달아 던질 때는 넓게 퍼지고, 물에서는 빠르게 가라앉게 되어 있다. 내수면뿐만 아니라 기수역에서도 투망을 많이 사용한다. 물이 맑은 동해에서는 어부들이 기수역이나 연안에서 투망질을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서해에서는 숭어 떼가 물리는 시기가 되면 투망질을 하기도 한다.

투망에 달린 추의 재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전국의 유적에서 발굴되는 돌들로 미루어 볼 때 이들 돌을



투망의 세부 명칭 | 국립민속박물관



투망의 세부 명칭 | 국립민속박물관

달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동기 유적인 황해도 봉산군 신흥동 집자리에서 발견된 14개의 그물추들은 투망에 사용된 것으로, 청동기에도 투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형태와 사용법은 오랫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 만드는 재료만 변화하였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시멘트와 돌가루를 압착한 추에서 납추로 교체되었고, 또 현재는 스테인리스링으로 교체되고 있다. 현재 어구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납추보다 스테인리스링이 달린 ‘고리투망’(혹은 링ring 투망)이 대부분이다. 단순히 보면 투망에 달린 추의 재료 변화일 뿐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이 납투망과 고리투망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소위 ‘꾼’으로 불리는 전문가들은 납투망은 고인 물에서, 고리투망은 흐르는 물에서 사용한다. 전어지에서는 배를 타고 던지는 배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나 현재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배를 타지 않고 던지는 손투망이다.

손잡이줄 없이 그물망을 잡는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잡이줄이 달려 있다. 손잡이줄을 손목에 감고 그물살을 잘 사린 후 자세를 취하는데, 이때도 여러 종류의 준비자세가 있다. 그물을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겨드랑이 사이에 낄 수도 있다. 던지고 나서 투망은 동심원을 그리며 펼쳐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 바위가 있는 곳에서는 바위를 피해 부정형으로 던질 수도 있다.

많은 어로기술이 쉽게 습득되는 것은 없지만, 투망은 별도의 연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심력을 활용하여 던지는 투망은 요령이 없으면 던지는 사람이 팔

러 나가기도 한다. 그물을 잡는 방법에 따라 준비자세와 던지는 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투망법은 육지에서 연습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동그란 원을 만들기 위해 무덤에 던지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흥미를 끄는 부분이다.

투망은 투망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하지만 하천에서는 ‘오리’라는 물이도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몬 후 투망질을 할 수도 있다. ‘오리’는 전국의 하천에서 조사되는 물이도구이다. 망가진 체를 3등분하여 줄에 묶으면 물속에서 볼 때 그 모습이 오리 떼처럼 보인다. 줄을 강 양쪽에서 잡고 하류에서 상류로 끌고 올라가면 이것을 오리 떼로 착각한 물고기들이 상류로 쫓겨가고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투망꾼들이 투망을 던진다. 장흥 탐진강에서는 오리 하나에 투망꾼 셋이 붙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투망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것과 달리 여러 종류의 투망으로 분류된다. 또한 투망 파지법과 던지는 방법, 투망기술의 습득과정 등 전통지식이 존재한다. 물이 어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하며 피라미처럼 작은 물고기부터 숭어나 잉어처럼 큰 물고기까지 다양한 어종을 포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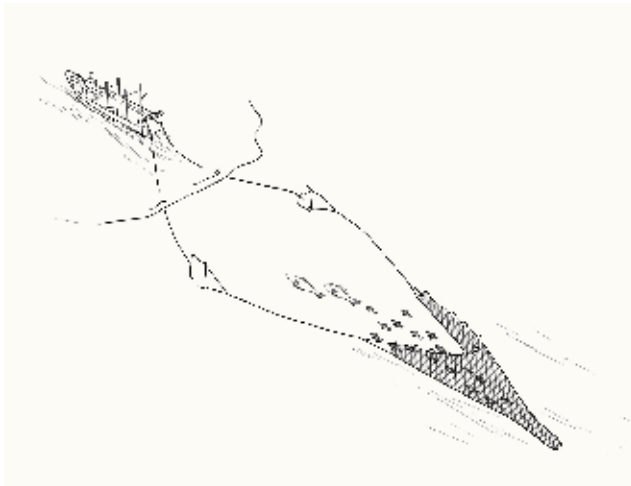
참고문헌 佃漁志, 20세기 전반기 한강 내수면 그물어업연구(편성철, 비교민속학70, 비교민속학회, 2019), 조선의 민속전통4(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편성철(片成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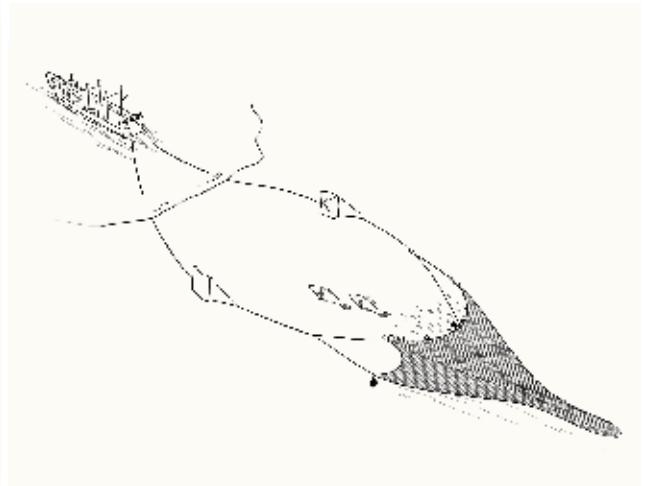
트롤망

정의 해저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저층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 어구.

내용 트롤(trawl)은 어구에 전개 장치가 있는 그물 어구를 지칭한다. 트롤 어업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형 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면서 연안에서 태평양으로 나가 어업을 할 수 있게 해



저층 트롤망 | 국립수산물과학원



중층 트롤망 | 국립수산물과학원

주었다. 크게 빔 트롤망, 저층 오테 트롤망, 중층 오테 트롤망으로 구분된다.

빔 트롤망을 이용한 어업은 해저 바닥 근처 또는 바닥에 묻혀 서식하는 갑각류를 주 대상으로 하는데, 긴 자루그물 입구에 대나무로 된 빔(틀)을 부착한 그물을 어선 한 척으로 끌어서 물고기를 잡는다. 어선 1척이 1개의 빔 트롤망으로 조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빔으로 인하여 큰 그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물을 작게 하여 2~3개의 빔 트롤망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다.

빔 트롤망 1개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선미나 윈치(그물을 바다에 내리거나 끌어 올리는 기계)에 끌줄을 고정하여 그물을 끌어 올려 조업하며, 2개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좌·우측에 빔 트롤망을 달거나 선박 뒤편에 1개를 추가로 달아 3개로 조업하기도 한다. 주로 자주새우·꽃새우·소라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새우류를 잡는 것을 새우방, 소라류를 잡는 것을 소라방이라고 한다.

저층 오테 트롤망을 이용한 어업은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나 갑각류와 연체동물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긴 자루그물 양쪽에 날개그물을 단 뒤 날개그물 앞쪽에 전개판(트롤망을 넓게 벌려 주는 어구)을 부착한 그물을 이용하여 해저를 훑어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물은 일반적으로 등판, 밑판, 옆판, 날개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에 붙어 서식하는 새우류 등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물 입구를 좌우로 크게 벌려 조업하며, 해저에서 떨어진 곳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물 입구를 상하로 크게 벌려 조업한다.

조업 방식은 선미식船尾式(선박의 뒤쪽에서 저인망 그물을 던지고 거둬 들이는 방법)과 현측식舷側式(선박의 현측에서 저인망 그물을 던지고 거둬 들이는 방법)이 있다. 다만 현측식은 조업 방식이 까다로워 현재는 거의 선미식으로 바뀌고 있다. 오테 트롤망 어업은 과거에 비하여 대상 어종의 다양화, 어선의 대형화 등으로 인하여 어구의 구조 및 조업방법이 크게 개량·발전되고 있다. 특히 바닥에 서식하는 어종뿐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서식하는 어종도 잡을 수 있는 중·저층 겸용 어구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층 오테 트롤망을 이용한 어업은 바다 중간층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주 대상으로 하며, 긴 자루그물의 앞쪽에 전개판을 부착한 그물을 어선 1척이 중간층을 끌어 잡는 방법이다. 중층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저층에 서식하는 물고기보다 민감하므로 저층 오테 트롤망과 달리 그물 입구가 크게 벌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물코도 더 큰 것을 사용한다. 조업 방식은 저층 오테 트롤망과 동일하게 선미식과 현측식으로 구분되며, 물고기가 군집되어 있는 지점에 오테 트롤망이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어군탐지기로 수심을 파악한 뒤 끌줄의 길이 조절과 그물이 펼쳐지는 속도를 조절한다. 그물을 펼치는 과정에서 물고기의 군집 지역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저층 오테 트롤망 어선에 비하여 엔진의 마력이 높고, 윈치의 성능도 더 좋다.

특징 및 의의 트롤망 어업은 다른 어법에 비하여 적극적인 어법으로 매우 중요한 어업 중 하나이다. 높은 생산성으로 국내 어업 중 가장 비중이 크며, 원양어업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구전개장치, 어로장비, 어군탐색장비 등이 매우 발달된 어업이다.

참고문헌 심해 저층트롤망의 수중형상에 관한 모형실험(박광제 외, 수산해양기술연구42-3, 한국어업기술학회, 2006), 국립수산물과학원(nifs.go.kr).

필자 정명훈(鄭明勳)

트롤선

정의 저인망 또는 쓰레그물을 이용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선.

내용 트롤선은 선체가 크고 급속냉동장치를 갖춘 어선으로, 트롤선을 사용한 어업은 주로 먼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이루어진다.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바다 밑에 띄워놓고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홍어, 가오리, 갈치, 명태, 가자미, 조개, 새우 등을 어획한다. 대부분의 트롤선은 어류를 냉동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바다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

트롤은 어구에 전개판(그물 입구를 자동으로 벌려주는 장치)이 설치되어 있는 어구를 지칭하며, 크게 오테 트롤과 빙 트롤로 구분된다. 트롤어업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빙 트롤선—스틴 빙 트롤선—오테 트롤선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트롤어선은 어획한 물고기를 해상에서 냉장 상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냉장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얼음이나 저온의 바닷물로 식힌 후 블록 단위로 냉동하여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트롤선어업은 크게 근해 저인망 트롤어업과 대형 저인망 트롤어업으로 나뉜다. 근해 저인망 트롤선어업은 전개판을 부착한 저인망그물을 예인 트롤(그물을 끌어서 당김)해야 하므로 그물의 입구가

넓으며, 기선저인망 어선보다 엔진의 마력수가 더 크다. 대형 저인망 트롤선은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서식하는 수심에 따라 저층 트롤선과 중층 트롤선으로 구분된다. 초창기에는 현측식舷側式 트롤어선(선박의 현측에서 저인망 그물을 던지고 거둬들이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1950년대에 들어 선미식船尾式 트롤어선(선박의 뒤편에서 저인망 그물을 던지고 거둬들이는 방식)이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대상 어종은 1990년대 이전에는 쥐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남획에 따른 어종 감소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오징어가 대부분이며, 이 외에 삼치·갈치 등도 있다.

특징 및 의의 트롤선을 이용한 원양어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원양어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다량어주낙 어업을 중심으로 원양어업이 시작되었다. 국내의 원양 트롤어업은 북양 트롤어업, 남서태평양 트롤어업, 인도양 트롤어업, 대서양 트롤어업 등으로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참고문헌 동해구 현측식 트롤 어선의 복원성(조효제 외, 수산해양기술연구 50-3, 한국어업기술학회, 2014), 국립수산물과학원(nifs.go.kr), 인천항만공사(icpa.or.kr).

필자 정명훈(鄭明勳)

틀방그물

정의 모래·펄에 서식하는 조개류나 해저 가까이에 서식하는 갑각류를 잡기 위하여 자루그물 입구에 일정한 틀을 단 어구.

내용 모래나 갯벌에 서식하는 어패류나 해저 또는 해저 가까운 곳에 서식하는 갑각류를 잡기 위하여 자루그물 입구에 일정한 틀을 단 어구이다. 어법에 따라 손틀방어업(인력을 사용한 틀방어업)과 배틀방어업(어선을 사용한 틀방어업)으로 구분된다. 손틀방어업은 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끌고 가면서 바닥을

끓어 채취하는 방법이며, 배틀방어업은 어선에 어구를 설치한 뒤 이동하면서 어획하는 방법이다. 끝줄에 어구를 연결하여 배를 움직여가면서 어획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반면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갑각류를 잡을 때는 어구를 배의 좌·우현에 직접 설치하여 이동하면서 잡기도 한다.

틀망그물boat dredge은 대상 생물에 따라 어구 틀의 바닥 면에 갈퀴가 설치된 것과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갈퀴가 설치된 어구는 해저 아래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잡을 때 사용되며, 갈퀴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해저 표면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잡을 때 사용된다.

틀의 형태는 사각형, 삼각형, 원형, 반원형 등이 있다. 손틀방어업에서는 삼각형·원형·반원형의 틀을 주로 사용하며, 배틀방어업에서는 사각형을 주로 사용한다. 손틀방어업의 경우 한 사람이 한 개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며, 배틀방어업은 대상 생물에 따라 어선 앞쪽에 한 개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선 양쪽에 두 개에서 네 개를 동시에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손틀방어업 도구에는 수심 2~3m 이내의 바다·강·호수에서 사용하는 바지락 채취기와 채첩 채취기 등이 있으며, 배틀방어업 도구로는 수심이 깊은 연안에서 사용하는 피조개형망·가리비형망·소라형망 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손틀방어업은 어구 분류상 잡어구류로 분류되며, 과거부터 어구·어법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반면 배틀방어업은 어구 분류상 끌어구



손틀방을 이용한 재첩잡이 모습 | 2014 | 황기모·공유마당

류로 분류되며, 어구·어법의 발전으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조업 해역의 지질에 따라 어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빠르게 조정하거나, 어구 틀의 양측에 썰매판(어구 틀이 해저를 파고 들어가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구 틀 좌·우에 부착한 장치)을 설치하여 갯벌이나 모래가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등 많은 어구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어선의 대형화에 따라 어구 규모도 커지면서 어획량도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전남 지역의 패류 형망어선의 개량(박상준 외, 수산해양기술연구 55-2,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2019), 국립수산물학원(www.nifs.go.kr).

필자 정명훈(鄭明勳)

파시 波市

정의 회유하는 어군을 따라 어선들이 운집하고 어장 인근에 상선과 상인들이 집결하면서 형성되는 바다의 시장.

내용 파시는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만들어진다. 파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조건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고기 떼가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만 파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한반도의 서해와 남해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섬이 있고 굴곡 깊은 해안선과 갯벌이 폭넓게 펼쳐져 있다. 이런 조건은 물고기들이 산란하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이룬다. 그래서 봄이 되면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고기들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거대한 어장이 형성된다. 어종(魚種)도 고등어, 삼치, 갈치, 전갱이, 멸치, 새우 등을 비롯하여 홍어, 조기 등 다양하다. 어종들이 일정 시기에 몰려들면 이를 잡으려는 어부들이 집결하면서 파시가 성립되었다.

파시의 또 다른 성립 조건은 사회적인 배경이다. 파시는 판로, 유통, 배후시장 등이 연계된 어업 근거지에

서 형성된다. 고기 때가 회유하면서 어장이 형성되면 어선·상선과 상업 시설이 모여들게 된다. 일정 기간에만 어장이 형성되므로 어부들의 조업과 판매방식도 그것에 맞춰 이루어진다. 어부들은 단기간에 많은 고기를 포획하기 위해 포획한 어획물을 인근 포구로 운반해서 판매하기보다는 시간 절약과 어획물의 선도 유지를 위해 대부분 어장에서 직접 상고선商賈船에 판매한다. 어획물은 상고선을 통해 해상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각종 어구나 생활용품, 식량, 식수 등은 인근 포구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장 가까이에 있는 해안이나 어촌은 성어기 때 어선이 집결하면서 크게 번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잣거리가 파시였다.

파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종은 조기이다. 조기는 초봄이 되면 난류를 따라 산란하기 위해서 해안 쪽으로 찾아온다. 11월부터 2월까지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조기는 2~3월에 전라남도 흑산도·홍도를 지나 3~4월에 전남 안마도와 전라북도 위도, 4~5월에 충청남도 죽도, 5~6월에 황해도 연평도, 6월에 평안북도 대화도에 이르기까지 회유를 한다. 이렇게 수많은 조기 때가 여러 경로로 서해안 곳곳을 찾아들면서 가는 곳마다 대규모 어장이 형성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곡우穀雨 사리에 형성되는 칠산파시와 입하立夏 사리에 형성되는 연평파시가 유명하였다.

파시의 명칭은 지명과 어종 이름을 결합해서 명명된다. 전국에서 대규모의 파시가 서던 곳은 흑산도·위도·연평도이다. 이곳을 전국 3대 파시라고 한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파시가 서곤 하였다. 전남 법성포 목냉기의 조기파시, 전남 비금도의 강달어파시, 전남 임자도의 민어파시, 전남 거문도와 청산도의 고등어파시, 제주도 추자도의 멸치파시 등이 유명하다. 계절별로는 4월의 조기파시, 7월의 고등어파시, 10월의 삼치파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파시는 근세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통이었다. 옛 기록에서 파시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표 파시인 칠산어장의 조기파시에 대한 기록이 긴 시기에 걸쳐 있다. 칠산은 전남 영광 송이도·안마도와 전북 부안 위도 사이에 자리한 일곱 개의 무인도를 말한다. 칠산 해역은 특히 조기 산란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봄철에 대단위로 조기어장



조기 파시 안내문 | 인천 용진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이 형성되었다. 이 파시에 대해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파시평波市坪이라 적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파시전波市田이라고 기록하였다. 지도(현 전남 신안군 지도읍) 군수였던 오형묵吳弘默이 남긴 『지도군총쇄록智島郡叢錄』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을 보면 “해마다 고기가 많이 잡혀 팔도에서 수천 척의 배들이 이곳에 모여 고기를 사고팔며 오고 가는 거래액은 가히 수십만 냥에 이른다. 이때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조기로 팔도에서 모두 먹을 수 있다.”(1897.5.13.)라고 적었다. 파시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파시의 모습은 조선 후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어선 어업이 성장하고, 농업 경제와 더불어 상업이 활성화되고, 유교적 이념과 조상숭배가 확산됨에 따라 어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파시가 번성할 수 있었다. 당시 기록에서 보듯이 팔도에서 모두 먹을 수 있을 만큼 늘어난 어업생산력과 고기를 잡기 위해 몰려든 어선과 어부, 이를 사고파는 상선과 상인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몰려들던 파시는 도서·연안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울 저자와 같이 떠들썩한 소리가 가득한’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시로 경제적 활력과 함께 유희문화가 번성하기도 하였다.

어종에 따라 특화된 파시가 서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어파시가 있다. 경기도 굴업도 근해와 전남 임자도 근해에서 큰 규모의 파시가 컸다. 굴업도 파시에 대해서는 1920년대 신문기사에서 “전국 3대 민어잡이



조기 파시 기념물 | 인천 옹진 | 2017 | 국립민속박물관

표

파시

로 유명한 인천 근해 굴업도 어장은 매년 하기 3개월 동안을 어기로, 각지에서 몰려드는 어부를 비롯하여 그들의 고객으로 유식(遊食)·잡화상 등 장사하는 사람과 또한 웃음을 파는 매소부(賣笑婦)를 합하면 실로 3,000여 명에 달하는 임시도시를 형성한다.”라고 묘사한 바 있다. 여기서 보듯이 굴업도를 비롯한 덕적군도는 민어어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리고 임자도 서북쪽 타리파시는 전국 제일의 민어파시로 명성이 높았다. 정약전(丁若銓)(1758~1816)은 『자산어보(茲山魚譜)』에 “몸은 약간 둥글고 빛깔은 황백색이며, 등은 청흑색이다. 비늘과 입이 크고, 맛은 담담하면서도 달아서 날것으로 먹으나 익혀 먹으나 다 좋고, 말린 것이 더욱 몸에 좋다.”라고 적었다. “나주군도 서북쪽(현 전남 신안군 일대)에서 음력 5~6월에는 그물로 잡고 6~7월에는 낚시로 잡는다.”라고 적었다. 『자산어보』에서 언급한 나주군도 서북쪽이 바로 임자도 타리섬 일대이다. 이를 통해 타리파시가 예로부터 민어어장으로 유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파시에서 벌어지는 상업적인 활기를 파시풍(波市風)이라고 한다. 육지에서 보기 힘든 파시 특유의 경기와 파시풍을 좇아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황금어장을 찾아온 어부들, 어획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 그리고 배사람들을 상대하는 상인과 술집 여인들까지 다양하였다. 이들은 제각기 품은 욕망을 한시적으로 조성된 파시풍의 경제활동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그렇게 구성된 욕망의 교집합이 파시의 활기를 만들어냈다. 파시를 따라다니

는 상인들을 ‘파수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어부와 어상 등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파시만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상인들은 파시 특유의 파시풍을 주도하였다.

파시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행위는 ‘특수 경기’를 동반하기 마련이었다. 상인들은 제한된 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비싼 가격에 물품들이 거래되었다. 파시에는 주점, 요릿집, 잡화점, 쌀집, 이발소 등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상인들도 꽤 있었다. 1920년대 중반 타리파시를 취재한 신문기사(〈무안군 어업지 태이도축년발전〉『동아일보』, 1925.8.11.)에 의하면 166척의 선박이 조업 중이었고 684명의 선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부와 고기를 사러 온 어상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조선인 상점 100개와 일본인 상점 16개가 있었다고 한다. 상점 중에서 61개가 음식점이고 18개가 요리점으로 대부분 유흥업이었는데, 이곳에 몸담은 타리 기생은 일본 창기를 포함하여 100여 명이 있었다고 한다. 파시가 독특한 풍경을 담고 있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파시는 1970~1980년대까지 남아 있었으나 어업기술이 변화하고 어선이 동력화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생태환경이 급변하면서 어족이 고갈되고, 대규모 어장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파시가 더 이상 서지 않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파시는 어업경제사적으로 특징적인 전통이다. 대규모 어업활동이 빚어낸 경제적 활기는 도서·연안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조성하였다. 파시는 대규모 어장을 중심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어업생산력을 매개로 다채로운 문화가 생성되고 전승될 수 있었다. 파시 인근 어촌에서는 동제와 별신굿 등이 규모를 갖추어 전승되었다. 또한 파시에서는 ‘산다이’라고 하는 특유의 연행문화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파시 산다이는 일반 산다이와 달리 놀이 분위기가 극대화된 공간이므로, 사랑과 이별 및 통속적인 정서를 담은 노래가 많이 불렸다. 그리고 황해도 민요인 배치기가 파시를 매개로 서해안 전역으로 퍼진 데서 보듯이 파시는 해양문화 교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참고문헌 네 가지 열쇠말로 읽는 섬의 민속학(이경엽, 민속원, 2020), 위도 조기파시의 민속학적 고찰(서종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잡어의 어장과 인천어보(이세기, 국립민속박물관·인천광역시, 2018), 파시의 파노라마적 풍경과 파시 주체의 욕망(이경엽, 한국민속학65, 한국민속학회, 2017), 파시의 해양문화사적 의미구조(김준, 도서문화2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4).

필자 이경엽(李京燁)

포경선 捕鯨船

정의 배 선수에 줄이 달린 포경포를 장착하여 고래를 잡는 배.

개관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고래를 포획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배에서 장치로 쏘는 작살포가 등장할 때까지는 배에서 손으로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았다. 근래까지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유적으로는 노르웨이 신석기시대 암각화에 배를 타고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大谷里) 반구

대 청동기시대 암각화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고래를 쫓아 작살을 던지는 모습이 등장한다. 고래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여 당시 다양한 고래가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고래잡이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손으로 작살을 던지는 전통적인 고래잡이는 18세기에 배에서 작살을 쏘는 작살포가 등장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았고, 19세기 후반에는 기선에 포를 장착하여 포를 쏘아 잡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 포경포를 쏘아 대형 고래를 잡는 어선을 일반적으로 포경선이라고 한다.

근대의 포경포는 노르웨이 사람 스벤드 포인(Svend Foyn)이 발명하여 제일 먼저 사용해서 이를 노르웨이식 포경법이라 한다. 노르웨이·미국·일본·영국·러시아 등이 주요 포경국으로 등장해서 고래를 잡았다. 미국과 프랑스 등이 19세기 중반 한국 동해에 진출하여 고래를 잡아갔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포경선이 동해에서 독점적으로 고래를 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르웨이·일본·영국·러시아 등은 남극해에서 여름에 참고래를 잡았다. 북반구는 겨울에 해당하는 계절이다. 최성기는 1946년부터 1963



포경선 | 2001 | 울산시



대동포경회사 포경선 | 1965 | 울산시

표

표해록

년까지로, 포경선 수는 약 230척에 달하였다. 이 시기 연평균 포획되는 고래 수는 3만~3만 5,000마리에 이르렀다. 점차 고래자원이 고갈되고, 고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5년까지는 각국에 어획 쿼터를 배당하다가 1986년에는 국제협약에 의해 상업적 포경이 전면 금지되었다.

포경선의 크기는 연안포경용이 10~30t, 근해포경용이 200~400t이고, 남극해나 북태평양으로 모선母船을 따라가는 원양포경용은 400~900t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생포가 고래어업의 중심이 된 것은 1899년 러시아의 태평양어업 주식회사가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포경 허가권을 양도받아 조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회사가 장생포를 고래 해체 작업장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이곳이 포경의 전진기지로 발전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일제강점기 당시 포경선에서 조업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200여 명이 출자하여 조선포경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고래를 잡았다. 고래잡이가 전성기를 이루던 1970년대 말에는 장생포에 20여 척의 포경선과 1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였다. 그러다 점차 고래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IWC의 상업포경금지에 따라 장생포 고래잡이는 중단되었다.

특징 및 의의 포경선은 고래를 발견하기 용이하도록 돛대를 높게 하고, 그 위에 망대를 설치하여 고래를 찾아낸다. 또한 고래를 쫓기 위해 배의 속도가 빠르다. 고래가 방향을 바꾸었을 때 배를 재빨리 돌릴 수 있도록 키의

성능도 개량되었다. 고래에 쏘는 포경포가 배의 앞 끝에 장치되어 있고, 잡은 고래를 배에 올리기 쉽게 백전을 낮게 하였다.

참고문헌 미국포경선의 동해래어와 독도발견(박구병, 수산업사연구1, 수산업사연구소, 199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필자 곽유석(郭儒哲)

표해록

漂海錄

정의 바다에서 표류당한 사람들이 기록한 경험담.

내용 『표해록』이란 바다에서 조난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물에 떠서 흘러간다는 뜻이 '표류漂流'이고, 회오리바람으로 인한 해난사고를 '표풍飄風'이라 하며, 바다에서 표류된 사람은 '표민漂民' 혹은 '표인漂人' 등으로 부른다.

이러한 표해록은 누가 기록하였는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표류 당사자가 직접 기술한 것이다. 15세기 문신 금남錦南 최부崔溥(1454~1504)의 『표해록漂海錄』, 17세기 무관 이지항李志恒의 일본 표류기인 『표주록漂舟錄』,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이 쓴 『하멜표류기The Journal of Hendrick Hamel』, 18세기 제주도 사람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漂海錄』, 19세기 최두찬崔斗燦의 중국 강남 표류기인 『승사록乘槎錄』, 정의현감 이종덕李鍾德의 일본 고토열도五島列島 표류기인 『표해록漂海錄』, 해남 대둔사 승려 풍계楓溪 현정賢正의 일본 규슈九州 표류기인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등이 있다.

둘째, 표류민을 심문한 관리가 기록한 것이다.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해역에 표착漂着하였을 때 해당 지역 지방관이 표류자를 심문하여 문답 형식으로 기록한 『문정별단問情別單』 혹은 『문정기問情記』 등이 있다.

셋째, 제3자가 표류자의 경험담을 채록한 것이다. 19세기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전丁若銓이 흥어 장수 문순득文淳得의 표류경험담을 기록한 『표해시

말『漂海始末』과 동지사 겸 사은사 서경보徐耕輔의 서장관이었던 김정선金景善이『연원직지燕輓直指』에 기록한 유구국 사람들의『표류기漂流記』 등이 있다.

조선시대 표해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5세기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중국 절강浙江에 표착한 금남 최부의『표해록』이다. 최부는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으로, 1488년(성종 19) 제주도 추쇄경차관에 임명되어 재임하던 중 전라도 나주에서 살던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 출항하였다가 표류하게 되어 중국 절강에 표착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두외양牛頭外洋—영과寧波—항주杭州—소주蘇州—양주揚州—회안淮安—제평濟寧—덕주德州—천진天津—북경北京—산해관山海關—광녕위廣寧衛—요동遼東—의주宜州’ 등지를 경유하여 한양에 당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부는 북경에서 중국 황제를 알현한 내용과 중국 전역을 이동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여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조선에 귀국한 최부는 직접 체험한 중국 표류경험담을 상세히 적어 성종에게 보고하였는데, 『중조문견일기中朝聞見日記』가 그것이다. 이 책은 최부가 직접 겪은 여정을 가감 없이 기록하여 조선 사람에게 중국 동부 연안의 문화와 풍습을 전해 준 여행기로 주목받았다. 이후 최부의 외손자 유희춘(1513~1577)이 이 표류경험담을『금남표해록錦南漂海錄』이라 개칭하였다. 이 자료는 총 3권 2책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둘째, 17세기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이 쓴『하멜표류기』이다. 하멜은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향해하던 중 태풍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하멜이 승선한 선



장한철 표해록 | 국립중앙도서관

박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무역선인 스페르웨어 Sperwer 호였다. 그는 1653년(효종 4) 1월 네덜란드를 출항하여 7월에 대만에 당도하였다. 대만을 출발한 하멜은 8월 제주 서귀포 해안에 표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멜과 함께 승선하였던 선원 64명 가운데 28명이 익사하고 36명만 생존하였다. 이후 하멜 일행은 1653년 8월부터 제주에 감금되었으며, 1654년 5월에 한양으로 호송되어 훈련도감에 배속되었다. 이곳에서 하멜 일행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청나라 사신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발각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이송되었다. 1666년까지 하멜 일행은 전라도 강진과 여수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1666년(현종 7)에 하멜 일행은 여수 해안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하여 1668년 7월 네덜란드에 당도하였다.

『하멜표류기』는 조선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기록한 조선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은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학계에『하멜표류기』가 소개된 것은 1930년대이다. 당시『하멜표류기』(『난선제주도피난기蘭船濟州道難破記』)가『진단학보』에 소개되면서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았고, 1970~1980년대『하멜표류기』에 대한 재인식이 확산되었다.

셋째, 18세기 제주도 선비 장한철의『표해록』이다. 장한철은 제주리 출신으로, 1770년 10월에 제주 향시鄉試에서 장원급제하였다. 이에 제주도민들이 장한철에게 한양에서 치르는 회시會試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고, 제주도 3읍 관아에서 장한철의 과거 응시 비용을 지원하여 주었다. 1770년 12월 25일 장한철은 제주도 사람 김서일과 함께 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육지



최부 표해록 | 국립중앙도서관

로 출발하는 상고선에 승선하였다. 당일 상고선에 승선한 사람은 장한철과 김서일을 비롯하여 사공 1명, 격군 9명, 상인 15명, 육지 상인 2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제주도를 출발한 상선은 노어도(鰐魚島) 인근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고, 12월 28일 장한철은 유구국(琉球國)(현 일본 오키나와현) 호산도(虎山島)에 표착하였다. 유구국에서 새해를 맞이한 장한철 일행은 지나가던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으나, 이튿날인 1771년 1월 2일 인근 해상을 지나던 안남국(安南國)(현 베트남) 상선에 구조되어 다시 항해에 나섰다. 승선한 지 3일째 되던 날인 1월 5일에 장한철 일행과 안남국 상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하선 명령을 받게 된다. 안남국 상선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탄 장한철 일행은 1월 6일에 다시 표류하여 우리나라 전라도 남해안에 있는 청산도에 표착하였다.

청산도 사람들은 장한철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정성으로 간호하였다. 1771년 1월 13일 건강을 회복한 일행은 청산도를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였지만, 장한철은 강진 남당포에서 한양으로 향하였다. 1771년 2월 4일 장한철은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에 응시하고, 5월 8일에 고향 제주도에 당도하였다. 제주에 도착한 장한철은 함께 표류하다가 죽은 표류민의 무덤을 찾아가서 조문한 다음 객객과의 대화 형식으로 『표해록』을 지었다. 『표해록』은 출항 배경, 항해와 표류, 표착지에서의 생활, 해난구조 및 귀환에 이르는 여정, 날씨와 바람, 파도의 높이와 빛깔, 선박의 항해, 표류민 동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장한철이 뱃사람들과 나눈 대화이다. 예컨대 뱃사람들이 들려주는 항해 시 금기사항, 역대 지리서와 야화를 통해 장한철이 스스로 터득한 동아시아의 인문환경, 항해 체험에서 알게 된 바닷길,指南針(指南鐵)을 이용한 항해술, 표착지에서의 무인도 생활, 해적의 습격, 안남국 상인들의 해난구조활동, 청산도 주민들의 구호활동 등 표류와 관련한 상세정보가 담겨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장한철의 『표해록』은 2종이 전해오는데 하나는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2종 모두 필사본으로, 내용은 비슷하다.

특징 및 의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섬과 바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로 인해 표류 연구의 외연이 중국·일본(오키나와 포함)·태국·베트남·필리핀 등지로 크게 확대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표류와 관련된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며 시작되었다. 중앙정부의 관찬 자료에서 검출된 『문정기』, 표류경험담을 기술한 『표해록』, 개인 문집이나 일기에서 검출된 『표류기』 등 표류 관련 기록이 다양하게 공유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자국 내 기록을 토대로 표류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각국의 표류 관련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때 동아시아 표류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8세기 장한철의 표해록을 통해 본 해외체험(김경옥, 역사학연구 48, 호남사학회, 2012),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 연구동향과 과제(김경옥, 명청사연구 48, 명청사학회, 2017), 문속독 표류 연구(최성환, 민속원, 2012),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하우봉, 해안, 2006),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정운경,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08), 표해록(최부, 서인범·주성지 역, 한길사, 2004), 한국 표해록의 종류와 특징(정성일, 도서문화 4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2).

필자 김경옥(金京玉)

품

정의 목선인 가이선과 창경을 이용해 조업(창경바리)하면서, 바닷속이 투명하게 잘 보이도록 배 주변의 바다 수면 위에 생선의 간(애)을 꿰어 얻은 기름을 뿌리는 행위.

내용 창경바리는 경상북도 울진 죽변항을 중심으로 ‘가이선’이라고 부르는 목선을 타고 창경窓鏡(사다리꼴 나무틀에 유리를 끼운 나무 수경)과 까꾸리·작살 등을 이용해 바위틈에 있는 문어와 해삼·전복·가자미·장치 따위를 잡고, 햇미역 철에는 미역을 채취하던 1인 중심 어업이다. 가이선은 목선으로 제작한 무동력선이다. 창경은 물에 잘 뜨고 가벼운 오동나무로 만들며, 가로·세로 30×20cm에 높이 40cm 정도 되는 사각통의 밑바닥에는 유리 틀을 끼웠으며 윗부분은 뚫려 있다. 입으로

창경을 물고 조업하므로 창경 윗부분에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치아보호대가 있다.

창경을 이용해 조업할 경우 어민이 배의 가장자리에 가슴을 대고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은 채 조업하므로 가슴과 무릎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배 가장자리에 스펀지나 못 쓰는 옷가지 따위를 덧대어 놓는다. 조업은 항포구의 연안 해역으로 가이선을 타고 나아가 ‘짬’(돌미역이 서식하기 좋은 바위 군락)이 잘 발달된 지점에 배를 멈추고 배 가장자리에 가슴을 대고 엎드려 창경을 2/3쯤 물속에 잠기게 한 후 입으로 물고 창경을 통해 바닷속을 살피며 한 손으로는 노를 젓고, 한 손으로는 까꾸리나 작살 따위로 문어·전복·해삼 등을 포획한다. 이때 창경 밑바닥의 유리면이 흐려지면 미리 준비해 온 생선 간을 끓여 얻은 기름을 배 주변 수면에 뿌려 맑게 한다. 이를 ‘푸름한다’고 한다. 배 주변에 생선 간 기름을 뿌리면 수면이 맑아져 바닷속이 잘 보였다고 한다.

창경바리에 사용하는 생선 기름은 평소에 미리 장만한다. 주로 상어·방어·대구 등 몸집이 비교적 큰 생선의 간을 끓여 얻는다. 죽변항의 창경바리는 6·25전쟁 당시 함경도 지방에서 정착한 어민들이 주로 조업하였으며 1970년 말까지 성행하였다. 당시 죽변항에는 창경바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이선이 3척 있었다. 주로 봄철에는 연안해역의 짬에서 햇미역을 채취하였으며, 이때는 3~4명이 함께 조업하였다. 짬을 죽변항 어민들은 ‘미역방우’라고 부른다. 햇미역은 창경을 입에 물고 한 손으로 노를 저으며 낚대로 채취하였다. 강원도 삼척과 강릉 지역에서는 미역틀을 이용해 햇미역을 채취하였다. 미역틀은 주로 바닷속에 형성되어 있는 짬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이용하였다. 낚대는 긴 대나무에 낚을 단 것이고, 문어를 포획할 때 사용하는 까꾸리는 윗부분은 대나무로, 물속에 잠기는 아랫부분은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다. 이는 물푸레나무의 잘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짬의 구멍에 주로 서식하는 문어를 쉽게 낚아채기에 용이하였다. 가자미와 장치 따위의 생선을 잡을 때는 작살을 이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창경바리 어민들의 주 소득원은 봄철 햇미역 채취이다. 미역 철이 지나면 1인 조업 방식으로 창경을 이용해 문어와 해삼, 전복 따위를 잡았다. 창경바리는

주로 수심 3~5m의 연안해역에서 이뤄졌다. 창경바리는 파도가 치거나 비가 오면 조업이 불가능하고 바다 날씨가 매우 좋을 때만 가능하였다. 날씨가 좋을 때를 죽변항 어민들은 ‘바다가 뽀뽀할(관관할) 때’라고 표현한다. 또 가을과 겨울철에는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1970년대 말 어촌계가 체계화되고 연안해역의 짬에 대한 어촌계의 공동관리가 강화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참고문헌 20세기 전반 미역과 명태 어업을 통해 본 동해의 전통어업기술과 어민(국립민속박물관, 2012),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울진군, 2002), 남자는 그물치고 여자는 모를 심고(한양명,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안동대학교, 2007), 현지조사자료(방학수, 경북 울진, 2021.6.18.).

필자 남효선(南孝銑)

풍선배

정의 돛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으로 이동하는 배.

개관 풍선배는 동아시아 지역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서양의 범선帆船과 구별된다. 중국 발해만에서 조기잡이 풍선배를 대풍선大風船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다. 한국의 풍선배는 한선韓船이라고 부르며, 군선인 거북선과 판옥선 그리고 조기잡이 어로선인 중선이 한반도의 전형적 풍선배이다.

삼면이 바다여서 해상활동이 활발한 한반도에서는 일제강점기 기계선이 나오기 전까지 풍선배를 사용하였고, 기계선이 나온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연안어에서 풍선배를 활용하였다. 백제의 해상활동, 신라 장보고의 해상활동, 고려의 해상활동에서처럼 한반도에서는 풍선배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해상활동을 하였다. 조운선과 군선 활동, 어로선 활동, 왜와 중국을 왕래하면서 벌인 국제교류와 무역활동이 이 시기 풍선배의 주요 활동이었다. 고려 말 명나라가 해금정책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풍선배 활동은 군선과 조운선 운영으로 제한되었고, 조선시대 양란이 끝난 후 청나라가 개국하면서 해금정책이 완화되어 풍선배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내용 한선이라고 부르는 한반도 풍선배는 비우식 평저선이며, 대표적인 배가 중선(中船)이다. 두껍고 평탄한 저판을 깔아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배이다. 선수(船首)와 선미(船尾)는 비우식인데, 평평하여 직선으로 되어 있고 외판과 연결되는 선수부와 선미부 경사면은 곡선이거나 직선으로 되어 있다. 선수부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선수부의 선재는 두껍고 단단한 것을 사용한다. 외판은 상하 외판재에 L자형 턱을 두고 참나무로 깎은 나무못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칸막이 대신 가룻목을 설치하여 칸막이 구실을 하였는데, 9~12칸의 가룻목을 설치하였고, 각 칸의 제일 상단에 명에를 설치하였다. 그 위에 갑판을 설치하는데, 일반 군선의 경우 9개의 명에 위에 대청마루를 꾸미는 방식으로 보판인 너장을 깔아 갑판으로 삼았다. 그리고 두 개의 돛을 달았으며 선미에 키를 달았다.

중선은 한반도 풍선배 어로선의 전형이다. 두 개의 돛과 하나의 노가 있으며, 바람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이물과 고물 규격이 거의 비슷하고, 상자 모양으로 생겼다. 선원은 40명이고 총 길이가 40~50자이다. 줄을

많이 쓰는데, 주로 짚줄과 칩줄을 쓴다.

갑판으로 깎은 너장 위에 나무와 풀로 우장과 같은 것을 만들어 지붕 덮듯 마주 덮어 비가 오면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덮개를 만들었는데, 이를 ‘뚝’이라고 한다. 돛대는 이물돛대, 고물돛대 두 개가 있다. 이물돛대는 이물대라고도 하며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 고물돛대는 고물대라고도 하며 뒤틀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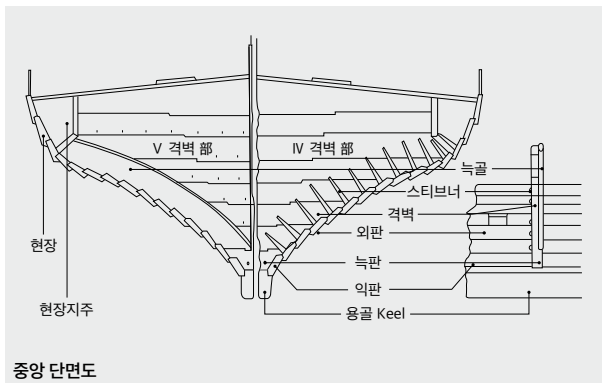
키를 조종하도록 손잡이를 달았고, 사공이 키를 조종한다. 키에는 손잡이를 꽂는 구멍이 3~4개 뚫렸다. 키는 원래 배 밑창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얕은 곳으로 들어갈 때는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이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키를 내린다. 키를 조종하는 손잡이가 키에 꽂혀 있는데, 이를 ‘창나무’라고 한다. 창나무에는 ‘장창나무’와 ‘중창나무’가 있다. 장창나무는 키를 다 내리고 꽂는데, 깊은 물에서 쓴다. 중창나무는 짧으며 얕은 물에서 키를 올리고 단단하게 당겼다 밀었다 할 때 사용한다.

항해는 나침반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가늠·조류·바람·물색깔·수심·해저지형의 상태 등을 활용하여 항로를 찾아간다. 연안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육지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 육지의 지형을 지표 삼아 항해한다. 조운선의 경우에는 남해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항로가 지정되어 있었고, 항로에 위치한 각 지방의 관리들이 암초·수초 지대에 표시를 해두며 호송을 책임진다. 가늠은 항해할 때와 고기잡이할 때 위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배나 어장 위치를 가늠한다. 어느 위치에서 양쪽의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위치를 가늠한다. 이때 상호교차법을 쓰는데, 두 지점을 연결하여 하나의 선을 긋고 다른 지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어 교차점에 맞추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바람과 조류의 방향과 세기를 이용하여 항해한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해류의 영향이 확실하며, 바람과 조류가 매년 같은 현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방향의 바람과 지역 특성에 맞게 흘러가는 조류의 흐름을 인지하여 항해에 적용할 수 있었다. 조류는 뱃사공의 우두머리인 도사공이 경험을 통해 판단한다. 음력을 사용하여 조류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연안 항해에



보존처리 중인 신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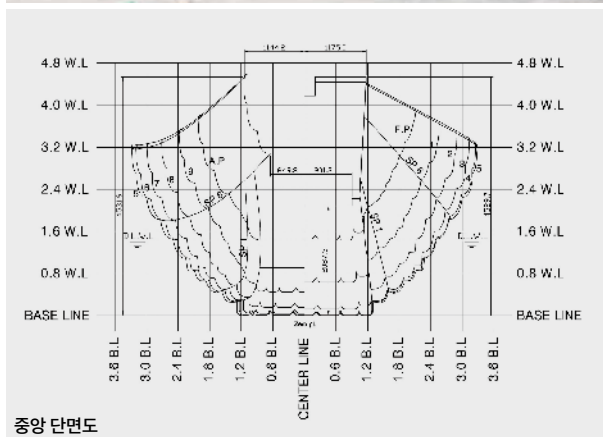


중앙 단면도

첨저형 밑판 | 신안선 | 14세기 초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년 복원된 마도1호선



중양 단면도

평저형 밑판 | 마도1호선 | 1208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는 조수 간만의 차 크기와 물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도사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배에 대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끝에 깃발을 달아 바람의 방향을 측정한다. 또한 도사공들은 경험적으로 계절별로 발생하는 바람의 성질과 방향에 익숙하였다. 수심은 짚을 깊이 단위로 맨 기다란 대나무 막대를 물 속에 넣어 측정하거나 밧줄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물 속에 넣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바닷물의 색깔이나 물 위에 떠 있는 해조류의 상태 등을 보고 수심을 판단하기도 한다.

큰바람을 만나면 ‘나랏줄’을 펼치는데, ‘나加里줄’이라고도 하며 도사공들의 생명줄 역할을 한다. 가을 9~10월에 추자도 갈치잡이 배가 하늬바람을 만나면 바람이 잘 때까지 밀린다. 바람이 불면, 돛은 못 올리고 키도 못 지른다. 이때 이물에다가 나加里줄을 늘이는데, 이를 ‘나加里줄 찬다’라고 표현한다. 나加里줄은 무거워서 이를 늘였을 때 배가 얼른 떠 가지 못한다. 이는 그물이나 배에 있는 줄과 어구 등을 묶어서 만든다. 여

기에 줄을 매서 배에 묶어 둔다. 나加里줄은 배의 균형을 잡아 준다. 또한 배가 파도에 적응하면서 파도를 따라 떠다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나랏줄(나加里줄)을 차지 않으면 배가 옆으로 돌아버려서 침몰할 우려가 크다.

특징 및 의의 풍선배 한선은 수심이 낮은 한반도 해안에서 활동하기에 최적화된 배이다. 한반도 풍선배는 한선이라고 부르며, 비우식 평저선으로 대표적인 배가 중선이다. 두껍고 평탄한 저판을 깔아 바닥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하였다. 선수와 선미는 비우식인데, 평평하여 직선으로 되어 있고 외판과 연결되는 선수부와 선미부 경사면은 곡선으로 되어 있다. 큰 닻을 사용하는 등 선수부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선수부의 선재는 두껍고 단단하다.

비우식 선수는 두꺼운 선재를 사용하고, 저판 역시 평탄하고 두껍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또는 제자리에서의 회전이 가능하고 충돌에 강한 특성이 있다. 큰 닻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센 조류에서도 정지와 회전이 능숙한 특성이 있다. 거북선, 판옥선, 조운선, 조기잡이 중선 모두 풍선배 한선의 전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 배의 역사(김재근,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전통선박 조선 기술-서해 조기잡이 중선망어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의 해양문화1~5(해양수산부, 2002).

필자 나승만(羅承晩)

피데기

정의 속살은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겉은 물기가 묻어나지 않으며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말린 반건조 상태의 생선.

내용 피데기는 속살은 촉촉하게 유지되지만 겉으로 물기가 묻어나지 않는, 즉 말랑말랑한 상태로 부드럽게 말린 생선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피데기는 반건조 상태의 오징어를 가리키지만,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서는 오징어를 비롯하여 가자미·열기(볼락)·노가리·통수



반건조오징어 | 국립민속박물관

(고무걱정어)·아귀·가오리 등 동해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을 갈무리하는 건조 방식으로 통한다. 오징어 피데기는 근래에 대형 냉장·냉동시설이 보편화되면서 상품으로 대량 가공되기 시작하였다. 대형 냉동·냉장시설이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완전 건조상태인 ‘마른(건) 오징어’로 가공하여 판매·유통되었다.

울진 지역을 비롯한 동해 연안 해촌에서는 오징어 외에 잡히는 대부분의 생선을 장기간 보관 또는 갈무리하기 위하여 염장과 건조 방식을 주로 이용하였다. 또 가정용 냉장고가 보편화되면서 제사나 잔치 등의례용 생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하여 반건조 방식인 피데기 상태로 보관하였다. 피데기는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반으로 갈라 소금으로 밑간을 한 후 소쿠리나 밭, 채반 등에 곱게 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약 3일간 말린다. 죽변항에서는 주로 줄을 매단 소규모 덕장에 걸어 말리거나 밭에 널어 말린다. 이때 해풍에 말리면 고기의 식감이 더 쫄깃해진다고 여긴다.

피데기 상태의 생선은 주로 찜과 조림으로 조리된다. 울진 지역에서 주로 장만하는 의례용 생선은 가자미, 열기, 방어, 가오리, 명태 등이다. 제사와 잔치 등의례용 음식에 피데기 방식을 선호한 까닭은 조리 과정에서 생선 형태가 부서지지 않아 원형 상태를 유지하며,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960년대 이전 울진사람들의 식생활(한양명·김주희, 민속원, 2017), 뱃볼 푸른 동해에서 피어나다(심일중·박재홍, 경상북도·국립민속박물관, 2009).

필자 남효선(南孝銑)

피라미잡이

정의 간단한 어구 따위로 피라미를 잡는 일.

개관 피라미는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다. 방언으로 피래미, 피리, 피라지 등으로 불린다. 크기는 8~12cm이고, 몸은 길고 날씬하며 납작하다. 주로 물이 맑은 하천의 여울에 서식하지만, 내성이 강하여 3급수에서도 잘 견딘다. 돌이나 모래에 붙은 미생물을 먹거나, 물에 사는 작은 곤충을 먹이로 삼기도 한다. 산란기는 5~7월이다. 이 시기가 되면 수컷은 화려한 혼인색을 보여 주는데, 몸이 유난히 붉거나 분홍색을 띤다. 자갈 위에 산란장을 만들고 암수가 함께 들어가 알을 낳는다. 암컷이 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부화하기 전에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재물보才物譜』에서는 피라미를 조어鰍魚라 쓰고, 한글로 ‘필이미’라 하였다. 또 피라미가 떼를 지어 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여 백조白條와 수어鰱魚 등의 별명이 붙었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는 ‘조鰍’를 참피리, 비필어를 피라미로 보고 일명 필암어畢巖魚라 하였다. 또는 산란기에 미적색의 혼인색을 띤 수컷을 적새어赤鰾魚라 기록하고, 한글로 ‘불거지’라 하였다.

이런 피라미를 잡을 때는 낚시, 통발, 투망, 가리, 족대, 뜰채, 어항, 그물 등의 어구를 사용한다. 또 하천의 웅덩이나 개울을 막고 물을 품어 잡기도 한다. 간단한 어구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포획할 수 있는 까닭에 어린이들 사이에 특히 인기가 높다. 『난호어목지』에는 강호천택江湖川澤의 곳곳에 피라미가 있는데 파리를 즐겨 먹으므로 낚을 때는 미끼로 파리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내용 피라미는 하천에 서식하는 담수어 중에서 가장 흔한 어종이다. 주로 서해와 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나 저수지에 서식하지만, 태백산맥 동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라미잡이는 간단한 어구를 사용한다. 통발과 가리는 피라미처럼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대표적인 어구이다. 먼저 통발은 하천에 덫을 놓아 고기를 잡는 원시적인 함정어구陷井漁具로, 우리나라 전역의 하

천에서 두루 사용되었다. 섬진강 유역에서는 속칭 ‘쭈기’ 또는 ‘쭈게’로 불린다. 통발을 놓을 때는 된장을 풀어 물고기를 유인하는데, 안으로 들어온 고기는 빠져 나가지 못한다.

가리는 통발과 유사한 형태의 어구이다. 대오리나 싸리나무를 나팔을 뒤집은 모양으로 촘촘하게 엮어 만드는데, 위는 좁고 밑은 다소 넓다. 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아래와 위가 모두 터져 있다. 가리를 들고 있다가 물속에 정지 상태로 있는 고기를 내려찍는 방식으로 가두어 꺼낸다. 또한 웅덩이나 보淤를 막아 고기를 포획할 때도 유용하다. 즉 물을 품으면 수량이 점점 줄어들어 물이 솟는 지점으로 고기가 모여드는데, 흙탕물을 일으켜 식별이 어렵다. 이때 가리로 바닥을 덮어 그 속에 갇힌 고기를 건져 올린다. 피라미처럼 잔고기에서부터 잉어·붕어·메기 등처럼 비교적 큰 고기까지 두루 포획이 가능하다.

사람이 어구를 가지고 물고기를 궁지로 몰아넣어 잡는 방법도 있다. 물새를 두려워하는 물고기의 습성을 역이용한 오리끄시기가 그것이다. 모형으로 제작한 나무오리를 줄에 매달아 물 위로 끌면서 고기를 한쪽으로 몰아서 잡는 까닭에 ‘오리끄시기’ 또는 ‘오리치기’라고 한다. 금강과 섬진강 상류에서 보편적으로 전승되었는데, 섬진강 일대에서는 ‘가와’ 또는 ‘오리썰이’로 부른다. 한강 수계인 경기도 양평과 장흥 탐진강 일대에서도 오리를 이용한 고기잡이가 성행하였다. 어로방법은 모형 오리 여러 마리를 매단 줄을 수평으로 늘어뜨려 물에 띄우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줄을 잡고 거슬러 올라가며 고기 떼가 한쪽 방향으로 몰리도록 유도한다. 고기 떼는 실제 오리가 쫓아오는 것으로 알고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다가 한곳으로 뭉치는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투망을 던지거나 족대로 건져 올린다. 오리치기는 5~6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특징이다.

특징 및 의의 피라미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중에서 하찮은 물고기로 인식된다. 크기가 작은 데다 흔한 고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연륜이 짧은 사람을 피라미에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시절, 피라미는 춘

궁기를 나는 유용한 민물고기였다. 뼈가 연하여 어죽이나 도리뱅뱅이 또는 튀김의 식재료로 안정맞춤이었다. 특히 어죽은 여름철의 보양식이었다. 바쁜 논매기가 끝나면 적당한 날을 택하여 동네잔치를 베풀었는데, 가마솥에 온갖 채소를 넣고 끓인 어죽은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다. 이처럼 구황음식이었던 어죽과 도리뱅뱅이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문헌 蘭湖漁牧志, 금강 유역의 어로문화(강성복, 금강 수로와 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9), 섬진강 유역의 어살 연구(강성복·박종익, 한국민속학64, 한국민속학회, 2016), 섬진강 유역의 전래어법과 어로기술·어로유산(강성복, 무형유산4,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1~3(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강성복(姜成福)

피쉬펌프

정의 수산물을 펌프를 이용하여 유체와 함께 이동시키는 기계장치.

개관 수산물 품질관리를 통해 어업 이익을 증대시키고 어업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인한 노동의 질적 저하 등으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계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 피쉬펌프는 펌프에서 발생한 압력을 이용하여 물과 수산물을 함께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

피쉬펌프는 수산물에 사람의 손을 닿지 않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기존의 뜰채나 플라스틱 바구니 등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옮기는 방법보다 상품의 손상 빈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수산물 품질관리에 유리하다. 또한 수산물의 이동 과정에서 노동력의 투입을 줄일 수 있어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 피쉬펌프는 기계적인 작동으로 압력을 만들어 유체를 이동시키는 장치인 펌프(pump)를 이용하여 유체와 함께 수산물을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장치이다. 1940년대 미국의 통조림 공장에서 가공 원료인 정어리와 청어를 배에서 하역하기 위해 개발된 뒤 해상에서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어창에 옮기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양식장에서 양식생물을 이동시키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피쉬펌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펌프에 있는 탱크를 진공상태에 가깝게 만들어 압력 차를 이용하여 유체를 흡입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회전날개와 같은 장치를 작동해 유체를 흡입하여 압송하는 방식이며, 세 번째 방법은 호스 중간에 고속의 유체를 유입시켜 물고기를 가속 이송하는 방식이다.

어로어업에서는 수산물을 어획한 뒤 어구에 있는 어획물을 어창으로 이동시키거나 어선에서 육지로 양륙揚陸하는 과정에서 뜰채와 비슷하게 생긴 반두 또는 족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먼저 반두와 족대는 그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획물을 떠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그물에 쓸리거나 어획물끼리 부딪쳐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어획물을 수작업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어획물이 대량일 경우 이송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획물이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송 작업에 걸리는 시간만큼 어로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추가비용이 든다. 마지막으로 어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과 질적인 저하에도 불구하고 이송 과정에서도 많은 노동이 필요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 노무비가 상승하여 어업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산물 품질 저하로 어업 수입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어업비용의 증가는 어업 이익을 감소시켜 어업 경영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자동화 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며, 피쉬펌프는

이러한 자동화 장치 중 하나이다. 특히 노르웨이와 같은 수산 선진국들에서 도입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쉬펌프는 어획—양륙—가공의 전반적인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의 손에 어획물이 접촉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품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종류의 어업에서 피쉬펌프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마른멸치를 생산하는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주로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1920년대에 일본에서 멸치를 잡기 위해 도입된 어법으로, 2척의 본선(끝배)이 자루그물을 끌어 표층과 중층에 있는 멸치를 잡는 어업 방법이다. 자루그물을 끌어 어획된 멸치는 자루그물에서 가공선의 자동선별기로 이송되는데,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족대를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피쉬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자동선별기로 이송된 멸치 등의 어획물은 선별기에서 멸치만을 분리하여 건조판에 펼쳐 삶은 뒤 육상의 건조장으로 이동시켜 건조한 후 상품으로 출하된다.

한편 양식업에서도 피쉬펌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류나 갑각류 양식에서는 생산되는 상품 대부분이 활어 상태로 출하되고 있다. 기존에는 출하를 위해 활어를 옮길 때 뜰채나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어로어업에서처럼 어체의 손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송 과정에서 양식수산물에 스트레스를 받게 해 활성도를 떨어뜨



피쉬펌프를 이용한 멸치 운반 | 경남 남해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본선을 지탱하는 가공선 | 경남 남해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리기도 하며, 활어차에 싣고 시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활어를 폐사시키는 경우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수산물을 양식하는 과정에서도 양식생물을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양식장에서 양식생물을 이송하는 경우는 출하 이외에도 치어의 입식, 양식생물의 성장함에 따라 서식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분조分槽(수조 나누기) 작업 등인데 이 경우에도 출하에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뜰채나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용하였다. 이에 양식생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체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려 이동 후 어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더불어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노동력 외에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양식에서도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 양식생물의 손상, 어병 발생 가능성 증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양식 비용을 증가시키고, 출하가격을 떨어뜨려 어업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어업 이익을 줄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류양식이 발달한 유럽의 송어와 터봇(대문짝넙치) 양식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쉬펌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양식업에 순환여과식 기술과 스마트 양식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양식업이 과거의 관행 양식에서 벗어난 첨단양식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자동 급이기, 수질 측정기, 수질 관리 장치, 각종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 등 여러 가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면서 피쉬펌프 또한 함께 시설되는 상황이다.

특징 및 의의 어업과 양식업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된 수산물의 품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들의 어업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사이다.

한편 어업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어 기존의 생산 과정을 현대화·자동화하여 노동력의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피쉬펌프가 도입되고 있다. 피쉬펌프가 수산물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상태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시켜 상품의 품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쉬펌프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선별기 또는 백신주사장치 같은 다른 장치와 연결하여 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즐 형상에 따른 환형 제트 펌프의 특성 연구(오병화·권오봉, 수산해양기술연구34-4, 한국어업기술학회, 1998), 연근해 어업개론(이병기·박승원·김진건, 태화출판사, 1989), 피쉬펌프의 자동화 시스템 개발1(정석권·신현옥·권오봉, 수산해양기술연구35-3, 한국어업기술학회, 1999), 한국의 어구어법(수협중앙회, 2004).

필자 류정곤(柳廷坤)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과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 유역에서 맨손 또는 ‘거랭이’라 불리는 도구를 활용하여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방식.

내용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전남 광양시 다압면·진월면의 섬진강에서 거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재첩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방식이다. 거랭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깊이와 세기로 강바닥을 긁어서 재첩을 채취하며 섬진강 수서 생태계 순환에 기여하는 보존가치가 높아 2018년 11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되었다.



재첩잡이 도구(거랭이) | 하동군

재첩은 모래가 많은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 백합목 재첩과의 민물조개로, 현재 국내 재첩 채취는 대부분 섬진강 하구 기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섬진강 유역에서 서식하는 재첩으로는 재첩, 참재첩, 기수재첩 등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중 상업적 가치가 높은 기수재첩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첩잡이 도구의 경우 문헌에 기록된 사항은 없으나 어민들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맨손으로 채취하였다. 이후 농기구의 발달과 함께 호미나 뜰채 같은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현재는 거랭이라 불리는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위해서는 강바닥을 긁는 ‘거랭이’와 채취된 재첩을 보관하는 ‘고무통’, 돌 등을 걸러내는 데 필요한 ‘뜰채’ 등의 도구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거랭이는 재첩을 채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다란 대나무 막대(손잡이)와 촘촘하게 구멍 난 부챗살 형태의 어망으로 이루어진 도구로, 어망은 사각형 또는 삼태기 모양의 망구조로 되어 있으

며 그 끝에는 강바닥을 긁을 수 있는 쇠갈퀴가 달려 있다. 대나무 막대를 잡고 끌면 어망 끝에 달린 쇠갈퀴가 강바닥을 긁게 되고, 강바닥 속의 재첩·모래·돌 등이 어망으로 모이는데, 어망의 망 크기와 쇠갈퀴 긁개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 적절한 크기의 재첩만 채취할 수 있다.

재첩잡이 손틀어업 초기에는 거랭이가 아닌 맨손으로 모래를 파내어 재첩을 채취하고, 고무통이 아닌 함지박에 담아 보관하는 형태로 어업활동이 이루어졌다. 점차 도구가 발달하면서 맨손 대신 대나무 키나 플라스틱 채 바구니를 사용하다가 대량 채취가 필요해짐에 따라 현재의 거랭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찌리나무나 대나무 같은 목재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나 강물의 수분으로 인해 목재가 부패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철 소재의 거랭이를 제작하였으나 강물에 녹이 슬 뿐만 아니라 무겁고 가격 또한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녹이 슬지 않고 강철보다 가벼운

스테인리스 스틸 재첩 제품이 보급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갈퀴와 대나무 소재의 자루로 구성된 거랭이가 제작되어 현재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랭이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별, 힘의 세기, 신장, 주로 사용하는 손의 방향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제작된다. 여기에는 어민들의 전통 지식체계가 반영되어 있다. 먼저 성별에 따라 거랭이의 모양이 달라진다. 남성용 거랭이의 경우 여성용에 비해 거랭이의 크기가 더 크며, 여성용 거랭이의 경우 거랭이 자루에 줄을 매달아 허리에 묶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보다 수월하게 거랭이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주로 사용하는 손에 따라 형태가 각각 다르다. 왼손잡이용 거랭이의 경우 자루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오른손잡이용 거랭이는 자루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진다.

계절마다 재첩의 분포 위치와 깊이가 다른 점을 반영하여 여름용과 봄·가을용으로 제작되고 있다. 여름에는 재첩이 상대적으로 강바닥 위쪽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반영하여 강바닥의 위쪽을 긁을 수 있도록 갈퀴가 바닥으로 뉘어 있는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는 강바닥 깊이 내려가는 재첩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강바닥을 깊이 긁을 수 있도록 갈퀴와 바닥이 평행하게 만들어진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①재첩 채취를 위한 조업준비 ②거랭이질을 통한 재첩 채취 ③재첩 거르기 ④재첩 세척 및 판매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썰물이 되면 어업계별로 배를 타고 각각의 조업구역으로 향한다. 배 위에서 각자 허리에 고무통을 줄로 묶고 거랭이를 챙기는 등 재첩 채취를 위한 준비를 한다.

재첩 채취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배에서 내려 본격적으로 거랭이질을 시작한다. 우선 발의 감각으로 재첩 분포 여부와 위치 등을 파악한 뒤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한다. 강바닥을 15~20cm 정도의 깊이로 긁으면 재첩과 모래가 거랭이 어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거랭이를 좌우로 흔들어주면 어망 안의 모래는 빠지고 재첩만 남게 되며, 이렇게 채취한 재첩은 강물에 한 번 씻은 뒤 큰 고무통에 모아두는 작업을 반복한다.

재첩을 채취한 후에는 물으로 돌아와 채취한 재첩을 채에 거르는 작업을 통해 어린 재첩과 작은 돌을 거르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채의 구멍 크기(5~7mm)를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첩의 개체 수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완전히 걸러진 재첩은 마지막으로 강물에 세척한 뒤 고무 대야에 모으거나 포대에 담아 수협이나 가공업체 등에 판매한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하루 평균 조업시간은 약 7시간으로, 조업시간 동안 온몸으로 물살을 헤치며 오로지 발의 감각으로만 재첩의 위치를 파악해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고된 노동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노동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요인 ‘하동 재첩캐는소리’를 부르며 어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동 재첩캐는소리’는 노동요 중 수산노동요에 속하는 민요로, ‘거랭이질소리’ ‘재첩 고르는소리’ ‘씻은 재첩타령’ 등이 있으며, 점차 속도감을 더하는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로 환경은 물때와 바람, 계절적 영향을 직접적으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 하동군



채취한 재첩 | 하동군

로 받는다. 손틀어업의 활동기간은 재첩 산란기인 7~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로, 그중에서도 물때에 따라 어업활동 시기가 정해진다. 15일 주기로 나타나는 물때 중에서도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리 때 가장 좋은 재첩을 채취할 수 있다. 사리 때에는 조류의 유속이 빨라지고, 일조량이 풍부해져 수중의 영양염류 이동과 플랑크톤을 비롯한 각종 영양염류의 증·번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재첩에 다양하고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재첩의 발육상태를 원만하게 한다. 즉 사리 기간에 가장 크고 좋은 재첩을 채취할 수 있다. 사리는 한 달에 8~10일간 지속되므로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연간 어로 일수는 100일 정도이다.

재첩뿐만 아니라 전어, 강굴(벚굴), 참게 등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였던 어민들은 배를 타고 섬진강에 나가는 일이 많았기에 배의 안전과 풍어를 위한 배고사를 지낸다. 전어잡이가 활발하던 섬진강 하구의 망덕포구 일대에서 흔히 행하여졌으며, 선달그믐·정월대보름·추석에 제물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행사로, 시간이 지나면서 배의 기계화로 인해 그 규모가 축소되어 현재는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1950년대 섬진강에는 ‘물 반 재첩 반’이라 할 정도로 재첩이 지천이었고,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재첩을 잡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고살 정도로 주요 소득원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부녀자들은 재첩채취뿐만 아니라 재첩국을 끓여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렇게 재첩국을 끓여 판매하는 부녀자들을 ‘갱조갯국 아지매들(재첩국 행상)’이라고 불렀다. 갱조갯국 아지매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하동과 광양을 중심으로 판매활동을 이어오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재첩은 현재까지도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섬진강 유역 주민들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1차산업 위주의 생계활동에서 가공·판매·서비스·체험·축제 등 2·3차산업 활동으로 생계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재첩 생산량이 풍부하던 1960~1980년대에는 주로 재첩 채취와 채취된 재첩을 활용한 재첩국 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주로 1차산업 위주의 생계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

후부터는 재첩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섬진강 유역에 재첩 가공업체와 재첩 관련 음식점들이 점차 들어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첩 가공 및 판매 등으로 생계활동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부터 재첩 채취 및 가공, 판매와 재첩을 활용한 체험, 축제 등 재첩 연관 산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재첩 축제의 경우 연간 2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발생하는 등 재첩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생계활동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보고서(하동군·광양시, 2020), 농어업 유산센터(msimc.com).

필자 정명훈(鄭明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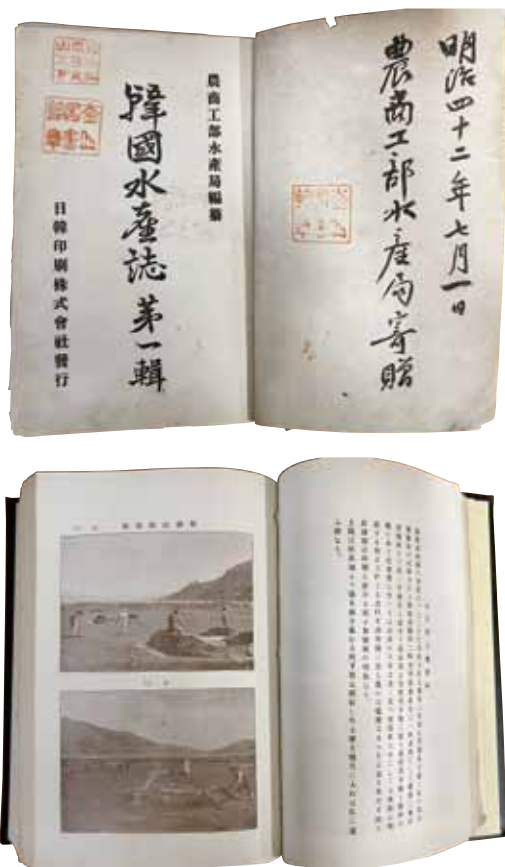
한국수산지

韓國水産誌

정의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 조선통감부와 총독부 농상공부에서 편찬한 조선의 지리·역사·수산물·어업현황 등을 조사하여 일본어로 간행한 총 4권의 문헌.

내용 『한국수산지』의 조사·편찬사업은 통감부와 총독부의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주도하였으며, 수산과장인 이하라 분이치(庵原文一)가 총괄하였다. 1907년에 통감부의 관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농상공부에 수산국이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5개년에 걸쳐 전국의 수산업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조선 수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일본 어민들을 조선 연해에 진출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의 어업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한국수산지』는 조선의 수산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조선의 위치·면적·구획·인구·지세 등을 비롯하여 강·해안선·항로·등대·기상·해류·조류·수온·수심 등 어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은 물론 조선의 각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한국수산지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조사하였다. 또한 조선의 전통어법은 물론 일본 어민들이 조선의 바다에서 사용한 어로기술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핵심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일본 최초의 수산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水産傳習所)와 수산강습소(水産講習所) 출신이었다. 이들이 각 구역을 분담하여 집필하고 이를 편집하여 『한국수산지』로 출간하였다. 『한국수산지』의 서문을 보면 조사에 착수한 것은 1907년이고 1908년과 1909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함경북도부터 평안북도에 이르는 해안의 실태를 담은 『한국수산지』 2권과 3권이 출간된 것이 1910년이므로, 실제로 조선 해안의 현지 조사작업이 수행된 것은 불과 2년 정도의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을 통해 일본이 조선의 바다에 있는 풍부한 수산물과 그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4권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 이 책은 어떤 어종을 어떤 어법으로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다루고 있다. 조선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어서 수산물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생선의 건조나 천일제염 측면에서 조선은 기후가 맑은 날이 많고 건조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으로 이렇게 풍부한 수산자원을 아주 초보적인 어법으로 극히 일부만을 어획하고 있던 조선인들을 비롯하여 일본인 어부들이 선진적인 어로기술로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로는 남획으로 이어져 어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1권은 지리와 수산 일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수산 일반은 수산물, 수산물 양식, 수산물 제품, 수송 및 판매, 제염업, 수산물 수출입, 어구 및 어선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수산 일반의 첫 부분은 각각 어로, 양식, 제조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수산전습소·수산강습소의 과목 구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제4장의 포어(捕漁) 수송 및 판매 역시 수산전습소의 어업경제와 양식 분야의 실습과목인 어패류 운반법과 관련이 있다. 제5장의 제염업은 제조 분야의 식염 제조 실습, 제6장의 수산물 수출입은 어업경제와 수산무역, 제7장의 어구 및 어선은 어로과(漁撈科)의 어구제작과 어로의 이론 및 방법과 관련이 있다. 제7장 뒤에는 도해(圖解)라고 하여 어장 어살 등 각종 어구·그물·어선 등을 그림으로 싣고 있는데, 이는 수산전습소에서 화학(化學)이라는 과목에서 그림 그리는 훈련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수산지』는 수산전습소에서 확립·교수되었던 수산학 분야의 지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2권부터 4권까지는 지역별로 기술하고 있는데 2권은 함경도·강원도·경상도, 3권은 전라도·충청도, 4권은 경기도·평안도를 다루고 있다.

3권의 전라도에 대한 기재 방식을 보면 먼저 개관이라는 제목 아래 연혁, 경역, 범위, 지세, 하천, 평지, 경지면적, 일본인 소유 경지 및 투자액, 지가, 해안선, 정박지, 기온, 습도, 비, 눈, 서리, 안개, 바람, 폭풍, 수온, 해류, 조류, 중요 지점의 조수간만, 교통(광주 중심도로, 순천가도, 해안도로, 전주 중심도로, 철도), 통

신, 일본인 집주지, 행정구획, 이사청과 그 관할구역, 경찰서와 순사 주재소, 재무서와 그 관할 구역, 물산(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다루고 있다. 수산물로는 조기·갈치·도미·감성돔·붉돔·삼치·가오리·정어리·고등어·상어·민어·갯장어·뱀장어·새우·오징어·농어·준치·방어·학꽂치·굴·가사리·김·소금 등을 다루고 있다.

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조기는 적조기와 백조기의 두 종류가 있다. 조기는 전 연안에 널리 어획하지만 가장 유명한 어장은 위도 근해로서 안마도 부근부터 대왕등, 소왕등(위도의 서쪽 방향에 있음) 근해 사이이다. 종래 그 어장의 중심은 칠산도 부근 이른바 칠산탄에서 위도 근해 사이였는데, 점점 알바다 쪽으로 나가서 지금 앞에서 기술한 장소(위도 근해)를 주요 어장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위도 근해는 각 도의 어선 집합이 매우 많으며, 그 장관은 여전히 왕년과 비해서도 큰 손색이 없다. 본 어장은 주로 백조기로, 크기가 크지 않고 기타 남쪽 해안에 있어 해남군 연해, 득량만, 홍양군 연해, 거금수도, 여자만, 여수군 연해, 광양만 등도 역시 이른바 어장이다.

▲ 어획은 위도 근해에서는 2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가장 활발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황해 연평 열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통례이다. 남쪽 해안에서는 4월 상순부터 9월 하순까지 어획한다. 남쪽 해안에서 어선이 최고 많이 집합하는 곳은 여자만 내 홍양군(고흥군)의 동쪽이다. (중략)

▲ 조기는 어획량이 매우 많은 함경도의 명태, 강원도의 정어리와 나란히 삼대 어업의 하나로 헤아려지는 바로서 전라명태라고도 불린다. 특히 조선인이 좋아하는 어류이므로 판로가 아주 넓다. 중선과 같은 것은 조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서 실로 그러한 어구의 발달은 조기의 어획량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전라도 전체를 개관한 다음 다시 군별로 연혁·경영·지세·산악·하천·해안·구획과 임해면, 군읍, 교통 및 통신, 장시, 주요 물산을 설명하고 각 군의 특징도 다루고 있다. 광양군(현 광양시)의 경우 김채취 촌락, 김양식장, 일본 어부의 장어잡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 내용으로 보아도 직접 수산과 관련된

부분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연혁이나 지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권마다 앞부분에는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있고, 2권부터 그 말미에 어사일람표漁事一覽表가 실려 있으며, 중간에는 중요한 지역의 해안 및 포구 등을 보여주는 해도가 제시되어 있다. 어사일람표는 군·면·동단위로 구분하여 마을별로 총 호구, 어업자가 있는 호구, 배의 수, 어망의 종류와 그 수, 어살의 소재지 및 그 수까지 파악하고 있다. 예컨대 경상남도 울산군(현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호구 수는 1,722호에 7,406명인데 그중 어업자 호구는 487호에 1,950명이다. 선박의 수는 159척이고, 그물은 총 212개이며, 어살의 수는 59개이다. 어살은 소재지까지 파악되어 있다.

한국수산지의 구성

순서	구성	편찬기관	발행일자
제1집	제1편 지리 제2편 수산일반	통감부 농상공부	융희 2년(1908년) 12월 25일
제2집	제1장 함경도, 제2장 강원도, 제3장 경상도		융희 4년(1910년) 5월 5일
제3집	제4장 전라도, 제5장 충청도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명치 43년(1910년) 10월 30일
제4집	제6장 경기도, 제7장 황해도, 제8장 평안도		명치 44년(1911년) 5월 15일

특징 및 의의 『한국수산지』는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 간행된 조선 수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보고서이다. 일본에 의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조사내용이 다양하고 분량도 방대하여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의 수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근대 일본은 수산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일본수산회를 결성하고 수산전습소라는 수산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일본 어민들의 원양어업 및 조선 이주를 권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히 조선 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넘어 조선의 역사와 지리도 함께 기술한 종합적인 ‘한국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이근우, 수산경영론집43-3, 한국수산경영학회, 2012),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서경순·이근우, 인문사회과학연구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9), 한국수산지의 편찬과 그 목적에 대하여(이근우, 동북아문화연구2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韓國水産誌1~4(農商工部 水産局, 1908~1911).

필자 이근우(李根雨)

정의 통감부가 1908년 11월 7일 공포한 어업에 관한 법률.

역사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에 의해 일본 어민들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의 연해까지 진출해 어업을 행하였다. 이어 1889년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에 의해 일본 어민들은 조선 정부에 어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은 후 어업세를 납부하고 조선 연해에서 어업을 행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 인구가 매년 40만 명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의 조선 연해 진출을 더욱 장려하였다.

1897년 일본 정부는 <원양어업장려법>을 제정하면서 일본 어민의 조선 연해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내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시(牧本眞)가 1899년 6월에 조선을 시찰한 후 부·현마다 한해 통어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어민의 조선해 진출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1902년에 일본 정부는 <외국령해수산조합법>을 공포하면서 조선 등 외국에 출어하는 일본 어민들의 보호육성책을 마련하였고, 1903년에는 조선해수산조합을 만들어 일본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조선 연해로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에 1904년경에는 조선 연해로 출어하는 어민이 1만 명, 어선 수가 2,000척, 어획고가 약 50만 원에 달하는 등 조선 연해의 어업권을 일본 어민들이 장악할 정도가 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5년 12월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조선의 보호국화를 본격화해 갔다. 아울러 1905년 이후 일본 인구가 매년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반면 일본 어민이 조선 연해에 일시적으로 출어하면서 얻는 이익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조선 이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포구에 터를 잡고 일본인 어촌을 형성하면서 어업을 행한다면 어업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일본 내 인구를 방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904년 일본 정부는 농상무성 관료인 시모 게스케(下啓助)와 야마와키 소지(山脇宗次)를 한국에 파견하여 일본 어민을 조선에 이주시키는 데 적당한 장소를 찾는 한편 문제점과 해결방향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들이 일본 농상무성의 명령을 받고 3개월간 조사하여 일본 어민의 이주 방안을 제시한 것이 『한국수산업조사보고』(1905)이다. 이 책에서는 이주를 장려하여 한국 각지에 일본인의 취락을 만들도록 하는 데 있어 어업근거지를 정부에서 설치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주 근거지의 선정 기준으로는 어장 근처로 적당한 항만이 있는 곳, 어획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과 가까운 곳, 어가 및 토지 외 채소밭도 다소 있는 곳, 땀감과 식수 확보가 편리한 곳 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를 받은 일본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일본 어민의 이주어촌 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일본 어민들이 조선에 이주어촌을 건설하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선 어민과 똑같은 어업권을 소유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해야 어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통감부는 1908년에 <어업에 관한 협정>을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체결토록 하였다.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 어민은 조선의 연해뿐만 아니라 하천과 호수에서도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조일통어장정>을 폐기함으로써 일본 어민들이 조선 정부의 해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허세를 납부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아 어업행위를 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였다. 일본 어민들도 조선 어민과 마찬가지로 한국 연해와 내수면에서 자유롭게 어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통감부는 <어업에 관한 협정>을 공포한 지 1주일 만에 <어업법>을 공포하였다.

내용 일본에서는 1901년에 <어업법>이 제정되고, 190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근대적 어업권을 처음 부여하였으며, 어업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면허를 얻도록 하였다. 통감부에서는 일본 어민의 조선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조선 연해에서 어업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및 조선 연해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

하였다. 이를 부정하며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부여하기 위해 통감부에서는 1908년 11월 7일에 <어업법>을 제정하였다.

<어업법>에서는 어업의 종류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면허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건설 또는 정치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며, 이 어업을 원하는 어민은 청원서를 제출하여 농상공부대신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고 면허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였다. 허가어업은 육지와 해안에서 어망을 인양하거나 어망을 수중에서 끌어 올리는 어업 또는 어망으로 고기를 둘러싸고 어선에서 끌어 올리는 어업 및 잠수기계를 사용하는 어업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신고어업이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을 말하며,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여 감찰증명을 받도록 하였다. 이 중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은 어업을 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감부는 <어업법> 공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권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본 어민들도 조선 내에서 조선 어민과 똑같이 어업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토지 혹은 연해에서 소유권을 허가하지 않았다. 즉 외국인들은 토지소유권 혹은 연안에서 어업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필요하였다. 일본인들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조선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었다. 이에 통감부는 1908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을 공포하여 일본인에게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허가해 주었다. 아울러 <어업법>을 제정하여 일본인들도 어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연해 어업에서 일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이주어촌 건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

둘째, 통감부에서 어업권의 면허제도를 빌미로 조선 어업제도를 재편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어업의 종류를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구분하고, 허가제도를 바탕으로 조선의 어업제도를 재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업법> 실시 이후 어업제도는 일본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재편되었다. <어업법>은 19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9

개월 동안 농상공부 수산국에 출원한 건수와 허가한 어업건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일간 어업 출원 건수 (1909.4.~1909.12.)

국별 인명	허가어업		면허어업	신고어업
	출원수	허가수		
일본인	301(81.1%)	284(94.3%)	3,200(55.3%)	1,278(35.7%)
한국인	68(18.3%)	53(77.9%)	2,115(36.6%)	2,305(64.3%)
한일공동	2(0.6%)	2(100%)	469(9.1%)	-
합계	371(100%)	339(91.3%)	5,784(100%)	3,583(100%)

출처: 농상공부수산국 『조선해수산조합월보』 제14호 1910년 29쪽

이 자료를 보면 허가어업과 면허어업 부문에서 일본인의 출원건수와 허가건수가 한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어업법>이 발효되는 1909년 4월 1일부터 1909년 12월까지 허가어업의 출원자 수가 일본인은 301명, 한국인은 68명이었다. 면허어업의 출원자 수도 일본인은 3,200명인 데 비하여 한국인은 2,115명에 불과하였다. 한반도의 연해에서 한국 어민에 비해 일본 어민의 출원자 수가 많았고, 허가자도 일본인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이는 한국인은 처음 실시되는 허가어업과 면허어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일본인은 당시 일본인 동업조합 및 일본 언론에 의해 정보를 잘 인지하여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인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고, 그 현상이 당시 언론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있다.

특정 및 의의 1908년 <어업법>을 통하여 일본 어민들은 조선 어민과 똑같이 어업권을 소유하면서 조선 연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1908년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일본 어민들이 조선의 연해뿐만 아니라 하천과 호수에서 조선 어민과 똑같이 어업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조일통어장정>을 폐지하여 면허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어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어업법>의 공포로 일본 어민이 조선 연해에서 어업권을 부여받으면서 조선 연해에서 어업을 행하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08년 <어업에 관한 협정>과 <어업법>의 실시를 “일한수산업의 신발전으로 우리(일본) 수산상에 대서특필할

신기원을 이루게 되었다.”(『한국어업법』『대일본수산회보』 권315, 1908.2.10.)라고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어업권제도와 연안어장 소유·이용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박구병, 부산수산대학 논문집30, 부산수산대학교, 1983), 통감부의 어업 이민 장려와 어업법 제정(이영학, 한국학연구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한일 조약 자료집(동북아역사재단,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이영학(李永鶴)

한선 韓船

정의 우리나라 전통기법으로 만든 배.

개관 한선이라는 용어는 박제가朴齊家的 『정유각집貞蕤閣集』,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기록한 『변례집요邊例集要』와 『동래통안東萊統案』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 외 1871년부터 1900년 초까지 일본인들의 외교문서에 ‘한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한선이라는 용어는 김재근이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하듯이 그 주선舟船을 한선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래식 중국선을 정크선, 일본선을 화선和船이라 부르는 데 대응하여 한선은 한국의 전통적 주선을 포괄적으로 통칭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내용 한선의 모습은 『각선도본各船圖本』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조선통신사선도朝鮮通信使船圖』 『화성능행도 병華城陵幸圖屏』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 등의 기록자료와 김홍도金弘道の 『단원풍속화첩檀園風俗畫帖』에 수록된 〈나룻배渡船〉, 유운홍劉運弘의 〈세곡운반선稅穀運搬船〉, 작자 미상의 작품인 〈기성도병箕城圖屏〉과 〈주유청강선유도舟遊淸江船遊圖〉 등의 회화 그리고 백자청화산수문항아리白磁靑畫山水文壺와 백자청화성새문병白磁靑畫城塞文瓶 등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선은 우리나라 전통기법으로 만든 배를 이르는 말이다. 배는 사람·가축·물자 등을 싣고 물 위에 떠다니도록 만든 이동과 운송을 위한 구조물이다. 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태화강 상류의 반구대 암각화



대동교 | 일제강점기

에 나타나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이동수단이며 운송수단이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은 나무를 쪼개서 사용하는 원시적 방법에서 쪼갠 나무 사이에 판을 하나 덧붙이는 방법 등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한선은 강과 바다를 건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고, 사람·가축·짐 등을 한 번에 많이 운송할 수 있게 하였다. 배의 이동성은 마을곳에서 부정한 것을 실어 보내는 수단이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인 저승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19세기 이후 철도와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육지와 육지를 잇는 대교大橋의 설치로 배의 운송과 이동수단으로서 비중이 줄어들었다. 대신에 강 주변에서 배를 타고 즐기는 유희성의 비중은 늘어났다.

한선은 강을 다니는 구조와 바다를 다니는 구조가 달랐다. 강을 다니는 한선의 구조는 배의 깊이가 깊지 않고, 배밑은 넓은 평저형平底形이다. 평저형은 수심이 얇은 강을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바다를 다니는 한선의 구조는 배의 깊이가 깊고, 배밑은 좁은 침저형尖底形이다. 침저형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배의 깊이가 깊어 전복顛覆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한선은 저판, 외판, 선수, 선미, 갑판, 돛, 노, 키, 닻으로 이뤄져 있다. 저판은 배의 밑판, 외판은 배의 좌우 옆면이다. 선수는 배의 앞부분, 선미는 배의 뒷부분, 갑판은 배의 평평한 바닥이다. 돛은 바람의 힘을 받아 배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이고, 노는 물을 헤쳐 배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이다. 키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이고, 닻은 배를 고정하는 장치이다. 한선의 이러한 구조는 목재를 엮어 만든 때배를 제외한 배의 일반적인 구조와 형태이다.

한선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전선戰船, 관선官船, 상선商船, 어선漁船, 특수선特殊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선은 전투에서 사용하는 배이며, 관선은 관청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배이다. 상선은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이며, 어선은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배이다. 특수선은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배이다. 전선으로는 거북선과 판옥선이 대표적이며, 관선에는 조운선과 통신사선이 대표적이다. 상선에는 경강선이 대표적이며, 어선에는 가거도배와 곳배 등이 대표적이다. 특수선에는 교배선과 놀이배 등이 있다.

한선에 대한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승된다. 대표적인 용어로는 가거도배, 강진 옹기배, 경강선京江船, 곳배(멍텅구리배), 마상이, 챗배, 통구미배, 테우 등이 있다. 가거도배는 전라남도 신안 가거도에서 멸치잡이와 운반선으로 사용되는 배이다. 강진 옹기배는 전남 강진군 칠량면에서 옹기를 실어 나르던 배로, 전

남 장흥·완도·고흥·여수를 비롯하여 제주도·부산·포항·울릉도까지 운항하던 배이다. 경강선은 한강에서 상업에 이용하던 배이다. 곳배는 인천 강화에서 새우잡이에 이용하던 배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멍텅구리배라고 불렸다. 마상이는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곡식과 군대의 이동에 사용하던 배이다. 챗배는 남해와 제주도 근해에서 멸치를 잡던 배이다. 통구미배는 남해안에서 이용하던 배로, 통나무 속을 파낸 나무로 만든 배라는 의미이다. 테우는 제주도에서 바다에 나갈 때 타던 뗏목배를 이르는 말이다.

한선을 만드는 것을 조선造船이라 하며, 배를 만드는 사람을 배목수라고 한다. 한선은 저판(배밑, 밑판) 꾸미기—외판(삼판, 현판) 꾸미기—이물(배 앞쪽)과 고물(배 뒤쪽) 꾸미기—명예와 덕판 엮기—가롱목(장썰) 고정하기—마루(겅집, 너장) 깔기—키 꽃기—굴통 고정하기—수밀하기—돛 달기 순서로 만들어진다.

한선의 가장 큰 특징은 외판의 고착방식과 나무못의 사용이다. 외판의 고착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의 배는 외판의 판자를 서로 맞대어 붙이는 카벨 방식(평장平張, carvel joint)으로 만들지만, 한선은 외판의 판자에 홈을 파서 겹쳐 붙이는 클링커 방식(개장鑑張, clinker joint)으로 만든다. 클링커 방식으로 배를 만들면 외판이 삭았을 때 그 부분만 떼어내어 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한선을 만들 때 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못을 사용하였다. 나무못을 사용하면 배의 수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식 건조방식에 의해 나무못 대신 대장간에서 만든 쇠못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선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을 ‘배무이’라 한다. 배무이를 하는 장소는 대개 강 언덕으로, 서울에서는 노량진·밤섬·서강·용산 등이었다. 특히 밤섬은 배를 만드는 배목수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밤섬의 배목수들은 밤섬 이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불려가 배를 만들기도 하였다.

한선 한 척을 만들어 물에 띄울 때까지 지내는 의례로는 배밑고사—명예고사—진수고사 등이 있다. 배밑고사는 배를 만들기 전에 배밑판의 선본편을 놓을 때 지내는 고사이며, 신에게 배 짓는 것을 알리는 의례이다. 명예고사는 배의 대들보 격인 허리명예를 삼에 올



도선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복원한 전통 옹기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나무못박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릴 때 지내는 고사이며, 배의 외형이 거의 갖추어짐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지내는 의례이다. 진수고사는 완성된 배를 물에 띄우기 전에 지내는 고사이며, 배와 선원들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밤섬의 경우 배 밑고사와 명에고사는 배목수들끼리 간단하게 지내는 의례였지만, 진수고사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배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의례였다. 완성된 배를 물에 띄우기 위해 물가로 옮길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한선은 고대부터 물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이동도 담당하였다. 고대 국가에서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물류들은 한선을 통해 이동하였고, 한선의 운용은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철도와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도로와 다리의 설치로 인해 운송수단으로서의 배의 이용은 침체되었다. 그리고 한선을 만들던 기술자들도 소수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선은 우리나라 전통방식으

로 만들어진 배로, 문화와 기술의 이동과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어업문화이다.

참고문헌 근대한선과 조선도구(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마포 밤섬의 조선문화 연구(이동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선시대 그림속의 옛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한국민중미술대전-이일용(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동아, 눈빛, 2007), 한국의 배(이원식, 대원사, 1990), 우리배 용어사전(seamuse.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이동아(李東娥)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정의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어업협정.

내용 한국의 경우 1952년 1월 18일에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통해 선포한 ‘평화선’을 경제수역과 유사하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동 선언이 일본에는 유보되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의 어업전관수역을 12해리로 합의하였고, 한국 측 전관수역 바깥쪽에는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였다. 공동규제수역은 일본 해역에는 설정되지 않고 한국 측 해역에만 설정되었는데, 이는 평화선의 실질적 철폐에 대한 국내의 강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조업 능력이 매우 낙후되어 한국 어선이 일본 측 해역까지 진출할 가능성도 희박했다. 공동규제수역에는 연간 어획량을 15만t으로 제한하고 출어하는 어선의 수도 625척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본 어선의 무질서한 남획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였다. 어선에 대한 단속과 재판관할권을 어선이 속한 국적의 국가가 행사하는 ‘기국주의’를 택하기도 하였다. 이는 1958년의 〈공해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조치였다.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채택되고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체제가 1994년 발효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1996년에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공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새로운 해양법 체

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필요하였다. 양국은 1996년부터 한일어업실무자 회의를 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었다.

1998년 1월 23일에는 1965년 체결되어 30년 이상 한일 간의 어업 문제를 규율하던 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당시에는 당선자 신분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한일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본의 강경한 행동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반일 감정이 급속히 고조되었다.

양국 정부는 한국의 신정부 출범 후 새로운 협정 체결 교섭을 시작하여 오랜 진통 끝에 1998년 10월 9일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과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간에 협정안의 주요 내용이 타결되어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현에서 서명 후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전문 및 17개 조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 그리고 합의의사록과 양측 외교부 장관 서한 등 부속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정의 기본이념과 목적은 해양생물 자원의 합리적인 보전·관리와 최적 이용을 도모하고, 양국 간의 전통적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며,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양 체약국은 일정한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각각 설정하고, 그 수역에서는 당해 연안국이 수산자원의 보전·관리상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연안국주의),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어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해 중앙부와 제주도 남부 수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쌍방의 주장이 중복되는 두 군데 중첩 수역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범위의 중간수역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그 수역에서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령을 타방국 국민과 어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선적국주의, 일명 기국주의). 이 협정은 발효 후 3년간 효력을 가지지만, 어느 일방 체약국이 협정 종료의사를 밝힌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면 그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되며, 그러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특징 및 의의 한일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합의하면 어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독도 문제로 중간선을 합의하기가 불가능하다.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는 일단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어업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 어업교섭이다. 그러므로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나 영유권을 확정하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어업협정에서 정한 내용이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음은 〈한일어업협정〉 제15조 “이 협정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1998년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지위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참고문헌 국제해양법(김현수, 연경문화사, 2007), 독도사전(한국수산업개발원 편, 2011), 동북아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외교통상부 조약국 편, 일조각, 2006), 한일어업협정 설명자료(외교통상부, 1998.9.30.),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조윤수, 일본비평 7-1,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필자 조윤수(趙胤修)

한치잡이

정의 근해에서 낚시 또는 채낚기 방식으로 한치를 잡는 행위.

내용 한치는 두족강 살오징어목 꼴뚜기과이다. 국내에서 한치는 ‘창꼴뚜기’와 ‘화살꼴뚜기’를 가리킨다. 민간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한치’라고 통칭한다. 한치의 명칭은 다리 길이가 한 치(일촌一寸, 약 3.03cm)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졌다. 한치의 길이는 20cm 내외지만 최대 40cm까지 자란다. 몸의 형태는 가늘고 길며, 중앙 복부에는 육질선이 나타나 있다. 지느러미는 몸통의 70%를 차지한다. 열 개의 다리 가운데 양쪽 끝 두 개의 긴 다리는 먹이를 잡거나 짹짹하는 촉수로 ‘촉완’이라고 한다.

한치는 제주도 해역에서 주로 잡힌다. 제주 한치

는 ‘창꿀뚜기’로, 달리 ‘창오징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오징어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용하는 사례가 있다. ‘화살꿀뚜기’는 ‘창꿀뚜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지느러미는 끝이 화살 모양으로 뾰족하고 몸통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주로 동해안에서 소량 어획된다.

한치는 수심 30~170m 연안에 서식하며, 봄과 여름에 연안 가까이 이동하여 모랫바닥에 산란한다. 낮에는 바다 밑바닥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위로 올라와 활동한다.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떼를 지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어민들은 초저녁에 한치잡이에 나서서 해가 떨어지면 배의 전등을 환하게 밝힌다. 한치는 주광성(主光性) 어종이기 때문에 밝은 빛을 따라 배 주변으로 몰려든다.

제주 해역에서 한치잡이의 주요 어기(漁期)는 5월 중순부터 9월까지이다. 한치는 수온이 따뜻한 여름에 많이 잡히고 바다 수온이 내려가는 9월부터는 점점 깊은 바다로 내려가서 한치의 어획량이 감소한다. 이 시기의 한치는 두껍고 질겨서 헛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

과거 제주도에서 한치잡이는 생물을 미끼로 삼아 낚았다. 미끼는 주로 갯가에서 구하기 쉬운 놀래기류나 보들락(베도라치), 새끼 돔 등을 썼다. 고기의 가시를 제거하고 손질하여 미끼로 이용하였다. 낚시는 원줄 하나에 세 가닥의 줄을 달아매어 물속에 드리운 뒤 줄을 반복적으로 흔들면서 한치를 유인하였다. 줄에 무게감이 들면 살살 당겨서 한치를 ‘죽바지’(뜰채)로 건져 올렸다. 보통 미끼 하나에 한 마리에서 많게는 세 마리까지 붙었다고 한다. 어구가 발달하여 형광물질의 인공 미끼가 나온 뒤로는 원줄에 5~10개를 매달아 물속에 드리워서 한치를 잡는다.

한치를 전문적으로 잡는 어민들은 대개 3~5t의 소형 어선을 이용한다. 선원은 1~4명이 탑승한다. 단독으로 작업할 때는 3~4개의 줄을 드리워 놓고 수시로 번갈아 가며 한치가 붙었는지 확인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면 올린다. 여럿이 작업할 때는 각자 한두 개의 줄을 담당하여 한치를 잡는다. 조류의 영향으로 줄이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제주 어촌의 여자들은 대바구니에 한치를 담고 등짐을 저서 상인에게 팔러 다녔다. 일손이 모자라면 이

웃의 손을 빌렸다. 요즘은 한치를 잡으면 활어 상태로 상인에게 판다. 한치 어획량이 많을 때는 어로 작업을 중단하고 포구로 나와서 상인에게 한치를 팔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 한치잡이를 이어간다.

특징 및 의의 한치의 명칭은 근래에 명확해졌다. 이전까지는 대개 ‘오징어’ 또는 ‘한치오징어’라고 하여 오징어와 구분하지 않았다.

한치는 식감이 부드럽고 어획량이 많지 않아서 비싼 가격에 팔린다. 제주에서는 여름철 별미로 한치물회나 한치회를 즐겨 먹는다. 요즘에는 기제사나 명절에 한치를 손질하고 양념한 뒤 꼬치에 꿰어 상에 올리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포구에서는 한치 말리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일본이 조사한 제주도(김은희 편역, 제주발전연구원, 2010),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韓國水産誌3(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10), 현지조사자료(김병준, 제주 제주시, 2021.6.2.), 국립민속박물관(nfm.go.kr), 국립수산물과학원(nifs.go.kr).

필자 강수경(姜受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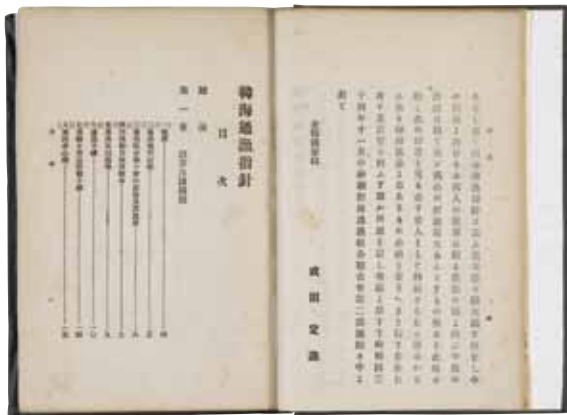
한해통어지침

韓海通漁指針

정의 1903년에 흑룡회 소속 구조 슈스케(葛生修亮)가 조선의 연안의 지리 및 어업 사정을 조사하여 편찬한 문헌.

내용 이 책은 제1장 연혁 및 각종 규칙, 제2장 통어조합연합회, 제3장 연해 지리, 제4장 해리 및 기상, 제5장 중요 수산물, 제6장 통어의 상황, 제7장 중요 어업의 상황, 제8장 포경업의 상세, 제9장 어획물 처분 및 판매, 제10장 외국인의 포경업, 제11장 한인 수산업의 현황, 제12장 희망 사항 그리고 부록으로 수호조규·수호조규부록·통상장정·일본인민무역규칙 및 해관세목·해관규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한해통어지침』은 일본 어업자들이 조선의 바다로 건너가서 가능한 한 많은 물고기를 어획하고



한해통어지침 | 국립중앙도서관

이를 가공품으로 제조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하에 집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일본이 조선의 바다를 조사한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리, 기상, 중요 수산물, 어획물의 처분과 판매 등 어로를 비롯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비록 이 문헌의 내용은 개인의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당시 일본이 수산 분야에서 축적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망라한 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해통어지침』의 내용을 통해 당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였다면 한해(韓海, 즉 조선의 바다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책에 독도를 수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901년 흑룡회의 『회보』 1집에 발표한 ‘일본해 중의 미발견의 섬’에서 다룬 ‘양코도(독도)’를 이 책에서는 울릉도에 속한 도서로 기록

하였다는 점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러일전쟁 이전의 일본 우익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윤소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4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명치시대 일본의 조선 바다 조사(이근우, 수산경영론집43-3, 한국수산경영학회, 2012), 韓海通漁指針(葛生修亮, 黑龍會, 1903).

필자 이근우(李根雨)

합정어업

陷穽漁業

정의 합정어구(陷穽漁具)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일련의 어로 활동.

개관 합정어구는 합정trap으로 고기를 유인하여 포획하는 어구를 아우른다. 합정어업의 기원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 범주는 어구의 형태와 종류, 어로 시기, 어로 장소, 어로 방법 등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나무, 돌, 풀 따위의 자연물을 합정어구로 이용한 어로기술이다. 하천에 쏜나무를 설치하거나 돌 무더기를 쌓아 포획대상을 유인하는 어법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어법에는 갯자리, 집둥구리, 섬, 담치기, 뱀장어 다래끼 등이 있다.

둘째는 어구로 물고기를 가두거나 유인하여 포획하는 어법이다. 합정 속으로 유도된 물고기는 들어가기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지난날 하천의 어로에 널리 사용되었던 통발과 오늘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통발어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통 어로 중에 먹잇감으로 대상물을 유인하는 어법도 있는데, 게줄은 참게잡이에 특화된 어로기술이다.

셋째는 여울목이나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지점에 촘촘히 엮은 발(울타리) 또는 돌담을 쳐서 물길을 막고, 그 끝에 합정을 설치하여 뗏에 걸려들게 하는 어법이다. 정치망의 원조인 전통 어살(漁簍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사한 합정어업으로 죽방렴(竹防簾, 독살[石箭, 石防

鯛, 개막이(建干綱), 덩장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공중함정어구(空中陷穽漁具)를 이용한 어로도 있다. 이는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의 습성을 역이용하여, 한 단 높은 위치에 고기가 걸리도록 어구를 설치하여 잡는 어법이다. 단정(陷穽), 뗏목, 도롱이, 베란다(verandah nets) 및 채그물 등의 도구를 사용한다. 여름철에 몸에 걸치는 도롱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것이 좋은 예이다. 즉 장마철에 물이 급속히 낙하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고기들이 뛰어오른다. 이때 공중으로 솟구친 고기를 도롱이로 받는다.

내용 덧의 원리를 이용한 함정어업은 하천과 바다에서 두루 포착된다.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어로기술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자연물을 함정으로 이용하는 어법은 가장 원시적인 어로기술이다. 쏘나무를 이용한 짓자리·집동구리·섬 등은 주로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함정어업이다. 짓자리는 물고기의 은신처가 될 가시덤불이나 쏘나무를 수북하게 쌓아 유인하는 어법이다. 가을걷이를 마치면 얼음이 얼기 전에 짓을 놓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물 등으로 둘러싸고 꺼낸다. 혹은 짓자리 입구에 통발을 끼워 고기를 잡기도 한다. 집동구리와 섬 역시 동일한 원리이다. 집동구리는 잎이 달린 버드나무나 참나무 따위를 쌓아 만든 둥지로 고기를 잡는 것이다. 일주일 남짓 지나 고기가 들면 그물을 두르고 나뭇단을 그물 밖으로 옮겨 고기를 꺼낸다. 섬은 원시적인 그물이다. 형태는 벼섬 속에 들깨대나 참깨대

혹은 수숫대·서속대·짚단 등을 성기게 집어넣고, 미끼로 갯목·등겨·보릿가루·밀기울을 반죽한 덩어리를 형겔에 싸서 섬에 매단다. 섬의 하단부에는 고기가 출입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구멍을 내어 물이 깊은 잔잔한 웅덩이에 놓아두면 낚새를 맡은 고기들이 섬 속으로 몰려든다.

자연물을 함정으로 이용한 어로는 특정 어종을 대상으로 한 어법도 있다. 담치기는 하천에 돌을 쌓아 뱀장어를 잡는 독특한 어법이다. 강물이 얇게 흐르는 여울목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 속에는 뱀장어가 좋아하는 쇠똥을 묻혀 유인한다. 이렇게 담을 설치한 후 3~4일이 지나면 돌을 허물어 고기를 잡는데, 가마니에 버들가지를 꺾어 넣고 양쪽에서 가마니를 벌려 돌무더기에 숨어든 뱀장어를 유인한다. 금강 상류에서는 대청댐 완공으로 뱀장어가 사라진 뒤 재계미(동자개, 빠가사리), 꺾적우(꺾지), 뿔종어(뿔고기), 치리 등을 잡았다. 담치기와 대동소이한 뱀장어 다래끼는 여울에 돌무더기를 쌓고 입구에 바구니의 일종인 다래끼를 설치하여 낚는 어로이다. 다래끼 속에는 된장을 풀고 버들가지를 꺾어 입구를 적당히 가리면 뱀장어가 들어간다.

함정어구를 이용한 어로는 통발은 대표적 함정어구이다. 섬진강 유역에서는 속칭 ‘쭈기’ 또는 ‘쭈게’로 불린다. 통발은 싸리나무나 혹은 대나무를 나팔 모양으로 엮은 것이다. 위쪽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고, 아래쪽은 고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내어 수산동물을 유인한다. 통발 안으로 들어간 고기는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한다. 주로 피라미나 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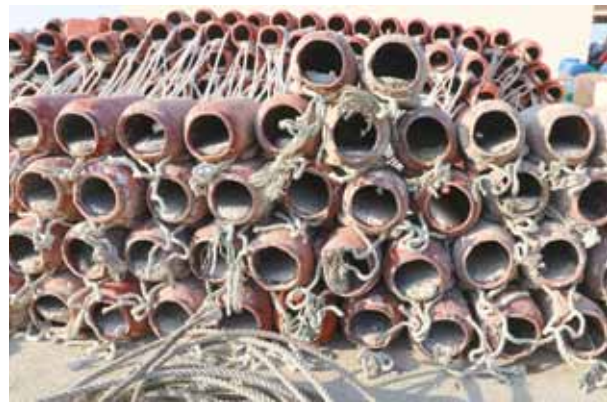
독살 | 충남 태안 | 2018 | 강성복



스프링통발 | 충남 보령 | 2021 | 강성복

와 같이 작은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었다. 곡식으로 대상물을 유인하는 계절은 가을에 산란하러 하구로 내려가는 참게를 포획하는 어법이다. 참게가 좋아하는 수수목을 매달아 먹이를 찾아 몰려든 참게를 유인한다. 이를 위해 노끈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수수목을 등성등성 매단다. 그리고 여울목 양쪽에 말뚝을 박고 수수목을 매단 노끈을 수평으로 연결하여 수면에 닿도록 늘어뜨린다. 야음을 틈타 하구로 내려가던 참게 떼가 수수목 주변으로 까맣게 몰려들 즈음 햇불을 들고 가서 줍는다. 포획한 참게는 매운탕 또는 간장게장을 담가 별식으로 먹는다.

정치망定置網, set net은 함정어업의 가장 진화된 어로 기술이다. 시원始原이 되는 어살은 물을 막는 재료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대나무나 싸리나무를 V자 형태로 발을 엮어 그 끝에 임통을 설치하여 가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돌담을 쳐서 물이 낙하하는 지점에 대발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독살이 그것이다. 어살을 설치한 인근에 고기가 들어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망보는 움집형 ‘살막’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어살의 원리에 기반한 함정어업은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널리 전승되는 죽방렴, 개막이, 덩장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어법의 기본구조는 함정으로 어군을 유도하는 길그물과 길그물을 타고 온 고기를 가두는 통그물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그물에 유도된 어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경사지게 설치하는 비탈그물(埤網)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길그물을 속칭 ‘화리그물’, 통그물은



문어단지 | 제주 | 2020 | 강성복

‘내상’, 비탈그물은 ‘임통 또는 불뚝’이라 한다.

함정어업은 그물과 결합되어 정교한 어로기술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해양의 어로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대량 어획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서해안 주목망柱木網이 그 시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주목망은 물발이 센 곳에 말장(기둥)을 박고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어로기술이다. 서해안 어촌에서는 ‘주벽’ 또는 ‘말장주벽’이라 부른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뜸물주벽’과 ‘쓴물주벽’이 있다. 전자는 밀물 때 고기를 잡는 방식이고, 후자는 썰물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한 주벽이다.

서해안 주목망은 근래 대부분 소멸되었지만, 원리는 낭장망囊長網·각망角網·안강망鰐網 등에 수용되어 해양어로의 근간을 이룬다. 이처럼 어군이 이동하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정치망은 어구 및 어로방법에 따라 대망류臺網類, 낙망류落網類, 걸망류櫟網類, 장망류張網類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정치망과 더불어 해양의 어로에 널리 이용되는 통발어업 역시 함정어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끼를 넣은 수십 개의 통발을 줄로 연결한 다음 어장에 투하하여 고기를 잡는 낙지통발, 꽃게통발, 아나고통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뿐만 아니라 통발어업은 작은 단지나 소라껍데기를 매달아 해저에 투척하여 연체동물을 포획하는 문어단지·주꾸미통발로 계승되어 어업생산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함정어업은 인류가 도구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기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래된 어법이자 어로기술



원산도 덩장 | 충남 보령 | 2021 | 강성복

이다. 그것은 선사시대 식량자원의 획득 과정에서 기원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어살류가 중심이 된 전통시대의 함정어업은 어장의 풍어를 기원하는 주벽고사, 덩장고사, 살고사, 독살고사, 함정고사, 도깨비고사 등과 같은 어로 신앙과 의례를 낳았다. 함정어업은 어로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하천에서 해양의 정치망으로 확장되어 대량 어획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잔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남획으로 인해 어족자원의 고갈을 부채질하는 어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선 수 감축’ ‘그물코 늘리기’ ‘그물틀 수 제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금강 유역의 어로문화(강성복, 금강 수로와 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9), 섬진강 유역의 어살 연구(강성복·박종익, 한국민속학64, 한국민속학회, 2016), 섬진강 유역의 전래어법과 어로기술-어로유산(강성복, 무형유산4,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1·2(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1~3(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1·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해양과학용어사전(한국해양학회, 아카데미서적, 2005), 황금담치 외연열도 사람들(강성복, 민속원,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강성복(姜成福)

해녀 海女

정의 마을 어장에 잠수하여 해삼·전복·미역 따위의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한 여성.

개관 ‘해녀’라는 호칭은 한국사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이며, 지역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이다. 해녀들의 물질과 자맥질은 주로 산소공급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몸으로만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물속에서 해녀는 혼자서 힘으로만 헤엄쳐 가야만 하고, 몸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불규칙한 물결과 큰 파도의 흐름에 몸동작을 맞춰야 한다. 즉 부력浮力과 가시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만 한다. 그리고 폐 속 산소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물속 위치에서 수면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해녀의 물질 작업은 연중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루어지며, 그 외에 대부분은 산란기로 금채기이다. 해경解警(허치, 허채, 즈문)을 하면 금하였던 해산물 채취가 비로소 허가되며, 해녀회나 어촌계에 속한 해녀만이 물질이 가능하다. 해녀들은 공동으로 그 어장을 관리·감독하며 입어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허가 구역이 아닌 경우 채취를 금지하는데, 입어와 작업 가능 시기는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해녀들은 30일 중 15일은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보통 물질은 15일 간격으로 7~8일 입어를 한다. 한 달에 두 번꼴이다. 15일 간격으로 바닷물의 간조를 헤아려서 작업하는데, 해녀들은 이를 ‘물때’ 또는 ‘물찌’라고 한다. 물때는 한 달을 기준으로 15일 동안이며, ‘조금’부터 ‘여섯물’까지를 말한다. 즉 전반기에는 음력 7~14일, 후반기에는 음력 23~29일에 작업하는데, 이때는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적어 작업 효율성이 높다.

물질 작업은 해녀들이 공동으로 행하며 보통 5m 조 간대潮間帶를 넘어 10m 이내 바다에서 작업하며, 1~2분 정도 물속에서 무호흡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바닷속을 가늠하고 자맥질하여 물속으로 들어가 ‘바다밭’과 해산물이 있는 정도와 위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해산물을 캐오는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다 나온 후 이산화탄소를 뱉고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호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이를 “숨을 비운다.”라고 하여 ‘숨비소리’라고 한다.

해녀들은 물질 작업에서 생긴 초인적인 기술과 지식,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풍어를 기원하면서 신에게 의지하는 생활에서 생겨난 무속신앙, 배를 저어 어장으로 가는 노동과 함께 만들어진 노래, 독특한 직업어,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조직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하였다.

내용 해녀 같은 여성 나잠어업인들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구로시오 문화권을 구성하는 동남아시아계의 중



추자도 어부와 해녀 | 1915 | 국립중앙박물관



해녀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죽'으로 제주해녀가 그 중심에 있다.

해녀에 대한 역사적 기원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9 고구려본기 503년(문자왕 13) 기록 중 진상품목인 가즉섭라소산珂則涉羅所産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가珂'는 제주의 진주나 혹은 패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주는 단시간에 물에 잠수하여 캔 전복과 같은 해산물 속에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탐라耽羅의 진주'에 대한 기사가 등장한다. 1079년(문종 33) 탐라국의 구당사句當使 윤응균尹應均이 큰 진주 두 개를 고려에 보냈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야명주夜明珠'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1276년(충렬왕 2)에는 원나라에서 임유간林惟幹을 탐라에 보내 구슬을 채취하게 하였다는 것과 이를 얻지 못하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진주 구슬 100개를 탈취하여 돌아갔다는 사실을 전한다.

조선시대의 '잠녀'에 대한 기록은 이견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29)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헌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여자'라는 의미의 '잠녀潛女'

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주로 "물속에 들어가서 발가벗은 몸으로 미역을 캐며, 남녀가 뒤섞여 일하는데 부끄럼 없이 한다赤身露體 男女相雜."라고 소개하고 있다.

1679년 정의현감 김성구金聖九가 기록한 『남천록南遷錄』에는 "전복 따는 남성 포작인鮑作人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죽히 진상역에 응할 수 있었으나, 1620년 이후로는 거의 사라지고 해녀들이 이 일을 담당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제주해녀들이 전복 등의 공물 진상 부역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형상李衡祥의 장계狀啓『병와전집瓶窩全集』(1702)에는 물일 고역苦役에 대해 "지아비는 포작鮑作에 선원船員 노릇을 겸하는 등 힘든 일이 허다하며, 지어미는 해녀 생활을 하여 1년 내내 진상할 미역[蔴]과 전복[鮑]을 마련해 바쳐야 해서 그 고역이란 목자牧子보다 10배나 된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공朝貢으로 바치는 다양한 형태의 전복, 이를테면 추복搥鰓(두드려 가면서 말린 전복)이나 조복條鰓(길고 가늘게 썬 전복) 또는 인복引鰓(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복) 등의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복을 잡는 포작인鮑作人들은 장가도 못 가고 홀아비로 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포작인이나 해녀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정조대왕과 기건 목사는 해녀들이 탄 전복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식탁에 올리지 말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형상李衡祥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 〈병담범주屏潭泛舟〉에는 취병담翠屏潭(현 용연龍淵)에서 목사들이 행한 뱃놀이의 정경과 함께 용두암 쪽의 해녀들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는 '용두龍頭'와 '잠녀潛女'라고 표기된 글씨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 바다 위로는 둥근 테왁과 망사리를 지니고 '물소중이'를 입은 채 작업하는 예닐곱 명의 해녀들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주해녀들은 1900년대 이후 제주도 밖 외지에서 물질 작업을 위해 출향 물질을 떠났다. 이들을 '고향을 떠나서 작업하는 해녀'라는 의미로 '출향 해녀'라 부르기도 하고, '돈벌이 물질을 간다'는 의미로 '출가 물질'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일본 어민들의 제주어장 침탈로 해산물 채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

이다. 생활이 어렵게 되자 많은 해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물질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이 동북아시아 일대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일본으로 가는 제주해녀 수가 많았는데, 이는 조선에 진출한 일본 수산업자들이 제주해녀가 일본 아마들에 비해 능력 면에서 우월해서 노동 경제력이 월등히 높아 제주에서 해녀들을 인솔해 간 까닭이다. 제주해녀들은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 환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해녀들 스스로가 자신의 물질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일본으로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항 물질의 반경은 한반도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일본 각처, 중국의 다롄(大連)과 칭다오(靑島),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대상 지역이 넓어졌다. 제주해녀들은 자신이 물질에서 번 돈으로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근대기 제주 사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제주해녀는 생업적인 것만이 아닌 문화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였다. 물질 작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공동체가 지닌 문화들이 제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면서도 세계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녀의 전통 물옷과 물질 도구 역시 해녀문화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대표적인 재래 해녀복인 ‘물옷’은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 입었다. 물옷은 ‘물소중이’와 상의인 ‘물적삼’, 머리에 쓰는 ‘물수건’ 등을 통틀어 말한다. 물소중이는 해녀복 중에서 기본이 되는 옷이다. 물소중이는 오른쪽 트임으로 되어 있어 자신의 알몸을 노출하지 않고 옷을 쉽게 갈아입을 수가 있었다. 물적삼은 물소중이 위에 입는 것으로 적삼이나 블라우스 모양과 비슷하다. 물적삼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화된 것은 1960년대이다. 해녀들이 머리에 쓰는 물수건은 물질할 때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을 막고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또한 물수건은 바닷물 속에서 머리를 유해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상어나 돌고래는 흰색을 싫어해서 흰 물수건을 쓰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고무로 된 잠수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추위와 수압을 막아주는 잠수복을 입으면서 작업시간이 늘어났다.

해녀들이 사용하던 물질 도구로는 테왁, 망사리, 물안경, 빗창, 호맹이 등을 들 수 있다. 수중안경을 쓰지 않은 채 물질을 하다가 20세기 초부터 일본에서 들어온 ‘족새눈’(쌍눈)을 쓰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테두리가 고무인 ‘큰눈’을 사용한다.

‘테왁’은 해녀의 분신(分身)이며 표상(表象)이다. ‘두렁박’이라고도 하는 테왁은 부력을 이용하여 해녀들이 가슴을 그 위에 얹고 해엄칠 때 사용한다. 테왁 밑에는 어획물을 넣어 두는 ‘망사리’가 매달린다. 망사리 안에는 자연적인 닻돌을 넣어 다닌다. 물질을 하는 동안 닻줄에 매달아 늘어뜨려 테왁과 망사리가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망사리 속에 ‘본조갱이’(작은 전복 껍데기)’를 넣어두었다가 표지(標識)로 사용하였다.

전복을 켤 때 쓰는 ‘빗창’은 길이 30cm 내외의 길쭉한 쇠붙이로, 바위에 붙어 있는 전복을 떼어내는 데 쓰인다. 호맹이는 ‘골각지’ 혹은 ‘골갱이’라고도 하는데, 암반 사이에 있는 소라 등의 해산물을 켤 때 사용한다.

섬이나 먼 어장으로 나갈 때 혹은 육지부로 출항 물질을 갈 때 배의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 노래는 원시어업노동요이다. 가사에는 섬사람들이 삶을 꾸려가는 방식과 노동 현장, 여성들의 삶과 정서가 잘 표출된다. 노동에 맞춘 선율과 박자, 가사의 내용은 고난 극복의 인간적 삶을 주제로 한다.

또한 제주해녀들은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기원한다. 무속의례에 행해지는 모든 비용과 재물은 해녀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의례가 행해지는 장소인 해신당에서는 잠수굿과 용왕굿이 치러진다. 모시는 신의 대부분이 바다의 용왕과 관련되는 신들로, ‘용해국대부인’ ‘용녀부인’ ‘남당할망’ 같은 여신과 함께



해녀 | 국립민속박물관



해녀 |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

배의 신으로 알려진 선왕신이 해신당에 좌정해 있다. 이러한 의례를 ‘요왕굿’ 또는 ‘잠수굿’이라고 한다. 특히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잠수굿이 유명하다. 이 굿은 음력 3월 8일에 치러지며 제물 준비나 모든 의식을 치르기 위해 드는 비용은 해녀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하는데, 공동체 의례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해녀들은 오랜 시간 물질하기 때문에 작업장 가까이 있는 ‘불턱’에 모여서 언 몸을 녹이기 위해 화톳불을 피웠다. 마을에 따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하였는데, 그럴 때는 배 안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였다. 해녀들은 연령과 물질 기량, 덕성에 따라 상·중·하군으로 나뉘며, ‘불턱’에서도 해녀의 지위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었다. 해녀들의 조직인 ‘해녀회’는 신입 해녀들을 교육하는 한편 어장 이용에 대한 규칙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런 활동은 주로 ‘불턱’에서 이루어졌으며, 물질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바다에 대한 예비지식과 사전 정보를 얻으며 해녀들 간의 상호 협조를 재확인하였다.

마을 자체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향약은 바로 해산물 채취, 입어 자격, 어장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규약으로 그 나름의 법적 효과를 지니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해녀의 생업, 공동체, 해녀노래, 무속신앙 등은 제주해녀들의 문화로서, 제주의 전통 여성문화를 대표한다. 이 중 해녀 공동체는 자연에 적응하고 공유지의 생태환경을 지키면서 ‘물질’이라는 생업을 영위해 왔는데, 평화와 생명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호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불턱’은 물질과 관련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공간이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인간적인 도리와 질서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선후배 간의 도제식 교육에서 나온 호혜와 나눔, 배려로 대표되는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는 현대에 와서도 모범적이다. 물속에서 하는 작업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해녀들끼리 서로 살펴주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해녀회 조직을 통해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할망바당’ ‘이장바당’ ‘학교바당’ 등은 배려와 나눔 그리고 공존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제주해녀 문화의 대표적 공간이다.

참고문헌 耽羅巡歷圖, 제주의 해녀(김영돈, 제주도, 199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좌혜경 외, 민속원, 2006), 제주해녀어업시스템 FAO 등재신청서(제주학연구센터, 2020), 환경에 대한 적응-일본 해녀의 경우(Plath, D. W., 유철인 역, 탐라문화1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日本蠻人傳統の研究(田辺悟, 法政大學出版局, 1990),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좌혜경(左惠景)

해녀고무잠수복

정의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할 때 입는 옷으로, 1970년대 이후 착용하기 시작한 고무옷.

개관 해녀고무잠수복은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할 때 입는 옷 중에서 고무로 만든 옷으로, 잠수부가 착용하는 슈트와 유사하다. 고무옷은 지역에 따라 ‘고무옷’을 비롯하여 ‘스뽀찌옷’이나 ‘스핀치옷’ 그리고 일본의 웨지슈츠ウェットスーツ 발음을 줄인 ‘슈트’ 등 다양하게 불렀는데, 요즘은 대개 ‘고무옷’으로 통한다.

일본의 고무옷은 상의가 슈트^{suit} 형식이어서 슈츠라고 부르는 것 같으나, 우리나라는 상의가 원피스 형식으로 일본과 다르다. 우리나라 고무옷은 상의(원피스)·하의(바지)·신발·모자·장갑 등이 있고, 여기에 오리발을 더하면 일습을 갖추게 된다.

보온성과 편리성을 지닌 고무옷이 1960년대 들어 오면서 작업량이 증가하게 되자 1971년 이후 해녀복은 고무옷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1971년 4월 28일자 『제주신문』은 “6월 말까지 해녀들의 장비를 스폰지 잠수복으로 대체한다.”라고 보도하였다. 고무옷을 착용하면서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기존 9m에서 15m로 깊어졌다. 작업능력도 한 사람이 10명분을 해낼 정도로 올라갔다. 이에 당장은 해산물 채취량이 증가하였으나 결국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해녀들은 고무옷 착용 후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물속에 오래 있게 되자 직업병이 생겼다. 신경통과 두통, 연철로 인한 요통 등 작업량과 수입에 비례하여

통증은 점점 더 커졌다. 이에 지역에 따라서는 어족자원의 보호와 해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을 규제하기도 하였다.

제주 고무옷의 원단은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안감은 네오프렌^{neoprene}이라는 합성고무이고 겉감은 고무 재질을 덧입힌 것으로, 겉과 안이 다른 특수원단을 주문하여 옷을 만들어 입는다.

제주시에서는 초창기에 고무옷을 고령자 해녀에게 우선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는 모든 해녀에게 1년에 1벌씩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1년부터는 해녀들이 조업 중 사고를 당하였을 때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형광 주황색으로 만든 고무옷을 지원하고 있다. 모자와 상의는 형광 주황색이 코팅된 원단으로 제작하고, 하의는 다리 옆쪽으로 유색 선襠 장식을 넣어서 눈에 잘 띄게 만들었다.

고무옷 장인들은 해녀들의 몸 치수를 20곳 정도 재서 만드는데, 해녀의 체형과 옷 입는 습관에 따라서 품을 넓게 하거나 몸에 꼭 맞게 하는 등 단골의 취향에 맞게 일일이 구별하여 제작한다. 제주의 고무옷 제작자들은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고성부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완도 지역까지 전국 각지의 해녀와 수십 년간 함께하고 있다.

내용 고무옷이 들어온 것은 1965년 한일회담 이후 일본과 통교하면서 재일동포가 제주의 친지에게 한두 벌 보내준 것이 시초이다. 고광민의 연구(2019)에 따르면 “해녀복 관계회의록에 의하면 고무옷이 보급되어 입기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고무 모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까부리를 쓰고 그 위에



세화 해녀잠수복 | 국립민속박물관



해녀잠수복 주문 장부 | 국립민속박물관



잠수복과 잠수모 | 국립민속박물관



일본 토바 해녀 웨지 슈트 | 국립민속박물관

물안경을 썼으며, 오리발은 고무옷이 나오고 나서 3~4년 뒤에 등장하였다. 물안경은 쪽으로 닦으면 습기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제주 정부미자(삼원상사)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에 고무옷을 처음 입기 시작하였을 당시 고무옷을 입으면 ‘검은 아기 난다’ ‘자궁이 좁아진다’ ‘암에 걸리거나 불임이 될 수 있다’ 등의 소문이 돌아서 고무옷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 잘 입지 않다가 이후에 고무옷을 입고도 임신이 잘 되자 고무옷을 널리 입게 되었다고 한다. 고무옷은 보온효과가 뛰어나고 물속에서 오래 물질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1975년 이후에는 육지 지역까지 고무옷이 보급되었다.

처음 고무옷이 보급되었을 때는 고무옷을 입은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 어촌계 내에서 분란이 생겼고, 이에 계원 모두가 고무옷을 입지 않기로 한 일도 있었다. 조업 시간의 증가로 해산물 어획량이 종전보다 5배 이상 늘었지만, 이와 함께 어족자원의 고갈이 초래되자 잠수회(해녀회 또는 부인회)에서는 회의를 하여 고무옷을 입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모든 마을이 동일하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만 공동 물질을 할 때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975년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잠수실태조사」를 보면 당시 고무옷은 한 벌에 3만 원 정도였고, 전체 해녀의 44.2%가 착용하였다. 출가 해녀의 착용률이 높은 반면 제주 해녀들의 착용률은 30%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해녀들 공동의 합의로 재래식 해녀 옷인 물옷을 착용하는 어촌계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초창기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아 딱딱해서 작업하기 힘들었으며 가격도 비쌌다. 해녀들이 수협에서 고무옷 구입 보조비를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을 정도이다. 한번 맞춘 고무옷은 입다 보면 고무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신체가 변하기도 해 여러 번 수선해서 입는다.

고무 두께는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 여름용은 0.3cm, 봄가을은 0.4cm, 겨울은 0.5~0.6cm로 겨울용이 가장 두껍다. 잠수부들은 0.8~0.9cm 정도로 해녀보다 더 두꺼운 재료를 사용한다.

고무옷의 재료는 일본에 주문하여 수입하는데, 1년

에 3번 정도 구입한다. 지원받는 것은 무조건 주황색 고무옷으로 만들어야 한다. 검은색 고무옷은 본인 비용으로 만든 것이다. 전체를 주황색으로 하면 미끄럽기에 해녀들이 싫어해서 등판과 전면 가슴 부분의 보이는 곳만 주황색으로 한다. 야광 주황색이라서 밤에도 잘 보인다.

고무옷을 제작할 때는 키, 가슴둘레, 배 둘레, 팔 길이 등 14~20곳의 치수를 재서 몸에 꼭 맞도록 한다. 하루에 7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며, 모자는 5단계로 만든다. 오리발과 신발은 제작하지 않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고무옷이 나오고 3~4년 뒤에 오리발이 등장하였다.

고무옷은 해녀의 몸에 꼭 맞는 맞춤옷으로 제작되므로 혼자 착용하기가 어렵다. 밀가루나 기름을 발라서 입기 쉽게 하거나 서로 도와주면서 착용한다. 바지를 먼저 입고 바지 허리를 가슴 위까지 끌어 올린 뒤 상의로 허리를 덮어서 입은 후 뒷중심 하단에 달린 여밈장치를 뒤에서 앞으로 가져와 배 부분에 고정한다. 이어 모자와 물안경을 쓰고 신발을 신고 장갑을 낀다.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허리에 연철을 찬다.

이처럼 개량 해녀 옷인 고무옷이 등장하면서 별 변화가 없던 해녀 사회의 작업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고, 그 영향으로 현대식 탈의장도 갖춰졌다. 1985년부터 현대식 탈의장이 생기기 시작하여 현재는 102개소의 탈의장이 온수 목욕 시설을 겸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 탈의와 보관은 물론 작업 도구 보관, 수산물 처리작업 등 종합적인 휴게실 기능을 갖췄다.

특징 및 의의 제주해녀들의 작업복이었던 소중이는 1971년 이후 고무옷으로 바뀌었다. 고무옷은 상의(원피스)·하의(바지)·신발·모자·장갑 등이 있고, 여기에 오리발을 더하면 일습을 갖추게 된다. 안감은 네오프렌이라는 합성고무이고, 걸감은 고무 재질을 덧입힌 특수원단으로 해녀들의 작업에 편리하게 고안되었다.

고무옷을 착용하면서 해산물 채취량은 증가하였으나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였다. 또한 해녀들은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물속에 오래 있게 되자 신경통, 두통, 요통 등 직업병이 생겼다.

고무옷은 물속에서 3~4시간 이상 작업하는 해녀들

의 몸을 보호해 주는 최고의 안전도구이다. 이러한 고무옷을 만드는 장인들은 해녀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물질 작업을 하는 평생을 그들과 함께한다. 체형이 바뀌거나 찢어져서 입지 못하게 된 고무옷을 수선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해주며, 나이 든 단골 해녀들의 고무옷을 직접 집까지 배달하고 건강을 걱정해 주는 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계 장비 없이 자맥질만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해녀들에게 고무옷은 신체 일부와도 같이 중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제주의 해녀(제주특별자치도, 1997), 제주해녀옷 이야기(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박물관, 2012), 탐라순력도 속의 해녀연구(고광민, 무형유산6, 국립무형유산원, 2019), 현지조사자료(이성모, 제주 서귀포, 2017.12.6.; 정부미자, 제주 제주시, 2015.8.24.), 제주어협 해녀, 스포지 작업복으로 바꾸기로(제주신문, 1971.4.28.).

필자 최은수(崔銀水)

해녀회 海女會

정의 해안마을 단위로 구성된 어촌계 내의 해녀 공동체.

개관 제주해녀는 자신의 마을어장에 입어할 수 있다는 관행이 있고, 1975년부터 <수산업법>상에 성문화됨으로써 어촌계 내에 잠수회 회원으로 편입되었다. 마을 어촌계장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마을어장을 임차하고 해녀들과 계약하여 입어권을 얻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 산하 해녀들의 자발 조직인 해녀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어촌계에는 어부들의 조직인 어부회와 해녀들의 조직인 해녀회가 있다. 어촌계장은 어부회와 해녀회를 아우르는데, 특히 해녀들의 입어入漁 행사권과 채취물 위탁판매 대행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장 관리의 권리도 가진다. 해녀회장은 생산 공동체인 해녀회의 대표로 해녀들이나 물질 작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해녀회 회의에서는 안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해녀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경쟁자이지만 물속에서 닥칠 위험을 상호 예방하

는 보호막 구실을 하므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상군인 해녀 회장의 의견에 잘 따르는 편이기 때문이다.

내용 해녀회는 바다 어장에서 경제권을 영위하는 어부와 해녀들의 공동체인 어촌계에 속하면서도 해녀 어업이 왕성한 제주도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나름의 독자권을 갖는다.

해녀회는 마을 어장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규칙을 정한다. 여기에는 어장 입어권, 해산물 채취 규정, 금지 또는 해금(허채), 벌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해녀회는 관행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운영된다.

해녀회 회원 자격 취득은 입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다른 마을에서 시집온 해녀는 자동으로 회원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외지 사람이 마을에 거주하게 되어 물질을 하고자 하면 해녀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타지방에 나가 살다가 귀향한 사람도 외지인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자격 부활을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혼 등의 사유로 원적에 복귀하여 본가로 되돌아왔을 때는 해녀회의 동의만으로 회원 자격이 복귀된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어 총회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회원의 의무는 바다풀 캐는 작업 참여, 툇이나 우뚝가사리 어장 등의 바다 어장 관리, 해녀회가 결의한 공공사업, 상조 등이다. 이 밖에 다른 마을로 출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해녀공동체의 공동판매 사업도 해녀들의 소득원으로 해녀회에서 관리·운영한다. 음식 판매점인 ‘해녀의 집’을 운영한다거나 어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다. 특히 바다를 청소하는 일인 ‘개똥기’도 어촌계에 가입된 해녀의 의무이다.

특징 및 의의 해녀회의 회원이 되면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어권을 인정받고 생산과 판매도 담당하므로 경제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해녀회의 회의는 결과를 도출할 때 만장일치제를



하도어촌계 해녀회 | 2017 | 제주학연구센터

지향한다. 여기에는 상군 해녀와 선배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바다라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상부상조하던 제주해녀들의 사회 공동체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참고문헌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좌혜경 외, 민속원, 2006), 제주해녀어업 시스템 FAO 등재신청서(제주학연구센터, 2020).

필자 좌혜경(左惠景)

해류 海流

정의 바닷물이 바람, 밀도 차이, 경사 등의 원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개관 해류는 해수의 수온에 따라 한류와 난류로 나눈다. 한류는 고위도 해역에서 저위도 쪽으로 움직이는 찬 해류이며, 난류는 저위도 해역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이다. 이 같은 바닷물의 움직임은 지구의 자전, 육지, 해저 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방향이 결정된다. 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편향력도 해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북반구에선 항상 오른쪽으로 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코리올리 효과(Coriolis effect)라 부른다.

내용 해류는 주로 바람과 수온, 염분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 즉 바람의 영향으로 생기는 마찰력에 의한 바닷물의 움직임(취송류, 표층해류)과 수온·염분 등의 밀도 차이로 생기는 바닷물의 움직임(밀도류, 심층해류)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 경사류gradient current처럼 해수면 높이의 차이로 인한 움직임과 보류補流처럼 일정 해역에서 바닷물 이동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어나는 움직임 등도 있다.

지구상 바다 표층에는 매우 다양한 해류가 흐르고 있다. 무역풍의 영향으로 생기는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그 사이의 해수면 경사로 인해 생기는 적도 반류가 적도를 중심으로 아래·위로 흐르고 있다. 북적도 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적도 해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북적도 해류는 필리핀 동부해역에서 구로시오 해류와 연결되어 북쪽으로 향하면서 태평양 바닷물을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한다. 남적도 해류는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남쪽으로 휘어져 뉴질랜드 부근 해역으로 향한다.

지구상의 대표적 큰 해류로는 태평양의 구로시오 해류와 대서양의 멕시코 만류가 있다. 구로시오 해류는 일본 쪽으로 향하다가 제주도 남쪽에서 지류支流로 갈라져 대마 난류가 되며, 본류本流는 일본의 동쪽 바다를 따라 북상한다. 대서양의 북적도 해류가 북미대륙의 동쪽을 따라 북상하는 멕시코 만류로 이어지는데, 이 해류는 북대서양 해류로 이어지면서 저위도의 바닷물을 고위도로 이동시킨다. 또 인도양에서는 남적도 해류가 아프리카 동부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남인도양 해류와 서호주 해류로 이어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인도양을 회전한다. 남극지방에는 남극 해류, 북극지방에는 그린란드 해류와 노르웨이 해류 등이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류로는 제주도 남쪽에서 구로시오 해류와 갈라져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제주도과 남해안을 스치면서 한 가닥은 동해로 올라가며 동한 난류가 되고, 한 가닥은 서해 쪽으로 일부 들어가면서 황해 난류가 된다. 동한 난류는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동해 중부 연안에서 만나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소용돌이치면서 일본 서해안 쪽으로 흐른다.

향을 미친다.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닷물이 고위도 지방으로 움직여 오면서 따뜻한 열을 북쪽으로 운반해 오기 때문에 육지 기온을 따뜻하게 해 주는 효과를 보여 준다. 태평양의 구로시오 해류와 대서양의 멕시코 만류는 우리나라·일본·영국·노르웨이 등 고위도 지방의 나라들이 보다 따뜻한 기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

해류로 인하여 어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특성이 다른 두개의 해류가 만나는 경계를 조경潮境이라 하며, 이곳에서는 부분적인 소용돌이가 생겨서 상·하층의 바닷물이 발산·수렴함에 따라 먹이생물들이 많아져 좋은 어장을 만드는데, 이런 곳을 조경어장이라 한다. 또 바람이나 수중 압초와 조경 등으로 인해 용승이 일어남에 따라 하층수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밀려 올라와 플랑크톤을 번성시켜서 어장이 형성되는데, 이를 용승어장이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장인 페루 연안은 용승류湧昇流에 의하여 형성된 대표적인 어장이다. 그 외에 조경이 일어나는 해역에서 소용돌이가 생겨서 형성되는 어장을 와류어장이라 한다.

난류가 닿는 해역은 난류를 따라 이동하고, 회유하는 여러 생태형의 해양생물종들로 인해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해역을 만든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울릉도와 독도는 쓰시마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위도상의 동해 울진이나 죽변 연안보다 다양한 온대·아열대·열대 생물종들을 만날 수 있다.

참고문헌 고등학교 수산일반(과학기술부, 2011), 해양학 개론(조규대·이재철·허성희, 태화출판사, 1994), 對馬暖流(恒星社厚生閣刊, 1974).

필자 명정구(明正求)

해양보호구역

海洋保護區域

정의 환경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와 경관·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자치단체가 법·제도 등으로 관리하는 지역.

내용 지나친 해양개발과 자원 이용 등으로 해양생물

특징 및 의의 바다에서 해류의 움직임은 육상 기후에 큰 영

서식지와 산란지 등이 파괴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 의해 1998년 처음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이 제도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1만 8,584개 지역, 2,773만 7,771km²의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면적은 지구 전체 해역의 7.66%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연안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 같은 보호대상이 되는 해양생물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은 서식지·산란지와 같은 중요한 해양생태계가 있거나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거나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또한 해양경관보호구역은 산호초·해초처럼 아름다운 해저 경관의 해안절벽과 같이 멋진 해상 경관을 보유한 곳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연안 습지보호구역은 갯벌·하구처럼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2001년 무안갯벌이 최초 해양보호구역이 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개소, 연안 습지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등 모두 30개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역사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해안을 오염, 무분별한 개발, 파괴적인 어업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한편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통방식 어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지속가능한 방식의 어업을 도입하여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산물을 유통할 수도 있

다. 또한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생태관광이나 환경친화적인 레저·스포츠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최근 공해상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공유의 비극’을 막기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High Seas Marine Protected Areas, HSMPA) 지정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영해에 속하는 해양보호구역과는 달리, 공해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에 의거하여 항해의 자유와 이용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직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문헌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련 한계와 타당성에 관한 법적 고찰(노화섭, 해사법연구22-1, 해사법학회, 2010), 어업의 품격(서종석, 지성사, 2020),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제도 적용 방안(채동렬, 한국도서연구26-2, 한국도서학회, 2014), Guidelines for Marine Protected Areas(Graeme Kelleher, IUCN, 1999),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protectedplanet.net), 해양수산부(mof.go.kr), 해양환경공단(koem.or.kr),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

필자 서종석(徐鍾石)

해양조사연보

海洋調査年報

정의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우리나라 연근해를 대상으로 해양조사를 2개월마다 수행하고, 그 결과를 1년 단위로 발간하는 보고서.

개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1949년 상공부 중앙수산시험장을 시작으로 1963년 농림부 국립수산진흥원, 1996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2002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으로 발전한 국내 유일의 수산 관련 국립연구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 연구,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 기술 개발, 수산 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 수산물 위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수산생물 질병 연구,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 등이다. 해양조사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해양생태계 변동 파악, 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 수산물 안전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이다. 세부적으로 연안의 일정한 지점을 정해 놓고 매일 관측하는 연

안정지관측, 연근해 해상의 정해진 정점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정기적(연간 6회, 짝수월)으로 관측하는 정선해양관측, 인공위성으로 해양의 표면 수온과 클로로필을 관측하는 원격탐사로 나뉘어 수행된다. 해양조사연보는 1년 동안의 관측결과를 검증한 후 다음 해에 발행된다.

역사 주요 연안의 표층수온과 기상을 관측하는 연안정지관측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연안 12개 지점에서 처음 수행되었으며, 광복 이후 대부분의 관측조사가 중단되고 수산시험장·수산검사소 등 일부 관계기관에서만 수행되다가 1952년 7월에 연안 23개 지점에서 다시 관측이 시행되었다. 1960년대 이후 관측소가 점점 늘어나 약 40개 지점에서 관측이 되었고, 1990년대 말까지 기존 관측체계가 유지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해양관측장비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자동관측이 도입(2003)되면서 2021년 현재는 5개 지점에서만 기존 방식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이들도 자동관측 방식으로 모두 전환될 예정이다.

정선해양관측은 우리나라 연근해를 4개 권역(동해, 서해, 남해, 동중국해)으로 나누어 수행된다. 동해·서해·남해 해양조사는 1921년부터 시작되었고, 여러 번의 관측체계 변경을 거쳐 1961년부터 현재의 조사체계를 갖추어 매년 2·4·6·8·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동중국해 조사는 1995년에 시작되어 매년 2·5·8·11월에 수행한다.

원격탐사는 1990년부터 노아위성NOAA·모디스MODIS·시웍스SeaWiFS 등 외국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해양관측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위성인 천리안 1호(2010)와 천리안 2호(2019)도 활용하고 있다.

『해양조사연보』는 1928년부터 1942년까지 총 9개 호의 『해양조사요보 海洋調査要報』가 발간되었으며, 1945년 광복 이후부터 6·25전쟁 때까지 중단되었다가 1954년부터 다시 발간되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전신인 중앙수산시험장에서 1954년부터 1963년까지 총 8권의 『해양조사연보』를 발간하였다. 1954년에 1952년부터 1953년까지의 해양조사 자료를 정리한 『해양조사연보』 제1권과 제2권이 최초 발간되었으며, 1956년과 1958년에 각각 제3권과 제4권이 발간되었다. 1966



해양조사연보 | 국립수산물과학원

년부터는 전년도 of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해에 발간하는 형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내용 『해양조사연보』에는 연안정지관측과 정선해양관측의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연안정지관측에는 전국 연안 12개 정점에서 매일 10시에 관측된 수온과 기온의 순별 및 월평균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정선해양관측에는 연대별로 정선과 정점의 변화가 있지만 현재는 25개 정선 및 207개 정점에서의 기온과 투명도 그리고 수심별(0m, 10m, 20m, 30m, 50m, 75m, 100m, 125m, 125m, 150m, 200m, 250m, 300m, 500m)로 관측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동물플랑크톤 등이다. 해양조사 자료는 한국해양자료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되며, 자료의 속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해황 속보·주보·월보·정보지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나 현재 이 자료들은 한국해양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2020년 『해양조사연보』부터는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해황 변화를 수록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매년 발간되는 『해양조사연보』는 물리·화

학·생물학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의 변화를 연구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반세기 이상 연속적으로 관측된 자료는 『해양조사연보』가 유일하며, 지난 52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수온 상승 경향이 세계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26℃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도 이들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해양조사요보』 9호와 『해양조사연보』 15권은 등록문화재 제554호로 등록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조사체계의 지속성과 관측자료 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2011년에 북태평양해양과 학기구PICES로부터 해양모니터링서비스상PICES Ocean Monitoring Service Award, POMA을 받았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측자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선해양관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해양환경 연구 역사(이필용 외, 사단법인 수진회, 2017), 운송해양시스템을 위한 한국정선해양관측시스템 발전 방향(이준수 외, 해양환경안전학회지16-3,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한국 근해 해양조사의 역사(국립수산과학원, 2007).

필자 고우진(高又鎭)

해외선원묘지

海外船員墓地

정의 원양어업(遠洋漁業) 조업 시 해외 어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원들의 묘지로, 선원들의 묘지와 위령탑(慰靈塔)을 함께 조성한 위령 시설.

개관 원양어업이 본격화된 1960년대 중·후반부터 해외 어장에서 조난이나 사고 등으로 숨진 선원들의 묘

역을 주요 기지에 조성하여 순직 선원들의 넋을 달래고, 원양어업 종사자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묘지를 마련하였다. 해외선원묘지는 원양어업의 주요 어업 기지 가운데 미국령의 사모아와 스페인의 라스팔마스·테네리페 등을 비롯한 7개 국가 8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내용 원양어업은 연안과 근해를 넘어 원거리 또는 먼거리의 외해(外海)로 나아가 조업을 하는 규모화된 동력선 중심의 어업이자 우리나라 〈수산업법〉상 해외 수역을 조업 구역으로 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6월 지남호의 출항을 시작으로, 1958년 사모아제도를 기지로 한 남태평양 조업과 1964년 이후에는 대서양·인도양으로 진출하는 등 전 세계 어장으로 조업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원양어업기지 개척과 해외 어장 개발, 어업 인력의 양성, 해외자본 확보 등이 본격화되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원들이 1970년대 말까지 벌어들인 외화는 약 20억 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특히 1971년에는 원양어업 수출액이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 원양어선 최초의 사고는 1963년 12월 사모아 해역에서 발생한 제2지남호의 침몰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선한 인원 23명 중 21명이 사망하였고, 2명만 생존하였다. 이후에도 해외 어장에서는 어선 간의 충돌과 침몰 등 대형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로 사망한 일부 선원들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1966년 3월부터 사모아와 라스팔마스 등의 해외 기지에 묘역을 마련하여 희생자의 유해를 안치하였다. 1978년에는 미국령 사모아와 라스팔마스 기지 묘역에 선원 위령탑을 새로이 건립하였고, 이 위령탑에는 박목월(朴木月)(1915~1978) 시인의 헌사(獻詞)를 새겼다. 이러한 해외 기지의 묘역 시설은 한국원양어업협회 현지 사무소와 원양어선원 새마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추모일이나 원양어선이 해외 기지에 입항할 때 선원들이 기지에 있는 묘지에 참배하여 순직한 선원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업기지에 마련된 순

직 선원의 묘지는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테네리페와 미국령 사모아, 남아메리카 지역의 수리남, 남태평양의 피지와 타히티, 아프리카의 앙골라와 세네갈 등 8곳이다. 이곳에는 2020년 기준으로 290여 기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해외에 산재한 원양선원 묘지들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된 첫해에는 4곳의 해외기지 164기의 묘지를 보수하고, 라스팔마스의 납골당과 피지에는 선원 위령탑을 추가로 건립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선원 묘지의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제26조의 2항(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에 따라 라스팔마스 묘역의 1기를 한국으로 이장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고, 매년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순직 선원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이장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총 31기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였다.

특징 및 의의 해외선원묘지는 우리나라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원양어업의 순직 선원들의 넋을 달래고, 동시에 유족들을 위로하며, 현지 교민과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긍지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원양산업 60년 발전사(해양수산부, 2018), 원양선원해외묘지 관리 및 이장 지원 사업 시행지침(해양수산부, 2014), 원양어업개척사(심상준, 시대인쇄, 1989).

필자 권유리(權宥利)

해주

정의 비가 와서 채염採鹽을 할 수 없거나 또는 결정지結晶池가 비어 있지 않을 경우 증발지에서 고도로 농축된 포화함수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구덩이.

내용 해주는 염도가 높은 함수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해주 | 전남 신안 | 2016 | 신안군

시설이다. 한자어 ‘해자海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높을 가리키는 황해도 방언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해주에는 결정지 바로 옆에 지붕을 갖춘 것이 있고, 또 제2증발지(누테) 옆에 지붕 없이 노천에 두는 것도 있는데, 후자를 별도로 ‘뒷물해주’ 또는 ‘뒷물간’이라고도 한다.

결정지용 해주는 고도로 농축된 포화함수(25보메도)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지붕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초가지붕이나 판자 및 너와로 만든 지붕이었으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모든 염전의 해주 지붕이 슬레이트 자재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다시 친환경 자재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증발지에 있는 뒷물해주는 17도의 함수鹹水를 보관하면서 소위 ‘물배합’을 통해 소금의 결정 작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결정지 및 수로의 청소 작업에 사용하며, 별도로 지붕을 만들지는 않는다.

특징 및 의의 한반도는 강우일과 강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증발력도 적어서 천일염염에 불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함수의 조작과 보관의 방법을 고안·발전시켰는데, 이것이 한국 천일염전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해주는 고농축된 포화함수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었으며, 해주에서 퍼올린 함수는 수로를 통해 증발지와 결정지를 오가도록 연결되어 있다. 즉 결정지에서 소금 생산을 끝내고 남은 함수는 뒷물과 배합되어 재생산된 함수로 다시 해

참고문헌 염전 용어에 관한 연구(김희진,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14, 한국어교육학회, 1976), 소금과 새우젓(윤형숙 외, 민속원, 2010), 천일염 생산시설의 변화(문홍일, 도서문화4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5).

필자 류창호(柳暢浩)

허가어업

許可漁業

정의 수산 자원의 증식·보호나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어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어업.

내용 허가어업은 <수산업법>에 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광역지자체 시장(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도지사, 기초지자체 시장(사천시, 포항시 등)·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에는 원양연승어업, 원양기선저인망어업, 원양트롤어업, 원양선망어업, 원양자망어업, 원양봉수망어업, 원양모선식어업, 원양안강망어업 등이 있으며 해외 수역을 조업 구역으로 한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연안에서 떨어진 근해 구역을 주 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기선선인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잠수기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형망어업, 근해연승어업 등 대부분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으로 조업 어장이 한정되어 있다. 근해어업은 총톤수 8t 이상의 동력 어선 또는 수산 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다. 근해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기선선인망어업, 잠수기어업, 근해형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지만, 규모가 크고 어획 압력이 심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으로 되어 있다.

광역지자체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안어업은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 어선이나,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안어업은 연안자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 규모가 작고 연안 해역을 조업 어장으로 하는 어업이다.

구획어업으로는 정치성구획어업과 이동성구획어업이 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t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다. 구획어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육상해수 양식업에는 육상에서 수조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과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이 있다.

종자 생산어업은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와 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업자원 생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이다.

특징 및 의의 어업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어구·어법의 특성상 수산동식물의 보전 또는 어업 질서의 유지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업 행위를 적절히 제한하기 위한 것이 어업의 허가 제도이다. 어업의 허가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어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줌으로써 어업 행위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면허어업은 특정인에게 새로이 어업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지만, 허가어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어업 활동을 특정인에게 허용해 줄 뿐이고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허가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어선 한 척으로 조업하는 어업은 어선마다, 그리고 어선 두 척 이상으로 조업하는 어업과 잠수기 어업은 어구마다, 해

상 종자 생산어업은 시설마다 각각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어업은 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주기판의 마력 수, 조업 어장 등이 한정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허가어업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다시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선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허가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어업인들이 새롭게 어업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어업 경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참고문헌 수산관계법령집1·2(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019), 수산일반(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7), 어업-상(부경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3),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필자 박종화(朴鍾和)

형망

정의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 바닥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구.

내용 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 틀을 단 뒤 틀 하단에 여러 개의 갈퀴를 설치한 어구로, 해저 바닥을 긁어 조개류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형망 어업은 크게 근해 형망 어업과 패류 형망 어업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는 민들조개·북방대합·개량조개 등이, 서남해안에서는 피조개·개조개·바지락·백합 등이 잡히며, 지역에 따라 어업방식에 차이가 있다.

1. 민들조개형망: 민들조개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 틀을 달고, 틀의 하단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이다. 주로 강원도 연안 3~5m 수심에서 사용하며 연중 조업이 가능하지만 6~7월은 금어기로 채취가 불가하다. 어선의 양 측면에서 두 개의 민들조개형망을 투하한 뒤 롤러로 걷어 올린다. 걷어 올린 민들조개를 모두 정리하고 나면 장소를 옮겨서 조업한다. 조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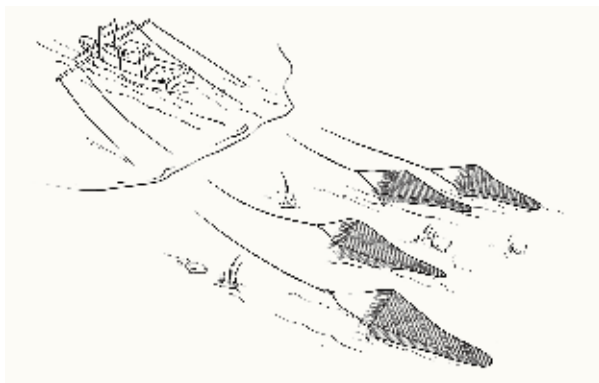
닷이 많이 끌리거나 어획량이 적을 때는 어장을 변경하기도 한다.

2. 북방대합형망: 북방대합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 틀을 달고 틀의 하단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이다. 주로 강원도 연안 7~15m 수심에서 사용하며 연중 조업이 가능하지만 6~7월은 금어기로 채취가 불가하다. 어선의 앞부분과 양 측면에서 세 개의 북방대합형망을 투하한 뒤 롤러로 어구를 걷어 올리며 조업한다. 갈퀴는 바닥에서 약 40°로 기울어져 있으며, 형망이 해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망 틀 양쪽에 썰매판이 부착되어 있다.

3. 백합형망: 백합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 틀을 달고, 틀의 하단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이다. 주로 동해 연안 10~30m 수심에서 사용하며, 연중 조업이 가능하지만 주로 봄과 가을에 조업한다. 백합형망은 보통 백합이 60%, 개량조개가 20%, 민들조개 및 기타 패류가 20% 정도 잡혀서 패류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4. 바지락형망: 바지락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 틀을 달고, 틀의 하단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로 서해에서는 3~5m, 남해에서는 10~30m의 수심에서 사용하며 연중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 방법은 바지락 서식지에서 수심의 3~5배가량 길이의 끌줄을 설치한 형망을 투망한 뒤 어선을 이동하여 롤러로 끌어 올린다. 끌어 올린 바지락은 선별기에 투하한 후 바지락만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 바지락형망 어선에서 조업하는 선원은 남녀 구별이 없으며, 남성 선원들은 형망 투하를, 여성 선원들은 바지락 선별을 전담하고 있다.

5. 피조개형망: 피조개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



형망 | 국립수산물과학원

사각형의 틀을 달고, 틀의 하단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이다. 주로 남해 연안 7~40m 수심에서 사용하며 양식 피조개는 연중, 자연산 피조개는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채취한다. 피조개형망의 갈퀴가 바닥을 잘 파기 위해서는 갈퀴와 바닥이 이루는 각도, 끌줄의 투하점, 어구의 수중 중량 등이 매우 중요하다. 형망 어선 좌·우에 1통씩, 배 뒤편에 1~2통의 어구를 달아 총 3~4통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배 뒤편에만 2통을 달아 조업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6. 소라형망: 소라는 다른 조개류처럼 해저 속에 서식하지 않고 해저 위에 서식하므로 갈퀴가 없고 자루그물 입구에 틀만 단 어구를 끌어서 채취한다. 주로 서해안 연안 10m 내의 수심에서 사용하며 4~11월까지 채취한다. 틀의 형태는 사각형이나 타원형이며, 추를 달거나 끌줄을 길게 사용하여 어구를 해저에 밀착시킨다. 형망 어선은 배 앞쪽에 2통, 뒤편에 1통을 달아 총 3통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배 뒤편에 2통을 달아 조업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7. 재첩형망: 재첩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사각형 틀을 달고, 틀의 하단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를 어선에 부착하여 재첩을 채취한다. 주로 강의 하구에서 사용되며 연중 조업이 가능하지만, 산란기 또는 철새 도래기에는 조업이 금지되기도 한다. 자루그물의 입구는 모래가 잘 빠지도록 그물코가 크고, 뒤편은 재첩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물코가 작다. 어선 한 척당 1통의 형망을 사용하며, 조업 중에는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펄이나 모래가 잘 빠지도록 끌줄을 위로 당겼다 놓았다는 반복한다.

특징 및 의의 근해 형망 어업은 20t 미만의 어선과 폭 8m, 높이 1m 이하의 고정틀을 사용하고, 패류 형망 어업은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5t 미만의 어선과 폭 5m, 높이 1m 이하의 고정틀을 사용하며, 일정한 구획 내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인한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변천과정(최종덕·류동기, 수산해양기술연구53-4,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2017), 전남 지역의 패류 형망어선의 개량(박상준 외, 수산해양기술연구55-2,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2019), 포항 영일만 형망어업의 어획 및 혼획 실태(안희춘 외, 수산해양기술연구51-4, 한국어업기술학회, 201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ifs.go.kr).

필자 정명훈(鄭明勳)

혼합식양식어업

混合式養殖漁業

정의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 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역사 1995년 <수산업법> 제16차 개정(법률 제5131호, 1995.12.30.)이 있기 전까지 양식어업 면허제도의 특징은 단일 방법에 단일 품목만을 양식하도록 하는 단일양식어업 면허제도(單一養殖漁業免許制度)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6차 개정을 계기로 하여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일 방법에 복수의 품목을 양식하거나 복수의 방법에 복수의 품목을 양식할 수 있는 다품목 복합양식(多品目複合養殖)이 허용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양식어업 면허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수산업법> 제16차 개정에서는 제8조 제1항에 양식어업의 종류를 종전의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 양식어업 등 3종의 양식어업에서 복합양식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두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모두 5종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동법 제8조 5항을 통해서 복합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양식 어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양식어장에 해조류·패류·어류 등 서로 다른 양식어업 종류 2종 이상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양식어장에 건홍식과 살포식 혹은 연승식과 투석식 등 2종 이상의 양식 방법과 양식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혼합양식'도 가능하게 하였다.

내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8호, 2021.2.9.)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에 따른 복합양식업의 종류에는 수하식양식업, 바닥식양식업, 혼합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등이 있다. 이때 수하식·바닥식·축제식은 각각의 양식 방법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는 데, 혼합식양식업은 '가두리식·수하식·바닥식의 양식 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466

호, 2021.2.19.)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의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 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에서 복합양식업 중 혼합양식업의 양식 방법은 ①건홍식(建簍式)과 살포식(해조류·패류) ②연승식과 천해 투석식(해조류·패류) ③침하식과 연승식(해조류·패류) ④가두리식과 연승식(해조류·패류), ⑤가두리식과 살포식(패류 중의 전복, 어류 등의 해삼) ⑥가두리식과 투석식(패류 중의 전복, 어류 등의 해삼) ⑦수평망식과 살포식(수평망식 굴과 그 밖의 패류) 이 있다.

건홍식은 해조류 중 김양식에만 사용하는 양식 방법으로 지주망홍식과 부류망홍식이 있다. 살포식 양식 scattering culture은 양식 대상의 종자를 간석지나 천해의 바닥에 뿌려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키는 양식법이다. 건홍식과 살포식의 예로는 김·바지락, 김·동죽, 김·개량조개 등을 들 수 있다.

연승수하식양식long line-hanging culture은 튼튼하게 끈 긴 밧줄에 수하연(垂下連)을 매달아 굴 등 부착성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방법이다. 풍파가 심하고 조류가 빨라 뗏목식이나 간이 수하식으로 시설할 수 없는 외해에서도 시설이 가능하며, 양식어장의 외연 확대와 함께 생산효율이 가장 높은 양식 방법이다. 투석식양식stone throwing culture은 양식 대상 생물의 부착과 성장에 용이한 패각이나 돌 등을 천해에 투하하여 성장시키는 양식법이다.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의 예로는 톳·전복, 다시마·전복, 미역·전복 등을 들 수 있다.

침하식양식net subsidence culture은 연승(延繩)에 수하연을 달아 바다 저층에 침설(沈設)하여 수산물을 양식하는 방법이다. 침하식과 연승식의 예로는 전복·미역·감태, 전복·다시마·감태, 전복·미역·다시마 등을 들 수 있다.

가두리식양식cage culture은 그물이나 철망으로 만든 가두리를 수면에 뜨게 하거나 수중에 침강시켜 조피볼락 등 어류를 양식하는 방법이다. 가두리의 설치 위치에 따라 육상가두리·해상가두리·표층가두리·중층가두리·저층가두리·연안가두리·외해가두리 등으로 나뉘며, 이 중 외해가두리는 내파성 가두리와 부침식 가두리로, 또 가두리의 형태에 따라 사각형·다각형·원형 가두리 등 여러 가지로 나뉜다.

수평망식양식은 갯벌 바닥에서 약 80cm 상단에 사각형의 틀을 만들고, 날개로 홀로 떨어져 있는 2~3cm 크기의 굴을 그물망에 담아 키우는 양식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일 공기에 노출되는 갯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배설물 분해가 빠르며, 그물망이 해적생물의 침입을 막아 주어 생존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특징 및 의의 당해 수면에 단일품종의 수산동식물을 양식 하도록 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양식 어장에 건홍식과 살포식, 또는 연승식과 투석식 등 2종 이상의 양식 방법과 양식 기술을 결합할 수 있게 한 혼합식양식어업은 수면의 입체적 이용과 2종 이상의 양식을 가능하게 하여 소득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양식어업으로서 정착되었다.

참고문헌 양식어업의 어장이용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최정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2),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국립수산물과학원, 2016).

필자 박민우(朴民祐)

홍어잡이

정의 그물이나 낚시(주낙이나 걸낙) 등을 이용해 홍어를 잡는 일.

개관 홍어는 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이다. 가오리와 비슷하나 좀 더 둥글고 가로로 퍼져 있다. 머리와 주둥이가 작다. 꼬리의 등 쪽 가운데에 수컷은 한 줄, 암컷은 세 줄의 날카로운 가시가 줄지어 있다. 수컷은 배지느러미 뒤쪽에 두 개의 생식기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영광·신안 등지에서 주로 잡힌다.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에서 잡히는 참가오리도 실제 참홍어이다. 홍어는 상온에 두면 피부에 쌓여 있는 요소가 암모니아로 발효하여 삭혀지면서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내용 홍어는 수심 100m 내외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



홍어잡이 | 전남 신안 | 2017 | 한국교육방송공사·공유마당



홍어주낙 | 인천 옹진 | 2016 | 국립민속박물관

종이다. 여름에는 인천 대청도·소청도·백령도 등지에서 서식하다 겨울에는 전남 흑산도로 내려간다. 예전에는 대청도 등지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흑산도 등지에서는 겨울부터 봄까지 주로 홍어를 잡았다. 근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어획한다.

과거 흑산도에서는 12월부터 4월까지 주낙을 이용해 홍어를 잡았다. 주낙은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낚는 어구이다. 홍어를 잡던 주낙은 일반 주낙과 비교해 낚시를 묶는 간격이 두세 배 정도 길다. 예를 들면 우럭을 낚는 주낙은 한 발 길이에 바늘 하나를 묶지만, 홍어 주낙은 두 발 혹은 세 발 길이에 바늘 하나를 묶는다. 이는 홍어가 다른 물고기에 비해 몸통이 크기 때문이다. 주낙은 미끼를 갈아 주어야 하므로 하루에 두 번 어획하는데, 밀물에 투입하였다가 썰물에 걷어 올려야 한다. 미끼로는 주로 가자미, 볼락, 강다리, 새우 등 잡어를 사용한다. 대청도 등지에서는 미끼를 사용해 홍어를 잡는 것을 ‘미잡주낙’ 또는 ‘장주낙’이라 부른다. 장주낙은 ‘마룻줄’에 길이 1발(발) 간격으로 낚싯바늘이 50~60개 연결되고, 한 바퀴 총 길이는 200m 내외이다.

대청도 등지에서는 일찍부터 ‘건주낙(흑산도에서는 걸낙)’을 이용해 홍어를 잡았다. ‘건주낙’ 혹은 ‘걸낙’은 긴 몸줄에 미끼가 없는 바늘을 짧은 줄에 매달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 걸리도록 해서 잡는 방법이다. 북한 지역에서 노랑가오리를 잡을 때 사용하던 어구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시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흑산도에서 사용하는 ‘걸낙’은 한 고리가 85m 정도 되는데, 이곳에 약 15cm 간격으로 450여 개의 바늘을 매단다. 바늘만 있어서 미끼를 따로 바꿔 주지 않기 때문에 투입 후 걷어 올리는 데 시간 제약이 별로 없다. 투입 후 5~7일이 지난 뒤에 걷어 올린다. 이 걸낙 방식은 1970년대 중반 대청도 어부에 의해 흑산도로 전해졌다.

홍어는 알주머니(난각)에 4~5개의 알(일명 빼끼)을 낳는다. 연중 알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산란철이 없지만, 주 산란기는 11월과 12월로 알려져 있다. 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어기로 설정되어 있다. 홍어는 2008년부터 총허용어획량의 대상 어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흑산도나 대청도 인근 바다에서는 매년 허용된 양만 어획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홍어는 주낙을 이용해 잡았다. 주낙으로 홍어를 잡을 때는 하루에 두 번 물때를 보는데 밀물이 시작될 때 주낙을 투입하고, 밀물이 거의 다 들면 걷어 올린다. 그러다가 ‘걸낙’이 나오면서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홍어를 잡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흑산도를 비롯해 서해안 일대에서 홍어를 잡는다. 홍어를 잡기 위해서는 홍어가 잘 다니는 길목을 알아야 한다. 이 길목은 시기에 따라, 또 바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홍어잡이는 선장의 경험이 어획량을 결정한다. 지역 생태 환경이나 홍어의 생태를 알아야만 가능한 어업인 셈이다.

참고문헌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남도의 잔치음식(박종오, 전남의 민속문화, 전라남도·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2(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전라지역 최종보고서2(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무형유산원, 2017), 한국어도보(정문기, 일지사, 1991), 홍어(윤형숙 외, 민속원, 2009).

필자 박종오(朴宗吾)

홍합따기

정의 바닷속 암반에 붙어 서식하는 홍합을 빗창 따위로 따내는 어로.

내용 홍합은 사새목 홍합과의 연체동물이다. 서해안 일원에서는 ‘담치’라고 한다. 그 서식처는 조간대 하부의 수심이 깊은 갯바위이다. 따라서 평소에는 물에 잠겨 있다가 사리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홍합은 무리를 이루는 탓에 수십, 수백 마리가 암초지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담치가 많이 돋았네.” 또는 “담치가 잘 여물었네.”라고 표현한다. 어린 홍합은 껍데기가 까맣지만, 다 자란 홍합은 검붉은 색을 띤다. 크기에 따라 대담치·중담치·소담치 등으로 구분한다. 대담치는 10cm 이상, 중담치는 8~10cm, 그 이하는 소담치이다. 어촌계에서 주관하는 홍합따기는 소담치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은 홍합은 다시 바다에 뿌려준다.

『난호어목지 蘭湖漁牧志』에는 홍합따기에 대하여 “음력 7~8월 사이에 어부들이 바닷속의 돌이 많은 곳으로 잠수해 들어가 전복을 따는 법대로 홍합을 따다. 대개 홍합은 물에 들러붙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였다. 전복과 마찬가지로 깊은 물에 있는 홍합은 잠수하여 채취하는 전통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합따기는 9월 이후에 시작되어 12월에서 이듬해 2월이 최적기이다. 날이 추워야 속이 딱 차게 여물고 맛이 좋기 때문이

다. 이때를 기다려 어촌계에서 날짜를 정하면 채취에 들어간다. 물때는 조수가 많이 빠지는 7~9월이 최적기이지만, 풍량이 일면 취소되기 일쑤이다. 따라서 한사리에 실제 홍합을 채취하는 날은 고작 1~2회에 지나지 않는다. 산란기에 접어드는 봄에는 채취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산란 이후에는 육질이 거의 없어 채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홍합 산지는 충청남도 보령의 외연열도이다. 외연도·녹도·호도에서 홍합은 전복·해삼과 더불어 어촌계에서 엄격하게 자원을 관리하는 수산자원이다. 과거에는 값이 저렴하여 제값을 받지 못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판로가 열리면서 겨울철의 주요 수입원으로 부상하였다. 어촌계에서 주관하는 홍합따기는 공동작업·공동출하를 원칙으로 한다. 채취도구는 끌처럼 끝이 납작하고 예리하게 베틀된 쇠붙이로, 속칭 ‘빗창’ 또는 ‘홍합창’으로 불린다. 단단하게 붙어 있는 바위틈을 빗창으로 쪼아서 따낸다. 이때 속아내기를 병행하기도 한다. 즉 갯바위에 밀집된 작은 홍합을 빗창으로 분리하여 조류의 흐름이 강한 곳에 뿌려주면 잘 여문다고 한다. 지면에 떨어진 홍합은 3일이 지나면 다시 기어 올라와 갯바위에 붙는데, 속아내기를 해주어야 홍합이 빨리 자란다. 채취한 홍합은 어선으로 운반하여 포구에 쌓아놓고 다듬는다. 홍합 껍데기에는 갯가의 작은 생물이 달라붙어 기생하는데, 이것을 칼로 제거한다.

특징 및 의의 홍합따기는 물때의 순환주기와 바다의 생태



홍합따기 | 부산 | 1972 | 국립민속박물관



외연도 홍합따기 | 충남 보령 | 2019 | 강성복

환경에 적응해온 오랜 어로문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해산물 채취 관행은 물론 저장 및 조리과 연계된 전통지식이 담겨 있다. 일찍이 홍합은 다양한 음식으로 조리되어 어민들의 미각을 돋구었다. 가장 흔한 요리는 삶은 홍합을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다. 암컷은 속살이 붉고 육질이 쫄깃한 데 비해 수컷은 유백색에 가깝고 맛이 부드럽다. 속이 짙은 홍합은 4~5개만 먹어도 든든하게 요기가 될 뿐만 아니라 술안주 감으로도 종종 식탁에 오른다. 홍합을 재료로 하는 요리로는 홍합칼국수, 홍합밥, 홍합죽, 홍합부침개, 홍합된장국, 국수꾸미개, 가시리홍합국, 가시리굴국, 꽃담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홍합죽은 볶은 홍합을 찹쌀에 넣은 다음 참기름을 치고 뭉개 끓인 것인데, 전복죽보다 맛이 좋다고 한다. 국수꾸미개는 볶은 홍합을 국수 위에 얹어 먹음직하게 꾸민 것을 말한다. 그런가 하면 꽃담채는 말린 홍합에 갖은양념을 넣고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킨 것이다. 예전에는 홍합을 따면 껍데기를 벗긴 속살을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시장에 내다 팔거나 식재료로 썼다. 말린 홍합을 고추장과 양념을 넣어 버무린 것이 바로 꽃담채이다.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춘궁기에 보리밥 반찬과 술안주로 즐겨 먹었던 음식이다.

참고문헌 蘭湖漁牧志, 林園經濟志, 茲山魚譜,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분야-충청지역 최종보고서2(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2018), 황금담치 외연열도 사람들(강성복, 민속원, 2019).

필자 강성복(姜成福)

홍합양식 紅蛤養殖

정의 봄철에 채묘연採苗漣으로 홍합의 부착기 유생을 채묘하여 여름까지 양식장에 가이식한 후 겨울철까지 본양성을 통하여 상품 크기로 키워서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

역사 홍합은 1956년에 인공채묘와 종자 이식시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참굴 양식 수하연垂下



홍합채묘 수하작업선 | 2015 | 국립수산물과학원

연에 부착되어 참굴의 성장을 억제하는 해적생물로 취급받아 제거되었기 때문에 양식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홍합은 양식하여 판매하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아 자금 회전이 빠르고, 부착하는 해적생물도 적어 관리가 쉬운 장점 등에 힘입어 양식 어업인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경상남도가 1967년 33곳의 양식장 약 458만 9,000ha의 면허를 발급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홍합이 양식되었다.

홍합양식 초기에는 홍합 족사足絲의 강한 부착력을 이용하여 나뭇가지 등을 간석지나 수심이 얇은 곳에 꽂아 기르는 말목식, 수하식 그리고 살포식의 한 방법인 지시식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연승延繩수하식 양식 방법이 보급되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홍합은 2017년에 7만 6,000t을 양식 생산하여 굴 다음으로 양식 생산량이 많은 패류가 되었다.

내용 양식에 사용되는 홍합은 외국에서 유입된 지중해 담치로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한다. 우리 고유종인 홍합(담치 또는 참담치)은 수심이 깊고 염분도가 높은 곳에 서식하는 각장 8cm 이상 되는 대형 품종이나, 성장이 느려 양식은 하지 않고 있다.

홍합양식은 종자 채묘, 가이식, 본양성 및 판매의 단계를 거친다. 종자 채묘는 3~4월에 부착기질을 매단 채묘연을 물속에 넣어 수심 1~2m 수층에 떠다니는 부착기 유생을 확보한다. 가이식은 이 채묘연을 양식장에 매달아 7월경까지 키워 3cm 전후의 종자로 키우는

과정이다. 본양성은 7~8월경에 채묘연을 8~10여m 길이의 수하연에 감거나, 그대로 수하하여 각장 5cm 이상 키우는 단계를 말한다. 홍합은 산란기가 연중이기 때문에 대개 11~12월에 가을 채묘를 하여 3~4월에 본양성을 한 후 10월경부터 판매한다. 홍합 유생의 채묘에 사용하는 부착기질은 페타이어 고무를 20cm 전후로 잘라서 채묘연에 일정한 간격으로 끼워 사용한다. 최근에는 친환경 플라스틱 재질과 굴·가리비 등의 패각도 부착기질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례 홍합의 주요 양식 지역은 경상남도 마산과 전라남도 여수 지역이다. 이 중에서 경남 마산수협이 수정·남포 어촌계가 위치한 마산만은 2017년도 기준으로 홍합양식 생산량의 72%를 차지한 주산지이고, 전남 여수반도로 둘러싸여 있는 가막만 해역도 홍합 양식장이 집중된 곳으로 전체 홍합 양식량의 27%를 생산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홍합은 물속의 유기물을 걸러 먹고 사는 전형적인 여과식자濾過食子이다. 이런 홍합의 생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유기물이 많이 흘러드는 강이나 하천의 하구에 인접한 해역에 홍합 양식장이 집중되어 있다.

홍합양식은 연승수하식으로 한다. 이 시설은 친승, 채묘연, 수하연으로 사용하는 로프와 페타이어, 플라스틱 등의 부착기질 및 부자浮子와 시설 고정용 닻으로 설치할 수 있다. 양식 자재 구입 및 설치 비용도 다른 품종에 비해 다소 적게 든다. 양식 과정 또한 종자 채묘—가이식—본양성—판매로 복잡하지 않고, 수하연에 해적생물의 부착도 적어 다른 양식에 비해 관리가 쉽고 생산기간이 짧은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양식장 환경변화와 주변 유기물의 유입이 감소하면 성장도 지체되고 폐사율도 높아진다. 그리고 홍합의 빠른 성장에 따라 부자를 자주 보강하여 주어야 하는 점 등은 단점에 속한다.

홍합의 암컷은 붉은색이고 수컷은 유백색이며, 맛은 암컷이 좋다. 홍합은 아미노산과 각종 유기산이 풍부하여 천연 조미료의 원료가 된다. 다만 봄부터 늦여름까지는 플랑크톤으로 인한 독소 탓에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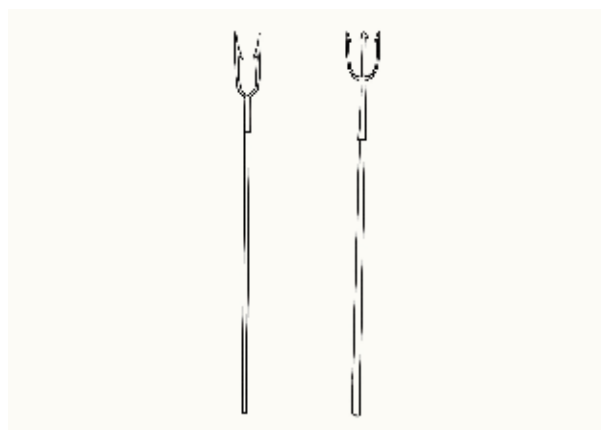
참고문헌 사계절 해물 비빔밥(농림수산물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안전과, 2011), 새만금 주변해역의 연체동물(정의영·이준상, 다이브코리아, 2008), 수변정담(국립수산물과학원, 2005), 양식어업의 어장이용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최정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2), 연안산 중요 조개류의 증식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4(유성규·김기주·이종구, 한국수산학회지3-2, 한국수산학회, 1970),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과학원, 2016).

필자 오봉세(吳捧世)

항복잡이

정의 바다에 서식하다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온 항복을 잡는 어로행위.

내용 항복은 복어의 한 종류로 바다에 서식하다 4월에서 6월이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와 자갈이 깔린 여울에서 산란을 한다. 지금은 임진강에서 주로 잡지만 수중보나 팔당댐이 생기기 전에는 경기도 여주에서도 항복을 잡았다. 목은牧隱 이색李穡(1328~1396)의 시에는 “巖串晩宿。明日過龍山灘。梨灘。河豚灘。新灘。遇淺則牽以行。甚則負舟。極力乃行。遇深張帆快甚。一日數十里之內。乍懼乍喜。將至重房院也。漢陽尹邀于舟中。請登新亭。固辭。數酌而行”이라는 긴 제목의 기행시가 있다. 그 일부를 번역하면 “암곶巖串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그다음 날 다시 배를 타고 용산탄龍山灘, 이탄梨灘, 하돈탄河豚灘, 신탄新灘을 지나갔다.”라는 것인데, 이는 ‘방학곳이—용산여울—이포여울—하돈탄—신탄’이라는 이색의 여정을 드러낸다. 여기서 하돈은 복어를 의



고기잡이 작살 | 편성철



어렵도 | 전윤정립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미하며 다른 말로 복어여울이라고도 한다. 하돈탄, 즉 복어여울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주 이포여울을 지나서였을 것이다. 팔당댐이 완공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도 여주에서 황복이 많이 잡혔다고 한다. 서병원(남, 1934년생)에게 복어잡이와 관련해 복어의 생태, 어법, 복어의 활용법 등의 정보가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주 신흥사, 한강 변에 사는 사람들은 신흥사를 ‘벽절’이라고 한다. 절벽에 있는 절이라. 봄철에 복어가 올라온다. 올라와 가지고 거기 와서, 여주강 많이 잡힌다. 왜 여주강에서 많이 잡히냐 하면, 복어가 전생에 잘못된 것을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물꾼한테 잡혀 가지고 복어애, 간. 간에 지방이, 기름이 무척 많아요. 제일 많아요. (손을 쥐면서 무언가 찌는 시늉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쭈욱 찌면 나올 정도로 많아요. 그걸 부처님한테 잔연등, 기름 시주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여주 앞강까지 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한강에, 이게 한강 노랑진서 전해지는 전설이에요. 목숨 시주를 해서, 목숨 기름 시주를 해서 자기 전생의 업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신흥사에) 가서 많이 잡힌

다. 애에 기름이, 어부들이 (애를 먹으면) 죽으니까, 솥에 다 넣고 끓여요. 그럼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떠다가 겨울에 밤고기잡이할 때 그걸 써요. 햇불에다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등불 시주하느라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여주 신흥사 앞까지 간다 그거예요. 그게 전설이에요.

봄이 되면 여주 신흥사까지 복어가 올라왔고, 잡은 복어의 애(간)로 기름을 만들어 겨울철 고기잡이 때 햇불로 활용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잡는 시기는 봄이고, 그물꾼들이 그물로 잡는다. 낚시로는 복어를 잡지 않는데, 복어의 이빨이 매우 날카로워서 낚싯줄을 끊어버릴 정도이다. 또한 낚싯바늘에 걸린 ‘퍽’ 하는 느낌은 비닐봉지가 걸린 것과 같은 느낌으로 손맛도 별로인 어종이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복어는 비싼 물고기가 아니라 흔한 물고기였다. 서병원, 강우규(남, 1958년생)의 기억에 의하면 독섬에서 수영하며 놀다가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물고기였다. 벚꽃이 필 때면 한강의 어부들이 강을 가로질러 흘림

걸그물(유자망)로 황복을 잡았다. 지금도 한강 하류와 임진강에서는 봄이 되면 황복을 잡는다. 길이가 150m 정도 되는 유자망을 한 틀로 해서 세 틀 정도를 강에 30분 정도 흘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기를 반복한다.

현재도 유자망만 사용하는 한강과 달리 임진강에서는 각망도 사용한다. 황복이 각망은 송어이 각망과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송어와 달리 황복은 수면 위로 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수면을 그물로 덮지 않는다.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지만 1960년대까지 작살을 이용해서 잡기도 하였다. 물고기를 잡는 작살이 세 갈래 또는 다섯 갈래인 것과 달리 복어를 잡는 작살은 안쪽에 미늘이 있는 두 갈래의 작살이며, 이것을 ‘복창’이라고 불렀다. 복창에 대한 기록은 조선 중기 김세림의 한시에도 언급된다. <첫물 복어를 먹고 初食河豚>라는 제목의 칠언율시에는 복숭아꽃이 한창 피는 곡우 무렵 황복이 무리를 지어 강을 오르고 그것을 어부들이 작살(叉)로 잡는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특징 및 의의 복어는 낚시로는 잡을 수 없고 그물을 사용해서 잡는다. 복어잡이 전용 작살 ‘복창’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복어는 독이 있는 생선이지만 선사시대부터 먹어 왔고, 조선시대 문집에도 자주 등장하는 물고기이다. 그러나 그 관심은 독이 있는 생선을 먹는다는 점에서 흥미 위주로 다루어졌으며, 그와 관련된 어로어법에 관한 학술적 접근은 미흡하다.

참고문헌 고전과 설화 속의 우리 물고기(이하상, 목근통, 2013), 내수면 어구 어법 도감(선종근 외, 국립수산물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2018), 한강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5), 현지조사자료(강우규, 경기 일산, 2020.2.4; 서병원, 경기 일산, 2020.2.4.),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필자 편성철(片成哲)

황태
黃太

정의 한겨울에 명태를 덕장에 걸어, 차가운 바람을 이

용해 20번 이상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건조 명태.

역사 황태는 1930년대 함경도 함흥 지역에서 황태덕장을 만든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황태 생산을 위해서는 낮은 기온, 바람 등의 자연환경과 산악지대의 지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함경의 자연적·지리적 환경이 황태 건조에 용이하였기 때문에 황태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함경도 지역 피난민들이 월남하여 강원도 인제와 평창 지역에 황태덕장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함흥·청진·원산 등 함경 지역에서 황태덕장을 하던 피난민들이 월남하여 고향과 가까운 속초와 강릉 등의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이들은 고향에서 황태덕장을 하던 경험을 토대로 황태 생산을 위해 환경이 적합한 지역을 찾아 강원 내륙지역인 인제 용대리와 평창 횡계리에서 황태덕장을 시작하였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속초에서 잡아 할복한 명태를 건조하기 위해 인제 지역으로, 강릉에서 잡아 할복한 명태를 건조하기 위해 평창 지역으로 옮겨 황태덕장을 만들었다. 남한에서의 황태건조 역사는 이때를 시작으로 본다.

내용 황태는 동해에서 잡힌 명태를 덕장에 걸어 겨울철 추운 날씨에 냉동과 해동을 수차례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명태에서 황태가 되기까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해에서 잡아 온 명태를 세척 후 덕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준다. 덕장에 걸어둔 명태는 25일 이상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건조된다. 덕장에서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치우거나 비막이 작업 등을 통해 덕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건조된 황태는 관태작업을 통해 일정한 수량으로 정리된다. 다음으로 딱딱하게 건조된 황태를 두드려 펴는 작업인 피포작업과 황태포 작업을 통해 우리가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황태로 생산이 마무리된다.

황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온과 바람 등 자연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황태덕장은 낮 최고기온 2~3℃ 이하, 최저기온 -20℃ 전후로 일교차

가 크면서도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지역에 조성된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밤새 얼었던 명태가 낮에 녹으면서 비틀어질 수가 있고, 살에서 물이 빠져 바짝 건조되면 황태가 아니라 북어나 깡마른 깡태 또는 먹태가 된다. 명태를 덩장에 걸고 명태의 몸에 수분이 흡수될 때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의 기온이 가장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황태와 가장 비슷한 건조 명태로는 북어가 있는데, 황태와 북어의 차이는 명태에서 건조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황태의 경우 25일 이상 얼었다 녹았다와 마르기를 반복하여 건조되어 속살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북어는 겨울이 아닌 시기에 말린 명태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지 않아 수분을 머금지 않으며, 짧은 시간 빠르게 바짝 건조된다. 건조 기간은 10일 내외이며, 한 번에 바짝 마르기 때문에 검은빛을 띠고, 겉과 속이 매우 딱딱하게 마른 것이 특징이다.

명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조 시 기온 차로 인해 하얗게 마른 명태를 백태, 소금을 살짝 뿌려 약간 짭맛이 나도록 깡 말린 명태를 짭태, 눈·비를 맞아 속살이 녹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명태를 골태, 추운 바람에 수분이 빨리 증발하여 뻣뻣하게 마른 명태를 바람태, 건조 과정에서 머리가 떨어져 나간 명태를 무두태, 반쯤 말린 상태의 명태를 코다리라고 한다. 또 명태 새끼를 노가리, 얼린 명태를 동태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90% 이상이 강원도 인제와 평창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황태의 재료인 명태가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어획되지 않는 탓에 황태의 생산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황태포 | 2017 | 한국교육방송공사·공유마당

어획량 감소로 2021년 현재 러시아산 명태를 전량 수입하면서 명태의 주요 항구인 강릉(주문진)·고성·속초와 가까운 인제와 평창에서만 생산하던 황태를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냉동시킨 러시아산 명태가 부산항을 통해 수입됨에 따라 덩장이 있는 강원까지의 이동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도 산간지역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일부 경상북도 산간지역과 충청북도 지역에서 적은 양이지만 황태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지의 다양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황태 제품의 약 60%는 중국산이다. 러시아에서 어획된 명태가 철도 등을 통해 중국 연해주지역에서 황태로 건조되어 완제품인 상태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황태는 수산물로 가공한 지역이 원산지로서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황태라고 하더라도 표기상 국내에서 생산된 황태처럼 러시아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생산지에 대한 혼란을 안겨 줄 수 있다.

참고문헌 20세기 전반 미역과 명태 어업을 통해 본 동해의 전통어업기술과 어민(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2012), 명태와 황태덕장(손정수·김나라·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2017),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계획(인제군, 2014), 한국명태어업사(박구병, 부산수산대학논문집20, 부산수산대학교, 1978), 한국어보(정문기, 상공부, 1954).

필자 손정수(孫正洙)

햇바리

정의 야간에 햇불을 밝혀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어로법.

개관 불빛을 좋아하는 해양생물의 특성을 이용한 어로법이다. 『자산어보(慈山魚譜)』(1814)에 따르면 멸치, 게, 비어(飛魚(날치어)), 행어(杏魚), 고등어 등을 잡을 때 햇불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햇불 대신 전등을 이용한다. 제주도에서는 최근까지 조간대의 갯바위에서 전등을 비춰 낙지를 잡았는데, 이 또한 햇바리라고 할 수 있다.



햇바리 | 경기 안산 | 2006 | 김준

내용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함에 따라 이들을 잡는 어법도 다양하기 마련이다. 햇바리 역시 갯가에서 행하거나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져 잡을 때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정약전(丁若鉉, 1758~1816)의 『자산어보』에 등장하는 햇바리의 첫 번째 사례는 민간에서 멸어(蔑魚)라 부르는 추어(鰈魚)잡이에서 볼 수 있다. 그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몸통은 매우 작아 큰 것이 3~4치(약 7.5~10cm)이다. 색갈은 청백색이다. 6월에 처음 나오고 서리가 내리면 물러간다. 성질이 밝은 빛을 좋아하니 밤마다 어부들이 화톳불을 피워 유인하여 움푹한 굴에 도달하면 광망(匡網)으로 걸어 올린다. 국을 만들어 먹거나 젓갈을 담가 먹거나 말려 먹거나 물고기 미끼로 쓴다. 가가도에서 나는 것은 몸통이 크고 겨울에도 잡기는 하지만 모두 관동(關東)에서 나는 좋은 것만 못하다.

두 번째로는 천해(川蟹), 곧 민간에서는 ‘진궤(眞龜)’라고 불렀던 게도 햇바리 방식으로 잡았다. 『자산어보』에는 “봄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 발 사이에 새끼를 넣고 가울에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데, 어부들이 여울에 나가 돌을 모아 담을 만들고서 새끼를 꼬아 늘어놓고 벼 이삭을 달아 놓았다가 매일 밤 햇불을 들고 손으로 잡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돌담을 만든 것은 게의 습성이 바위틈에 숨기 때문이며, 새끼줄에 벼 이삭을 단 것은 털 많은 게의 발이 걸려들도록 하는 일종의 그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 게는 인기척이 없는 밤에 먹이활동을 하

므로 햇바리는 밤에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서유구(徐有榘, 1764~1845년)가 만년에 저술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에서도 ‘현촉서포해법(懸蜀黍捕蟹法)’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는 민간에서 ‘거라(炬螺)’라고 불렀던 소라를 햇불을 이용해 잡았다. 거라가 햇불을 의미하는데, ‘거라’는 소라들 중에서도 햇불을 밝히면 가장 많이 잡혀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거라는 참소라의 일종이다. 거라 외에도 보통 소라는 밤에 햇불을 밝히면 낮에 잡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

이 외에도 『자산어보』에는 날치어(비어)에 대해서도 “망중 때 해안가에 모여들어 알을 낳는데, 어부들이 화톳불을 피우고 쇠작살로 잡는다.”라고 하였다.

해안이나 물가 외에도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유인해 잡는 데 햇불을 이용하였다. 전어지에서는 배를 타고 나간 사례를 잘 보여준다. ‘포행어법(捕杏魚法)’이라 하여 중추(仲秋)에서 중동(仲冬)에 이르는 시기에 남해안에서는 “관술 햇불을 들고 밤에 배를 타고 나가 햇불을 태우면서 물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행어(杏魚)가 불을 보고 구름같이 모여 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큰 그물로 삼면을 둘러싸고 그물 쪽을 향해 햇불로 물을 밝게 비추면 물고기가 모두 그물 안으로 들어갔다. 또 ‘포고도어법(捕古刀魚法)’은 호남지역, 특히 추자도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저녁마다 어부들이 무리를 지어 배를 타고 나가 불을 밝히면서 낚싯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20세기 들어서도 햇불을 이용한 어로법은 지속되었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권3(1910)에 따르면 흑산도 멸치잡이는 관술이나 잠목을 태워 햇불을 밝히고 멸치 떼를 유인하였다. 멸치 떼가 해변에 다다르면 한 사람이 배에서 내려 이를 떠 올리는데, 이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샷대로 수면을 쳐서 멸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때로는 좁은 장소로 몰아넣고 배에서 그물을 떠 올려 잡았다. 멸치를 잡는 어망으로는 ‘왜태’라고 하는 원형의 당망(當網, 후릿그물)을 사용하였다. 당망은 소나무 가지를 휘어 직경 4~5자(약 120~150cm)의 테를 만들고 거기에 감즙을 먹인 면실로 짠 그물자루를 단 후 4~5자 길이의 떡갈나무로 만든 손자루를 붙여 만든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오늘날 햇바리는 점차 사라져 가는 어로법 중 하나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 해안에서는 마을 여자들 여럿이 모여 햇바리를 하였다. 당시에는 벗짚을 양팔 길이만큼 길게 만들어 서너 군데 단단히 묶은 다음 불을 붙여 사용하였다.

햇바리는 그물이나 잠수어법과 달리 부수적으로 이뤄진 해안마을의 어로법이고 점차 해안마을 사람들의 취미나 여가로 변모하였다. 햇불을 이용한 어로법은 그물을 사용하는 어법과 달리 다량 어획하는 어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지물과 지형에 이용하고, 생물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이 결합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오래된 어로 기술이다.

참고문헌 자산어보(정약전, 권경순·김광년 역, 미르북컴퍼니, 2021), 전어지(서유구, 김명년 역,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韓國水産誌3(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10).

필자 안미정(安美貞)

후릿그물

정의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있고, 그 끝에 끌줄이 달린 그물을 육지나 배 가까이에서 투망한 뒤 끌줄을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잡는 어구.

역사 후릿그물은 평탄한 해안, 강, 호숫가에서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지인망地引網의 일종이다.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법도 쉬워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부터 후릿그물은 휘리揮羅라는 명칭으로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균역사목均役事目』 해세조에는 경상도의 어업 중 어장漁場을 설명하면서 “강에는 강어휘리장江魚揮羅場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강에서 후릿그물을 사용하여 담수어를 잡는 어장을 의미한다. 후릿그물은 해안에서 각종 어류를 어획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균역사목』의 함경도 해세조에는 ‘덕원청어휘리세德原靑魚揮羅稅’라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함경 덕원 지방에서 후릿그물로 청어를 잡았음



후릿그물 | 경북 포항 | 황현만

을 의미한다. 『만기요람萬機要覽』 해세조에는 강원도의 어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휘리어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며, 세금이 많은 데는 10냥이고 적은 데는 4~5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균역사목』보다 수년 뒤에 만들어진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에는 전라도의 어구를 열거하면서 먼휘망綿揮網이 등장하는데, 이는 먼사綿絲로 만든 후릿그물을 의미한다. 19세기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당망塘網을 설명하면서 “속명은 휘리망이며, 바다에서 사용하는 큰 어망으로 칠덩굴을 벗긴 뒤 가는 새끼를 꼬아 만드는데, 길이가 수 장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내용 긴 날개그물로 일정한 해역을 둘러싼 다음 날개그물의 양 끝이 오므려질 때까지 끌줄을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것을 후리어법이라고 한다. 후리어법에 사용되는 어구는 갓후릿그물과 배후릿그물이 있다. 갓후리어법은 19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으며, 현재는 배후릿그물을 이용한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갓후릿그물[地引網類, beach seines]을 이용한 어업은 경사가 완만하고 해저가 평탄한 바다 또는 강이나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그물을 던진 다음 날개그물 양 끝에 달린 끌줄을 육지에서 당겨 조업하는 것으로, 멸치·송어·농어 등 연안성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채래식 어법이다. 대상 어종이 모여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진 뒤 양쪽 끌줄을 육지에서 인력 또는 동력으로 잡아당긴다. 그물이 수심 1m 깊이까지 오면 사람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양쪽 날개그물과 자루그물을 분리한 뒤 자루그물 내의 물고기를 꺼낸다. 갓후릿그물을 이용한 어업은 내륙 가까운 곳에 있는 물고기만 잡을 수 있고 어장이 한정되어 있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배후릿그물[船引網類, boat seines]을 이용한 어업은 배에서 그물을 펼친 다음 날개그물 양 끝에 달린 끌줄을 당겨 조업하는 것으로,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한다. 그

물을 던진 후 사람이 끌줄을 당겨 물고기를 잡는 손방어업과 배의 동력기관을 사용하여 끌줄을 당겨 조업하는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된다. 손방어업은 해저 중층과 저층에 모여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법으로, 어선 양쪽으로 후릿그물을 펼친 뒤 배를 고정해 놓고 양쪽의 끌줄을 사람의 손으로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은 저층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법으로, 해저 저층까지 그물을 던진 뒤 어선을 이동해 가며 물고기를 어획하는 방법이다. 손방어업은 조선 후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들어 어선과 동력기관의 기술 발전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대부터는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이 손방어업의 자리를 대체하였으며, 현재까지 어구 구조 및 조업 방법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지역사례 20세기 전후 서해안에서는 충청남도 서천의 사례를 통해 후릿그물어업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망선어업은 전통적 어업 방식으로, 망선망은 후릿그물로 분류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술력에 제한이 있어 먼바다에서는 조업하기가 어려웠다. 망선망은 높



후릿그물 | 경북 포항 | 1980년대 | 황현만

이 30~40m에 너비 300~500m로 크지 않았으며, 그물 하단에는 돌을 달아 가라앉게 하였다.

조업을 위하여 상고선과 망선, 두 척의 배가 선단을 이루어 움직였다. 상고선에 그물 한쪽 끝을 묶은 뒤 망선이 조류의 흐름을 따라 크게 원을 그리면서 상고선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닻을 내리면 그물이 조류에 의해 팽팽해진다. 조기를 그물 안으로 모은 뒤 상고선에 묶여 있는 그물을 끌어 올려 조기를 잡았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의 1/3은 상고선이 갖고, 2/3는 망선이 갖는다. 이때 선장(사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귀를 대고 물고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망선에서 그물을 걸어 올려 잡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고선에 옮겨 실은 뒤 충남 강경에서 판매하였으며, 판매를 감독하기 위하여 망선의 대표자가 상고선에 탑승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후릿그물을 이용한 망선어업은 선박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근해에서만 조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어종도 제한적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안강망어선과 외끌이기선저인망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후릿그물어업은 점차 쇠퇴하였다. 보다 먼바다에서 어업이 가능해져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었으며, 노동생산성도 증대하였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20세기 전후 서해안 대형 어선어업의 존재양상과 전개과정(오창현,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한국수산업사(박구병, 태화출판사, 1966), 韓國水産誌1~4(朝鮮總督府 農商工部, 1908~19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명훈(鄭明勳)

홀치기 낚시

정의 낚싯바늘 2~6개를 함께 갈고리 모양으로 묶어서 낚싯줄에 매달아 미끼 없이 홀쳐서 송어, 쟁뚱어, 학꽁치, 은어 등을 잡는 어법.

내용 홀치기 낚시는 미끼 없는 낚싯바늘을 줄에 매달아

표층에서 무리 지어 이동하는 송어나 학꽁치, 갯벌 위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쟁뚱어 등을 잡는다. 섬진강 등 민물이나 하천 바위틈에 서식하는 은어를 잡는 ‘글갱이’ 어법도 넓은 의미로 홀치기 낚시에 포함된다.

홀치기 낚시를 대표하는 것은 쟁뚱어 낚시와 송어 낚시이다. 쟁뚱어는 물이 빠진 펄에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쟁뚱어를 잡기 위해서는 뺨배(널배)를 타고 조심스럽게 먹이활동을 하는 근처로 접근해야 한다. 경계심이 많아 10m 이상 멀리 떨어져서 낚싯줄을 던진 뒤 홀쳐서 잡는다. 주로 득량만, 여자만, 도암만, 신안군 지도읍, 중도 갯벌에서 많이 잡는다.

송어 홀치기 낚시는 쟁뚱어보다 낚시가 크고 굵다. 역시 낚싯바늘 세 개 정도를 갈고리 모양으로 묶어서 봉돌과 함께 줄에 매달아 사용한다. 송어는 폐를 이루어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봄철 송어가 연안으로 무리 지어 이동할 때 낚시를 던져 걸어서 잡는다. 송어도 인기척에 민감해 그림자만 보여도 깊은 바다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숨을 죽이며 기다려야 한다. 송어 홀치기 낚시는 바늘이 굵고, 수면에서 낚아챌 때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낚아채야 하며, 이때 좌우에 있는 사람들도 확인해야 한다. 수심이 깊은 방파제에서 할 때는 낚시를 2~3개를 1조로 연결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 조만 가지고 홀치기를 한다.

쟁뚱어나 송어와 달리 학꽁치 홀치기 낚시는 낚싯바늘 3개를 묶어 20cm 간격으로 4~5개조를 매달아 사용한다. 바닷물이 여울지는 곳에서 낚시를 던져 끌어당겨 학꽁치를 걸어서 잡는다. 학꽁치 홀치기는 먼저 밑밥을 뿌린 후 학꽁치들이 모여들면 홀쳐서 잡는다. 예전에 학꽁치, 전갱이, 송어 등을 잡는 제주도에서 흔



쟁뚱어 홀치기 | 전남 강진 | 2017 | 김준



송어 홀치기 | 전남 여수 | 2011 | 김준

한 낚시였다. 물에서 찌낚시 하는 것과 다른 방법이다. 학꽁치와 함께 송어가 잡히기도 한다. 제주도 동쪽 함덕이나 서쪽 애월 일대 해안에서 봄이면 연안으로 오는 학꽁치를 홀치기낚시로 잡는다.

강에서 서식하는 씨은어를 잡을 때도 홀치기낚시를 이용한다. 이 씨은어를 이용해 은어를 잡는 것을 ‘은어놀림낚시’라고 한다. 영역 다툼이 심한 은어의 습성을 이용한 어법이다. 씨은어를 원줄에 낚싯바늘 두 개와 함께 묶어 대여섯 개 조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 홀치기로 잡는다. 이렇게 잡은 ‘씨은어’를 코걸이하고 꼬리 부근에 바늘을 걸어 먹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은어를 피어내어 잡는다. 은어를 놀려서 잡는다고 해서 은어놀림낚시라고 하는데, 원리는 홀치기낚시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동해에서 대구를 잡는 ‘대구걸갱이’나 ‘문지갈’과 제주 ‘방어홀치기’와 ‘뭇게(문어)삼봉’도 원리는 홀치기 기법이다.

은어는 영역 다툼이 심해 서로 공격을 하다가 잡힌다. 그러므로 여러 마리 씨은어를 준비해야 하며, 새로 잡은 은어를 씨은어로 교체한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산청 경호강이나 구례 섬진강, 울진 왕피천이나 삼척 오십천 등에서 은어를 잡는 어법이다. 또 섬진강에서 은어를 잡는 글갱이 어법도 홀치기 원리와 같다. 굵은

낚싯줄에 2개 혹은 3~4개 낚시를 갈고리 모양으로 묶어서 줄에 매달아 대나무에 연결한 후 수경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 살피다가 은어를 걸어서 잡는다. 글갱이 어법은 섬진강 일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어잡이 방법이다. 최근에는 대나무 대신에 골프채 샤프트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홀치기낚시는 일반낚시와 달리 바늘 서너 개를 갈고리 모양으로 함께 묶어서 긴 낚싯대에 줄을 매달고 끝에 추를 달아 사용한다.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쟁쟁어를 낚아채는 방법이다. 뺨배를 타는 것도 쉽지 않으며, 홀치는 것도 오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있으면 쟁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날씨와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물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쟁쟁어 홀치기낚시는 앞치기와 돌려치기가 있다. 앞치기는 앞으로 당기는 어법이고, 돌려치기는 뒤로 돌려서 채는 것을 말한다. 잘 잡는 사람은 하루에 500~600마리까지 잡는다.

참고문헌 김준의 맛과 섬-순천만 쟁쟁어탕(김준, 조선일보, 2021.7.7.), 김준의 바다인문학-송어(김준, 영남일보, 2019.2.1.), 김준의 바다에서 바다를 보다-요즘 쟁쟁어는 어떻게 까탈스러운지(김준, 오마이뉴스, 2004.8.9.).

필자 김준(金準)

한국생업기술사전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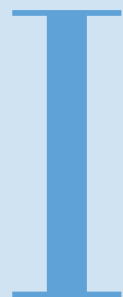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FISHERY

부록

I. 색인 II. 필자

색인





가거도멸치잡이노래	028
가공	375
가늌	619
가다랑어	030
가두리	034, 082, 607
가두리양식	608
가두릿그물	616
가락시장	168
가래소리	480
가래질소리	095
가로림만	045
가리	036, 728
가시파래	044
가오리	763
각망	477, 746
각염제	533
간고등어	377
간석지	041, 193, 364
간척	040
간통	591, 713
갈고리	100
갈치	042
갈퀴	044, 370, 761
감태	045
개닭기	754
개막이	050, 477, 745
개막이그물	144
개부름	065
개불	053
개흙	542, 590
객주	225, 378, 621, 694
갯녹음	058, 285, 287
갯바위	061, 556, 765
갯벌	061, 622, 671, 674
갯제	064, 271
갱번	056, 061, 210, 480, 660
거랭이	731
거룻배	559
거북선	727
건간망	050, 219, 250
건어물	325, 485, 657
건조	661
건착망	465
결낙	399
견지	077, 150, 154, 521, 684
견지낚시	035, 335
결정지	045
경성수산시장	167

고등어	038, 079
고래	637
고려	036
고리테그물	053, 082
고무래	362
고정자망	319
골갱이	749
공동분배	069
공동어업	499
공동어장	070, 601, 658, 660
공업	615
공유자원	479
공해	497
과메기	688
곽세	103
곽암	088, 672
곽전	089
교통수단	028
구덕	059
구석기시대	623
국가중요어업유산	324, 731
국제해사기구	282
굴	046, 097, 098, 100
굴양식	632
궁선망	105
권현망	661
균역법	504
그물	467, 617, 745
그물감	677
그물내리는소리	094
그물당기는소리	095, 480
그물추	475, 482, 715
금기	473
금어기	616
기계동력 어선	495
기선권현망	029, 237, 239, 241, 481
기선권현망어업	730
기선저인망	134
기세	674
기세작업	409
기수역	403, 564, 570, 609, 714
길그물	033, 053, 084, 142, 616
김양식	065, 121, 122
깡	379
꼰사	043
콩당배	310, 403
콩지배	477
꿀그물	105
꿀낚시	493, 554

니은



나루터	137, 167
나룻배	137, 138, 347
나일론	468
나잠어업	392, 468
낙망	033, 106, 616
낙지가래	066
낙시	030, 035, 135, 147, 152, 467, 611, 650
난류	755
난치	685
난호어목지	349, 611, 728
낭장망	241, 297, 309, 477, 655, 746
낭장망류	105
내수면어업	329, 604
냉장	379
노동요	046
노젓는소리	094
누테	685

디글



담치	765
당그레	362
당신앙	478
닷	261
닷배노래	480
닷자망	134
대낙시	493
대망류	084, 106, 142
대모망	033, 106
대부망	033, 106
대파	046, 085
덕장	076, 769
덕판배	477
덤장	250, 338, 477, 745
독다물	300, 598
독도	742
독살	064, 338, 477, 599, 744
돌림낙시	575
돌미역	057, 091, 114, 562, 710
돌살	679
돔보낙시	546, 547
동국여지승람	227
동죽호미	067
돛	727
두릿그물	105

들그물	105, 676
들망	204, 690
등대	640
떼배	477, 563
뗏목	477
뚝	658, 660
뜰채	658, 680, 732, 743
뚝북	368

리을



람사르습지	063
루어	035, 149, 343

미음



마을어장	291, 327, 579
망둥이	647
망사리	220, 619, 701, 749
망쟁이	223
맞잡이	646
매생이	044
매생이제	065
맨손어업	054, 057, 068, 695
머구리	595
멍에고사	740
멍탕구리배	049, 132, 231, 477, 610
면허어업	463, 500, 639, 738
멸치잡이	028
멸치젓	377, 614
명태	325, 769
명태잡이	152, 242
모릿줄	233
목도	530
무동력선	050, 602
무레꾼	247
무자위	253, 396
무주물선점	498
문어단지	616
물돛	054
물때	059, 258, 339, 399, 610, 619, 628, 629, 747
물소종이	749
물돛	749
물적삼	749
물질	059, 140, 264, 618, 619, 701, 750
미끼	195

미역	072
미역바위	057, 089, 091, 191, 409, 672
미역발	409
민물낙시	407
밀물	159, 229

비읍



바다숲	045
바닷길	724
바이오플락	574
바지락호미	066
반구대 암각화	081
반두	730
발돌	321, 322, 355, 585
발막	157, 298
발통	156
방렴	688
방조제	040
배	049
배고사	124, 645, 668
배목수	048
배무이	740
배서낭	473
배연신곳	123, 631
배타적 경제수역	283, 567, 742
배후리	679
벧사공	137
벧사람	604
범선	725
법성포	696
별신곳	514
보메	528
보조선	351
보합법	096
붕기	477
붕절망	202
부계	647
부정치기	474
부표	255, 553
불법 어구	289
빗창	749, 765
빙어선	346, 380, 559
빨배	130, 316, 676, 695, 774

시옷



사니질	294, 312
사돌	646, 680
사리	269, 339, 646
산가람	494
산호초	756
살망	714
살살이	547
삼봉낙시	516, 526, 684
상고선	391, 527, 559, 719
상군 해녀	328
상품화	661
새만금	041, 308
새우잡이	049
새우젓	614, 702
생선젓	460
서유구	248
서해안배연신곳 및 대동곳	631
석방렴	300, 486
석수어	629
선망	108, 466, 636
선세	103
선원	049, 617, 664, 668
선장	232
설망	105
세종실록지리지	227, 376, 629, 647, 719
소금	036, 045, 085, 459
소금가마	528
소금 전매	037
소금창고	045, 325
소나	470
소중이	753
소파	046, 085
속신	473
손틀어업	602
송지식	290
수경재배	456
수산물산지위판장	380
수산시험장	635, 757
수산조합	500
수온	161
수조	574
수질오염	292
수협	378, 657, 659
송어	690
습지보호지역	063
승망류	082, 106, 143
시장	096
신고어업	738

신석기시대	624, 644
신증동국여지승람	376, 666, 719
썰물	159, 229
쭈리질	575

이응



아귀	458
안강망	043, 131, 132, 468, 477, 611, 630, 655, 663, 746
암각화	721
액젓	127, 235
양반들	090
양식어업	031, 476
양식업	377
양식장	390
양조망	203
양화진	645
어간장	460
어구	105, 616, 635, 650, 663, 676
어군	030, 322, 350, 482, 515
어군탐지기	352, 482, 571
어기	342, 346
어량	104, 105, 467, 498, 536
어레미	277
어로문화	658
어로요	085
어망	104
어망추	110, 561
어민	256, 479
어보	152
어살	225, 299, 467, 616, 630, 679, 736
어선	635, 649, 652, 653, 668, 670
어세	103
어시장	700
어업	377
어업권	173, 234, 672, 737
어업노동요	344
어업령	502, 639, 672
어업법	498, 638, 738
어업전관수역	741
어업조합	500
어염세	103, 534
어유	615, 635
어장	105, 616, 619, 652
어전	050, 104, 105, 468, 475, 655
어족자원	618, 658
어초	506, 507
어촌	162, 296, 672

어촌계	216, 329, 476, 659, 673, 754
얼음	332, 334, 335, 516
얼음끝	335
엄망	186
여지도서	228
연안어업	476
연평어장	664
연평파시	719
염간	577
염도	183
염막	540
염세	103, 363, 505, 576, 577
염전	085, 169, 665, 684
염호	534, 535, 536
영유권	742
오리	370
오주연문장전산고	237
오징어	652, 727
외줄낚시	035, 493, 630
용신제	138
용왕굿	374, 749
용왕밥	375
용왕제	071
우해이어보	612, 614
운반선	391, 694
원양	636
원양어선	030
원양어업	476, 497, 758
위어	564, 568
위판장	657
유네스코	620
유령어업	709
유어	187
유엔해양법	567
유엔해양법협약	385
유영층	335
유자망	688, 769
유적	623, 677
인공어초	283, 302, 508
인공종자	289
임경업	301, 305
임원경제지	231, 237
임통	051, 300
입어권	507, 754
입호권	511

지



자동선별기	731
자루그물	053, 761
자리돔	690
자망	035, 105, 242, 477, 617
자무질	487
자산어보	227, 289, 348, 545, 612, 614, 632, 647, 678
자염	360, 485, 528, 537, 540, 590, 713
작살	370, 407, 525, 584, 611, 677
작살잡이	560
잠녀	748
잠수굿	749
잠수기	642
잠수복	620
잠수부	047, 673
장생포	722
장아찌	666
장어잡이	646
재첩국	734
저수지	040
저온유통	697
저인망	108, 486, 716, 717
적조	287, 574, 604
전복	331, 606, 607
전어	093, 465
전어지	152, 661, 663, 678
전오염	537
전오제염법	341
전통어로	318
젓갈	459, 613, 657, 660
젓중선	477
정선망	178
정약용	249
정어리	465
정치망	033, 084, 142, 403, 457, 477, 746
제방	040
제빙	334
제염	687
제염법	364
조간대	050, 290, 307, 409, 491, 555, 679, 705, 770
조개무지	074, 632
조경수역	506
조금	339
조기	719
조기심리	632
조기잡이	670
조류	159, 205
조새	100

조석	258, 339, 622
조석 간만	657
조선어업령	096
조업	159
조운선	645
조일통상장정	578, 637, 641, 737
조일통어장정	578, 638
조창	213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641
죽대	267, 277, 407, 681, 714, 730
주꾸미소호	616
주낙	035, 146, 171, 398, 492, 599, 644, 653, 764
주머니그물	664
주목망	105, 458, 475, 477, 630
주벽망	657
죽방렴	154, 477, 486, 488, 616, 660, 744
중선	662
중선망	105, 458, 630
증발지	045
지도군총쇄록	719
지선어장	329, 511
지인망	105, 772
지족해협	154
진수고사	740
집어등	080, 321, 350, 681
짓가림제	597
짬	056, 549, 562, 660
짬매기	563
쪽대	052, 646, 680
찌르개	467

치



창경바리	499, 724
창꼴뚜기	742
채그물	676, 745
채낚기	043
채롱	607
채집수렵	466
챤낚	078, 684
챤배	689
천도굿	371
천일염	046, 169, 256, 366, 395, 469, 485, 529, 538, 665
천일염업	325
천일염전	045, 256
청동기시대	624, 644
초음파	470

초크그물	329
총유	491, 512
출매선	346
측심기	471
치어	343, 526
칠산어장	197, 664
칠산파시	719
칠패시장	167

티을



테악	619, 749
테우	207
토방렴	301
통구민배	477
통그물	033, 142, 616
통나무배	712
통발	051, 132, 267, 277, 369, 611, 679, 707, 728, 746
통발계	526
통자락	591
투망	105, 617
투석식	290
특산물	472
틀방	370
틀방그물	628
틀잇대	710

피을



파시	484, 494, 631, 634, 718
판옥선	727
패각식	290
패총	358, 561, 593, 623
평화선	501
페어구	569
포경	081
포경선	722
포경업	592, 594
표주록	722
표해시말	722
풍선배	093, 670
풍어	319
풍어제	071, 119, 123
피시펄프	029

히을



하멜표류기	722
학공치	465
한국수산지	222, 662
한선	663, 699, 712, 726
한일어업협정	502, 578, 600, 638
한일통상장정	621
함수	365, 714
함수지	169
함정어법	488
함정어업	616
함지박	044
항로	726
해녀	045, 058, 059, 124, 139, 617, 621, 666, 673, 701
해녀회	752
해루질	230
해류	205
해수	161
해수면	160
해양수산부	282
해주	686
해태	189
허가어업	464, 639, 738
형망	172, 584, 603
홍합창	765
화살꼴뚜기	742
황금어장	355
황태	185, 377
회유성	312, 570, 614, 644, 650, 662
후리질	086
후릿그물	087, 486, 611, 661

필자



강경표 姜昞杓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굴양식	098
부안 곰소 천일염업	324

강성복 姜成福	충청민속문화연구소
굴밭	097
굴캐기	100
덤장	185
망둥이잡이	219
맨손어업	228
민물새우잡이	276
산가늌	342
실뱀장어잡이	402
어로문화	475
옹어잡이	564
전복따기	606
족대	646
주벅배	657
토굴새우젓	702
툃채취	706
피라미잡이	728
함정어업	744
홍합따기	765

강수경 姜受庚	제주연구원
맛잡이	226
한치잡이	742

고동환 高東煥	카이스트
경강선	078
나룻배	137
빙고	331
빙어선	333
상고선	346
수산물시전	380
시선배	390
어물전	483
운반선	559

고우진 高又鎭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조사연보	756

공용근 孔龍根	전 국립수산물과학원
다시마양식	173
매생이양식	226
모자반양식	245
미역양식	272
툃양식	704

곽유석 郭儒皙	한국섬재단
가거도배	028
강진 옹기배	048
강화 곳배	049
공댕이배	132
노두	166
떼배	207
섬	357
섬의 날	360
통영 통구민배	712
포경선	721

구선희 具仙姬	전 국사편찬위원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642

권유리 權裕利	국립해양박물관
수산시험장	382
순직선원위령제	388
어촌지도소	514
조선수산공진회	635
해외선원묘지	758

권태훈 權泰勳	인제군문화재단
빙어잡이	334
산천어잡이	343
썰게	409

김건수 金建洙	목포대학교
미끼	268
어망추	482
작살	592
조침	643
찌르개	677

김경옥 金京玉	목포대학교
조행일록	644
지도총쇄록	667
표해록	722

김경완 金京完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간척지	040
민어잡이	278
방파제	301
섯등	361
신안 천일염업	393

김도현 金道賢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돌김채취	189
뜰채	210
미역물주기	269
민물김채취	275
연어잡이	525
은어잡이	575
주문진수산시장	656
짬	672

김우철 金友哲	경희대학교
신증동국여지승람	400
여지도서	522

김준 金準	광주전남연구원
감태채취	044
개트기	055
갯것	056
갯닭기	057
갯발	061
갯벌	062
갯살림	067
김양식	117
입호제도	579
통영·거제 건내량 돌미역 채취어업	709
홀치기낚시	774
김진백 金鎭白	동명대학교
빙장선	335
사재감	340
수산물이력제	381
위어소	568
의염창	577
출매선	694
김창일 金昌一	국립제주박물관
고등어잡이	079
기선권현망	115
대구잡이	180
돌미역채취	190
문어잡이	255
반지잡이	296
연평도 조기어장	527
울진·울릉 돌락 떼배 채취어업	562
김효경 金孝慶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낙시함지	152
도루묵잡이	187
미거지잡이	265
지누아리채취	665

나승만 羅承晩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093
선원	353
어로요	479
중선배	663
짓가림	670
풍선배	725
남효선 南孝銑	뉴스핍통신
건오징어	076
뜸북	212
손꽂치잡이	368
오징어잡이	546
오징어채낚시	547
집어등	669
푸름	724
피데기	727
류건욱 柳建旭	국립민속박물관
나침반	140
노량진수산시장	167
류정곤 柳廷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냉수대	160
바다목장	282
바다숲	285
바이오플락	291
스마트양식	389
아쿠아포닉스	456
어초	508
유령어업	568
유영층	570
적조	604
콜드체인	697
피쉬펌프	729

류창호 柳暢浩	인하대학교박물관
고무래	085
소금가마	362
소금창고	366
연안부두어시장	524
염막	528
염부두	532
증발지	665
해주	759
명정구 明正求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만	218
어항	515
해류	754
문혜진 文慧珍	동서대학교
자갈치시장	582
청어잡이	687
박민우 朴民祐	수진회 한국수계산업연구소
가두리식양식어업	031
수조	386
양식업	461
육상수조식양식어업	573
채롱	681
채묘장	682
축제식양식어업	692
혼합식양식어업	762
박정석 朴正石	목포대학교
강굴캐기	046
꽃게잡이	132
마을어장	215
어로장	481
우뭇가사리채취	555
이주어촌	578
잠수기어업	594
잠수부	596

장어잡이	599
통발	707

박종민 朴鍾珉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갯바구니	059
굵개	112
김발틀	117
김재단기	120
김조리	121
김틀	122
까꾸리	124
낫대	158
멸치채반	241
부게	323
젓독	613
태안어시장	700
통자락	713

박종오 朴宗福 전남대학교	
가물치잡이	035
갈치잡이	042
꼬막캐기	129
꿀뚜기잡이	131
꿀낚시	135
낙지가래	144
낙지잡이	145
낙지주낙	146
멍탕구리배	231
메기잡이	232
문어단지	253
물메기잡이	261
뱀장어씨레	311
뱀장어잡이	312
보성 뽕배어업	316
빈매	329
뽕배	337
섯구덩이	360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	397
쏙잡이	407
액젓	459
여수수산시장	520
조개씨레	627
주꾸미소호	648

죽방멸치	660
짬뽕어잡이	674
참게잡이	678
홍어잡이	763

박종익 朴鍾翼 한밭대학교	
다슬기잡이	171
동자개잡이	195
민물가재잡이	274
붕어잡이	328
쏘가리잡이	406
우렁이잡이	554
자라잡이	583

박종화 朴鍾和 전 국립수산물과학원	
다랑어주낙	170
면허어업	233
신고어업	392
어업	496
원양어업	565
주낙	650
주낙배	653
허가어업	760

박희연 朴喜鍊 전 국립수산물과학원	
건어물	074
멸치젓	239
새우젓	349
수산물가공업	375
어장 魚醬	507

배봉성 裵俸晟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리테그물	082
그물	104
낙망	142
두릿그물	201
쪽지그물	676

배영동 裵永東 안동대학교	
간고등어	038

서석준 徐碩浚 해양수산부	
바다내비게이션	281

서종석 徐鍾石 부경대학교	
바다식목일	287
해양보호구역	755

서종원 徐鍾源 도봉학연구소	
넙건지기굿	162
붕기	319
안강망	457
어구	466
주목망	654
초망	689
칠산 조기어장	696

손정수 孫正洙 국립민속박물관	
덕장	183
황태	769

송화섭 宋華燮 중앙대학교	
고래잡이	081
동호리 동호 영신당제	197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560

신종근 辛鍾根 전 국립수산물과학원	
그물감	106
덮그물	186
봉절망	322
선망	350

쌍끌이기선저인망	404
양조망	465
어군탐지기	470
어탐선	515
외끌이기선저인망	551

심재옥 沈在昱	재일제주인센터
정어리잡이	614

안덕임 安德任	한서대학교
조개무지	623

안미정 安美貞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무레군	247
햇바리	770

오봉세 吳捧世	디케이해양
꼬막양식	128
바닥식양식어업	289
바지락양식	293
수하식양식어업	387
전복양식	607
종자채묘	647
홍합양식	766

오창현 吳昌炫	목포대학교
낭장망	159
망선	221
멸치잡이	236
조기잡이	629
중선망	661

우승하 禹承河	국립민속박물관
여울견지	521

유승훈 柳承勳	부산시
염업	536
염전	539
자염업	590

윤경식 尹璟植	국립민속박물관
완도 지주식 김 양식업	549

은현정 殷賢貞	국립민속박물관
손틀방	369
조개방	626

이경미 李敬美	전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마산어시장	213
망쟁이	223

이경엽 李京燁	목포대학교
수륙제	371
파시	718

이관호 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미꾸라지잡이	266

이근우 李根雨	부경대학교
조선국원산출장복명서	633
조선수로지	634
조선어업협회순라보고	636
조선통어사정	636
조일통상장정	640
한국수산지	734
한해통어지침	743

이동아 李東娥	문화살림연구원
노	164
닷	175
돛	199
배목수	302
상앗대	347
키	699
한선	739

이란섭 李蘭燮	국립민속박물관
적도제	604

이상고 李相高	부경대학교
금어기	113
바다휴식년제	288
총허용어획량	690

이영학 李永鶴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어업령	500
조일통어장정	641
한국어업법	737

이윤선 李允先	서남해향토문화연구원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249
방렴	299
장어갈퀴	598
칠게잡이	694

이정신 李貞信	한남대학교
곽소	088
어량소	472
염소	535

이중구 李重九 [안동대학교](#)

건미역	072
노반계	168
대게잡이	179
어촌계	510

이혜연 李惠燕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강고	045
갯벌떠오기	065
갱번	069
거문도 풍어제	071
곽암	089
곽전	091
다대기	169
대름	183
돌비	209
뚝	209
물꼬망치	256
미역부름	271
어민	485
염도계	527
염바가지	529
염부삽	533
재건	601
조선다도해여행각서	633
주비	658

장정룡 張正龍 [강릉원주대학교](#)

고성 어로요	085
나룻배싸움놀이	138
설망 축원굿	356
속초시 청호동 수살굿	366
수망굿	374
제따먹기	617

전경호 全京浩 [국립해양박물관](#)

박신장	294
조새	632

전우홍 全遇泓 [미해군해상수송사령부](#)

관천망기	092

정광중 鄭光中 [제주대학교](#)

소금빌레	364

정명현 鄭明炫 [임원경제연구소](#)

난호어목지	152
오주연문장전산고	543
우해이어보	556
자산어보	587
전어지	610

정명훈 鄭明勳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가공선	029
개불잡이	053
갯마중	058
군산수산물종합센터	096
글그물	134
냉장선	161
망주	224
백합그레	307
뱃길	314
볼락잡이	318
써개	405
어선	492
유자망	572
전어잡이	608
정치망	615
트롤망	715
트롤선	717
틀방그물	717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731
형망	761
후릿그물	772

정연식 鄭演植 [서울여자대학교](#)

각염법	036
균역법	101
어염선세	503
염세	533
의염색	576

정연학 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갯벌호미	066
까나리잡이	125
남해 죽방렴어업	154
동죽캐기	196
명태잡이	241
무자위	251
발막	298
밴댕이잡이	309
복어	325
어로금기	473
염부	530
진수식	668
천일염업	684

조삼광 趙三光 [국립수산물박물관](#)

몰잇그물	246
선자망	355
엷애그물	518
자망	584

조숙정 趙淑晶 [서울대학교](#)

물때	258
반농반어	295
사리	339
상어잡이	348
어장 漁場	506
조간대	622
조금	628

조윤수 趙胤修	동북아역사재단
배타적경제수역	306
어업전관수역	501
한일어업협정	741

좌혜경 左惠景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나잠어업	139
동김녕 잠수굿	194
망사리	220
물돛	262
물질	264
바깥물질	280
바당발	290
불턱	327
빚창	330
삼달리 어업요	343
제주 해녀어업	617
제주도해녀어업조합	620
테왁	701
해녀	747
해녀회	753

주강현 朱剛玄	정발학연구소
가두릿그물	033
개막이그물	050
그물어업	109
닷배그물	178
돌살	192
등대	205
어살	488
어살계	491
채그물	679

차봉진 車奉眞	국립수산물과학원
들그물	204
붕수망	321
손들망	369
채들망	681

채동렬 蔡東烈	경남연구원
수산물산지위판장	378
수산업협동조합	383
어업권	498

최병택 崔柄澤	공주교육대학교
조선해수산조합	637

최은수 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해녀고무잠수복	751

최재성 崔在聖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어업조합	502

편성철 片成哲	지역문화연구소
가다람어채낚시	030
거남	070
견지낚시	077
대낚시	181
멸치액젓	235
밀그물	279
사돌	338
삼봉낚시	345
송어잡이	370
얼음꿀	516
얼음낚시	517
오리	542
외줄낚시	553
잉어잡이	581
챤낚	683
투망	714
황복잡이	767

하응백 河應柏	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낚시	147

한효주 韓孝宙	국립민속박물관
수산인의날	385

홍태한 洪泰漢	전북대학교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풍어제	123
배연신굿	304

황경숙 黃京淑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물돛배	257
재첩잡이	602

자문위원

곽유석(한국섬재단)
김도현(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김명자(안동대)
김문기(부경대)
김준(광주전남연구원)
김진백(동명대)
김창일(국립제주박물관)
박종오(전남대)
박진일(국립수산물과학원)
송기태(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안미정(한국해양대)
오창현(목포대)
이귀영(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주용기(전북대)
홍순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감수위원

김명자(안동대)
김진백(동명대)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



Encyclopedia of Korean Livelihood Systems

FISHERY

